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청년세대’담론 속에 없어진 ‘청년 쿼어’의 삶 드러내기 - 청년으로서의 독립, 쿼어로서의 불안 - 강동희, 이권우, 이연학	1
대형 복합상업시설과의 결합을 통한 청년문화공간의 지속성, 다양성 확보 김예람, 박재우, 이지윤	21
학자금대출로 발생하는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 : 상환과 삶의 안정성, 그 균형을 위하여 강지원, 남궁정, 한상규	67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본 청년 주거사 :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주택 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마민지, 김예빈	91
청년창작자들이 만드는 도시형장터의 양적, 질적 현황조사 박주연, 정은빈, 류덕희, 송효웅	127
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대안적 창작공간 공급모델 연구 백지연, 김소령, 최윤하	179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 경험 탐구 :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과 성남시 청년배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송하진, 우성희	213
청년 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이다슬, 황서연	283
2016년 남성중심적 대학문화와 변주하는 여성성 :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정서인, 류희정, 이영해, 장수지, 조훈제	343
나는 여성인가, 장애인인가, 청년인가 :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서윤, 문영민	405
결혼하지 않는 가족 - 2,30대 청년 비혼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기경서, 윤유리, 이예진, 이준영, 황윤지	447

‘청년세대’ 담론 속에 없어진 ‘청년 퀴어’의 삶 드러내기

청년으로서의 독립, 퀴어로서의 불안

강동희 이권우 이연학

●
본 연구는 이성애/남성 중심의 ‘청년세대’ 담론의 논의가 비정상화하며 배제하는 LGB 청년의 삶의 양식과 의미 그리고 불안을 조명하여 기존의 ‘청년세대’ 담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LGB 청년들에게 필요한 제도,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세대’ 담론 속에서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결혼/가족에 있어 주안점을 주고 연구하고자 한다. LGB 청년의 실제적인 삶과 감정을 조명하는 것은 새로운 ‘청년’의 삶 형성하는 LGB 청년의 삶을 의미화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성애/남성 중심의 ‘정상적’ 청년세대담론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고, LGB 청년의 삶이 청년으로서의 삶으로 승인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 탐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청년세대담론 속에서 젠더, 섹슈얼리티의 차이와 교차하며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들을 의미화하고 실천되는 경제적 자립, 사랑의 실천, 가족, 결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LGB의 경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이성애/젠더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평등하고 선택하는 삶의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구

성은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별개로 진행되는 독립된 사회가 아니므로 이성애규범성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없다. 이성애규범성과 지속적으로 협상,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양태를 가시화하고, 또한 청년이라고 호명되는 집단 안에서도 균일하지 않고 다양한 집단이 존재함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 때 LGB 내부의 사회적 자원, 젠더 등의 문제를 통해 다양하게 발현되는 것에 주목하면서, LGB의 청년으로서의 삶의 서사를 분석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LGBT’, ‘성적 소수자’라는 말 대신 성적 소수자의 일반과 집단성을 강조하는 단어인 ‘퀴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며, 본 연구가 ‘퀴어’ 청년 집단의 특성을 보이기 위한 단초 제공에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청년세대’담론 속에 없어진 ‘청년 퀴어’의 삶 드러내기

— 청년으로서의 독립, 퀴어로서의 불안 —

강동희, 이권우, 이연학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연구방법
- III. 이론적 고찰
 - 1. 이성애 규범/친밀성으로부터 배제된 퀴어 친밀성
 - 2. 퀴어의 친밀성은 가족제도 외각에 존재한다.
- IV. 사례 분석
 - 1. 경제적 자립과 퀴어의 정체성, 섹슈얼리티
 - 1) ‘잘 사는’ 선례의 부족
 - 2) 계급: 안정/불안정 사이에서
 - 2. ‘정상적인’ 가족, 관계망에서의 독립
 - 1) 독립과 의존
 - 2) 우정과 공동체를 통한 비규범적 친밀성
- V. 글을 마치며

I. 들어가며

오늘 날, 우리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 규모의 지원 사업이 서울, 성남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청년’의 호명은 누구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청년세대’담론을 보자. 각종 N포세대, 비정규·불안정·저임금 노동문제, 결혼, 취업, 주거, 출생¹⁾ 문제 등은 어떤 ‘청년’의 문제일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전 생애주의를 관통하는 문제로 비정규·불안정 노동이 있을 것이

1) ‘출산’이라는 어휘는 여성의 몸을 생산의 도구로서 인식한다는 판단에 출생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다. 비정규직 노동에 있어서는 2016년 기준 32.8%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1/3 가량이 비정규직노동자이며,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은 남녀 간에 차이가 큰데, 남성노동자의 경우 2016 기준 26.4%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성노동자는 41%가 비정규직이다.²⁾ 세대별로도 보더라도 전 생애주기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불안정·저임금노동에 놓인다. 따라서 ‘청년세대’담론은 여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에 속하는 퀴어를 보자. 퀴어는 더 간결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출생, 가족 구성 등 많은 것이 애초에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위치성과 삶을 ‘청년’이라는 명명으로 단일한 집단으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 특히, 퀴어의 경우는 다른 삶의 양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성애 생애주기에서 벗어난 생애주기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퀴어들은 성적 지향을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성애 규범성 안에 포섭될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이성애 규범성/친밀성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불안과 다양한 감정의 동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우리는 퀴어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청년세대’담론의 문제점으로 이성애/남성 중심의 생애주기를 ‘청년’으로 호명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청년’이 호명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율의 감소, 저출생의 문제, 노령 인구의 증가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 즉,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청년’을 호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년세대’담론은 노동, 결혼, 출생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 노동과 결혼, 출생의 문제는 여성과 퀴어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청년’집단 안에서 이러한 존재들을 지울 수 있던 것은 이성애/남성 중심의 생애주기로 논의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양질의 노동시장에 유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쉬웠던 남성들의 문제이고, 결혼과 출생은 혼인권 등,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던 이성애자들에게만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성애/남성 중심의 규범성과 친밀성의 균열을 내는 것이 청년 퀴어를 가시화하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애 친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응으로 퀴어의 친밀성을 조명해본다. 특히, 퀴어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문화·사회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동성애 친밀성을 통해 더욱 이성애 친밀성을 균열을 낼 수 있고 본 연구의 의의 역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청년세대담론’은 젠더의 관점이 아닌 문화론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이성애 규범성/친밀성에 대한 비판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퀴어의 친밀성에 대한 경험 연구는 여전히 부재하며, 퀴어의 친밀성은 실제적 사례의 분석이나 퀴어 내부의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주제로한 연구들 보다는 퀴어를 소수자 집단으로 단일하게 사고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퀴어의 친밀성을 억압하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 편견, 차별을 포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 8월

함한 사회적 환경을 드러내고, 이성애 규범성/친밀성을 정상화하는 ‘청년세대’담론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의 질서와 담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생긴다. 퀴어의 친밀성 실천은 이성애 규범적 관계 밖에서 비규범적인 친밀성을 구성한다. 이는 질서를 형성하는 퀴어의 삶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성애 중심의 ‘정상적’ 친밀성 규범을 탐구하고, 퀴어의 다양한 친밀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유하는 토대이다. 무엇보다, 퀴어들이 만들어가는 친밀성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승인, 지지 등 사회적 수용 외곽에서의 삶들이 경험하는 차별, 불평등을 가시화하는 것이며, 이성애 규범적 친밀성으로 포섭될 수 없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다양한 비규범적인 삶의 실천, 관계적 실험의 조건을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를 위해서, 퀴어에게 있어서 다양한 친밀성 실천들을 살피며, 엄연히 이성애 문화·사회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하는 퀴어의 친밀성 실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퀴어가 경험하는 소수자의 위치는 친밀성 실천에서 탈 규범화, 비정형화된 형태를 구성하며 사회의 이성애 규범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모델의 실천 가능성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이성애 규범적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 관계의 위기, 삶의 불안정성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퀴어의 친밀성은 섹슈얼리티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급, 연령, 젠더적인 위계와 결합되어서 형성되어가는 삶의 지형 전체를 드러내는 영역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 퀴어의 삶이 존재하고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조명, 호명이 무의미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퀴어의 친밀성이 이성애와 퀴어의 고정된 이분법으로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성애 규범적인 삶의 모델과 퀴어로서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들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경합하고 재구성되며 지속적으로 가변되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인 독립의 어려움과 공적인 곳에서의 배제의 가능성은 삶의 모델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 이성애 규범과 결합되는 퀴어의 친밀성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퀴어의 계급, 연령, 섹슈얼리티의 차이와 교차된 친밀성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의미화되고 구성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퀴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퀴어들이 유사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퀴어의 친밀성의 경험, 그리고 관계맺음의 방식과 내용들은 계급, 섹슈얼리티 등의 차이와 교차하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애 규범적 실천의 외곽에서 발생하는 독립과 관계 맺음에 대한 방식의 사회적 맥락 및 개인의 감정의 동향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퀴어들의 친밀성이 이성애 규범적 친밀성과 어떻게 경합하고 타협하는지, 때로는 도전하고 균열을 만들어 내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친구, 공동체 등에서의 친밀성 실천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경계 지어져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구분 짓고 실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감정에 이를 윤리적,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이성애 규범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LGB의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열어놓되 구체화되고 풍부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성적 지향이라는 섹슈얼리티, 직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남성별로 1회, 여성별로 1회 진행했다. 포커스집단 인터뷰는 LGB 사이의 차이, 그 내부의 삶의 실천 방식의 차이, 차별과 장벽을 대하는 모습들의 차이들을 드러내고, 참가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생산적인 결과물을 기대하였다. 인터뷰는 개인이 그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 얻은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맥락화함으로써 퀴어 친밀성의 실천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실천을 위한 법·제도 등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10명이며, 그 중 게이는 4명이고, 레즈비언은 3명, 바이섹슈얼은 3명이다. 연령에 있어 30대보다는 20대 이후로 면접참여자를 제한하고자 했으며, 그 이유는 혈연가족으로부터 독립을 고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새로운 공동체 구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의 대상자들이라고 판단했다.

면접참여자 모두 인터뷰 시간은 대략적으로 3시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중 이후 필요해 이해 개별적인 추가 질문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인터뷰는 스터디카페, 인권단체 사무실을 대여해 진행했으며 인터뷰 참가자의 이름 대신 가나다의 표기로 처리하였다.

		면접방식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이	직업	학력
1	가	FGI	동성애(게이)	시스젠더 남성	21	대학생	고졸
2	나	FGI	동성애(게이)	시스젠더 남성	23	대학생	고졸
3	다	FGI	동성애(게이)	시스젠더 남성	28	회사원	대졸
4	라	FGI	동성애(게이)	시스젠더 남성	22	회사원	고졸
5	마	FGI	동성애(레즈)	시스젠더 여성	23	대학생	고졸
6	바	FGI	동성애(레즈)	시스젠더 여성	25	대학생	고졸
7	사	FGI	동성애(레즈)	시스젠더 여성	27	구직중	대졸
8	아	FGI	양성애	시스젠더 여성	29	회사원	대졸
9	자	FGI	양성애	시스젠더 남성	23	대학생	고졸
10	차	FGI	양성애	시스젠더 여성	22	대학생	고졸

표 1. 면접대상자 정보

면접대상자는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LGB만 선정하였다.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 것은 성적 지향은 커밍아웃하지 않는 이상 숨기고 이성애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이성애 규범성/친밀성의 경합이 더욱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차성을 충분히 드러

낼 수 있도록, 계급, 젠더의 차이를 고려하여 면접대상을 선정하였으나, 다양한 교차성을 조명하기에는 성별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정밀한 연구 설계가 되지 않았음이 이 면접 진행의 한계 점이다. 또한 면접 대상자의 수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Ⅲ. 이론적 고찰

1. 이성애 규범/친밀성으로부터 배제된 퀴어 친밀성

기든스는 친밀성 문화 변동의 주체로 동성애자들을 언급한다.(Giddens, 1992) 동성애자들의 경우, 친밀성을 규율하는 이성애 규범성/친밀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평등하고 선택하는 친밀성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자들은 관계의 친밀성을 개별적으로 언어화/의미화해야하고, 그 의미를 관계 속에서 협상해야 하며 선택해야 한다. 기든스는 사회적인 조건, 환경, 제도적, 규범적 가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개인—특히 동성애자들—을 상정하면서 이를 통해 좋은 친밀성을 이론화한다. 독립적인 두 주체간의 소통, 자아중심의 친밀성은 좋은 친밀성으로 설명된다.

기든스에게 있어 규범으로부터의 독립과 상호 관계의존으로부터의 독립은 좋은 친밀성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성애 규범성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향한 이데올로기, 편견 혹은 포비아를 형성하는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상적이며 행복한 삶의 모델과 방식을 규율한다. 이러할 때, 퀴어들의 실천방식은 삶의 모델의 부재와 실천 방식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퀴어의 친밀성은 이성애 규범적인 실천 밖에 존재하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퀴어들은 사회적 배경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하며, 관계를 선택하고 친밀성을 실천하는 기준 또한 상대적으로 덜 규범화, 정형적이지 않는 형태를 갖게 한다. 그러나 퀴어들은 기존에 성별화된 불평등(이성애 규범성)에 근거한 의존과 다르게 상호 평등함에 근거한 독립적인 관계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동시에, 삶의 모델의 부재와 커뮤니티 등 집단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인 배제, 폐쇄적인 관계로 인해서 친밀성을 실천하는 대상에게 더 의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퀴어들은 독립적인 사랑의 주체, 관계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가능성을 내제하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승인이 수반되지 않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없거나, 의미화될 수 없는 퀴어의 친밀성을 실천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세대’담론 속에서 청년 퀴어는 사라지게 된다.

모든 ‘청년’이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로 상정되고, 이성애적 생애주기가 정상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청년세대담론’ 속에서 퀴어들이 엄연히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독립의 어려움, 공적인

공간에서의 배제와 친밀성 실천의 규범성의 부재의 문제는 사라지고 숨겨지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성애 규범적 친밀성에 정확히 어디에도 맞지 않는 퀴어들의 친밀성은 이성애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자율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성애 규범적 친밀성의 위계와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구성되고 위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퀴어의 비규범적 친밀성 실천과정을 포착하는 것은 단순히 친밀성의 변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차별의 불평등함을 가시화하는 과정이며,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 집합적인 실천의 구조적 조건을 조명하는 것이다.

2. 퀴어의 친밀성은 가족제도 외각에 존재한다.

퀴어의 친밀성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일 것이다. 국가 이성애주의(Berlant · Warner, 1998:550) 사회에서 친밀성의 재구성은 규범화된 이성애로서 실현된다. 따라서 각종 친밀성의 실천 방식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국가의 기본 조직 단위가 되고, 가족형태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국가 이성애주의(Berlant · Warner, 1998:550) 사회에서 친밀성의 재구성은 규범화된 이성애 가족형태, 우정의 방식, 사랑의 방식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서구사회에서 대안적인 친밀성에 대한 논의는 대안적인 가족들의 등장을 매개로 시작되었다(Gillies, 2003). 1980년대 이후,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을 벗어나는 가족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가족, 선택으로서의 가족, 친구 가족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동성애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친밀성의 수행이 성별화되는 이성애 규범성을 해체하면서 우정, 동반자, 가족 등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설정되는 다중적 관계를 생산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친구, 애인, 결혼, 가족 사이의 친밀성 실천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경계 지으며 이를 윤리적,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이성애 규범에 개입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택하는 가족 또한 커플 중심이나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웨스틴은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안적인 가족/친밀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실천으로 조망하게 되었으며, 친구, 애인, 파트너, 성애적 관계등에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혹은 어떤 관계가 가족인가)의 의미는 개인들마다 다르고,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가시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동성애 친밀성을 가족으로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정/사랑, 결혼,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성애 친밀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된다.

국내에서도 이성애 결혼/가족 중심의 친밀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새로운 관계 윤리-평등함-에 기초하는 친밀성이 여성주의 내부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친밀성을 젠더화된 규범 및 실천과 연결시키는 여성학적 논의는 가족의 위기/변화를 젠더불평등에 기초한 이성애 결혼/가족친밀성의 위기/변화로 보며, 이와 함께 젠더, 계급, 인종, 국가, 섹슈얼리티의 차이와 교차하며 형성되고 협상되는 가족/친밀성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문소정, 2008). 중산층의 가족 이데올로기(김현미, 2006), 계급과 친밀성(조은, 2008)에 대한 논의들은 친밀성을 둘러싼 차이들과 차이들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포착하고자 하는 인식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누구

나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에서 배제되었던 동성애자들의 시민권, 인권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실천으로서 모색되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반대로서 동성 가족/친밀성 인정 문제가 강조된다. 또한, 가족구성권의 논의를 커플 중심이 아니라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가진 주체들로 확대를 제기하면서,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동성애 친밀성에 대한 경험연구는 여전히 부재하며, 개인의 삶에서 젠더, 계급, 연령, 섹슈얼리티가 교차되면서 구성되는 동성애 친밀성의 다양성을 보다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성애 친밀성에 대한 서구의 논의는 커플 중심의 동성애 가족/친밀성 논의부터 벗어나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족들/친밀성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권력관계 속에서의 차이의 차별, 불평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사적인 선택의 영역만을 가시화하며 친밀성의 변동을 개인화하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가족/친밀성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강조는, 선택을 제한하는 계급, 젠더, 등의 사회적 차이를 비가시화한다. 또한 젠더, 세대, 사회적인 자원의 차이 속에서 독립적인 삶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주체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이 강화되며, 동성애 친밀성에 연루되는 이성애 규범성의 작동 또한 효과적으로 규명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동성애 친밀성을 선택하는 가족이나 대안적 친밀성으로만 가치평가 하는 데 그칠 경우, 동성애자들의 선택이나 얼마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협상되는 것인지는 탐구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동성애 친밀성을 동성애 파트너쉽이나, 가족구성권으로 한정시키게 되면 가족 범주를 넘어서거나 해체하는 동성애 친밀성의 다양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은 사적인 권력의 차이에 따라 동성애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나 이성애 규범과 맺는 관계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중심으로 동성애 친밀성의 흐름이 중요한 축으로 설정할 때, 장기적, 안정적인 관계적 모델이 이상화되는 한계를 노출한다. 특히 제도적 동성결혼이나 가족구성권이 이상적인 동성애 친밀성의 모델로 점유될 때, 제도적모델을 따라가지 않는 혹은 선택할 수 없는 삶은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의 시선에서도 실패의 삶으로 규정될 수 있는 위험성 존재한다.

따라서, 비규범적 친밀성은 동성애자 내부의 사회적인 자원, 나이, 젠더에 따라서 단일한 모델이나, 유사한 삶의 여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의 모델의 부재와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국가의 승인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이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배제, 실패의 가능성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대안적인 삶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비규범적 친밀성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

IV. 사례 분석

1. 경제적 자립과 퀴어의 정체성, 섹슈얼리티

1) ‘잘 사는’ 선례의 부족

“소위말에 성공한 게이도 없어요. 극히 드물고 있더라도 다수가 외국 사람들이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게이나 성소수자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고 성공했다는 점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나의 정체성을 숨겨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죠. 사회는 점점 혐오적으로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 - 대학생 ‘나’ -

“성공한 퀴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인권활동 하는 몇몇 전문직 사람들, 변호사들이 전부였어. 편하게 말해서 일반사람들 중에 있어? 너 알아? 나는 몰라.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서로의 정체성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해? 커뮤니티를 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알고 있으면 좀 알려줘(...), 그리고 변화사나 활동가를 보면 대부분이 게이, 남성퀴어들이라. 우리 레즈비언들은 뭘하고 있는 것일까. 어디에 있을까...” - 대학생 ‘사’ -

FGI를 진행하는 중에서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 때문에 나온 질문들이라고 했다. 퀴어들의 경제적 활동이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이성애자라고 생각되는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사회에서, 집합적인 경험으로 공유되지 못한 채, 사회에서의 경험을 집합적인 경험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퀴어의 삶은 이성애자와 다르게, 종종 ‘소문’으로 확인되고 공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으로 조명되고 쉽게 사라진다. 이러한 소문들은 퀴어로서의 삶을 집합적인, 공동체의 경험으로 상정하며, 개인의 경험으로 되는 것에서 오는 불안과 감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든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FGI에서는 모든 인터뷰이들이 게이로 대표되는 남성퀴어들이 성공한 퀴어로 많이 비춰지고 공유되는 반면에, 레즈비언이나 여성퀴어들의 존재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서 청년 퀴어 안에서도 엄연히 젠더권력이 작동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위치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현재 자신의 불안의 감정과 연결 짓는 양상을 보였다. 준거 집단과 사례의 부제로서 자신의 삶의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공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자신의 삶을 보다 잘 가꿔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다수 하였다. 그리고 성공함을 이야기할 때, 본인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도 사회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을 찾았다. 즉, 인터뷰 대상자들의 자신 정체성을 당당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정체성을 갖고 사회적인 승인, 지지의 과정을 통해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마’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잘 사는’ 사람의 부재를 결부지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듣는 접하는 이야기는 다 삶의 불안이야. 뭐 성공한 사람들에 이야기는 소문처럼 정말 간간히 전해져만 와. 마치 고대 전설처럼 (웃음) 너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성공했다고 해도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전부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산층에서 단란한 가족을 구성하고 공동체에서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다고. 내 주위만 봐도, 나만 봐도 나의 정체성을 당당히 말하면서 일하지도 못하고 파트너랑 안정적인 연애도 못한다고, 그러니깐 내 주위에서 들리는 성공한 레즈의 이야기는 허망하게 들리는 거지. 그리고 계속 불행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내 삶도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 더 나를 숨기고, 더 나아가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중적으로 병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 아 모르겠어 몰라!!”

‘마’ 말처럼 성공한 사람의 존재는 소문처럼 전해지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인다. 비퀴어 당사자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없이 삶의 모델을 정하고 목표를 삼아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실천해간다. 한편으로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삶을 구성하는 것이 집합적인 공간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삶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문’이라고 이야기 되는 것처럼 실체가 파악되지 않지만 그 대상과 본인의 삶을 구분짓는 것을 통해 레즈비언 집단안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차별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영화나 미디어에서 보이는 동성 커플 보면 다들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 로렐만 봐도 파트너의 의료, 재산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더욱 힘들어지고, 처참해지고, 이게 상품이되고 소비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괜찮다고 하는 미국이나 외국이 저지경인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냐고. 더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 ‘차’ -

비참한 삶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은 경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나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내용들을 통한 추측이 대부분이다. 즉, 실제로서 경험을 공유하는 장/커뮤니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집단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많은 레즈비언 참여자들은 동일한 학벌인 경우에도 섹슈얼리티의 차이가 게이와 레즈비언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현재 29살이고, 나름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는 다 비슷한 조건이어도 성공한 선례들은 게이가 훨씬 많다고 말하고 있다.

2) 계급: 안정/불안정 사이에서

사회적인 자원의 차이는 레즈비언 내부에서 연령적 차이들과 결합하며 20대 중심의 문화 외

에는 존재하는 엘 문화가 너무(바)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이렇듯, 문화자원과 사회적인 권력의 차이를 통해서 레즈비언들의 경제적 독립의 불안정성은 강화되며, 성적 정체성이 인정되는 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다층적인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경제적인 독립에 대한 힘겨움과 불안정한 사회적인 위치를 언급한 반면에, 많은 게이 참여자들은 본인의 삶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경제력이 중요하지(“나”) 않거나, 경제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풍요를 주겠냐고(“다”) 반문한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모두 다 아이가 없기에 내 한몫 못 먹고 살겠냐(“가”)라고 하면서 경제적 위치의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해석하거나 아이들 양육하지 않아서 (이성애자에 비해서) 더 자유롭게 (가) 살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 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계급은 내 한몫 먹고 사는 문제로 치환되거나, 고정적인 계급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게 경험됨을 보여준다. 특히, 게이, 레즈비언의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는 게이 연구 참여자들이 레즈비언들은 여자라서 힘들고, 레즈비언이라서 힘들지만 게이들은 남자라서 힘들지 않다(다)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도 보여진다.

많은 게이 참여자들은 아이나 가정에 대한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갖는 경제적인 여유를 언급한다. 그러나 문화자원의 향유, 끼리끼리 문화의 형성, 이상적인 삶의 모델들은 레즈비언 사례에서 보여진 것과 비슷하게 내부의 안를 형성함과 동시에 다층적으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진수는 게이들이 트랜스에 민감하고 “그 어떤 귀족 콤플렉스”가 끼리끼리 문화의 형성조건임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나가는 사람으로 보아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우리(게이) 문화에서도 끼리끼리 문화가 겁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임의 기반이 얼굴이라고요 외모!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외모나 이런 것도 관참고 소위말해서 에이급인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쉽게 끼지도 못하고” (가)

사회적으로 독립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주체가 이성애 내부에서도 중산층 가치, 규범, 자원을 가진 비장애인 이성애 남성의 삶과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이 문화 내부에서도 문화자원의 차이는 내부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토대로 작동한다. 부유한 게이들의 문화 자원이 규범적인 가치와 결합된다. 특히, 소비중심의 퀴어문화의 형성은 소비의 주체로서의 퀴어적 주체를 가시화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과정은 소비가 가능한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로 양분되면서 내부 문화의 규범성을 야기한다.

그러나 중산층의 문화규범이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공유되는 이성애자들의 경우와 다르게, 동성애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계급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을 담지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체성으로 인한 계급이동의 경험은 아웃팅으로 인해 기업체에서 이직을 신청한 사례를 말한 (마)의 이야기로 이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커뮤니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문화와 정체성을 향유할 수 있는 유

일한 공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차별은 자립할 수 있는 삶의 자원의 상실의 가능성과, 공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낯섬과 불편함을 강제하며, 동성애 내부에서 다양한 차이들을 배제하는 끼리끼리 중심의 친밀성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배제와 불평등한 환경은 동성애 친밀성이 이성애 친밀성과는 다른 맥락과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토대이다. 이성애 규범화된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적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동성애적 사랑을 경험하지만, 이성애/동성애의 획일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성애/가족 규범성과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재)구성하는 사랑하기를 실천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상적인' 가족, 관계망에서의 독립

1) 독립과 의존

“사회에서 어쩌면 평생 혼자 살아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정상성에서 벗어날 때, 독립을 하기 위해 나의 행복에 초점을 더욱 맞추고 나를 알아가기에 더욱 좋았다.” - ‘다’ -

독립을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독립을 원한다는 말을 한다. ‘다’의 경우,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실현이 본인의 가족에서는 제한적으로 표현되는 한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만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공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대상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제한적이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을 찾으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집착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가적인 감정, 현상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죽을 때쯤 되어서,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족이 없다고 해서 마냥 외로울 것 같지만은 않다. 인간 중에는 나같은 사람이 혼자서 남아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지만 뭔가 공동체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자 하겠지. 혼자사는 게 일상이었었는데, 노인때도, 죽을때도 혼자이면 그렇지 않아? 외롭고 쓸쓸하구나. 청소년때부터 겁나 외로웠는데도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지. 그냥 각자가 관계 속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 ‘사’ -

2) 우정과 공동체를 통한 비규범적 친밀성

“내가 특이한건가. 나는 가족, 파트너라는 존재가 나랑 성애적인 관계만을 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관계라는게 정말 다양한 부분을 서로 충족해주기 위해 구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안되는거야.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애만 집중하니깐” - ‘가’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맺는 관계는 어디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는거지 그런 불안이 더 많은 관계를 원하게 만들고 뭐 그런거 같아. 그런데 이 것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니깐” - ‘바’ -

“가족이란 무엇일까. 혹은 연애란 무엇일까. 결혼이란 무엇일까?”의 물음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다. 한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향유하고 싶어 하는 반응과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부류로 나뉘었다. 특히, 전자의 반응은 남성 집단에 많이 나타났으며, 후자는 여성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로 다양한 이유가 있었으나, 집합적인 커뮤니티의 존재와 경험과 결부되어 있었다. 남성 집단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성취 이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파트너와의 결혼을 고민하고 또한 대부분이 주위 게이들도 그렇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 집단은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사’의 경우는 여성 퀴어들과 함께 모여살면서 서로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서로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도 좋지만 일단 경험 공유의 관계를 보장받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며 이에 많은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수긍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볼 때,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서로의 삶이 다르게 디자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지향에 따라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여기서 기인된 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았다. 다만, 서로 다른 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계(결혼을 포함한)에 대한 안정성, 법, 제도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서로의 관계에 대해 돌봐주고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며 법적 권리까지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글을 마치며

이 연구는 퀴어의 친밀성이 사회적인 규범들—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 동성애 혐오, 이성애규범적 사랑하기, 가족/결혼하기 각본과 경합하고 각축하면서 구성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수행과 정임에 주목하였다. 퀴어 청년 집단 내에서의 사랑, 우정, 보살핌을 포함하는 ‘비규범적’ 친밀성/가족화기의 실천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결혼/가족제도 외곽의 삶을 친밀함이 부재한 외로운 타자로 배치하는 이성애 규범에 균열을 내는 과정이며, 규범적인 삶의 방식의 억압과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다. 즉, 이는 우리사회의 이성애 결혼/가족 중심의 규범적인 친밀성의 위기와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규범적 친밀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다층적인 삶의 실험과 친밀성 실천을 배제하고 비가시화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동성애자들 내에서도 다층적으로 경합되고 의미가 충돌되는 독립과 의존, 사랑, 동거, 가족, 공동체를 둘러싼 친밀성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선택을 억압하는 이성애 결혼/가족 규범을 상대화하고, 여성주의 친밀성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회적 변수들이 동성애 친밀성을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들을 복합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을 소수자 ‘집단’으로 타자화하는 담론의 위험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인 권력에 의해서 주변부화된 동성애자들의 비규범적인 친밀성은 이성애/동성애 섹슈얼리티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급, 연령, 젠더적인 위계와 상호교차 되면서 경험되며, 사회적인 환경 및 불평등과 분리되지 않고 구성됨을 살펴보았다. 이러할 때, 동성애자들의 비규범적인 친밀성, 대안적 삶의 가능성은 규범으로 부터의 독립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규범 어디에도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며, 이성애자로 ‘편입’이 강제되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규범’을 만들어가는 생존의 과정이며, 불안, 외로움, 실패의 감정과 분리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지지하는 친밀성 실천이다.

동성애 친밀성은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비규범적인 삶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역사이며, 사회적 불평등, 배제의 조건 속에서 생존하기의 과정이며, 결혼/가족제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성인됨’의 규범 속에서 다층적인 삶의 실험을 구축하는 여정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 관계맺음을 고민하면서 삶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미완성의 삶의 이야기들은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귀 기울여 듣지 않기에 들리지 않는 것이며, 공유하려 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묻혀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자체가 인정되는 한국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집합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퀴어 집단의 존재를 혐오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전 국민적인 의식 개선 역시, 필요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각 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일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로소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하는 집합적인 경험의 공유의 장이 된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뭉쳐졌을 때, 청년 속 퀴어가 가시화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퀴어의 섹슈얼리티 실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퀴어의 친밀성의 양상은 파트너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 있는 ‘결혼’제도의 벗어나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밖 청년 퀴어들이 구성하는 공동체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서 청년 퀴어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청년 퀴어를 위한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원이나 커뮤니티의 결성이 머뭇거리지는 대부분의 사유는 한국 사회의 혐오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청년 퀴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를 있는대로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결코, 존재가 부정당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이 술도 없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문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박탈되어 존재를 인정 받고 싶어하는 소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청년 퀴어들, 다양한 친밀성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퀴어들에게 상대적으로 청년 퀴어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청년으로 단순화 되기엔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청년이라는 집단을 다양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 김순남(2010), “남녀의 이혼 서사를 통해 본 친밀성과 젠더”, 『여성학 논집』, 제27권 2호, 155-192쪽.
- 김지영(2005), “동거를 통해 본 성별관계의 지속과 변형”, 이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제70호 여름호, 10-37쪽.
- 김혜영(2009), “개인화된 사회의 친밀성과 가족”,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50-71쪽.
- 게이컬처 홀릭 편집위원회(2011), 『게이컬처 홀릭(Gay Culture Holic)- 친절한 게이문화 안내서』, 서울: 씨네21 북스.
- 나영정(2012),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포럼 자료집 발표문(2012. 10. 27).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2008),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미간행).
-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제47집 2호, 73-107쪽.
- 문현아(2007), “사회로 열리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여/성이론』, 제16호, 38-56쪽.
- 이박혜경(2001), “가족대안의 모색”, 『경제와 사회』, 제50권 여름호, 106-129쪽.
- 양현아(2002), “성적 소수자: 법사회학적 쟁점과 전망”, 『성적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11-42쪽.
-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2010), “언니네트워크 비혼자료집”(미간행).
-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2012), “비정상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미간행).
- 우주현(2008), Sexual Stories Go To Westminster. PhD. The University of York(Unpublished).
- 우주현, 김순남(2012) “‘사람’의 행복할 권리와 ‘좀비-동성애자’의 해피엔딩스토리: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 71-112쪽.
- 이우찬(2000),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 『대학과 복음』, 제4집, 150-169쪽.
- 이재경(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229-244쪽.
- _____(2009),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제26집 1호, 183-206쪽.
- 전귀연, 구순주(1998), “동성애 가족에 대한 연구고찰”, 『가족과문화』, 제10집 2호, 165-188쪽.
- 조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5-37쪽.
- 차선자(2008),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대안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2호, 39-72쪽.
-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기획단(2007),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보고서”(미간행).
- 한재윤(2002), “성적소수자 차별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해소방안”, 『성적소수자의 인권』, 서울:사람생각, 43-68쪽.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제70호 여름호, 10-37쪽.
- 조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제47집 2호, 73-107쪽
- 김순남(2010), “남녀의 이혼 서사를 통해 본 친밀성과 젠더”, 『여성학 논집』, 제 27권 2호, 155-192쪽
- 김순남(2013), “이성애 결혼/가족 규범을 해체/(재)구성하는 동성애 친밀성”, 『한국여성학』, 29(1), 85-125쪽
- Ahmed, S.(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London: Routledge.
- Berlant, L. and M. Warner(1998), “Sex in Public”, *Critical Inquiry*, 24(2), pp.547-566.
- Budgeon, S. and S. Roseneil(2002), “Cultures of Intimacy and Care Beyond ‘the Family’: Friendship and Sexual/Love Relationship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World Congress of Sociology*(Brisbane, Australia, July, unpublished) pp.8-13.
- Budgeon, S. and S. Roseneil(2004), “Editor’s Introduction: Beyond the conventional Family”, *Current Sociology*, 52(2), pp.127-134.
- Clarke, D.(1991), “Commodity Lesbianism”, *Camera Obscura*, 9(1), pp.181-201.
- Gabb, J.(2008), *Researching Intimacy in Famil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alupo, M. P.(2007), “Friendship Patterns of Sexual Minority Individuals in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1), pp.139-151.
- Giddens, A.(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 Gillies, V.(2003), “Family and Intimate Relationships: Review of the Sociological Research”, *Families & Social Capital ESRC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2, pp.2-23.
- Heaphy, B.(2011), “Gay Identities and the Culture of Class”, *Sexualities*, 14(1), pp.42-62.
- Holland, J., J. Weeks and V. Cillies(2003), “Families, Intimacy and Social Capital”, *Social policy and Society*, 2(4), pp.339-348.
- Hubbard, P.(2001), “Sex Zones: Intimacy, Citizenship and Public Space”, *Sexualities*, 4(1), pp.51-71.
- Jackson, S.(2011), “Heterosexual Hierarchies: A Commentary on Class and Sexuality”, *Sexualities*, 14(1), pp.12-20.
- Jeppesen, S.(2010), “Queer Anarchist Autonomous Zones and Public: Direct Action Vomiting Against Homonormative consumerism”, *Sexualities*, 13(4), pp.463-478.
- Johnson, P.(2005), *Love, Heterosexuality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 Johnson, P. and S. Lawler(2005), ‘Coming home to Love and Clas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0(3), pp.1.1-7.2.
- Love, H.(2007), *Feeling Backward: Loss and the Politics of Queer Histor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Nardi, P. M.(1992), “That’s What Friends are for: Friends as Family in the Gay and Lesbian

- Community”, Ken Plummer(ed.), Modern
- Nixon, C. A.(2011), “Working-Class Lesbian Parents’ Emotional Engagement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Intersections of Class and Sexuality”, *Sexualities*, 14(1), pp.79–99.
- McDermott, E.(2011), “The World We Have Won: Sexuality, Class and Inequality”, *Sexualities*, 14(1), pp.63–78.
- Morgan, D. H. J.(1999), “Risk and Family Practices: Accounting for Change and Fluidity in Family Life”, Silva, Elizabeth B. and Carol Smart(eds.), *The new Family?*, London: Sage, pp.13–30.
- Plummer, K.(2003), *Intimate Citizenship: Personal Decisions and Public Dialogu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Roseneil, S.(2004), “Why We Should Care About Friends: An Argument for Queering the Care Imaginary in Social Policy”, *Social Policy and Society*, 3(4), pp.409–419.
- Roseneil, S. and S. Budgeon(2004), “Cultures of Intimacy and Care beyond the Family: Personal Life and Social Change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Current Sociology*, 52(2), pp.135–59.
- Stacey, J.(1990),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Stacey, J.(1996),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modern Age*, Boston: Beacon Press.
- Treas, J.(2007), “Sex and Family: Changes and Challenges”, J. Scott, J. Treas and M. Richards(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Sociology of Familie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pp.397–415.
- Weston, K.(1991), *Families We Choose: Lesbians, Gays, Kin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eks, J., B. Heaphy and, and C. Donovan(2001), *Same Sex Intimacy*, London: Routledge.
- Williams, R.(1977), *Marxism and Litera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A. R.(2007), “With Friends Like These: The Liberalization of Queer Family Policy”, *Critical Social Policy*, 27(1), pp.50–76.

대형 복합상업시설과의 결합을 통한 청년문화공간의 지속성, 다양성 확보

김예람 온더무브 박재우 이지윤

대형 복합상업시설과의 결합을 통한 청년문화공간의 지속성, 다양성 확보

김예람, 박재우, 이지윤

목 차

1.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내용
 - (2) 연구의 기대효과
 - (3) 연구 방법
2. 청년문화
 - (1) 청년문화의 특성
 - (2) 청년문화의 생태계 혼란
3. 집합으로서의 공간점유 방식
 - (1) 경험적 측면에서의 몰링 분석
 - (2) 서울의 자발적인 청년문화행사
4. 새로운 공간 개념
 - (1) 상업시설 내 공공성 도입
 - (2) 기존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문제
5. 대안 제시
 - (1) 대지 분석을 통한 대안의 형태 및 기능 설명
 - (2) 주요 층 도면 설명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내용

‘온더무브’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인 김예람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의 문턱을 낮춰서 일반 대중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만든 독립출판 레이블이다. 군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진행했던 첫 번째 독립출판 프로젝트가 후원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레이블이 앞으로 생산할 콘텐츠들을 관통하는 근원적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건축적인 변화나 나아갔으면 이상적인 방향을 다루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했다. 내가 여러 고민들을 하는 시간에 첫 독립출판물의 한 카테고리였던 ‘젠트리피케이션’이 단기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도시적인 문제임은 물론, 청년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잃어간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개성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지가가 낮은 지역에 자리를 잡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규모력 있는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문화를 만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현상이다.)

청년문화의 주체들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기 어려워지고 그 곳에서 발산되는 문화를 수용하는 청년들, 더 나아가 청년문화를 선호하는 계층들은 문화적 선택의 다양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가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라는 테마 하에 청년허브의 연구공모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서촌에 위치한 독립출판서점 ‘가가린’이 폐업을 했고, 이태원 우사단길에서 열리던 ‘계단장’이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청년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니 다소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청년문화가 수그러든 모습은 마치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일보후퇴처럼 보여 진다. 여타 문화가 그러하듯이 청년문화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생태계 교란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모습이 드러난다. 음악·영화·출판 등 여러 대중문화들을 클라이언트(의뢰인)로 삼아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하여 상업전선에 뛰어드는 대담함을 보여주는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다.

청년문화의 새로운 변화 국면 앞에 그 문화에 속한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보장받고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대효과

청년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청년), 사회(청년 이외의 계층), 도시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청년문화는 여타 문화들보다 자신의 창작물이나 생각을 발현시키는 성격이 두드러져서 그것이 타인에게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말하고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청년문화는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모든 생산적 활동과 사람들의 흐름이 행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업시설이 공공성(청년문화)을 가진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소식이나 핫 플레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공성(청년문화)이 상업성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법률 같은 제도적 차원의 권고가 없어도 시장의 논리가 공공성을 차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율적으로 청년문화라는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창작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운영주체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문화를 차용하는 데에 있어서 상업성의 비중이 커진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는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시설에서 자생적인 청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건강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년문화 프로그램을 대형 복합상업시설 내에 도입해 공존을 유도하는 새로운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여 청년문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를 위해 위에 언급한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계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 작업에 앞서, 서울 내 청년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공간을 점유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청년문화와 창작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작업물, 창작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 대안공간,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는 SNS 계정의 피드, 인터뷰, 청년문화행사를 다루는 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년문화가 이루어지는 몇 개의 문화행사에 실제로 경험하여 창작자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행사의 특성·공간의 구성 등을 파악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일반 시민들이 청년문화를 수용하는 저마다의 방식들을 확인했다.

대형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분석은 학술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여 제공받은 건물의 평면도·단면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공공성이 두드러지는 해외 대형 복합상업시설 사례를 검색하여 청년문화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했다. 부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대형 복합상업시설과 물링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찾아서 해결하였다. 또한 실제 청년문화공간 설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공간 구조 혹은 동선 방식을 가진 대형 복합상업시설들을 방문하여 이용자들의 체류과정·입점 점포들의 특징 및 구성 등을 확인하였다.

위 같은 내용들을 연구하여 청년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대형 복합상업시설 프로젝트의 설계개념과 주요 공간, 프로그램의 배치 등이 도출되었고, 이 요소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건축적인

대안이 완성되었다.

2. 청년문화

(1) 청년문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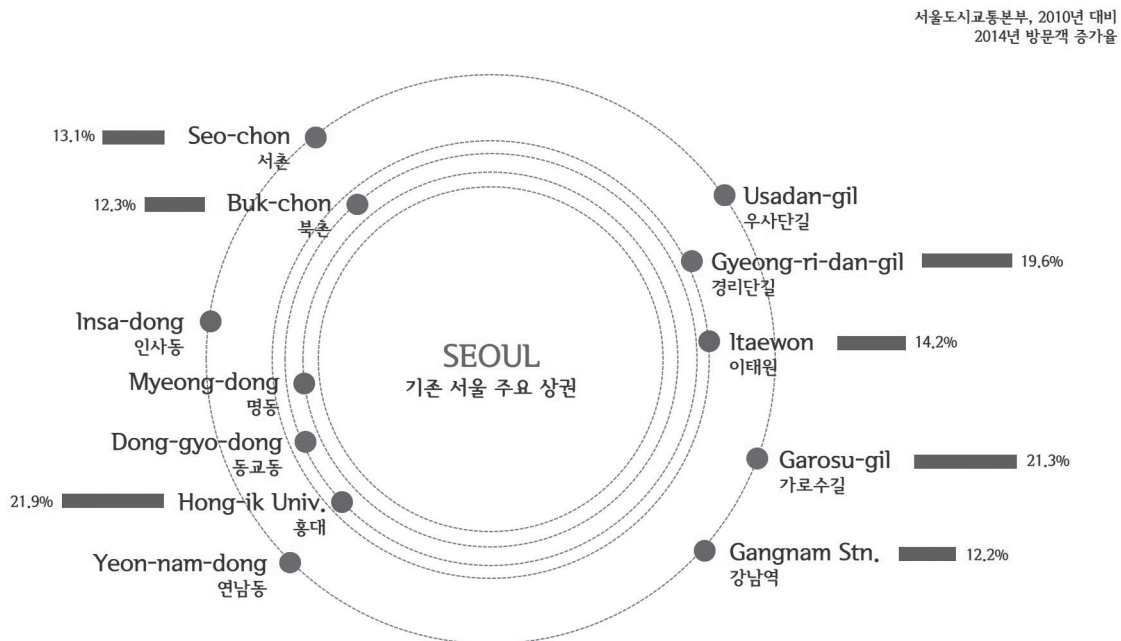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하나의 문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들은 하위문화와 상위문화로 나뉘게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인 청년문화는 하위문화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 청년문화는 한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일부가 점진적인 영역의 확장을 통해 상위문화인 ‘대중문화’로 변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년문화가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 더 넓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곧 사회 내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70년대 청년들의 상징인 청바지와 통기타, 히피 정신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한 80년대의 밴드음악, 디지털의 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게 된 90년대의 힙합, 월드컵을 통해 생겨났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2000년대의 촛불집회 등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청년문화의 예시다. 언급된 예시들을 통해 청년문화는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정신 또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한 세대의 문화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화의 성질로 인해 청년문화는 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문화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청년문화의 최근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이나 일부 건물주들이 청년문화가 대중성을 얻는 과정에서 상업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문화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대형 배급사들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상영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독립영화들,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 커뮤니티의 균열처럼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과 그들이 보존하려는 가치를 배제하는 방식의 상업화

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결과가 아닌, 청년문화의 주체성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다. 청년문화의 위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청년들의 욕구를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청년문화의 생태계 혼란



홍대, 이태원, 강남은 서울에서 원래 손꼽히는 상권에 해당하지만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상권의 변두리에 청년 F&B 브랜드와 청년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바깥 상권이었던 곳은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본들이 유입되어 주요 상권으로 변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네 특유의 문화를 구축한 청년들은 더 외곽으로 터전을 옮겨야 했다. 이러한 강제적인 자본에 의한 이주는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으며 얼마나 상권이 확대될 지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홍대 → 서교동 → 동교동 → 연남동 → 망원동 / 이태원 → 경리단길 → 독서당길 → 우사단로 / 강남 → 로데오 거리 → 가로수길 → 세로수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반 대중들에게 처음 인식된 사건은 2014년 8월에 발생한 ‘테이크아웃드로잉과 싸이의 분쟁’이다. 카페와 청년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전시 및 위탁판매시설을 겸하고 있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가수 싸이와의 임대차계약 문제로 인해 법적공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16년 8월에 문을 닫게 되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당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일종의 재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에서 ‘대망명’이라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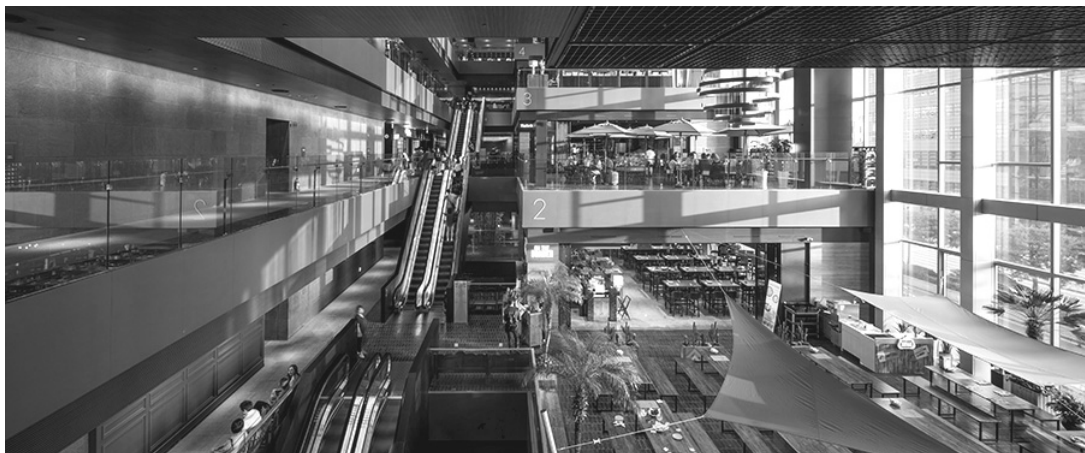


3. 집합으로서의 공간점유 방식

(1) 경험적 측면에서의 몰링 분석

쇼핑몰은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뤄지는 원스톱 쇼핑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곳에서의 생활방식인 ‘몰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몰링은 4번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새로운 몰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테마파크형 몰링(잠실 제2롯데월드몰, 하남 스타필드)
- 스트리트형 몰링(삼성동 코엑스몰, 반포 센트럴시티+파미에스테이션)
- 도심형 몰링(여의도 IFC몰, 소공동 롯데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 광역교통 중심형 몰링(용산 아이파크몰,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도심에서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대형 복합상업시설이 지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시설의 저층부를 활용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몰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광화문에 가장 힘

(Hip)한 ‘D타워’를 통해서 도심에서 이뤄지는 몰링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오피스가 밀집해 있는 중심업무지구인 광화문은 평일 낮 시간에는 북적이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지역의 오피스 빌딩은 일반적으로 1층의 로비가 있고 지하 또는 지상 2~3층에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D타워는 유동인구를 실내로 적극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업무시설의 로비를 지하에 배치하고, 1층부터 3층까지 해당하는 상업시설의 일부를 과감하게 비워서 계단식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상업시설은 입점 점포를 최대한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설계안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 사례는 상업공간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쾌적한 공공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상업공간의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계단식 공간은 낮은 층에 위치한 방문자가 높은 층의 시설을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F&B 시설의 반 야외 테라스의 역할도 수행한다. D타워로 진입하는 구간은 작은 골목 안에 가게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소호길’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피맛골’을 새롭게 해석한 장소다. 건물을 가로지르는 길 사이에 2~4명 규모의 작은 가게들이 배치되어 속도감이 있는 광화문이라는 지역에서 방문자들이 여유를 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된다.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몰’은 물이 외부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들이 길 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 상업시설인 물은 대개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방문자들이 점유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메세나폴리스몰은 도시의 흐름을 건물을 관통시키는 전략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길이 자연스럽게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24시간 방문자에 의해서 장소가 사용될 수 있다. 메세나폴리스몰은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협곡 같은 자연적인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여 주변 보행도로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메세나폴리스몰은 주상복합시설인 메세나폴리스와 함께 복합 개발된 건물이기에 많은 상주인 구를 배후로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많은 복합 상업시설들이 식음료 시설을 중심으로 몰링 을 계획하는 것에 반해 메세나폴리스몰은 방문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 목적성이 뚜렷한 영화관과 아트센터는 물의 가장 위층에 배치되어 일종의 낙수효과 (목적성이 높은 시설을 상부에 배치하여 방문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러 상업 시설을 접하게 만드는 전략)를 꾀하였고, 1층은 유동인구들이 쉽게 체류할 수 있는 점포들을 배 치하였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샵, 북페어, 플리마켓 등의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물 흐름의 중심에 배치된 광장에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프로

그램을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게 의도하였다.



(2) 서울의 자발적인 청년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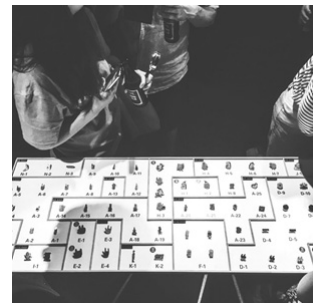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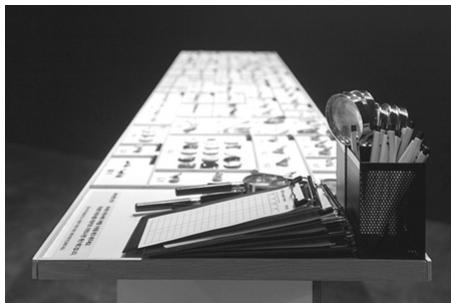
최근 서울 내 예술시장이 대안공간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과 청년문화의 생산주체인 디자이너,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기획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청년문화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사들 중 이번 연구 프로젝트에 공간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아트상품, 출판물, 라이프스타일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였다. 아트상품을 중심으로 열리는 대표적인 청년문화행사로 ‘포스터 온리’, ‘후룩샵’, ‘굿-즈’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포스터 온리와 후룩샵은 다년간의 기획력을 갖춘 팀에 의해서 기획된 사례다. 포스터 온리는 홍대의 대표적인 독립출판서점인 유어마인드가 2015년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사전행사로 국내 시각디자이너 40여명이 제작한 포스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포스터 전문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전에 열린 북페어의 영역을 시각디자인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된 이 행사는 아쉽게도 2016년에는 일민미술관 큐레이터의 개인적 문제로 인한 사퇴와 모(母)행사인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강연 프로그램 다양화로 인해 급히 취소되었다.



주말에 열리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직접 팔고 사는 시간이 핵심인 시장이라면, 포스터 온리는 구매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취향에 중점이 맞춰지는 시장이다. 일민미술관과 청년문화

공간인 ‘유어마인드’가 큐레이션을 통해서 행사에 적합한 작가들을 선별한 다음에 그들의 포스터들이 마치 경매장처럼 전시되어 있다. 예술작품 경매는 일반적으로 최고가액을 제시한 한 명만 작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행사는 다수가 구매 가능한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포스터를 전시한 갤러리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체크하고 퇴장하면서 스태프들이 포스터를 포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청년문화에서 포스터 디자인 또는 시각 디자이너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작 후경매’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자, 요즘 유통업계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슈퍼샵’, 롯데쇼핑의 ‘옴니채널’) 기성 유통회사들은 청년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몰 비즈니스보다 독자적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년문화행사인 ‘포스터 온리’에서는 역전된 형태의 O2O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성 소비문화가 판매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청년문화는 작가와의 만남, 전시화된 판매현장 등의 체험적 성격의 소비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오프라인 소비활동이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팬덤이 구축되고 그로 인해 유입된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소비를 이어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후룩샵’은 올해 이태원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햇빛스튜디오’이 전시와 팝업스토어를 결합한 형태로 기획한 청년문화행사다.(1회 : 플랫폼 플레이스, 2회 : 워크스) 이 행사는 뱃지라는 아트상품만을 취급하여 청년문화 내 캐릭터들을 망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포스터 온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체크한 뒤 수령하는 구입방식을 취하고 있는 후룩샵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전 예약 및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였다. 청년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상업성은 어느 정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캐릭터는 그것에 부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의 라인스토어나 센트럴시티의 카카오 프렌즈스토어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앵커테넌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과자전’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굿-즈’는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동과 지하공간·야외공간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던 청년문화 행사로, 시각예술을 중점적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소량으로 제작한 에디션이나 작업의 파생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행사다. 기존의 아트페어에서는 작업물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곳에서는 특정 전시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나 무형의 퍼포먼스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기성 갤러리가 아닌 신생 예술공간 15곳과 각 공간에서 추천한 80여명의 신진작가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원본과 사본, 작품과 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미술영역에서 예술의 일상화를 추구하며 특정 작품이 아닌 일상의 일부에서 문화가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치 작품을 즉석에서 해체하여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분을 구매하거나 작품을 정량화시켜서 원하는 값어치만큼 그림을 도려내는 노상호 작가의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은 예술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육점 또는 수산시장의 인상을 받는다.



출판이라는 작업물은 디자인·만화·사진·영화 등 여러 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우르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물의 성격은 청년문화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성출판에 반하여 소량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독립출판물을 모은 서점들이 큐레이션을 통해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매년 청년문화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플래툰 쿤스트할레, 무대륙, NEMO를 거쳐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홍대의 독립출판서점 ‘유어마인드’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행사로, 올해 3일 동안 열린 행사에 1만 7천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크게 성장한 아트북 페어다. 8년차에 접어든 이 행사는 단순한 북 페어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창작자들이 만든 인쇄물은 물론,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물들을 판매하는 자리다. 출판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유통플랫폼의 진입장벽이 낮추기 위해 시작한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일반 대중이 소비계층뿐만 아니라 생산계층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꾸준한 개최와 높은 기획력을 통해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흥행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작가들의 작업물들을 유통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공연, 강연, 아티스트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대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작가와의 여유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더 넓은 공간에서 행사가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언더그라운드마켓’은 ‘책방의 사물들’, ‘연어전’ 같은 자매행사들을 주최하고 있는 해방촌의 독립출판서점인 ‘스토리북앤필름’을 필두로 열리는 청년문화행사다. 대규모 공간이 아닌 여러 독립출판서점들을 노드(Node)로 연결하는 산책길 같은 동선과 그 동선의 시작점이면서 마침표에 해당하는 지하공간 ‘워크룸’에서 출판물 창작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판매행사가 진행된다. 한

시적으로 외부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스몰 비즈니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출판서점들과 작업실들에서 ‘따로 또 같이’라는 공간 개념이 나타난다.



1년에 약 10차례 열리는 ‘세종예술시장 소소’는 출판물 창작자들을 위한 행사로 시작하여, 여러 분야의 소규모 창작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의 뒷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계단이나 공원 같은 건물의 부대공간을 차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간혹 벌어지기도 한다. 야외공간이지만 캐노피 같은 요소나 실내공간과의 연계를 통해서 날씨에 영향을 줄이는 공간 점유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라이프스타일을 테마로 하는 청년문화행사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과자전’은 이태원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인 ‘위크스’의 손을 거쳐 탄생하였다. 2-3인이 운영하는 독립디자인스튜디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작업실에서 시작한 ‘과자전’이 어느새 약 4만 여명이 찾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 청년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과자전 Love & Thanks) 디저트에 주목한 페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흥미를 느낀 것도 있지만, 과자전 팬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캐릭터다. 일반적인 과자 캐릭터를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해온 위크스는 2015년부터 올림픽, 어버이날, 세일러문 등 매년 과자전의 테마에 맞게 캐릭터를 변형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이전보다 더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있다.



‘마르쉐@’는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건강한 고민들을 하며 모인 ‘마르쉐 친구들’에 의해 2012년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작된 4년차 도시형 농부시장이다. 성수동 서울숲, 국립현대미술관, 양재동 시민의 숲, 명동성당 등 도시의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마르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유입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청년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일화용 쓰레기 없는 시장’, ‘농부 중심의 시장운영’, ‘바른 식재료 사용’의 목표이자 라이프스타일이 구매 행위를 통해서 확산된다는 장점도 동시에 얻게 되었다. 야외에서 주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식자재와 가설물이 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나 화물을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마르쉐@는 농부들이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면서 요리사들이 농산물을 요리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와 동시에 식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식사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정겨운 행위들을 구경할 수 있는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시켜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만추장’은 연건동에 위치한 ‘Things We Love’를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소품들을 판매하는 청년문화행사다. 건물 옆 차고에서 스몰 비즈니스의 큐레이션에 의해서 적합한 창작자들이나 인근에 위치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한 라이프스타일 샵들과 함께 진행되고, 봄에는 ‘춘우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도시 내 공공공간을 한시적으로 점유하는 마르쉐@와는 달리 만추장은 유희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청년문화 커뮤니티가 함께 가변적으로 사잇공간을 사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가드너스 마켓’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김가든’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팝업 마켓이다. 고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무대륙’ 같은 청년문화 대안공간에서, 클라이언트의 의뢰로 대림미술관 등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소화하는 가드너스 마켓은 공간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상업시설이나 중소 규모의 공간들 집합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태원 계단장은 보광동 일대의 우사단로에서 활동하는 ‘우사단단’이라는 청년문화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기적 문화행사로, 이태원 계단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브랜딩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라 각자 상업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구조를 설정했다. 즉각적인 수익보다는 잘 브랜딩된 시장을 운영함에 따라 얻게 될 마을의 점진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운송수단이 진입하기 어려워 보행자 중심의 거리였던 우사단로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16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이태원 계단장은 계단이라는 요소가 단순히 이동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상징이자 상업공간으로 변모한 사례다. 선

형의 시장은 이미 여러 상업공간에서 익히 경험한 공간이지만 계단을 활용한 것은 새롭게 다가온다.



‘어찌다가게 마켓’은 건축사사무소 SAAI가 설계한 연남동 ‘어찌다가게’에서 진행되는 청년문화행사다. 어찌다가게는 상업공간 내에서 쉼어하우스처럼 한 건물 내에서 여러 주체들이 공간을 나누어서 점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남동에 첫 선을 보인 어찌다가게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망원동에 2호점이 지어졌고 그 곳에서 자매행사격의 ‘어찌다가게 야시장’이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찌다가게의 입주공간은 혼자서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여 설계되었다. 공방의 경우는 9.9㎡(3평), 음식점은 19.8㎡(6평) 정도로 작다.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들을 모아놔더니 그들끼리 관계가 생기고 입점 공간들 사이의 통로에 해당하는 계단, 마당, 지하 라운지에서 공동 이벤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수평적인 기존의 골목 개념을 수직적으로 적층하여 주위에 스몰 비즈니스들을 배치함으로 인해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설정했다. 다른 업종들끼리 모여서 지속가능성, 공유, 소통의 가치를 주장하는 어찌다가게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기획한 SAAI건축은 현재 시장과 갤러리에도 이러한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 새로운 공간 개념

(1) 상업시설 내 공공성 도입

어리숙해 보이지만 나름의 분위기가 있는 카페에서 찍은 친구의 SNS 사진,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노후화되고 있는 상가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약을 꾀한다는 뉴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의 변화일 수도 있는 청년인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현대 미술의 다양한 해석들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갤러리에 반영되었고 그 흐름이 레스토랑과 카페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이어졌다. 배관이 노출되어 완성되지 못한 느낌을 주고 거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공간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와 지금까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디자인 트렌드는 유희영역들을 활용하려는 도시적 차원의 노력과 결부되어 ‘재생’이라는 공공적인 측면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희영역은 효용성을 갖지 못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공간 혹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사용성·생산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공간을 의미한다. 흔히 70-80년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제품을 생산을 통해 수출을 도모한 공장, 그를 지원하는 후방 산업시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형 유희영역들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는 이것들이 초래할 슬럼(Slum) 같은 도시 낙후화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의 지점으로 개발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했다. 그 시도들 중 거의 첫 발걸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선 자리는 본래 일제 강점기인 1925년 10월에 경성운동장이 세워진 곳이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전시행정의 결과물인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한 목적도 숨겨져 있는 건축물이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경성운동장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름을 변경하며 우리나라의 근대 체육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88년 개최될 서울 올림픽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어진 ‘잠실 종합운동장’에게 그 지위를 타의에 의해 넘겨주게 되었다. (지금은 2002

년 한일 공동으로 개최된 월드컵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지어진 ‘월드컵경기장’이 3세대 스타디움 아이콘이 되었다.) 경기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2008년에 약 2만 7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디자인 콤플렉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을 크게 엿갈리는 모습이었다. 동대문이라는 패션메카는 생산보다는 유통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콤플렉스라는 디자인 및 연구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이 일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 동대문운동장의 일부 존치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동감을 하지만 많은 서울시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집단기억이 무형의 존재로 사라지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히로시마 원폭 돔처럼 민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거나 인류의 과오를 보여주는 ‘네거티브 문화유산’을 남기려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점유된 체육공간에 대한 애착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통치적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지금은 철거된 조선총독부 건물, 서울시청 구 청사가 유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을 방어하는 훈련도감 터와 대규모 수로인 이간수문이 발견되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설계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결국 동대문운동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어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개관을 하였고 성대한 행사로 그 공간을 채웠다. 그런데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내부 프로그램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지어졌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한 번 더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과 독특한 입면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그것들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공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디자인 플라자를 짓기 위해 유희영역인 동대문운동장에서 노점상인들의 자발적인 건설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물시장’을 강제폐쇄하고 신설동에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컨벤션을 동반한 전시시설과 디자인 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자체적인 콘텐츠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행사보다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에서 오히려 이 곡선의 건축물을 더 잘 살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첨부된 사진은 2016년 9월 중순에 약 4만명이 다녀간 ‘House of Vans’ 행사의 모습으로, 건축가가 의도한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둘레길을 활용하여 동대문의 상업적 흐름이 보행자들의 산책을 통해 건축물 내부까지 이어지는 광경을 완성시킨 사례다.)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동대문에 건물의 철거 계획부터 완공 후의 운영까지 공공성이 요구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제 사유 건물인 대형 상업공간에도 공공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유희영역들의 개발계획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먼저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참여형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 공모가 우선시되기 시작했다. 앞서 이야기

한 도시 재생적인 측면이 최근 강조되면서, 무조건적인 철거를 통한 신축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존 건물에 대입하여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에 새로운 경험을 중첩시키려는 도시적 차원의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대문운동장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된 잠실 종합운동장, 세운상가, 서울역 고가도로를 들 수 있다. ‘잠실 종합운동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코엑스와 더불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우리 사회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2년 월드컵으로 그 결과를 가시적인 형태(상암 월드컵경기장)로 증명했다. 코엑스 주변 삼성동 일대는 벤처 기반의 지역경제 구조에서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 중심의 구조로 재편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잠실 종합운동장은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서울시는 스포츠 이벤트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수변공간을 활용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컨벤션 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고가도로를 지화하면서 이용되지 못했던 수변공간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점, 상징적인 건물들의 선택적인 존치·신축을 통해 기능을 유지·강화한다는 점이 주요 재생방식으로 꼽을 수 있다.



‘세운상가’는 잠실 종합운동장, 노들섬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설계 공모이전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먼저 수렴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다. “세상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인다”는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은 7개의 상가가 하나의 선을 이루면서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을 분리하고 옥상정원을 도입한 국내의 초기 사례에 해당한다.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적용한 이 건물은 첨단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공공간을 디자인하는 현상공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세운상가에 ‘상상력발전소’라는 운영주체를 기획하여 세운상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다. 상상력발전소가 구축한 ‘메이커스 플랫폼 (Maker’s Platform)’은 40여 년의 기술력을 보유한 세운상가의 생태계에 주목하여, 장인의 노동과 창작자들의 만들기의 교차점에서 제작문화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장인들의 기술력과 결합된 개방형 창작문화는 1980년대 음반도·소매업과 최신 해외음반의 블랙마켓이 형성되었던 세운상가를 레코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마니아틱한 ‘세운뮤직마켓’으로 발전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45년간 서울역의

동·서부를 연결해온 차로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차량이 점유해온 도시의 영역을 확장하여 고층 빌딩들을 연결하는 공중 보행로로 만드는 동시에, 도시 내 시민들의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재생이라는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는 대상이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임을 알 수가 있다.



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지대인 영등포구·구로구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3대 개발 핵으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토대로 당국은 낙후되어 있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영역들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의 프로젝트들도 공공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에 위치한 CJ제일제당 공장은 1954년에 건빵을 제조하던 동립산업의 소유였던 곳으로 거대한 사일로(Silo)가 뿔어내는 연기가 이 공업단지 일대를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CJ는 최근 구로구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산업시설을 활용하는 재개발 사업을 계획하였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개발 유형은 인근에 필요한 전략시설과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중심형’에 해당하고, 약 2만㎡에 달하는 부지를 쇼핑센터를 포함한 판매시설, 전시 및 공연장, 40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건물은 식품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언급된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도시 내 유휴영역을 개발하는 데에 공공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거대유통자본이 만들어낸 대형 복합상업시설에도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든다. 사유재산이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과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기존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문제

복합 상업시설의 태동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50~70년대 사이 산업 및 생산 구조

의 변화를 통해 소비활동이 증진되면서 그 몸집이 급속도로 팽창되었다. 그에 반해 국내의 복합 상업시설의 도입은 1980년대 후반에 이뤄졌고 주로 도심형 쇼핑센터인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에 해당한다. 롯데월드(1989)와 테크노마트(1998)의 과도기를 거쳐 한국형 UEC의 초기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엑스몰(2000)을 시작으로 할 때 불과 10~20년을 넘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UEC의 등장이 늦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개발속도와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복합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UEC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몇몇 UEC들은 비교적 획일화된 테넌트 구성과 배치, 특성 없는 쇼핑몰 디자인 계획 및 마케팅 전략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UEC는 판매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화된 형태의 쇼핑센터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개발자들은 어떠한 프로그램들의 조합이 해당 지역에 건설될 최적의 UEC 구성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얼마나 많은 상점들을 입점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을 맞춘다. 이로 인해 대형 복합상업시설 개발자들은 새로운 상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프로젝트를 적정 수준의 성과를 낼만한 정도의 타입을 만들게 되었다. 마치 산업화시기에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들을 반복 생산하듯이 도시 내 거대한 건물인 대형 복합상업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도 이러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획일화된 대형 복합상업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지는 것은 비단 투자 실패를 두려워하는 유통자본에게만 닥친 문제일까?

도심에 위치한 대형 복합상업시설인 UEC는 몰링(Malling)이라는 새로운 쇼핑개념을 만들어 내면서 외식, 쇼핑, 영화감상 등의 여가활동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대형 복합상업시설이 지하철 역사나 버스 터미널 같은 유통인구가 많은 교통시설과 복합개발되면서 UEC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영역에 더 깊게 침투하게 되었다. 높은 유통성으로 상업의 흥행성이 보장되면서 대형 유통회사들은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공식화하여 유사한 상업시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업시설들의 연속은 사람들의 소비문화와 여가문화를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을 때 우리의 주말을 한 번 떠올려보면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된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한 나는 개찰구를 지나 센트럴시티로 간다. 회전문을 통과하고 보이는 분수대 근처에는 나처럼 이 곳에서 모이기로 약속한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친구가 오기 전에 신세계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푸드코트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음식들이 있는 지를 살펴 보면서 조금 이따 친구와 같이 무엇을 먹을 지를 살펴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의류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와중에 센트럴시티에 도착했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는다. 분수대에서 만난 친구와 미리 예약한 영화를 메가박스에서 본다. 영화를 다 본 다음, 저녁을 먹기 위해 아까 본 음식점들을 친구에게 말해주었는데 ‘파미에 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곳이 생

졌다면서 친구가 나를 거기로 데려갔다. 저녁식사시간이라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파미에 스테이션을 돌아다니면서 대기줄이 가장 적은 한식뷔페에서 밥을 먹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윗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수다를 떨었다.”



지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익숙한 몰링 방식은 우리의 주말을 마치 하나의 코스처럼 제품화시켰다. 하지만 이 익숙한 주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형 복합상업시설들이 아닌 도시조직을 이루고 있는 골목이 새로운 상권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서촌, 가로수길, 경리단길에서 시작된 골목상권은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해방촌, 성수동 등으로 확산되었고 SNS를 통해 새로운 골목들과 가게들이 소개되어 사람들의 주말을 사로잡았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형 복합상업시설들은 공여지책으로 골목을 시설 내에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골목을 적용한 대형 복합상업시설은 시설 내부에서 사람들의 동선과 그 주변을 따라 형성되는 입점점포들의 변화 정도에 그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통수단과 높은 연계성을 가진 대형 복합상업시설은 목적성이 뚜렷한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목적선상에 둘 수 있도록 도시의 흐름을 상업시설 내부로 이어주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을 실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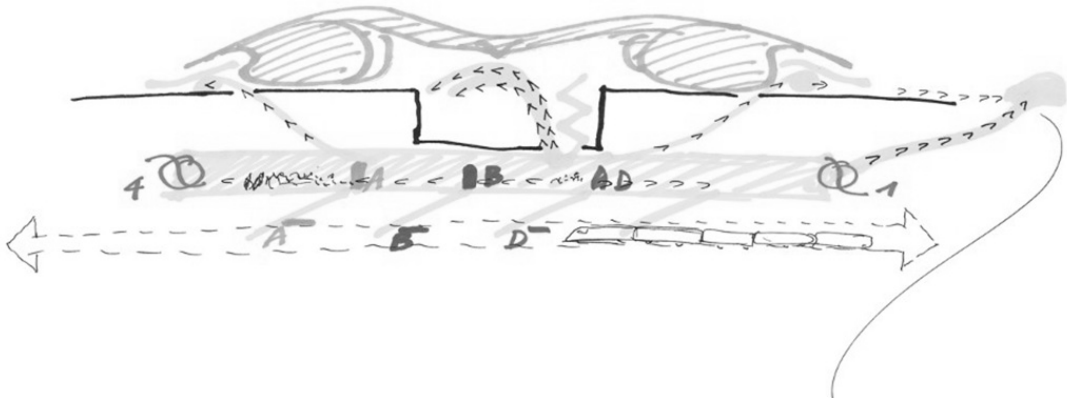
상업공간에 공공성을 적용한 최근 사례로 ‘파르나스몰’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코엑스몰 옆 지하 아케이드로 사용되어 호텔에 숙박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금속, 양복점, 기념품 숍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루한 공간이 이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와 미식이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파르나스몰(2016)은 호텔이 숙박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상업공간에 공공성을 가지는 몰링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파르나스몰은 인근에 파르나스 타워, 현대 GBC타워 등 고층 업무시설들의 등장에 따른 직장인들의 소비 수요를 우선적인 타겟 계층으로 삼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코엑스몰과 연결되는 새로운 동선이 생겨 그로부터 유입되는 젊은 연령대의 고객도 2차 타겟 계층으로 감안했다. 최근 UEC가 판매시설보다는 식음료시설인 F&B나 체험시설의 비중을 늘리면서 고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파르나스몰은 호텔, 오피스 타워와 연계되어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F&B 시설 중심으로 몰의 구성을 계획했다. 입점되어 있는 식음료 브랜드들 중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이태원이나 서교동 일대의 핫 플레이스들의 비율도 상당한 편이다. 파르나스몰은 지하에 위치한 몰로서, 보행자들이

선큰 광장(지하가 외기를 접하고 있는 방식의 광장)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물링을 체험하는 동선을 취하고 있다. 선큰 광장과 내부 아케이드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정기적으로 체험형 문화클래스인 ‘피클(Pickle)’을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방문빈도를 정기적으로 고정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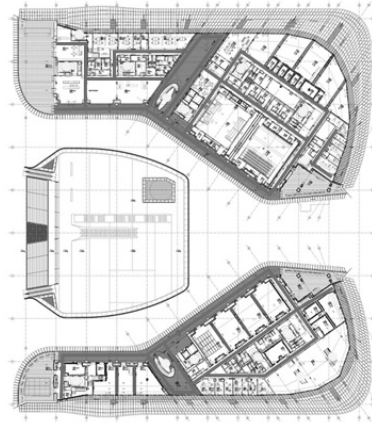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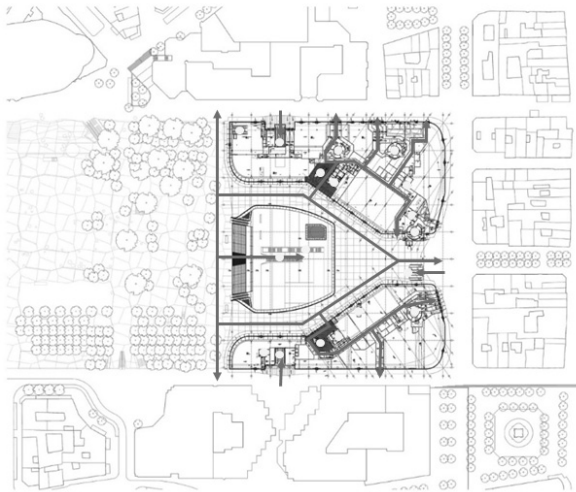


대형 복합상업시설에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프랑스 파리의 'La Canopée'는 기존 지하상가, 중소규모의 몰,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다. 이 대형 복합상업시설은 건축가 다비드 망쟁의 건축 아이디어와 건축가 패트릭 베르제의 설계로 구현되었다. 앞서 언급한 서울의 유희영역들이 리모델링되는 과정(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 → 운영 프로그램 공모전 → 건축형태 및 공간 디자인 공모전)과 달리, 역사적인 건물 앞 광장의 유희영역에 지어진 이 복합상업시설은 도시 전체를 일관된 디자인 원칙으로 계획·관리하는 파리시 당국의 방침에 의해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먼저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다비드 망쟁은 지하공간을 거대한 지붕으로 덮는 ‘캐노피’를 구축함으로써 반 외부공간을 형성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도시의 공공공간은 수직적으로 아무 장애물이 없는 야외공간인데, 이 건축가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도시의 사이공간을 수직적으로 구현했음을 알 수 있다. ‘수직적인 사이공간’이라는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위치한 지하상가와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이 위치한 지구는 중세시대부터 파리의 주요 시장터이자 물류 교차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1970년대에 도심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쇼핑몰과 철도역이 복합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쇼핑몰은 1986년에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시행되었고 문화와 스포츠 기능을 추가하여 ‘포럼 데 알’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그러다가 2002년에 보행자 친화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품을 수 있는 ‘캐노피’가 완성된 것이다. 높이 24m 캐노피의 아래에는 일일 고객수가 15만 명에 달하는 지하상가와 일일 탑승객수가 75만 명에 이르는 복합 환승센터가 위치해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상가에는 층고 3m를 유지한 채로 아트리움(빛이 도입되는 거대한 공간)이 적용되어 재실자에게 쾌적성·공간인지의 효과 등을 제공했다. 거대한 캐노피는 비, 바람, 보행자 동선, 이웃한 건물들 등을 고려하여 곡선이 적용되었고 캐노피 내부에는 층고를 활용한 중층이나 높이가 있는 공간이 적은 대신, 다양한 레벨을 가지는 반 야외공간들이 계획되어 있다. 약 8,125㎡의 장방형 캐노피는 기둥이 없는 무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둥이라는 시각적·공간적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캐노피는 도시의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되고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상업 및 문화 시설들이 배치되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캐노피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조적으로 캐노피를 지탱하는 동시에, 비워진 공공공간을 둘러싸는 다양한 레벨의 테라스가 되기도 한다. 복도가 공공공간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구경할 수 있고, 내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행사나 전시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겹을 통해 구축된 캐노피의 사이에는 발코니 같은 외부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비상시에 재실자들을 빠르게 대피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붕이 덮인 거대한 공공공간이 생겨나면서 보행자를 위한 도시환경과 상업환경은 쾌적해지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기존의 UEC가 말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들이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졌지만, UELC가 제시하는 엔터테인먼트는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체험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남성들의 소비력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라이프스타일들을 반영한 시설들이 몰링에 배치되었다. UEC에서 한 단계 발전한 이 몰링 시스템은 'UEL(C) Urban Entertaining Lifestyle Center'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처음 적용되었다. 타임스퀘어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영화관 및 대형서점 등 각각의 시설들이 시너지를 꾀하도록 최적화된 몰링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대형 복합상업시설이나 유통단지의 경우 동선을 무시한 공간구성으로 길을 헤매기 십상이었지만, 타임스퀘어는 설계단계부터 이용자의 움직임이나 편의를 고려해 산책하듯 다양한 상점 및 콘텐츠를 둘러보고 고개만 돌리면 쉴 곳과 즐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동안 대형 복합상업시설들이 수익성을 위해 입점 업체와 업체수를 중요시하면서 간과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타임스퀘어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공간은 타임스퀘어 내에서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들을 구경하고 방문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내부 공간을 경험하는 효과를 낳았다. (타임스퀘어의 아트리움은 실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고 이용자들이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쾌적한 상태에서 다

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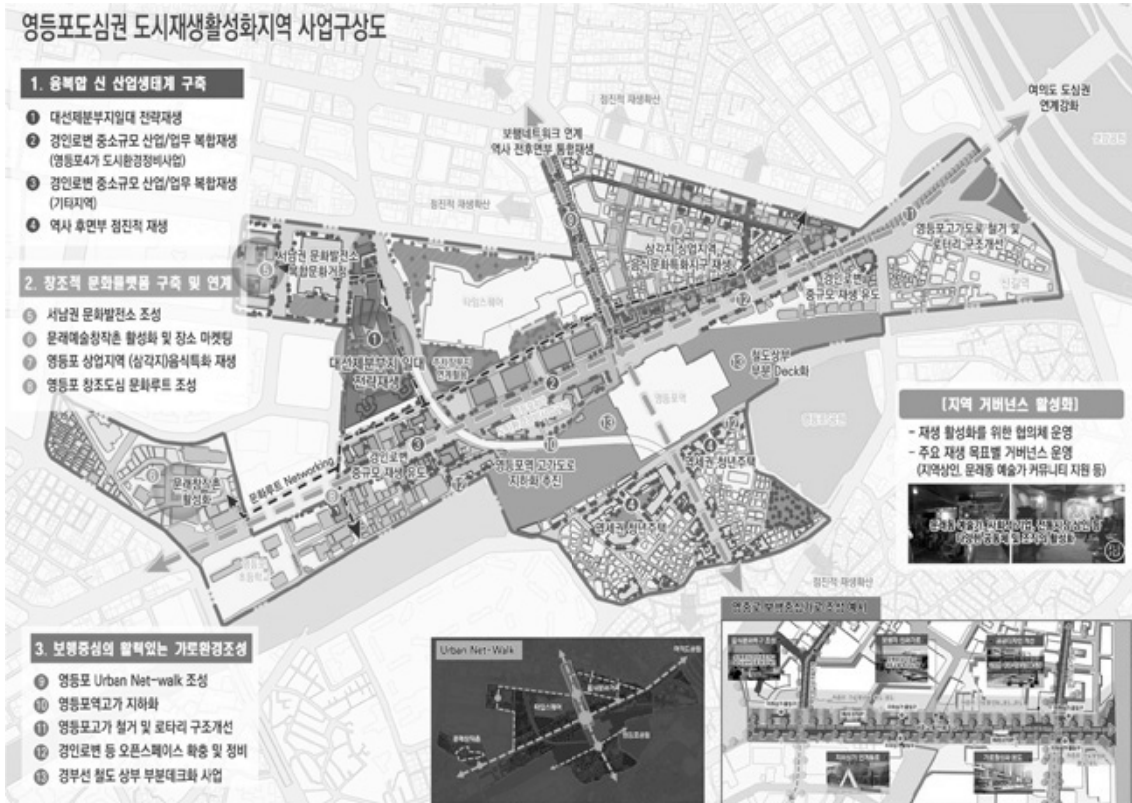
타임스퀘어가 상업시설 내 공공공간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후발주자들도 공공공간을 속속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공간을 채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게 되었다. 방문객들이 공공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의 구성을 건물 안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내 인기 있는(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에 있는 청년 스몰 비즈니스의 세컨드 스토어가 대형 복합상업시설 내 공공공간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업계 3위인 현대는 청년 스몰 비즈니스 중 F&B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시설 내 입점을 시켜서 톡톡히 홍보 효과를 누렸고 신세게는 하남 스타필드를 개장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의 인테리어 및 시각디자인을 청년 디자인 스튜디오에 의뢰하는 동시에, 청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런칭할 수 있는 전용 편집샵을 마련했다. 롯데는 아직 대형 복합상업시설 내에 청년문화를 도입하지 않고 성동구청과 함께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스트리트형 상업공간을 조성해서 상업성을 지니는 청년문화의 창작행위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대형 복합상업시설 내에 적용되는 공공공간, 공공성의 원류에는 청년문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유행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청년 F&B 브랜드를 입점 시키거나 몇몇 입점업체의 브랜딩을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공공성 도입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청년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략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그 다채로운 문화를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복합상업시설을 일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5.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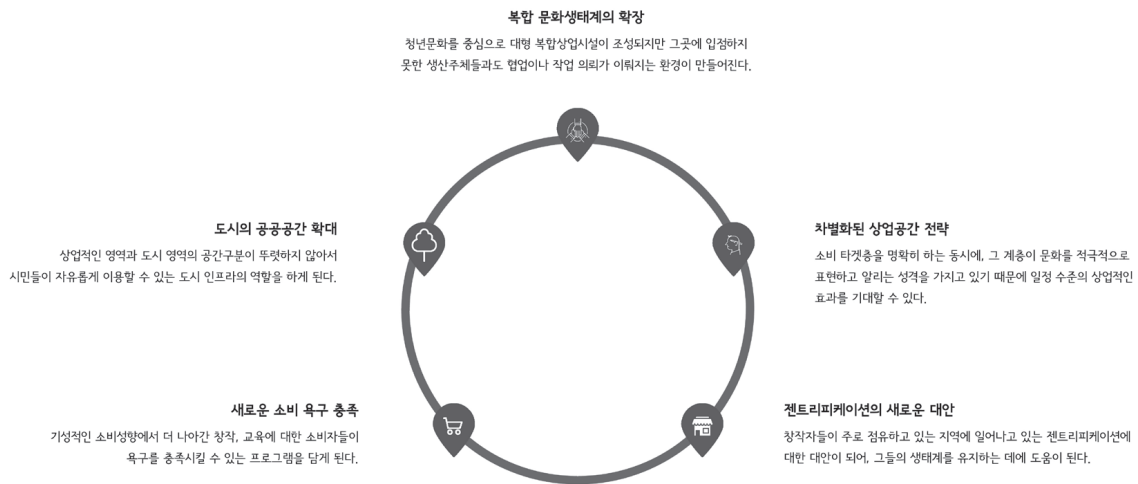
(1) 대지 분석을 통한 대안의 형태 및 기능 설명



도시 내 유희영역을 재생하는 움직임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영등포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문화를 품은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설계대지 옆에 해당하는 문래동 대선제분부지 일대에는 거점부지 복합재생을 통해 업무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담당하는 지식혁신창고를 조성한다. 노후 공장과 윤락업소 등이 모여 있는 경인로 변은 중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해 문화산업과 영등포역 후면부 등에는 도심형 청년주택, 도심지원 업무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시설인 서남권 창조문화발전소도 1만 2947㎡ 면적의 방림방적 이전 자리에 건립되어 소상공인과 예술인의 공간이 결합된 문래예술창작촌과 높은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 창조문화발전소 내에는 문화 인큐베이팅시설, 시민공유형 문화예술공간, 문래예술창작촌 연계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돼 서울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음식점이 밀집된 영등포 상업지역(영등포역 북쪽 방향)은 이벤트 공간 등을 만들어 음식문화 특화지역으로 재생시키고, 문래동과 타임스퀘어 및 영등포역 등 다양한 문화거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루트도 개발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의 차량 중심이던 도로 환경을 벗어나 보행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계대지 주위에 보행중심가로를 만들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여 영등포역에 집중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설계대지 남쪽에 위치한 영등포역고가를 철거한 후 지하화하거나 교차로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영등포역의 철로 위를 복개하는 보행 데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높이

에서 보행자들의 도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보행 데크는 철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영등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형 복합상업시설 내 청년문화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창작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게 되고, 유통자본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유통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를 통해서 발현되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몰링 이용자들(특히 청년들)이 경험하게 된다. 몰링을 구성하면서 생겨나는 공공공간(야외에 위치한 선큰 광장, 높은 층고를 가지는 아트리움 등)에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도시 활동이 이루어져서 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형 복합상업시설은 상업성을 지니는 대중문화와 그것의 저변에 해당하는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하나의 복합문화생태계를 형성하게 되고, 주변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창작소 등과 연계되어 그 영역을 지역적인 범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자신들이 개별적인 작업 또는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수주하는 과정이 이 자급자족 가능한 문화생태계에서 이루어진다. 대형 복합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유통자본)는 몰링이 기본적으로 수요확보를 위해 설정해야 하는 소비 타겟층이 명확해졌다는 장점과 기존 대형 복합상업시설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차별화 전략을 지닐 수 있게 된다.

(2) 주요 층 도면 설명

- 개요

프로젝트 명 : Urban Bond & Cultural Plugs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일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 72,410m²

연면적 : 264,000m²

건축면적 : 33,042m²

건폐율 : 약 45.63%

용적률 : 약 36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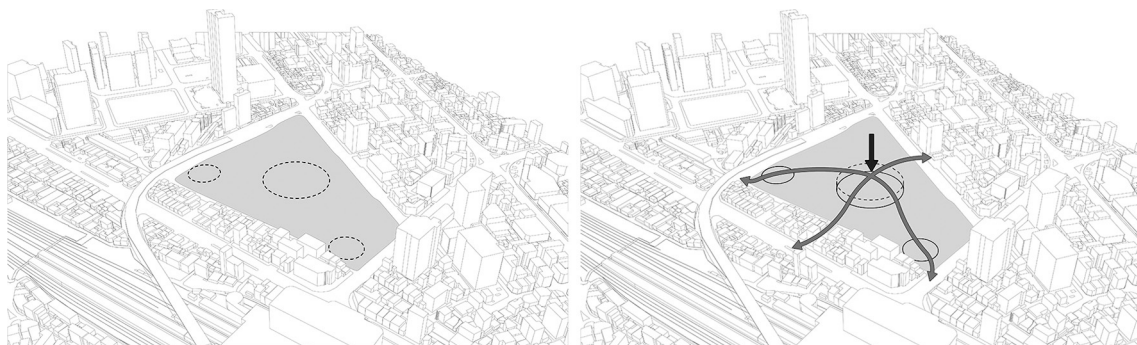
최고높이 : 상업시설 30m(6층), 호텔 41m(9층), 오피스 90m(1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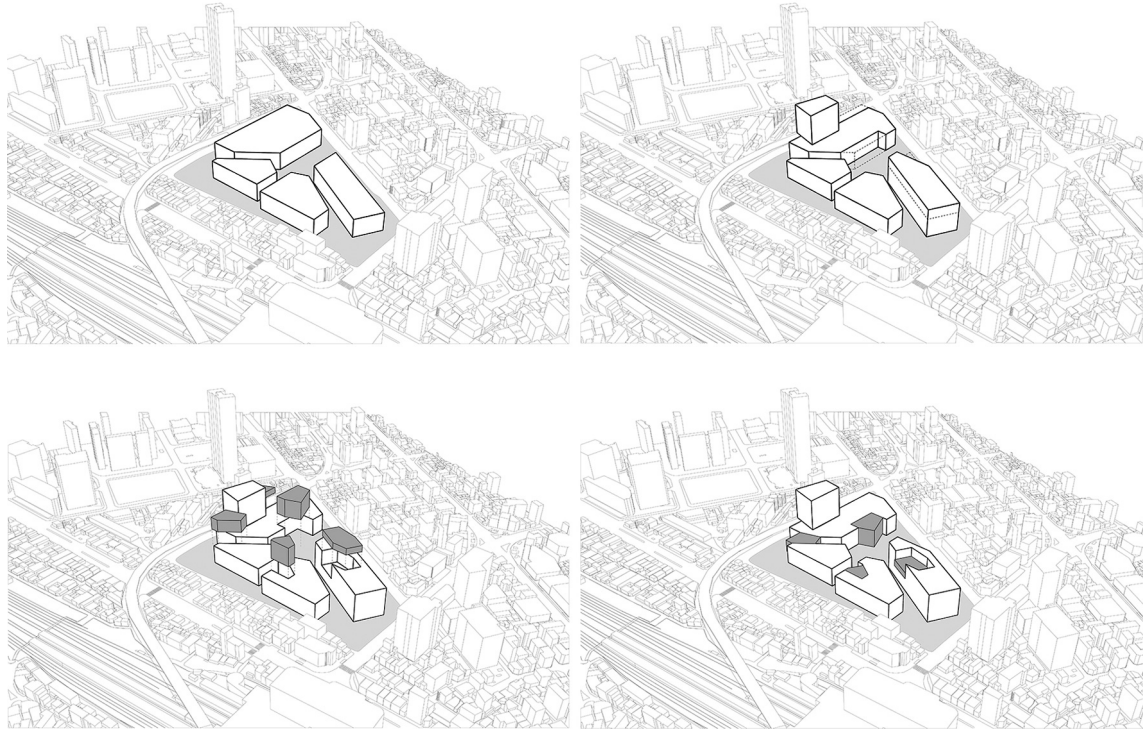
공공보행통로 : 최대 폭 15.5m, 최소 폭 7.7m, 길이 약 243m

조경면적 : 11,500 m²

공개공지면적 : 9,174m²

주차대수 : 3,836대 (장애인 주차대수 6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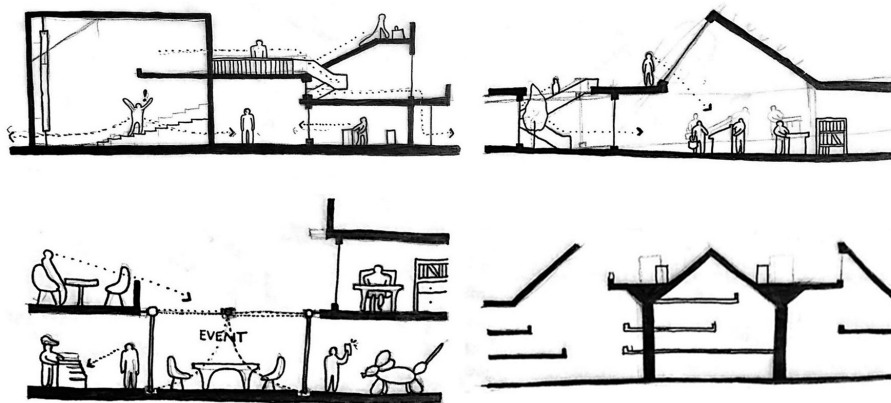




- 디자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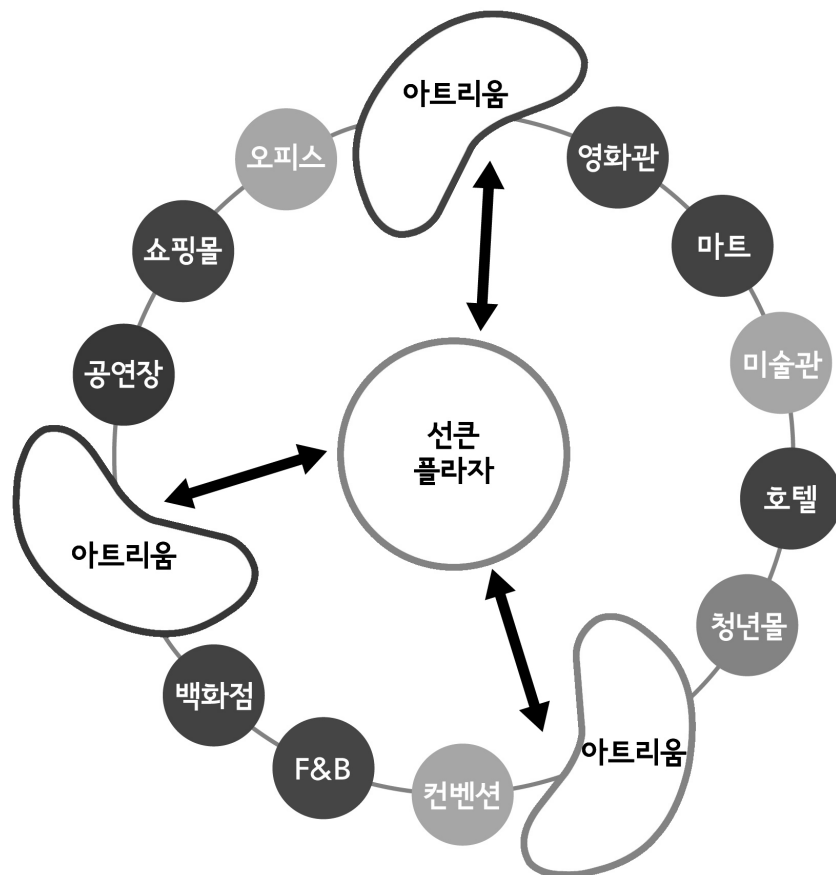
1. 설계할 대지에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진입광장을 조성한다.
2. 중심부를 관통하는 보행자 통로를 만든 뒤, 선큰 플라자를 조성한다.
3. 야외공간 계획에 따라 나뉜 구획에 대형 복합시설의 기능을 배치한다.
4. 사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와 호텔을 배치한다.
5. 여러 개의 층들을 수직적으로 연결해 줄 아트리움을 디자인한다.
6. 각 건물 등에 아트리움을 끼워 넣는다.

- 초기 공간 디자인 전략



대형 복합상업시설을 기획하면서 실내를 구성하는 4가지 공간 디자인 전략을 수립했었다. 첫 번째는 층고가 높은 공간을 활용하여 상층과 하층, 양방향의 접근이 가능한 통합적인 공간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는 ‘개방형 공연장’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사선형태의 창을 이용하여 다른 높이에 위치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는 청년몰과 호텔 사이에 있는 아트리움에 적용되었다. 자신이 위치한 곳 너머의 공간을 궁금해하는 심리를 활용하여 물링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가 시장에 가면 경험을 할 수 있듯이 복도를 면하는 점포들이 가변적으로 공용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다. 이 아이디어는 이번 대형 복합상업시설 프로젝트 곳곳에 적용되어 쉼인숍, 공유 작업실, 갤러리 등의 공간방식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는 수직적인 장애물이 없는 아트리움 안에 시설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아이디어다. 백화점의 아트리움과 쇼핑몰의 아트리움에 적용된 이 공간 전략은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청년문화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준다.

- 프로그램 관계도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는 선큰 플라자를 중심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상업성이 높은 쇼핑몰의 아트리움, 여러 레벨의 공간들이 수직적으로 적층

된 백화점의 아트리움, 청년문화의 적극적인 발현을 통해서 공공성을 꾀하는 청년몰의 아트리움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컨벤션 → F&B → 백화점 푸드마켓 → 쇼핑몰 → 마트로 이어지는 지하층 동선은 영등포 음식문화 지구의 흐름을 끌어와 선형의 체험동선을 구축한다. 쇼핑몰 → 개방형 공연장 → 쇼핑몰 아트리움에 해당하는 동선은 규칙적인 몰링의 구성과 창작자들에 의해서 가변성을 가지는 몰링이 혼재되어 있는 성격을 지닌다. 청년몰 아트리움 → 청년몰 → 옥상정원 → 호텔 부대시설의 동선은 아트리움 내에서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상부 레벨에 위치한 옥상정원과 호텔 부대시설에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지닌다. 쇼핑몰 아트리움 → 마트 → 미술관 → 호텔 다이닝의 동선에서는 최근 예술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로 다루는 성격의 아트 마켓을 경험할 수 있다.



개방형 공연장



청년 스몰비즈니스



아트 마켓



대형 아트리움



선큰 플라자



청년문화 플랫폼

- 지하 1층 평면도



가장 많은 공공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하 1층은 선큰 플라자를 중심으로 백화점, 미술관, 쇼핑 물, 푸드마켓 등의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다. 슬로프, 데크 계단, 실외 에스컬레이터,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선큰 플라자는 인근 시설들의 기능을 확장하는 동시에 여러 기능들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공간이다.

- 지상 1층 평면도



색으로 칠해진 공간은 청년문화의 공간점유방식이 드러나는 사이공간이다. 청년몰에서는 자투리 공간이 숲인쇄, 공동 작업실, 세컨드 브랜드 런칭 공간으로 사용되고, 백화점에서는 갤러리, 아카데미 등으로 활용되고, 대형 아트리움이 배치되어 있는 쇼핑몰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간이 돌출되어서 청년문화활동이 다른 재실자에게도 시각적으로 전달된다.

- 지상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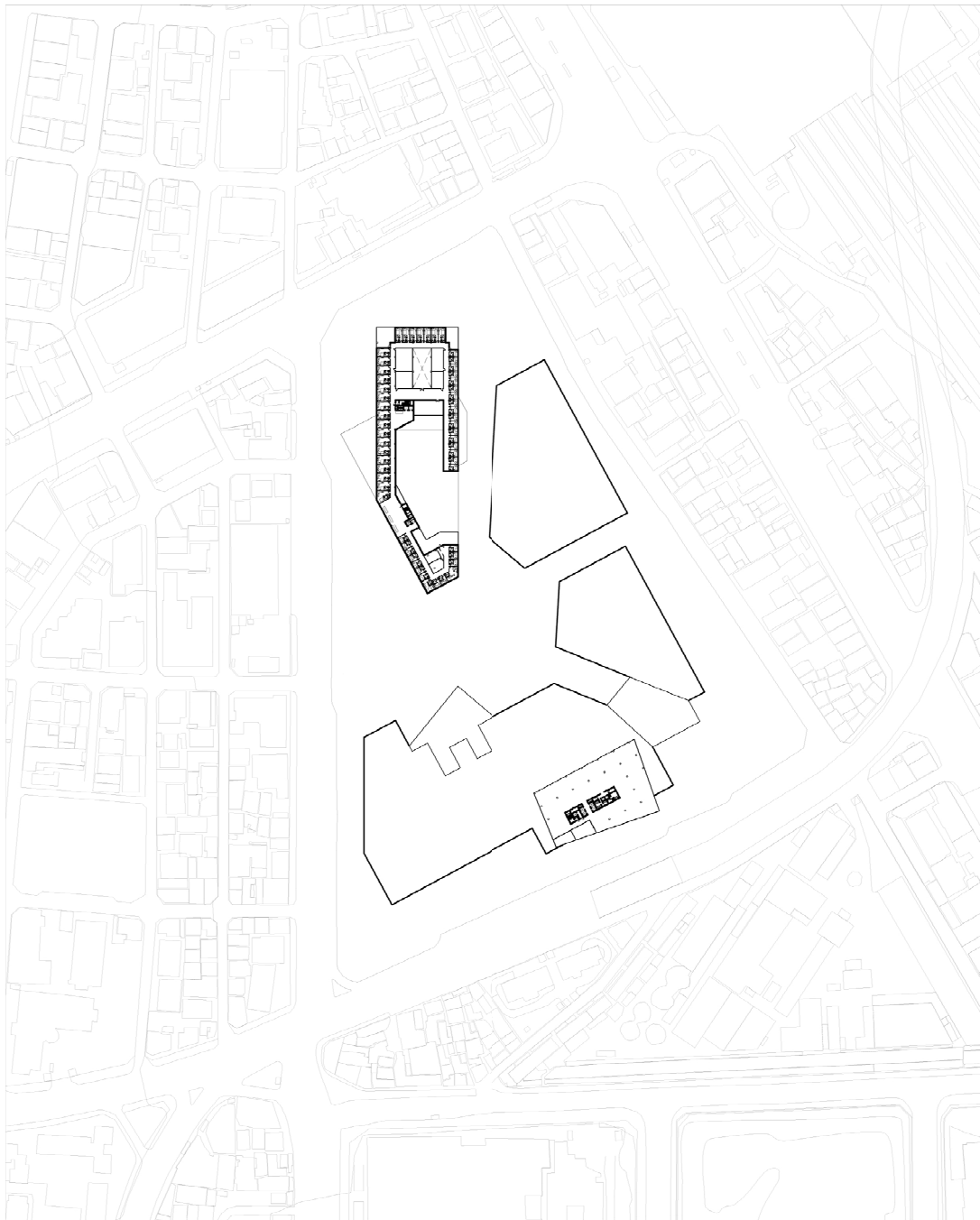
청년몰의 지상 3층에서는 문화를 서포트하는 오피스가 배치되어 있고 계단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공간이 소규모로 배치되어 있다. 쇼핑몰에서는 하부에서 볼 수 있었던 아트리움이 아닌 새로운 아트리움의 시작이 등장한다. 3층부터 6층을 수직적으로 관통하는 이 아트리움은 메인 쇼핑몰과 개방형 공연장이 있는 부속 쇼핑몰이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 지상 5층 평면도



쇼핑몰의 지상 5층에서는 영화관이 배치되고 부속 쇼핑몰에는 개방형 공연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개방형 공연장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관람자에게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연이 없을 때에는 2개층을 개방하여 몰링 이용자들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 지상 8층 평면도



지상 8층은 호텔동과 업무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오피스동이 계속 적층되는 평면이다. 좁고 긴 평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의 매스 사이에 하부 레벨의 행위를 관람할 수 있는 아트리움이 있다. 오피스는 가변적 평면을 가지고 있어 2개의 임대 오피스 + 1개의 공유공간, 3개의 임대 오피스 혹은 전용 오피스의 구성을 상황에 맞게 채택할 수 있다.

-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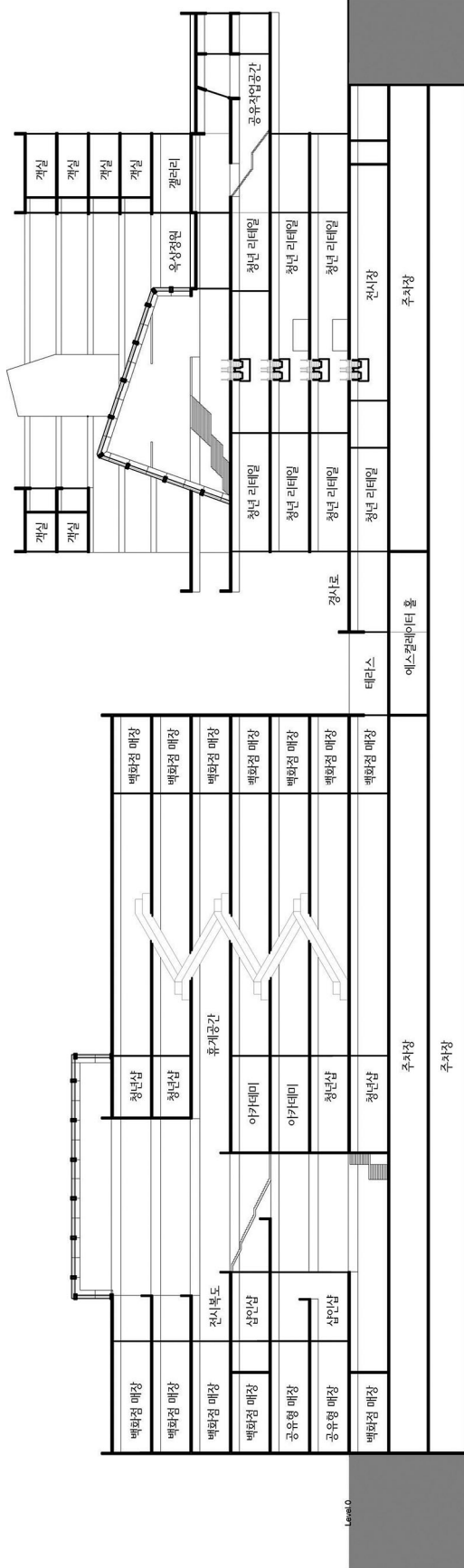


지하 2층은 대형 마트와 미술관 전시실이 배치되어 있는 평면으로, 마트와 인접한 주차램프에 마트를 위한 부속시설인 하역장이 계획되어 있다. 설계 대지의 북서쪽에서 접근한 차량은 지하 2층이 아닌 지하 3층부터 주차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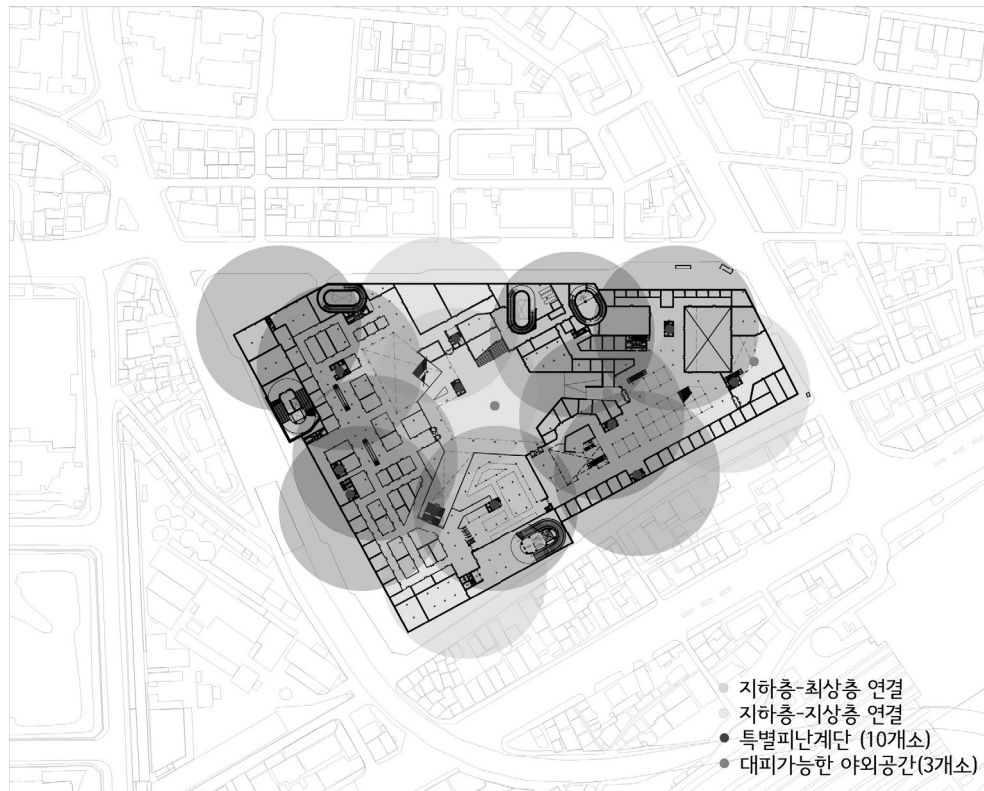
- 지하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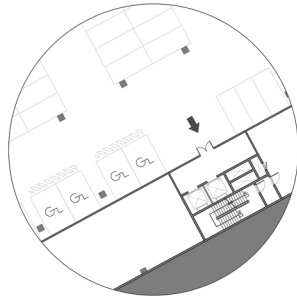
지하 3층은 주차장이 반복되는 평면의 시작으로, 설계 대지의 남쪽에 백화점과 쇼핑몰의 화물 유입을 담당하는 하역장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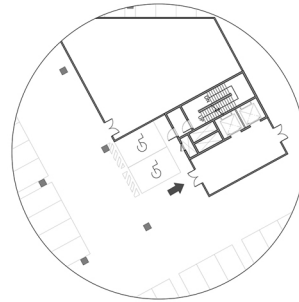
- 안전 및 피난 설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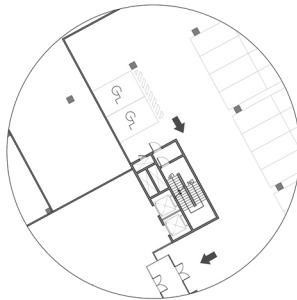
- 무장애 설계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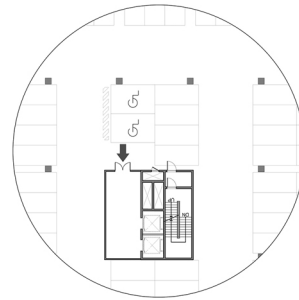
백화점 코어 부분



영등포역 방면 진입광장의 지하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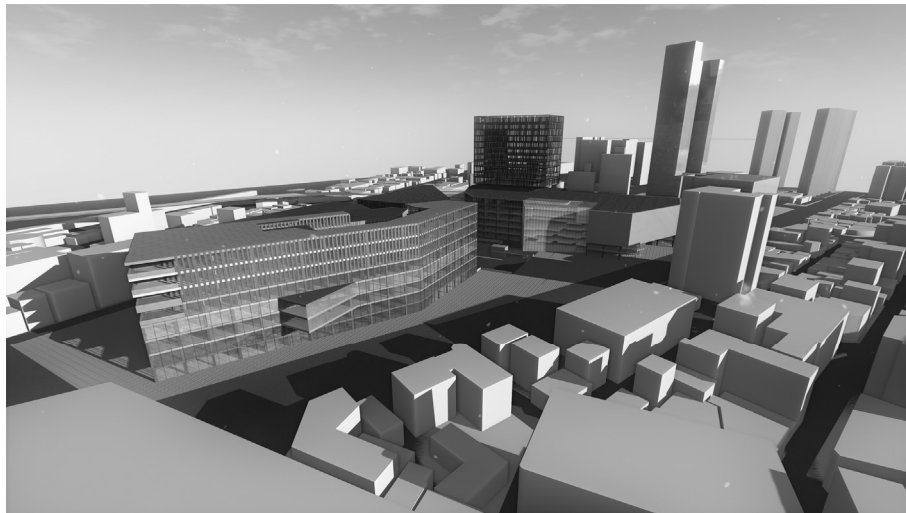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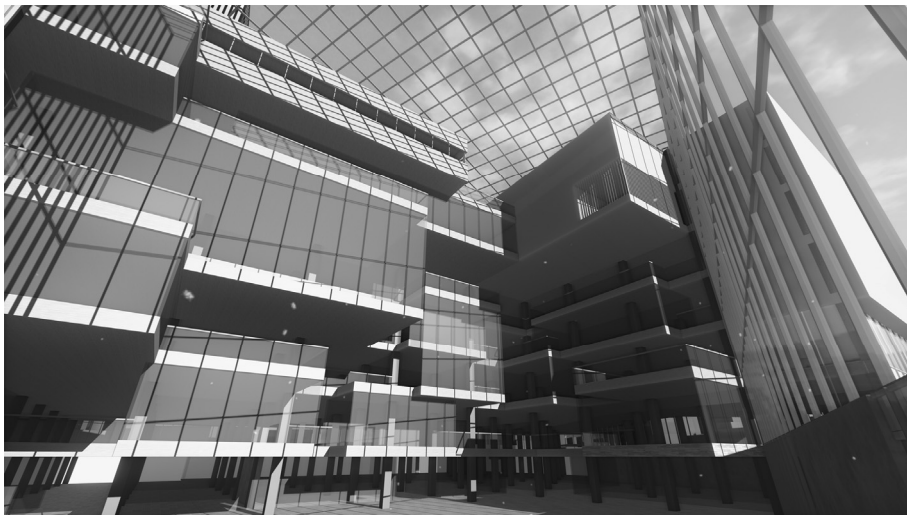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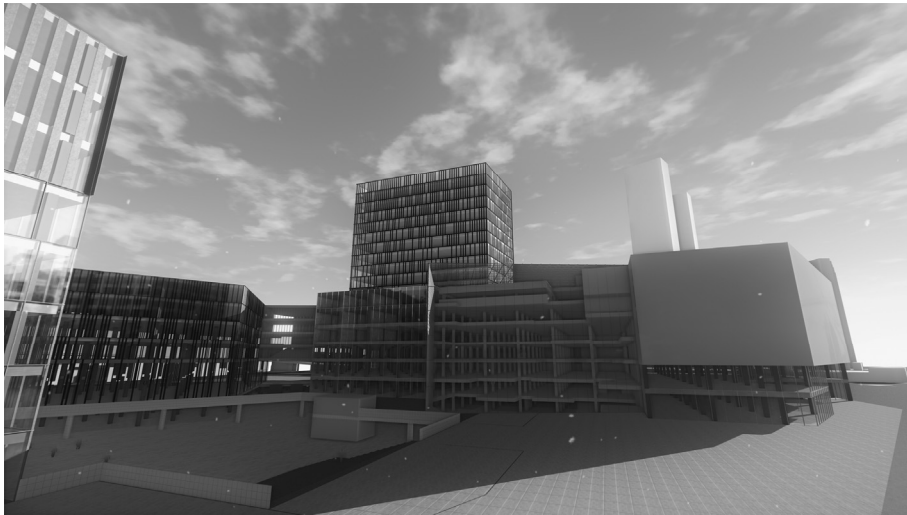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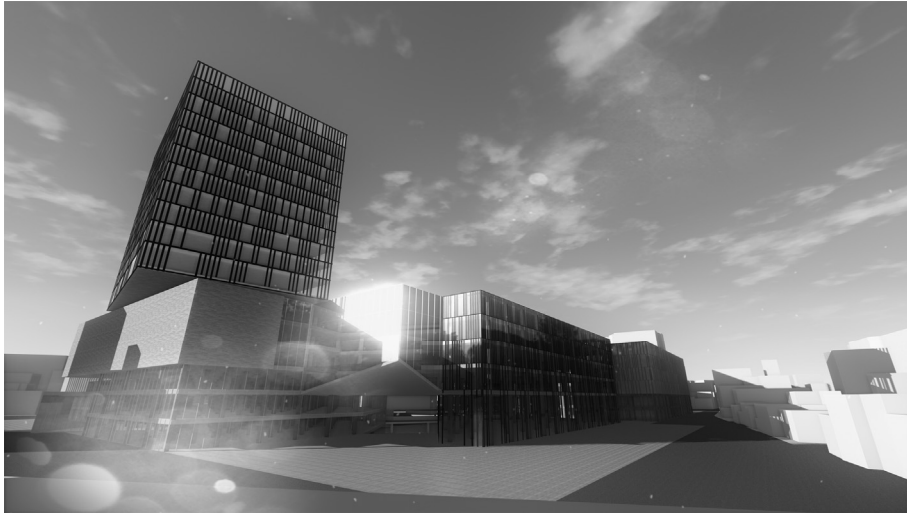
마트 코어 부분



호텔 및 청년물 부분

- 3D 이미지





〈 2. 청년문화 〉

(1) 청년문화의 특성

1. IZM 2011년 7월호, '참 달게 또 쓰게' 양희은 40년
2. 시크뉴스 2013/05/16, 서태지, 힙합패션을 주류로 끌어올린 90년대 문화대통령
3. 오마이뉴스 2002/11/29, 월드컵 환호 광화문서 '촛불 시위' 효순·미선 '추모'...1만여 명 운집

(2) 청년문화의 생태계 혼란

1. 위키트리 2015/12/11, 임차 분쟁 중인 '싸이 건물'서 축제? 현장에 갔다
2. 여행사이트 원투고, <http://www.12go.co.kr/story?idx=14196>
3. 인스타그램 (@jinyoung408898)

〈 3. 집합으로서의 공간점유 방식 〉

(1) 최근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몰링

1. JOH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2. 스포츠서울 2015/01/20, '메세나폴리스몰' 스기야마 다카시 제너럴매니저 "쇼핑몰은 문화가 접목된 라이프스타일센터"
3. 사진 블로그 '디스 민즈 더데이즈 포토'

(2) 서울의 자발적인 청년문화행사

1. 월간 CA 2016년 7월호, 개척하거나 사라지거나 - '팔방미인의 시대'
2. '굿-즈' 공식 홈페이지
3. 월간 미술세계 2015년 11월호, 〈굿-즈〉에 얽는 몇 가지 생각들
4. 네이버 블로그 '미술관 가는 남자'
5. 텀블벅 X 후룩샵 2nd Pop-up Store (<https://tumblbug.com/tags/hoorootshop>)
6. '언리미티드 에디션' 공식 홈페이지
7. 스토리지북앤필름 네이버 공식 블로그
8. 네이버 블로그 '이루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der99&logNo=220615911209>)
9. 아주경제뉴스 2014/04/15, 세종문화회관 뒤뜰에서 열리는 '세종예술시장 소소'를 아시나요?
10. 아르떼 365, 함께 꾸며가는 예술시장, '소소' 기획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1. 인스타그램
(@WENDYS_TRIPLEO, @meltingframe, @gwajajun, @hoorootshop, @ah.studio)
12. 티스토리 블로그 '영풍상상 블로그 라이프' (<http://ddungsang.tistory.com/886>)
13. '판짓의 세상' 홈페이지 (<http://world-of-ddanjit.tistory.com/242>)

14. 월간 CA 2015년 10월호,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
15. 네이버 블로그 '체리쿨러' (<http://blog.naver.com/icic75ji/220716093196>)
16. 월간 디자인 2014년 7월호, [재래시장] 도시형 장터가 건강한 지역 문화를 낳는다
17. TWL Journal (<http://www.twl-shop.com/blog/?p=1140>)
18. 오마이뉴스 2015/03/31, 이태원에서 '대박'... 청년장사꾼의 비법
19. 우사단 마을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20. 건축사무소 SAAI 홈페이지
21. 중앙일보 2016/09/20, 5년 임대 보장, SNS로 입주자 뽑는 '어쩌다 가게'의 실험

〈 4. 새로운 공간 개념 〉

(1) 상업시설 내 공공성 도입

1. SPACE Magazine 2013/07/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처음 보는 새로운 풍경
2. 프레시안 2007/03/20, "동대문운동장 철거? 서울시민과 합의하라" - 서울시 철거 계획에 반발..."서울의 추억'이 깃든 곳"
3. 서울경제 2016/02/19, [건축과 도시] 도심재생의 상징 세운상가
4. 반스 공식 홈페이지 기사
(<http://www.vans.co.kr/article/the-house-of-vans-seoul-2015-%EC%84%B1%EB%A3%8C/>)
5. 한국경제 2014/05/29, 구로 CJ 밀가루공장, 최고 40층 복합단지로
6. 서울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7. 경향신문 2016/04/25, 잠실운동장 일대 30년 만에 대변신...개발계획 확정, 2019년 착공
8.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공식홈페이지
9. 경향신문 2016/06/08, 서울역고가~남산공원까지 보행길 생긴다

(2) 기존 대형 복합상업시설(기존 소비문화)의 문제

1. 도심 쇼핑센터(UEC)의 테넌트 구성 및 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이현수 외 1명,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2호, 2012.04
2. 'Redevelopment of Les Halles' 홈페이지
3. Reunion publique D'Information: Suivi du chantier de reamenagement des Halles
4. 월간 호텔&레스토랑 2016/12/07, [Bring up Team] 파르나스호텔(주) 파르나스몰팀 : 호텔 아케이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5. 넥스트이코노미 2009/07/22, UELC 표방하는 초대형 쇼핑몰이 온다

〈 5. 대안 제시 〉

(1) 대지 분석을 통한 대안의 형태 및 기능 설명

1. 월간 디자인 2014년 11월호, 대형 호텔의 세컨드 브랜드 출사표
2. 월간 디자인 2016년 10월호, [이슈 17] 서울에 디자인 호텔의 서막이 열렸다
3. 월간 디자인 2013년 8월호, 호텔에 체크인한 디자인 비즈니스

4. SPACE Magazine 2014/10/07, 건축가가 만드는 새로운 여행, 부티크 호텔
5. 늙은 호텔리어 몽돌의 호텔이야기 편파 포스팅 (<http://oldhotelier.tistory.com/593>)
6. 시정일보 2016/05/24, 영등포역 도시재생 청사진 제시

학자금대출로 발생하는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

: 상환과 삶의 안정성, 그 균형을 위하여

강지원 남궁정 한상규

●

최철웅 선생님(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 졸업)과 천주희 선생님(연세대학교 문화학과 석사 졸업)께서
본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자금대출로 발생하는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 상환과 삶의 안정성, 그 균형을 위하여

강지원, 남궁정, 한상규

목 차

1. 서론
 - (1) 문제제기
 - (2) 연구목적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요약
2. 본론
 - (1) 설문조사 결과
 - (2) 인터뷰조사 주요 내용
 - (3) 정책 대안 적용: 가상 실험
 - (4) 청년채무자의 '삶의 안정성'과 '상환' 사이의 균형을 위하여
3. 결론

1. 서론

(1)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학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삶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미 많은 기존 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된 학자금대출은 겉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자금대출을 받은 수많은 청년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 학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를테면 학자금대출이 있는 청년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재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되려 휴학을 하기도 하고, 졸업 후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하여 ‘묻지마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학자금대출이

있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취업 불가능’과 ‘상환 불가능’이라는 현실이 중첩되어 만들어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은 한국 경제와 사회 모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도 했다.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폭증 속에서도 학자금대출은 그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늘어나는 학자금대출 총액과 채무자의 숫자만큼이나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더욱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묻지마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학자금대출 시스템의 선구자이기도 한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미국에서 학자금대출이 미국 경제와 사회 모순의 주요한 뇌관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여러 제도와 노력들은, 사실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상환과 청년채무자의 삶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길이 골든타임을 지난 것인지, 다행스럽게도 골든타임을 잡은 것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학자금대출을 매개로 한 청년채무자들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고,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안정성과 상환의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자금대출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채권자(금융)나 정부(국가)가 아닌, 청년채무자의 입장에서 ‘상환’과 ‘삶의 안정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법을 수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학자금대출을 갖고 있는 청년채무자 당사자들로부터 연구팀이 제안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선호도와 평가 정보를 얻고, 당사자 본인들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②학자금대출을 갖고 있는 청년채무자들에게 왜 대안(즉, 돌파구)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하며, 그 정책적 대안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③이 정책적 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한 담론적 전략과 운동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팀이 고안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선호도 및 의견을 청년채무자 당사자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청년채무자들 본인이 갖고 있던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과 청년채무자의 삶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학자금대출이 있는 청년 당사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균형을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청년채무자는 전국의 19~39세 학자금대출이 있는 자로, 설문조사는 구글 폼을 활용하여 191명의 설문을 받았고, 심층인터뷰는 11명과 실시했다.

본 연구팀이 고안하고 설문을 실시한 정책적 대안 모델은 아래와 같다.

정책 대안 모델

장기회생	공공·사회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	소득기준: 2016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2,269,418원 소득기준을 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원리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여 대납 10년 후 남은 학자금대출금액은 탕감 (일반 기업보다 소득기준을 높여서 청년들의 공공·사회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유도)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소득기준: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1,713,173원 소득기준을 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원리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여 대납 10년 후 남은 학자금대출금액은 탕감
단기회생		대상: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 등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이 자유롭게 신청 신청 당시 학자금대출 잔액의 80%를 1~3년 동안 분할납부 후, 남은 잔액은 탕감
미취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 구제		재취업 및 적정 소득 발생시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기 단, 월 1회 이상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혹은 실직 이후 3년 동안 연속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못할 시에는 학자금대출 전액 탕감
기존의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유 의자가 된 청년은 신용유 의자 등록을 취소하고, 위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관리 소득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소득의 5~10%로 학자금대출 상환액 한도를 제한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이후 7개월 소득 분에서부터 상환 받음(6개월까지의 소득에서는 상환 받을 수 없음)		

본 연구팀이 고안한 정책적 대안 모델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나 정부가 아닌 청년채무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과 청년채무자의 삶의 안정성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담아냈다. 특히 본 정책 대안 모델은 연구팀의 희망, 열망, 꿈을 기본 동력으로 고안된 것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미국 학자금대출 제도의 문제 해결과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행한 정책적 대안을 참고하여, 그것보다 좀 더 급진화시킨 대안을 만들어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안 모델은 2017년에 시행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만들었다. 청년채무자는 대학(원)의 졸업 일자를 시작 기준으로 하여 원리금을 상환을 시작한다. 졸업 전 재(휴)학 시기에는 원리금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및 실직 상태이거나, 재직 중이라 해도 적정 소득 이하일 시 원리금 납부가 유예된다. 졸업 후 미취업 및 실직 상태에서는 월 1회 이상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혹은 실직 이후 3년 동안 연속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못할 시에는 학자금대출 전액을 탕감해 준다. 한편 소득 기준 초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될 시, 6개월 이상 근속 이후 7개월 소득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그리고 상환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 소득액에서 최저5%에서 최고10%까지 상환액 상환을 정한다. 끝으로, 학자금대출 유예로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장기회생과 단기회생 각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장기회생: 학자금대출이 있는 청년채무자가 대학(원)의 졸업 일자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공공, 사회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공, 사회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을 2,269,418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6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액이다.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청년들의 공공, 사회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이 1,713,173원이다. 이는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액수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소득기준을 넘으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상환 원리금액은 소득액의 최저 5%에서 최고 10%를 넘지 않는다. 만약 소득기준을 넘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10년 후에도 남은 잔액은 탕감된다. 본 연구가 소득기준을 최저 임금 등으로 잡지 않은 것은, 앞서 밝혔듯이 정부나 채권자의 시각이 아닌 청년채무자의 입장에서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② 단기회생: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총 잔액의 80%를 1~3년 동안 분할납부 하고, 남은 잔액은 탕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청년이 단기간에 학자금대출을 정리하고 싶을 경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19~39세의 학자금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 폼)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수는 총 223명이었고, 그 중 연구진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유효한 설문조사 참여 결과는 총 191명이었다. 실시한 설문조사의 문항지는 아래와 같다.

1. 성별
2. 연령
3. 현 거주지
4. 대학(원) 소재지
5. 대학(원) 형태
6. 학자금대출 잔액
7. 월 상환 원리금
8.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연체중인가요?
 - 8-1. 연체 기간
 - 8-2. 연체 원리금
한국장학재단이나 대출실행기관으로부터 연체와 관련한 추심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 8-3-1. 추심으로 인한 압박감이나 공포감이 있었나요?
- 8-3-2. 추심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짧게라도 말씀해주세요.
9. 현재 소득이 있나요?
- 9-1. 월 소득이 어느정도 되나요?
- 9-2. 소득원은 무엇인가요?
- 9-3. 소득이 있음에도 학자금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가요?
10. 현재 상황(학적)
- 10-1-1. 현재 재학중인 학기는 학자금대출로 등록하였습니까?
- 10-1-2. 학자금대출이 휴학, 중퇴를 선택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10-1-3. 학자금대출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0-2-1.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휴학을 하셨습니까?
- 10-2-2.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10-3-1.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졸업 연기를 하셨습니까?
- 10-3-2.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10-4-1.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수료를 하셨습니까?
- 10-4-2.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10-5-1. [졸업자 대상 질문]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10-6-1.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중퇴를 하셨습니까?
- 10-6-2.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1. 제시된 정책 대안 모델은 본 연구팀이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해왔던 정책 모델과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 등을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내년인 2017년에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신 후 검토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1. 제시된 정책 대안 모델에 대한 평가
- 11-2. 제시된 정책 대안 모델에 대한 조언
- 11-3. 제안하실 다른 대안
- 11-4. 제시된 정책 대안과 학자금대출 전액 탕감 중 어느 것을 더 선호?

인터뷰는 서울에 거주중인 19~39세의 학자금이 있는 청년들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이 11명은 아래와 같다.

가명	연령	성별	학적	재직	월소득	학자금잔액	월상환금
A	24	여	학부 재학	아르바이트	20만원	1700만원	2만원
B	29	남	학부 졸업	계약직	120만원	1500만원	18만원
C	22	여	학부 재학	무직	없음	1100만원	7천원
D	20	남	학부 재학	무직	없음	900만원	없음
E	28	남	학부 졸업	계약직	150만원	2000만원	15만원
F	31	여	학부 졸업	정규직	220만원	400만원	19만원
G	25	여	학부 휴학	아르바이트	90만원	1300만원	11만원
H	30	여	학부 졸업	계약직	130만원	1900만원	16만원

가명	연령	성별	학적	재직	월소득	학자금잔액	월상환금
I	29	여	학부 졸업	계약직	140만원	1700만원	19만원
J	33	남	대학원 졸업	계약직	135만원	2100만원	20만원
K	33	남	대학원 재학	실직	없음	2300만원	22만원

(4) 연구결과 요약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본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대안에 대한 선호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침언한 이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대학 교육 무상화, 청년들의 취업 지원 정책(소득 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로부터는 ① 세금(공적 자원)으로 개개인의 등록금 문제(사적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② 나는 열심히 일 해서 갚고 있고 갚아 왔기 때문에 추후 다른 이들도 그렇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 등이 주요하게 확인 되었다. 이는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의 근거 담론, 즉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 및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오늘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그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청년 세대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통해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본론

(1) 설문조사 결과

ㄱ. 성별

구분	합계	여성	남성
인원수	191	112	79

피설문자는 총 191명으로, 성별을 보면 여성이 112명, 남성이 79명이다.

ㄴ. 연령

구분	합계	19~21	22~24	25~27	28~30	31~33	34~36	37~39
인원수	191	5	11	47	51	53	13	11

연령대를 보면, 30살 이하가 164명, 31살 이상이 77명으로 나타났다.

ㄷ. 현 거주지

구분	인원수
합계	191
서울	86
인천	11
대전	3
광주	5
울산	2
대구	1
부산	19
세종	1
경기	37
강원	1
충남	4
충북	3
전남	5
전북	2
경남	7
경북	3
제주	1

피설문자의 현 거주지를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ㄹ. 대학(원) 소재지

구분	인원수
합계	191
서울	76
인천	3
대전	3
광주	6
울산	1
대구	4
부산	22
세종	4
경기	44

구분	인원수
강원	4
충남	5
충북	2
전남	6
전북	3
경남	5
경북	2
제주	1

피설문자의 현 재(휴)학중인 대학(원)이나 졸업 및 수료한 최종 대학(원) 혹은 복수의 대학(원) 학적이 있을 시 가장 많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ㄱ. 대학(원) 형태

구분	합계	국공립	사립
인원수	191	23	168

피설문자의 현 재(휴)학중인 대학(원)이나 졸업 및 수료한 최종 대학(원) 혹은 복수의 대학(원) 학적이 있을 시 가장 많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의 형태를 보면, 국공립은 23명, 사립은 168명으로 나타났다.

ㄴ. 학자금대출 잔액

구분	인원수
합계	191
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1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3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7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1
4000만원 이상	3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53명,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 37명,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만원이 넘는 인원은 34명으로 나타났다.

ㄱ. 월 상환 원리금

구분	인원수
합계	191
없음	37
1만원 미만	39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26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31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22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3
20만원 이상~25만원 미만	10
2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1
30만원 이상	2

현재 상환중인 월 상환 원리금을 보면, 1만원 미만이 39명, 상환 유예중인 경우가 37명,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상인 경우 58명으로 나타났다.

ㅇ. 연체중 여부

구분	합계	네	아니오
인원수	191	27	164

설문 참여 시기를 기준으로 현재 연체중인 인원은 27명으로 나타났다.

- 연체 기간

구분	합계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5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초과
인원수	27	12	5	3	3	4

연체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이 12명으로 나타났고, 6개월을 초과하여 한국장학재단 기준 신용유의자 등재 위험에 있는 인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 추심으로 인한 압박감, 공포감

구분	합계	심했음	다소 부담	아무렇지 않음
인원수	27	11	14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추심으로 인해 받은 압박감이나 공포감이 심했다는 인원은 11명이었고,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인원은 14명이었다.

스. 소득 여부

구분	합계	있음	없음
인원수	191	158	33

피설문자 191명중 소득이 있는 경우는 158명으로 나타났다.

- 소득 수준

구분	인원수
합계	158
50만원 미만	3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7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4
200만원 이상	6

소득 수준을 보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7명,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0명, 50만원 미만이 31명으로 나타났다.

- 소득원

구분	인원수
합계	158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포함)	68
정규직	37
아르바이트	39
개인사업	3
용돈	8
기타	3

소득원을 보면, 비정규직이 68명, 아르바이트가 39명, 정규직이 37명 등으로 나타났다.

- 원리금 상환 부담 여부

구분	합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부담 없음	
인원수	158	117	38	3	

소득이 있는 피설문자들 중 원리금 상환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117명, 약간 부담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38명으로 나타났다.

ㄷ. 학적 상황

구분	합계	재학	휴학	수료	졸업
인원수	191	52	37	10	92

학적 상황을 보면, 재학중인 이는 53명, 휴학중인 이는 37명, 수료한 이는 10명, 졸업한 이는 92명으로 나타났다.

- 재학: 재학중인 이 52명에게 “학자금대출이 휴학이나 중퇴를 피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나?”라는 질문을 했고, 이중 28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4명은 “도움이 안 된다(기대출로 인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재학 중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를 선택했다.
- 휴학: 휴학중인 이 37명 중 학자금대출 때문에 휴학을 했다고 선택한 이는 21명, 학자금대출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이는 27명으로 나타났다.
- 수료: 수료한 이 10명 중 학자금대출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이는 6명으로 나타났다.
- 졸업: 졸업한 이 92명 중 학자금대출 때문에 묻지마 취업을 했거나,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이는 78명으로 나타났다.

ㄹ. 정책 대안 모델에 대한 평가

구분	합계	좋다	보통이다	별로다
인원수	191	149	37	5

본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대안 모델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좋다고 답한 이는 149명, 보통이라고 답한 이는 37명, 별로라고 답한 이는 5명으로 나타났다.

- 피설문자들의 주요 평가 첨언:
 - 다른 정책 대안과의 연관이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 소득 보전 방식의 다양화 등
 - 사적 영역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 장기 회생의 상환 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 전액 즉시 탕감 방안과의 비교시 선호도: 191명 중 87명이 전액 즉시 탕감을 더 선호

ㅁ. 피설문자들의 주요 제안

- 현 학자금대출의 완전 무이자 대출로의 전환 대출
- 이미 갚은 청년채무자들을 위하여, 학자금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

(2) 인터뷰조사 주요 내용

학자금대출에 대한 거부감, 분노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 강제로 빚을 져서 대학에 가야만 했는지. 사실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요. 차라리 대학에 가지 말 걸. 아니면 돈 모아서 유학을 가서 이민을 갔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인터뷰이 B)

“대학 가는 것도, 학자금대출 받은 것도, 다 제 선택인 건 맞죠. 그런데 학자금대출 받지 않고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일하고, 휴학하고, 공부에 취업준비까지 하는 게 가능할는지. 대학 가는 건요? 대학 가도 취업 잘 못 하지만, 대학 안 가는 거랑 상황이 같진 않죠. 그 흔한 대학졸업장 없으면 편의점 취업도 어려운 걸요.”(인터뷰이 C)

“그 대출 때문에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졸업 하고 바로 공장일부터 했어요. 이자랑 원금을 내야 하는데, 생활을 하면서 그걸 내려면 아르바이트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이미 졸업 전부터 취업 시도는 했지만 당연히 제대로 안 되었죠. 도대체 왜 대출을 받았나, 후회만 되더라고요. 대출이 없으면 알바나 공장 일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취업 준비만 하면서 거기 같이 살아도 될텐데.”(인터뷰이 E)

본 연구진이 만난 많은 인터뷰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이 존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학자금대출 제도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학자금대출이 다시금 다른 압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즉 무조건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것, 어떻게든 상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몇몇 인터뷰이들은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수용하여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대학과 대출이라는 강제된 선택은 숨겨지고, 대출을 받아 대학에 간 개개인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책임과 압박감으로 뒤틀려져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한국을 떠나거나, 아예 대출을 안 받고 대학을 나와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빚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하소연도 확인 된다.

이를 통해서도 본 연구진이 주목하는 학자금대출을 진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잘 확인된다.

학자금대출로 인한 불안감

“졸업 학기인데요. 미치죠 아주. 제가 지금 1700만원 정도가 있어요, 학자금대출이. 대체 이걸 다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나, 걱정이 너무 많아요. 졸업은 코 앞인데, 취업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

국 150만원도 못 받는 일을 하면서, 독립도 하고, 결혼준비도 하고, 학자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15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나 있을지 걱정도 많아요.”(인터뷰이 A)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학자금대출 받아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다 빚이더라고요.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시험 공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당장 알바라도 해서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남은 대학생활 내내 학자금대출 다 받으면 어마어마할텐데. 한숨 밖에 안 나오죠.”(인터뷰이 D)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갚지 말아 버릴까. 그런데 신용유의자가 되면 나중에 정말 대출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도 없잖아요. 물론 취업도 못하고 그러면 대출 자체가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모든 걸 다 대출로 해결해야만 하는 세상이구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괴감만 들더라고요.”(인터뷰이 B)

많은 인터뷰이들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학자금대출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하는 불안감은, 청년채무자 당사자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게끔 강제하고 대출을 지게끔 강제하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해가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지는 현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모순을 바로보고 해결하도록 나아가게 하기 보다는 당장의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게끔 강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진의 정책 대안 모델에 대한 평가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만약 소득 수준 보다 낮은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저임금이라 해도 걱정이 크게 줄어들 거 같아요. 한 달에 5만원 이든 10만원이든, 소득이 적을 때는 그 돈도 다 큰 돈이잖아요.”(인터뷰이 G)

“정말 좋은데, 실현 가능할까요?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냥 다 탕감하고, 대학 무상 등록금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취업도 안 되고, 취업 가기 위해 대학 가는 거지만, 다 무쓸모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고통과 책임은 우리들의 몫이어야 하죠? 웃기잖아요. 그래도 당장에 이렇게 라도 시행 되면, 수입이 적거나 아예 없을 경우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인터뷰이 C)

“2300만원 정도 대출이 있었는데, 거의 다 갚아서 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소급적용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어요. 학자금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시기까지 소급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인터뷰이 F)

인터뷰이들은 전반적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대안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상환에 대한 압박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공감을 보였다. 이는 대출의 존재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상환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그에 근거한 불안감이 청년채무자의 삶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반증해준다.

본 연구진 역시 근본적으로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탕감을 주장하지만(대출이라는 존재의 삭제), 현실적인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 결국은 상환이라는 압박감에 근거하는 청년채무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본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대안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상환이라는 압박감을 줄이거나 없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3) 정책 대안 적용: 가상 실험

여기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정책 대안을 몇 가지 상황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청년채무자의 삶의 안정성이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우선 지출 규모는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식료품비 36만원, 주거비 27만원, 생활용품비 8만원, 보건의료비 7만원, 교양오락비 5만원, 교통통신비 12만원, 용돈 및 경조사비 28만원, 세금 및 사회보장비 10만원, 이자지출 2만원 등 총 135만원이다.

이 지출 규모는 서울연구원이 2015년 2월 17일에 발표한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 중 1인 가구 사례를 참조했다. 이 자료는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주거비 부분을 40만원으로 잡고, 아예 빠져 있는 교육비(취업 준비 및 이직 준비나 승진 등을 위한 자기계발비)를 10만원으로 잡을 경우, 23만원이 추가되어 158만원이 1인가구 지출비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8만원을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출 규모로 삼았다. 아울러 이자지출 2만원의 경우 학자금대출에 따른 이자지출 비용이 아니라, 신용카드(카드론, 현금서비스 포함)나 저축은행 및 대부업 대출로 인한 이자지출로 고정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채무자들의 경우 대학 생활 및 졸업 후에도 생존과 어느 정도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취업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초과지출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외의 일정 정도 규모의 신용대출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학자금대출 잔액은 2천만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15만원으로 통일했다.

ㄱ. 장기회생

－ 기준 소득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의 경우

월 140만원의 소득으로, 공공 및 사회적 영역의 경우 기준 소득 2,269,418원에 미달하고 일반 기업 영역의 경우 1,713,173원에 미달하는 청년채무자 A의 경우, 학자금 대출 잔액 2천만원에 매월 원리금을 15만원을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158만원의 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매월 적자 18만원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대안의 적용으로 매달 15만원의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매월 적자 폭이 3만원으로 줄어들어 다른 지출규모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140만원의 월 소득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15만원은 이미 소득에서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지출이 된다.

한편 청년채무자 A는 140만원을 받던 조직a에서 일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어 5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직 기간이 길어져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은 계속해서 면제되었다. 이후 A는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조직b에 입사하였으나 월 150만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역시 원리금 상환을 면제 받았다. 이러한 소득 기준 미달의 상황이 10년동안 지속되어, A는 학자금대출을 전액 면제 받았다.

－ 공공·사회적 영역에서 일하고 기준 소득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의 경우

월 230만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 B의 경우, 15만원의 원리금은 6.5%로, 본 연구진의 정책 대안 모델에서는 적정 상환 규모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지출규모인 158만원에 15만원의 원리금을 더한 173만원을 제한다 해도 월 57만원의 여유가 생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데도 사용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월 23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공, 사회적 영역의 일 경험은 당사자인 청년으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업(직무) 만족도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울러 처음 6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면제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취업 후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간과 재원을 확보하고 충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일하고 기준 소득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의 경우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 C의 경우, 15만원의 원리금은 7.5%로, 본 연구진의 정책 대안 모델에서는 적정 상환 규모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지출규모인 158만원에 15만원의 원리금을 더한 173만원을 제한다 해도 월 27만원의 여유가 생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데도 사용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처음 6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면제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취업 후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간과 재원을 확보하고 충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청년채무자의 ‘삶의 안정성’과 ‘상환’ 사이의 균형을 위하여

학자금대출을 갖고 있는 청년채무자 당사자들은 중첩되어 있는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그것은 ‘안정적인 취업 불가능’에 의한 불안과 그에 따른 ‘상환 불가능’에 대한 불안이다.

기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는 취업,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적정 소득과 인간적인 근로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정규직을 얻기 위함에 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이미 1997년 한국경제 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겪으면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률은 계속해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대학 진학률은 높아만졌다. 그리고 좁아지는 그 취업 구멍에라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이 낮아지고 불안정해져서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등록금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학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자금대출’을 통해 재산도 소득도 없는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학자금대출의 시행과 변천을 보면, 학자금대출이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조건으로 하면서, 또 그 전환의 주요한 요소이자,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한상규·강지원, 2012; 한상규, 2013; 천주희, 2015; 최철웅, 2016). 학자금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청년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자금대출은 금융의 내포적, 외연적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금융적 축적의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고(금융의 시민에 대한 수탈 증가로 금융기관 금리생활자들의 수익 증가) 복지정책을 통해 정부와 사회가 연대 형식을 빌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원자화된 개인들이 빚을 통해 해결하게 만들기 때문에(무한한 자기책무성과 상환의무의 증가와 채무노예의 증가)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은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결국 학자금대출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빚을 내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누린 청년채무자들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혜자는 정부, 대학, 기업, 그리고 채권자(금융)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정부는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을 해줌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듯한 외양을 만들어낸다. 사실은 재산도 소득도 없는, 더 나아가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들어냄으로써 고등교육의 무상제공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말이다. 대학은 청년들이 대출을 통해 학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활한 학생 충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실상 ‘취업사관학교’임을 자임하는 대학들은 ‘소비자’로서 대학생들이 빚을 내어 구매하는 취업을 위한 졸업증이 아무 소용 없는 ‘쓰레기’임을 숨기고 있다. 기업은 채무자로서 청년들이 그 어떤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근무조건이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고 있다. 채권자(금융)는 정부의 보증 속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적 수탈을 한다.

그렇다면 청년채무자들은 어떠한가? ‘상환 불가’와 ‘안정적인 취업 불가’라는 불안 속에서 ‘삶의 불안정’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노오력’ 하라는 시대의 지상명령에 따라 빚을 내서 대학에 갔지만, 정부와 대학의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또 ‘노오력’을 지속해야만 하는, 즉 취업과 상환을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삶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청년채무자들의 문제가 어떤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결국 청년채무자들의 문제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노동배제적 기술진보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적 저성장을 근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 정부의 사회적 책임 방기, ② 대학의 기업화와 취업사관학교화,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 ④ 금융의 탐욕. 또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청년채무자들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① 사회 재생산의 위기: 학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취업준비, 결혼, 주거, 의료 등 각종 높은 사회적 비용들의 개별적 부담의 구조 속에서 질 수밖에 없는 채무들)을 가진 청년세대가 계속해서 ‘불안’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사회 자체의 재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인구’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② 경제 재생산의 위기: 그 어떤 세대들보다 소비절벽이 높아진 청년채무자들은 한국 경제의 재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간이 더 흘러 청년채무자들의 문제와 한국 경제의 문제가 함께 심화된 뒤 늦은 시기에 이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할 때 들게 되는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 무리를 줄 수 있다. ③ 정치적 무관심 내지 극우화의 확산: 미국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듯이, 장기간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은 정치적 무관심과 맞물려 극우화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의 주요한 한 축은 바로 ‘청년채무자들의 상환 불가능과 삶의 불안’이다. 미국은 이미 뒤늦게라도 오바마 정부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청년채무자들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그 후과를 겪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대학진학률은 낮지만 청년채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장기간의 경제 위기를 직접 겪은 지금은 중장년이 된 세대와 현재의 청년 세대 모두 정치적 무관심과 극우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을 모델로 해왔고, 그 정치적 효과와 사회경제적 문제들 역시 미국과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채무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반드시, 그리고 되도록 빨리 풀어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그들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인간적인 취업이 대학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사회였다면? 고등교육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한 활동과 서비스들이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주는 사회였다면? 청년채무자 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 근간에는 ‘사회적 연대’의 수립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연대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 연대의 형태이자 방식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있다. 우선 본 연구진이 주목한 청년채무자 문제의 핵심인 학자금대출 문제가 왜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전략적 부존자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필요로 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은 노동대중에 대한 엄청난 억압과 착취를 기반으로 한 끔찍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경제적-인간적 풍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인적자원’ 밖에 없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계발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개인들에게 부담시켜 왔다. 사실상 늦게나마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엄연히 존재하는 고비용-비효율의 사교육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고, 가장 문제는 바로 고비용의 고등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논자들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숫자와 그러한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숫자의 미스매치에 주목하지만,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고등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훈련과 수급을 정부와 사회의 계획과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선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 제도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문제 역시 함께 풀어나간다면, 표면적인 대졸자-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자금대출 문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 무상화와 보편적 복지 제도 확충-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향해야겠지만, 이것들 이루어지기 전까지 혹은 이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빚을 낸 청년들과 지금 빚을 지고 앞으로 당분간 빚을 내게 될 청년채무자들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안정’과 ‘상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통한 해결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채무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본 연구진이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들은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들’에 근거하여, 청년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진의 정책적 대안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청년채무자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결국 앞서 제기한 더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청년채무자들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매진해야만 한다.

이 모델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즉 정부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진은 그 비용 부담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제시하였다.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해당 지방정부의 가용 가능한 예산을 참조하여 지방정부 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고등교육 비용을 현재와 같이 개인이 부담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방정부의 경우 해당 대학생이 재(휴)학중일 때에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곳의 지방정부가, 졸업 후일 때에는 해당 청년채무자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곳의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하지만 고등교육 비용의 사회화(무상교육)가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본 연구진이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현재와 같이 청년채무자를 양산하는 구조의 지속불가능성을 빨리 인식,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지속적으로 밝혔듯이, 대졸자의 양산과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미스매치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미스매치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대졸자의 양산은 좁아지는 취업구멍이라 해도 인간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 무이한 길이 대학 졸업이며 비정규직이라 해도 고졸보다 대졸이어야 취업하기가 그나마 수월하다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높은 고등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학자금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모순이다. 즉, 노동절약(배제)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과 실업의 일반화가 저성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금융의 확대와 금융적 수탈의 심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그것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뿐이다(한상규, 2016). 따라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미스매치가 근거하고 있는 대졸자의 증가와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에 주목해야 하며, 각각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며, 다시금 재강화된 보편적 복지국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채무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개인이 빚을 내서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낸 정부와 사회와 자본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청년채무자 중심의 정책 대안, 즉 정부, 사회, 자본이 책임을 지는 것을 근거로 한 ‘상황’과 ‘삶의 안정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진은 사회적 해결을 내세우지만, 전면적인 탕감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가능한 당장 실행이 가능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의 수립 과정 속에서 중·단기적으로 실행을 하는 과도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청년채무자들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 그럼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할 경우 상환을 하게끔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고등교육 비용의 책임 주체가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어가는 인식 전환의 과도기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채무자들이 취업과 상환의 압박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적인 삶을 누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또한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가능한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정책 방식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속에서, 취업과 상환의 압박 속에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비록 일시적인 실업 상태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인간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청년세대 전체의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도, 청년세대 전체의 경제

적 곤궁으로 인한 경제적 재생산의 위기도, 청년세대 전체의 정치적 무관심과 극우화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위기와 파멸로의 길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안정적인 조건을 마련한 토양 위에서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의 문제도, 기술발전과 저성장 속에서의 일자리 문제도 안정적으로 토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로 발생하는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청년채무자들이 원리금 상환과 삶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청년채무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대안 모델을 갖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고, 그들의 이야기와 제언을 수집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학자금대출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압박, 공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는 압박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청년채무자의 삶의 불안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 전환과 금융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이 부채에 의존하여 재생산되는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속에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의 삶 역시 채무자로서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고비용의 고등교육체제와 대학에 가는 것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강제적 도박이 된 일상, 고등교육 형평성 보장이라는 탈을 쓴 정부와 금융의 수탈 체제로서의 학자금대출의 확산에 기인한다. 이 속에서 채무자로 양산된 청년들은, 대학 졸업→안정적인 취업이라는 고리가 끊어진 상황에 빠져 상환 불가→삶의 위기 내지는 상환→삶의 곤궁과 불안이라는 양자택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선택한 당사자인 청년들의 문제인가? 책임은 청년들만이 져야 하는가? 우리는 대답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권력자들이 수천억, 수조원씩 횡령, 수탈, 착복하여 축장하고 자본만을 위한 야만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반면, 시민을 위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공공성의 확보, 삶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등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본 연구진은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 살펴보면, 대학에 가는 것, 취업을 해야 하는 것, 빚을 내야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정책과 금융의 전략으로 사회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를 벗어난 다른(대안적인) 선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으며 현재의 구조적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대안적 삶 역시 모두가 누릴 수 없다. 정부는 금융적 방식

을 통해 개개인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재정지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지와의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대중을 노예적으로 길들이기 쉽다. 금융은 대출을 통한 수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사학재단들은 고비용의 등록금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으며, 그중에는 청년채무자들이 빚을 내서 마련한 돈을 다시 금 금융에 투기하여 돈을 불리려고 하는 곳들도 있다. 이 악순환과 모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전반적인 보편적 복지체제를 수립하며 금융의 수탈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야만 한다.

본 연구진은 이런 맥락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청년채무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본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대안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금융의 수탈과 압박으로부터 청년채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됨으로써 연구진이 본래 목적인 바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 연구를 서울시의 귀중한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인 만큼, 아울러 청년채무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정교화하고 발전시켜나가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한다.

- 김도균, 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 정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미하엘 하인리히, 2016. 『새로운 자본 읽기』, 김강기명 역, 꾸리에.
- 백승욱, 2009. “역사적 맥락에서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1930년대와 현 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뒤메닐, 레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83.
- 서동진, 2015. “착취의 회계학: 금융화와 일상생활 속의 신용물신주의”, 『다른 삶은 가능한가』, 한울.
- 앤드루 로스, 2016. 『크레디토크라시』, 김의연 외 역, 갈무리.
- 전주희, 2015. “시간을 강탈하는 부채”,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코난북스.
- 전주희, 2015.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 연세대학교 문화학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사이행성.
- 최철웅, 2015. “가계의 금융화와 일상의 정치”, <마르크스주의연구> 12(2).
- _____, 2016.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 금융화의 문화정치경제학: 개인과 가계의 금융적 포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 박사학위논문.
- 한상규, 강지원, 2012. “신자유주의적 장치로서 정부학자금대출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청년사회학도상 학부부문 우수상 논문.
- 한상규, 2013. “우리는 어쩌다 ‘자유로운 채무노예’가 되었는가?”, 가톨릭대학교 교지 <성심> 62호.
- _____, 2016. “노동대중의 채무자화에 대한 마르크스적 분석”, 『2014-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책갈피.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본 청년 주거사

: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주택 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마민지 김예빈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본 청년 주거사: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주택 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마민지, 김예빈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2장 청년 1인 가구 현황
 - 제1절 청년 1인 가구 현황
 - 제2절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황
- 제3장 청년 주거 유형의 변천사
 - 제1절 기숙사
 - 제2절 하숙집
 - 제3절 자취방/월세방/원룸
 - 제4절 고시원
- 제4장 청년-주거-큐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24%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 한국 사회의 가구 구성원의 구조가 3인 이상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행했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핵가족에서 1~2인의 소형 가구로 이행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 구성원의 소형 가구화는 현재 진행 중인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예정된 미래에 다름 아니다.

통계청이 정의하고 있는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¹⁾ 본 연구에서 다루는 1인 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보다는 독신가구의 의미에 가깝다. 즉,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 상태,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로서,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²⁾ 1인 가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은 주로 노인 혹은 전체 1인 가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책 영역별로는 주택이나 주거,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중점 연구 대상이다.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생활과 소비, 여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³⁾ 가장 활발한 연구 영역은 노인 1인 가구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

농촌 지역에서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은 두드러지게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날 도시 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혼의 청년들이다. 특히 이른바 대학 진학과 회사 취업 등을 위해 서울로 이주한 미혼자들이 1인 가구의 중요한 구성원이다.⁵⁾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도시 청년 1인 가구와 관련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도시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⁶⁾ 특히 청년의 주거 환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논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 1인 가구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대상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에 주목하는 경향이다. 연구 대상은 청년 1인 가구의 특정 주거 유형 및 자발적 주거 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이라는 특정 주택 유형의 주거 사례를 연구한 정민우의 「청년 세대의 주거와 이동, 정체화의 불/연속성 : 고시원 사례를 중심으로」(2011), 청년들의 주거 실험을 다루고 있는 박은진의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실험 : 해방촌 ‘빈집’ 게스트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2012), 신은정의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입주 의사결정 요인」(2015)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 가구의 존재는 오늘날에 와서야 두드러지게 등장한 새로운 인구로 조명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청년 1인 가구의 존재는 지워져 있으며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청년 1인 가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계보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및 주거 문제가 청년 문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2014), p5

3) 김소연 「24시간화 되어가는 도심에서의 싱글족을 위한 주거와 사무 환경의 새로운 유형 제안」(2004), 주택산업연구원 「1인가구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2007), 성진용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2008) 등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2014), p6

5) 서울& 「통계로 본 서울 - 네 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 복지 주택 제도 바꿔야」(2016.03.31.)

6) “도시 생활에서 자기 집이 없으면 참 고달프다. 전세금이 없어 월세 주택에 살아야 하는 사람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특히 혼자사는 청년층의 주거 질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소득에 비해 집세 부담이 많고 주거 공간도 좁은 편이다.” 이투데이 「월세 땀에 고달픈 청년층」(2016.12.06.)

제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분석하거나 청년 주거와 주택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청년 1인 가구의 존재를 추적하고 도시 청년 1인 가구의 계보를 연결할 것이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화사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 정부의 주요한 주택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통해 신문 매체를 분석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화 계보를 정리하려 한다. 내용분석법은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인 신문,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연설, 편지, 일기, 상담기록서, 녹음테이프 등을 통하여 연구 대상물에 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간접자료수집 방법의 하나로 문헌연구의 일종이다. 문헌이란 문자로 기록된 자료로서 방송, 영화, 그림, 사진, 만화 등도 내용분석의 대상이 된다. 또한, 메시지의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내용도 분석의 대상이 되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메시지 내부에 숨어있는 잠재적 내용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된다.

홀스티(Holsti)에 따르면 내용분석법은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성들을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론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며, 스템펠(Stempel)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꽤 자주 하는 일인 내용의 관찰을 통한 결론 도출을 위한 어떤 정형화된 체계”라고 정리하였다. 크리펜돌프(Krippendorff)는 내용분석법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상황에 대한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연구기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베버는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단의 절차를 사용하는 하나의 연구방법”이라 정리하였다. 즉, 매스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디코딩(decoding)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내용분석법의 분석 단위는 단어, 주제, 인물, 문단과 단락, 사항, 공간, 시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의 단위를 한정했다. 또한, 분석할 대상은 한국의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하며, 홈페이지나 블로그와 SNS 역시 의사소통의 기록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기록물 역시 부수적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을 통해 문화와 문화적 변화의 측면을 추측하고, 누적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역사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문 자료 및 온라인 기록물을 통해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나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지자체와 단체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천차만별이며,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⁷⁾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나이로 규정하여 ‘청년’의 개념을 확장해 해석하였다. 1970년대 신문에서 도시에 상경한 ‘청년’의 나이가 10대 중반부터 언급된다는 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30대 후반까지 확장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도시 서울을 주요한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한정한다.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할 ‘청년 1인 가구’의 개념은 “서울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비혼 독신 가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시대 범위는 196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이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1976년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처음 인위적으로 개입한 해이다.⁹⁾ 따라서 본 연구는 1967년을 정부의 주택 정책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다만 동일한 정권 아래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1967년의 주택 정책 역시 큰 흐름 안에서 1970년대의 주요 주택 정책 범주 안에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황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제3장 청년 주거 유형의 변천사에서는 신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청년 주거 유형의 변천사와 정부의 주거, 주택 및 기타 정책이 청년 주거 유형 변천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주거-큐브’의 계보를 정리하려 한다.

제2장 청년 1인 가구 현황

제1절 청년 1인 가구 현황

통계청의 각 년도 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82,000가구에서 854,606가구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¹⁰⁾ 수도권까지

7)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안’도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19~29세로 제한을 뒀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청년 지원대상자 나이제한은 18~34세로 규정했고, 35세 이상은 장년 대상자로 분리했다. (중략) 그러나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 범위에 넣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29세, 34세, 39세, 49세... 지자체·단체마다 청년나이 천차만별」 (2016.08.15.)

8) “한국사회의 교육경쟁과 치열한 노동시장의 경쟁구조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집중된 대도시로의 흡인기제를 유지해 줌으로써 여전히 원 가족과 떨어져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청년세대 역시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2014), p5

9) 법률 제1972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정 (1996.11.29)

10) 서울시 1인 가구 수는 1980년 82,477가구(전체 가구의 4.8%), 1985년 156,200가구(전체 가구의 6.72%), 1990년 257,400가구(전체 가구의 9.14%), 1995년 382,000가구(전체 가구의 12.88%), 2000년 502,200(전체 가구의 16.28%), 2005년 675,700가구(전체 가구의 20.42%), 2010년 854,600가구(전체 가구의 24.39%)로 꾸준히 증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포함했을 때는 약 13배 증가한 수치이며¹¹⁾ 전국 1인 가구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24.4%를 차지하고, 서울시 전체 가구의 23.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년’은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비혼”으로 정의하며, 연구 대상 지역은 대도시 서울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하 언급되는 ‘청년 1인 가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비혼 독신 가구”를 의미한다. 2012년 11월 통계청 추산치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30.76%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1인 가구의 연령분포는 30대 이하 비중이 26.2%로 가장 높고, 30~39세가 24.8%, 40~49세가 14.8%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분포는 전체 1인 가구 중 약 51.7%에 해당한다.¹²⁾ 남성과 여성 1인 가구주 역시 마찬가지로 25~29세에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고령층에서 분포가 다시 증가하는데, 30~50대 1인 가구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면, 30세 미만과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2010년 현재, 여성 1인 가구는 52.66%로 47.34%의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¹³⁾ 또한 서울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미혼 60.3%, 사별 17.2%, 이혼 12.7%, 유배우 9.8% 비율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청년 1인 가구’에 해당되는 1인 가구는 통계 수치의 91.2% 비율을 차지한다.

제2절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황

2010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 현황을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54.9%가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19.9%, 고시원 및 오피스텔을 비롯한 기타 거처가 11.2%, 다세대 주택이 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과 주택 이외의 거주자 비율은 2005년에 비해 각각 3.7%, 3.2% 증가해, 다가구 원룸 및 고시원, 오피스텔의 기타 주택 거주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은 6.9% 감소했으며, 아파트는 3.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주택 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수가 감소하고 아파트의 수가 증가한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61.2%, 주택

11) 수도권 1인가구 비중 및 규모 추이는 1980년 137,839가구(전체 가구의 4.5%), 1985년 260,191(전체 가구의 6.7%), 1990년 427,401가구(전체 가구의 9.1%), 1995년 679,370가구(전체 가구의 12.9%), 2000년 936,927가구(전체 가구의 16.3%), 2005년 1,380,245가구(전체 가구의 20.4%), 2010년 1,822,848가구(전체 가구의 24.4%)로 서울시 1인 가구의 증가 비율과 근사치를 보이며 동일한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12)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30세 미만이 26.7%, 30~39세가 25%, 40~49세가 14.9%, 50~59세가 11.9%, 60~69세가 10.3%, 70세 이상이 11.1%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2010)

13)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30세 미만 남성이 26.3%, 여성이 27.1%, 30~39세 남성이 31.2%, 여성이 19.4%, 40~49세 남성이 18.4%, 여성이 11.8%, 50~59세 남성이 12.1%, 여성이 11.8%, 60~69세 남성이 7.1%, 여성이 13.2%, 70세 이상 남성이 4.8%, 여성이 16.8%의 분포를 보인다. (서울시 1인 가구의 성별 분포 변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2010)

이외의 거처 19.4%, 다세대 주택 8.1%, 아파트 7.5%,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2.8%, 연립주택 0.9% 순이며, 30세 이상 39세 미만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52.1%, 아파트 18.6%, 주택 이외의 거처 13.8%, 다세대 주택 11.8%,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1.9%, 연립주택 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81.8%가 전세와 월세, 사글세로 살고 자가 비율이 16.4%에 불과해 임차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월세로 주거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전세보다 자가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거처의 경우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대다수의 주거 유형에서 방 1개를 사용하는 비중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82%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¹⁵⁾ 또한 1인 가구 주택사용의 연면적은 20~40㎡가 37.1%, 40~60㎡가 23.9%로 60㎡ 미만의 연면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과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연면적이 20~40㎡가 각각 47.2%, 4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경우 20㎡ 이하의 경우도 1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중 20㎡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3,639호로, 1인 가구 중 20㎡ 이하에 거주하는 비중은 2,596호로 71.3%에 달하여 1인 가구의 주거공간은 매우 협소한 것을 알 수 있다.¹⁶⁾ 또한 서울 1인 가구의 거주 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거주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정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년 전 거주지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정주성은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북한 또는 외국에서 서울로 유입한 비율은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약 75%,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약 60%, 2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약 45%, 30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5%, 3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약 30%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비중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특히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경우 그 비중이 56.4%에 달해, 대도시에서 새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5년 전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및 북한 또는 외국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훨씬 높은 비율을

14) 서울시 1인가구의 거처별 점유형태,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5) 서울시 1인가구의 거처별 사용방수는 방 1개를 사용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가 82%,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60.3%, 단독주택이 36.7%, 다세대 주택이 12.4%, 연립주택이 7.7%, 아파트가 1.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6) 서울시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57p

17) 30세 미만의 연령에서 1년 미만이 53.2%, 1년에서 2년 이내가 23.8%, 2년에서 3년 이내가 10.3%, 3년에서 5년 이내가 6.6%이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에서는 1년 미만이 36.2%, 1년에서 2년 이내가 20.8%, 2년에서 3년 이내가 14.6%, 3년에서 5년 이내가 12%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이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약 83%,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75%, 2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약 60%,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43%,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33%로 집계된다.

제3장 청년 주거 유형의 변천사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¹⁸⁾를 적극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신문 자료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분석 단위로 1차적으로 설정하여 1차 연구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1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새로운 키워드를 2차 분석 단위로 확장하여 2차 연구 자료로 추가 보완하였다. 1차 분석 단위로 선정된 키워드는 ‘기숙사’, ‘하숙’, ‘월세방’, ‘자취방’, ‘원룸’, ‘고시원’이었으며, 1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차 분석 단위로 ‘독서실’, ‘지방대학’, ‘오피스텔’, ‘다락방’, ‘독신자아파트’, ‘도시형 공동주택’ 등의 키워드가 추가되었다. 1차와 2차에 걸쳐 선정한 분석 단위를 기반으로 검색한 결과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할 신문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신문 내용에 따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화 유형을 분류하여 주택 유형별, 계층별, 젠더별 등으로 세부 분류하여 문화적 특징을 정리했다.

제2절 주거 유형의 변화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 주거 유형은 최종 자료 분석 과정에서 카테고리화될 수 있는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의 형태는 유사하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에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 정리했다. 본 섹션에서는 총 여섯 가지의 키워드, ‘기숙사’, ‘하숙’, ‘자취방/월세방/원룸’, ‘고시원’, ‘기타 유형’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사를 살펴보려 한다. 각 주거 유형은 직업군, 젠더, 계층에 따라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당 주거 유형 별로 그 경향을 함께 파악해 볼 것이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 해당 시기의 특정한 정책이 청년 1인 주거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살펴보고, 각 정부의 특정 주택 정책이 아니라 기타 정책에 의한 영향, 혹은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청년 1인 주거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함께 부기했다.

제1절 기숙사

‘기숙사’는 주거 유형의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하나의 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이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

18)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루어진 가구가 아니며,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청년 1인 가구로 주거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숙사’ 역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 중 ‘기숙사’에 해당하는 기사를 1960년대 후반부터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형은 직업군에 따라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첫 번째는 대학생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숙사’ 유형은 ‘대학 내의 기숙사’이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로 이에 해당하는 ‘기숙사’ 유형은 공장 및 공공운수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내 기숙사’로 분류할 수 있다.

1. 대학 내 기숙사

‘기숙사’ 중 ‘대학 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주로 교육을 위해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지방 출신의 ‘청년 대학생’에 해당된다. 오늘날 ‘대학 내 기숙사’의 공급 물량 부족 문제가 여전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⁹⁾ 이러한 문제는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서울의 각 대학들이 지방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주거 환경 및 후생시설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매해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각 대학의 문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당시, “서울에는 사십이 넘는 대학에다 11만에 가까운 대학생이 있으며 이 중 60%에 상당한 6만 3천 명 가까이가 지방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약 70%인 4만 5천여 명이 하숙, 20%인 1만 2천여 명이 자취, 나머지 10%인 6천여 명이 친척집이나 가정교사로 고학을 하고 있다”²⁰⁾ 서울의 각 대학들은 대학 내의 시설 확충에 주력할 뿐 학생들의 주거권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법적으로 고지되어있지 않았던 탓에, 대학생의 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히 신문 지면 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 시내의 대학 중 기숙사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대학을 비롯,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와 건국대, 동국대 등 몇몇 대학뿐인데 이중 서울대를 제외한 사립대학들의 기숙사는 고작해야 3백~5백여 명을 수용하는 협소”²¹⁾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학생에 비한 기숙사 이용자의 수는 훨씬 뒤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학내 기숙사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에 훨씬 못

19) “대학알리미 기숙사 현황을 보면,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1.5대1이다. 기숙사 지원자 수는 9만 7515명이었지만, 수용 인원은 6만 6710명뿐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사경쟁률은 3.8대 1로 가장 높다. 2위는 2.9대 1 경쟁률을 보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다.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 소재 대학을 기준으로 약 14%다. 학생 100명 중 14명만 기숙사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숙사 입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 밖 원룸으로 내몰린다.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원룸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8만원이다. (생략)” 시사저널, 「기숙사 모자라 원룸 전전하는 대학생들」, 2016.11.08

20) 동아일보, 「대학교육과 지역성」, 1972.03.17.

21) 동아일보, 「대학 기숙사가 모자란다」, 1978.03.07.

미치는 상황은 지속된다. 특히 80년대에는 거의 매년 매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기숙사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전국 99개 대학 가운데 기숙사가 없는 곳이 51개 대학이나 되고 설치된 대학들도 수용능력이 입사 희망자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입시 못지않게 치열하다. 30일부터 입사지원서를 받기 시작, 오는 2월 8일에 마감하는 서울대 관악사는 수용능력이 1천9백44명이나 벌써 3천1백여 명이 원서를 내 많은 희망자들이 입사를 하지 못할 형편이다. 국내 기숙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관악사는 11개의 건물에 7백 71개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입사시키게 된다. (이하 생략)”

경향신문, 「“좁은문 속 좁은문” 대학 기숙사 수용능력 달려 올 신입생 치열한 입사경쟁」, 1984.01.31.

당시 기숙사의 물가를 살펴보면 “하숙비가 독방이 월 15만~17만원, 2인1실이 10만~12만원”²²⁾인데 비해서 각 대학의 기숙사비는 한달 평균 6만5천~9만원 선”²³⁾으로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에 비해 주거 문제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주거의 안정성을 주거 조건의 우선 사항으로 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숙사가 부족하거나 하숙집에 입주하지 못하면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취는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경향을 보여 이와 관련된 기사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방학생들에겐 내집과 다른없는 하숙집 또는 기숙사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 게다가 여학생인 경우 그 조건은 더 까다로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만한 숙식처는 더구나 드물다. 그래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속 대학의 기숙사들. 기숙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이나 기숙사가 있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은 궁여지책으로 먼 일가친척을 찾아 보기도 하고 학교 앞에 방을 얻어 자취나 하숙을 한다지만 학기 초만 되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동아일보, 「여학생의 집 지방학생을 위한 서울의 마이홈 다섯곳을 찾아본다」, 1972.01.18

학내 기숙사 부족 문제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빗대어 대학입시에 붙는 것만큼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 대학이 신학기를 앞두고 재학생과 신입생들로부터 기숙사 입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입사희망자에 비해 수용규모가 턱없이 작아”²⁴⁾ 매 학기마다 기숙사 입사를 위해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평균 입사경쟁률은 2.5~4대 1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25% 내지는 45%의 학생들만이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었다.

22) 경향신문, 「“좁은문 속 좁은문” 대학 기숙사 수용능력 달려 올 신입생 치열한 입사경쟁」, 1984.01.31.

23) 경향신문, 「“좁은문 속 좁은문” 대학 기숙사 수용능력 달려 올 신입생 치열한 입사경쟁」, 1984.01.31.

24) 경향신문, 「기숙사 입실도 “바늘구멍”」, 1992.01.17

“하숙비며 전·월세값이 오르는 바람에 지방출신 학생들은 숙식을 해결하는데 생활비의 대부분을 쓰고있는 실정.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고려대생 이병수군(19·지질1)은 ‘8만원의 월세를 포함해 숙식비로 20만원 정도를 매달 쓰고 있다’ (중략) 학교 기숙사가 아예 없는 광운대생 김보성군(27·화공4)은 ‘남들이 등록금 인상을 걱정할 때 지방출신 학생들은 하숙비나 월세값 오르는 것도 함께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학생들이 사는 길은 극도의 궁핍생활을 하는 것 뿐’이라며 학교당국이 충분한 기숙사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기숙사 증설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 대학들도 엄청난 건축비 때문에 부지는 확보해 놓고도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향신문, 「기숙사 입실도 “바늘구멍”」, 1992.01.17.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과는 달리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가 인근의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주거 환경의 질 역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서서히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행복기숙사’라 불리는 이 사업은 도심의 낡은 주택을 개조해 대학생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청년 1인 가구 중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다.

“도심의 낡은 주택을 개조해 독거노인·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들 사업에 힘입어 당장 내년 물량은 종전보다 1만가구 늘어나고,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기숙사’가 10곳씩 건설되는 점으로 미뤄보면 모두 1만 4000여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임대 도입과 전세임대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주택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도 기대했다. (이하 생략)”

세계일보, 「도심주택 개조 1인가구에 임대... 실효성은 미지수」, 2015.09.02.

그러나 2016년 현재, 4년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년 소폭 상승할 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가, 비도시권 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재수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2016년 기준)은 작년에 1.1%p 상승한 20.1%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월세가 해마다 폭등하고 있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기숙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⁵⁾ 학내 기숙사는 1970년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른 주거 및 주택 정책은 2010년도에 들어서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사내 기숙사

25) 내일신문, 「[2016년 대학알리미 공시]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5%」, 2016.10.31.

‘기숙사’ 중 ‘사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로 노동을 위해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지방 출신의 ‘청년-노동자’에 해당된다. 해당 ‘사내 기숙사’들은 공장 및 공공운수 회사에 인접해 있거나 사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학 내 기숙사’와 비교했을 때 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대학 내 기숙사’가 공급 부족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면, ‘사내 기숙사’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맞물려 이슈화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학 내 기숙사’ 역시 청년 1인 가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특히 ‘사내 기숙사’의 경우에는 ‘대학 내 기숙사’에 비해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인원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이주한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이들 청년 역시 청년 1인 가구로 간주하였다.

‘대학 내 기숙사’가 주로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였다면 ‘사내 기숙사’는 청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서울 시내의 공단 주변에 위치한다. 특히 1970년대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공업단지 주변에 약 7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한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사내 기숙사’는 대부분이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내 기숙사’는 공장 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공장 인근에 위치하여 최대한 통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내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단 내 2백 50개 공장에 다니고 있는 7만여 직공들은 방을 구하기 위해 복덕방마다 2중 3중으로 예약 사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초임 2만원 내외인 여공들은 방값을 절약하고 방을 구하는 수단의 하나로 같은 공장에 다니는 동료 2~3명이 합숙하고 있는 방을 찾아 주야 2교대로 사용하”는 등 주거 안정성과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했다.²⁶⁾

공장 기숙사의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도 문제였지만, 공장 내 기숙사 시설이 열악한 것도 큰 문제였다. 1977년 10월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공들이 숙소를 찾아 공단 주변으로 나오는 이유는 공장의 기숙사 시설이 비좁고 규율이 엄한데다가 방값마저 비싸기 때문이라며 기업주나 당국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²⁷⁾고 밝혔다. 당시 사내 기숙사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숙사 지하실에서 난방용 보일러가 터져 지하실 유리창과 문짝 등이 박살나고 종업원들이 폭음에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중략) 사고 당시 3층 종업원 기숙사에는 20여 명의 안내양들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향신문, 「지하실 보일러 폭발 안내양들 대피소동 동아운수 기숙사」, 1979.03.15.

“비닐제품제조업체인 보성산업사 기숙사 방에서 잠자던 김동순양(19)이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 숨지고 함께자던 임승분양(19) 등 3명이 중태에 빠져있는 것을 옆방에서 잠자던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26) 경향신문, 「영등포 구로공단 주변 주택난 심각...셋방이 없다」, 1977.10.18.

27) 경향신문, 「영등포 구로공단 주변 주택난 심각...셋방이 없다」, 1977.10.18.

경향신문, 「여공 연탄 중독사」, 1979.09.19.

“가죽봉제공장인 선우산업사(대표 조남선·55)에서 불이나 공장안 숙소에서 잠자던 종업원 김금옥 양(19) 등 여공 11명이 질식해 숨지고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중략) 목조 2층 건물을 모두 태웠는데 공장 안 3개의 방에서 자던 여자 종업원 20여명 중 2층 방에서 자던 종업원들은 옥상을 통해 빠져나왔으나 1층에서 자던 11명은 3개의 공장 출입문이 모두 잠기고 담벽이 무너지며 방 문을 틀어막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동아일보, 「가죽봉제 공장 불 여공 등 11명 사망」, 1979.09.28.

“기숙사 보일러실 바로 옆 1층 방에서 잠자던 박영숙양(19·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제비리 592, 75년 입사), 김희자양(18·전남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498, 79년 입사), 이옥희양(20·전북 장수군 장수면 송천리 1구 1243, 76년 입사), 이논산양(17·전북 익산군 랑산면 랑산리 39, 78년 입사), 진영임양(18·전남 영광군 홍농면 칠곡리 521, 76년 입사) 등 5명이 벽틈 등으로 스며든 연탄가스 에 중독, 박양 등 4명은 숨지고 진양은 중태다.”

경향신문, 「네 여공 연탄가스사」, 1980.04.10.

‘사내 기숙사’의 경우에는 특히 신문의 사건사고란에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악한 환경 탓에 건물이 붕괴하거나 화재가 발생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가 대다수였다. ‘기숙사’라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장 노동자 중 특히 ‘여공’이라 불리던 여성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들 ‘청년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10대 중반에서부터 20대 중반까지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많았고, 지방에서 상경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축대가 내려앉는 굉음소리가 ‘살려달라’는 비명마저 삼켜버렸다. 동생의 학비를 보태려고 어려움 속에 이를 악물던 착한 누나의 마음도, 시집 가겠다고 적금을 붓던 처녀들의 꿈도 모두 비정한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중략) 상오 2시 50분, ‘꽁’하는 굉음과 함께 3차레나 무너져 내린 수십 톤 무게의 콘크리트와 흙더미는 10m 아래 블록으로 지은 정풍물산 기숙사를 깔아뭉갬다. 첫 번째 붕괴로 웅벽 쪽에 나란히 붙어있는 기숙사 6, 7, 9호실이 완전히 깔려 잠자던 가늌셋 여공 20명 중 17명이 희생됐고... (중략) 못다피고 숨진 여공들은 대부분 시골처녀들. 이들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1만 5천~2만원의 임금을 받아왔다. 한 달 기숙비는 2천 7백원으로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지방 출신 여공들은 모두 기숙사를 이용했다.”

경향신문, 「신대방동 축대 붕괴 참사 상보 곤한 새벽잠 덮친 날벼락」, 1975.03.10.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기숙사 후생시설에 대해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시정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로조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했으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좋지 못한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다. 거의가 전문기능직이 아닌 안내 가발 봉제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고되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 그대로 참고 견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버스안내양들의 경우를 보면 숙소에 비가 새고 한방에 53~76명까지 수용하는 곳이 20개 업체,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16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하루에 16, 17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도 제대로 휴식할 시설조차 없는 형편이다.”

동아일보, 「여성근로자들의 환경개선」, 1978.01.09.

1980년대에 들어 구로공단 내의 기숙사 수용률은 “구로공단 내 7만여 근로자 중 22.7%”²⁸⁾에 불과하였다. 이후 정부는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기숙사 건립을 계획한다. “정부는 금년부터 82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9백11억2천5백만 원을 투입, 미혼여성 근로자 2만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와 영세근로자 가정용으로 13~17평형 임대아파트 4천5백 가구를 건립기로 하는 철산리 개발계획을 11일 확정발표했다.”²⁹⁾ 그러나 1990년대 까지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건립 및 주택마련은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사측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근로자들의 주택마련

28) 동아일보, 「이웃(4) 공단주변 ‘단간방’ 벌집」, 1987.01.08.

29) 경향신문, 「구로공단 여성근로자 위해 대규모 기숙사 건립」, 1980.03.11.

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성이 부족,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략) 최근 1백 9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근로자임대 및 분양주택건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업체는 50%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한편, 2000년대 들어 구로공단 일대의 오래된 공장들이 철거되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재건축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주거 형태 또한 변화를 맞이한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형 공장에는 먼지가 푹푹 날리던 공장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깨끗한 외관 못지않게 내부 인테리어나 부대 시설이 웰빙형으로 바뀌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과 각종 첨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삭막한 작업공간에 분수대와 연못, 외부 조경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공장인지, 아파트인지 차각하게 한다. 최근에는 대기업 수준의 물류시설, 회의실, 전시공간 등 업무지원 시설과 야외휴식공간, 기숙사, 식당, 어린이 놀이방 등 아파트급 편의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 속속 들어서는 추세다.”

서울신문, 「아파트형 공장 급속 '진화」, 2005.10.28.

결과적으로 1970년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 ‘대학 내 기숙사’ 및 ‘사내 기숙사’는 입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입주 주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대학교와 사측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거 공급을 확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사내 기숙사’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공단 일대의 공장 지대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었던 2000년대 이전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소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주택 수요자들, 즉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대학교와 근무지 인근에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는 등 자력으로 주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제2절 하숙집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유형 중 ‘하숙집’은 오늘날 거의 사라진 주거 유형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특징적인 거주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숙집’ 역시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청년 1인 가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실과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을 공유하고 1인이 자신의 ‘방’에서 거주하거나 2인 내지는 3인이 ‘방’을 공유한다는 점, 대다수의 하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대도시 서울로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숙집’은 대학가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며 ‘하숙집’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대다수가 ‘청년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다. ‘하숙집’은 2인에서 3인의 청년이 한 방을 함께 쓰는

30) 연합뉴스,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 차질 우려」, 1990.07.16.

합숙의 형태에서 독방의 형태까지 그 유형이 다양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동숭동, 혜화동, 명륜동 일대를 비롯하여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이 있는 신촌 일대, 고려대 앞, 한양대 앞, 숙명여대 부근 등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숙집’은 국가 경제의 상황에 따라 공급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치솟는 물가탓이겠지만 대학가 하숙촌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하숙비 인상이다. 꺾충뽐 하숙비에 많은 하숙생들이 자취할 방을 찾거나 기숙사를 택하는 경향이 늘었다. (중략) 하숙비는 지난 10년 간 매년 3백~5백원 정도씩 오르긴 했으나 한꺼번에 2천원~5천원씩 뛐 일은 처음 있는 일. 그래도 하숙집 주인들은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하숙방을 전세로 돌리거나 아예 큰집을 팔아 목돈을 마련, 다른 장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대학가 하숙비 올라 20~30%」, 1974.03.01.

“신학기가 다가오자 대학가의 하숙비가 평균 20%씩 올랐다. (중략) 지방학생들은 이같이 하숙비가 인상됨에 따라 등록금·교과서대 등을 제외하고 교통비·잡비 등을 한달에 5만원씩 쓴다면 하숙비를 포함해 월평균 최소 9만5천~1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대부분의 하숙업자들은 하숙비를 20%이상 올려도 집세·주식비 등의 물가인상율이 이보다 커 하숙집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신촌일대의 경우 지난 하기보다 3분의 1정도 하숙업자가 줄어들었다.”

경향신문, 「대학가 하숙비 20%씩 올라 2인 합숙 4만8천원 독방 경우 6~7만원」, 1978.08.19.

“불경기의 여파는 대학가 하숙촌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고물가속 하숙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하숙집을 외면하자 개강을 하루 앞둔 22일 현재 대학가 하숙촌에는 20~30%의 방이 비어있는 실정이며 하숙을 그만두거나 월세 또는 전세로 방을 내놓는 집이 크게 늘고 있다. 대학가의 복덕방에 따르면 개학을 앞두고 하숙방을 구하러 다니는 학생들이 지난 봄 및 예년에 비해 지역에 따라 30~50%나 크게 준 반면... (중략) 이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하숙촌인 신촌 일대에 두드러져 8월들어 하숙을 그만둔 곳이 40여집이나 돼 20%를 넘고 있다.”

경향신문, 「대학가 방 남아돌자 셋방전환 늘어나 불황파 하숙촌에도」, 1979.08.22.

청년 1인 가구 중 대학생의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다음으로 ‘졸업정원제’³¹⁾ 및 ‘과외금지조치’³²⁾가 내려진 일정기간 동안 주거 환경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졸업정원의 30%를 더 뽑는 졸업정원제로 대학생의 절대 수가 늘어난 데다 과외 금지로 가정교사를 할 수 없게 된 대학생들 때문에 대학 주변의 하숙생들이 예년

31) 졸업정원제는 7.30교육개혁조치에 따라 1981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의 저원을 규정하되 입학할 때는 졸업 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여 대학 내 안일한 학문풍토와 부실한 학사관리를 이해 도입되었다. (국가기록원)

32) 과외금지조치 역시 7.30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대학생들의 과외교습 및 임시 목적의 재학생 수강 금지 등을 뼈대로 했다. 하지만 겉으로 과외가 자취를 감추었을 뿐, 과외가 음성화되어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위험부담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어 과외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겼다. 과외금지조치는 1998년 해지 되었으며, 2000년 헌법재판소를 이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 두배가량 늘어났다. 그 때문에 대학생들이 하숙방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하숙비도 크게 올랐다. 이 틈을 타 대학촌 주변 하숙집들은 종전의 방에 칸막이를 쳐 둘로 나누거나 다락방을 하숙방으로 개조, 많은 학생들이 좁은 집에 몰리게 되면서 대학가 하숙촌은 마치 무허가 여인숙촌처럼 혼잡해져 버렸다.”³³⁾

이러한 사태는 대학생의 주거환경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각종 ‘하숙 문화’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숙촌 예약금제’가 등장하여 방학 중에도 하숙방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의 예약금을 지불함으로써 하숙비가 더 인상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 5년동안 기숙사 수용능력을 거의 늘리지 않고,”³⁴⁾ 학생들의 주거권을 학생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일반 하숙대신 대학가 하숙촌으로 몰려들어 매년 하숙비의 인상”³⁵⁾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가정부를 여러명씩 두고 30~40명씩의 하숙생을 치는 ‘하숙업체’까지 생겨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하숙은 1인 청년 문화의 변화와 함께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가격이 훨씬 저렴한 ‘고시원’이 등장하면서 하숙집을 나와 고시원에 주거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 주변 특히 신림9동 일대에는 한달 10만원으로 1평짜리 독방에서 숙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고시원’이 50여곳이나 생겨났다”.³⁶⁾ 뿐만 아니라 지하철 2, 3, 4호선이 연이어 개통되면서 교통 상황이 좋아져 하숙생이 줄어들고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과 몇 년 사이 하숙집의 공급이 수요를 역전하여 넘어서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형 하숙’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에 ‘하숙집 주인’이 식사를 모두 챙겨주는 방식이었다면, ‘기업형 하숙’은 오늘날의 ‘고시원’과 그 형태가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달 하숙비가 2인 합숙에 18만~20만원인 이들 대형 하숙집은 신촌, 흑석동, 신림동 등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이 장점으로 대개 신축건물인데다 아파트처럼 화장실 온수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중략) 뭐니뭐니해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이 학생들이 꼽는 대형 하숙집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경향신문, 「대학가 하숙촌 개인주의 물질 새 풍속도」, 1992.01.21.

하숙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쇠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탓에, 주거 환경이 더 개선되어 하숙 문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주거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33) 동아일보, 「하숙값 뛰고 방 좁아졌다」, 1981.11.27.

34) 동아일보, 「하숙촌에 예약제 등장 ‘방구하기’가 ‘아파트당첨’보다 더 힘들다」, 1983.03.09.

35) 동아일보, 「지방출신들의 서울유학 이모저모」, 1984.05.05.

36) 동아일보, 「대학촌 하숙방이 남아돈다」, 1986.03.04.

“IMF 시대. 지방에서 유학온 대학생들에게는 2중의 고통이다. (중략) 학생들의 주머니가 얇아지자 덩달아 하숙집까지 곤란을 겪는다. 대학가가 몰려 있는 신촌지역의 최근 하숙비는 독방이 35만원에서 45만원대이고 두명이 함께 쓰는 합방은 25만원에서 30만원대. 하지만 합방의 경우 룸메이트가 들어오지 않아 합방값으로 독방을 쓰는 경우도 많다. (중략) ‘하숙생 모시기’에 열을 내고 있는 하숙집을 외면하고 더 싼곳으로 찾아들고 있다. 간단하게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잠만자는 하숙집을 찾는 것’. 이들 하숙집은 보통 독방 30만원. 합방 15만원 정도. 잠만 잘 경우 일반 하숙때보다 30%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고시원을 많이 찾고 있다. 고시원에서는 잠만 자고 학교에 올라가 하루 세끼를 학생식당에서 해결한다. 고시원의 경우 12만원에서 2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12만원짜리 방은 그야말로 ‘벌집’ 수준.”

경향신문, 「낙향... 고시원 선호... 원거리 통학... 하숙촌 ‘썰렁’」, 1998.12.17.

이후 ‘하숙 문화’는 대학가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하숙집 주인’은 대학가 일대에서 수십 년 동안 하숙집을 운영했던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는 ‘하숙집’ 건물을 재건축하여 ‘자취방/월세방/원룸’의 형태로 탈바꿈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다가구 임대주택법³⁷⁾을 마련하여 도시 영세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빈 하숙집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주요 입주자들이 지방 출신의 대학생들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하숙집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곳 하숙생 15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 유학생이다. (중략) 하숙집 주인 변현숙(47·여)씨는 ‘인근 하숙집 대부분에 외국인 유학생 2~4명이 살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매운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다가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웃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대학가에 ‘다문화 하숙집’ 열풍이 불고 있다. (중략)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2만 2526명, 2006년 3만 2557명, 2007년 4만 927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신문, 「대학가 ‘다문화 하숙집’ 열풍」, 2008.04.26.

하숙은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 유형의 한 형태로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반면, 수요가 줄어들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청년 가구가 선호하는 ‘원룸’으로 재건축이 되거나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주자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37)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대도시 도심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대학가 주변 하숙집 형태의 ‘다중주택’을 매입해 도시 영세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임대료는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에서 책정된다. (동아일보, 「영세민 다가구 임대주택 ‘빈집...빈정책」, 2005.07.21.)

제3절 자취방/월세방/원룸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자취방/월세방/원룸(이하 ‘자취방’)’은 연대기 순으로 그 명칭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의 주택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거주 유형이다. ‘자취방’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대상은 그 범위가 가장 넓다. ‘청년 대학생’부터 ‘청년 노동자’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청년’이 ‘자취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신문 기사 상으로 드러나는 ‘자취방’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그 명칭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노동자’의 종사 직군의 변화 양상에 따라 거주 지역과 거주 형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자취방’이라는 카테고리는 그 스펙트럼이 가장 넓지만 그만큼 ‘청년 2인 가구’의 문화를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취방’의 유형이 변화해 감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 상품으로 변화하게 된 과정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 사내 기숙사의 공급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향에 따라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들은 공장 지대 인근에 위치한 자취방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낮은 인건비로 인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동료들과 시간대별로 방을 공유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가인상에 따른 종업원 생활상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직, 기능직, 전습공 등 전 직종의 평균임금은 올해 들어 21%가 올랐지만 필수생계비지출 면에서는 30%가 올라”³⁸⁾ 결과적으로 약 9% 포인트에 달하는 생활비 인상을 겪게 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 구로 공단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체종업원 7만1천명 중 자택통근, 기숙사 입주자를 뺀 2만3천여 명이 전세·월세방을 쓰거나 하숙을 하고 있어 3분의 1이 주거비조달에 애를 먹고”³⁹⁾ 있었으며, 반면 “복지관 수용력이 5백10명이어서 공단 내 많은 종업원들이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⁴⁰⁾이었다. 사내 기숙사를 비롯한 복지관조차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기업은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직물에서 야간 근무만을 하고 있는 이모양(18)은 주간에만 일하는 동료들의 방을 찾아 낮에만 사용하고 방값은 절반인 3천원을 내 모자라는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것. 제1공단 주변인 구로동 779, 778, 제2공단 주변인 가리봉동 124와 구로2·3·4동 일대는 가로 6자, 세로 7자의 작은 방을 구하려 해도 3만~5만원의 보증금과 함께 월 8천원의 방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2~3명이 함께 자취를 할 수 있는 가로 9자, 세로 10자 정도의 방을 얻으려면 보증금 10만원에 매달 2만원씩을 방세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여공들은 매월 방값으로 6천~7천원을 초과할 수 없어

38) 경향신문, 「공단사회에도 물가고 바람이...」, 1979.04.30.

39) 경향신문, 「공단사회에도 물가고 바람이...」, 1979.04.30.

40) 경향신문, 「공단사회에도 물가고 바람이...」, 1979.04.30.

2교대제 셋방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

경향신문, 「영등포 구로공단 주변 주택난 심각...셋방이 없다」, 1977.10.18.

특히 공장 인근에 위치한 주택들은 대부분 영세한 모양새로, 무허가 주택으로 개조된 것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건의 재개발로 인해 철거민들이 한데 몰리면서, 주거난은 더 심각해져 무허가 주택조차 공급이 부족했으며, 주택을 불법 개조하여 방을 쪼개어 세를 주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紙上 반장회

세계 제일의 과밀도시인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다. 시장의 사각지대에 걸려진 골목길을 찾아 주민들의 의사와 단위의 처벌을 받아 보는 지상산회를 마련한다.

영등포구 九老工團 주변

住宅難 심각...셋방이 없다



주야 2部制도 등장

구로공단주변의 어려운 방사정을알해주는 초단원의 발래들. 방을구하기가 힘들어 2부제 셋방까지동참했다.

복덕방마다 豫約사태

7萬여종업원 방구하기 作戰
夫婦위장 자취로 脫線은상도

전세전문업종 하고 있으며 일방정도로 대부분 처마 밑에까지 부하기로 시멘트벽돌과 슬레이트로 임시지붕을 만들어 세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민 정착지역인 이곳 은 허술하게 지은 불량주택 3천5백29동과 건평 7평 미만인 시영주택 1천 63동이 고작이어서 깨끗한 방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여공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재개발지구

▲洪錦福시장비교의 일례를 재개발지역의 일례를 비교해 보면 이 곳은 7200년제지 5평(7평)의 서울시가 주택(7평)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반면에 재개발지역은 100평 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구로동 779 김영희씨(43세·여)는 시멘트 블록으로 허술한 연립식 주택1동(건평 35평)을 갖고 칸막이 방 40여개를 만들어 전세 전문업을 하고있으며 일반가정들도 대부분 처마 텅게까지 무허가로 시멘트벽돌과 슬레이트로 임시지붕을 만들어 세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민 정착지역인 이곳은 허술하게 지은 불량주택 3천5백29동과 건평 7평 미만인 시영주택 1천 63동이 고작이어서 깨끗한 방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여공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경향신문, 「영등포 구로공단 주변 주택난 심각...셋방이 없다」, 1977.10.18.

이러한 불법 무허가 주택들은 ‘닭장’, ‘벌집’, ‘벌통집’ 등으로 불리었는데, 집 한 채에 20가구에서 최대 40가구까지 밀집해 있었다. 한두 평짜리 비좁은 방을 평균적으로 6명에서 8명의 인원이 공동으로 세를 얻어 사용하였으며 교대 근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나누어 잠만 잘 수 있는 형태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닭장에서의 잠을 또 ‘칼잠’이라는 색다른 말로 부른다. 방이 너무 좁아 두 사람씩 머리의 방향을 반대로 한 채 다리를 서로 포개고 누워야 한대서 생긴 이름”⁴¹⁾이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지면 상에 언급되며 주거 환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집에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을 들어 공단지역의 주택 전세가격 폭등으로 근로자들이 방 한칸에 3~4명씩 기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사진=陳廣學기자>

“공단5거리 부근 ‘벌통집’에서 생활하는 여성 근로자는 2만명 이상. 가리봉동 일대는 ‘벌통집’ 형태의 셋방을 놓는 집이 5백여 채나 있으며 한집에서 52개의 방을 세놓는 경우도 있다. ‘벌통집’은 보통 1평 반에서 2평짜리 방 하나에 부엌이 달려 있는데 부엌 없이 복도나 마당에서 밥을 짓는 곳도 많다. 대부분 한옥을 세놓기 좋게 개조한 집들이다. 공단 근로자들은 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에 보통 3명, 심지어는 2평 미만의 방에서 6명까지 합숙한다. 어떤 때는 5,6명이 2평짜리 좁은 방에서 모로 누워 칼잠을 자기도 한다. 자취 근로자들이 많은 것은 구로공단입주업체 2백49개 가운데 기숙사를 가진 곳은 51%인 1백27군데인데다 수용능력은 공단근로자의 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공단여성 근로자의 ‘낮과 밤」, 1984.08.01.

41) 동아일보, 「직업병에 우는 근로자들」, 1984.02.06.

한편, 대학 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 대학생들 역시 대학가 인근에 하숙 또는 자취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거주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답장’ 형태의 자취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여관을 개조해 ‘학생아파트’로 사용하는 경우”⁴²⁾가 이에 해당되는데,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30여 개의 방으로 쪼개어 입주자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일부 여성근로자중에는 어려운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청년 대학생들이 주로 하숙집에서 거주했다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주거 문화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원룸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1칸에 화장실과 싱크대를 갖춘 일명 스튜디오로 불리는 ‘원룸시스템’의 임대주택이 서울도심에 등장했다. 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 건설 등록업체인 상우주택(대표 길흥)이 종로구 송월동 1의2에 이달말 입주예정으로 건립중인 임대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8평에서 14평의 미니주택으로 독신자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원룸시스템’을 도입했다.”

매일경제, 「서울 도심에 첫 ‘원룸’ 연립주택」, 1986.02.06.

이러한 형태의 ‘원룸’은 ‘차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주택’으로 불리며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원룸’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42) 동아일보, 「지방출신들의 서울유학 이모저모」, 1984.05.05.

도시 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도심 내 재개발을 필두로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였다면, 1990년대 들어 노태우 정권은 도심 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필두로 도심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즉, 도심 내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인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최대치에 달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개발은 소규모 자투리 택지로 건축이 가능한 ‘원룸’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차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주택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은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는데다 택지난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선경건설, 삼성종합건설, 대우, 우성건설, 동부건설 등이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연내에 첫 상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분당 신도시 내 주택통합전시관에 10평짜리 독신자 아파트 견본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독신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방, 거실, 주방이 일체화된 원룸시스템의 독신자 전용 평면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1천평 미만의 도심지 자투리땅을 이용해 전략상품화한다는 전략이다.”

매일경제, 「주택업계 신상품 개발 적극 나서」, 1993.06.18.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노동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공장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젊은 직장인, 즉 화이트칼라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주택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취빌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름만 다를 뿐 기존에 새로운 주거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던 ‘원룸’과 그 형태가 동일하다. “자취빌딩은 침실과 화장실, 부엌이 한 공간에 있고 방마다 전기·수도계량기가 설치”⁴³⁾되어 있었으며, “에어컨과 냉장고,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⁴⁴⁾하여 대학가뿐만 아니라 오피스 밀집 지역에도 우후죽순 건설되는 경향을 보였다.



43) 경향신문, 「대학가 ‘자취빌딩’ 인기」, 1994.03.14.

44) 경향신문, 「대학가 ‘자취빌딩’ 인기」, 1994.03.14.

한편, 여성 1인 가구들은 신문 지면 상에서 사건, 사고 란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공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구로 공단과 가리봉동 일대에는 성폭력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이유는 주로 공장들이 24시간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3교대 근무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공들의 출퇴근 시간이 주로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방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폭력, 강도, 강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영등포구 가리봉 1,2동 일대 여공들은 밤늦은 퇴근길과 야간작업출근길이 불안하기만 하다. 구로 2,3공단 입구업체와 군소공장들이 뻘뻘하게 들어찬 이 일대는 경찰의 방법활동을 비웃는 듯 매일 처럼 폭력, 노상강도, 강간 등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각종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 여공들. 작업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길을 나서게 되는 이들 여공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중략) 여공들에 대한 폭력이나 강제추행은 피해를 본 여공들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실제 일어난 사건은 밝혀진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계 경찰들은 보고 있다.”

동아일보, 「가리봉 1,2동」, 1978.02.18.

이러한 기사는 약 20년간 반복적으로 지면상에 모습을 보인다. ‘경향신문, 「여공 숙소돌며 추행·강도」, 1978.03.11.’, ‘동아일보, 「여대생 자취방서 피살」, 1983.02.25.’, ‘경향신문, 「공단여성 자취방 골라 방위병 상습강간·절도」, 1990.02.26.’, ‘동아일보, 「성폭행 은폐 방호 20대 사형선고」, 1990.08.31.’, ‘한겨레, 「여 기숙사 들어가 더듬다 덜미」, 1991.04.07.’, ‘경향신문, 「이웃가장 20대 강도 성폭행뒤 금품갈취」, 1992.03.31.’

한편,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원룸’은 새로운 ‘부동산 상품’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가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원룸’이 하나의 투자 상품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입지 유형과 달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신문에는 ‘원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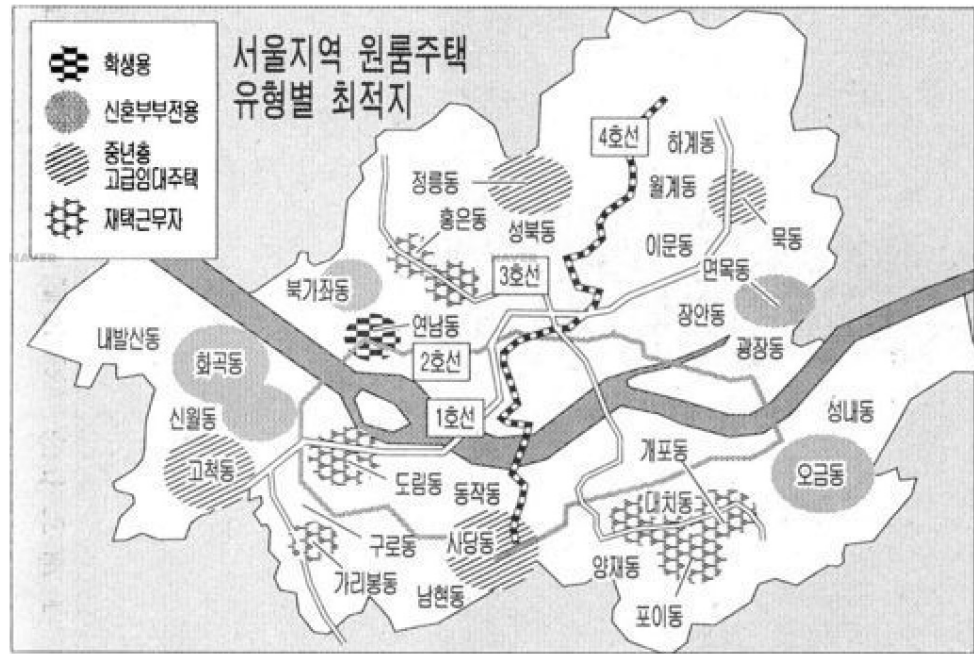
“수요측면에서 바라본 원룸주택은 대기 수요자가 무궁무진하다. 도시에 근무처가 있는 직장인, 대학생, 전문직업인, 오피스걸 등이 주요 수요층이다. 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주택을 원한다. 원룸주택의 입지조건이 역세권으로 한정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매일경제, 「신세대 발길 ‘원룸’으로 몰린다」, 1995.07.13.

“원룸주택 임대사업은 투자규모가 작고 손익계산이 간단하며 위험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임대가 주종인 일종의 부동산 틈새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금 5천만원 이상을 갖고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과 2천만~3천만원으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얻으려는 사람들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원룸주택의 입주희망자들이다. 건축방법은 3가지로 압축된다. 자신이 직접 공사비 등 투자비를 대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만 의뢰해 임대 후 수익을 챙

기는 방식이다.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다. 다음 방법은 전문업체를 끼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땅은 있지만 개발방향에 아이디어가 없거나 건축허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중략) 그 다음은 기업형이다. 건설업체가 직접 원룸 아파트를 지어 임대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지주들에게 별 해당사항이 없다.”

매일경제, 「원룸주택 투자규모 작고 위험부담 없어」, 1996.09.30



이는 1994년 11월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5가구 이상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특히 5년 이상 임대 후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구 취득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던 것을 ‘등록 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원룸’은 1990년대 후반이 되면 보편적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으로 떠오른다. 기존에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청년 1인 가구들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재건축한 ‘원룸’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원룸’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 청년들의 거주 문화 역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원룸형 자취방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서대문구 금화터널 근처 원룸형 빌라에서 생활하는 한 대학원생은 ‘여자친구가 자주 놀러오는데 하숙집은 너무 불편했다’며 ‘원룸은 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전했다. 또 같은 건물에 사는 서강대 2학년 박모군은 ‘원룸은 이웃학생들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돼 마음이 편하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대학촌 하숙·자취집들도 근래들어 원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신촌과 관

약구 신림9동 등은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원룸을 짓는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선후배든 친구들 ‘합방’은 싫다」, 1997.05.24.

“한때 서울 뒷골목 문화의 한편을 장식했던 여관과 여인숙들이 사양화함에 따라 소유자들이 업종 변경을 모색하는 중에 최근 월세용 원룸을 리노베이션(renovation)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에 여관을 가지고 있는 김 모씨는 그 동안 임대를 주고 있던 여관을 회수해 여성 전용 미니원룸으로 바꿨다. 약수동에 여관을 소유한 윤 모씨도 20개 여관방을 월세방으로 리노베이션해 현재 입주 대기자까지 기다리는 등 예상 밖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밖에 구로 일대에 매물로 나온 여관들도 월세용 원룸을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입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넓은 여관을 임대용 미니원룸으로」, 1999.07.21.

2000년대 들어서는 ‘뉴타운 재개발’의 열풍으로 주택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년 1인 가구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 1인 가구들은 갈 곳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뉴타운으로 선정된 곳 중 대학이 인접한 곳은 흑석, 미아, 길음, 전농·답십리, 이문·휘경, 왕십리 뉴타운 등으로 주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고”⁴⁵⁾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에 인접한 대학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가로 옮겨가면서 뉴타운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가의 방값까지 오르는 ‘풍선효과’까지 낳고”⁴⁶⁾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마련 해 주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해당 대학의 청년 1인 가구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짓는 20채 이상 150채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85㎡ 이하), 원룸형(12~30㎡), 기숙사형(7~20㎡) 등 세 가지다.”⁴⁷⁾ 특히 기존의 ‘원룸’ 개발이 소규모 건설사들이나 지주 개인의 투자로 이루어졌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형건설사와 중형 이상의 건설사들이 주로 건설을 도맡게 된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시장 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꿔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지주들도 다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자취방’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 명칭이 변모하면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 역시 함께 변화했다. 특히, 기존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허가 불법 개조를 통한 공급이 주를 이루어졌다면,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역시 하나의

45) 세계일보, 「뉴타운 개발 ‘불풍’... ‘싼 자취방’ 찾아 삼만리」, 2008.08.27.

46) 세계일보, 「뉴타운 개발 ‘불풍’... ‘싼 자취방’ 찾아 삼만리」, 2008.08.27.

47) 동아일보, 「‘싱글 하우스’붐... 새 투자처로 뜬다」, 2009.07.16.

‘부동산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특히, 기존의 청년 1인 가구가 일부 ‘집주인’들의 ‘장사’ 형태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원룸’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정부 역시 시장 정책을 마련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으로,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고시원

- 고시텔, 원룸텔, 미니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 중 ‘고시원’은 1980년대에 등장한 주거 유형으로 ‘고시원’이라는 명칭처럼 초기의 형태는 ‘청년 고시생’을 위한 주거 형태로 등장하였지만, 현재는 청년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좁은 방’이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청년 주거=큐브’라는 도식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3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사실 ‘큐브’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제4장에서 다룰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고시원’이라는 주거 유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시원’이 ‘청년 고시생’을 위한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보편적 주거 유형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이행 시기에 등장한 정부의 주거 정책 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청년 1인 가구’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카테고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 최초로 ‘고시원’이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중반으로, 초반의 명칭은 ‘고시원’이 아닌 ‘독서실’이었다. ‘독서실’은 실제로 임대 사업장이 아니었으나, 불법적인 숙박업소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사설독서실이 규정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고 철야영업, 남녀학생혼합수용 등 변태운동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위는 일손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단속을 않고 있다. (중략) 시교위는 또 종전 아침6시부터 저녁6시반까지로 돼있던 개방시간을 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밤10시반까지 4시간이나 연장해주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대부분 24시간 계속 영업, 학생들에게 독서실 안에서 밥을 지어먹게 하고 잠까지 재우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독서실 변태운영」, 1978.11.03

특히, 이러한 형태의 사설 ‘독서실’들은 1980년대 들어 설치가 자유화되면서, 서울 시내에 약 1천 1백여 개 소로 증가하는데, 이들 ‘독서실’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독서실’과 달리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침실’까지 마련되어 있어, 오늘날의 ‘고시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침실이 분리된 형태를 보였다.

“입실료는 월 3만원이며 침실 사용료는 희망자에 한해 한달에 2만원씩 받는다. 이같은 독서실은

공부할 장소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실비로 해결할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집이 서울인 학생들도 고시준비 등을 이유로 찾는 경우가 많아 성업중이다. (중략) 한편 1인당 0.7평 정도 크기의 방에 책상 1개를 두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고시원’도 서울 시내에만 1백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자는 고시준비생들이 대부분이다. 이가운데 독서실 허가를 가진 곳은 극소수이고 최근 대학가에는 하숙집들이 1인1실 형태의 ‘고시원’으로 변형되는 경향까지 있다.”

동아일보, 「지방출신들의 서울유학 이모저모」, 1984.05.05.

위에서 언급한바, ‘고시원’은 197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나,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시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처음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데 모여 고시촌을 이룬 것을 시발점으로 한다. 특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일대 주택가에 자리 잡은 ‘고시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다세대 주택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를 개조하여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게끔 개조된 형태로, 폭 1m 남짓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수십 개의 방들이 한 건물이 모여 있는 형태였다. ‘고시원’이 신문 지면상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 ‘고시원’이라는 주거 유형이 ‘고시생’들을 위한 주거 유형이 아니라 입실자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 유지비가 저렴하고,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이곳은 출잡아 5천여명의 고시수험생들이 몰려들어 집념을 불태우며 집단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신림고시촌’이다. (중략) 85년 경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이제는 1백여동이나 되는 명실공히 고시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중략) 1~1.5평 가량의 좁은 방이 수십개씩 배열된 이들 고시원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공부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반 하숙보다 오히려 숙식비가 싸다는점 때문이다. (중략) 고시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들어 고시생 뿐 아니라 취업시험준비생이나 대학 재수생 및 일반 재학생들까지 모여드는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변모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업자들이 일반가정집을 고시원으로 개조, 되팔아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으나 정작 고시생들 사이에는 ‘갈수록 주변여건이 삭막한 가운데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불평이 늘어가고 있다.”

동아일보, 「신림동 고시촌」, 1990.12.15

몇 년 사이, 신림동에 밀집되어 있던 ‘고시원’은 대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가 일대로 번져나가기 시작한다. 1992년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1백여 개의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신림동을 비롯하여 신촌, 성북구 안암동 등 대학가에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일반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년 1인 가구 중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 역시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고시원’과 유사한 형태의 ‘원룸텔’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원룸텔’은 원룸아파트와 호텔을 합성한 단어로, 1.2평의 초미니 원룸으로 급부상한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국내 최초로 초미니 원룸이 등장했다. (중략) 원룸아파트를 쓰기엔 전세금이 부담스럽고 하숙생활을 하자니 불편한 점이 많은 미혼의 20, 30대 직장인을 겨냥한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은 한달에 40만~50만원을 주고 회사근처 고시원이나 하숙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이곳에 원룸텔이 등장한 것은 불과 한달 전. 고시원이던 2층을 22개의 여성전용 룸으로 만들고 독서실이던 3층을 24개의 남성전용 방으로 개조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생활정보지에 소개되자마자 입주자 예약이 만료됐다.”

경향신문, 「1.2평 초미니 ‘원룸텔’」, 1997.06.23.

‘원룸텔’의 등장은 ‘고시원’의 부동산 상품화를 이끌었다. ‘원룸’이 상품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원룸텔’ 역시 ‘고시원’의 상품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나 테헤란로, 종로, 마포 등지의 도심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로공단 일대에도 ‘원룸텔’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벌집’ 형태의 자취방이 현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불황기에도 고수익을 낳는 틈새상품이 있게 마련이다. 임대주택 사업이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택지지구 주변의 준농림지, 원룸텔 사업 등이다. (중략) 기업과 개인부동산 매물이 쏟아지면서 경매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지금이 바로 경매장을 찾을 때다.”

매일경제, 「부동산 불황에도 고수익 낳는 틈새상품 있다」, 1998.01.23.

1990년대 후반, ‘원룸텔’이 하나의 보편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단독 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원룸’으로 개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거물을 리모델링하여 ‘원룸텔’로 탈바꿈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신축을 하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현저히 단축되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원룸텔’ 임대 사업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어 201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원룸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의 범위에 속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유형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서울 종로 2가 종각역 YMCA 건물 뒤편에 있는 종각원룸텔은 안숙자 씨(47)의 창업의 꿈이 영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올 3월에 개원한 이곳에서 안씨는 어엿한 원장으로 통한다. (중략) 주변 정보를 수소문해 이것저것 업종을 고르던 중 서울대 앞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독립사업이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데 일단 고시원을 열면 운영하는 일은 힘들지 않고 꾸준히 임대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말을 들었지요.’ (중략) 현재 입주자 가운데 직장인이 70%이고 나머지는 대학생이나 고시원생이다. 임대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고 월세 20만원만 받기 때문에 항시 대기수요가 있다.”

매일경제, 「원룸텔 임대사업 수익 짹짹」, 1999.09.17.

“오피스텔과 원룸텔은 올 상반기면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의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준주택이란 현재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시설들을 주택 개념으로 양성화한 것이다. (중략) 일종의 기숙사형 주택인 원룸텔은 작년 전용면적 1000㎡ 이하의 고시원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양성화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졌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시공건축물 허가건수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근대식 쪽방인 원룸텔은 레지던스, 싱글룸, 리빙텔이란 이름으로 광고가 되면서 분양가 5000만 원에 50만~6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분양형 원룸텔은 작년 건축법 개정으로 개별 욕실 설치 가능해졌다.”

동아일보, 「준주택으로 ‘신분’ 바뀌는 원룸텔-오피스텔」, 2010.03.22.

결과적으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고시원’은 그 수요층이 고시생에서 대학생으로, 대학생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로, 블루칼라 노동자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점차 확대되어 2016년 현재, 청년 1인 가구가 보편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룸’의 변천사와 마찬가지로 점차 부동산 상품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시장 확대에 정부의 정책 또한 사후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청년-주거-큐브

지금까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및 주택 유형과 주거 및 주택 정책이 이러한 경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및 주택 정책을 펼쳤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경우에도 정작 청년의 주거권을 책임질 주체가 부재하여,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거 및 주택 정책은 2000년대 들어 시장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사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이지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될 청년 1인 가구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주거 및 주택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정부의 정책은 경제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거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흔들어놓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80년대의 ‘7.30 교육개혁조치’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대학가의 교육질을 높이는 대신, ‘대학 졸업정원제’를 통한 대학생 수의 증가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낳았고, ‘과외전면금지’ 조치로 대학생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주거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은 젠더에 따라, 계층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현저히 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주거 안정성이 뒷받침 되지 않았을 때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같은 청년 1인 가구이더라도 블루 컬러의 노동자인지, 대학생 신분인지에 따라 주거 지역을 비롯하여 주거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블루 컬러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의 질이 대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는데, 특히 신문의 사건, 사고란에서 빈번하게 등장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주택 시장이 확장되자, 기존의 주택 유형이 주택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공간에 입주해 있는 입주 주체 역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숙집’에 거주하는 학생은 청년 대학생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변화하였고, ‘하숙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하숙집’은 ‘원룸’ 형태로 재건축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자취방/월세집’은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건축 되어 ‘원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화하였다. 고시생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독서실’과 ‘고시원’은 오히려 입주자의 유형이 크게 확장되면서 ‘원룸텔’과 ‘리빙텔’ 등으로 불리며 공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변천사는 ‘큐브’ 주거의 변천사에 다름 아니었다. 1970년대 주를 이루었던 ‘기숙사’, ‘쪽방’, ‘하숙집’ 등은 사실상 오늘날 청년 1인 가구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고시원’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평균적 삶은 오늘날 두드러진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청년 1인 가구의 삶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부재와 시장 구조를 뒷받침하며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주거 및 주택 정책은 청년 1인 가구의 실질적 주거 안정성을 흔들며 놓는 결과를 낳아왔다. ‘큐브’에 거주해 온 청년 1인 가구의 삶이 ‘큐브’ 밖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 및 주택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책임 주체 역시 법제화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문】

- 김소연 「24시간화 되어가는 도심에서의 싱글족을 위한 주거와 사무 환경의 새로운 유형 제안」(2004)
 박은진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실험 : 해방촌 ‘빈집’ 게스트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201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2014)
 서울시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성진용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2008)
 신은정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세어하우스 입주 의사결정 요인」(2015)
 정민우 「청년 세대의 주거와 이동, 정체화의 불/연속성 : 고시원 사례를 중심으로」(2011)
 주택산업연구원 「1인가구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2007)

【포털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tat.go.kr/>)

【신문】

- 경향신문, 「대학가 하숙비 올라 20~30%」, 1974.03.01.
 경향신문, 「신대방동 축대 붕괴 참사 상보 곤한 새벽잠 덮친 날벼락」, 1975.03.10.
 경향신문, 「영등포 구로공단 주변 주택난 심각...셋방이 없다」, 1977.10.18.
 경향신문, 「여공 숙소돌며 추행·강도」, 1978.03.11.
 경향신문, 「대학가 하숙비 20%씩 올라 2인 합숙 4만8천원 독방 경우 6~7만원」, 1978.08.19.
 경향신문, 「지하실 보일러 폭발 안내양들 대피소동 동아운수 기숙사」, 1979.03.15.
 경향신문, 「공단사회에도 물가고 바람이...」, 1979.04.30.
 경향신문, 「대학가 방 남아돌자 셋방전환 늘어나 불황파 하숙촌에도」, 1979.08.22.
 경향신문, 「여공 연탄 중독사」, 1979.09.19.
 경향신문, 「구로공단 여성근로자 위해 대규모 기숙사 건립」, 1980.03.11.
 경향신문, 「네 여공 연탄가스사」, 1980.04.10.
 경향신문, 「“좁은문 속 좁은문” 대학 기숙사 수용능력 달려 올 신입생 치열한 입사경쟁」, 1984.01.31.
 경향신문, 「공단여성 자취방 골라 방위병 상습강간·절도」, 1990.02.26.
 경향신문, 「기숙사 입실도 “바늘구멍”」, 1992.01.17.
 경향신문, 「대학가 하숙촌 개인주의 물결 새 풍속도」, 1992.01.21.
 경향신문, 「대학가 ‘자취빌딩’ 인기」, 1994.03.14.

경향신문, 「이웃가장 20대 강도 성폭행뒤 금품갈취」, 1992.03.31.
 경향신문, 「선후배든 친구들 ‘함방’은 싫다」, 1997.05.24.
 경향신문, 「1.2평 초미니 ‘원룸텔」, 1997.06.23.
 경향신문, 「낙향... 고시원 선호... 원거리 통학... 하숙촌 ‘썰렁」, 1998.12.17.
 내일신문, 「[2016년 대학알리미 공시]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5%」, 2016.10.31.
 동아일보, 「여학생의 집 지방학생을 위한 서울의 마이홈 다섯곳을 찾아본다」, 1972.01.18
 동아일보, 「대학교육과 지역성」, 1972.03.17.
 동아일보, 「여성근로자들의 환경개선」, 1978.01.09.
 동아일보, 「가리봉 1,2동」, 1978.02.18.
 동아일보, 「대학 기숙사가 모자란다」, 1978.03.07.
 동아일보, 「시설독서실 변태운영」, 1978.11.03
 동아일보, 「가족봉제 공장 불 여공 등 11명 사망」, 1979.09.28.
 동아일보, 「하숙값 뛰고 방 좁아졌다」, 1981.11.27.
 동아일보, 「여대생 자취방서 피살」, 1983.02.25.
 동아일보, 「하숙촌에 예약제 등장 ‘방구하기’가 ‘아파트당첨’보다 더 힘들다」, 1983.03.09.
 동아일보, 「직업병에 우는 근로자들」, 1984.02.06.
 동아일보, 「지방출신들의 서울유학 이모저모」, 1984.05.05.
 동아일보, 「공단여성 근로자의 ‘낮과 밤」, 1984.08.01.
 동아일보, 「대학촌 하숙방이 남아돈다」, 1986.03.04.
 동아일보, 「이웃(4) 공단주변 ‘단간방’ 별집」, 1987.01.08.
 동아일보, 「성폭행 은폐 방호 20대 사형선고」, 1990.08.31.
 동아일보, 「신림동 고시촌」, 1990.12.15
 동아일보, 「영세민 다가구 임대주택 ‘빈집...빈정책」, 2005.07.21.
 동아일보, 「싱글 하우스’붐... 새 투자처로 뜬다」, 2009.07.16.
 동아일보, 「준주택으로 ‘신분’ 바뀌는 원룸텔-오피스텔」, 2010.03.22.
 매일경제, 「서울 도심에 첫 ‘원룸’ 연립주택」, 1986.02.06.
 매일경제, 「주택업계 신상품 개발 적극 나서」, 1993.06.18.
 매일경제, 「신세대 발길 ‘원룸’으로 몰린다」, 1995.07.13.
 매일경제, 「원룸주택 투자규모 작고 위험부담 없어」, 1996.09.30.
 매일경제, 「부동산 불황에도 고수익 낚는 틈새상품 있다」, 1998.01.23.
 매일경제, 「넓은 여관을 임대용 미니원룸으로」, 1999.07.21.
 매일경제, 「원룸텔 임대사업 수익 짹짹」, 1999.09.17.
 서울신문, 「아파트형 공장 급속 ‘진화」, 2005.10.28.
 서울신문, 「대학가 ‘다문화 하숙집’ 열풍」, 2008.04.26.
 서울&, 「통계로 본 서울 - 네 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 복지 주택 제도 바꿔야」, 2016.03.31.
 세계일보, 「뉴타운 개발 ‘불똥’... ‘싼 자취방 찾아 삼만리」, 2008.08.27.

세계일보, 「도심주택 개조 1인가구에 임대... 실효성은 미지수」, 2015.09.02.
시사저널, 「기숙사 모자라 원룸 전전하는 대학생들」, 2016.11.08.
연합뉴스,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 차질 우려」, 1990.07.16.
연합뉴스, 「29세, 34세, 39세, 49세... 지자체·단체마다 청년나이 천차만별」, 2016.08.15.
이투데이, 「월세 땀에 고달픈 청년층」, 2016.12.06.
한겨레, 「여 기숙사 들어가 더듬다 덜미」, 1991.04.07.
동아뉴스, 「청년 1인가구 주거면적, 英의 절반」, 2016.11.22.

청년창작자들이 만드는 도시형장터의 양적, 질적 현황조사

마켓히어로 박주연 류덕희 송효웅

협력파트너

정은빈

청년창작자들이 만드는 도시형장터의 양적, 질적 현황조사

박주연, 정은빈, 류덕희, 송효웅

목 차

시작- 도시형장터의 양과 질에 관하여

I. 도시형 장터 한눈에 보기

1. 지역별 장터
2. 콘텐츠별 장터
3. 횡수별 장터

II. 청년 창작자, 그들의 삶 들여다보기

1. 판매자 설문조사

- 가. 객관식 응답결과
- 나. 주관식 응답결과
- 다. 객관식 응답 항목 간 분석
- 라. 주관식 응답 항목 간 분석

2. 각자의 장터, 그리고 창작자의 이야기

- 가. 홍대 앞 희망시장
- 나. 여행마켓
- 다. 디파트먼트마켓

3. 연구자의 경험

- 가. S페스티벌: 류덕희
- 나. 축제속의 플리마켓: 박주연
- 다. 마을에서의 첫 번째 기획 장터: 정은빈

마무리

시작_도시형장터의 양과 질에 관하여

마켓히어로는 변화하는 현대의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지역재생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이다. 구성원의 역할을 살펴보자면 문화기획자, 마켓기획자, 활동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최근 급격하게 팽창한 플리마켓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포함한 청년기획자, 예술가, 생산자들이 모인 이 마켓의 현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

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장터의 확산이 우리의 환경인 도시와 마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기획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장터의 발전적인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짚어보고 향후의 장터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지아의 연구 논문에 근거하여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도시형장터¹⁾(도시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적인 소비형태가 도시형장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와 성격만큼 부르는 이름도 플리마켓(flea market), 프리마켓(free market), 거리마켓(street market), 커뮤니티마켓(communitiy market),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공공마켓(public market)²⁾ 등 여러 가지이다.)’로 지정하고 역으로 구성 주체들의 삶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그 범위로 하여 분포와 운영기간 및 횟수를 점검해 보고 지역적인 분포를 근거로 한 양적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도시형장터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기획자, 판매자로 대표되는 구성원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첫째로, 실질적인 청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둘째로 긍정적인 효과와 보완해 나가야 할 지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원들이 직접 도시형장터 운영 및 대행을 통해 체험한 후기형 결과보고를 더하여 연구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였다.

시장은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기구로서의 경제적인 역할³⁾ 외에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며, 주민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시장의 기능과 운영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도 최근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도적인 기획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문화기획 시장을 도시형장터로 지정하고 이 시장의 분포도와 현황을 들여가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형장터가 청년창작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창작자들이 지향해야 할 도시형장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작자들과 마켓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선행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마켓의 방향성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둘째, 청년창작자들과의 인터뷰, 질적평가를 통해 현재 마켓의 흐름과 새로운 형태의 마켓에 대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도시형장터의 현장 방문 및 연구조사는 9월~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6개의 장터 운영정보와 6개의 기획자 서면 인터뷰, 판매자 10개의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3번의 연구진 마켓 운영체험으로 구성되었다.

1) 김지아. p15. ‘서울시 도시형 장터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2014

2) 김지아. p12. ‘서울시 도시형 장터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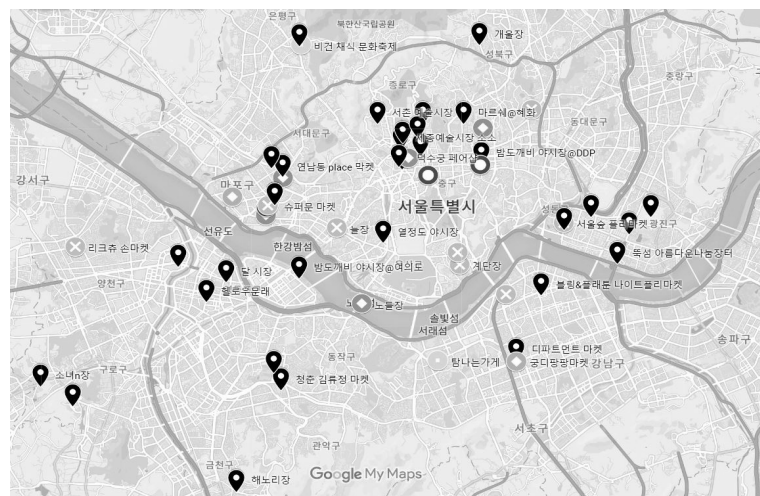
3) 두산백과사전, 검색어‘시장’

I. 도시형장터 한눈에 보기

서울 시 내 어떤 도시형장터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열리고 있는지 한 눈에 보기 위해 온라인 포털 지도 서비스(구글/네이버)를 이용하였다.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맞추어 청년창작자 위주로 운영되는 56개의 도시형장터들을 선정하였다. 기업의 마케팅목적 장터, 단일기업참여의 장터는 제외하였고, 축제의 일부분 혹은 이벤트적인 목적 또는 지속의지가 없어 보이는 단발적인 장터 또한 제외하였다. 3회 이상 열린 마켓을 중심으로 3회 이상~6회 이하, 7회 이상~10회 이하, 11회 이상 열린 마켓으로 횟수를 구분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장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은 진행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던 장터는 비교의 목적으로 엑스포아이콘(이미지)로 별도로 체크하였다. 전체적인 분포도와 각 지역구 별로 몇 개의 도시형장터가 생성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장터가 실제로 열리고 있는 곳에 아이콘으로 표시하였다. 각 아이콘에는 모양 변화를 주어 모양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대략적인 횟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도의 한계점은 모든 장터들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아카이빙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치와 구문조사를 겸하여 열린 횟수를 추산하였다는 점, 따라서 세부적인 데이터의 수치가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지 보다는 장단기 장터들의 분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6년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조사된 데이터로 모든 장터를 추가하지는 못했으며 연구목적에 합당한 장터위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운영자와 판매자 그리고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그림]상으로 육안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장터의 개최시기와 횟수 등의 정보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공개한 구글링크(<https://goo.gl/PLekz6>)를 통해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사시점은 2016.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1] 서울시 도시형장터 분포도



1. 지역별 장터

[그림.1]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강 위쪽에 장기진행 된 도시형장터가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동네에 얼마만큼의 도시형장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았다. 자료에는 가까운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고자 장기적으로 열렸으나 현재는 열리지 않는 장터를 포함하였고 별도의 색으로 처리해 구분하도록 했다.

[표.1] 지역별 장터 구분

지역	개수	도시형 장터
종로구	10	세종예술시장 소소
		마르쉐@혜화
		서촌 예술시장
		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
		꼭대기 장터
		프리마켓 사랑,해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뽕순이 마켓
		마이크임팩트 청춘마켓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마포구	11 (중단된 장기마켓 2)	연남동place마켓
		늘장(중단)
		슈퍼문마켓
		리코더마켓
		어떤장터
		여행마켓
		팜페스트@동진시장
		동진시장
		연남동마을시장따뜻한남쪽
		아트마켓 수작(중단)
		마실가장
		홍대앞 희망시장
		홍대앞 예술시장프리마켓
용산구	2 (중단된 장기마켓 2)	계단장(중단)
		피프티서울 플리마켓(중단)
		열정도 야시장
		노들장
구로구	2	소녀n장
		미씨프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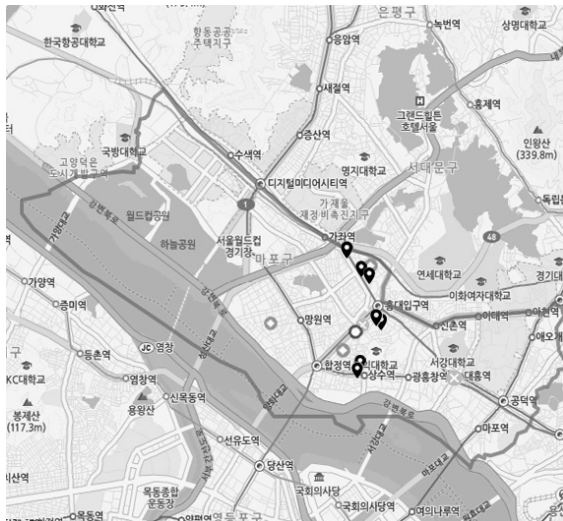
지역	개수	도시형 장터
영등포구	3	달시장
		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헬로우문래
중구	5	밤도깨비야시장@DDP
		덕수궁페어샵
		DDP 디자인 프리마켓
		땡굴시장
		농부의시장@덕수궁돌담길
광진구	3	독섬아름다운나눔장터
		농부의시장@서울어린이대공원
		건대프리마켓
은평구	1	농부의시장@서울혁신파크
성북구	1 (중단된 장기마켓 1)	피카마켓(중단)
		개울장
성동구	2 (중단된 장기마켓 1)	서울숲플리마켓(중단)
		마켓더램프
		도떼기마켓
강남구	1 (중단된 장기마켓 1)	블링&플래툰나이트
		라스트프라이데이(중단)
강서구	(중단된 장기마켓 1)	리크쑈손마켓(중단)
금천구	1	해노리장
관악구	1	청춘김류정마켓
동작구	1	농부의시장@보라매공원
서초구	3	디파트먼트마켓
		궁디팡팡
		탐나는가게
양천구	1	밤도깨비야시장@목동운동장

마포구에 11군데, 종로구에 10군데의 도시형장터가 분포되어 서울시 내 지역구들 중 장단기 장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구가 5개, 영등포구, 광진구, 서초구가 각 3개로 뒤를 이었다. 용산구, 강남구, 성동구, 구로구에 각 2개씩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는 각 1개씩의 도시형장터가 자리하고 있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서울시 내에는 10개가 넘는 도시형장터를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 반면 지속적인 도시형장터가 없는 지역구도 있어서 도시형장터가 형성되기에 좋은 환경적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수의 도시형장터가 있는 마포구는 서교동과 연남동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구에 비해 밀집현상이 심했다. 원래 예술과 문화로 유명해 사람이 많았던 홍대 근처와, 홍대입구역 경의선 철길이 정비되고 연남 센트럴파크가 생기면서 유명해진 연남동의 유동인구가 많아 장터의

밀집현상이 생겼다.

두 번째로 도시형장터가 많았던 곳은 종로구로 덕수궁과 광화문, 청계천근처에 대부분의 도시형장터가 모여 있다. 덕수궁과 광화문, 청계천 근처는 종로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문화시설 및 역사사적도 많은 곳이다. 유동인구도 많고 공원과 거리 상권이 잘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예술기관, 공원 등의 공유지가 많은 종로구는 양질의 장터의 수도 많지만 지역 내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점이 장터의 운영요건과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림. 2] 마포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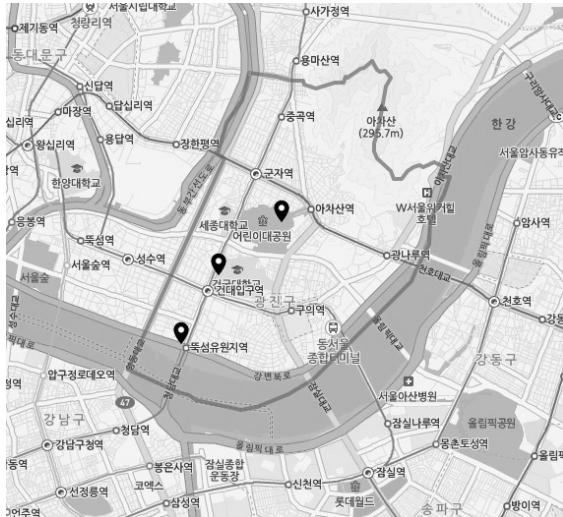
[그림. 3] 종로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그림. 4] 중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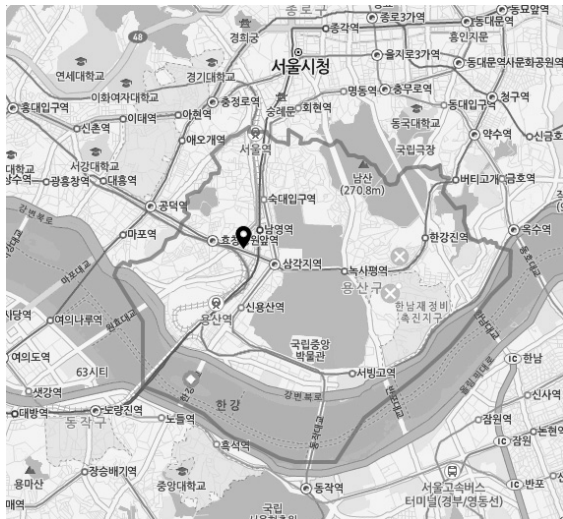
[그림. 5] 영등포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그림. 6] 광진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그림. 7] 서초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그림. 8] 용산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그림. 9] 성동구 도시형 장터 분포도

2. 콘텐츠별 장터

도시형장터는 흔히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리마켓’하면 보통 ‘수공예품’ 또는 ‘예술 창작품’을 파는 장터를 떠올린다. 실제로 수공예품과 예술창작품이 주요 콘텐츠였던 홍대 앞 ‘프리마켓’을 주축으로 국내 플리마켓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도시형장터에서 수공예품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형장터는 수공예품이나 예술창작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가공식품, 중고물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핸드메이드가 대부분이었던 장터 풍경에서 기성브랜드가 판매자로 참여를 하거나,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푸드 트럭이 시세보다 저렴한 다양한 요리들로 강세를 보이는 등, 변화하는 장터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형장터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형, 기업형, 협동조합, 개인으로 나누거나 목적에 따라 공익목적, 개인브랜드홍보,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객에게 가장 보편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형장터의 내적 구성 측면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를 아트, 수공예, 가공식품, 농산물, 중고물품, 기업/소상공인, 푸드트럭까지 총7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서울시 도시형 장터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성학과 김지아)를 참조하였다. 참조자료에서 김지아는 아트, 수공예, 가공식품, 농산물, 중고물품을 콘텐츠 구성요소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시형장터의 동향을 고려해 기업/소상공인과 푸드트럭을 분류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트 장르는 독립출판물과 순수예술영역 작가들의 창작물을 포함한다. 수공예는 식품과 순수예술이 아닌 1인 창작물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포함한다. 가공식품은 제빵, 제과를 포함한 농산물의 가공, 조리된 모든 식품류를 포함하였다. 콘텐츠_공연, 체험은 현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체험 또는 참여를 통해 얻어가는 콘텐츠 상품과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등을 포함한다. 기업/소상공인과 푸드트럭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콘텐츠로 추가분류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기업/소상공인에는 판매자로 시작하여 유명브랜드가 된 경우, 그리고 브랜드가 마케팅 및 판매루트 개발의 의미로 참여,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마켓 참여 등을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푸드트럭은 마켓에 한 두대만 포함될 경우에는 주요항목으로 체크하지 않았다.

[표.2] 서울시 도시형장터 콘텐츠별 구분

구분	아트	수공예	가공 식품	농산물	중고 물품	콘텐츠 _공연, 체험	기업/ 소상공인	푸드 트럭
세종예술시장 소소	●	●				●		
마르쉐@혜화	●	●	●	●		●		
서촌 예술시장	●	●						
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	●	●	●			●		●
꼭대기 장터	●	●			●	●		
프리마켓 사랑,해	●	●				●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	●		●	●	●	
뽕순이 마켓		●	●			●	●	
마이크임팩트 청춘마켓		●	●			●	●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	●					●	
연남동place마켓		●	●				●	
늘장	●	●	●		●	●	●	
슈퍼문마켓	●	●	●				●	
리코더마켓		●	●				●	

구분	아트	수공예	가공 식품	농산물	중고 물품	컨텐츠 _공연,체험	기업/ 소상공인	푸드 트럭
어떤장터	●	●	●			●	●	
여행마켓	●	●	●		●	●		
팜페스트@동진시장		●	●	●		●		
동진시장	●	●	●	●		●		
연남동마을시장따뜻한남쪽	●	●	●	●	●	●		
아트마켓 수작	●	●						
계단장	●	●	●			●	●	
피프티서울 플리마켓	●	●	●				●	
열정도 야시장			●			●		●
노들장	●	●	●			●		●
달시장								
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	●	●			●		●
헬로우문래	●	●	●			●	●	
밤도깨비야시장@DDP	●	●	●			●		
덕수궁페어샵		●	●			●	●	
농부의시장@덕수궁돌담길			●	●				
독섬아름다운나눔장터					●	●		
농부의시장@서울어린이대공원			●	●				
건대프리마켓	●	●				●		
비건채식문화축제	●	●	●	●		●		
농부의시장@서울혁신파크			●	●		●		
피카마켓	●	●	●				●	
개울장	●	●	●		●	●	●	
서울숲플리마켓	●	●	●		●		●	
도떼기마켓		●			●	●	●	
블링&플래툰나이트플리마켓		●			●	●	●	
라스트프라이데이플리마켓		●						
리크쉴슨마켓		●			●		●	
청춘김류정마켓		●	●		●		●	
농부의시장@보라매공원			●	●			●	
디파트먼트마켓		●	●				●	
밤도깨비야시장@목동운동장	●	●	●	●	●			●
탐나는가게		●					●	
마실가장		●	●			●		
마켓더램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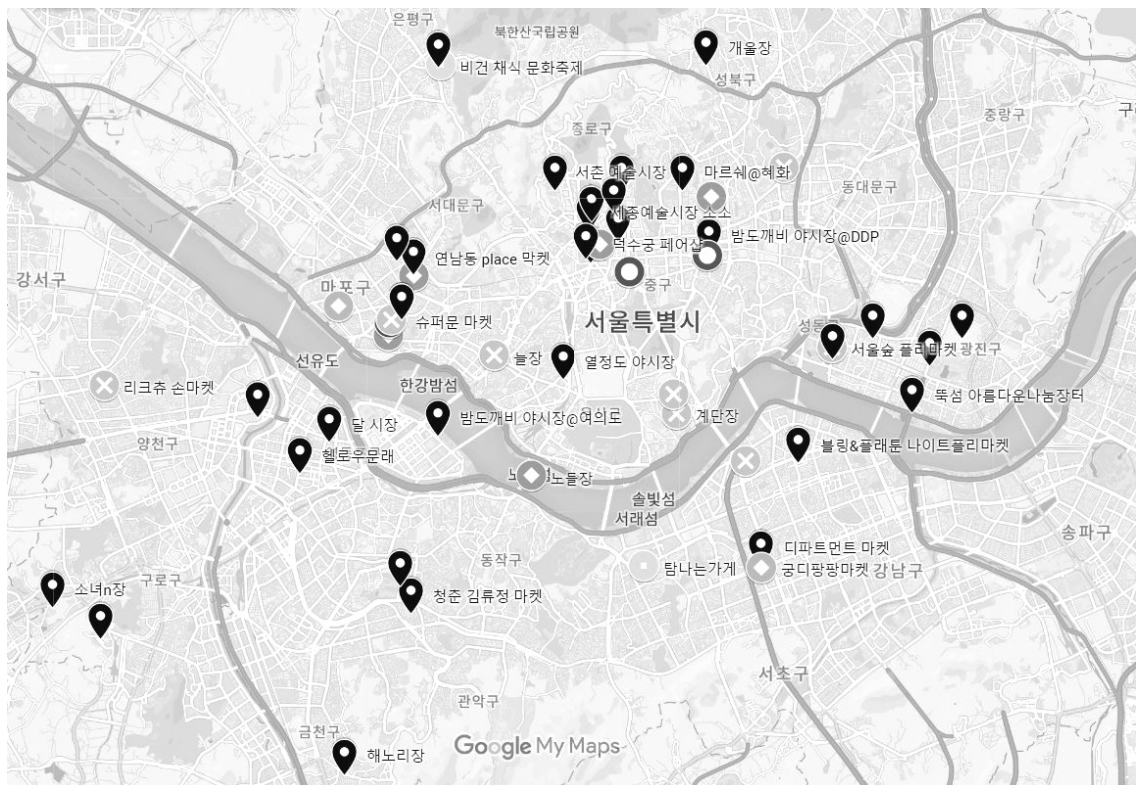
구분	아트	수공예	가공 식품	농산물	중고 물품	컨텐츠 _공연,체험	기업/ 소상공인	푸드 트럭
궁디팡팡			●				●	
소녀n장		●					●	●
미씨프리마켓		●	●				●	
해노리장		●	●			●	●	
DDP 디자인 프리마켓		●					●	●
땡굴시장	●	●	●				●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	●				●		
홍대앞 희망시장	●	●				●		
합계	29	49	39	10	13	30	31	7

위 표를 보면 각 도시형장터들마다 주요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머스마켓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아트/수공예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만큼 아트/수공예는 도시형장터를 구성하는 밑바탕인 것은 분명하다. 거기에 더해 아트/수공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는 복합적인 장터의 모습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전문적 영역의 도시형장터가 등장하는 추세로 오히려 이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도시형장터가 총 8곳이나 생겨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농산물의 경우 농부들이 중간 판매자 없이 직접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콘텐츠를 포함하는 곳이 총 10곳이었다. 대표적인 파머스마켓인 마르쉐@를 필두로 하여 비교적 최근 농부의 시장과 동진시장의 팜페스트가 강세이다. 파머스마켓의 증가는 장터 소비풍조가 수공예품에서 직거래, 또는 도시농장의 건강한 먹거리로 점점 생활 자체에 밀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드트럭의 강세도 이와 같은 현상을 포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질의 먹거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은 세련된 디자인과 젊은 컨셉의 제안까지 포함된 스트릿 샵의 느낌으로 최근 야시장의 강세와 더불어 젊은 이용객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을 전문으로 하는 마켓도 7곳으로 나타났다. 중고물품 마켓은 13곳이 이 콘텐츠를 포함하여 이제 중고시장도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상권 안에서 뿐 아니라 도떼기마켓처럼 패션의 한 장르이자 아이콘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공연과 체험의 경우 30곳의 마켓이 이 콘텐츠를 포함하여 도시형장터가 하나의 문화축제이자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소상공인 콘텐츠는 주로 이미 기업형태 혹은 지역상권의 장터 진출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주로 홍보나 고객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형장터에 나오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기성품을 떼어다가 도시형장터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패션/잡화 품목은 특히 브랜드 홍보목적으로 도시형장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소상공인이 메인 판매자로 주최되는 디파트먼트마켓 같은 경우 온라인 티켓업체를 이용, 장터 중 거의 유일하게 티켓판매 수익을 올리는 도시형장터로서도 매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3. 횡수별 장터

도시형장터는 도시화된 지역의 새로운 시장 문화로 초창기에는 시장의 범위에 들기보다는 문화행사에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적인 부분은 뒤에 언급할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조사 현황을 보아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규모의 양적 팽창이 크다고 생각되었다. 횡수조사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10회, 혹은 20회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질의 장터 분포를 통해 최소한 지역의 영향이 지속가능한 장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조사라고 생각된다. 한두 번 열렸다가 사라지는 도시형장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그 과정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나 경제적 선순환구조에 도움이 되려면 도시형장터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터가 열리는 장소를 표시한 아이콘마다 모양을 다르게 하여 현재까지 각 장터가 진행 된 대략적인 횡수를 파악하였다.

[그림. 9] 서울시 도시형장터 분포도



처음의 지도를 다시보자. 장터가 실제로 열리는 곳을 아이콘으로 표시하였고, 아이콘마다 모양을 다르게 하여 대략적인 횡수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1회 이상 3회 미만은 ● , 3회 이상~6회 이하는 ⊗ , 6회 이상~10회 이하는 ⊙ , 11회

이 상 은 ● 으로 표시했다. 현재(2016.10월 기준) 진행되지 않는 마켓은 ✕ 으로 표시했다. 지도 상으로는 ● 으로 표시된 도시형장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 으로 표시된 장터가 많이 보인다. 지도상으로는 겹쳐져서 잘 보이지 않는 도시형장터들을 샅샅이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를 살펴보자.

[표.3] 진행횟수별 해당 도시형장터

진행횟수	장터명
○ 3회 이상~6회 미만(주황 아이콘)	어떤장터, 꼭대기장터, 프리마켓 사랑.해, 노들장, 팜페스트@동진시장
	총 5곳
○ 7회 이상~10회 미만(빨강 아이콘)	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 여행마켓
	총 2곳
● 11회 이상 (검정 아이콘)	세종예술시장소소, 마르쉐@혜화, 서촌예술시장, 광화문희망나눔장터, 뽕순이마켓, 마이크임팩트청춘마켓, 수상한그녀들의공예길, 연남동place마켓, 늘장, 슈퍼문마켓, 리코더마켓, 동진시장, 연남동마을시장따뜻한남쪽, 홍대앞희망시장, 홍대앞예술시장프리마켓, 계단장, 피프티서울플리마켓, 열정도야시장, 달시장, 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헬로우문래, 밤도깨비야시장@DDP, 덕수궁페어샵, 농부의시장@덕수궁 돌담길, 독섬아름다운나눔장터, 농부의시장@서울어린이대공원, 건대프리마켓, 농부의시장@서울혁신파크, 피카마켓, 개울장, 서울슈프리마켓, 도떼기마켓, 블링&플래툰나이트플리마켓, 라스트프라이데이플리마켓,
	총 38곳

3회 이상~6회 이하로 진행 된 곳이 총 5곳, 7회 이상~10회 이하로 진행된 곳이 총 2곳, 마지막으로 11회 이상 진행된 곳이 총 38곳이었다. 조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10회 이하의 도시형장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예상보다 서울시 내에는 11회 이상 지속된 도시형장터가 많았다. 항목에는 11회 이상까지만 넣었으나 개중에는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한 매 주 토, 일요일마다 몇 년 째 지속 되어온 도시형장터도 있다. ○ 으로 표시 된 3회 이상~6회 이하의 장터들과 ○ 으로 표시 된 7회 이상~10회 이하의 장터들은 아직은 횟수가 많지 않으나 향후 발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11회 이상 진행된 마켓들은 수익면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나,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0회 이상의 분류가 없어서 아쉬울 정도로 그에 해당하는 장터 수도 많은 분포를 보여서 도시형장터는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팽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 설문을 통해 덧붙이자면 11회 이상 진행된 장터들 중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터였다. 유희공간의 새 쓰임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형장터에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형장터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 청년창작자들이 도시형장터 안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고, 직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모두의 과제로 남아있다.

II. 청년창작자, 그들의 삶 들여다보기

도시형장터를 만들고 있는 청년창작자들의 삶이 궁금했다.

주말이 되면 발 딛는 곳 마다 볼 수 있었던 도시형장터도 때로는 하나 둘씩 각자의 이유로 사라졌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장터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걸까? 도시형장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그들이 아직까지도 도시형장터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년창작자들에게 묻는 물음에서 도시형장터와 그들이 함께 상생하며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았다.

1. 판매자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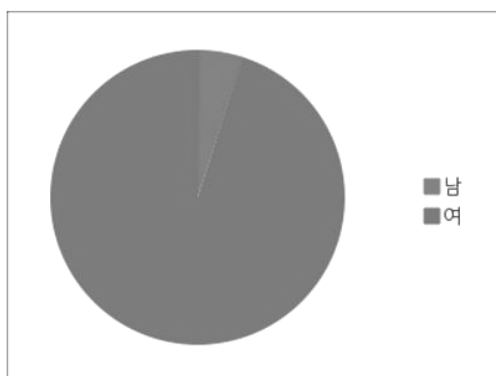
도시형장터(플리마켓)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회원 수 64,513명 규모) 네이버 카페 ‘문화상점’을 대상으로 판매자 설문을 실시했다.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의 성별, 연령, 경력, 수익 등의 객관적 자료 분포와 도시형장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 등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외 설문참여기준은 두지 않았다. 설문 내에서는 연구 중 재 정의한 ‘도시형장터’라는 단어 대신 더 널리 쓰이고 익숙한 ‘플리마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판매자를 지칭하는 단어 또한 연구 내에서도 달리 실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셀러’로 이용했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이었으며 객관식 10문항, 주관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총 142명의 판매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도시형 장터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카페를 대상으로 했으나, 1개의 온라인 카페에서 진행되어 서울시 전체 판매자의 분포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카페 성격상 사회적 경제 영역의 판매자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아쉬운 점이 남는다.

가. 객관식 응답 결과

그래프.1 판매자 성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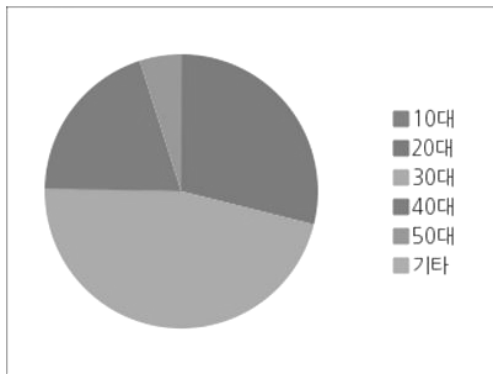


남	7	4%
여	135	95%

성별에 관한 질문에서 총 142명 중 135명이 여성이라고 답하여 95%에 달했다. 반면 남성이 라고 답한 숫자는 7명으로 전체에서 4%를 차지하여 도시형장터 내 판매자 성비는 여성이 압도적 으로 많았다.

그래프.2 판매자 연령대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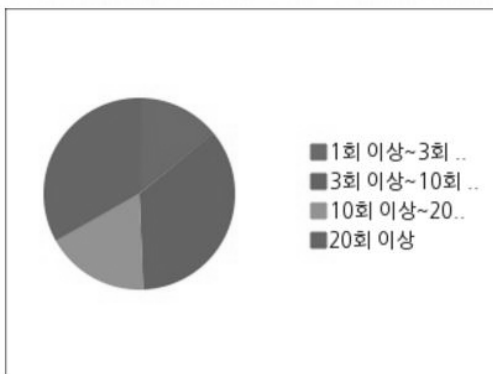


10대	0	0%
20대	41	28%
30대	66	46%
40대	28	19%
50대	7	4%
기타	0	0%

연령대에 관한 설문은 총6가지 답변항목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항목까지 나열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30대로 142명 중 총66명 즉 46%가 3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대가 41명으로 28%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9%로 뒤를 이었다. 50 대라고 답한 사람은 7명으로 전체에서 4%의 비중이었다. 10대와 기타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없 었다.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연령대는 30대가 46%를 차지 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국내에 플리마켓 문화가 들어온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 했던 2011년 무렵 사회활동을 하게 된 연령층이 지금의 30대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그래프.3 참여횟수

지금까지 플리마켓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1회 이상~3회 미만	20	14%
3회 이상~10회 미만	50	35%
10회 이상~20회 미만	25	17%
20회 이상	47	33%

지금까지 도시형장터에 참여한 횟수를 질문했다. 서울시 내 3회 미만으로 참여하여 도시형장

터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판매자가 많은지, 참여횟수 20회 이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판매자가 많은지 알아보고, 횟수별 각 구간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답변은 1회 이상~3회 미만, 3회 이상~10회 미만, 10회 이상~20회 미만, 20회 이상으로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3회 이상~10회 미만으로 총 142명 중 50명이 이 항목을 선택했으며 전체에서 35%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0회 이상의 항목에 선택한 사람이 47명, 33%로 뒤를 이었다. 1회 이상~3회 미만으로 참여한 사람은 20명으로 전체에서 14%였으며 10회 이상~20회 미만으로 참여한 사람은 25명으로 전체에서 17%를 차지했다. 3회 이상~10회 미만으로 참여한 판매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도시형장터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도시형장터의 꾸준한 성장 등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4 활동경력

셀러 활동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6개월 미만	44	30%
6개월 이상~1년 미만	38	26%
1년 이상~2년 미만	32	22%
2년 이상~3년 미만	13	9%
3년 이상	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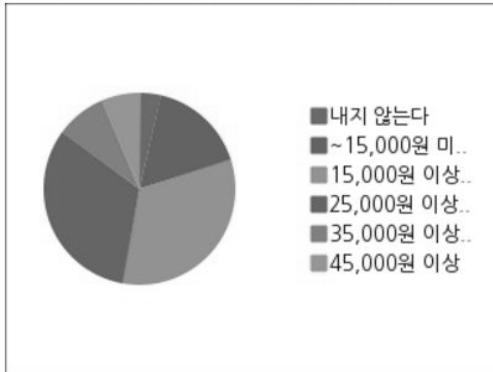
활동횟수와 비교하여 서울시 내 판매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참여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뒤이어 활동경력을 질문했다. 총 5개의 항목으로 나누었고 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6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총142명 중 44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38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32명으로 전체의 22%였으며, 뒤이어 2년 이상~3년 미만이 13명으로 9%, 3년 이상이 15명으로 10%의 결과를 나타냈다. 장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의 두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두 구간이 총 56%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도시형장터에 진입하는 판매자들 중 절반 이상의 판매자가 1년 이하의 판매활동을 했다. 3년 이상 판매활동을 지속한 판매자는 142명 중 15명으로 전체의 10%비율이었다.

이 항목으로 두 가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서 횟수조사와 비교하여도 여전히 새로운 판매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시형장터가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한지 십년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도시형장터가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짐작된다.

그래프.5 1일 참가비

마켓 1일 참가비는 보통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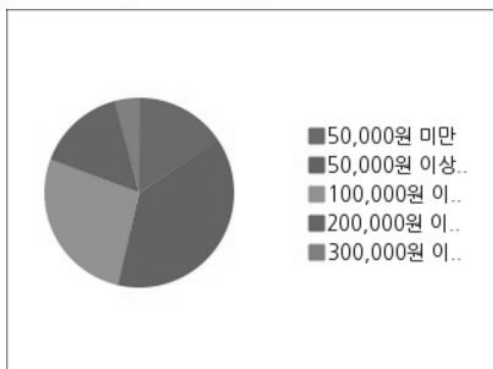


내지 않는다	5	3%
~15,000원 미만	23	16%
15,000원 이상~25,000원 미만	46	32%
25,000원 이상~35,000원 미만	45	31%
35,000원 이상~45,000원 미만	12	8%
45,000원 이상	9	6%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들이 판매자에게 얼마의 참가비를 책정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보통 얼마의 참가비를 내고 도시형장터에 참가하는지 질문했다. 내지 않는다 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답변항목으로 나누었다. 각 항목은 ~15,000원, 15,000원 이상~25,000원 미만, 25,000원 이상~35,000원 미만, 35,000원 이상~45,000원 미만, 45,000원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항목은 15,000원 이상~25,000원 미만으로 46명이 선택하여 전체비율 중 32%를 차지했다. 바로 뒤이어 25,000원 이상~35,000원미만 항목이 45명으로 전체에서 31%로 앞선 비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15,000원 이상~35,000원 미만의 구간에서 총 63%의 판매자가 응답했다. 설문 결과, 서울시 내 판매자들은 일반적으로 15,000원 이상~35,000원 미만의 참가비를 내고 도시형장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6. 1일수입

마켓 1일 수입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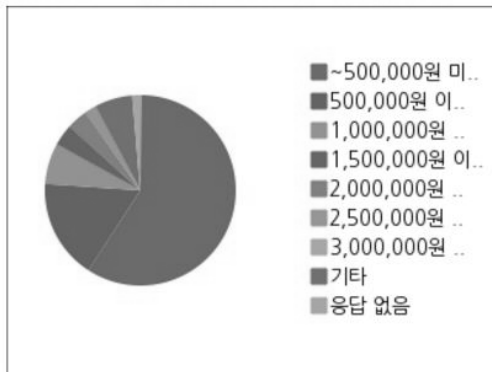


50,000원 미만	22	15%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53	37%
10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38	26%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21	14%
300,000원 이상	6	4%

서울시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도시형장터 판매자들이 판매자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1일 평균 마켓수입을 질문했다. 100,000원을 기준단위로 했으며 세부응답을 위해 100,000원 미만에만 50,000원 단위를 추가하였다. 총 5개의 답변항목으로 나누었다.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항목은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으로 총 142명의 응답자 중 53명이 응답했다. 이는 전체 비율의 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10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8명으로 전체 비율의 26%를 차지했다. 50,0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15%,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이 14%, 300,000원 이상이 4%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체 항목에서 1일 수입이 100,0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총 52%로 과반수였다는 점이다. 도시형장터는 대부분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한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열리기 때문에 도시형장터에서의 판매를 주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프.7 한 달 총수입

마켓활동으로 버는 한 달 총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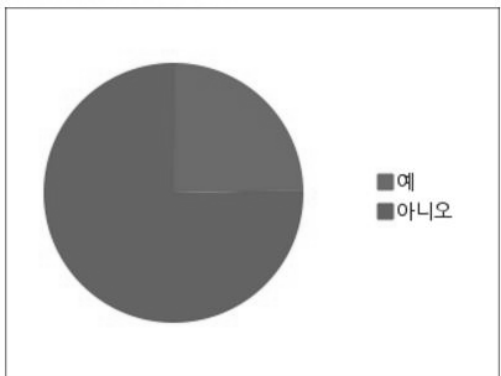
~500,000원 미만	84	59%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24	16%
1,0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	10	7%
1,5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5	3%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5	3%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3	2%
3,000,000원 이상	0	0%
기타	9	6%
응답 없음	2	1%

앞선 질문을 보충하기 위해 뒤이어 도시형장터의 판매자로서 버는 한 달 총 수입을 질문했다. 기타항목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구간으로 답변항목을 나누었으며 3,000,000원까지 50만원을 기본 단위로 설정했다. 가장 많은 선택한 답변항목은 500,000원 미만으로 총 142명 중 84명이 답변하였으며 전체의 59%비율을 차지했다.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이 24명으로 16%, 1,0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이 10명으로 전체의 7%비율이었으며 그 이후 답변들은 모두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기타답변으로는 '1회 참여라 통계불가', '매달 달라요', '매 번 다름', '비 주기적으로 참여' 등이 있었다.

우선 한 달 총 수익이 500,000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59%를 차지해 눈에 띄는 수치였다. 절반을 훨씬 웃도는 59%의 판매자들이 한 달에 500,000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에 재료비, 참가비, 교통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따지면 한 명의 판매자가 한 달 동안 실

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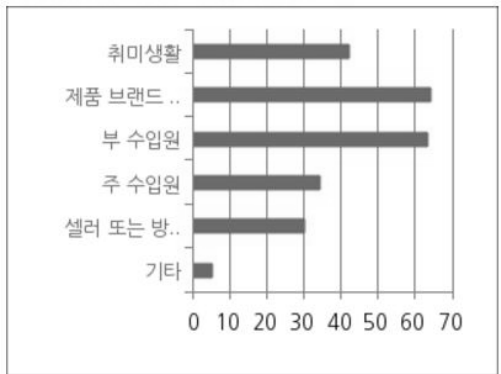
그래프.8 주 수입원인가
플리마켓이 주 수입원인가요?



예	35	24%
아니오	107	75%

도시형장터에 참가하는 목적을 알아보고, 도시형장터 판매자로서의 수익이 판매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형장터 판매자활동이 주 수입원인지 아닌지 질문했다. 위와 같이 총142명의 응답자가 답변했으며, 그 중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35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고,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7명으로 전체비율의 75%에 달했다. 도시형장터 판매수익이 주 수입원이 아니라는 답변이 75%로 많았으나 주 수입원이라는 답변도 24%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프.9 참여목적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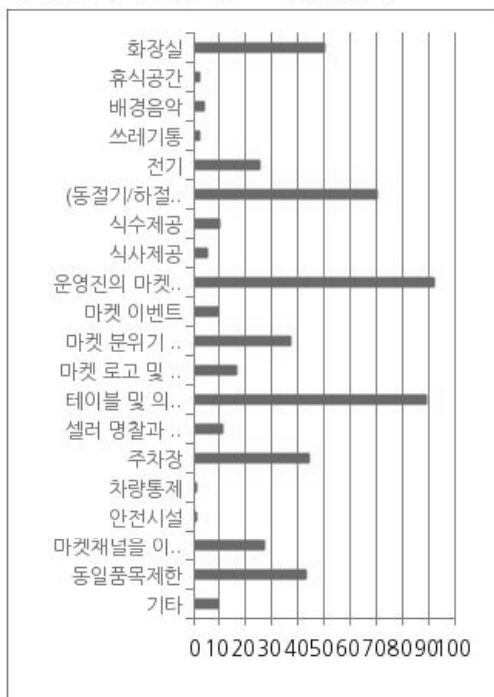
취미생활	42	29%
제품 브랜드 홍보	64	45%
부 수입원	63	44%
주 수입원	34	23%
셀러 또는 방문객과의 네트워크	30	21%
기타	5	3%

도시형장터에 참가하는 목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형장터에 참가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기타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답변항목으로 구분하였고 각 답변항목은 취미생활, 제품 브랜드 홍보, 부 수입원, 주 수입원, 셀러 또는 방문객과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있다. 각 두 개의 답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 투표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은 제품 브랜드 홍보로 총 142명의 응답자 중 64명이 투표하여 전체비율의 45%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수입원이라고 답변한 사

람이 63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앞선 답변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취미생활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2명으로 전체의 29%, 주 수입원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4명으로 23%, 셀러 또는 방문객과의 네트워크라고 답변한 사람이 30명으로 21%를 차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추후 공방 오픈을 위한 선호도 조사’,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 ‘자신을 위한 활동’ 등이 있었다. 취미활동이나 네트워크를 제치고 제품브랜드 홍보를 위해 장터에 참가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45%로 가장 많았던 것이 예상외의 수치였다. 주 수입원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3%, 부 수입원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4%로 도시형장터 판매자활동을 수입원으로 여기는 사람은 총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10 진행시 필요 요소

마켓 진행 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확장실	50	35%
휴식공간	2	1%
배경음악	4	2%
쓰레기통	2	1%
전기	25	17%
(동절기/하절기)계절 대비용품 (그늘막, 핫팩 등)	70	49%
식수제공	10	7%
식사제공	5	3%
운영진의 마켓 이용객 유도	92	64%
마켓 이벤트	9	6%
마켓 분위기 연출	37	26%
마켓 로고 및 홍보물	16	11%
테이블 및 의자제공	89	62%
셀러 명찰과 간판	11	7%
주차장	44	30%
차량통제	1	0%
안전시설	1	0%
마켓채널을 이용한 셀러홍보	27	19%
동일품목제한	43	30%
기타	9	6%

도시형장터 진행에 관한 판매자들의 필요 요소 묻고, 추후 실제 장터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록 도시형 장터 진행 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기타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답변항목을 제시했고 각 항목은 화장실, 휴식 공간, 배경음악, 쓰레기통, 전기, 계절대비용품, 식수 제공, 식사제공, 운영진의 마켓이용객 유도, 이벤트, 분위기 연출, 로고 및 홍보물, 테이블 및 의자제공, 셀러 명찰과 간판, 주차장, 차량통제, 안전시설, 마켓채널을 이용한 셀러홍보, 동일품목 제한 으로 구성되어있다. 중복투표로 각자 총 4개의 답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항목은 운영진의 마켓이용객 유도로 총 142명의 응답자 중 92명이 선택하여 전체 비율의 64%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테이블 및 의자제공으로 89명이 선택하여 전체의 62%비율을 차지했다. 세 번째는 계절대비용품이 49%를 차지했으며, 네 번째로 화장실이 35%를 나타냈다. 답변항목 개수가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운영진의 마켓이용객 유도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 도시형장터의 참여목적이 제품의 판매 또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테이블 및 의자제공, 계절대비용품, 화장실이 차례로 선택되어 판매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과 관리인 것으로 보인다.

나. 주관식 응답결과

객관식 질문 이외에도 판매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위해 총 15개의 설문 항목 중 5개의 주관식 항목을 넣었다. 각 질문별로 약 150개의 주관식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 지면에 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전체 답변 중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알아보고, 다른 항목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참가자의 실제 답변을 첨부하였다.

M. 더 나은 마켓 환경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선 항목에서 장터진행시 가장 필요한 요소를 질문하여 판매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분석하였다면, M번 질문에서는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질문하여 눈에 보이는 필요사항 이외에 지자체 지원이나, 홍보, 지역 상권협조 등,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 환경요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홍보’ 이었다. 바로 위 질문, ‘마켓 진행 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64%의 답변이 ‘운영진의 이용객 유도’였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켓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인 ‘주/부수입’ 다음으로 ‘제품 브랜드 홍보’였던 것과 연관 지어 보아도 도시형장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홍보나 유동인구확보 등으로 보인다. 홍보와 관련 된 의견 중에서는 단순한 홍보 외에도 운영진의 홍보, 지자체 차원의 홍보지원, 지역 상권과 협의 홍보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서 도시형장터에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지역마다 더 나은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마켓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켓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P판매자, 비누

“지역 상권과 협의해 마켓이 열린 장소에 대한 활발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판매자, 액세서리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부분은 ‘지자체지원’과 ‘주변상권협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 부분은 ‘마켓 진행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객관식 질문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의견들이 나와서 흥미로웠다. 지자체지원에 관하여는 약 37번 언급되었으며, 지역 상권과 협의에 관해서는 약 34번 언급되었다. 이 결과는 도시형장터 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이 테이블이나 의자, 식수나 화장실 같은 실질적인 필요 이외에도 더 다양한 곳의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자체지원에서 세부적으로는 홍보나, 시설지원, 장소지원, 지자체단위 장터 개최, 판매자 인증제도, 참가비지원 등 예상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지역 상권협의에서 세부의견으로는 홍보, 장소협의, 지속성, 협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련하여 판매자G씨는 도시형장터가 열리는 장소가 지자체나 지역 상권과 협의되지 않을 경우 장터 개최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장소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더 질 높은 장터로 발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답변했다.

“지자체지원을 하여 참가비를 좀 줄이고 지역 상권과 협의를 해서 주차문제나, 공간활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정을 짓고 마켓을 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W판매자, 드라이플라워

“지역 상권과 잘 협의 된 후에 플리마켓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달 내내 플리마켓 진행된대서 신청했더니 주변상권과 협이가 잘 되지 않아 플리마켓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고해서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M판매자, 아동잡화

그 뒤를 이어 많이 나온 의견들로는 합리적인 참가비, 운영진의 태도, 판매자선정이나 사입품 금지와 관련된 운영방침 확립 등이 있었다.

예상외의 결과로는 합리적인 참가비였는데, 합리적인 참가비가 더 나은 마켓 환경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약 20번 가량 언급되었다. 앞서 지자체 지원의 세부항목에서도 참가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것으로 많은 판매자들에게 참가비가 부담스럽거나 도시형장터 내에서 실질적인 판매금액에 비해 참가비가 높다는 사실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N. 마켓 참여자로서 가장 좋았던(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도시형장터에 참여하는 판매자에게 어떤 요소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좋았던 일화를 질문했다. 여러 기분 좋은 답변들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한 사항은 ‘판매자 간 소통’으로 약 38번 언급되었다. 도시형장터에 함께 참여하는 판매자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정보공유도 이루어지며 나아가 다른 모임이나 협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자 A씨는, 처음 참여했을 때 여러 셀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 해주셨을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물론 제품홍보나 판매가 주 목적이지만 셀러들과의 교류도 빠질 수 없다며 같은 마음으로 모인 셀러들이라 더 이야기가 잘 통하고 시너지 있는 교류가 된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답변이 이용객과의 소통이었는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재 구매 또는 다른 루트로의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 커플이 물건을 사간 후 고맙다는 내용의 장문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번역기까지 써 가며 소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C판매자의 답변처럼 대부분의 판매자는 판매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장터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고 답변했다.

“이벤트로 무료로 미니 엽서를 적어드리는 것을 했었는데 그 엽서를 받으셨던 한 고객 분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본인 지갑에서 돈을 주셨어요. 아니라고, 그냥 이벤트로 써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 N판매자, 캘리그라피 엽서

소비자와의 소통과 같은 횟수로 많이 언급된 답변은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특히 수공예판매자들은 본인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을 소비자가 인정해 줄 때를 가장 기분 좋은 경험으로 꼽았다. 판매자 D씨는 “신중하게 선택한 향수 오일로 고체향수를 만들어서 마켓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향수를 맡으면서 냄새 너무 좋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소통, 관리, 홍보 등에 관련한 운영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약 31번 언급되었다. 판매자 E씨는 매출이 많지 않아도 노력하시는 운영진의 모습이 보이는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재 구매, 전체적인 분위기, 높은 판매율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분좋은 경험을 꼽아보았을 때, 가장 많았던 의견이 판매자 또는 소비자와의 소통, 두 번째로는 제품 가치 인정, 세 번째로는 운영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도시형 장터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에게 실제 좋은 기억이 된 것은 단순히 높은 판매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간의 소통이나 교류,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는 것 등 가치 중심적인 것들로 나타났다.

○. 재방문하고싶은 마켓이 있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도시형장터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인기 있는 장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재방문하고 싶은 장터가 있는지 질문했다. 재방문하고 싶은 도시형장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도 있어서 통계를 내기에는 부적절했다. 또한 예상외로 너무 다양한 장터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순위를 매기는 것에 의미가 없었다.

재방문하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높은 판매율 또는 많은 유동인구일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운영진의 친절한 태도와 충분한 관리’였다.

“운영자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셀러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세요^^

여름과 가을 등 몇 번 참여했었는데 파라솔, 테이블 등 준비해주시고 진행여부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이 매출여부를 떠나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켓입니다:) -P판매자, 실버주얼리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사항은 많은 유동인구였다. 앞서 말했듯이 장터에 참가하는 목적이 주/부수입과 제품브랜드 홍보와 관련 있기 때문에 장터에서의 유동인구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사항으로 여겨진다. 유동인구에 대해 언급했던 응답자의 의견 중 많은 수가 많은 유동인구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판매자 H씨는 골목 안에서 열린 장터여서 기존 유동인구는 적었으나 운영진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장터가 열리고 있는 골목 안으로 이용객을 유도시켜주어 좋았다는 답변을 해주어 장터에서 유동인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리는 운영진의 역할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세 번째로는 장터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관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 친절한 분위기 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판매자 Y씨는 “진행 스텝들의 친절하고 온화한 표정에 많이 감동 받았고, 실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켓이 진행 되었어요. 주최측의 친절함 때문이었는지 셀러분들도 모두 잘 대해주셨고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마켓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는데로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며 정성스러운 답변을 남겼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분위기’ 라고 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장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 또한 운영진의 역량에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앞서 재방문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이 운영진의 태도와 관리였는데 ‘분위기’에 대한 답변도 운영진의 태도와 관리에 포함한다면 판매자의 재방문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운영진의 친절한 태도와 충분한 관리’ 라는 결론에 힘을 보태게 된다.

그 외 답변으로는 판매수익 보장, 합리적인 참가비, 완성도 있는 장터, 홍보, 다양한 구경거리, 구매력 있는 연령대의 참여, 특색 있는 장소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P.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마켓이 있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판매자가 참여하는 장터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더 정확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 위의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반대로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마켓과 이유를 질문했다. 특별히 인기 없는 장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했고 재방문하고 싶은 장터와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장터들의 요소가 일치할 것으로 가정하여 더 정확한 결론을 내는데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장터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쓴 경우, 쓰지 않은 경우가 뒤섞여 있었고 예상 외로 다양한 장터의 이름이 언급되어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었다.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운영진의 불친절과 관리부족, 소통부족, 불확실한 일정공지 등으로 약 56번 언급되었다. 운영진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판매자 모집만 해놓고 운영에는 무관심할 때, 또는 참가비를 벌겠다는 목적만으로 판매자를 대할 때 가장 언짢고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매자 W씨는 “판매가 저조해도 운영진의 어여쁜 말 한마디가 저조한 판매를 잊게 할 텐데 아쉬웠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애초에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장터를 열었을 때 또는 유동인구가 없는데 참가비가 높았다거나, 판매자 모집 시 유동인구를 과장하여 공지했을 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 결과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수입과 홍보가 목적이 되는 도시형장터의 참여에는 유동인구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결론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한다.

“처음 셀러들에게 모집하던 것이 너무 과장되어 실제와 너무 다른 곳이거나 환경일 때, 유동인구가 없는 곳인데 참가비가 비쌀 때…….” -K판매자, 식품

세 번째로는 홍보부족이 약 25번 언급되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로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장터의 경우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홍보 또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하고 싶은 마켓이 있는지 질문했던 O.번 질문에서 유동인구가 적었으나 운영진이 홍보와 소비자 유입을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좋았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참고해보면 유동인구와 홍보는 같은 맥락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별개의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부적절한 참가비, 판매부족, 불편한 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다. 객관식 응답 항목 별 분석

앞서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나열하였다. 이번 목차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각 항목별로 합치거나 비교하여 실제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설문지에서는 한 눈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과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창업자(판매자)의 나이별 분석

우리는 판매자의 연령대별 분석을 통해 첫째, 연령대별로 그들이 장터를 찾는 이유와 둘째,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형장터의 참여가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연령대 별 한 달 총수입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50대를 제외한 2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보았으며 비교가 필요할 때 40대에 한하여 데이터를 조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매자의 성비비율은 여성이 96% 남성이 4%로 월등하게 많은 수의 여성이 본 조사에 참여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9%, 30대는 46% 40대는 20% 50대는 5%으로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현 조사에 응답했다. 우리는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통해 현재 도시형장터에 판매자 중 가장 많은 참여 층이 30대 여성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우리는 도시형장터에 참여하는 20대와 30대의 청년창업자(판매자)가 대부분 부수입의 목적으로 도시형장터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수익창출의 창구와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홍보의 장소로서 도시형장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한 달 총수입을 비교해 본 결과 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는 응답이 20대와 30대 모두 60%이상의 답변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도시형장터의 참여가 주 수입으로서 업으로 삼기에는 거의 불가능으로 보인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1) 연령대별 참여목적

도시형장터에 참여하는 목적을 알기 위해 질문에 대한 5가지의 객관식 답변을 설정했다.

- 취미생활
- 제품 브랜드 홍보
- 부 수입원
- 주 수입원
- 셀러 또는 방문객과의 네트워크
- 기타

20대 총 41명 *중복선택(2)	참여목적(순위별)	
	1. 부 수입원	31%
	2. 제품 브랜드 홍보	25%
	3. 취미생활	20%
	4. 주 수입원	13%
	5. 네트워크	11%

30대 총 66명 *중복선택(2)	참여목적(순위별)	
	1. 제품 브랜드 홍보	29%
	2. 부 수입원	26%
	3. 취미생활	19%
	4. 주 수입원	16%
	5. 네트워크	10%

20대에서 40대까지 공통적으로 6가지 항목 중 부 수입원과 제품 브랜드 홍보의 답변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판매자(셀러)가 직업으로서 도시형장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이유로 장터를 그들이 가진 목적에 따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시형장터를 접근하고 있는 지 알아보자.

20대에서 가장 큰 참여목적은 부수입이었다. 참여목적의 3위가 취미생활이었다는 점을 미뤄 보아 20대에게 도시형장터는 취미생활의 영역으로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며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30대의 가장 큰 참여목적은 제품브랜드홍보로 이는 20대와 달리 자신이 기반으로 쌓아 둔 자신만의 브랜드나 제품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었으며, 도시형장터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의 장소로서 접근했다.

20대와 30대에게 장터를 위한 필요조건 무엇인지 조사한 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상권 협의, 홍보 등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4위 이내의 상위권에 드러났다.

20대 *중복선택(3)	
지자체지원	27%
홍보	26%
지역상권협의	13%
온라인판매루트지원	7%
합리적인참가비	7%
운영방침	6%
운영진자격조건 충족	6%
주최측배려	6%
지속성	2%
셀러간배려	0%
*질좋은마켓	0%
이벤트	0%

30대 *중복선택(3)	
홍보	32%
지역상권협의	15%
합리적인참가비	13%
운영방침	11%
지자체지원	10%
주최측배려	8%
온라인판매루트지원	6%
지속성	3%
운영진자격조건 충족	1%
*질좋은마켓	1%
셀러간배려	0%
이벤트	0%

20대와 30대 모두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장터를 선호했는데, 그 중 30대는 장터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다른 항목과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1순위의 항목이 홍보였으며 뒤이어 합리적인 참가비와 운영방침 등 마켓의 소프트웨어적인 항목들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0대는 무엇보다 장터 운영 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20대가 생각하는 장터를 위한 필요조건은 지자체지원이었으며 도시형장터를 부수입을 창출하는 문화생활의 공간이지만 30대와 달리 자리를 잡지 못한 20대의 셀러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장터를 선호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물품을 도시형장터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팔 수 있는 온라인판매루트지원의 항목이 4위를 차지했다.

2) 연령대 별 한 달 총수입 비교

최소 50만원 미만에서 최대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으로 50만원 단위의 6개의 한 달 총 수입 항목을 설정했다. 한 달 총수입을 비교해 보니 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는 응답이 20대와 30대 모두 60% 이상의 답변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대 총 41명	한 달 총수입	
	50만원미만	67%
	50만원이상~100만원 미만	29%
	10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2%
	150만원이상~200만원 미만	0%
	200만원이상~250만원 미만	0%
	2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2%
30대 총 66명	한 달 총수입	
	50만원미만	65%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4%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8%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6%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

20대와 30대의 한 달 총수입을 비교해보았을 때 50만원 미만의 답변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30대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5가지 항목에 응답한 판매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도시형장터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수적인 재료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생각해 본다면 조사한 것 보다 적은 금액이 그들의 생계활동을 책임 질 것으로 보인다.

위의 비교는 도시형장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파는 시간 이외에도 장터에 나오기까지 사전준비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 볼 때 도시형장터에서 판매로서 참여는 부 수입의 목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 수입으로 삼기에는 거의 불가능으로 보인다.

3) 참여 목적 별 한 달 수익

객관식 질문들 중 참여목적을 물었던 질문과 한 달 수익을 물었던 질문의 결과를 취합하여 ‘도시형장터 참여 목적에 따라서 한 달 수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목적이 주 수입원인 판매자(35명)		참여목적이 부 수입원인 판매자(63명)		참여목적이 제품브랜드홍보인 판매자(64명)	
한달 총 수익	(명)	한달 총 수익	(명)	한달 총 수익	(명)
50만원 미만	16	50만원 미만	40	50만원 미만	42
50만원~100만원	7	50만원~100만원	12	50만원~100만원	11
100만원~150만원	3	100만원~150만원	2	100만원~150만원	5
150만원~200만원	2	150만원~200만원	2	150만원~200만원	2
200만원~250만원	3	200만원~250만원	2	200만원~250만원	1
250만원~300만원	3	250만원~300만원	2	250만원~300만원	1

참여목적이 주 수입원인 판매자 중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한 한 달 수익금은 50만원 미만으로 총 35명 중 16명이 선택했다. 이어서 한 달 수익으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별고 있다는 판매자가 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참여목적이 부 수입원인 판매자는 총 63명이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한 달 총수익 구간은 50만원미만으로 40명의 판매자가 이 답변을 선택했다. 두 번째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으로 12명의 판매자가 이 구간에 포함되었다.

참여목적이 제품브랜드 홍보인 판매자는 총 64명으로 그 중에서 42명이 한 달에 50만원 미만을 벌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11명이었다.

도시형장터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참여 목적별로 도시형장터 참여에 들이는 시간이나 에너지, 또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한 달 수익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참여목적에서 한 달 총 수익은 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었다. 판매자의 참여목적별로 한 달 수익도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으며, 판매자의 참여목적에 관계없이 다수의 판매자가 한 달 총수익을 50만원 미만으로 내고 있었다.

4) 활동경력 별 한 달 수익

객관식 질문들 중 활동경력을 파악하기 위해 넣었던 질문과 한 달 수익을 질문했던 답변 자료를 취합하여 ‘활동경력이 길어질수록 한 달 수익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두 자료를 분석했다. 변화를 뚜렷하게 보기위해 활동경력을 크게 3구간으로 나누었다. 각 구간은 6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3년 이상이다.

활동경력 6개월 미만인 판매자(44)		활동경력 1년이상~2년미만 판매자(32)		활동경력 3년 이상 판매자(15)	
한달 총 수익	(명)	한달 총 수익	(명)	한달 총 수익	(명)
50만원 미만	30	50만원 미만	19	50만원 미만	4
50만원~100만원	6	50만원~100만원	7	50만원~100만원	1
100만원~150만원	1	100만원~150만원	4	100만원~150만원	3
150만원~200만원	1	150만원~200만원	0	150만원~200만원	3
200만원~250만원	1	200만원~250만원	1	200만원~250만원	2
250만원~300만원	0	250만원~300만원	0	250만원~300만원	0

활동 경력이 6개월 미만인 판매자는 총 44명이었으며 그 중 30명이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구간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었으며 6명이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활동경력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판매자는 32명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판매자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50만원 미만으로 19명이 속해있다. 그 다음으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구간에 7명의 판매자가 포함되어있다.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판매자는 15명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구간은 50만원 미만으로 4명이 포함되어있다.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3명,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명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활동경력이 길어질수록 1달 판매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두 자료를 분석하였다. 활동경력으로 나눈 세 구간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한 달 수익금은 50만원 미만으로 같았으나,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구간인 활동경력 6개월 미만의 판매자 중 한달 수익이 50만원 미만인 판매자는 44명 중 30명으로 전체비율의 68%를 차지했다.

두 번째 구간인 활동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의 판매자 중 한달 수익이 50만원 미만인 판매자는 32명 중 19명으로 59%를 차지했다.

세 번째 구간인 활동경력 3년 이상의 판매자 중 한달 수익이 50만원 미만인 판매자는 15명 중 4명으로 26%를 차지했다.

활동경력 6개월 미만의 판매자는 68%가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낸다. 활동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의 판매자는 59%가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며,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판매자는 26%만이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수치는 활동경력 3년 이상의 판매자 중 한 달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는 판매자가 총 6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같은 구간을 비교했을 때, 활동경력 6개월 미만의 판매자 중에는 2%, 활동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의 판매자 중에는 4%만이 한 달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것으로 활동경력이 길어질수록 한 달 수익도 실제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활동경력 별 1일 수입

위에서는 활동경력 별 한 달 수익에 대해 비교분석해보았다. 활동경력이 길어질수록 수익이 늘어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경력 별 1일수입도 추가로 비교분석하였다.

활동경력 6개월 미만인 판매자(44)		활동경력 1년이상~2년미만 판매자(32)		활동경력 3년 이상 판매자(15)	
1일 수익	(명)	1일 수익	(명)	1일 수익	(명)
5만원 미만	15	5만원 미만	3	5만원 미만	2
5만원~10만원	17	5만원~10만원	14	5만원~10만원	3
10만원~20만원	9	10만원~20만원	10	10만원~20만원	4
20만원~30만원	2	20만원~30만원	5	20만원~30만원	5
30만원 이상	1	30만원 이상	0	30만원 이상	1

활동경력이 6개월 미만인 판매자는 총 44명이었으며 그 중 17명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었고, 뒤 이어 15명의 판매자가 하루에 5만원 미만의 수익을 낸다고 답변했다.

활동경력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판매자는 총 32명으로 그 중 14명이 하루에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낸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는 10명의 판매자가 하루에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판매자는 총 15명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숫자인 5명의 판매자가 하루에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뒤이어 5명의 판매자가 하루에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2-1-2의 활동경력별 한 달 수익에서는 표상으로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백분율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구간 별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활동경력 별 1일 수익을 비교한 표에서는 백분율로 환산하지 않아도 구간별 차이가 확연히 눈에 띈다. 활동경력 6개월 미만의 판매자 중에서는 1일 수익이 5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과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활동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인 판매자 중에서는 1일수익이 5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판매자가 32명 중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활동경력 3년 이상인 판매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한 1일 수익 구간은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으로 총 9명이었다. 활동경력이 늘어날수록 1일 수익도 한 구간씩 높아지는 것을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활동경력별 한 달 수익과 비교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활동경력이 길어질수록 수익도 높아질 가능성도 비례한다고 판단된다.

6) 참여횟수 별 참가비

앞의 객관식 설문 중 참여횟수와 참가비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여 참여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참가비를 내는 장터에 참여하는지, 더 적은 참가비를 내는 장터에 참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횟수는 1회 이상~3회 미만, 3회 이상~10회 미만, 10회 이상~20회 미만, 20회 이상으로 총 4구간이었으며, 참가비는 내지않는다는 포함하여 1만 오천원 미만부터 만원을 기준으로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참여횟수 1회 이상~3회 미만 (20명)		
참가비	(명)	합계/비율
내지않는다	3	총 14명 70%
1만5천원 미만	4	
~2만5천원 미만	7	
~3만5천원 미만	4	총 6명 30%
~4만5천원 미만	2	
4만5천원 이상	0	

참여횟수 3회 이상~10회 미만 (46명)		
참가비	(명)	합계/비율
내지않는다	1	총 26명 56%
1만5천원 미만	8	
~2만5천원 미만	17	
~3만5천원 미만	10	총 20명 43%
~4만5천원 미만	6	
4만5천원 이상	4	

참여횟수 10회 이상~20회 미만 (25명)		
참가비	(명)	합계/비율
내지않는다	0	총 14명 56%
1만5천원 미만	5	
~2만5천원 미만	9	
~3만5천원 미만	7	총 11명 44%
~4만5천원 미만	1	
4만5천원 이상	3	

참여횟수 20회 이상 (47명)		
참가비	(명)	합계/비율
내지않는다	1	총 20명 42%
1만5천원 미만	6	
~2만5천원 미만	13	
~3만5천원 미만	21	총 27명 57%
~4만5천원 미만	4	
4만5천원 이상	2	

참여횟수가 1회 이상~3회 미만인 판매자 20명 중에는 1만오천원 이상~2만오천원 미만의 참가비를 낸다는 판매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횟수가 3회 이상~10회 미만인 판매자 46명 중에도 1만오천원 이상~2만오천원 미만의 참가비를 낸다는 판매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횟수가 10회 이상~20회 미만인 판매자 25명 중에도 1만오천원 이상~2만오천원 미만의 참가비를 낸다는 판매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횟수가 20회 이상인 판매자 47명 중에는 2만오천원 이상~3만오천원 미만의 참가비를 낸다는 참여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아서 다른 구간과 차이를 보였다.

참가비 구간을 내지 않는다 부터 2만5천원 미만까지와 2만5천원 이상부터 4만5천원 이상까지 두 구간으로만 나누었을 때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장터 참여횟수가 1회 이상~3회 미만인 판매자들은 참가비를 2만 5천원 이상 낸다는 답변이 총 6명으로 전체의 30%였다. 참여횟수가 3회이상~10회 미만인 참여자들 중 참가비를 2만5천원 이상 낸다는 답변은 20명으로 전체의 43%였으며, 참여횟수가 10회 이상~20회 미만인 참여자들 중 참가비를 2만 5천원 이상 낸다는 참가자들도 11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전 구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참여횟수가 20회 이상인 판매자들 중 참가비를 2만5천원 이상 낸다는 답변은 27명으로 무려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참여횟수가 적을수록 참가비 부담이 적은 장터를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비가 높을수록 장터의 시설이나 홍보 등 여러 면에서 질이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참여횟수가 많아지고 경력이 길어질수록 참가비가 비싸더라도 질 높고 안정적인 장터로의 유입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7) 한 달 총수입 순위별 품목

객관식 설문에서 한 달 총수익을 질문한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 142명 중 13명, 즉 전체의 9%만이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한 달 수익이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판매자는 5명으로 전체의 3%, 한 달에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낸다고 응답한 판매자 역시 5명으로 전체의 3%차지했다.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기 바랐던 한 달 수익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판매자는 3명으로 전체의

2%였다. 한 달 수익 답변항목 중 300만원 이상도 있었으나,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진 점은, 그렇다면 비교적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판매자는 도시형장터에서 무엇을 팔고 있을까? 였다. 매출이 잘 나오는 품목이 따로 있는 것인지 등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매출이 높은 순위부터 품목을 나열해보았다.

한 달 총 수익	품목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아동잡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귀걸이
	액세서리, 의류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의류
	아로마제품
	천연비누, 방향제
	가족팔찌
	액세서리, 의류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식품
	실버주얼리
	패브릭소품, 양말인형, 자수소품
	뜨개인형
	여성의류, 아동양말

한 달 총 수익이 높은 구간부터 순서대로 품목을 나열하여 보았다. 한 달 수익이 가장 높은 구간인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서는 아동잡화, 프리저브드플라워 귀걸이, 액세서리, 의류 품목이 있었다.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의류, 아로마 제품, 천연비누, 방향제, 가족 팔찌, 액세서리, 의류 품목이 포함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식품, 실버 주얼리, 패브릭소품, 양말인형, 자수소품, 뜨개인형, 여성의류, 아동양말품목이 나열되었다.

매출이 높은 품목이 정해져있거나, 혹은 도시형장터의 판매수익에 트렌드 품목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나열된 품목들을 보면 아동잡화부터 식품, 뜨개인형까지 액세서리/의류 외에는 중복되는 품목 없이 아주 다양한 품목이 등장했다. 액세서리/의류 품목이 2번 언급되긴 했으나 이것으로 특정 품목이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품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보았듯이 수익은 오히려 활동경력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라. 주관식 응답 항목 별 분석

앞서 객관식 답변 자료들을 항목 별로 취합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분석해보았다면, 이번 목차에서는 주관식 답변들을 항목 간 취합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재방문하고 싶은 장터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터의 요소

주관식 질문 중 O. 재방문하고 싶은 마켓이 있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와 P.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마켓이 있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의 응답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방문하고 싶은 장터와 그렇지 않은 장터의 요소들에는 각자 어떤 것이 있고, 그 요소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치한다면 판매자들이 실제로 장터 안에서 어떤 요소들로 재참여 혹은 불참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어 도시형장터를 기획하는 기획자 또는 운영진이 장터 운영/기획 시 고려해야 할 명확한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O.번 질문과 P.번 질문들의 답변을 나열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들을 키워드로 추려내었다. 아래의 표는 각 의견들을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나열하였다. 6순위까지 나열하였으며, 그 외 소수의견들은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재방문하고싶지 않은 장터의 의견별 순위

순위	의견	응답 수
1	운영진	53
2	유동인구부족	31
3	홍보부족	25
4	높은참가비	15
5	판매부족	11
6	시설	10

재방문하고싶은 장터의 의견별 순위

순위	의견	응답 수
1	운영진	38
2	많은 유동인구	31
3	전체적인 분위기	16
4	판매수익보장	12
5	합리적인 참가비	11
6	시설	9

*설문 참여자의 주관식 답변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 수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장터를 물었던 질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답변들을 살펴보면, 운영진과 관련된 운영진과의 소통부족, 관리부족, 불친절한 태도 등이 약 53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가 부족해서 재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31번 언급되었다. 세 번째는 홍보부족으로 약 25번 언급, 네 번째는 높은 참가비, 다섯 번째는 판매부족, 마지막으로 시설에 관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재방문하고 싶은 장터를 물었던 질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답변은 역시 운영진과 관련된 의견이었다. 운영진의 친절한 태도나, 판매자들을 위한 배려, 충분한 관리 등의 내용으로 약 38번 언급되었다. 다음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좋았다는 의견이 약 31번 언급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친절한 분위기, 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다는 의견이 약 16번 언급되었다. 네 번째는 판매수익보장, 다섯 번째는 합리적인 참가비였고, 마지막으로는 화장실이나, 널찍한 공간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이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재방문 또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장터를 결정하는 요소는 놀랍도록 일치했다. 양쪽 모두 1순위는 운영진의 태도나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2순위는 유동인구와 관련된 의견이었다. 그 이후 순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매우 비슷했다. 표.1번의 홍보부족

과 판매부족은 표.2번의 판매수익보장과 같은 맥락의 의견으로 묶을 수 있다. 그 외에 참가비에 관한 내용은 양쪽 질문 모두에서 각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했으며, 시설을 언급한 의견은 양 쪽 질문 모두에서 6순위를 차지했다.

재방문 또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장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거의 일치했으며, 심지어는 순위까지 비슷하다는 결과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판매자들이 장터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실제 판매보다는 운영진의 태도나 관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한다. 유동인구나 홍보, 판매는 그 뒤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각각의 표에서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한 의견이 참가비에 관련한 것을 보면 많은 판매자들이 참가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참가비를 부적절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표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 답변으로는, 특색 있는 장소, 완성도 있는 장터, 다양한 구경거리 등이 있었다. P.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표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답변은, 동절기/하절기 대비 냉난방, 우천 시 대비, 지역 상권협회의 부족 등이 있었다.

이 분석은 무엇보다 장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운영진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터를 운영하고 기획할 때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위 순위를 잘 살피어, 장터를 구성하는 주체중 하나인 판매자들과의 소통과 유대를 이끌어내고 그것으로 인해 서울시 내에 더 나은 도시형장터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2. 각자의 장터, 그리고 창작자의 이야기 (기획자 서면인터뷰)

서울시에서 최소 5회 이상 장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장터기획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연구자의 경험과 도시형장터 기획자들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 10개의 질문을 도출했다. 인터뷰는 질문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형식의 에세이로 서술해 주기를 부탁했다.

1. 장터를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을 했나요?
2. 장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장터를 진행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4. 장터를 운영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5. 장터로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6. 장터를 운영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정부, 지자체, 판매자, 이용객 등
7. 장터가 지역재생이나 상권 활성화 같은 공공적인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요?
8. 기획자가 생각하는 마켓의 컨셉이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9. 장터의 기획의도와 목적은 실제로 일치되었나요?
10. 장터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마켓 양적조사를 통해 최소 5회 이상 운영했고 지속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도시형장터를 운영하는 장터기획자를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요청했다. 응답한 총 10여 개의 인터뷰 중 3개의 인터뷰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터 안에서 판매자를 포함 해 참여자들의 즐거움이 그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장터 운영 시 지자체, 판매자, 주위 상권과의 협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도시형장터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이유로 경기악화를 언급했다.

가. 홍대 앞 희망시장

기획자 프로필

성명	김성훈	소속/직책	홍대 앞 희망시장 부대표
운영 중인 마켓	홍대 앞 희망시장	조직 형식	비영리조직
핸드메이드 패션스타킹 디자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올해 10년차 스타킹디자이너면서 홍대앞 희망시장의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1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3년 이상	
2	운영 횟수는 몇 번이나 되었나요?	30회 이상	

[서면 인터뷰 전문]

안녕하세요. 홍대 앞 희망시장의 부대표이자 스스로도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좋은 인터뷰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 10가지 질문사항에 해당할 수 도 또는 별개의 얘기를 답을 수 도 있겠고, 더불어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마켓운영에 대하여 뚜껑을 열기 전, 제가 어떤 식으로 마켓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가를 되짚어 보자면, 현재 제 브랜드를 런칭 한지 10여 년 전에 동시에 홍대 앞에 상시로 열리던 예술시장에 참여하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게 됩니다.

2006년 4월 26일,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로 기억되던 그날은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패션스타킹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으로 그것도 직접 수작업을 통하여, 과연 나의 디자인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을 앞세워 처음 참가했던 예술시장에서 저는 뜻밖의 성과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으로 저의 작품을 판매하던 터라 준비도 미흡했고, 지금보단 디스플레이조차 단출 했지만, 무려 거의 완판에 가까운 결과를 획득하면서 작은 가능성을 열게 되었던 것이 현재의 제 브랜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3년 6월 4월에 홍대앞 희망시장의 부대표로 선출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사실 홍대 앞의 대표적인 예술시장은 토요일의 프리마켓과, 일요일의 희망시장이 흥익어린이 공원에서 매월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단체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 행사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가령 저희 홍대 앞 희망시장은 자신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관련 전시 그리고 드로잉, 퍼포먼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예술시장을 개최하게 된 홍대 앞 희망시장은 그 역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2002년 5월 12일에 첫 희망시장을 개장하면서 지금까지 만17년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10년을 프리마켓과 희망시장에 동시에 참여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시장 상황에 조금 더 깊게 관여하게 되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희망시장이라는 곳에 나름의 책임감을 맡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대 앞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한 저의 브랜드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에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뿐만 아니 필시 현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작가님들도 함께 겪고 있는 가장 위험한 변화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 작가님들 간의 편차는 있겠으나, 현재는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부분을 해쳐나가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써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는 경기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는 패션스타킹을 디자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저의 디자인을 선보였던 2006년은 무려 10년 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변화의 홍수가 어느 해 보다 전개속도가 빠른 현재 이 시점에서 과거보다 현재가 왜 더 어려운걸까요?

현재의 문제점이 어려운 경기악화가 가장 크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사람의 시선이 점점 더 주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이 획일화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악화와는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10년간 장터를 운영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엔 여성고객분은 저의 스타킹에 센세이셔널함을 느끼셨고, 큰 관심과 더불어 독특한 디자인의 스타킹을 착용한 것에 대한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지갑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부터 남자가 왜 스타킹을 디자인 하느냐는 등, 대체 왜? 라는 물음을 던지고 가시는 분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홍대 앞 시장이 운영 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홍대 앞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재밌었던 한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상쇄시키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문제점들이 시장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몸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 이는 디자이너로서 단순히 시장에 참여할 때와는 근본적인 문제가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홍대 앞은 홍대만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었고, 예술이 있었으며, 음악이 있었고, 전시가 있었고, 작가들이 자리 잡았고, 독립예술이 산재하며 재미나고 개성 있는 볼거리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희망시장이 있었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이 매년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홍대앞시장이 그렇게 커왔고, 희망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 작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먹고 살아보자는 의미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전국최초의 문화예술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복병은 대기업의 먹성 좋은 식탐과, 지자체의 뜻 모를 행정들이 맞물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자식을 파생시켰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무지함과, 전문성 결여 등의 행태로 이 사회적 현상을 탈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의 홍대 앞이 좋았고, 예전의 홍대 앞이 재밌어서 사람들을 끌어 당겼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홍대 앞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오묘한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속도가 전광석화화도 같습니다. 그 속도가 더해지는데 예는 문화에 관해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을 운영하다보면 외국관광객이 한국관광안내책자를 들고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홍대 인근에 있는<벽화거리>를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골목은 구석구석 쓰레기가 쌓여있고, 벽화도 관리가 잘 안 돼 칠이 벗겨진지 오래인 참으로 안타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종종 새로운 그림들이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아는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희망시장이라는 어떤 단체구성에 관여를 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접하다 보니 저의 시야가 훨씬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하나씩 모여 홍대 앞에 작지만 큰 의미의 조합이 구성되고, 목소리를 다시금 높이면서 지자체와 호흡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홍대 앞 환경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들을 잡아둘만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갈 자유가 있는 작가님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묵묵히 시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최전선이라고 여기며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아직은 홍대 앞 에 문화예술은 살아있다고 다시 한 번 살려보자며, 그래도 함께 참가해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십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최근 서울권역에 많은 시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손재주가 탁월한 한국인 특유의 감각이 어우러져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장들이 급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서면 인터뷰를 작성하면서 제가 이렇게나 할 말이 많았는지 스스로도 놀라지만, 그만큼 생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무조건 공무원의 영역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장과 더불어 저희 희망시장도 관련회의에 참여해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이는 내년에도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공예시장에 참석을 원하시는 예비 작가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 그리고 작품에 대한 뚜렷한 책임감을 주문해 드리고 싶고, 그러나 첨단화가

가속화 되는 세상에서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창조는 수공예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기계가 작업하는데 는 결단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직관력을 100% 닮아 스스로 작품 활동을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가 등장할 세상이 다가오려면 한참이나 멀었으니까요.

나. 여행마켓

기획자 프로필

성명	박신혜	소속/직책	앤드조이 대표
운영 중인 마켓	여행 마켓	조직 형식	비공식단체
흥이 많은 20대 여자 둘과 남자 둘이 함께 즐거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운영 횟수는 몇 번이나 되었나요?	5회 이상 ~ 10회 미만	

[서면 인터뷰 전문]

1. 장터를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을 했나요?

직장인 두 명과 개인사업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일을 하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2. 장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여행을 다녀온 10년 지기 친구와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일상엔 왜 이렇게 지겹고 무료할까? 여행을 일상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여행마켓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컨셉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토리가 담긴 물건을 들고 동네로 찾아간다면, 또 그 곳곳에 여행을 상기시키는 장치들이 덧붙여진다면 일상에서도 여행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3.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장터를 진행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우리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여행마켓은 컨셉이 있는 마켓입니다. 구매하러 온 방문객 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이 하루가 여행 온 듯 즐거운 하루여야 합니다. 마켓 시작 전부터 단체 특방을 만들어 행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나 함께 이벤트를 기획해 사전 홍보를 하는 것도 여행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준비 과정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자리를 배정할 때 비행기 티켓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여행 출발지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 판매와 마켓 운영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의 이런 소소한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저희 마켓만의 매력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행 온 듯 재미있고 즐겁다는 마켓 이용자들의 코멘트들이 매 회 다음번에는 더 즐겁게 만들어 보자는 다짐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4. 장터를 운영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마켓은 수익 모델이 약합니다. 수익 모델을 판매자 분들의 참가비로만 정의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행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듭니다. 주변 상권에 이해를 구하는 일, 이해를 구해도 행사 당일 발생하는 잦은 반발, 당일 마켓에서 발생하는 참가자들의 반발 역시 힘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도 할 수 없을 때만큼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5. 장터로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셀러로서는 마켓 이외의 판매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켓은 고객들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자 상품에 대한 다른 판매자와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잘되는 날에는 마켓으로 만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만 주기가 몹시 불규칙하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어라거나 다른 판매 채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자로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지속적인 판매 권한이 필요합니다. 서울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활용되고 있지 않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죽어있던 공간이 지속적인 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브랜딩 되면 찾아오는 방문객도 많아지고 참여를 원하는 판매자들도 늘어나면서 기획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납니다. 밤 도깨비 야시장도 정말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용 가능한 공간과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주어진 조건으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획 팀들을 선발하여 단순히 마켓만이 아닌 관광 명소 차원으로 브랜딩 하는 과정을 함께 만든다면 충분히 직업으로 전환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먼그라운드나 언더스탠드 에비뉴와 같은 시도가 마켓 기획자와 지자체의 협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 장터를 운영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정부, 지자체, 판매자, 이용객 등

계획과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들이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 운영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간에서 행사하기 위한 방법을 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대여 의사가 있는 공간을 지정해주거나, 특정 기간에 마켓 기획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공모를 열어준다면 지역과 판매자와 기획자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판매자의 자립 2)지역 공동체에 문화예술 요소 부여 두 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 기획입니다. 합당한 팀들이 적절한 제안을 할 때, 안정적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좋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대여라거나,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된다면 올바른 기획자들은 지역 주민을 행사에 참여시키거나, 참가자들이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을 마련하면서 시장을 보다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셀러와

이용객, 주변 상권은 크게 보면 기획자에게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획자가 협업할 수 있는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판매 장소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이 노력에 공감한 관련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마켓 활성화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봅니다. 여행 마켓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판매자 분들의 상품을 자발적으로 지원받아 기획자가 SNS에서 사전 이벤트를 하고, 주변 상권에서 행사 당일 여행마켓에서 구매한 방문객들 대상으로 음료 할인권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7. 장터가 지역재생이나 상권 활성화 같은 공공적인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요?

계절과 이슈를 많이 타긴 하지만, 매 마켓 개최시마다 집계되는 모든 판매자분들의 판매액을 합산해봤을 때 평균 1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생계유지에 충분한 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소수 인원의 "기획과 준비"만으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몹시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의 부분에서는 저희는 여행마켓이 들어서기 전에는 하루 평균 50명 남짓 지나다닐까 싶은 곳에서 마켓을 열어왔기 때문에 컨셉과 홍보를 통해 10배 이상의 사람이 찾아오게 될 때 일어나는 순기능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희에게 선뜻 매장 앞을 내어주셨던 카페의 매출이 증가했고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 카페 공간 대여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행마켓을 진행했던 잔 다리로 일대의 다른 카페들에서도 제안을 받아 마켓을 진행했고, 이것을 본 다른 상점에서도 유사한 것을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여행마켓"이라는 공통점이 생겨나고 서로서로 아, 저 파란색 플랜카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는 거였지 라는 이해와 함께 말랑말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계단장이 인근 상점의 네트워크 교두보가 되었던 것처럼 정기적이되 너무 잦지 않은 프리마켓은 인근 상권의 소통 기회가 되고, 헬로우 문래의 아트마켓처럼 방문객이 해당지역을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기존 상권, 방문객, 판매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문화의 하나로 안착되면 성공적인 지역 재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앞 프리마켓 처럼요!

8. 기획자가 생각하는 마켓의 컨셉이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여행마켓은 일상에서 여행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된 행사입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여행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상상력 2)네트워킹 3)즐길 거리. 그래서 여행마켓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 - 구매 시 받게 되는 여권이라거나, 다녀온 도시에 스티커를 붙여보는 세계지도 존 등- 을 포함합니다. 낯선 이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치들- 보드게임이 놓인 네트워킹 존 역시 마켓 때마다 비치하며, 즐길거리를 - 여행 사진 갤러리, 여행 영상전시도 포함합니다.

9. 장터의 기획의도와 목적은 실제로 일치되었나요?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상품을 모두 묶는 것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의 추억을 담백 담은 상품과, 여행을 정말 사랑하는 판매자들이 그러한 구매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의도였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방문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여행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행 사진전이라거나, 여행 네트워킹 파티 등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을 마켓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여행마켓만의 아이덴티티로 지속해 갈 예정입니다.

10. 장터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희 마켓을 열 때마다 항상 찾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회 마다 출석하듯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스스로 자발적 홍보대사가 되어 다른 마켓으로 판매를 가셔도 여행마켓을 추천하곤 합니다. 아직 마켓을 운영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마켓을 사랑해주시는 이용객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 디파트먼트마켓

기획자 프로필

성명	여동인	소속/직책	리스페이스 / 대표
운영 중인 마켓	디파트먼트, 디어, 청춘	조직형태	기업
문화콘텐츠 기획 스타트업 리스페이스 대표 여동인입니다. 리스페이스는 20~30대가 만들어가는 20~30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 기획 회사로 현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켓, 파티, 축제, 공연 등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 운영

1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1년 이상 ~ 3년 미만
2	운영 횟수는 몇 번이나 되었나요?	30회 이상

저희의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마켓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유희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유희공간 프로젝트로 미임대 공간에서 전시나, 카페 한켠에 작은 팝업스토어를 만드는 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프리마켓이었습니다. 신촌에서 토요일 낮에 운영하지 않는 십여 곳의 가게들을 찾아 갔었고, 그 중 한 곳, 분위기 있는 복층 바를 좋은 조건에 쓸 수 있었습니다. 마켓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셀러들을 모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지인이 참여하였고, 셀러를 모으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켓도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행사명인 디파트먼트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판매자들과 자신의 물건을 팔아보고 싶었던 지인들을 모아 20팀이 함께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첫회가 기대보다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현재까지 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켓 횟수도 늘리고, 마켓 종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마켓 브랜드만 해도 열 개정도가 됩니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들과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진 감성

적인 분위기를 살린 패션 마켓 디파트먼트마켓, 청춘들이 만들어 가고 청춘들을 위한 사고, 먹고, 놀 수 있는 마켓 청춘마켓, 각한 감성으로 못생겼지만 정이 가는 캐릭터를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흥대감성에 어울리는 셀러들을 모아 진행한 몬스터마켓, 디자이너 브랜드 팝업스토어 디어마켓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회성으로 실험적으로 진행했던 19금을 내걸었던 패티쉬마켓, 크리스마스마켓 등이 있습니다. 이중 몇 개는 변형하고 통합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몇 개는 아쉽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켓을 여는 것이 제가 처음 마켓을 열기 시작했을 때 보다 매우 쉬워졌습니다. 셀러들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겨서 셀러 모집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참고 할만한 행사들이 많아서 마켓을 여는 법에 대한 방법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켓을 지속하기에는 더 어려워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한 몇 가지 이유만 뽑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마켓이 많이 없었기에, 방문객들이 지나가다가 관심 갖고 구경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말 시내엔 어딜 가나 마켓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관심도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마켓에 참여하는 품목들이 온라인 혹은 편집샵에 입점 된 경우가 많아져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기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인지도 사라졌습니다. 또 셀러들의 전체 숫자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품목수가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채로운 품목군을 형성해서 마켓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사한 결과로, 마켓 자체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괜찮은 셀러들이 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마켓 자체는 열기 쉽지만, 잘되고 지속할 수 있는 마켓을 열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몇 개의 마켓 브랜드를 지속하지 않고, 마켓을 열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열거나, 마켓 자체의 컨셉이나 특색을 강하게 갖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마켓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결론이니 이렇게 생각하였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켓을 지속하기에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어딘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각구의 구청이나 시청, 혹은 기업이나 기관, 공간의 지원을 받는다면 마켓을 지속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지원받는 곳에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핵심적으로 존재가 걸려있어 지원이 끊긴다면 마켓도 지속하기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켓 자체를 브랜딩 하는 것입니다. 마켓 브랜드를 만들고 셀러나 공간이 아닌 마켓 자체를 홍보하여 우리 마켓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셀러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켓이면서 방문객들이 믿고 찾아오는 마켓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희가 가야할 방향이 이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희는 마켓에서 시작한 페어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켓을 지속하면서 계속 확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예로 핸드메이드 페어가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페어는 마켓에서 시작한 페어는 아니지만, 마켓이 성장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켓이 붐이기도 하고 활발히 작동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미래엔 지

금만큼 활발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같은 생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 특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마켓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여 방문객들의 인지도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꾸준히 규모도 키우고 있고, 페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조금씩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연구자의 경험

가. S페스티벌 플리마켓_류덕희

2016년 6월 11일(토)~12일(일) 양일간 난지한강공원에서 개최된 S페스티벌에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플리마켓의 사전기획과 현장운영진으로 참여해보았다.

주최 측에서 총 40팀의 모집을 목표로 10팀의 판매자를 모았지만 장터기획에서 어려움을 느껴 우리팀에 30팀의 판매자 모집과 현장운영을 대행의뢰하였다. 판매자 모집이 먼저였기 때문에 플리마켓 판매자가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집계상황은 놀라웠다. 그것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0팀을 모집하는 신청서에 약 150명이 넘는 판매자들이 참여를 원했기 때문이다.

6월 축제시즌이다. 이 달은 독립적으로 열리는 도시형장터도, 대형 장터 또한 많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열리는 장터들은 어느 정도의 흥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높은 가격의 참여비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한 장터는 양일에 5만원으로 양일에 10만원에 가까운 참여비를 내야하는 다른 마켓에 비해 아주 저렴한 비용이었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장터의 경우 마켓을 위한 별도의 모객이 필요하지 않고 축제참여자들 대부분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쉽게 이루어져 장사의 흐름만 잘 탄다면 장터에서 벌어가는 하루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다.

수월하게 판매자 모집을 끝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30팀의 판매자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페스티벌의 특성 상 20~30대의 직장인 여성이 많이 참석하리라 생각했기에 악세사리, 디퓨저, 패브릭 제품, 모자, 장난감, 초상화, 가방 등 여성이 선호하는 제품위주로 30팀의 판매자를 선정했다. 150개의 팀의 사진을 일일이 찾아가며 선정한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판매자의 대부분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사진만으로 양질의 창작품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판매자의 자리배치는 공정성을 위해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운영진이 최소한의 조율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당일, 많은 판매자가 일찍부터 나와 자리를 선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몇몇 판매자들이 운영진이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나와 자리를 맡은 것을 빼곤 대부분의 판매자는 장터 개장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자리는 축제와 장터가 이어지는 통로와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채워졌다.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가 가장 늦게 채워졌다. 운영자에게 신청한 판매물품과 사진에는 없는 제품을 가져와 비슷한 제품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경우에는 운영진의 약간의 개

입을 통해 너무 가깝지 않은 자리에 판매자와 함께 타협해 자리를 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운영진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하나의 문제를 다시 낳는 식으로 꼬리를 물었다.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운영진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소나기가 내린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소나기가 내려 적지 않게 당황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소나기가 30분 이내로 짧게 내렸고 각 팀마다 놓여진 파라솔 덕분에 판매자의 물건이 심하게 젖진 않았다. 하지만 소나기로 시작된 문제는 곧이어 장터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오전에 내린 비로 축제의 신청자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아 축제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가 현저히 낮았다. 축제의 적은 참여자 수는 하루 장사를 해야 하는 장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나기가 그치자 이젠 잔디밭 위에서 습기가 올라왔다 천이나 종이로 제작된 물품들은 물기를 먹기 시작해 판매자들의 표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현장운영은 사전에 기획했던 것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았다. 참여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고 문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작은 요소들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자리배치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공정성을 위해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치했지만 실제로 장터 전체의 연출은 주최 측에서 장터의 유동인구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테이블 줄마다 이용객의 격차도 심하게 벌어졌다. 축제 참여자들은 축제 존과 마켓이 이어지는 통로가 가장 가깝게 자리 잡은 줄까지만 접근했고 더 안쪽으로는 보지 않고 장터를 떠났기 때문이다.

장터 전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위치까지도 생각했어야 했다. 주최 측에서 배치해준 테이블 위치는 사람들이 입구까지만 접근하고 빠질 출구가 많을 설계였다. 결과적으로 장터 첫날 판매자 라인 별 수입격차가 너무 컸다. 뒤쪽에 자리를 잡은 판매자는 하루 동안 겨우 하나의 물건을 팔았고 앞쪽라인의 판매자들은 15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판매자도 몇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냈다. 뒤쪽에 자리를 잡은 판매자들은 운영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물건을 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빠져가 버린다는 것이다. 장터의 하루를 지켜보며 운영진 또한 그 심각성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운영진의 해결책은 뒤쪽에 자리 잡았던 테이블들을 장사가 잘되는 라인을 사이사이에 이어붙이는 방법이었다. 모든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테이블 위치 이동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다음날이 되자 예상과 달리 바뀐 자신의 자리에 당황은 몇몇 판매자들이 불만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운영진은 판매자들을 한데 모아 함께 회의를 하며 서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모두의 협조를 구해 자리를 다시 배치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서로의 이해와 공감만이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이후 사람들을 장터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 끝없이 주최 측과 협의해 장터 안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수시로 판매자와 대화를 하며 잠시 판매부스를 봐주기도 했다. 오전 만해도 화가 난 일부 판매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얼굴로 운영진을 바라봐 주기 시작했다. 장터 마지막 날인 둘째 날에도 판매자의 대부분이 큰 수익을 얻어가지 못했지만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함께 모여

시원한 음료와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경험이 양일 간 진행했던 장터를 참여해준 판매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었다.

양일 간 장터를 운영하며 사전에 기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상 밖의 상황들에 대한 세밀한 대처와 사전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들을 위한 자리 배치 또한 장터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작은 감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판매자와 운영진 사이의 배려가 깃든 대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한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축제 속의 플리마켓_C마켓_박주연

이번 주 주말에 플리마켓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셀러모집도 해야 한다고 했다. 플리마켓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달 전부터, 아무리 짧아도 2주 전에는 셀러모집을 시작한다. 셀러들도 언제 어느 마켓에 참가할지 미리 스케줄을 짜 놓는다. 그래서 더욱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주최 측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져 일을 맡기로 했다. 그 전화를 받은 때가 화요일 저녁이었고 행사일이 토요일부터였으니, 이삼일 내에 셀러모집을 마감해야했다. 여러 군데에 공지 글을 올리고 답변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가지고 있는 셀러분들의 연락처를 탈탈 털었다. 일일이 전화 드리고 체크했다. 직접 전화를 하여 셀러모집을 하는 경우는 흔치않아서인지 본인 전화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알았느냐며 꼬치꼬치 물으시는 분도 있었고,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셀러가 이번 주에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다음에 또 연락 달라고 친절하게 답해주셨다.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연락처에 전화를 다 돌렸을 때에도 목표했던 셀러 수가 채워지지 않자, 인스타그램으로 플리마켓 셀러들을 찾아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고, 네이버 카페 ‘문화상점’을 통해 전체 쪽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목표했던 셀러 수를 채울 수 있었다.

축제 당일이 되었고,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셀러 분들이 속속 도착하셨다. 야외행사인데 비가 조금 왔다. 셀러분이 오셔서 자리를 잡을 때는 언제나 서로의 품목이 겹치지 않고 서로 감정도 상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한다. 그 날은 솜사탕파시는 분이 자리 잡는데 애를 먹었는데 솜사탕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날리는 솜사탕조각들 때문이었다. 액세서리 셀러가 앉으신 자리에는 하수구가 있어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으려고 박스를 구해다 덮기도 하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플리마켓 존 한가운데 있기에 그것들을 통째로 옮기기도 했다. 플리마켓존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러 간 연구진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덕분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셀러 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어떤 셀러 분은 두 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대신 자리를 지키다가 만원의 수익을 내 드렸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라솔이 넘어지는 탓에 다칠 뻔한 셀러분이 있었다.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앉아계시는데 심심할까봐 사탕도 챙겼다. 다 괜찮은데, 장사가 안됐다. 언제나 있는 일들이다.

플리마켓은 보통 야외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함 등이 항상 있다. 사람이 모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장사가 안 되면 그것만큼 힘이 빠지는 일도 없다. 이렇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상황들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게 플리마켓 기획자 또는 운영자의 역할이다.

플리마켓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축제이고 문화였다가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서 사람이 모일법한 큰 축제나 행사에 가면 흔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풍경이 되었다. 여기에서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플리마켓만 있을 때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러나 플리마켓이 다른 더 큰 축제 안으로 포함되면 사람을 모으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수단’ 또는 ‘장치’가 되기 쉽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축제의 주최 측에서 플리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셀러들은 축제의 구성원으로서 배려받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 셀러들이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할 때, 플리마켓 존이 행할 때,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비가오거나 폭염일 때 무엇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주최 측과 셀러들 뿐만 아니라 사이를 잇는 우리 연구진 같은 운영자를 포함해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축제기획자와 플리마켓 담당자, 그리고 셀러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곳에 사람이 붐비고, 그 사람들이 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플리마켓은 테이블 개수에 맞춰 셀러들만 똑딱 들어앉혀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셀러들 또한 내가 곧 이곳의 얼굴마담이라는 생각으로 약속 된 것들을 지키고, 항상 더 새롭고 눈길 끄는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서로 건강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조율해야 한다.

마켓히어로팀은 문화기획을 기반으로 마켓과 시장을 수단으로 하는 지역재생에 큰 방향성으로 두고 있다. 지금은 플리마켓 대행이 주 업이 아니고 장기적 한 곳의 마켓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큰 축제속의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행사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그 개인들이 맡고 있는 각자의 역할들, 나아가 그 역할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

플리마켓은 다른 어느 축제나 행사보다도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셀러간의 소통은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협업이나 브랜드기획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셀러와 이용객과의 소통은 재구매나, 온라인샵 구매 또는 제품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어진다. 운영자와 셀러간의 소통은 행사장의 더 즐거운 분위기, 추후 또 다른 마켓의 기획바탕이 되기도 한다. 축제속의 마켓을 단순히 하나의 ‘장치’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의 시너지들을 마켓을 포함하고 있는 축제의 주최 측과도 공유한다면 그 영향력이 또 얼마나 넓어질지 기대된다. 플리마켓이나 축제 등 그 안의 기획자와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혹은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마을에서의 기획장터_Y 마켓_정은빈

마을의 축제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마을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말 축제의 한 파트로 작은 기획장터를 기획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으로 전체 기획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전체 규모가 매우 작고, 장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 그리고 추워지는 늦가을의 야외 공원 장터라는 몇 가지 우려사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여결정을 내리고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축제 담당자와 만나고 컨셉과 규모를 확인하였는데, 10개소의 판매자, 그리고 가운데 작은 공원을 두고 이웃한 두 개의 카페마당, 주택가로 음향의 사용 및 현수막 배너 등의 설치물 금지, 등의 조건이 있었다. 마을과 상권의 특징을 반영하여 ‘복고’를 컨셉으로 잡고 판매자를 돕기 위한 재미요소와 이벤트를 기획했다. 미리 이틀간의 수익성의 결과를 전하자면 운영자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장터구성] 장터 구성의 단계에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판매자의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대행을 맡았던 두 번의 경험과 다르게 판매자의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연구진보다 경험이 많은 판매자들은 몇가지 조건만으로도 장터의 결과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은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으로 최근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곳이었다. 그리고 마을의 상권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느정도 적응이 된 상황이었지만 장터에 참여한 판매자에게는 유동인구는 많아도 실제로 구매력을 가진 이용객들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된 것이다. 실행일을 1주일 앞두고 결국 판매자를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장터운영] 장터의 세팅부분에서는 마을의 지난 지역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제작된 철제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장의 세팅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장소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은 작은 규모의 장터가 공터를 중심에 두고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진 점이다. 작은 장터가 반으로 잘려 이용객의 시선을 끌고 장터 안에 머무는 시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솜사탕 판매자만 이용객이 몰렸다. 장터 운영날짜도 인근 대규모 시위와 겹친 것이 내국인의 발길을 제한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시국과 연결된 대규모 시위로 장터로 유입되는 주요 역이 폐쇄되었고 경찰이 주요 진입로 한곳을 교통 통제했다. 결국 이튿날에 판매자의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외부 마당의 추위는 생각보다 큰요인이 아니었다. 판매자에게 미리 핫팩을 충분히 공급하고 따뜻한 차와 물을 수시로 제공했다. 카페공간의 화장실과 전기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점도 다행이었다. 연구진은 참여 판매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이용객 이벤트로 준비한 복고 컨셉 불량식품 간식(쫄면)을 판매자의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지역과의 사전 협조] 장터구성 단계에서 두 세 차례의 방문을 통해 마을의 인근 상권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일이 양해를 구했다. 당일에는 현장에서 지역상권의 먹거리를 나눠먹었다. 이후의 지속적인 장터 진행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전에 축제주관측과 마찰이 있었던 지역주민과의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카페 입구에 설치된 솜사탕 부스가 카페 사유지를 넘어 골목인 공공장소를 침범했다는 불만이었다. 금방 해결된 부분이었지만 판매자에게 충분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에 기반한 장터는 주민과의 사전협조 및 공

조 부분에서 충분한 준비란 없는 모양이다. 늘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마무리] 끝까지 함께한 판매자들과 피드백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장터의 판매율은 매우 저조했지만 참여자들과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주최측의 배려로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수 있었다. 이벤트로 진행된 버스킹 단체와 운영자인 연구진, 그리고 축제주관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몇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바로는 판매자도 기획자도 판매 수익만으로 충분한 만족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소통과, 공감 또한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

마무리_연구를 마치며

본 연구는 도시형장터와 청년창작자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소비 형태를 ‘도시형장터’라고 하고, 도시형장터의 주체가 되는 기획자나 운영자 또는 판매자를 청년창작자라고 정의하였다. 청년기획자, 예술가, 생산자들이 모두 청년창작자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들이 왜 도시형장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들이 도시형장터 안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형장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터에 대한 가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진행하며, 도시형장터와 청년창작자들이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다는 서울시 플리마켓의 전체적인 동향과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청년창작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서울시 내 56여개의 장터들을 조사한 결과 도시형장터 분포도를 통해서는 첫 번째로 장터가 양적으로만 팽창하고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장기간 자신만의 컨셉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양질의 장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장터가 가장 많았던 곳은 마포구와 종로구로 주로 강북지역에 분포되어 있었고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유동인구 뿐 아니라 문화예술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형장터 중 절반 가까이의 장터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도시형장터의 생성과 지속이 유동인구와 관련있을 뿐 아니라 공원 등의 공공시설, 그리고 문화시설과 역사유적 등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로, 장터의 성격을 콘텐츠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나타나는 성격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도시형장터를 아트, 수공예, 가공식품, 농산물, 중고물품, 기업/소상공인, 푸드트럭까지 총 7가지로 분류해 보았을 때 과거의 주요 품목이었던 아트, 수공예 장터를 벗어나 전문적인 성격을 갖춘 장터가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 약세였던 중고장터가 가장 트렌드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의 영역에 가까웠던 농산물이 직거래 및 도시농장의 열풍과도 맞물려 파머스마켓의

형태로 건강한 먹거리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장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등 지역과의 소통에 힘쓰는 경우가 많이 보였고, 가장 트렌드한 추세로는 과거에는 약세였던 푸드트럭 콘텐츠의 강세를 들 수 있다. 푸드 트럭은 야시장의 등장과 함께 최근 도시형장터의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장터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형장터의 시작이 된 콘텐츠도 아트/수공예였으며 이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져 아트/수공예 콘텐츠는 지금도 도시형장터의 기본 콘텐츠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형장터의 콘텐츠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기업/소상공인, 푸드트럭이라는 분류가 새롭게 추가해야 할 만큼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에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만 총6군데가 되어 콘텐츠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횃수조사를 통해서도 도시형장터의 현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횃수조사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10회, 혹은 20회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질의 장터 분포를 통해 최소한 지역의 영향이 지속가능한 장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조사였다. 결론적으로 얻어낸 가장 큰 소득은 11회 이상 그중에도 20회 이상 운영한 양질의 장터, 장기적인 생존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장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도시형장터가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팽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 분포도를 통한 전체적인 흐름 뿐 아니라 청년창작자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도시형장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판매자 설문과 기획자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도시형장터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수 64,513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 ‘문화상점’을 대상으로 판매자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지는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섞어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응답자 기준은 서울시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판매자로 하였다. 총 142명의 판매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여한 판매자는 30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자 95%/남자4%)(30대 여자 46%) 도시형장터가 주 수입원이 아닌 사람이 75%였고, 참여하는 이유는 브랜드홍보가 45%, 부수입원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생활이29%로 문화생활과 네트워크와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참여횃수에서는 3회 이상~10회 미만으로 참여한 판매자가 전체의 35%였으며, 활동경력을 물었던 질문에서는 6개월 미만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참가비는 1만5천원~2만5천원 구간과 2만5천원~3만5천원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판매자들에게 장터 참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수입에 관련한 질문에서 판매자 당 1일 수입은 5만원~10만원 사이가 37%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총 수입은 50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주 수입원으로 마켓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23%로 도시형장터가 판매자의 주수입인 경우는 예상외로 적었다.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목적은 제품브랜드 홍보가 45%로 가

장 많았다. 장터 진행 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순위별로 운영진의 마켓이용객 유도, 테이블 및 의자 제공, 계절대비용품, 화장실 순이었다.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인터뷰에서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마켓 양적조사를 통해 최소 5회 이상 운영했고 지속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도시형장터를 운영하는 장터기획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총 10여개의 인터뷰 중 3개의 인터뷰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도시형장터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판매자의 수가 예전보다는 늘어났지만 낮아진 대중들의 관심도와 함께 경기악화로 지속적인 장터를 개최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장터 자체로서 충분한 생계활동은 힘들다는 의견으로 도시형장터의 약한 수익모델을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중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장터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의 지원들 중 경제적 지원은 물론 함께 죽어있는 공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운영권을 언급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장터 고유의 성격이 있는 소수의 도시형장터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판매자 설문과 기획자 인터뷰에서 많은 부분 공통점이 드러났는데 장터 자체로서는 충분한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를 이야기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소제공이나, 시설제공 등을 지원한다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형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자나 판매자 모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획이나,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킹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장터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변상권 또한 도시형장터가 일으키는 상권 활성화나 지역재생의 선순환을 이해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는 플리마켓 자체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도시형장터와 그 안의 주체가 되는 청년창작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내 도시형장터의 동향과 함께 청년창작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과 공통적인 의견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더 많은 설문과 인터뷰를 하지 못하여 이 연구가 도시형장터 내 청년창작자들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으나, 도시형장터와 청년창작자들의 현황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되짚어보고 그것이 앞으로 도시형장터가 나아가야 할 한 가지 방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대안적 창작공간
공급모델 연구

백지연 김소령 최윤희

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대안적 창작공간 공급모델 연구

백지연, 김소령, 최윤하

목 차

1. 문제의식
 - 1.1. 예술인들의 수입과 수입활동
 - 1.2. 작업공간의 필요성과 비용 마련, 유지의 어려움
 - 1.3. 예술인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
 - 1.4. 신진예술인
 - 1.5. 시장경제 기반의 사회구조와 예술인
 - 1.6. 연구 방향
2. 대안공간 프로젝트
 - 2.1. pre-Spooks Project PIN: DIY Furniture Design
 - 2.2. 대안공간 프로젝트: The Spooks
 - 2.2.1. 첫 번째 모델
 - 2.2.2. 두 번째 모델: Assembly Ger / The Nomatist
 - 2.3. The Spooks 프로젝트의 경과에 따른 실정 인식과 새로운 문제점들
3. 전문가 인터뷰, 발견한 새로운 실정과 한계
 - 3.1. 전문가 인터뷰의 계기
 - 3.2. 인터뷰를 통하여 새로 알게된 실정과 한계
 - 3.2.1. 지원금 형식을 통한 지원의 한계
 - 3.2.2. 레지던시 방식 지원의 한계
 - 3.2.3. 개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기만 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 3.2.4.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
4. 대안 설계
 - 4.1. 지원금 정책의 개선
 - 4.2. 네트워크
 - 4.2.1. 드러나지 않고, 남아 있는 공간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크
 - 4.2.1. 네트워크의 공동체 기반 안정성
5. 요약 및 결론

1. 문제의식

1.1. 예술인들의 수입과 수입활동

예술인이 작업을 해 나가며,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일까.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체의 1/3 비율이 넘는 36.1%의 예술인이 연간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음’이라 응답했다.¹⁾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동안 예술인이 벌어들인 평균 수입은 4,683만원이었고, 그중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 수입은 1,255만원이었다. 즉, 평균값으로 생각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1/3 정도로, 비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예술활동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는 예술인 전체를 아우르는 평균치로, 수입 분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예술 분야 간 차이를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간값 기준으로는 미술가의 연간 수입이 0원, 사진가 0원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문학인은 수입이 10만원에 그쳤다. 따라서 많은 예술인들은 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비 예술활동의 겸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조사결과 전체 예술인의 50%가 실제로 겸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²⁾

또한,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투입 시간은 14.3%임에 반하여, 예술활동 외 직업에 투입하는 시간은 25.6%³⁾로, 현재 대부분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마련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한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부분 경우 예술활동이 아닌 일에, 예술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작업공간의 필요성과 비용 마련, 유지의 어려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수입을 위한 비 예술활동에 소모하여야 한다는 사실 외에도,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작업공간의 문제이다. 예술활동은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 예술인은 생활공간과 분리되거나, 때로는 특수한 조건의 작업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의 예술인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응답은 54.3%로, 예술인들은 절반 이상이 개인 창작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작업공간이 필요하지만 마련하지 못하는 있는 예술인들 또한 고려한다면 작업공간에 대한

1)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p.60-62.

2) Ibid., p. 22-23.

3) Ibid., p. 18.

수요 자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거공간 내 창작공간을 보유하거나 자가 소유의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한, 이러한 작업공간의 필요는 임대료를 수반하는 전세나 월세 형태의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고, 비 예술활동을 통해 불안정하게 낮은 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예술인들에게, 주거 외 작업이 가능한 창작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어렵게 공간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예술인 한 작업실에서 꾸준하고 오랫동안 작업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임대료나 추가 비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작업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그중 최근 몇 년간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작업공간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 현상이다.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은 임대료를 비롯한 비용 문제의 어려움 해결(작업공간의 공동 사용 등), 창작물을 공연·전시하는 장소와의 거리, 화방 등 작업에 필요한 재료 수급처의 유무, 새로운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등의 목적으로, 서로 무관한 장소에 위치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⁴⁾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집중된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 때로는 그 공간 자체를 주변 도시환경 속에 녹아들게 하며 외부인들의 관심을 모은다. 그런데, 예술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유입된 외부인들의 활동은 예술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보다, 지역에 위치한 기타 상업시설에서의 소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프랜차이즈 등 더욱 큰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상업시설이 공간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곧 지역 전체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⁵⁾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지급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예술인이 상승하는 임대료를 그대로 지급하면서 작업실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1.3. 예술인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

물론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수입과 작업공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규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예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문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외 4항목 등, 횟수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저작물의 공표 실적을 기반으로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이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법규를 기반으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4) 서울문화재단, 김경민, 발제 4: 예술인 그리고 그들의 창작공간, 8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6, p.224-227.

5) ibid., p.230.

그런데 이 기준은 예술 활동을 한다면 누구나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경력이 부족한 예술인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며(미술·사진·건축 분야를 기준으로, 5년 이내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 /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 /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 또는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⁶⁾),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 사람도 많다. 경력이 부족할수록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불안정해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예술인을 정의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위치의 예술인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주거, 작업공간과 그 임대료의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레지던시들이 입주 과정에서 예술활동의 경력을 요구하며(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접수 포트폴리오에 ‘학력 및 주요 경력’을 기재해야 한다.⁷⁾), 이는 활동 기간과 경력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넘기 힘든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 또한, 상당수의 레지던시/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예술인에게 작업공간을 활용·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난 레지던시 전체 단위의 기획전이나 오픈 스튜디오, 지역연계·시민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입주 작가들을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작가들은 그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⁸⁾ 이와 같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소득과 공간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기획전이나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의 대가를 받고 ‘임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기보다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중견 예술인을 지원·유치하고,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기관의 실적을 마련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4. 신진예술인

특히, 임대료 등 비용을 지급할 정도의 소득을 갖추는 것, 정책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레지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을 갖추는 것 등, 이때까지 논의한 모든 어려움을 전부 짚어지

6) 예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2016. 5. 4.).

7) 난지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정기프로그램 신청안내 (<http://semananji.seoul.go.kr/korean/apply/applicationInfo.jsp>)

8) 예술인들을 위한 인터뷰레터 ‘들음’, 이정민, “출석 체크하는 레지던시? 작가를 위한 창작생활공간으로 거듭나야”, 2014. 1. 24. (<http://www.kawfartist.kr/>)

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신진예술인이다. 특히 예술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학교를 나와 예술활동을 해나가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등록금의 액수 자체도 타 단과대에 비하여 높은 상황에서⁹⁾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빚을 진 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바라보아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 예술작품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은 ‘과거 1회 이상 개인전을 수행한 작가 (학위청구 졸업전시 제외)¹⁰⁾’이다. 또한, 심의 기준의 30%를 차지하는 ‘사업수행역량’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예술인/기획자의 역량이 뛰어난가?’를 평가항목으로 제시하며, ‘작가/기획자의 주요 활동내역, 참여 작가의 명단 및 섭외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요구한다.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경력을 확보할 작업 기회를 누구보다 지원받아야 할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1.5. 시장경제 기반의 사회구조와 예술인

오늘 날 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순수학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행위라 말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인들의 집단 내에서만 공유되는 생각이라면, 예술활동의 자유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로 결코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희망하고 행할지를 결정할 자유를 사회 전체에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예술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예술활동의 자유와 가치가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사회 구조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 또한 공감을 얻고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현재의 정책은,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예술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정 위치에 놓인 생산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특정한 종류의 생산활동(예술인 복지법의 ‘저작물의 공표’ 등)을 한다는 근간 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 레지던시가 입주하는 예술인을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나 해당 레지던시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것을 의무하는 것도, ‘해당 레지던시의 성과, 실적’이라는 생산을 요구하는 일이며, 미술관 등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에서 높은 기준의 경력과 실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이 더 높은 작가를 받아 ‘더 좋은 작품’이라는 재생산을 바라는 것 아닐까.

예술인과 예술활동은 생산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을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해야 하고, 그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특수하게 제한하고 정의하는 행위인데, 법규에서 정의한 예술의 프레임이 예술 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 지원과 복지를 위한 정책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기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정의하는 행위가 필

9) 2014년 기준 4년제 대학 학과별 평균 등록금 금액에서, 예술대학은 의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학신문, “한국 대학에서 예술을 배운다는 것”, 2014. 11. 09.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9>)

10)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부문별 지원사업 안내 (http://www.sfac.or.kr/html/artsupport/creation_sight_2016.asp)

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그 자체가 그러한 경계 밖의 예술 행위를 하는 예술인은 지원과 복지의 기준 밖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경제 체계, 그리고 예술은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자본주의 기반의 사회에서 예술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다음의 서술과 유사하다: ‘... (자본주의와 예술은) 비경제적인 것의 경제라는 고유한 구성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적 생산물들의 시장을 매개로 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예술적 생산의 물질적·경제적 한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한계 내에서 예술은 자신의 미적 원칙을 스스로 구성하고 결정하며,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과 예술의 미적 원칙이 직접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시장을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¹¹⁾’ 예술활동이 계속해서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만 이해된다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또한 경력이 많고, ‘좋은 작품의 생산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예술인들 위주로 유지될 것이며,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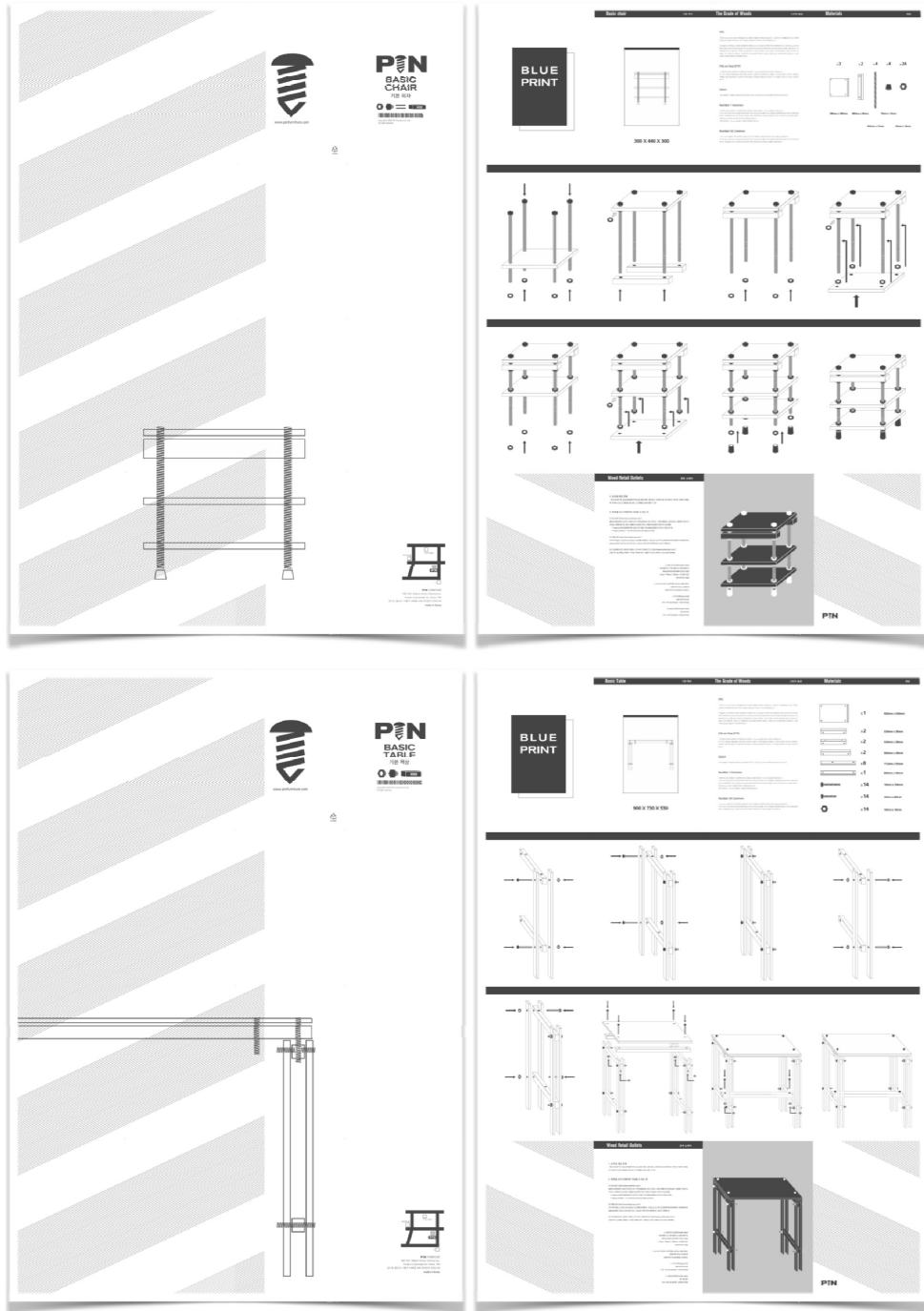
1.6. 연구 방향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자료조사를 통한 인식만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임대료라는 구체적인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작업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실정과 한계점들을 실제로 마주하지 않고 나오는 답변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작업의 자율성과 무관한 기획에 참여해야 하거나, 경력이 많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이 지원되는 현 지원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예술활동 공간 지원 모델을 구상하였으며, 서울시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작업공간 파빌리온을 구체적인 장소를 마련하여 설치하는 The spook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주한 새로운 문제점들은 현 실정에 대해서 인식을 확장해 주었으며, 이는 예술인들의 상황과 우리의 도시, 현 정책 등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주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운영자 송준호 작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을 모두 반영하여 대안적인 예술인 지원의 새로운 방향성 설계하고자 한다.

11) 이기웅, “자본주의와 예술”, 〈레프트 21〉 11호, 2009, p. 8-9.

2. 대안공간 프로젝트

2.1. pre-Spooks Project: PIN: DIY Furniture Design



[자료 2.1-1. PIN 프로젝트 01-03 기획안]

프로젝트의 중점 목표는 특별한 기술 없이 볼트와 너트, 각목을 기본 재료로 끼우고 조이고 푸는 과정만 필요로 하는 직관성을 갖춘 동시에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변용이 가능한 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구는 이사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고정되어 조립과 해체가 어려운 기존의 일반 가구, 또는 조립식이어도 크기 변용이 어려운 기존의 조립식 가구보다 이동이 쉽고 비용절감이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사 과정에서 큰 가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가구가 생기면 곧장 새로운 비용과 구매를 위한 소모시간 발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 대로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가변형 가구를 설계하는 큰 취지였으며, 가변성, 이동성, 시공의 용의함, 임시적인 점유 등을 중점으로 생각하여 공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후 진행할 The Spooks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2.2. 대안공간 프로젝트: The Spooks

프로젝트 PIN을 진행한 후, 가변적인 가구는 변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공간이 어느 정도 공급된 상황에 한정해서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공실을 전전하며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 등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효용을 발휘하지만, 학교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갓 벗어난 신진예술인의 경우 등 ‘공간 자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면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가구보다 더욱 큰 스케일, 공간 자체의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 전역의 원룸 임대료를 조사해 알아본 결과, 갓 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경제력으로는 당장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적인 작업공간을 임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난지 창작 스튜디오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27명 모집 1,215명 지원 경쟁률 약 45:1	약 725명 지원 7명 모집 경쟁률 약 10 : 1	국내작가 297명, 해외작가 171명 468명 지원 경쟁률 약 16:1	15명 모집 150명 지원 경쟁률 약 10:1

[자료 2.2-1. 국내 레지던시 경쟁률 자료]

신진예술인이 임대를 통해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업공간을 지원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에 국내 레지던시들의 모집·입주결과를 조사하였는데, 레지던시들의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력이 부족한 신진·청년 예술인들이 공간을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라는 높은 비용을 기반으로 한 작업공간 / 레지던시라는 높은 경력을 기반으로 한 작업공간이 아닌, 신진예술인 또한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작업실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The Spooks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2.2.1. 첫 번째 모델

The Spook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은 부동산, 레지던시가 아닌 제3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예술인들에게 연결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간 소유자 모집: 프로젝트의 미션과 가치관에 동의하는 공간의 소유자를 모집한다. 홍대 등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낮이나 밤의 특정 시간, 사업 공간이 비어 유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공간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중 프로젝트의 가치관에 공감하는 공간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는다.
2. 공간 소유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 공간의 크기와 특징을 정리한다.
3. 작업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위에서 정리한 공간들을 제시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공간을 1:1로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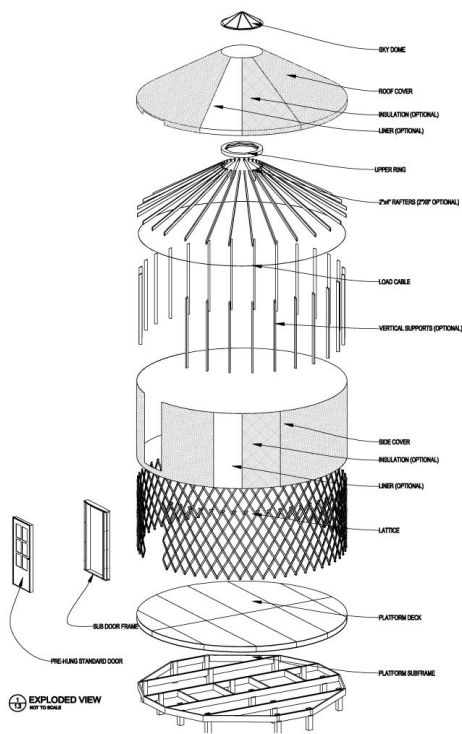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레지던시가 아닌 새로운 접근 가능한 공간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모델은 부족한 수요를 공급자와 직접 연결시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공간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곧 프로젝트의 한계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간 소유자에게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공간이거나, 프로젝트의 가치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제공해주기 어려운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취지에 공감하고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어도 소유한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를 해결할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유자들이 공간을 쉽게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해하게 되었다.

2.2.2. 두 번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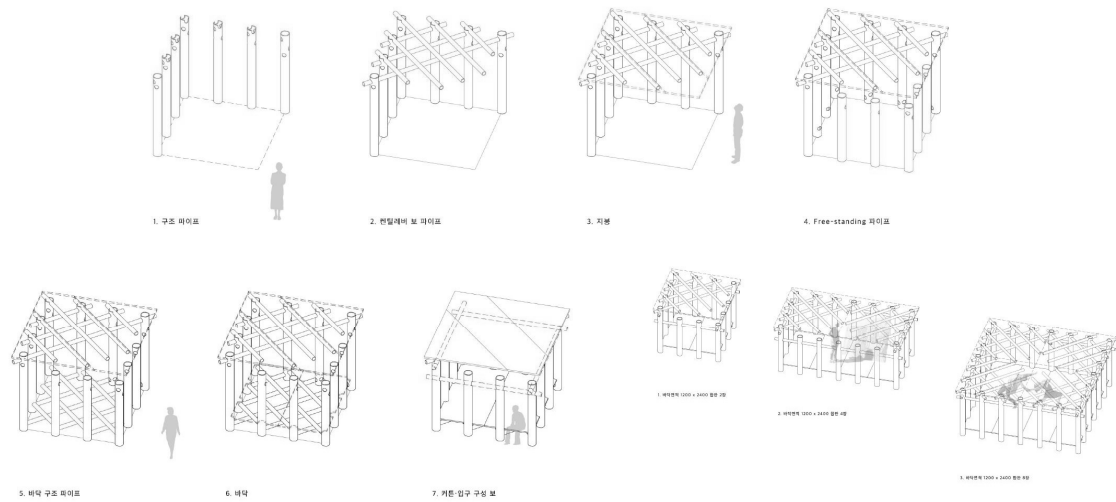
The Spooks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은,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 PIN의 발상을 공간 전체에 연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변적인 가구가 지닐 수 있는 가변·이동성, 분해·해체의 용이함을 작업공간이라는 ‘공간’ 단위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사용자가 큰 노력 없이 직접 설치 가능한, 그리고 사용이 끝난 후에는 분해와 이동이 가능한 개인 작업실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계와 기획에서 그치는 가상의 프로젝트가 아닌, 서울시의 유휴공간 활용 지원 정책을 이용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서울 곳곳의 실제 장소에 지원금을 통해 실제로 작업실 파빌리온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한 모델은 총 2개로, 첫 번째 파빌리온의 설계 이후 보완점을 추가하여 두 번째 파빌리온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파빌리온: ‘Assembly 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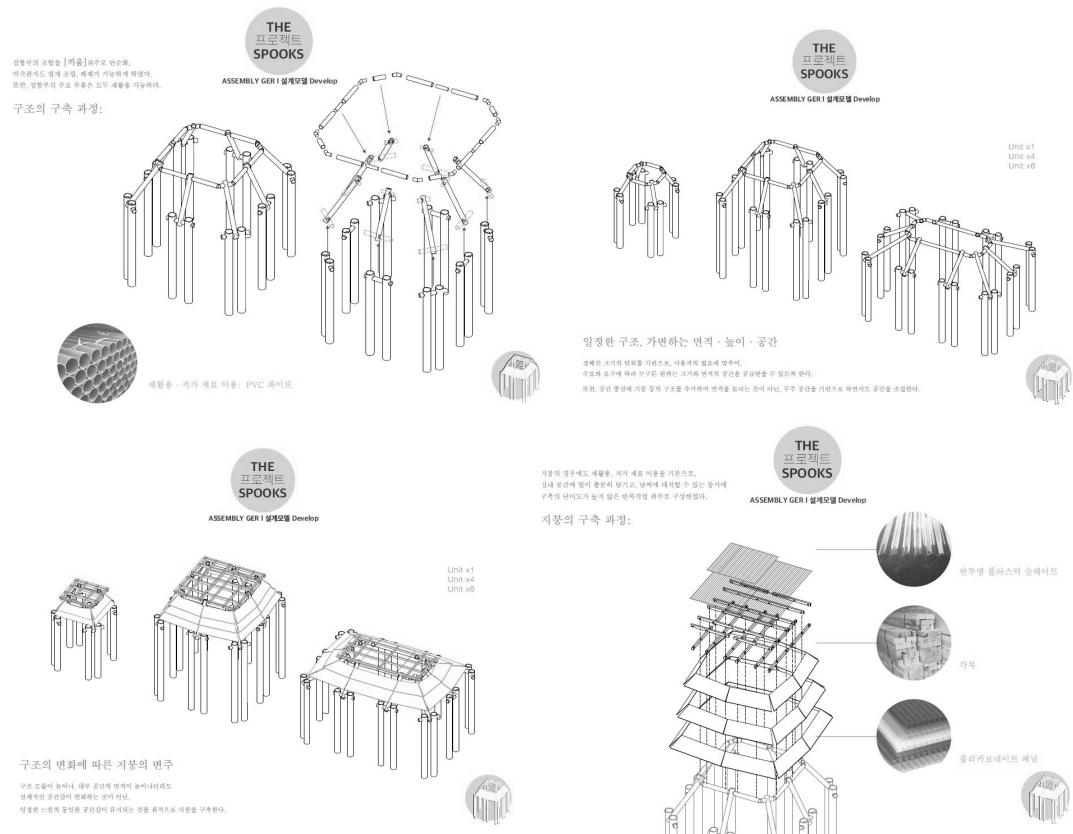
첫 번째 파빌리온은 몽골의 전통 이동식 가옥인 게르(ger)의 구조를 기반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게르와 같이, 많지 않은 종류의 부재를 사용자가 직접 조합해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비용 / 가공 / 시공 / 해체에서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건축 전공자와 함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한 저렴한 재료 - 각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 - 가공된 재료를 조합할 때의 노력 최소화 - 공간 자체가 가구처럼 분해 후 이동, 재시공의 용이함’을 중점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자료 2.2-1. GER 분해도] [자료 2.2-2. 파빌리온의 재료: 재활용 가능한 PVC 파이프]



[자료 2.2-3. ASSEMBLY GER 초기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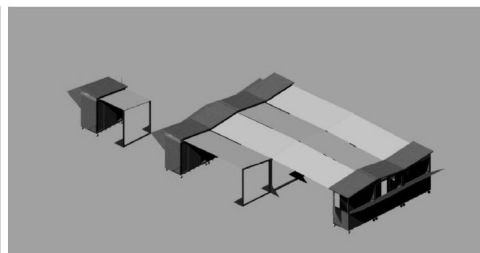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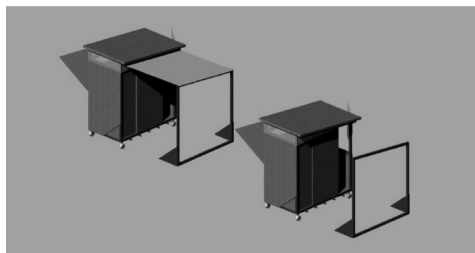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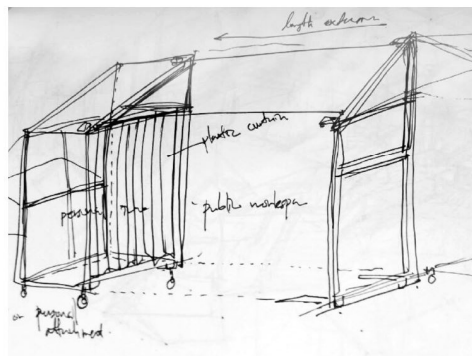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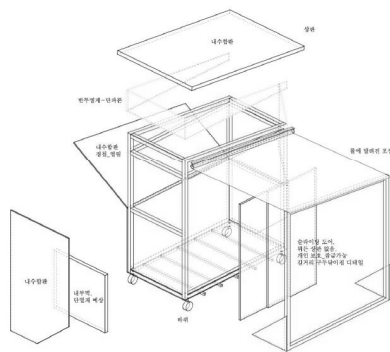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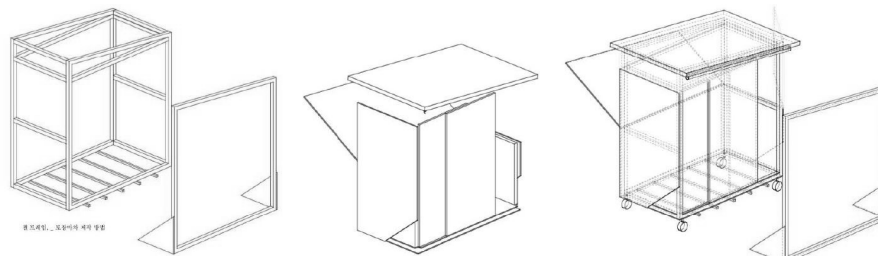
[자료 2.2-4. ASSEMBLY GER 최종 설계안]

두 번째 파빌리온: The Nomatist

두 번째 파빌리온은, 첫 파빌리온이 작업환경에 따라 처음부터 시공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과

는 다르게, 완성된 파빌리온으로 ‘작업 환경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중점으로 디자인되었다. 파빌리온의 이동이 해체-재조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자체를 가구처럼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두고 설계하였다.

1. 파빌리온 자체의 이동: 중심 공간이 되는 큐브 구조의 하단부에는 정착 시 체인 역할을 하고 이동시 바퀴 역할을 하는 지지부 설치
2. 공간의 가변성: 내부 공간은 아코디언처럼 길게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해, 공간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3. 작업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류 가능: 외벽 일부가 270도 꺾이도록 설계하여 작업자 스스로 프리마켓을 열거나 작업실을 공개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마련



[자료 2.2-5. The Nomatist 설계안]

두 가지의 파빌리온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그것을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시에서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하며, 고비용의 임대공간과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레지던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예술인의 작업공간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작업공간 파빌리온이 새로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에서 지역주민과 새로운 종류의 교류가 발생하여 지역에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2.3. The Spooks 프로젝트의 경과에 따른 실정 인식과 새로운 문제점들

The Spooks 프로젝트에서 두 개의 모델을 진행하며, 각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레지던시가 아닌 새로운 접근 가능한 공간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가변적인 구조물이 지닐 수 있는 이동성, 분해·해체의 용이함을 작업공간이라는 ‘공간’ 단위로 확장해 유희공간을 새로운 공간 자원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작업공간의 공급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두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각각 한계점을 만나며, 현 실정과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로 인식하게 해주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알게 된 문제점은, 가치관에 공감하고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개인의 경우라도 개인의 사유물을 손해를 보고 대여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이러한 염려를 해결할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간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모델의 경우, 더 많은 개소를 지어 더욱 많은 신진예술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시공 비용을 줄였으나, 서울시 측에서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임시적 구조물이 조형미가 부족할 경우 전체적인 도시환경과 조화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도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문제가 아닌 공간지원 프로젝트로, 수요자와 파빌리온을 설치할 공간과 시공을 위한 재료를 관리하는 등의 운영이 프로젝트의 근간이라 자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인건비, 운영비는 제공할 수 없고, 유희공간에 지어지는 구조물에 관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절약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사업수행에서 예상되는 성실도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 아닌, 안정적인 공간을 공급한다는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가 기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유희공간에 관한 사업은 그 기간이 올해까지로, 이후 정책이 변화했을 때 프로젝트를 유지할 공간과 지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또한 미지수였다.

3. 전문가 인터뷰, 발견한 새로운 실정과 한계

3.1. 전문가 인터뷰의 계기

직접 두 가지 모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장에서 다룬 문제의식들을 구체적으로 마주한 것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실천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한계점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해결, 혹은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거나 대안적인 기획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현 실정에 대해서 더욱 깊이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의 공간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들을 찾은 결과,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송준호 작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터뷰를 청하였다.

송준호 작가가 운영하는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¹²⁾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작가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¹³⁾’이다. 이 레지던시의 지원 대상은 의욕적으로 작업하려는 작가들이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 지쳐 작업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작가들이다. 레지던시의 의도 자체가 작업환경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예술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송준호 작가는 누구보다 예술인으로서 지내는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본 레지던시 입주 경력의 적시 금지’, ‘학력, 전시경력, 평론 글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등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정책이 기존의 레지던시의 정책과 정 반대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단체¹⁴⁾’이다. 세입자 네트워크, 주거 상담, 제도 개선, 연구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니온과 조합원들에 의해 8호까지 직접 리모델링~시공된 주택을 통해 주택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있다.

12) 2016년 현재, 작가의 사정으로 레지던시는 운영을 중단하고,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정원>으로 바뀌어 운영중이다.

13)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ethinkaboutart>

14)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 <http://minsnailunion.tistory.com/8>

3.2. 인터뷰를 통하여 새로 알게된 실정과 한계

3.2.1. 지원금 형식을 통한 지원의 한계

송준호 작가는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정책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지속해서 인식하고, 직접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예술인들을 돕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한계점들을 넘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중 가장 먼저 논의한 정책의 한계점은,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었다.

“송준호 작가: 문제점은, 작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작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작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남루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외주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 작가들 반 정도는 돈만 받고 안 나오시는 작가들이 있었는데 … 갑자기 돈이 생겼고, 내 상황도 막막하고, 그러면 그 돈을 작업할 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김소령: … 송준호 작가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송준호 작가: 네, (지원금) 두 번 받았습니다. 2년동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기관에서 기관의 공적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입맛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창 레지던시 기금 받기 시작했을 때는 신진 작가의 지원에 대해서 돈을 쏟아 붓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공동체 놀이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진작가 주제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레지던시 지원금을 받을 때, 놀이터 주제로 공간 설명을 바꿔서 냈어요. 그렇게 지원금을 받았죠. 그 다음 해에는 지속가능한 생태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요. 관의 취향과 정권에 따라서 계속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원금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 한 두번 받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한 두번 받았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

…

김소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작업의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레지던시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작업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게 되어 버리거나 … ”

송준호 작가에 따르면, 지원금은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중요한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지원금이 작가의 예술활동이나 작품세계가 아니라 작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반으로 제공될 경우, 이는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각인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작가들의 지원금 사용처 문제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작업을 위한 지원금이 주어졌을 때, 예술인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사용하

는 형태는 작업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강제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의 2015년 ‘서울문화정책,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토론에서 대안공간 풀의 2010-13 운영자 김희진 큐레이터는 “용역을 쓰는 게 아닌 작가가 자신의 기획이나 창작에 대한 사례비를 현재로서는 항목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 돈을 만들어 자기 돈을 챙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작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료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정확히 써야 하고 정작 써야 할 사람에 대한 부분, 예컨대 번역이나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자문, 글 써주는 분들에게 지급할 고료 등은 제일 먼저 삭감됩니다.¹⁵⁾”라고 언급하여, 이러한 지원금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마지막은 본 연구에서 가장 집중한 지원금의 한계점으로, 정책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의 방향성에 의존하며,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정책의 변화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작업 안정성을 위한 지원을 기획이 정책 지원금에 의존할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금이 정책의 방향성에 의존해 지급되는 상황에서 지원금 신청할 경우, 신청자나 신청기관은 필연적으로 해당 정책과 신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방향성이 일치함을 증명하거나, 일치하는 종류의 기획을 유지할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지원금과 지원 정책의 성격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제약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작업을 유도하거나 해당 방향성에 맞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문제의식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지원’이 아닌 특정한 ‘생산’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레지던시 방식 지원의 한계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는 그 지원 대상부터 다른 레지던시와 정반대로,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일반적인 사설 레지던시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는지, 또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시’라는 시설의 지원정책 자체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송준호 작가: 그런데 레지던시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1년정도 지나고서 끝나면 짐을 빼야 하잖아요. 저는 일년정도 열심히 작업하면 뭔가 다른 것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똑같더라고요. 들어가기 전과 나간 후가요. 똑같고, 세상에서 허우적 거리는 것도 똑같고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것도 똑같고, … 대부분 다른 레지던시에 또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 레지던시 이력만 생기고. 그런데 결

15) 서울문화재단 ‘문화 플러스 서울 온라인 매거진’, 새로운 예술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다: ‘서울문화정책,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토론회 기록, 2015. (<https://brunch.co.kr/@sfac/52>)

국에는 더 이상 갈 레지던시가 없게 되는 상태도 오거든요. ... 레지던시는 사람들이 매번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1년만 지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남지 않는 이상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 많은 작가들이 그 당시 레지던시의 신진 작가였다가 지금은 신진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고 전시를 많이 했지만 더 이상 불러주지는 않고 생계가 더 급해졌고..”

레지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의 공간을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물론 이러한 지원 자체는 일정 기간의 공간적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레지던시를 나온 이후이다. 레지던시가 예술인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주거와 작업 공간의 안정성은 레지던시 입주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레지던시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마친 예술인은 또 다시 입주 전과 같은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단순히 자원을 제공한 후 기간이 지나거나 자원이 모두 소모되면 끝인 방식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속해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 공간 자체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2009년에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단기간 입주기간’으로 전체의 34.29%, 그 다음으로 ‘재입주 제한’ 20.95%¹⁶⁾을 차지해 55%이상의 입주자가 레지던스의 단기적인 지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레지던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 레지던시의 입주 사실은 다른 레지던시에 재입주할 경우 작가의 경력처럼 작용하여, 입주모집에 선발될 가능성을 높인다. 레지던시들이 선발 과정에서 예술인의 이전 레지던시 입주 사실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를 해당 작가의 ‘이력’으로 인식하는 맥락으로 보인다.¹⁷⁾ 이는 결과적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신진예술인들이 가장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3.2.3. 개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기만 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경우, 레지던시의 운영을 송준호 작가 개인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시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또한 직접 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 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16) 강안나,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2009, p. 117.

17) 머니투데이, “국전=등용문’ 저문 뒤 ‘기획전·레지던시 입주’ 화단의 권위되다”, 2016. 03. 26.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31412243199327>)

“송준호: 땅에 대한 세금은 저희 집 토지가 있고, 옆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 건물을 지었을 때 12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 중 800만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서 2년차에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가건물은 그쪽은 건축 폐기물 쓰레기장이었어서 거기서 쓰레기 주워서 부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았고요, 행사 비용은 제 자비를 들어서 했고, 비용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개인전 한 번 하면 2000만원에서 더 들어가면 3000만원정도씩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2009년 정도에 박물관급의 공간에서 하는 큰 단체전에 두 달정도 공을 들여서 전시를 했는데요, 공을 들여서 했으니 월급으로 따지면 한 500만원 600만원정도를 받지 않고 내 돈으로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랑 이런 것들까지 합해서 거의 1000만원정도 쓴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한 달 전시하고서 다 철수해서 다시 창고로 가야되는데, ... 그래서 어차피 일 년에 한 번씩 개인전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20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 2000만원을 개인전 했다고 생각하고서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한거예요. 물론,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차도 팔았고, 보험도 다 해약하고, 지난 5년간 작품을 판매한 것은 모두 레지던시에 쏟아 부었어요. 작품판매 비용, 모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운영했어요.

...

김소령: ... 자재들을 주변에서 구해서 직접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것은, 저희가 가건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노동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어서, 어떻게 혼자 하신건지 ...

송준호: 2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 짓는데.

백지연: 혼자서 다 하신거예요?

송준호: 가건물 지원, 700만원 지원받아서 한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거예요. 용접은 못 하거든요, 용접 맡기고 한 것은 그 비용이었고요. 그 전에 씨앗이 된 작은 집은 저 혼자 다 만든 것이었어요. 조소과 나와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둔 공구가 집 지을 수 있는 공구여서 ... ”

송준호 작가의 경우, 대안적인 레지던시의 계획 후 구체적인 공간을 시공하는 과정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보다는 개인의 자원을 전적으로 소모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준호 작가처럼 개인의 소유자산을 처분한 자비까지 동원하며 대안적인 모델을 구상-실천할 수 있는 개인은 드물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 등의 소모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작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작가의 레지던시>와 유사한 대안적인 레지던시를 기획하고자 해도, 정보가 부족하다면 송준호 작가처럼 프로젝트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관련된 정책과 지원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력,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 등을 전부 새로 얻고 익히는데 큰 노력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 경험이 있는, 경제적-행정적 능력에서 후발주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획자와, 새로운 대안공간을

기획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획자가 공적인 네트워크나 그룹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적은 자원과 노력으로 추가적인 작업공간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2.4.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문제의식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예술활동의 인식에 관한 실정, 그리고 공공 지원사업들의 방향성과 인식 문제를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임경지: 저도 그렇게 해서 알음알음 찾아보니까, 예술인 지원법으로 등록된 것은 추정치가 1%라 하더라고요. 전체 예술인의. 근데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이면, 공공임대주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바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특정 대상을 위해서 한나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에서 다시 이들을 제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넓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본래의 공공임대주택의 의미마저 퇴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소득이 잡히다 보니 소득이 0인 사람들은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는 방식이 있거나. 이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풀려고 하니까, 프리랜서를 증명해라. 창업임을 증명해라. 예술인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니 다시 문턱이 높아지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경지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설정한 후,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당자를 선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특히 예술인을 비롯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이 소득이나 저작물 등 기존 제도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틀로 이루어질 때, 분명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경력이나 결과물을 아직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시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예시로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 활동의 증명¹⁸⁾에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및 예술활동으로 얻은 연 120만 원 혹은 3년간 360만원의 수입을 증명¹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²⁰⁾

1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2016. 5. 3.)

19) 예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2016. 5. 4.)

20)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2016. 03. 08. (<http://news.karts.ac.kr/?p=2373>)

4. 대안 설계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인식한 실정들과 한계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3장에서는 기존의 레지던시나 지원 방식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안적인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송준호 작가,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 현행 지원방식과 레지던시를 통한 공간 지원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인터뷰 진행 결과 현행 예술인 지원 방식의 문제점은,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정책의 한계', / '레지던시 지원 방식의 문제와 근본적 한계', / '대안을 모색하려고 해도 개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여 혼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 /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예술인을 위치시키는 문제'의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안 모델 설계를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해한 현황의 연장이자 심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본 보고서의 4장에서는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정리된 실정과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 실정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 것에 더해,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송준호 작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는 두 전문가들이 직접 대안적인 레지던시와 유니온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행위들을 통해 기존의 지원방식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지, 또한 본 연구에서 마주한 문제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인 작업공간 모델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 설계의 방법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1. 지원금 정책의 개선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이 계속해서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만 이해된다면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지원 정책들이 기존 제도의 방식과 틀을 통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것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왔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일방적인 지원이나, 지원이라 보기 힘든, 예술인의 작업의 자유와 관계없는 정책-기관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혜받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송준호: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에게 임금을 드리는 거죠. 최소 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 레지던시라는 제가 하려고 했던 취지와 조금 안 맞을수도 있겠다, 해서, 길게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다시 작업을 더 하고 싶었을 때, 자생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 그래서 돈을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 자기 작품과 관련되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기 작품을 어떻게 사람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을지..

... 영국 쪽에서, 사회참여적인 미술에 관하여 관심이 매우 많고,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레지던시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레지던시의 성격. 모든 레지던시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작가들이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레지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곳은 사회참여적인 작업을 하려는 작가들이 지원을 하는 레지던시인 거죠. 그럼 그 레지던시에서는 그에 관련된 플랫폼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연구의 3.2.1.에서, 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은 예술인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 예술 행위와 관계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지원금은 정책이나 지원기관의 방향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세 가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만약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일방적인 ‘지급’이 아니라, 예술인들 본인의 예술활동과 직접 연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에서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참여한 작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2015년 ‘서울문화정책,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토론에서 김성규 시인은 “... 젊은 작가들은 제가 알기로 창작지원금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직업이 없는 문인이 많기 때문에 복지와 작가의 활동 개념을 합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²¹⁾라며 예술인의 창작과 직접 연관된 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작가의 레지던시 자체의 기획이나 정책 기반의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작가가 추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예술 행위의 작업 방향에서의 자유도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속해서 이루어지며, 작가의 예술활동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마련된다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보장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예술인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21) 서울문화재단 ‘문화 플러스 서울 온라인 매거진’, op. cit.

4.2. 네트워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응할 방법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은 바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다. 네트워크가 해결할 수 있는 현 실정의 문제점은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민달팽이 유니온〉처럼 하나의 네트워크가 복합적인 성격을 띄며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특히 ‘드러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원(비어있는 유휴공간 등)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공동체 기반 안정성 - 실력, 책임, 위험을 공동체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4.2.1. 드러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크

“ 백지연: 요즘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고안하게 된 모델은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연습실이나 작업실 같은 공간을 운용하고 계시는 활동예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시기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중에 협업할 수 있는 다른 작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어를 생각하시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업실을 소유하고 계시며 필요 주기에 따라 세어를 하여 운용하는 것도 생각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신진예술인들이나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활동예술인과 컨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

송준호: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공간은, 물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서, 그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하기 위한 어떤 창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 그 분들에게 공짜로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품을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체에 6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바꾸어 준다든지, 아니면 회사원들과 아티스트 ... 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백지연: 기업 내에, 사실 사무실이 항상 전부 100% 활용되지는 않고, 층마다 유휴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신진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을 진행해서, 원하는 사람은 출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

예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본 연구에서 첫 번째 모델을 구상하여 진행할 시점에서도 집중하고 있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더욱 필수적이라 생각하게 된 사항이다. 공공 정책을 통하여, 혹은 사설 기관을 통해 자본을 들여 만들어지는 레지던시는 그 특성상 공급과 운영이 해당 기관이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에 미루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공급량이다. (이는 레

지던시들의 폭발적인 입주 경쟁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토지와 부동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며, 투입한 자원에 비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라는 한계점 또한 지닌다. 결국, 작업공간의 공급이 대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많은 작업공간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공간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도시에서 공간의 활용은 점차 ‘소유’에서 ‘점유’로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여 공간을 소유하거나, 비록 임대인인 하지만 공간의 활용 형태에서 소유하는 것과 가까운 부동산의 장기 임대계약과는 달리, 점점 더 공간의 소유자 또한 공간이나 물건 등을 그대로 둔 채로 다른 사용자가 해당 공간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 공간을 임대에서 점유의 개념으로 전환해 폭넓은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있는 에어비엔비(airbnb)의 플랫폼처럼,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에 있어서도 도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휴공간의 발생을 파악하고, 지원 등 단순 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인들에게 공급을 이어줄 수 있는 정보력을 네트워크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면, 공간의 공급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동시에, 예술인들 전체에서 낮은 진입장벽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4.2.1. 네트워크의 공동체 기반 안정성

“ 임경지: ...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13년도에 진행했던 것인데, 3명을 모아 오면, 우리는 이제 큰 방 3개집을 찾고, 임대인을 설득해서 도배를 좀 하고, 단기계약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3명에서 사는 것이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당시 민달팽이 유니온이, 신뢰받는 중간자가 아닌, 생긴지 얼마 안 된.. 임대인들에게도 신뢰가 가지 않는 집단. 임차인들에게도, 친하고, 지지하긴 하지만, 정말 갈등을 해결해주고, 잘 매개하는 집단이라고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는 한번 실험을 해 본 것이었죠..

잘 안되었어요. 한 집, 두 집 성공했고 한 집은 끝까지 계약 만료를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일단 규모가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공동체라 불릴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한다. 두 체 이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그래야 서로 갈등도 교차되고, 상호작용도 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신뢰받는 중간자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계약을, 세명에서 집짓는다고 모이면 그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중개만 하고. 그런데 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재 임대하는 것이.. 이것이 신뢰의 핵심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임차인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 되니까. 임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만 하면, 우리도 공인 중개사가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 사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집을 고쳐볼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생산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 같아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간들을 저희가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고. 반드시 우리가 꼭 관리해야 하니까, 이 기술을 습득해야겠어,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집을 우리가 돌보고, 집에 대한 책임을 짐에 있어서는 알고, 그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왔고, 그 시간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이 저는 개별대응하지 않겠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텨줄 수 있는 조직같은 결사체가 있고, 사실 준비된 정도도 개인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이것들을 조직이 연계해 주고, 조직들이 다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을 개인이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던가, 조직체로 사업장을 네트워크 맺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한 모델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3명 모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것을, 아니구나. 아주 중요한 중간자이자 당사자. 때론 조정자이면서, 때로는 당사자인, 때로는 다시 주인의식을 가진, 이 집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1년 반 정도 걸려 알게 된 건데,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아주 많은 문제가 해결 된 것이죠.

...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저희는 법인체가 이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있으면, 마음껏 이용해 주었다면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 우리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훨씬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공간들이 열릴 수 있고, 굳이 많은 법인체를 만드는 수고로움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너무 힘들어요, 이 행정을 하는 것이. 지원금 자체, 모든 사업 자체는 어쩔 수 없죠. 예산은 잘 써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신뢰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집단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알긴 알겠으나, 그것을 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는 분명히 있어요.”

〈민달팽이 유니온〉 임정지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는,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유니온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구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중간자가 될 수 있는가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다. 3.2.3.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재 공공기관이나 미술관 등의 제도권 밖에서 대안적인 작업공간이나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금전적인 부분부터 행정처리, 관리, 운영까지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과 자원으로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대안적으로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기획이 공동체 단위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면, 작업공간의 확보 과정이나 새로운 지원 프로젝트 기획에 있어서 동일한 행정적 절차에 훨씬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고,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간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The Spook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에서, 프로젝트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공간 소유자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장 등의 소유 공간을 폭넓은 예술인집단에 개방하기는 위험이 따르기에 불가능하다는 사

실을 확인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공간의 공급을 기획하는 네트워크가 신뢰받는 중간자가 되어 공간 제공자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해결을 공동체 단위에서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4.2.1.에서 다룬 작업공간으로서 지원 가능한 유희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도 기업 등 더욱 큰 당사자들과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 지원 가능한 공간의 공급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논의한 주제는 예술인의 열악한 수입, 수입을 위한 비예술 활동에 과다한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작업공간의 임대 문제가 겹쳐, 많은 예술인이 하나의 작업공간에 정착하여 예술활동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불안정한 수입과 임대료 문제 등에 의해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임대료 등 비용을 지급할 정도의 안정된 소득을 갖추지 못하고, 정책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레지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 또한 부족한 신진예술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레지던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술인이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인을 저작물 등 생산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조의 계층으로 인식하는 법규의 정의가,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등록에 실패하는 큰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레지던시가 예술인들에게 해당 레지던시가 속한 기관의 성과를 위한 기획이나 사회적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레지던시 선발 과정에서 경력이 필요하게 되고 레지던시의 입주 사실이 새로운 경력이 되는 상황이 악순환 구조로 작용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신진예술인이 레지던시를 통한 공간을 지원받기가 무엇보다 힘들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인을 사회적으로 정의하거나, 예술인이 지원 후 예술활동 외 추가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경력이 많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이 지원되는 현 문제점들에서 벗어나, 신진예술인과 청년예술인 또한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 공간 모델을 실험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개인 사업장 소유자 등 프로젝트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공간의 소유자를 모집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제공받은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 그 특성에 맞는 작업자와 해당 공간을 1:1 매칭시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서, 개인 사업장은 공간 소유자에게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기도 한 동시에 사적인 공간일 수 있어, 가치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제공해주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한 두 번째 모델은 예술인의 잦은 이동과 변화하는 작업환경 사이에 이사 과정에서 비용/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가변형 가구 프로젝트인 PIN의 문제의식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변형, 이동성, 분해-해체 등의 가벼움을 기반, 임시적인 점유 등을 중점으로 두고 구체적인 작업공간 파빌리온을 설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파빌리온은 몽골의 전통 이동식 가옥인 게르(ger)의 구조를 기반으로 영감을 얻어 작업자 혼자서도 파빌리온의 설치/해체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각 작업자의 작업별 특성에 따라 공간의 크기 등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보완한 두 번째 파빌리온은 구조물의 이동이 해체-재조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자체를 가구처럼 이동할 수 없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파빌리온으로 '작업 환경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중점으로 설계하였다. 두 번째 모델을 통해 직접 모델을 설계하고,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시에서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직접 진행하며 논의할 수 있는 정책과 사용되지 않고 있던 자원을 잘 찾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작업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재료 가공과 비숙련자도 가능한 시공법을 위주로 진행된 저가의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금액으로 시공 가능한 것은 2개소가 고작이었고, 정책의 방향상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어려웠으며, 시공 후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유희지의 상황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으로 작업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서울시의 유희지 사업은 단기로 진행되어, 올해가 끝나면 더 이상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이였다.

연구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구체적인 모델을 설계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으로 제기한 내용의 현황을 직접 인식하고, 대안적인 모델들을 실현할 때 마주치게 되는 인지하지 못한 한계점들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인지 / 전문가들은 대안적인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정책·지원사업을 계획하는 집단·예술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한계점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으며, 이는 크게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정책의 한계', / '레지던시 지원 방식의 문제와 근본적 한계', / '대안을 모색하려고 해도 개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여 혼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 /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예술인을 위치시키는 문제'의 4가지로 정리되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대안 설계는 어

떠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과 4장에서 다룬 대안적 지원모델의 설계방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술인의 불안정한 작업환경, 특히 저경력-저소득-신진예술인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할 때 추구하여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예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서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언급하였지만, 예술인과 예술활동은,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다. 저작물의 공표나 전시회 횟수 등으로 예술인을 사회구조 속 공인된 집단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러한 정의 밖 예술인들은 법규로 규정된 지원과 복지의 경계선 밖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예술인에 관한 공공지원정책이 지속해서 예술인과 예술 행위를 제도적 장치로 정의하는 것을 기반으로 유지된다면, 생활과 작업환경이 불안정한 예술인들 상당수는 지속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나 레지던시가 예술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활동을 의무화할 때, 이는 더 이상 지원이 아닌 거래나 임대형식을 취하게 된다. 현재 예술인을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지원금은, 지급 기관의 입장과 정책 방향성과 예술인의 활동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부터 많은 예술인들이 누려야 할 예술활동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쉽게 사라지기에 예술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급한 문제인 안정적인 작업환경의 확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봉책만이 될 뿐이며,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시기가 끝나면 예술인의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레지던시 또한 사실상 작업환경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장기적인 작업환경 안정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예술인이 정책 수혜자가 되기 위해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는 해당 작가의 예술활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획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진·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진·청년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그룹인 동시에, 자력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거나, 현 실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공공·사설 기관

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력 기반의 조건들을 맞추기 어려운 집단이다. 따라서 신진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사이의 기간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진·청년예술인들의 경우 비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주거-작업공간의 임대료에 필요한 월세는 지급할 수 있더라도, 임대료 수반되는 고액의 보증금을 대출 없이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정부에서 신진·청년예술인들의 작업공간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면, 이들이 새로 작업 공간을 구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벽에 부딪히는 현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신진·청년예술인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안정하게 소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위한 신진·청년예술인 수당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이는 불안정한 수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진·청년예술인들에게 완성도 높은 작업활동과 다양한 시도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차후 필요한 경력을 쌓아가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 및 공간들을 엮어 하나로 찾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설과 공공을 모두 포함한 레지던시의 입주 경쟁률이 극단적으로 높고, 공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작업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술인들을 공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3의 영역에서 공간의 공급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업장과 기업 등의 유휴공간을 조사한 결과, 시간적·공간적으로 예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자원 자체는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들, 혹은 개인적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개별 연락을 취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안심하고 제공할 방안이 없기에 이를 실제로 필요를 가진 예술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휴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간 제공자가 신뢰하고 공간을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을 갖춘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공급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휴 작업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창구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지원영역 밖에서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결성된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공적 지역 영역의 경계 밖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작업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기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업공간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내부 공간을 요구하는데, 자본주의의 구조 하에서 이는 부동산의 임대-구입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프로젝트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비용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피해,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집단을 통해 임차받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위험을 줄이고 공간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간자가 되는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이 있어, 공간을 공급하고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킹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률-행정적 전문지식까지 갖춘 인력을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 당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면, 또한 이러한 조직의 인력들이 작업공간 수요의 당사자들인 예술인들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줄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직과 조직의 능력이 사회문화적으로 공인된 조직으로서 인정받고 그 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공급하는 일을 넘어 예술인 전체가 사회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며 안정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 강안나,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2009, p. 117.
- 김휘정,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2011.
- 문화정책논총 제30집 1호,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작업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 서울문화재단 ‘문화 플러스 서울 온라인 매거진’, 새로운 예술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다: ‘서울문화정책,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토론회 기록, 2015.
- 서울문화재단, 김경민, 발제 4: 예술인 그리고 그들의 창작공간, 8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6.
- 이기웅, “자본주의와 예술”, 〈레프트 21〉 11호, 2009.
- 머니투데이, “‘국전=등용문’ 저문 뒤 ‘기획전·레지던시 입주’ 화단의 권위되다”, 2016. 03. 26.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31412243199327>)
- 예술인들을 위한 인터뷰레터 ‘들음’, 이정민, “출석 체크하는 레지던시? 작가를 위한 창작생활공간으로 거듭나야”, 2014. 1. 24. (<http://www.kawfartist.kr/>)- 대학신문, “한국 대학에서 예술을 배운다는 것”, 2014. 11. 09.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9>)
-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2016. 03. 08.
(<http://news.karts.ac.kr/?p=2373>)
-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 <http://minsnailunion.tistory.com/8>
-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ethinkaboutart>

이미지 자료 출처

[자료 2.1-1. PIN 프로젝트 01-03 기획안]

- 자체 제작

[자료 2.2-1. 국내 레지던시 경쟁률 자료]

- 이미지 자체 제작 / 아래 보도자료에서 통계 데이터 인용

- 뉴시스,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29명 선발”, 2015. 02. 0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7_0013464988&cID=10803&pID=10800)

- 코리아패션뉴스, “창작스튜디오를 떠나며”, 2013. 06. 06.
(http://www.koreafashionnews.com/sub_read.html?uid=676)

- 아트 뮤지엄 뉴스레터, “심규환의 레지던스 이야기: 국내 주요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2010. 01. 20.
(http://www.artmuseums.kr/admin/?corea=sub6_8&no=1)

-연합뉴스, “청주 '창작 스튜디오' 개관 10년…미술 작품 산실이 되다”, 2016. 07. 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108900064.html>)

[자료 2.2-1. GER 분해도]

- Google 이미지 (<https://goo.gl/images/KLNTcO>)

[자료 2.2-2. 파빌리온의 재료: 재활용 가능 재활용 가능한 PVC 파이프]

-자체 제작

[자료 2.2-3. ASSEMBLY GER 초기 설계안]

-자체 제작

[자료 2.2-4. ASSEMBLY GER 최종 설계안]

-자체 제작

[자료 2.2-5. The Nomatist 설계안]

-자체 제작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 경험 탐구

: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과
성남시 청년배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송하진 우성희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 경험 탐구

: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과 성남시 청년배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송하진, 우성희

목 차

1. 서론
 - 1)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자의 내러티브: 서른넷이 되어 할 줄 몰랐던 고민
 - 2) 연구의 필요성
 - 3) 연구 문제
 - 4) 연구 목적
2. 연구대상
 - 1) 성남시 청년배당
 - 2)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 사업
3. 연구방법
 - 1) 내러티브 탐구
 - 2) 연구대상자
 - 3) 자료수집
 - 4) 윤리적 고려
4.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의 경험 이야기
 - 1) 김수인의 이야기: '나 다울 수 있는 시간'을 주다
 - 2) 민영지의 이야기: 반푼이 청춘에서 온전한 어른으로
 - 3) 조애리의 이야기: 시도와 성찰을 반복했던 청년기에, 성찰의 매개체였던 돈
 - 4) 임호선의 이야기: 돈은 '내가 뛰고 싶은 트랙'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로움
 - 5) 고희민의 이야기: 돈은 '내 쫓기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든든한 것
 - 6) 윤주민의 이야기: 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낼 전제조건
5. 청년의 인생에서 돈, 그리고 조건없는 공적재정지원의 의미
 - 1) 돈을 대체하는 관계, 관계를 대체하는 돈
 - 2) 청년기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줄 수 있는 돈
 - 3)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돈
 - 4) 자아성찰의 매개
6. 우정 또는 환대 : 조건없는 공적재정지원이 청년과 사회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7.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론을 익히며 결과물을 내어 놓는 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연구를 진행 할수록 이 방법이 우리의 문제의식을 탐구해 가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연구주체의 관련성을 밝히는 스스로의 내러티브 진술로부터 시작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류소영,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1)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자의 내러티브: 서른넷이 되어 할 줄 몰랐던 고민

A. 연구자 A의 내러티브

‘서른넷에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네가 미쳤구나.’일 것이다. 거기에 독립해 살고 있는데다 대출도 좀 꺼있고 하다면 더더욱 미친것이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6년 7월 현재 나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한 이십대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진로 고민이라는 게, 뭘 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그 나이까지 계속되는 거네요.’ ‘새삼스레 몰랐던 것처럼 뭘…….’이라고 넘기긴 했지만 처음 퇴사를 결정했던 그 때보다 걱정과 고민이 한 겹 한 겹 쌓여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계산해 보니 안 먹고 숨만 쉬어도 한 달 동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돈이 66만원이다. 이래저래 조이고 당겨보면 약 50만원.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위해 이러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연구자 A_연구 공모사업 신청서 내용 중)

연구자A는 연구 공모를 앞두고 퇴사를 했다. 직장이 없다는 것은 곧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에 일하던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퇴사가 정해진 이후 생각해 놓은 수입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그야말로 막막한 결정이었다. 이정도 정보를 들으면 두 가지가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퇴사를 결심 했는지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은 ‘퇴사학교’라는 것이 운영될 정도로 퇴사, 퇴직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¹⁾ 평생직장

1) (주)퇴사학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퇴사의 시기에 위험을 줄이는 체계적인 탐색 방안을 안내’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건강한 일과 삶을 꿈꿀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한 수업과 모임 등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http://t-school.kr/>

이란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고 퇴사와 이직, 대학 졸업 이후의 학업과정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 A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자신의 직장이 그를 성장시켜주는가에 대한 의문 속에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지시로 혹은 업무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싶던 일들을 하고 싶었고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퇴사의 마음을 굳혀가고 있을 때 문제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그 다음 스텝도 눈에 보이도록 준비 한 후에 움직이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일을 그만둔 꼴이 되었다. 결정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두 가지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하나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다” 또 하나는 “다른 시도를 해보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마음이었다. 돌아보면 그 두 마음은 같아 보이기도하고, 연결된 생각이 아니었나 싶다.

연구자 A는 퇴사 이후 4개월이 지난 12월인 지금도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수입이 없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통장에서 잔고가 줄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놀랐다. 숨만 쉬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한 최저 생활비가 66만 원이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대출의 원금을 갚아 나가게 되면서 그 돈은 100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버렸다. 원래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이 연구를 제안하면서 연구자 A와 B는 “이 연구에서 받는 돈을 우리의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지만 연구비를 나눠 보면 기본 생계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자 A를 먹여 살린 것은 사실 그가 그동안 일하면서 가진 인맥이었다. 그는 주로 NGO단체에서 실행을 바탕으로 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였던 터라 행사진행, 워크숍 운영, 페이퍼를 쓰는 연구 등을 할 수 있었다. 일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전의 동료, 일로 만났던 단체의 사람들이 워크숍 진행이나 강의 혹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등을 제안해 주었다.

연구자 A의 수입은 다시 직장을 다닐 때 정도는 회복이 되었지만, 그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것과 주변에서 자신을 언제까지 불러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지만 역시 문제는 돈과 시간이다.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을지, 아니 투자 자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원래 퇴사를 하며 생각했던 삶에 얼마나 다가가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최근에 “직장을 다닐 때 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하는 연구자 A는 자신의 고민들이 다시 생존을 분투해야 하는 자신의 삶이 퇴사를 하며 벗어나고 싶었던 ‘먹고사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정답사회 속에서 다른 가치, 다른 일들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지만 한 발 물러서 보면 결국 단선적 진자운동을 하며 교육/훈련과 취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요요이행’(김영, 황정미, 2013)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B. 연구자 B의 내러티브

연구자 B는 서른넷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로를 탐색중이다. 인간의 진로발달은 청소년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는 진로발달 이론가 Super조차도, 서른한 살에는 평생 자기가 할 일에 안착하는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했는데(설인자, 2008), 아직도 평생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이제 겨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이다.

연구자 B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진로탐색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 연구자 B는 자신의 청년기를 ‘에둘러 갔던 혼란기’로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생각 없이 공부만 했고, 20대 초반에는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아는 데 목말라서 경험을 쌓는데 매달렸다. 막상 대학 졸업이 닥치니 뭘 하면 될지 몰라서 멍했고, 진짜 하고 싶었는지 확신도 없던 ‘언론고시’를 치르느라 이년을 보냈다. 낙방 끝에 불안한 마음에 쫓겨 기업에 들어갔고, 도망치듯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늘 떠다니는 것 같고 불안했고,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기도 했다. 다행히 NGO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고,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다운 삶을 알자,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10년이 걸려서야 겨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연구자 B는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만, 청소년과 청년기에 진로탐색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 ‘속은 것’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 사회는 진로 찾는 걸 마치 온라인 쇼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스펙이라는 사이버머니를 쌓아두면,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뭐든 고를 수 있어. 그러니 일단 스펙을 많이 쌓아둬.’ 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 비교해가며 좀 더 나은 조건을 ‘가격비교 검색’하듯이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살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서 비싼 걸 구입을 하면 뭐하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는지를 알면, 10원을 주고 산 물건이 나에게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연구자 B_ 은평구 청소년문화센터 ‘스무살의 밤’에서 사람책 대화 중(2016.12.9))

연구자 B는 스펙을 쌓기보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아는 것에 앞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준 사람이 없다. 오직 스펙을 쌓으라고 했던 부모님과 선생님, 어른들, 사회 분위기가 모두 원망스러웠다.

귀촌을 한 친구들과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 지원을 받아 작년 한 해 동안 매달 기본소득 지원을 받았던 김수인 씨를 만났다. 그는 ‘지난 한 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자아탐색의 시간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상상하며, 요즘 화제가 되는 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데 쓰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 B는 ‘나 다운 삶’을 설계할 시간을 스스로 갖기로 했다.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장은 나의 일상 전부를 가져가길 원하는 것 같다. 출퇴근에 쫓겨 나를 생각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한다. 그러니 일단 조직을 나와서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진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만을 가려서 하기로 했다.

월급이 없으니 수입과 지출 구조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게 바꿔야했다. 독립 연구자로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하거나, 가끔씩 자문비가 나오는 회의나 강연에 참여하여 간간히 들어오는 한 달 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지출하고, 부족하면 모아놓은 돈을 까먹었다. 무엇보다 지출을 줄여서 돈이 적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사서 볼 책은 빌려서 보고,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되도록 식비 지출을 줄이는 등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다. 생활비는 같이 사는 사람이 더 부담하고 있기에 생존의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 이런 삶이 지속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단은 온전히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통장 잔고를 ‘깎아먹으며’ 실험해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삶의 방식을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2) 연구의 필요성

A. 기본소득 논의의 대두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웠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 첫 포문은 핀란드에서 열었다. 2015년 12월 핀란드는 정부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²⁾ 2016년 6월에는 스위스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결과 찬성 23%, 반대 77%로 투표 안은 부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 소식 자체만으로도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아이디어가 국가적 정책으로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³⁾

2) “핀란드 기본소득 진짜 정체는?” 한겨레21, 2015. 12. 23

3)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로 끝났지만 . . . 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경향신문 2016. 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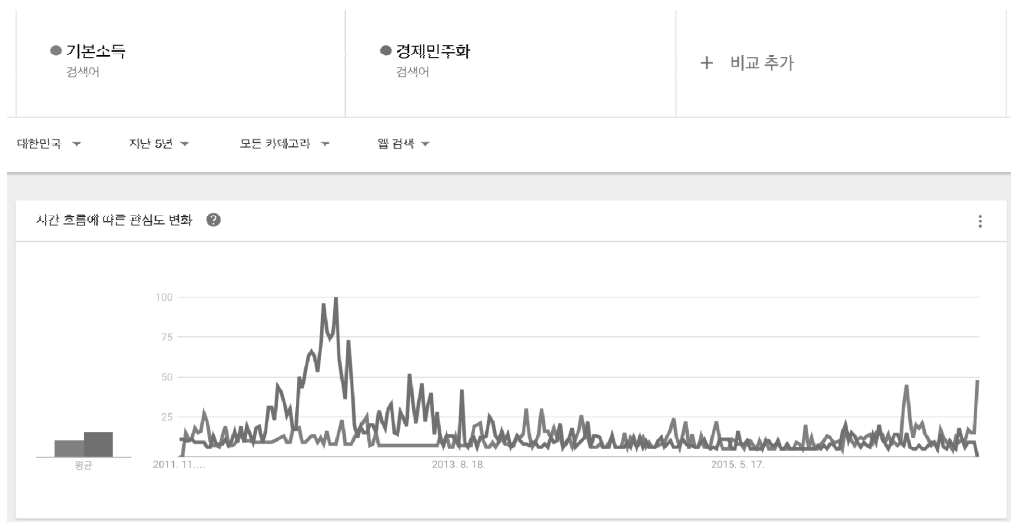
기본소득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소득’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양극화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보장으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보다 창조적인 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채워가면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도 생각보다 활발하다. 대규모로 진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간과 대상, 범위를 한정된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월 1,000유로를 1년 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⁴⁾ 이 프로젝트에 드는 재원은 모두 시민들이 모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진행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프리카의 나라 나미비아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오토지베라(Otjivero)라는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교육수준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실험은 더 확장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시민단체나 언론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는 실험도 있다. 미국의 벤처 투자 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의 1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약 1,500불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발전이 이끌 새로운 미래가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속에 그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선택할 것인가를 미리 실험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아래는 구글 트렌드 서치를 통해 살펴본 ‘기본소득’ 키워드 검색과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검색 빈도를 비교한 표이다.

4) Mein Grundeinkommen 홈페이지 <https://www.mein-grundeinkommen.de/>



〈그림 1〉 구글 트렌드 서치 검색빈도 비교 ‘기본소득’ vs ‘경제민주화’

〈그림 1〉을 보면 2012년 대선이 한창 진행될 때 ‘경제 민주화’ 검색 빈도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최근 ‘기본소득’ 검색 빈도가 50 수준까지 다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선 전후로만 반짝 빈도가 높았을 뿐 2015년 이후로는 거의 기본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찾아본 주제였다. 아마 추세만 놓고 본다면 2017년 대선 후보 중 누군가가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대상의 기본소득 정책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시작되면서 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포문은 성남시가 먼저 열었다. 2015년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배당 정책 시행을 발표한다. 다만 초기에 분기 당 25만원을 주겠다는 계획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12만 5천원으로 줄어든 채로 시행되고 있다.

뒤이어 2016년 7월 4일~16일, 서울시는 ‘청년수당’참가자를 지원 받았다. 청년수당은 서울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배당과는 달리 선발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최장 6개월 까지 매월 50만원 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한 돈은 구직활동에만 사용하게 되어있으며 활동보고서를 통해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 사업은 당시 전체 3,000명 모집에 6,309명의 지원자가 지원했다.⁵⁾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년수당은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1회 50만 원 만을 지급 한 채 중앙정부의 직권 취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5) “청년수당 경쟁률 2.1 대 1” 한겨레신문 2016. 7.17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수 언론과 정당 등은 성남시와 서울시를 향해 ‘포퓰리즘’, ‘현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라는 비난을 연이어 퍼부었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 여론이 꼭 보수 쪽에서만 나온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적 입장을 지닌 다양한 지식인, 정치인들도 기본소득(혹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많은 의견들 중에는 분명 아직 우리사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실험과 결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질문 중의 하나가 “왜 청년 기본소득 인가?”이다.

B. 왜 청년 기본소득 인가?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3포 세대라고 불리던 청춘은 5포, 7포를 넘어 포기의 숫자를 셀 수도 없는 N포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미 포기한 것도 많은데 청년은 끝없는 경쟁 속에 자신을 내던져야 하고 그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여겨진다(조한혜정 등, 2016). 이런 시대에서 청년은 생존 최우선의 존재로 해석되고 연대, 협력, 저항이나 자유 등의 근대적 청년에게 기대되었던 가치들에서 먼 ‘생존주의 세대’로 호명되기도 하고(김홍중, 2015) 청년에서 성년기로의 이행 관점에서 취업과 교육/훈련 사이를 오가는 ‘요요(yoyo) 이행’(김영, 황정미, 2013)을 지속하기 위해 부채에 시달리는 ‘부채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천주희, 2016). 그리고 그 정점은 ‘역사 이래로 부모세대 보다 빈곤하게 살아갈 첫 세대’라는 말로 완성된다(Mackinsey&Company, 2016).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의 논거는 주로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청년을 위에 두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학업 종료 혹은 중단 후 취업하는 첫 직장의 20%가 1년 계약 미만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1.5%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⁶⁾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특히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의 상황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보다 사회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청년 계층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에 근거한 정책이라 홍보 되었지만 내용과 진행과정은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직 활동에 참여한다는 다짐을 적은 지원서가 심사위원의 눈에 띄려면 되도록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청년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심사에 통과된 이후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기도 했다(신지예, 2016).

6) 청년 취업자 5명중 1명,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 연합뉴스, 2015. 01. 14

청년배당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금성이 떨어지는 상품권 형태의 지급 그나마도 성남 관내 상점의 4%정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그런 와중에 성남청년들 역시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사실 현재까지 전개되는 양상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었다기 보다는 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불완전한 정책 디자인과 탄탄하지 못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채 진행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당위에 근거한, 혹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리와 근거 싸움에 치중한 정책 설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인 담론 속에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삶 속에서 청년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지, 정책의 경제적인 효과 외에 고려할 부분은 없었는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첫 사례로서 제도의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당위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했다면 이제 부터라도 대상 청년들의 삶에 이러한 돈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적 효과는 물론 비경제적으로 청년의 삶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가지고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응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책은 단지 수혜자에게 주어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정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인식, 관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현대 경험으로서의 청년 기본소득

1980년대의 어느 면접 현장, 유세윤은 외친다. “제 두 주먹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그때껏 유세윤의 능력에 대해 미심쩍은 눈빛을 보내던 면접관으로 분한 신동엽은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보내며 그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패기’를 높이 산다.

2016년의 면접장. 5개 국어 프리토킹이 가능하다는 정상훈은 정작 회사에서 필요한 아랍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는다. 그 외에도 현장 경험이 없다면 알 수 없을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면접 질문에 자괴감에 빠진다. (SNL코리아 시즌 8 ‘2016 vs 1980’, TVN, 2016. 10.01 방영)

김영 등(2013) 은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노동 시장 및 교육제도, 계층적 배경, 성별 및 지방거주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위 쿤트에서 2016년 현재의 사례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배제로 설명할 수 있다.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과 이를 학력투자로 대응하는 청년의 대응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 분석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2000년대 이후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는가

하는 데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콩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낭만적으로 보이는 1980년대 속 청년에게는 사실 형식적 평등조차 주어지지 않은 절대적 불평등의 상황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대에 청년은 ‘보이는 청년’과 ‘보이지 않는 청년’으로 나뉜다. 집안의 누군가(대부분 여성 때때로 장남 등이 감당한)는 ‘보이지 않는’ 청년으로 집안의 누군가를 ‘보이는 청년’으로 만들기 위해 여공으로 해외 노동자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머물러야 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거리로, 사회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과 그들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가해졌던 배제의 노력들을 기억해야 한다.

80년대의 배제가 직접적인 분리와 폭력을 통해 이뤄졌다면 2016년 청년 정상훈에게는 모욕의 전략이 쓰인다. 형식적인 평등을 이룬 새로운 세상의 청년들에게 실질적 불평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은 끊임없는 모욕 속에 청년을 위치 짓는 것이다. 형식적 평등의 시대에 인격을 무시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만 제도가 사람을 모욕할 때 그것은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김현경, 2015). 각종 인증, 검증, 통과 의례 속에 청년은 계속 검증 받고 그 과정에서 모욕의 경험을 쌓아간다. 그리고 결국 실질적 불평등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 분의 몫조차 해내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의 부족 때문이고, 세상의 기준에도 맞추지 못한 나의 ‘노오력’ 부족으로 여겨진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 자체는 2000년대의 새로운 청년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전략이 시대에 맞게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제의 경험을 깨뜨릴 전략도 시대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청년 기본소득이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내면화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환대의 의미를 가진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청년 기본소득이 진정 청년 세대에게 사회가 내미는 첫 환대의 손길이 되어 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의 경험을 한 6명의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지, ‘청년’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사회적 배제와 환대의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각자의 삶의 맥락들 속에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공적인 돈’의 의미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다. 그 다양성 하나하나가 사회적 상상이었던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현된 이후에 효과와 효용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 해 줄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문제

A. 이론이 아닌 경험에 근거한 연구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연구의 접근은 이론적,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이승운 등, 2016). 이는 정책실행 가능성 검토에 치중한 나머지 기본소득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나 다양한 기대 효과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낳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 외에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점을 정책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계하여 제대로 발휘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물론 지금까지는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있을 데이터를 제공할 기본소득 실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이 있지만 지금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제한적이거나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⁷⁾ 그리고 최대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민간을 통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삼선재단의 ‘청년인턴십’과정에서 찾아 이를 경험한 청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B. 청년 삶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연구

앞서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피상적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삶의 일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거나 각 모습을 조각내어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직조하지 않기 위해서 내러티브 연구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경험’을 위주로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경험 이 미친 삶의 영향들을 개인적, 관계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사회적 배제에 대한 환대의 효과를 살피기 위해 지원을 받은 청년의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집중했다.

4)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을 각자가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서 최대한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데 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회의 공적 재원이 어떤 효용을 가질 수 있는지 사회적 상상력을 넓혀가려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효과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려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7) 연구 설계 당시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을 사례로 생각했으나 연구가 시작하는 시점에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제지로 중단되면서 대상 사례를 성남시 청년 배당으로 변경하게 되었다._연구자 주

- a.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 b. 청년의 삶에서 돈의 의미는?
- c.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돈에 대한 인식, 사회와 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2. 연구대상

1) 성남시 청년배당

A. 개요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의 하나로 ‘기본소득’성격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⁸⁾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 24세는 2016년 4분기 기준 1991.10.02 ~ 1992년 10월 01일 생을 말한다.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는 “청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다.⁹⁾ 성남시는 향후 청년배당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24세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강남훈, 2016).

2016년 4분기 기준 청년배당의 수혜 대상은 11,032명이다. 2016년 1월부터 진행된 지급 인원은 아래와 같다.¹⁰⁾

분기(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원(명)	10,574	10,451	10,574	11,032

〈표 1〉 성남시 청년배당 분기별 대상인원

B. 지급 및 수령 절차

청년배당은 1년을 4개로 나눈 각 분기별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각 분기마다 만24세 청년

8) 나머지 2가지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다. (한겨레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강행> 2016. 01. 04)

9)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lawsNum=41130104201034&scType=&scValue=&isClose=0&kind=1>)

10) 성남시 보도자료 <성남시, 4분기 청년배당 20일부터 지급>. 2016. 10. 20

에 해당하는 성남시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우편 등을 이용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진다. 해당 개인은 매 분기의 시작 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분기별 신청 및 수령기간 내에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12만 5천 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 혹은 가족(배우자, 부양의무자 혹은 위임장을 받은 위임받은 사람)으로 되어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배당액은 소급하여 수령할 수 없다.

C. 중앙정부와의 갈등 및 정책의 특징

성남시는 2016년 청년배당 정책 시행을 위해 113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놓고 벌어진 보건복지부와와의 갈등 속에 현재는 계획의 절반인 연 50만 원(분기별 12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청년배당을 성남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배당은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2)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 사업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이하 ‘인턴십’)’은 민간 기업이 설립한 삼선배움과나눔재단과 삼선복지재단(이하 ‘삼선재단’)이 2010년부터 농촌의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활동비 지원사업이다. 삼선재단은 전통적인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의 사업인 학자금지원이나 취약계층 복지사업 뿐 아니라, 대안교육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활동가 마음돌보기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청년의 성장이나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인턴십 사업은 농촌에 사는 청년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며,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일꾼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새로운 진로와 직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젊은 주민들을 맞이하고, 농촌지역 대안학교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면서 커뮤니티의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살아있는 지역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¹⁾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활동한 청년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의 활동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11) 2016년도 6기 농촌지역 청년활동가 인턴십 참가자 모집 안내, 삼선재단 홈페이지에서 2016.12.10. 인출.
<http://sscure.or.kr/xe/notice/701>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연령 및 필요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길찾기 인턴십’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비교적 ‘어린’ 청년들이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지역의 대안학교 졸업생이나 지역단체 청년프로그램 참여자로, 교육을 마친 후에 지역에서 진로를 모색해보려는 단계에 있다. 이들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인턴십’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청년으로, 지역에서 정착을 하여 자기 역할을 찾고자 하는 단계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개인영농 외의 지역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10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1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까지 총 59명이 지원을 받았다. 12명을 지원했던 2015년의 연간 지원금 규모는 5,590만 원이었다.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참여자 수	1명	5명	11명	10명	20명	12명	59명
지역	홍동	홍동, 덕산	홍동, 덕산, 강화, 산청	홍동, 장곡, 덕산, 강화, 산청	홍동, 장곡, 덕산, 금산, 옥천, 봉화, 산청, 변산, 괴산, 산내	장곡, 산청, 옥천, 괴산, 완주, 산내	

〈표 2〉 연도별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의 활동지역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 충북 제천시 덕산면, 인천시 강화군, 경남 산청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전북 부안군 변산면, 충북 괴산군, 남원시 산내면, 완주군 삼례읍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대안학교나 시민단체가 소재하거나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여 청년들이 머물면서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할 만한 활동이 이루어질 거점 활동공간이나 인적자원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풀무학교〉가 소재한 홍성군 홍동면과 이웃인 장곡면, 〈간디학교〉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마을활동이 활발한 충북 제천시 덕산면, 산청에서 신앙과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민들레공동체〉, 괴산에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학교 숲〉,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귀농귀촌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원 산내면 등이다. 이러한 지역은 오랜 기간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삼선재단과 신뢰가 형성된 곳이다.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배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인턴십에 참여할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한다. 인턴십 사업의 특징은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멘토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사업 참여자 모집 역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모라기보다는, 삼선재단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멘토가 청년을 추천하여 “짜을 이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단의 인턴십 담당자는 “우리는 뽑을 때는 멘토를 보고 뽑고, 일단 선정되면 청년만

보고 지원한다.”¹²⁾라고 할 만큼 멘토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크다.

멘토는 인턴십에 참여할 청년을 추천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동안 참여자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재단의 청년지원에 대한 자문 및 가교역할을 하며, 청년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활동비의 규모도 멘토와 상의하여 조정하기도 한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인턴을 추천한 단체로 입금되며 월/분할/일시 지급과 같은 지급방식은 멘토와 인턴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사업에서 멘토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선배 활동가인 멘토와 새로이 지역에 진입한 청년 활동가가 인턴십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재단의 경험과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적 지역기반이 없고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줄 어른들이 없는 곳에서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시도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청년이) 지역의 성장은 접어두고 자기 사업을 하느라 애쓰기만 했을 때 자신의 성장도 담보하지 못하더라”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미 오랫동안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온 멘토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이끌어 준 곳”에서 정착한 청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에, 삼선재단은 인턴십 사업에서 멘토와 청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인턴십 지원 및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년 2월에 모집공고가 나오고, 멘토와 청년이 협의하여 인턴십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자기소개서, 멘토 추천서를 제출하면 2주 정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약 2주 뒤 모든 지원자가 모여 인턴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활동계획 발표회를 하고, 오리엔테이션 후 해당 단체로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턴십 참여자가 할 일은 지원기간 중간에 반년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하는 중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턴십이 종료되면 활동보고 및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때 멘토도 함께 평가서를 제출한다. 삼선재단 실무자들은 중간평가 때 지역을 방문하여 청년 및 멘토와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을 청취한다.

매년 활동 시작과 마감 시기에 계획발표와 활동결과발표를 전체 멘토와 청년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데, 이 자리는 서로의 활동과 배움을 소개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삼선재단의 인턴십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이 없는’ 지원이다. 참여자들은 돈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물을 낼 필요도 없다. 연초와 연말에 발표하는 ‘활동’계획과 보고

12) 2016. 9. 21 삼선재단 인턴십사업 담당자 인터뷰

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야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며, 자신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목적은 “자기 성장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계획과 다른 활동을 해도 관계없고, 사업의 취지에 명시된 ‘지역에 정착’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는다. 재단은 “청년이 자기 삶을 설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응원”하고자 하므로 “돈을 주지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과 지지를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¹³⁾

3.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질적연구의 접근법 가운데 내러티브 탐구는 한 인생의 상세한 이야기나 생활경험 또는 소수 개인들의 생활을 포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다(J.W.Creswell, 2011).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그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류소영, 2014).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라면, 내러티브는 오랜 시간동안 겪어온 삶에 대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드러내고 불연속적인 경험에 시간적 연속성을 제공한다(류소영, 2014).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의 경험과, 그 경험 전과 후의 삶과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청년의 삶에서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문제와 내러티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나 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되는 질적 연구의 한 가지 유형으로(J.W. Cresswell, 2011), “연구 자료와 화자(informant)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Riessman, 1993: 조소영, 임예윤, 2015에서 재인용)”이다.

내러티브 탐구 절차는 한두 사람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자료를 모으며, 개별적인 경험들을 보고하고, 이런 경험들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J.W. Cresswell, 2011). 구체적으로는 먼저 연구문제가 내러티브 탐구방법에 적합

13) 2016. 9. 21 삼선재단 인턴십사업 담당자 인터뷰

한지 검토하고, 현장 텍스트를 작성한 후, 맥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의 이야기를 참여자들의 개인 경험과 문화, 역사적 맥락에 놓는다. 연구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나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로 재구성한다(restorying). 참여자들이 구술할 때에는 연대기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연구자는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연대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들도 연구에 관여하도록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면서 이야기의 의미를 조정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들을 사용하고자 했다. 첫째, 연구자는 제 삼자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연구대상자와 다시 소통하는 적극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조용환, 1999; 조소연, 임예운, 2015 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접근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를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차원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Clandinin & Connelly, 2000: 류소영, 2014에서 재인용), 연구대상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시간, 공간을 안과 밖, 전과 후의 방향성을 계속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자서전적 경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대상에 익숙해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사의 근원을 자서전적으로 서술하였고, 연구 도중에도 끊임없이 ‘이 연구 주제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연구대상자와 나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에 대해 묻고 답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재구성할 때에는 연구자들 간 해석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관찰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해석하려는 관점이 습관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나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인가’에 대입하여 생각하려 노력하였다. 때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성별, 연령, 심리, 성격, 경제환경 등)특성과 사회적(가족, 또래관계, 지역, 사회자본 등)차이에 의해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드러내어 해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동 연구로 인한 장점은, 연구자 간 관점과 해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연구대상자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남성 연구자와 여성 연구자 간에 차이가 종종 발생했는데, 연구자들은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과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그것을 쉽게 합의하거나 묻어버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연구텍스트에 솔직하게 드러내어 기술하고자 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자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력과정”(Clandinin & Connelly,

2000;조소연, 임예윤, 2015에서 재인용)이다.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는 작업은 내러티브 접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구성한 후 이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해석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2) 연구대상자

연구주제와 관련한 경험이 있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조소연 외, 2015)를 찾고자 했다. 우리의 연구주제인 ‘조건없는 공적인 재정 지원’의 경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간의 사례로서 삼선재단 인턴십사업, 그리고 공공의 사례로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을 섭외하여 인터뷰를하기로 하였다. 삼선재단 인턴십사업 참여자는 삼선재단 홈페이지와 포럼자료집 등을 통해 인턴십사업 참여자의 후기를 읽고 연구자들이 대상자 풀을 추린 다음, 삼선재단에 추천을 요청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 기준은 가급적이면 어려서부터 대안교육을 받았다는 한 ‘특수한’ 경우보다, 가정환경 등이 ‘평범한’ 환경이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은 성남시 청년배당에 관한 토론행사에서 만난 청년배당 수령자를 섭외하였고, 연구자의 SNS를 통해 성남시 청년배당 수령 경험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연구대상자는 총 6명으로 삼선재단 인턴십 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에 참여한 청년을 각각 3명씩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1회씩 진행하였고, 1시간 30분 ~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참여자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도 연구에 반영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다.

구분	이름	성별	나이	하는 일
삼선재단 인턴십	김수인	여	33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민영지	여	32세	농업
	조애리	여	25세	음식점 아르바이트
성남 청년배당	임호선	남	26세	대학생, 취업준비
	고희민	여	25세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얼마 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모색 중
	윤주민	여	25세	지역 사회적경제 기관에서 근무

〈표 3〉 연구대상자 정보

3) 자료수집

연구자료는 인터뷰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삼선재단 인턴십의 경우 연구대상자 뿐 아니라 재단 사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참여자의 지원서 및 중간평가서, 활동보고서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성남 청년배당은 관련 뉴스기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성남시 청년배당 인식조사 자료 및 포럼(2016.9.28.)’ 녹취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과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질문지는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참여자들은 그 내용을 미리 보고 ‘청년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미리 사전을 찾아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생각해 본 것 같았다. 질문지는 크게 ‘지원을 받은 경험’, ‘지원금에 대한 인식’, ‘청년으로서 자신의 삶’으로 구성되었다.

삼선재단 인턴십 참여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선재단 인턴십 지원을 받은 경험과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하기 전 나의 삶 지원할 당시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이 우려되었는지 등)/ 지원을 해서 받기까지의 과정 지원을 받으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지원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지원을 받으면서 과정, 멘토 및 재단과 관계, 보고서 등) 지원을 받은 후 (경제적, 관계, 문화, 건강, 가치관 등 내 삶의 변화) 지원금과 관련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은 왜 주는 거라 생각하는지? 지원금에 대한 주변의 인식 인턴십사업이나 기타 기본생계비보장에 대한 나의 생각 청년으로서 삶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청년은? 사회에서 청년은 환대받는가? 나는 환대받았나? 청년에게 돈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사회나 공동체에서 배제의 경험과 환대의 경험은?
성남시 청년배당 참여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 청년배당 받은 경험과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배당 정보를 어떻게 접했는지, 듣고 느낌이 어땠는지 받고 사용한 경험 받기 전과 후 나의 경제생활 청년배당으로 인한 경제적, 관계, 문화, 건강, 가치관 등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청년배당과 관련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배당은 왜 주는 거라 생각하는지? 청년배당에 대한 주변의 인식 기본소득, 청년배당이나 수당 같은 기본생계비보장에 대한 나의 생각 청년으로서 삶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청년은? 사회에서 청년은 환대받는가? 나는 환대받았나? 청년에게 돈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사회나 공동체에서 배제의 경험과 환대의 경험은?

〈표 4〉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 내용

4)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주제, 목적, 결과물의 보고처 등을 설명하였고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사전 안내 시 연구와 관련된 비밀보장, 가명 처리, 원하지 않을 때 답을 하지 않을 권리,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가능함 등을 설명하였고, 인터뷰 시에도 다시 강조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내용의 재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본인의 내러티브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되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해석이 있는지, 예민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받는 과정은 연구윤리 차원에서도 고려되었다.

4.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의 경험 이야기

1) 김수인의 이야기: ‘나 다울 수 있는 시간’을 주다

김수인 씨(33세)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수인 씨는 귀촌을 한 지 3년이 되었다. 지난 해 삼선재단으로부터 1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작하지 못했던 “그림 그리고 디자인 하는 일”을 조금씩 하면서 일 경험을 쌓았다.

수인 씨는 삼선재단의 인턴십 사업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작년에 되게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어서”, “거기와 관련된 것은 다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답했다. 본인의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청년들, 특히 지역에 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연구에 적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년기의 시작 : 안정된 부모님의 세계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찾아 가는 시간

수인 씨는 자신의 청년기가 스물두 살 무렵 시작했다고 했다. 스물두 살은 “점수를 맞춰서 간 대학”에서 자퇴하고 본인에게 맞는 학교와 학과를 찾아 다시 입학했던 때였다. 그가 정의하는 청년기의 시작은 “안정적인 바운더리에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시기”이다.

수인 씨가 생각하는 청년의 이미지는 "뭔가 밝고 활기차고 역동찬" 모습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명확하게 알고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이 부러웠다.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만화 그리기였지만, 그것을 직업 삼으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지금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압박했고", "이제 하기는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삶의 안정을 찾아야 해"라며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위해 노력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기업에서 인문교육이나 문화예술 관련한 기획 일을 했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2년여를 바쁘게 보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일에는 집중했지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어쨌든 바쁘잖아요. 내 앞에서 바쁘게 움직인다는 게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키잖아요. 종로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광화문 쪽에 있었거든요. 직장 다니는 언니들 그 오피스룩을 계속 따라하게 되었어요. 그게 내 취향이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에 맞춰가게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커요. 서울에 살 때에 생활 그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김수인 인터뷰 녹취록)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 사는 지역을 알게 되었고, 지역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예 내려오게 되었다. 속도감에 쫓겨가는 것 같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무엇보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주거비로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독립"을 "이 김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귀촌: 환대와 배제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적응하기

내려오기 전에 모아두었던 돈은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 처음 8개월 동안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해서 4-5 백만 원을 모았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수입이 없었다.

수인 씨는 취미로 하던 "그림 그리고 디자인 하던 일"을 본격적으로 해 보고 싶었다. 1년 동안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조합에서 필요한 그림이나 디자인 업무를 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취직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디자인 일에 학력이나 경력이 없으니 그 분야는 취직이 어려웠고, 만약에 취직을 하면 생계 때문에 "영혼 없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것은 비단 생계의 문제 뿐만은 아니었다. 안정적인 별이를 하지 못하는 자신은 지역에서 동등한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항상 주변의 어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다. 수인 씨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사회로부터는 독립

이 되지 않은 것 같은”기분이었다고 했다.

“이거라도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중략) 근데 이거라도 벌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주면서 돈도 요만큼 주면서 이거라도 해야 네가 먹고 살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결혼을 안 해서 일 수도 있어요. 되게 애들로 보는 거예요.” (김수인 인터뷰 녹취록)

지역주민과 귀촌자들의 커뮤니티는 수인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수인 씨가 생존하기 위해 “뱀보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 가부장적인 지역사회는 미혼 여성을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듯 했고, 때로는 이권다툼을 하는 경쟁상대로 보기도 했다. 약자 입장에 있는 새내기 귀촌인으로서 지역주민이나 귀촌인 커뮤니티 내에서 “내몰리는 느낌”이 있어도 “매일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인턴십: “나 다울 수 있는” 시간을 벌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년 수입을 걱정하며 “정 힘들면 공공근로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삼선재단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됐다. 수인 씨가 소속된 귀촌인협동조합의 대표가 지원을 제안했고, 수인 씨는 “돈을 준다니까” 큰 고민 없이 신청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동네의 이야기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재단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당장 40만원에 달하는 집세와 관리비가 해결이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나머지는 내가 먹고 쓰는 것만 해결하면 되니”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로 인한 “시간”이 생겼다. 수인 씨는 이 “시간”동안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 경험을 쌓아 앞으로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따로 취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작년 일 년 동안. 다행히. 그리고 그 취직하지 않는 일 년 동안 주변에 많은 네트워크들도 생겼고, 내 네트워크들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이 알음알음 들어오게 됐어요(중략) 내가 이런 일을 해요라는 것을 그 때 조금 알릴 수... 이제 일 년 정도 하다보면 알려지잖아요.” (김수인 인터뷰 녹취록)

또한 수인 씨는 이 시간동안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인 씨는 객관적인 시간이 늘어나다보니 “새롭게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좋아하는 일에 폭 빠져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처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만 알지, 어떤 일에 힘들어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못하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싫다", "힘들다"라고 내뱉는 용기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며 깨닫고나니 마음이 편했다. 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이후였다. 열심히 노를 젓다가 노를 놓치고 나니 비로소 넓은 바다를 본 기분이었다(김수인 인턴십 결과보고서)

수인 씨는 “서른 살이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남의 속도에 빠르게 쫓아갔던 도시에서 벗어난 “공간”, 그리고 일에 빠앗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갈등의 과정에서 깨달은 조건없는 지원의 든든함

그러나 성찰의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수인 씨와 멘토 사이에 달랐기 때문에 멘토와 갈등을 겪었다. 멘토는 수인 씨에게 사무실로 출퇴근 할 것을 요구했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시간을 원했던 수인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협의하여 출근 시간을 조금 늦췄지만, “몸이 묶이면 생각도 묶이는 만큼 만족감이 조금 덜했던” 수인 씨는 “제약이 없었으면 일 년을 좀 더 충실하게 보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멘토와 약속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마음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웠던 수인 씨는 여러 번 시간을 어기게 되었다. 출퇴근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어려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삼선재단의 중간평가가 있었고, 수인 씨는 이러한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재단 직원들은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수인 씨는 “진짜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고, “말로만이라도 치유가 다 된 것” 같았다.

“불안함”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재단과의 만남 이후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수인 씨였지만, 인턴십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은 않았다. 수인 씨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지역 유지 분이 있었고, 그분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수인 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귀촌인 협동조합이 해를 입을 것 같아, 결국 그 분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본인의 프로젝트는 “포기”했다.

계획했던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수인 씨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다. 귀

촌한 청년들의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 지 조사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것을 만든다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돈에 쫓겨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농촌에 와서 “마음이 느리게 잘 갈 수 있고”, 그래서 “불안감이 가라앉았다”.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더 커진” 것이다.

"생각보다 독립해서 사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친구한테 말하면) 병원비, 부모님 얘기 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냐",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걱정이 되고 아 진짜 병원 요즘에 뭐 당장이라도 내가 암에 걸리거나 아프면 어쩌지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녀서 돈을 번다고 그걸 다 충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야 끝이 나는 걸까 생각하니까 또 아득한 거예요. 그 아득한 걸 보고 돈을 벌기에는 난 좀 게으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보증금은 모아야 하는 것 같아요(웃음)" (김수인 인터뷰 녹취록)

불안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마음이지만, 지난 해 디자인 일 경험을 쌓은 덕에 “먹고 살 기반을 다진” 수인 씨는 좀 더 자신 있게 지역에서 살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주변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조금 조금 돈을 모아서 땅을 사야 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돈을 벌기 위한 취직도 감수하려고 한다.

2) 민영지의 이야기: 반푼이 청춘에서 온전한 어른으로

영지 씨(32세)의 집은 충북 제천에 있다. 마을에서도 깊숙한 곳에 있어 차로 찾아가는 길을 헤매기도 했다.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을 때 나즈막한 언덕 위에 눈에 띄는 집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곳이 영지 씨의 집이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언덕 위의 그림 같은 집.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을 영지 씨의 남편이 직접 지었다는 점이었다. 영지 씨는 3년 전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마을로 귀농해서 지금은 결혼을 했고 임신 중이었다.

NGO활동가로서의 지친 삶 :내가 서있지 않은 상태

영지 씨는 제천에 내려오기 전 대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관련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다. 4년째 이어지는 활동에서 반복되는 피해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 심정적으로도 지치고, 각 사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던 중 누군가 추천해 준 템플스테이를 통해 “내가 서 있지 않은데” 사회의 이상을 쫓아 실질적인 능력 없이 몸만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대 후반인데 시민단체에서 일하다보니 그걸로 생계는 되지만 저축을 한다거나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타 줄 수 있다거나 제가 하고 있던 운동이나 활동에서도 만족감이 없던” 그녀는 갑상선이 안 좋아지는 등 건강상의 어려움도 자각하게 되면서 항상 생각해 왔던 ‘시골에

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삶의 전환을 꿈꿔보기 : 다른 삶에 대한 상상

“섬마을 선생님이나 토굴 같은데서 살던 자연인들, 그렇게까지는 좀 심하긴 하지만 한동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아니면 외국에서 1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서 자원 봉사 캠프 같은 것들 하면서 좀 지내볼까?” 다양한 상상 속에서 정말 해보고 싶던 것을 탐색하던 중 주변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귀농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었다. 제천으로 오게 된 것은 남자친구가 제천에 살고 있었기에 ‘적응이 좀 더 쉽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는 사람 한 명이 더 있고 이 사람이 나와 친밀한 벗”이기에 적응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후 겪게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귀농 초기에는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덕에 얻을 수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의 일로 생계를 꾸렸다. 그녀가 3일정도 아이 돌보는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55만 원 가량 이었다.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다 : ‘반퐁이’

“제가 100만원을 안 벌잖아요 55만원 버니까. 되게 어쭙잖은 애가 된거예요. 그니까 반퐁이? 온 전하지가 않고 어떻게 100만원도 못벌어? 그니까 젊고 사지 멀쩡하고 부지런하고 뭔가 할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거든요” (민영지 인터뷰 녹취록)

대구에서 NGO단체 근무를 했을 때도 그리 많은 돈을 받고 일했던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그녀가 귀농해서 스스로를 ‘반퐁이’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55만원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영지 씨는 제천에서의 정착과정 자체를 새로운 기준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영지 씨는 특히 남자친구의 고향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귀촌 인구도 많고 다양한 취미 활동이 많았던 지역인지라 그녀도 마음에 드는 활동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마을 밴드였다. 정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마을 축제와 같은 공연 자리에도 올랐는데,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마을 남성들과 무대에 오르는 모습 자체가 이곳에서는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마을에서 지내면서는 남자친구와 자신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의 순간들도 경험하게 된다. 커뮤니티가 규정한 어떤 조건과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영지 씨는 그것을 부조리나 모순이라고 여기지만, 그 환경을 이해하려 했다. 그 이해의 노력은 다양성에 대한 포용으로 읽히기도

하고 점차 자신이 속한 사회에 동화되어가는 영지 씨의 모습으로 읽히기도 했다.

“뭐라 해야 할까. 진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이해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살아갈 삶이니까 낯선 타인한테 ‘내 삶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오만이라는 생각이, 그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민영지 인터뷰 녹취록)

조건없는 돈의 의미 : 실험하는 삶의 실현

제천 정착 초기에 삼선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서를 쓰면서는 “돈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했다. “진짜 나를, 나를 보고 주나? 나를 모르는데?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거기서 결정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다. 그렇게 약 1년 반 정도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받은 돈은 집세, 기름값 등을 비롯한 생활비로도 사용했고, 어쩌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놀러오면 사용할 수 있는 술값, 고기 값으로도 사용했다. 시골에 내려오면서 해보아야겠다고 결심한 여러 실험들을 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전에는 막상 해보려 했으나 돈이 없어서 할 수 없거나,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떠밀리듯 하기는 싫었던 일들이었다. 돈이 생기자 그런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계획도 세워 볼 수 있었다.

“삼선재단 받으면서는 하다못해 농사짓는 비닐을 사거나 퇴비를 사거나 (중략) 교통비로 쓰고, 영화보고. 그리고 좀 인간으로서 내가 원래 누리던 거를 좀 즐겨봐야지.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해’라던가 뭐 ‘한 달에 몇 번은 전기를 안 쓰거나’ 그런 실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지 그랬는데 막상 그걸 해볼려고 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니까 너무 서러운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민영지 인터뷰 녹취록)

돈을 받은 경험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기회도 주었다. “제가 진짜 생각 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영지씨는 자신의 과거를 “배짱이처럼 흥청망청 살았다”고 표현한다. 연구자는 영지 씨가 자신에 대한 평가에 박한 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자신을 설명하는데 ‘배짱이 같다’거나 자신이 ‘게으른 사람’, ‘선놀음’하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오히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실험을 펼쳤던 삶, 서울로 통학을 하면서까지 학업을 하려는 열의 등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영지 씨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다.

미래를 담보하는 돈을 가져본 적도 가지려 한 적도 없던 그녀이지만 삼선재단의 돈을 받으면서 돈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지? 마음의 여유를 주더라”고 이야기 한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돈이 그것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일이 없지만 독립이라는 경험, 스스로 경제를 꾸려가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채워주는 돈의 기능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를 반푼이로 생각하던 자신에게도 “삼선재단에서 돈을 주셔서 100만원 근처까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봐 100만 원 정도 되었잖아’”라고 엄마를 비롯한 주변에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돈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점차 삼선재단의 돈이 “성과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돈”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되었다.

청춘에서 한 발짝 물러선 삶 : 나 말고 이외의 것들이 생각나는 것

그러나 반면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뭐 어차피 할거 였기 때문에 상관없었던...나 혼자 했을 때는 나 혼자 하고 만족했으면”되는 일도 계획서를 쓰기도 했고, 결과를 문서화도 해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간발표 때 함께 지원을 받은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과의, 삶을 비교하게 되기도 했다.

“다들 되게 어리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 20대이긴 한데 20살이고 저는 29살이니까. 아 되게 내 앞가림 못해서 이런 거 받는 거 같고(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되게 빌빌거리다가 시골 오고 싶어서 와서 뭔가 하긴 하지만 여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저한테 있다면 이 친구들은 막 반짝 반짝 빛나는 거 같고” (민영지 인터뷰 녹취록)

청년 인턴십 지원이 끝날 무렵에 영지 씨는 결혼을 결심하고 그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시골 공동체는 “(시골은 자기가 가진)기능이나 관계로 인정받지, 개인으로 여자로서 인정받기는 되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시골에 살려면 이 시민권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32세 인 영지 씨는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전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변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며 활동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뭐 같 하면 예전엔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게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말고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건 청춘이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데 나만 있는 거는 청춘인거 같은데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민영지 인터뷰 녹취록)

전체적으로 영지 씨의 삶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온전함’에 대한 추구, 즉 빈 부분을 채워 나가려는 노력이었다.

연구자들은 영지 씨가 자신을 더 이상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데에는, 결혼을 결심하여 온전한 성원으로서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단계를 밟아가는 경험이 결정적 이었다 생각했다.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를 나름 고집하며 지역에서 살아보려 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무모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빈 그대로가 아닌 사회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영지 씨가 되려 노력하는 과정을 바라보며 청년기를 넘어서고 있는 영지 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조애리의 이야기: 시도와 성찰을 반복했던 청년기에, 성찰의 매개체였던 돈

조애리 씨(25세)는 연구자의 인터뷰 요청에 “내가 왜 인턴십을 받았는지가 더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았던 다른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이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애리 씨는 스물 한 살이던 2012년 1년 동안 삼선재단으로부터 매 월 6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애리 씨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는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지역소모임, 교육단체, 마을지원사업 등과 같이 주민활동과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애리 씨는 전 해에 같은 지역에 있는 농업고등기술학교인 풀무학교전공부 과정(이하 ‘전공부’)을 졸업했고, 그 후 1년 동안 마을에 있는 농업연구소에서 “배우며 일하며” 지냈다.¹⁴⁾

애리 씨의 청년기: 시도와 성찰의 반복

애리 씨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가난하고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늘 생업에 바빠 애리 씨를 챙길 시간이 없었다. 애리 씨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고, 대신 그 기간 동안 검정고시를 보고 여행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풀무학교전공부를 알게 되어 한 번 가본 후, 마음에 들어 바로 입학했다. 부모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은 대신 학비를 대 달라”고 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받았고, 전공부에 다니는 동안 틈틈이 마을 생협이나 농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다.

전공부를 졸업하면 애리 씨가 학위를 취득하고 곧 돈을 벌 것으로 생각했던 부모님은 “졸업장도 없고, 졸업할 때 성서 한 권 주는 게 끝”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셨다고 한다. 대학을 나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언니들과도 애리 씨가 사는 방식은 다르다.

14) ‘풀무학교전공부’는 농업 대안학교인 풀무고등공민학교를 모태로 2001년 개교한 마을대학이다. 농촌과 농업을 희생시키기 위한 마을 일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년 동안 농업과 인문정신을 가르친다.(마을활동소 마실이학교, 2013)

애리 씨는 전공부에서 좋아하는 수업을 해 주시던 선생님과 졸업 후에도 같이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지역에 남으려는 젊은 애들을 거둬 주셨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농업연구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선생님과 주위 어른들은 반가워하면서도, 빠듯한 연구소의 살림으로 애리 씨의 생계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셨다. 하지만 정작 애리 씨는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라며 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지역에 남은 제자들의 지역청년인턴십 멘토로서 경험이 있던 선생님은 애리 씨를 비롯해 연구소에서 일할 두 사람에게 인턴십에 지원하자고 하였다. 애리 씨는 그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지만, 앞서 인턴십을 받았던 지역 선배들도 봤고, “지원하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안심시켜주셨고,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언니도 함께 받으니까” 큰 고민 없이 신청했다.

인턴십 지원을 받는 1년 동안 애리 씨는 원하던 대로 연구소에서 “일하며 배우며” 지냈다. 논 생물이나 지역하천 수질을 조사하고, 지역 학교에 교육을 나가거나, 농사팀에 일손을 돕기도 했다. 조사나 교육 등으로 연구소에서 얻는 부수입을 인턴십 지원금과 합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그것은 흥동에 사는 포래들의 평균적인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담스러운 돈, “흥청망청 썼어요”

애리 씨는 본인이 “낭비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저축도 하는데 본인은 “먹고 노는 데” 거의 써버렸기 때문이다. 술을 많이 먹었고, 빵도 많이 사먹고, 기차타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 “방값은 시골이라서 저렴하고, 먹을 것은 이웃에서 식재료를 얻거나, 선생님들 집에서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큰 금액의 지원금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매달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올 때 마음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런데 왜 이리 많지? (웃음)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하지? 물론 저라는 사람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액수를 봤을 때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만 들어 팔아서 이 브랜드를 알기겠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담이 좀 있었어요.” (조애리 인터뷰 녹취록)

애리 씨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이 모두 모인 자리에 참석한 이후, 더욱 큰 부담감을 느꼈다. 본인은 그냥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청년들은 재단에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즉, 성과나 목적을 조건으로 한 돈이라고 생각되어

부담감이 커졌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인턴십 지원을 받는 언니와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치고 수다 떨 때 우리 남의 돈 받으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왜 나에게 잘 해주지?” 조건없는 지지에 대한 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리 씨는 성과를 내겠다거나, 본인의 지출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못된 애고, 막나가는 아이입니다.”라는 식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삼선재단에서는 애리 씨에게 지출 습관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애리 씨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무조건 응원하는 재단 직원들을 보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 재단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 보면서 열심히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해.” 라든지, “나는 너에게 돈을 주고 있어.”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단 말예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것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랑 뭐 이걸로 이어진 사이인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마주치면 반가워하면서 힘든 건 없는지, 내 생활에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지내면서 힘든 건 없는지, 멘토랑 트러블은 없는지 걱정해 주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니 부담이 되는 거죠.” (조애리 인터뷰 녹취록)

애리 씨는 도대체 왜 재단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고 응원해 주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가 가지 않아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납득을 해 보려고 재단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이유를 “추측”해 보았다. “뭔가를 해서 이익이 났고 어딘가에는 써야 되는 돈인데” 지역에서 뭐 열심히 해보려는 청년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돈을 쓰기로 했고, 자신은 “엄청난 운을 통해서 이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았다.

그런데 애리 씨에게 조건없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애리 씨가 살고 있는 홍동지역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왜 선생님은 자기 집을 내 주면서 우리가 밥을 여기서 해 먹도록 쌀을 준비해 놓고 반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홍동에서의 삶이요. 특히 그 때 동네 어르신들 뭐 할머니들은 지나가면서 마주치기만 해도 사랑스런 눈빛으로 쳐다보거든요. 너희들이 시골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중략) 그런 것들이 다 통털어서 부담스러웠죠.” (조애리 인터뷰 녹취록)

애리 씨는 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잘 해 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애리 씨의 삶에서 낯선 것이었다. 애리 씨는 부모님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빨리 취직을 하길 원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빨리 전공부 까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아먹고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기대나 조건이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의 지원금도 “부담”이고 “괴로웠다”.

"부담" 없는 돈에는 고민도 없다

인턴십 지원을 받으며 연구소에서 일한 1년이 끝나갈 무렵, 애리 씨는 숨 가쁜 생활 속에서 일했던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다. 열 달이 지나 다시 홍콩에 내려왔는데, 그 때는 연구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애리 씨는 지역 어른들의 도움으로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다. “도서관이야 말로 나를 완성 시킨” 보람된 일이었다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가난한 이웃들이 한 푼 두 푼 낸 소중한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관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월급을 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재단 지원금과 비교하면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출처가 분명한 돈이었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잘 알았기에 더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그 돈의 값어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 다시 홍콩을 나온 애리 씨는 지금 수도권에서 언니들과 함께 지내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스물다섯이 된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가를 정리하고 싶었고, 이대로 저축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지 보험이 없는 살도 괜찮은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애리 씨는 “부담”이고 “괴로운” 돈을 받은 경험들이 돈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제까지는 보호자로부터 당연하게 돈을 받아왔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돈을 받게 되니, 이 돈은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곱씹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일 하면서도 “내가 후원자들의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걸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두 배 잘하는 데 같은 돈을 받는 게 맞는가? 낮에 일하는 것과 밤에 일하는 차이는 뭘까?”란 생각을 하고 있다.

애리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돈에 대해 “왜”라는 질문이나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리 씨의 청년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시도와 성찰을 반복했던 과정이었다면, 돈은 성찰을 하는 데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애리 씨는 이제 돈에 대한 “부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담이 없어지면 고민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돈에서 얻는 경험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기본소득을 받는다 해도 “내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별반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 때문에, 자신은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한”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져도 받지 않겠다는 답변은 인터뷰이 가운데 유일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애리 씨의 ‘기본소득에 대한 부담감’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본소득의 지급주체에 따라서 그 부담감이 어떻게 다르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애리 씨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통장이 생기고, 1년에 얼마씩 찍힌다면 당연한 삶으로 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혹시 내가 뭔가 그만큼 해야 하나요?” 라고 확인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동네나 공동체에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본인은 마을 일에 “실험대상이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이 또한 받는 대상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거나 본인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애리 씨의 말은 비록 조건 없이 자신에게 돈이 주어진더라도 ‘본인이 받아야 할 합당하고 공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도, 남도, 공동체도 동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권리’로서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저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합의와 공감의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기: 데이고 식힘의 과정을 통해 무르익어가는 시기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경험은, 애리 씨를 조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내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후원금 만 원 정도, 조합원으로서 이름 한 번 정도는 쉽게 적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저랑 비슷한 상황인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는다고 할 때 거기도 협동조합 같은 게 많다보니까 출자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랑 상관 없는 건 맞는데 상관없이 돈을 줄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예요.”(조애리 인터뷰 녹취록)

애리 씨는 아직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은 ‘무르익는 시기’라고 사전에서 읽었고, 그렇다면 “어떤 -주의가 있다던가”, “확고하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적어도 거리로 나가서 뭔가를 들고 외치고 있어야” 청년일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아직 무르익지 않은 “청소년인 것 같다”.

애리 씨는 본인이 “노란 선 안에만 있어야 하는” 조심스런 성격이지만 “뜨거운 거를 만지면 손이 데인다고 해도, 그게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는” 방식으로 살아 왔다고 했다. 연구자는 애리 씨가 홍동 안팎에서 ‘테이고 식힘’의 과정을 겪으며 ‘무르익는’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애리 씨는 이제까지 “일하면서 배운다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홍동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조금 무서웠다고 했다. 하지만 시도와 성찰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홍동에 있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역할로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분들의 일에 충분히 실험대상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홍동에 내려가려고 한다.

4) 임호선의 이야기: 돈은 ‘내가 뛰고 싶은 트랙’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로움

호선 씨(26 세)를 처음 만난 것은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연구 발표 자리였다. 호선 씨는 청년 배당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러 나온 패널이었다. 당일엔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몇 주 후 그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집은 성남이지만 현재는 자신이 다니는 서울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진로를 결정하기 : 부채감으로 시작한 성년의 삶

외고를 나와 서울 한 대학의 국제학부에 진학한 호선씨는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부채감’같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 비 등도 많이 들었던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집에서 저에게 이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채의식 같은게 있었다.”며 그 이후의 진로 결정 기간에서도 부모님의 의견이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원래는 사회과학 쪽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전공으로 선택한 국제학부는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에서 선택한 CPA준비는 회계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아버지가 회계사인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CPA를 준비하고 시험까지 봤지만 자신의 적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호선 씨는 방송사 예능PD분야의 길과 로스쿨 진학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방송 PD는 원래 영화평론을 하고 싶었던 호선 씨가 “그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부모님의 질문에 수긍하며 선택한 ‘차선’의 진로이다.

“(먹고사는 사람) 별로 없죠. 대한민국에서 열 명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안 되지만 해보겠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임호선 인터뷰 녹취록)

앨범 리뷰나 영화 리뷰를 몇 년 전부터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그는 생계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포기 할 수밖에 없다.

호선 씨는 현재는 자신에게 투자한 부모님에 대한 부채감을 버린 상태라고 이야기 했다. “저 스스로 약간 돈 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에 머물렀다가는 제가 아무 것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버렸어요. 버리기 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집안의 영향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진로인 로스쿨은 집안의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는 선택이다. 누나도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 자신이 진학한다면 집안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청년배당 : 작은 승리의 기억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호선 씨의 집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은 아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사회에 희귀하다는 중산층 계급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 서울에서의 자취집 비용과 생활비 등을 포함해 월 150-160정도의 돈을 지원 받고 있고, 자라오면 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호선 씨에게 성남시 청년배당의 의미는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내가 정책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것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얻어낸 승리의 기억이다. 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을 집행한다 해서 뽑아줬고, 뽑힌 사람이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서 나한테 피드백이 돌아오고, 그런게 저는 굉장히 기뻐던 거죠.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좋은 정책이 집행돼서 좋은 혜택이 돌아온다. 그게 선순환이죠 사실" (임호선 인터뷰 녹취록)

처음 청년 배당을 받았을 때 기분은 좋았지만 정작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재화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몰라서 불편했다. 첫 번째 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서점을 방문했다가 느낀 불편한 감정이 오래 남아있었다.

"1월 20일 날에 전역을 했는데 21일에 그걸 받으러 갔어요. 받고 되게 기뻐요(중략) 받자마자 고민을 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근데 그러고는 빠르게 실망을 했던게 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토익책이라던가 그런데 서점에서 쓸까 하고 서점을 찾아봤는데 다 너무 영세한 서점이고, 토익 책을 추천받아서 그걸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임호선 인터뷰 녹취록)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머니가 대신 수령을 했다. 두 번째 상품권은 자신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한다. 어머니 생신과 겹친 기간이라 어머니가 받아서 사용하신다는 말에 쓰시게 드렸다. 세 번째 상품권은 자신이 쓰겠다고 이야기 하고 받아 두었다 한다.

물론 전반적인 정책 경험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는 일단 이 정책이 실행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말한다. 그가 느끼기에 청년 배당과 같은 정책이란 것이 “고쳐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오히려 주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같은 정책 구호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며 그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에 화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내가 뽑은 정책 결정권자가 집행한 사업에 의해 내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다고 이야기 한다.

만약에 돈이 있다면 :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자금

현재의 청년 배당은 호선 씨에게 유의미한 재정적 효능 감을 주지 못했지만 그는 그 액수가 연 2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한다. 혹은 청년들에게 일정한 시기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는 그 돈을 ‘마중물’, ‘정착지원금’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런 돈이나 지원이 있었다면,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성년이 되면서 부터 집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채의식을 털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영화 평론 등 글을 기고하는 일을 위해 적은 고료를 받고도 인터넷 웹진에 글을 정기적으로 쓰고 회의도 참여하는가 하면 학과 내에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또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친구들을 모으기도 했다. 모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일들이다.

그런 의식은 그가 평소 후배들 등에 자주 이야기 한다는 가정으로 부터의 독립의 강조와 맥이 닿아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삶을 살아야하는지 고민해 보지 못한 채 집에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주변 후배, 친구들에게 “가출(집을 나와라)”라고 자주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도 자신이 비판하는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는가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저는 집이랑 되게 오랜 시간을 싸워 왔기 때문에 가출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라 응답했다. 이미 그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아빠 엄마의 생각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도 집으로 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굶기를 각오하거나 집으로부터의 독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의 의미 : 트랙 밖에서 대기하는 존재

위와 같이 자신과 주변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호선 씨가 생각하는 청년은 자기 진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는 존재이다.

“(청년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약간 뜬금없는 용어, 창조경제 같은 그런거라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임호선 인터뷰 녹취록)

한 번 진입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든 길이기에 진로에 진입하기 위해 탐색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그런 청년에게 돈은 어떤 의미일까? “돈이 있어야 기웃거려볼 여력도 있고, 돈이 있어야 하다가 바꿀 여력도 있는 거죠” 청년에게 돈은 호선 씨의 진로선택과 삶에 가장 큰 압박을 주는 요소인 ‘시간’을 벌여줄 수 있는 현재의 선택을 미루고 조금 더 ‘도망’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호선 씨의 주변 환경을 반영하는 듯 그가 예를 드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이다. 또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는 자신과 달리 먼저 CPA가 되고 이미 로스쿨 3학년에 다니고 있는 동기 이야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로의 선택의 무게가 크게 다가오고 어떤 나이가 되기 전에 나도 얼마큼 가야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청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신은 아직 눈에 보일 만큼 이뤄 놓은 것이 없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청년의 현실 :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분배되지 않는 자원

호선씨의 삶에서 환대의 경험은 없을까? 호선 씨는 사회에서 느낀 환대의 경험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히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었던 경험이 먼저 떠오른다고 이야기 한다. 사회에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문제 당사자로서 해결에 나서라고 이야기 하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말에 호선 씨는 청년들이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문제가 해결된 적을 본 적이 없는” 근 10년 가까이 문제는 산적해가는데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는 그것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무력한 사회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누군가 청년들에게 너희가 참여해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런 응답이 누가 봐도 어려운 형편의 혹은 좌절스러운 인생경험을 한 청년이 아니라 이른바 유복한 환경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 인적 자원을 가질 수 있었던 청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성취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닌 청년이지만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불평등으로 제약받고 있는 존재로 자신을 위치 짓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5) 고희민의 이야기: 돈은 ‘내 쫓기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든든한 것

희민 씨는 25세로 올해 성남 청년 배당을 받은 경험이 있다. 지금은 000학교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교사를 하다가 잠시 일을 쉬고 있으며 성남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청년 배당과 관련된 인터뷰나 활동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청년 인권 활동에서 발표도 하면서 주변에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는 청년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인터뷰에서도 탈학교청소년, 청년 주거와 같은 문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인 미디어”가 되어 더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 청년의 삶과 생활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검정고시를 통과함 : 아이도 어른도 아닌 방향기

희민 씨는 16세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등학교도 그 다음해에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땀다. 검정고시 통과를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녀는 남들보다 빨리 고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지만 그것이 스스로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 한다.

“17살에 고졸을 땀어요, 제가 딱히 똑똑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있다가 뭐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일찍 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넘어야 할 산을 다 넘은 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나는 사회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라 느꼈다는 희민 씨는 그 때부터 자신의 방향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집에서는 이제 졸업했으니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어린 자신을 써줄 아르바이트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한 부모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던 희민 씨는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다.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 어려움이 가장 절정에 달하던 시점을 21살이라고 돌아보는 그녀는 특히 그 시기에 아는 언니의 자살을 접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쯤 심한 우울증을 많이 겪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뭐라 그러지. 길을 걸으면 계속 뒤를 쳐다봐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칼을 꽂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늙잖아요. 그럼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위눌리고, 또 자려고 누워있음 막 소리도 들리고”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자신의 주변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삶

그때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000 학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 이러다 죽겠다고(했어요)”그래서 그 때 소개 받은 일이 탈학교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이었다. 아웃리치라고 불리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났던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다가야만 해요, 다가가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데 저는 강점?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거,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감.(저는) 그 약간 그런 게 잘 되는 거죠.”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만났던 친구들이 처했던 환경을 예로 들며 그들의 삶을 제한하는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성남시 내에서도 분당 지역과 타 지역의 경제, 문화적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희민 씨 보다 경제적,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인터뷰 대상자들의 표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수정구 중원구는 뭐 왜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구요. 피라미드로 되가지고 상류층, 중류층 하층, 노예 막 노비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노비 수준에 중원구가 있어요. 제가 중원구 살거든요. 분당구는 저 위에 있어요(중략) 그런 게 되게 웃긴 거죠.”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알고 지내는 다른 청소년, 청년들 보다는 낫다고 이야기 한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고급진’인맥이라고 표현했다. 그래도 자신은 대안 학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대안학교 활동을 통해 만났던 청소년, 청년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도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 한다. 스무살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것이 “호프집 알바”였던 희민 씨가 우울증과 알콜 중독으로 힘들어 하던 스물 한 살에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갈 수 있었던 선생님이 안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볼 수 있고 개네들이 뭐 어떤거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떤 고민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건데, 사

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떼다고 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아니, 정상적이라는 것도 웃긴데, 사실 그건 누가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20, 21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할 수가 없어요”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짓눌려 있지만 농치기 싫은 청년 : 경제적 조건이 규정짓는 삶의 어려움

희민 씨가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며 버는 돈은 처음에는 월 60만원 이었다가 나중에는 80만원 까지 받게 되었다. 그 액수를 이야기 해주는 것이 “부끄럽기도”하고 “자괴감이 들기도”한다고 이야기 하는 희민 씨는 “한 달에 10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한달에 10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돈이 많으면 좋지만 “많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한다.

희민 씨가 자신이 가진 경제적 조건에 대해 가장 절망하게 되는 영역은 주거의 영역이다. 그 문제는 주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고 주변에 가장 알리고 싶은 청년 의제의 꼭지이기도 하다.

“싼 곳을 찾다보면 열악한 곳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사실 아는게 없어요. 그니까 무작정 집을 나와서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나와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 세입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당해요.”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희민 씨가 들려준 희민 씨 자신의 경험도 다르지 않다. 희민 씨가 6년 째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반 지하 월세방이다. 원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던 집이지만 도둑이 든 적이 있어서 조금 싸게 얻을 수 있었다. 날이 추워도 보일러를 안 틀다고 했다.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월 평균 6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 지더라”고 말하는 희민 씨는 사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마시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도와주는 “남자친구”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기본적인 먹을 것, 데이트 비용 등을 지불해 주었기에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동시에 희민 씨에게 하나의 큰 두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이걸 이게 어이가(없긴 한데)... 전반적인 소비나 이런 것들을 남자친구들이 부담해줬다고.. 이게 제가 늙고 병든 여자였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거 같아요.”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에 응했던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희민 씨도 시간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었

다.

“이 젊은 나이에.. 젊다고 하는 게 웃긴데 이제 또 한 달 뒤에 해가 바뀌잖아요. 이게 뭔가 점점 그 세월이 막 저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나는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나를 잡아버리면 나는 죽는 것 같고..”(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그러나 희민 씨에게는 그 두려움이 다른 종류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인터뷰를 했던 다른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를 어른이 되기 위한 진입 과정이나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 희민 씨는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춰 버렸으면 하는 바램, 어른으로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혹은 상상해 보지 않은 미래를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현재를 지탱해 주고 있는 육체적 조건이 나이 들을 통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보였다.

이것은 청춘이 아닌 것 : 끈대

그녀는 자기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언젠가부터 청년이라고 불리고 있고” 사회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그 때부터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청년이 되게 애매모호한 시기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니까 아이로서의 대접도 못 받고 어른으로서의 대우도 못 받는? 그냥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서도 보여 지는게 많아야 되는 나이. 많은 눈에게 감시받고”(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희민 씨는 청년의 시기에 대해 모호하다고 표현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 끝나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더 명확하게 자신의 상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 자신이 끈대라고 느껴질 때, 끈대 같은 걸 겪는 시기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끈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더 많이 갖춰져 보이고 싶을 때, 뭔가 내가 대우받고 싶어질 때 그 때가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중략) 아이들이 사실 어른들이 모르는 단어를 쓰는 건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니까 그 친구들이 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면 저는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100만원이 주어진다면 : 조금 천천히, 내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희민 씨가 경험하고 설명하는 청년의 삶에서 돈은 어떤 의미일까? 희민 씨에게 인간다운 삶

에 대한 돈의 기준을 물어봤다. 그녀는 망설이다 1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 한다. 100만 원을 이야기 하며 ‘되게 소박한’ 기준이라고 이야기 하는 그녀에게 그 전에 다니던 대안학교에서 100만 원을 주었으면 그만두지 않고 일을 계속 했었을 것 같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희민 씨는 거기서 100만 원을 받았으면 편하게 일을 못했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알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이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만한 돈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부담감도 생겼을 것이기에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희민 씨에게 분기의 12만 5천원이라는 청년배당이 그래도 도움 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생활에 와 닿는 느낌은 크지 않았다 한다. 그녀는 “제 삶에 그렇게 크게 와 닿거나 그렇진 않았다.”고 말한다. 물론 처음 받았을 때는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 SNS에 사진을 찍어 이런 것도 받는다고 알리기도 했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액수도 작고 상품권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써야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래도 혼술을 좋아하는 그녀가 좀 더 좋은 안주를 먹을 수도 있고, 할머니에게 적은 돈이나마 드리면서 생색을 내보기도 하고, 기르는 강아지의 사료를 산다 던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다시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1년 동안 한 달에 50-60만원씩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은지를 물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할까. 그냥 그 돈으로 논다는게 아니라 뭔가, 저한테 되게 든든한 돈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니까(중략) 그니까 만약에 일을 안하고 있어도 뭔가 내가 쫓기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희민 인터뷰 녹취록)

희민 씨는 지금 학교를 나와 일을 쉬고 있다. 선생님이란 일이 부담도 되고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싶지만 세상은 그만큼 천천히 그녀를 기다려 주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의 권유로 다니게 된 사이버대학의 상담 전공 과정도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격” 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들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긴 시간 쉽지만은 않았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민 씨는 때로 시무룩해지고,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 새로운 학교를 찾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어김없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엄밀히 말해 희민 씨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다. 희민 씨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에 최근에는 악몽도 꾸곤 한다고 말한다. 얼마 전 다녀온 롯데월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도 놀이기구 2개 밖에 타지 못하고 희민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뽀뽀하게 살다가 여

기 왔는데 여기서도 뻘뻘하게 놀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되게 불쌍한 거 같아요 뭔가. 젊음이 왜 이렇게 불쌍하지. 어른들은 좋을 때라고 하는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정한 ‘자격’들을 취득해 가면서도 희민 씨의 청춘은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춘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 희민 씨가 처한 뻘뻘한 현실이다.

6) 윤주민의 이야기: 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낼 전제조건

청년배당에 대한 첫인상: “시도해 보는 것은 좋다”

스물다섯 주민 씨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 분당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살며 매일 출퇴근 하고 있다.

만 스물네 살이 끝나기 전 성남시 청년배당을 한 번 받을 수 있었다. 청년배당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와 전화 연락을 동사무소에서 수차례 받았지만, 낮에는 일터에 있어서 받으러 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 대리수령을 부탁했는데, 받으신 후 바로 쓰셔서 주민 씨는 상품권 실물을 보지도 못했다. 어차피 받으면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는 않았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령에 덜 적극적이기도 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알았다. 한참 “주느냐 마느냐가 이슈”가 될 때를 주민 씨는 “성남시가 막 밀어붙이던 시기”로 기억했다. 주민 씨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렇게 주는 게 맞나? 이게 시장이 하는 정치 아니야?”라는 말도 오갔지만, 주민 씨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 씨는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서 청년 배당에 관한 현수막을 보았을 때 “시에서 어쨌든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뭔가 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정책이므로 “내가 좋은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구시가지 친구들을 위한 정책인데, 나는 얹혀서 경험해 보는 것

주민 씨는 청년배당 소식에 가장 먼저 “성남 구시가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본인이 살고 있는 분당은 소득수준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가방) 들고 다니고, 이런 거(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그걸(청년배당) 받자고 가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소중한 돈이 아니라서” “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나보다 좀 더 힘든 친구들을

위한 정책인데 나는 거기에 손가락 얹어서 한 번 경험해 보는”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웬지 구시가지에 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주민 씨는 청년배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더 필요한 친구에게 더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덜 주거나”, “지급하는 수단이나 차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떤 기준으로 차등지급을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정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필요에 맞게 층위를 나누고 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주민 씨가 분당에 살지만 성남 ‘구시가지 친구들’을 떠올린 이유는 주민 씨가 어릴 적에 구시가지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주민 씨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남시 신흥동에서, 대학 때는 판교에 살았고, 지금은 할머니가 사시는 정자동 집에 합가하여 살고 있다. 주민 씨는 “성남에 사는 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비교”되는 경험이라며, ‘구시가지’에 살았던 청소년기에 분당에 사는 아이들과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여기는 막 전봇대 엄청 높고 지저분하고 칙칙하고 한데 분당 들어가면 녹색이고 푸르고 정비 잘 돼 있고 깔끔하고 달라요. 제가 만약에 여기 구시가지에 산 경험이 없었으면 성남이라고 하면 그냥 분당을 말했을 거예요. 제가 구시가지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으니까 성남이라고 하면 성남과 분당을 둘 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진짜 성남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윤주민 인터뷰 녹취록)

청년의 정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

주민 씨가 정의하는 청년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사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자신의 청년기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 휴학을 했을 때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받고 살았지만 그 때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 본인의 관심분야의 인턴과 자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는 않았다. 생계 걱정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알바하면서 뭐 돈을 버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고 인턴을 해서 돈을 벌면 벌지”라고 생각했다.

환경과학을 전공한 주민 씨는 전공을 살려 경험을 쌓고 싶어서 환경단체 두 곳과 IT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서 각 3개월씩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표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계속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환경과 국제개발을 하는 엔지오에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환경과 국제구호라는 본인의 관심사와 잘 맞는 곳이었지만 “1-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막무가내”이고 “감당이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주민 씨는 새로운 일에는 선입견 없이 임했지만, 경험해 본 후에 본인의 기준인 관심분야와 일터환경이 맞지 않으면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그에게는 지속적으로 일할 좋은 일터를 정하는 기준이 뚜렷한 것 같았다. 주민 씨는 "국제개발, 환경, 심리학, 빈곤"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리더와 소통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만두었다. 주민 씨는 "기회들은 많았고, '매 순간 항상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하였고, 주민 씨가 정의하는 청년기는 바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서 시도해 보고 선택하는 시기이다. 연구자는 주민 씨가 청년기에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일 경험들을 해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견디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일찍 명확하게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돈: 나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었던

주민 씨는 삶의 방향성이 뚜렷하다. 그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첫째는 "돈을 버는 일과 삶이 분리된 삶"이고, 둘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의제에 일과 생활이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삶"이라면서, 본인은 두 번째 방식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족의 경제 여건이 안정적이기 때문임을 안다고 했다.

"(인턴 등 탐색적으로 시간을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냥 대학교 다닐 때부터 대기업은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줄 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벌고 싶지 않았고, 돈버는 게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막 환경이나 국제개발이나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기도 했고. 저는 근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집이 어렵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집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심사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관심사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이 어려웠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윤주민 인터뷰 녹취록)

주민 씨는 "가족이 안정적이면 원하는 것을 할 건데, 가족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만둬야"한다고 생각한다. 주민 씨의 청년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도해 보고 선택하는 시기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씨의 청년기에서 "선택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은 가족의 "경제적 조건", 즉 '돈'이다.

청년의 나이들: 선택지가 줄어들

주민 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또 하나의 조건은 '나이'이다. 주민 씨는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무섭다. 주민 씨는 "나이가 드는 게 부담"이고, 그 이유가 나이가 들 수록 "사회에서 나를 선택지에서 점점 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무서워요, 그 질문은. 아아. 그건 진짜 무서워요. 사실 요즘에도 막 선택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막 100을 꿈꿨다면 지금은 50, 30 점점 줄어들고 내가 뭔가 생각, 상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가 언제, 이러다가 진짜 없어지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윤주민 인터뷰 녹취록)

주민 씨에게 청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 두렵다. 주민 씨는 청년기의 끝을 결혼이라고 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은 "정착"이고, "정착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제약될 것"이라 생각한다.

불안하지만, 조금은 자신이 있는 독립된 경제생활

주민 씨는 지금 일터에서 월 200만원을 번다. 5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100만원은 부모님의 권유로 다달이 저금한다. 주거비나 식비 등은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따로 들지 않는다. 주민 씨는 지금 자신의 벌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벌이가 적은 것은 알지만, 생활비 지출이 없기에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일터가 있는 강동구로 독립하려고 시도하면서 "생활이 팍팍"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보증금이며 방값이며 거기에 생활비 들어가야 하는 거 공과금 이런 거 다 치면 정말 남는 게 없"기 때문이었다. 의식주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 온전히 스스로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면, 지금의 벌이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주민 씨는 아주 불안하지만은 않다. 사회적경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삶의 방식이 보완을 해 줄 것 같다고 했다. 만약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독립을 해야 한다면, "저는 공동주택에 들어갈 거고", "저는 뭔가 조금은 알잖아요. 같이 사는 청년들이 있단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같이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것 같아요."라고 한다.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도 좋지만,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적어도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 씨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사회적 자본이란 게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관계를 통해 어떻게든 "함께" 해결하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데에서 용기를 얻었다.

"저는 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으면 아무리 내가 소득이 적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동에 와서 사회적 자본을 조금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이 공간과 이런 활동이라면 관심을 것 같다(중략) 저의 막연한 믿음일 수 있는 건데 보면 다 그렇게 그냥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마냥 불

가능한 얘기는 아닌가보다 싶어요. 지금은 아직 나이가 적어서 그런지 여기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럼 야, 거기 안 되면 우리한테 와. 우리랑 하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빈말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데가 그래도 두 세 군데가 있으니까 "아 내가 굶어죽지는 않겠다보다. 뭐 지역이란 게 말만 지역 지역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지역이 뭐가 있긴 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윤주민 인터뷰 녹취록)

주민 씨는 청년기의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한다. 비단 좋은 일터를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하며 "일과 생활이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대로 살기 시작했다.

5. 청년의 인생에서 돈, 그리고 조건없는 공적재정지원의 의미

청년들을 '추상적인 청년일반이 아닌 개개인의 속도와 방향을 가진 청년으로 보아야 한다'(조한혜정 외, 2016)는 말은 이번 연구에서 6명의 청년들을 인터뷰 하며 드러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연구자들은 특히 돈과 관련한 자신의 삶 경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설명에 쓰이는 단어들은 어떻게 같고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다.

1) 돈을 대체하는 관계, 관계를 대체하는 돈

6명의 청년을 인터뷰하며 발견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관계'이다. 관계는 사회, 정서적 차원에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대체해 청년이 생계를 유지에 직접적 도움을 준다.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가족관계에서 생존이 책임져지는 경우 그것에 장기간 의존하기도 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 다른 관계들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챕터의 제목이 '돈을 대체하는 관계, 관계를 대체하는 돈'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의 삶에서 관계의미의 탐색은 삼선재단의 사례를 통해 축약 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원래 태어나서 자란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각자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생각한 목적이나 방향이 있었지만 부족한 자원 탓에 처음부터 그 의도를 다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롭게 만난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착을 위한 땅을 내어주거나(영지 씨), 자신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애리 씨),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고 먹을 것을 나누는 등(수인 씨)의 방식을 통해 초기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돈을 대체하는 관계’는 이렇게 직접적 의미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의미한다. 지역 공동체의 특성상 삼선재단 인턴십 청년들에게서 그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지만, 성남 시 청년들의 삶에서도 관계가 주는 안전망의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성남의 희민 씨는 가족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자신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죽음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고민 중에 자신이 다니던 대안학교를 찾아가 자신이 가진 “고급진 인맥”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새로운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주민 씨는 아직 구체적인 도움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고 만나는 지역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과 공동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다른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으면 아무리 내가 소득이 적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런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도 가족관계가 아닌 이상 무조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관계를 호의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돈은 일차적으로 이 비용을 치러 관계를 유지할 힘을 마련해 준다. ‘관계를 대체하는 돈’은 돈이 관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대체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순환관계가 막힘없이 흘러갈 때 비로소 한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건이라는 것은 청년이 처한 각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인 씨의 경우 그 여건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경력과 학력은 없지만,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일반적으로는 경험과 학력이 없고 생계유지가 급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내하고서라도 일을 통해 경험을 쌓았어야 했겠지만, 삼선재단의 지원이 있어서 생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데도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

"따로 취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작년 일 년 동안. 다행히. 그리고 그 취직하지 않는 일 년 동안 주변에 많은 네트워크들도 생겼고, 내 네트워크들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이 알음알음 들어오게 됐어요. (중략) 내가 이런 일을 해야라는 것을 그때 조금 알릴 수... 이제 일 년 정도 하다 보면 알려지잖아요." (김수인 인터뷰 녹취록)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 경험도 쌓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영지 씨의 경우는 그 조건이 또 달랐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버는 55만원의 돈으로 ‘살 수는’있었던 그녀이지만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 그녀의 고민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떳떳한 성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제가 100만원을 안 벌잖아요 55만원 버니까. 되게 어쭙잖은 애가 된 거예요. 그니까 반푼이? 온전하지가 않고 어떻게 100만원도 못 벌어? 그니까 젊고 사지 멀쩡하고 부지런하고 뭔가 할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거든요”
(민영지 인터뷰 녹취록)

다른 삶을 추구하기에, 혹은 어쩔 수 없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보이는 시선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들 자신도 겉으로는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안으로는 사회의 기준과 시선을 내면화시키고 주눅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기본소득과 같은 돈이 ‘사회와 당당하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자신감’이 되어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영지 씨는 기존에 버는 돈과 삼선재단의 지원을 합해 100만 원이란 기준을 맞추게 되면서 마을에서도, 부모님에게도 더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조건없는 공적재정지원을 통해 그리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돈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관계에 대해 가졌던 관점 자체가 변화한 경우도 있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인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는다고 할 때 거기도 협동조합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출자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건 맞는데 상관없이 돈은 줄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예요.” (조애리 인터뷰 녹취록)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경험은, 애리 씨를 조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내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후원금 만 원 정도, 조합원으로서 이름 한 번 정도는 쉽게 적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녹색전환연구소, 2016). “만일 귀하가 청년배당 대상 연령을 지나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년배당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4.2%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2.6% , 어느 정도 그렇다 : 51.6%)라는 답변을 했다. 이는 2016년 1월 성남에서 실시한 청년배당 정책 시행의 찬반을 물었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시 조사에는 찬성 23.5% 반대 67.5%로 조사되었었다.¹⁵⁾ 이 중

20대의 반대 여론도 62.4%에 해당 했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이 유의미한 사고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식조사에서의 질문이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정책이 유지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점이 시사점을 준다. 정책 수혜자로서 사회적 환대를 받은 경험을 통해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호혜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답한 점은 오히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아는 사람들 간에 안전망을 구축해 나갔던 사례보다 더 넓고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준다.

2) 청년기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줄 수 있는 돈

인터뷰에서 던진 공통적인 질문 중 하나는 ‘청년이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은 청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질문에 응한 청년들의 다수는 청년이라는 시기를 지나며 불안과 초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렸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자 3,000명의 지원서에서 청년들은 “지원금 자체에 대한 소비욕구보다 지원금을 통해 얻을 ‘시간’이 (지원동기의) 핵심이었”고, “‘취업’을 위한 ‘공부’를 ‘알바’가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 지원금을 통해 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분석되었다(서울특별시, 2016).

호선 씨는 동년배 집단과 비교되어 ‘뒤쳐진다’는 느낌이 드는 데서 가장 큰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다. “나의 청년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도망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막 저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나는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나를 잡아버리면 나는 죽는 거고”(고희민 인터뷰), “(나이가 들수록)사회에서 나를 선택지에서 점점 빼는 것 같은 느낌” (윤주민 인터뷰) 등은 청년 시기에 대한 불안한 감정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청년기 시간에 대해 둘이 비슷한 표현을 쓴 것 같지만 맥락은 다르다. 고희민 씨의 경우 자신이 가진 청춘의 시기 자체가 생존의 자원이 된다. 그렇기에 젊은 여성인 자신이 늙고 매력이 줄어들면 그동안 받아왔던 남자친구들로 부터의 생계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 자신에게는 그 외에 시간이 줄 수 있는 기회는 크지 않다. 시간을 들여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들(중, 고 검정고시, 사이버대학 학위)을 취득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반면 윤주민 씨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면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선택지가 줄어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

15)“성남시민 청년배당 찬성 23.5% vs 반대 67.5%”. 성남일보, 2016. 1. 15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은 ‘시간’에 쫓기는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만약 한 달에 5-6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떨 것 같느냐’는 질문에 희민 씨는 “무언가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 시간동안 제가 그냥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든든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른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은 각각 청년의 삶에 다른 의미로 ‘시간’을 부여한다. 윤주민 씨 경우처럼 가족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는 본인이 가진 선택지 중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선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을 보낼 안전망이 되어줄 수도 있다. 또는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싶은 고희민 씨의 경우처럼, 자기에 대한 우울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며 앞날을 선택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상자인 김수인 씨에게 지원금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을 제공해주었다. 지원을 통해 자신이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다 보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스스로의 삶의 만족을 높여나갈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수인씨는 취미로 하던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학업을 통해 그림을 배우지 않은 수인씨가 일반적인 경로로 이 일을 하려 했었다면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조건으로 좋지 않은 일 자리를 감내했어야 했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 일 그 자체의 기술을 늘리기 보다는 자신이 정말 이 일을 좋아하고 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의 속도로 검증해 갈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청년들은 돈이 생기면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답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기대할 만한 것은 청년기라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다. 돈으로 인해 생긴 시간을 단지 어른으로의 이행기로서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혹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생존 그 자체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데만 사용한다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보다는 다시 자본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없는 공적 재정 지원이 위에 예를 든 수인 씨 같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나 영지 씨 같이 “생각했던 실험을 펼쳐 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청년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점은 주목할 만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3)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돈

본 연구에서 만난 청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에게 현 시점에서 돈의 중요한 의미는 ‘독립’을 위한 조건이란 점이 드러났다. 이들이 말하는 ‘독립’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립은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음’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¹⁶⁾. 독립(independent)에 대한 의미를 세분화 한 Webster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독립은 다른 이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정치적 당파에 묶이지 않는 것, 생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것, 생계를 위한 근로의 필요성에서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 등으로 설명된다.¹⁷⁾

이를 청년의 독립에 대입하면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독립 뿐 아니라 정신적, 정치적 독립과 의사결정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만났던 청년들의 내러티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독립’이라는 표현에서 사전에서 등장한 독립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단 부모의 집으로부터 분가 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와 사회에서 완전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등을 의미했다. 그리고 돈은 여러모로 자신이 독립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거나, 독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주민 씨는 일터와 동료가 있는 강동구로 분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인적 네트워크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이다. 주민 씨는 자신의 수입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분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해 보려고 하자 자신의 돈이 “딱딱하다”고 느껴졌다 말한다. ‘독립’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수인 씨가 귀촌한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에 있을 때 비싼 주거비 때문에 업무를 내지 못했던 ‘독립’을 귀촌을 기회 삼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에 서울에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다면 부모님 집을 나와 공유 주택에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독립이 1순위”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부모가 사는 집으로부터 나오는 독립을 욕구했을까? 이를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과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이론에서 빌려온다면, 부모의 환경이 ‘밀어내는’ 요인과 자신이 원하고 매력을 느끼는 환경이 ‘당기는’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겠다. 인구이동의 법칙(Ravenstein, 1885)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회피하려 하는 ‘밀어내는

16)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7) Merriam-Webster 홈페이지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dependence>

(push)’ 힘이, 지역의 매력에 의해 ‘잡아당기는(pull)’힘보다 클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한다(유성호, 2001에서 재인용). 또한 Homer(1973)는 청소년의 가출을 가출동기를 기준으로 탈출형(running from)과 추구형(running to)으로 분류했는데, 전자는 가족과 환경문제로부터 도망친 것이고, 후자는 즐거움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말한다(정혜원, 2014).

“어릴 때 가족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희민 씨는 스무 살에 집에서 나와 독립한 후 “불안해서 문도 열어놓을 수 없는” 반지하 방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별이가 탄탄하지 않았던 희민 씨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볼 때, 희민 씨의 독립은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았다. 희민 씨 주변에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친구들이 이른 나이에 집을 나와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런 친구들은 “전기가 끊겼을 때야 전기세를 낼”만큼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희민 씨는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알코올 같은 “무엇인가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표면적으로는 분가와 경제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만, 자기 생활세계를 꾸리는 데 애정과 여력이 없고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은 물리적인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존재적으로 독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 “독촉이 와야만 (요금납부 등 필요한 일을)하는” 이런 친구들은 청년배당 제도의 존재도 잘 몰랐는데,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제도를 찾아서 사용할 의욕과 여력은 없을 것이다.

희민 씨가 설명하는 이러한 ‘힘든 친구들이 사회에서 겪는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세입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배달알바 현장에서 어른들과의 관계의 경험은 술에 취해 “짹개새끼라고 천대하거나”, 술 심부름을 요구받는 것이다. 이처럼 준비 없이 독립을 맞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부정적인 관계맺음의 경험은 청년에게 ‘자신의 삶에 사회가 어떤 책임있는 역할도 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 희민 씨는 “가난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도, 아이도 생각하지 않는 자신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참견만 하는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고 했다. 그런 희민 씨도 “당연하게 결혼하고 당연하게 아이를 낳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희망이 안 보인다”. 희민 씨 친구들이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뭐 복지? 나라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왜 해줘? 라는 의문부터 가지게”되는 이유도 사회 성원으로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물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사회의 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는 독립은 아닌 것이다.

물리적인 독립이 정서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세계로부터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애리 씨는 익숙한 고향 자연환경에서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에게 고향은 “동네와 엄마 아빠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나라는 사람으로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주소지를 옮긴 홍동에서 애리 씨는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

의 딸로 살아야하지만, 홍동에서는 “나라는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리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홍동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수인 씨는 장소의 이동 뿐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환경’에서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나왔던 때’ 청년기가 시작했다고 말했다. 20대가 훌쩍 넘었더라도 “내가 다니는 지역, 부모, 초중고에서 만났던 또래집단”에서 머무는 사람을 볼 때 아직 청소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처럼 청년에게 장소의 이동에서 발견되는 독립은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독립은 단지 거주지의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얻은 공동체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공동체를 선택하려는 욕구인 ‘독립’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자본과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사회자본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모의 세계’로부터 ‘자기의 세계’로 ‘독립’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대 초반의 청년기를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고 이 시기의 발달특성을 연구한 Arnett(2001, 2004)은 다른 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꼽은 특성을 ‘독립’으로 들었으나,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년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과 달리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나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을 성인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중국, 루마니아, 미국 등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 크게 낮았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위의 조사에서 한국 청년들은 학비, 결혼자금 등을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나 자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교육, 결혼자금, 주택마련 비용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중산층인 호선 씨가 가장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집에서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으로만 지원을 받는 수준”이고, “마지막 학기다보니까 취업준비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용돈을 올려 주기도 했다”는 호선 씨의 말처럼 호선 씨 본인과 부모님은 경제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당연하거나 불가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호선 씨의 부모님은 “PD는 잘 모르겠지만 로스쿨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로스쿨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통해, 부모님은 호선 씨가 부모와 같은 중산층의 경제수준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경제수준에 이르기까지의 투자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호선 씨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호선 씨는 “청년들이 좀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의 기대에 부

응하며 사는 친구들에게 “가출을 하거나 부모님 말을 씹거나”라며 경제적인 독립이 어렵다면 정서적인 독립을 하라고 조언을 한다. 호선 씨에게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큰 화두인 것 같았다. 회계사의 일이 좋은 직업임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는 ‘압박’을 하는 부모에게 ‘반박’하거나, 성남배당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다른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서 ‘이겨’보고자 하는 행동에서, 부모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은 호선 씨의 정서적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호선 씨의 내러티브에서 ‘정서적으로 가출했다’는 강조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일단은” 적성에 맞는 것 같은 예능 PD를 준비하고 있지만 로스쿨도 응시한 상태이다. PD는 존재하는 선택지 중에는 가장 타협할만한 안이지만, 내년까지 시도하고 떨어지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받는 로스쿨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서 선택한 자신의 의사다. 그러나 로스쿨을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사실 집에서 독립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 의사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본인도 알고 있다.

호선 씨가 정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에도 완전히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부모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다는 조사결과로 설명된다(안선영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한 부모와의 대화가 월등히 높고, 부모가 ‘친구와의 시간점검’과 같은 청년의 일상생활 점검이나 개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여와 통제가 강하다. 이것은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청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많고, 그만큼 관여와 통제도 강하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정서적인 독립은 어렵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대신에, 자녀의 몸에 그것을 투자하고 그 몸을 물려주기로 마음 먹는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투자 대상, 즉 재산 자체가 된다. 외관상 많은 점에서 가부장제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재산의 관리 - 즉 아이들의 몸과 시간표의 관리-는 여전히 구성원들의 관심을 지배한다. (중략) 부모의 상속 프로젝트에 동의하지만, 물건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 재산관리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엄마, 가장이면서도 이 프로젝트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아빠가 갈등의 세 주역이다.” (김현경, 2015, 187p)

호선 씨가 과거 가졌던 “부채감”은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과거 부모의 투자에 대한 “부채감”도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중산층의 경제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부모님으로부터 취업준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부채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에, 호선 씨는 여전히 중산층에 이를 수 있는 끈인 PD와 로스쿨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청년에게만 유효할까? 호선 씨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만약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그는 좀 더 어린나이에 목돈이 주어진다면 집이 나에게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부채의식을 털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 그는 그 돈을 ‘정착지원금’, ‘마중물’이라고 말한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도 그렇지만 부유한 집의 청년들도 호선 씨와 같이 부모가 내게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면 청년들이 좀 더 나다운 선택, 억압적이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선 씨에게도 기본소득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돈이다.

4) 자아성찰의 매개

수인 씨는 삼선재단 인턴십의 경험을 묻는 말에 가장 먼저 “한 해 동안 새롭게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인 씨는 어릴 적부터 항상 자신이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것이 “속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인턴십 기간 동안 깨달았다고 했다. 과거에는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것도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처음으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을 가졌다.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만 알지, 어떤 일에 힘들어하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못 하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싫다, 힘들다고 내뱉는 용기도 없었”던 자신에 대해 곱씹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기에 자아탐색은 단지 진로적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Arnett(2000)은 발현성인기, 즉 청년기의 특성을 네 가지로 들었는데 그 중 한 가지 특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이다(안선영 외, 2011)¹⁸⁾. 이때 자신에 대한 집중은 아동기의 자기중심성과 구별된다. 부모나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에 부응해야 하는 청소년기나 배우자 또는 고용주가 원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하는 성인기와 달리 청년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나 책임에서 자유롭고 자기 삶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시기라는 의미라고 한다(안선영 외, 2011). 청년기는 가장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 사고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수인 씨의 사례는 조건없는 재정지원, 즉 돈이 청년기에 더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8) Arnett(2000)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발현성인기의 특성을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 possibilities), 불안정성(negativity/instability),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 불명확한 (어중간한) 정체감(feeling&in-between&)으로 제시하였다(안선영 외, 2011).

주민 씨는 자신의 청년기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시기로 정의했는데, 그런 탐색이 가능했던 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자신이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면 주민 씨는 자신이 관심 있는 국제개발이나 환경, 사회적경제와 같은 분야의 여러 인턴과 자원활동 경험을 자유롭게 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호선 씨 역시 청년기를 자신이 ‘어느 트랙에서 펼치’ 트랙 밖에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청년기에 돈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가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졌던 주민 씨와 호선 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감이 적었던 희민 씨에게 매달 50-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도 많이 하고, 제 미래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돈이 청년에게 자아탐색의 시간과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이 청년의 자아 탐색에 미친 영향은 다른 측면에서도 발견되었다.

영지 씨는 처음으로 부모의 집에서 분가하여 제천에서 독립된 생계를 꾸렸을 때 “산다는 게 돈이 그 사람을 구성해 주는 기둥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지출하지 못했던 생활비 부담에 빠듯해 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서러움을 느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이제까지 면접을 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래서 “한 번도 좌절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고, 이제까지는 내가 될 만한 것만 시도하며 살았고, “내가 정말 되게 가지고 싶은 것을 노력해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다.

삼선재단 인턴십을 받았던 청년들은 때로는 돈의 출처를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기도,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지원금을 받거나 일을 하여 번 돈을 통해 자신이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했다. 영지 씨는 삼선재단 인턴십 지원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받게 될 때도 이 받고 나하고의 관계가 뭘까?”를 생각해 보고, 수확물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옳은 지 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면”을 고민하게 되었다. 애리 씨는 가난한 마을 주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이 그 돈의 가치에 합당한 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야근을 하고, 더 일을 잘 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야 이 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이들의 내러티브에서 돈은 사회와 자신을 이어주고 사회와 자기의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로 등장했다. 내 기여에 대한 보답이자 그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 사회의 공정함을 확인하는 기늩자이기도 했다. 또한 지역사회 및 가족의 경제적 지원, 조건없는 공적 재

정지원은 ‘내가 죽게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체와 사회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6. 우정 또는 환대 : 조건없는 공적재정지원이 청년과 사회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확인

서문에서 우리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배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가 청년에게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요구의 조건들을 통해 ‘나의 노오력 부족’을 질책하는 형태로 청년에게 모욕감을 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합리화하는 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의 모티프를 제공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 배제와 성원권에 대한 김현경(2015)의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그 틀을 빌려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데 조건없는 공적재정지원이 가진 효용을 이 장을 통해 좀 더 설명해 보려 한다.

김현경(2015)은 “사람이란 말은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성원권을 얻기 위한 투쟁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64p)이라 말한다. 사회적 성원권은 소속감, 법적 지위, 개인의 사회성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 사실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다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타인의 환대”가 필요할 뿐이다(65p).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사람됨’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인정투쟁)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놓인 상황을 토로했다.

부모에 대한 막연한 미안함,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는 그런 기대를 채우고 싶지 않다는 적극적인 독립에 대한 열망은 대표적인 인정투쟁의 양상이다. 이는 사교육은 물론 대학이 후 고등교육의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그 투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부모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임호선 씨), 새로운 삶을 선택해 시골로 내려간 자신에 대해 ‘얼마나 못났으면’ 시골로 내려갈까 걱정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민영지 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독립을 이룬 청년들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사회와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 새로 진입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 대한 정체성은 다른 무엇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다가왔다. 여성들은 모욕의 경험 (동네 아저씨들에게서 나와 사귀어 보지 않겠냐는 희롱을 당한 수인 씨), 자기가 아

닌 존재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짐 (자신의 우편물에 같은 동네 사는 남자친구의 이름이 적혀있던 영지 씨, 고향에 계속 살더라도 ‘누구네 집 딸내미’로만 기억될 뿐 자신의 이름을 단 문패는 달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애리 씨)을 당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사회에 성원권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도 했다(민영지 씨).

김현경(2015)은 법적으로 주어지는 시민권과 달리, 사회적 성원권은 상호작용 의례나 집단 의례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원권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원권을 확인받는다고 했다(144p). 인터뷰에서 드러난 청년들이 겪는 상호작용에서의 불평등은, 그들이 ‘어른’의 세계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나타난다. 어른의 세계는 결혼,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 자녀를 가지는 것과 같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영지 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비로소 ‘잘했다’고 하며, 이제까지 ‘왜 결혼을 안하나’라며 경계하거나 혼계하던 지역의 어른들이 비로소 ‘경계를 풀고’ 말을 걸어왔다. 가족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생활비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제 감을 느끼는 호선 씨, 같이 귀촌한 처지인 연장자 남성들로부터 늘 걱정의 대상이 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수인씨의 경험처럼, ‘어른’이 갖출 조건이라 여겨지는 것이 결여되었을 때 동등한 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정과 환대의 경험분석

연구자들은 조건 없이 주어진 공적재정지원이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 놓인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핵심 키워드는 ‘우정’과 ‘환대’이다. 김현경(2015)은 우정은 상대방의 고유한 특징을 차별적으로 인정하면서 맺어지는 영혼과 영혼의 만남(175p)이라 말한다. 이상적으로는 “경제적 자율성에 기초한 자유로운 관계”(181p)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듯 형식적으로 평등한 듯 보이는 사회에는 실질적 불평등(청년, 여성, 장애인, 계약직 등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우정을 맺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각 주체의 ‘사람됨’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자리를 주는 ‘환대’가 필요하다(193p). 사회적 배제의 극복은 그 자리 내어줌에서 부터 시작한다.

김현경은 같은 부분에서 환대가 재분배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하려 한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조건, 동등하게 관계 맺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금전적 재분배를 짚어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삼선재단 청년인턴십과 성남 청년배당의 사례를 통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공적 재정지원이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대로서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5장에서 확인했던 ‘관계’, ‘시간’, ‘독립’, ‘자아성찰’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마련해 준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재분배는 증여와는 다르다. 둘 다 물질이 모인 곳에서 각 개인에게 흘

러가는 것이지만 ‘증여는 인정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인정을 통해 비로소 구성 되’지만 ‘재분배는 어떤 기억의 의무도’ 도덕적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다(196p). 증여와 재분배의 차이를 잘 드러내 주는 사례는 개인 기부와 복지 정책으로서의 구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의 의무로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이 돈이 다시 일정 기준에 맞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낸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람도 권리로서 그 돈을 받을 뿐이지 세금을 낸 누군가 혹은 국가에 감사해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부의 경우는 돈을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돈을 기부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익명의 기부라 할지라도) 세상에 기억되길 원한다고 김현경은 말하고 있다(김현경, 2015, 195p).

우리의 연구대상을 조금 단순화 시켜서 이에 대입해 설명해 보자면 삼선재단의 청년 인턴십 과정은 ‘재분배의 효과를 가진 증여’에 가깝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좀 더 명확히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삼선재단 인턴십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 새로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적응과정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 지역공동체에 정착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배제와 인정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인턴십을 통해 받은 공적재정지원은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주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100만원도 못 버는 반푼이’로서 생산능력을 의심받거나(민영지 씨),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말로 열악한 조건의 노동을 감내할 것을 요구받거나(김수인 씨)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자신을 먹여 살리려’는 노력을 지켜보는(조애리 씨)중에 삼선재단의 지원금은 그들이 경제적 고민을 덜어냄과 동시에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사람됨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담감도 덜게 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원래 지역에 내려오면서 펼치려 했던 활동들을 펼칠 수 있음으로서 공동체가 기대하는 방식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방식을 좀 더 고집하며 스스로 납득할만한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었다.

인턴십 과정에서 이들은 재단의 돈을 권리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원과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쳐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를 반문했다. 영지 씨는 “난 청년이 아닌데”, 수인씨는 “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 애리 씨는 자기 생활이 비단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책임 때문에 생활을 잘 기록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의 돈은 ‘증여’로서의 성격이 크지만 앞서 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기부자의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삼선재단의 역할이 컸다. 재단은 청년들에게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증빙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간 공유회나 최종 발표회를 통해 각 청년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과정이 순수한 공유의 차원에 머무르고 어떤 결

과나 정해진 목표를 채우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애리 씨의 말에서도 확인 할 수 가 있다.

"이 재단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 보면서 열심히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해." 라든지, "나는 너에게 돈을 주고 있어."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단 말예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것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조애리 인터뷰 녹취록)

돈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 돈을 감사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돈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주는 기관과 받는 사람 사이에 위계를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었지만 중간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인정에 대한 노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증여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남의 사례에서는 청년배당의 돈이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액수도 적고 재화 자체가 상품권이라 현금에 비한 활용도가 워낙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은 배당을 받은 청년을 ‘받는’ 사람에서 다시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힘을 주었다. 이는 앞서 5장에서 언급했던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정책 수혜대상이 아니어도 제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과 그 재원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는 물론 우리가 인터뷰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이다. 물론 삼선재단 인턴십을 받은 청년들에게서도 유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반응이 청년배당처럼 즉각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그들은 삼선재단은 물론 자신이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우정의 경험들을 종합 할 때 나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단의 지원을 받는 다른 청년들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비교나 경쟁의식을 가지기도 했다.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은 돈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배당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정책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들이 투표로 이뤄낸 승리에 자랑스러워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리를 준다/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준다/인정한다는 뜻이고,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김현경, 2015, 207p). 만약 청년배당이 증여받은 재화였다면 불만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마움에 토를 다는 것은 불손한 것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받는 기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선재단 인턴십 수령자들로부터는 인턴십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만을 들었지 불만이나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인턴십을 받은 청년들은 제도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때에도 선뜻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거나 답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삼선재단 인턴십과 청년배당이 가진 ‘증여’와 ‘재분배’의 차이를 명확

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었다.

지급주체에 따른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 삼선재단, 성남시, 서울시 사례 비교

우리는 기업재단이라는 민간과, 지방정부라는 공공 주체에 따라 ‘증여’와 ‘재분배’의 기능이 달성한 효과는 어떠했는지, 그 방법의 적절성에 주목하였다. 먼저 증여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계를 상기시키고 도덕적 의무와 인정을 요구하는 측면의 특징이 있지만 이것이 민간 재단의 차원에서 진행될 때 꼭 단점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삼선재단 인턴십은 소규모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계 관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이 가능했다. 여기에는 사업의 운영 철학을 지키려는 재단의 의지와 활동가들의 숙련된 경험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 재단이 멘토를 통해 청년을 찾고 재정 지원을 받는 동안은 재단이 아닌 멘토와 소통하도록 한 것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돈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설계였다. 증여가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도덕적 의무와 인정의 추구를 요구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다. 돈은 청년들이 마음껏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민간재단이 추구하는 교육적 효과 즉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하는 ‘부담감과 고마운’마음을 북돋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청년배당은 증여가 아닌 재분배라고 했는데 만약 성남시 청년배당 수혜자들이 이를 증여로 여겨 성남시를 ‘고마움’의 대상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적절할까? 성남시가 청년에게 배당을 주며 ‘선물’을 했다고 ‘인정’을 받고자 했다면 그것은 타당했는가?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성남시가 청년보다 위계상 상위에 있는 자로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성남시가 증여의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여는 누구에게 줄 것인지 선별작업을 거친다. 왜냐하면 증여는 인정을 전제하고, 특정인과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대는 선별을 거치지 않는다. 공공성을 창출하는 환대의 조건은 “신원을 묻지 않으며”,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김현경, 2015). 만일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그 주체는 공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되는 바람에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설계도 살펴보았다.

김현경(2015)은 현대사회에서의 우정의 기획이 때로는 사회가 지닌 실질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기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형식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가정하고 누구나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전제를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불평등을 인식하며 ‘사람이라고 다 같은 조건을 지

닌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는 순수한 우정을 맺을 수 없음'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모순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다. 우리는 기본소득 개념을 가진 정책적 설계도 잘못하면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례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청년수당은 같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표방한 재분배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여의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에게 비록 청년을 지지한다는 것을 3,000명의 청년대상을 통해 보이하고자 하는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의 방식은 오히려 청년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의 주체가 아님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정책 설계상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가구소득이나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고려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계획서를 보고 선정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며”, 실제로 이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누구를 뽑고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지” 난감했던 경험을 토로했다(신지예, 2016). 떨어진 사람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붙은 이들도 이를 당당히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선발의 과정 자체가 일종의 인정투쟁의 양상이 되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표현은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는 한 단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청년 지원자에게는 자신에게 얼마나 이 돈이 필요한지를 구구절절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업이 재분배가 아니라 증여임을 증명한다. 즉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증여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관계를 맺는 과정이므로, 수혜자로 선발된 청년들과 증여자인 서울시는 위계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시행 중간에 청년들에게 활동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서 더 분명히 드러났다. 성원권을 확인하고 힘이 되어줄어야 할 재정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성원권에 대한 박탈’ 혹은 ‘사람됨에 다다르지 못함에 대한 재확인’이 된 셈이다.

물론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청년에게 이 경험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청년을 지지하고 돕기 위한 서울시의 관심과 노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과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시행방식의 차이를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는 민간의 실험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범위와 재원 마련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의 실현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재원마련의 측면 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는 형식과 그 과정에서 각 주체가 맺는 관계, 사회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만약에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매월 50만 원 가량 주어진다면, 지금 주체가 정부일

때와 민간 재단일 때,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일 경우 무엇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터뷰를 했던 모든 청년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가장 마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민간 재단일 때나 공동체 성원들이 지급할 경우 ‘부담’이 존재할 것이며, 그 부담감은 내가 그들의 기대에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했다. 애리 씨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통장이 생기고, 1년에 얼마씩 찍힌다면 당연한 삶으로 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혹시 내가 뭔가 이만큼을 해야 하나요?” 라고 확인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동네나 공동체에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받는 대상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거나 본인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애리 씨의 말은 비록 조건 없이 자신에게 돈이 주어진더라도 ‘본인이 받아야 할 합당하고 공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도, 남도, 공동체도 동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기본소득이 ‘권리’로서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저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합의와 공감의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서울시 청년수당이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즉 민간에서 청년에게 ‘환대’의 의미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이 행위는 ‘증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증여에서 오는 ‘인정’을 부담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환대의 의미로서 재분배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가 증여의 방식으로 지불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남 청년배당과 삼선재단의 인턴십 사업을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사회와 청년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증여로서 지급된 삼선재단의 인턴십과 환대로서 지급된 성남 청년배당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지급의 주체가 될 때 우정과 환대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 공공은 ‘재분배’의 방식으로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며, 민간은 ‘증여’의 방식으로 소외된 청년에게 인간적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은 아니다. 지급 주체에 따라 적합한 관계 맺기의 방법이 다르며, 성남 청년배당과 삼선재단 인턴십은 각각 공공과 민간이 청년과 돈으로 관계를 맺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장에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조건없는 공적 재정 지원이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어떠한 관계 맺기의 전략을 사용할 때 각기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확인하여 보았다. 청년 기본소득의 효과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청

년과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우정과 환대의 방식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실험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가 적절한 지원방식을 계획하는 데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회적 논의를 하는데 있어 단지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직접 사용할 것인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 돈은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소득 제도의 목적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바꾸어 놓을 삶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는 청년기에 대한 자기 경험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공적지원이 가지는 가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7. 결론

우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기존의 논의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효용성에만 치우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에 미칠 다면적인 영향을 조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기본소득과 비슷한 재정지원, 즉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한 ‘조건이 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을 드러내어 그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을 택했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재정지원으로서 삼선재단이 지역에 머무르고자 하는 청년 활동가들에게 조건없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지역 청년활동가 인턴십’사업과,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배당을 사례로 정하고 그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경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방법인 내러티브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청년기의 삶, 그 삶에서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포함한 돈과 관련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여섯 명의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돈의 의미는 ‘나 다울 수 있는 시간을 줌’, ‘반쯤이 청춘에서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시도와 성찰을 반복했던 청년기에서 성찰의 매개였던 돈’, ‘내가 뛰고 싶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 ‘내쫓기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든든함’을 주는 것,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게 하는 전제조건’이었다.

이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청년기 돈의 의미와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의 가치에 대해서 해석

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은 청년이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였다. ‘월급’이라고 생각될만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온전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청년에게,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이 ‘걱정거리’ 청년이 아닌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관계를 맺게 하였다. 삼선재단 인턴십 지원금으로 ‘월급에 버금가는’ 액수가 채워졌고, 성남 청년배당으로 받은 상품권을 부모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경험인 것이다. 특히 ‘남에게 만 원 정도는 선뜻 후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애리 씨의 변화나, 자신이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청년배당 정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성남시 청년들의 태도를 볼 때,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이 청년이 ‘받는 자’에서 ‘줄 수 있는 자’로 주변 및 사회와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년에게 돈은 ‘시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였다.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생계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하거나,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의 기회’나 매력적인 외모 등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이들에게 불안의 요소였다.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영혼없이’하며 보내는 대신, 스스로를 성찰하고 재투자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의 청년들은 생계의 걱정을 접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청년들은 ‘시간’은 곧 ‘돈’이라고 표현했고, 청년기의 안정적인 재정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돈은 청년에게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기에 독립은 비단 경제적인 자립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다. 인터뷰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있던 부모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향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공간을 이동하기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없을 때는 독립을 실행하기가 어렵고, 설령 분가하여 산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에는 온전한 정서적 독립도 어렵다. 또한 물질적으로 독립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성원으로서 타인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때 정서적인 독립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넷째, 돈은 자아성찰의 매개체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뿐 아니라, 지원금을 받거나 일을 하여 번 돈을 통해 자신이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한다. 연구대상자들은 때로는 돈의 출처를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기도,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며 자신이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 행복한지 알아가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꾸려가기도 하였다.

우리는 애초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드러내

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지원금액의 규모가 적고, 지원 기간 역시 짧아서 청년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경험을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았던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기의 삶에서 돈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성향, 삶의 지향 등이 달랐던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다른 사회적 맥락에 놓인 청년들의 삶에서 돈은 어떤 필요와 의미를 지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도 자아탐색과 정서적 독립을 위해 재정 지원은 의미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 단지 생계비를 조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 구성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관계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삼선재단 인턴십 사업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사업이지만, 기본소득이 전제하는 보편적인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나 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받는다’는 보편성에 대한 경험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청년의 삶의 양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함에 놀랐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청년에 대해 ‘삼포세대’, ‘새롭게 등장한 복지의 수혜자’와 같이 고정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비판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미지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청년의 삶이 단편적이지 않다’는 관점은 청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가난한 청년을 위한 생계비 지원’ 또는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도구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고, 그 효용성에 대한 찬반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노년기의 생애주기에서 청년기의 과업을 단지 노동시장 진출과 결혼을 통한 사회구성원 재생산으로 상정하는 산업화시대에 기반한 근대적 생애주기 관에 근거한다.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았던 청년들의 삶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었고, 그들의 삶은 쉽게 근대적인 생애주기 관에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경제가 가장과 사회의 중심에 선 한국사회에서 종속된 자이자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이 사회의 성원권을 획득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밝혔다. 성원권을 얻기 위한 분투의 과정에 등장했던 우정과 환대의 경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우정과 환대 가운데,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포함한 돈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시간에 쫓기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양한 청년의 삶에서 나타난 재정 지원이 청년에게 ‘성원권’을 부여하는 ‘우정’과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고’, ‘공적인 합의에 기반’하며, 손을 내미는 주체에 따라 ‘증여’ 또는 ‘재분배’의 적절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확대가 ‘부유한 청년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원금을 받아서 술을 사 마시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강남훈. 2016.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2016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5, 11-26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집 1호 215-260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제1호 179-212
- 녹색전환연구소. 2016『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성남시 청년배당 인식조사 결과발표 및 쟁점토론』
- 류소영. 2014 『빈곤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마을활력소 마실이학교, 2013, 2013 우리마을연감, 홍성: 그물코 출판사
- 서울특별시, ARS PRAXIA (2016)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서 분석.
- 설인자. 2008. 청소년기의 학업과 진로.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편). 교육과학사
- 신지예. 2016. 『청년수당에서의 경험』.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성남시 청년배당 인식조사 결과발표 및 쟁점토론 자료집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성호(2001) 지역특성에 따른 인구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승운,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제 52호 365-405
- 정혜원(2014)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8권 2호. pp.205-242
- 조소영, 임예운 (2015).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 재취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4(1), pp. 141-169.
- 조한혜정. 엄기호. 강정석. 나일등. 이충한. 이영룡. 최은주. 이규호. 양기민. 2016. 『노오력의 배신』. 창작과 비평사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사이행성
- J. W. Cresswell. 2011.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학지사: 서울
- Richard Dobbs, Anu Madgavkar, James Manyika, Jonathan Woetzel, Jacques Bughin, Eric Labaye, and Pranav Kashyap. 2016. 『Poorer than their parents? A new perspective on income inequal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청년 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이다솔 황서연

청년 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이다솔, 황서연

목 차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방법
- II. 1세대 아파트의 정의와 조사대상
 - 1. 1세대 아파트의 정의
 - 2. 1세대 아파트의 유형별 유래와 현황
 - 1) 시민아파트(1969-1970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2) 시범아파트(1970-1971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3) 맨션아파트(1965-1976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4) 상가아파트(1967-1979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3. 1세대 아파트의 유형별 비교
- III.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 청년들의 주거소요 특성
 - 1. 대상자 선발 기준과 면접조사 방법
 - 2. 면접대상 청년들의 현재 주거지 선택기준
 - 1) 가격
 - 2) 면적, 프라이버시
 - 3) 입지, 교통
 - 4) 시설, 관리
 - 3. 면접대상 청년들의 1세대 아파트와 셰어하우스 관련 의견
 - 1) 1세대 아파트의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 2) 1세대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 측면에 대한 의견
 - 4.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
- IV. 청년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 1.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1세대 아파트
 - 2. 정량적 평가에 따른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평가
 - 1) 서울(강북) 아파트 전세, 수도권 대학생 원룸 가격과 비교
 - 2)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셰어하우스의 순현재가치(NPV) 계산
 - 3.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한 1세대 아파트의 정성적 평가
- V. 결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서울 청년주거문제의 심각성

- 서울의 많은 청년들은 좁은 면적,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음
 -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340,817가구) 중 36.3%(123,591가구)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지하,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¹⁾
 - 동일 수치가 2000년에는 31.2%, 2005년에는 34.0%였다는 점²⁾을 고려할 때 청년주거빈곤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도 2010년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주거빈곤’을 면하더라도 주거비 과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다수
 - 2012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만 19~34세 청년가구(336,443가구)의 69.9%(167,506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청년가구도 22.7%에 이룸³⁾
 -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주거비가 소득의 25~30%를 넘으면 정책 대상이 되고⁴⁾, 서울시도 2014년에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주거비를 소득의 25%이하로 설정⁵⁾하였으나 청년가구의 대다수는 이미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초과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서울 청년들의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음

□ 청년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 ‘1세대 아파트’의 조작적 정의, 조사 범위 확정
 - 본 연구에서 청년주거지로서 가능성을 탐색할 ‘1세대 아파트’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
 - 1세대 아파트를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 맨션아파트, 상가아파트로 구분하여 유래를 밝

1) 최은영, 2014a,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16쪽

2) 최은영, 2014a, 16쪽

3) 최은영, 2014b,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145-146쪽

4) 최은영, 2014b, 17쪽

5) 서울특별시, 2014, 「시민복지기준백서」, 서울특별시, 118쪽

히고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목록으로 작성

- 위치, 면적, 가격 등 청년주거지가 요구하는 특성을 정리
 - 대학생, 사회초년생, 세어하우스 경험자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여 가격, 면적, 입지 등 청년들의 주거소요 특성을 정리
-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청년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 1세대 아파트 조사대상에 청년들의 주거소요 특성을 적용하여 1세대 아파트가 청년주거지로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
 - 1세대 아파트 중 시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세대를 선발하고, 이 세대를 대상으로 임차 후 전대 모델로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환산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
 - 청년주거 전문가들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청년주거지 모델의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기존문헌 연구
 - 1세대 아파트를 연구한 건축, 도시계획 관련 문헌자료
 - 서울의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연구한 문헌자료, 공공기관 문헌자료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세대 아파트 관련 공부
- 현장 조사
 - 조사 범위에 속하는 1세대 아파트의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여 1세대 아파트가 갖고 있는 조건과 현장 분위기를 파악
- 면접조사
 - 대학생, 사회초년생, 세어하우스 경험자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서울시 관계자, 청년주거 전문가, 1세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 면접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표 1. 면접조사 대상자 명단

구분	이름	분류	성별	연령
청년층	A	대학생	여성	22세
	B	대학생	남성	25세
	C	사회초년생	여성	25세

구분	이름	분류	성별	연령
	D	사회초년생	남성	29세
	E	세어하우스 경험자(직장인)	여성	29세
	F	세어하우스 경험자(직장인)	남성	30세
전문가	H	서울특별시 관계자	남성	40대
	신지예	(주)오늘공작소 대표,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여성	20대
	진남영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남성	50대

Ⅱ. 1세대 아파트의 정의와 조사대상

1. 1세대 아파트의 정의

□ ‘1세대 아파트’라는 용어의 유래

○ 한 단행본에서는 1세대 아파트를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민간에서 중·소규모로 건설한 아파트로 지칭

- 본 연구는 장림중, 박진희(2009)의 단행본,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⁶⁾의 부재 ‘중암에서 힐탑까지,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에서 1세대 아파트라는 용어를 차용
- 장림중, 박진희(2009)는 1세대 아파트의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민간에서 중·소규모로 건설한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정부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달리 민간에서 중·소규모로 건설된 아파트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언덕 위, 주택가 골목길 그리고 도심 가로 모퉁이에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다. 이들 아파트가 아직 서울 속에 묻혀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낯설게 보일 만큼 참신하고 실험적으로 건축되어 오래도록 훌륭히 사용되고 있다.⁷⁾

○ 본 연구에서는 1세대 아파트를 1960-1970년대 공공 또는 민간에서 건설하여 현재도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재정의

6) 장림중, 박진희, 2009,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7) 장림중, 박진희, 2009, 8쪽

- 장림중, 박진희(2009)의 논의는 사용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미적, 건축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 가치에 주목하기 위하여 1세대 아파트의 대상범위를 보다 넓히고자 함
- 본 연구에서 1세대 아파트를 ‘서울에서 1960년대, 1970년대에 공공 또는 민간에서 건설한, 2016년 현재도 주거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아파트’로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

□ 1세대 아파트의 유형

-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 맨션아파트, 상가아파트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
 - 최윤영, 심우갑(2005)⁸⁾에 따르면 1960-1970년대 일간지,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아파트 유형은 서민아파트, 고급아파트, 상가아파트, 시범아파트, 공무원아파트, 시민아파트, 미니아파트, 외인아파트, 맨션아파트, 군인아파트 등으로 상당히 다양함
 - 이들은 크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대량으로 공급한 시민아파트, 와우아파트 붕괴참사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시범아파트,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간 또는 개인이 삶의 질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건설했던 맨션아파트, 도심에 위치하여 3-4층 이상은 일반주거용으로 그 이하 층은 점포로 사용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는 상가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1세대 아파트를 위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시민아파트와 시범아파트는 장림중, 박진희(2009)의 단행본과 손정목(2003)의 단행본⁹⁾, 서울시 공동주택과(2013)의 자료¹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맨션아파트는 최윤영, 심우갑(2005)의 논문을, 상가아파트는 손정목(2003)의 단행본과 강승현, 심우갑(2009)의 논문¹¹⁾을 기초자료로 활용

2. 1세대 아파트의 유형별 유래와 현황

1) 시민아파트(1969-1970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아파트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던 시민아파트

- 1960-1970년대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판자촌의 급격한 팽창
 - 1960년에 245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1970년에는 553만 명으로 10년만에 2배 이

8) 최윤영, 심우갑, 2005. 「1960-1970년대 “맨션아파트”의 인식과 건축형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231-232쪽

9)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5권』, 한울

10) 서울시 공동주택과, 2013. ‘시민아파트 정리현황’

11) 강승현, 심우갑, 2009. 「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

상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무려 835만 명¹²⁾에 이르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9.5만 명씩 증가

- 2015년 기준으로 매년 전라북도 익산시(301,723명), 경상남도 양산시(297,532명), 경기도 군포시(285,721명) 규모의 인구¹³⁾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어야 했었던 상황
- 당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구적인 방법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1960년대 초부터 판자촌은 이농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주거확보 방안이었음(김수현, 2015)¹⁴⁾



그림 1. 서울시내 판자촌의 분포

자료: 김수현, 1996,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7-88쪽 재인용

- 대량공급이 가능한 아파트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던 시민아파트
 -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를 향해 가면서도 서울시의 주택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극심해져 갔으며, 이에 따라 판자촌이라는 무허가 불량 주택의 정리와 그곳의 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주는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음
 - 결국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임 동안의 엄청난 추진력으로 인해 ‘불도저 시장’이란 별명이

12)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13)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14) 김수현, 2015. 「도시화와 주택문제」,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1』, 에딧더월드, 108쪽

있었던 김현옥 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1969-1971년의 3년 동안 2,000동 건립을 목표로 한 시민아파트 건립 계획이었음

- 시민아파트 건립이라는 정책에서 획기적인 측면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단독 및 연립식의 주택 건립에서 아파트식 주택 건립으로 전환하여 대량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식 주택으로 영세민들의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것(장림중, 박진희 2009)

□ 프레임식 건설방식과 부실공사 그리고 와우아파트 붕괴참사

- 시민아파트는 프레임식으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입주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사 부분인 골격 구조 즉, 프레임만 시의 자금으로 건립하여 분양한 후 나머지는 입주자 스스로가 지어나가는 방식을 의미
- 이 건설 방법의 가장 큰 목적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과 주택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준다는 데 있었음
- 그러나 당시 시민아파트의 부지가 대부분 무허가촌을 철거하면서 생긴 산 중턱의 자리를 활용하였음에도 측량과 지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소한의 예산에만 급급하다보니 부실공사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음
- 결국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30분 경 마포의 와우아파트 15동이 무너져 입주자 70명 중 3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아래에 있던 판잣집을 덮쳐 1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장림중, 박진희 2009)



그림 2. 1970.04.08.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참사”, 경향신문

자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손정목(2003)은 시민아파트가 주로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이유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는데,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청와대에 시민아파트의 성과를 과시하기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청와대에서 잘 보이는 산 위에 시민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함

1969년에 400동에 달하는 시민아파트를 주로 높은 산 위에 지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착공한 것이 서대문구 현저동의 금화아파트 19개 동이었는데 1968년 6월 18일에 기공식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금화아파트는 높이 105m가 되는 금화산 산중에 지었다. 이 아파트를 계획할 때 몇몇 국장·과장이 “아파트를 너무 높은 데 지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이 오르내리는 데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김(현옥) 시장이 그 말을 바로 받아 “야 이 새끼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것 아냐”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새로 지은 청와대에는 들어가본 일이 없다. 그러나 제 5 공화국 당시까지 있었던 옛날의 청와대 뜰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금화아파트 19동의 모습이 정면에 바로 보이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¹⁵⁾

□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남산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둘러싼 논의

○ 유일하게 현존하는 남산 회현제2시민아파트

- 서울시의 자료(2013)에 따르면 시민아파트는 총 32개 지구 434동 17,402호 수가 건립되었는데, 2016년 현재까지 존재하는 곳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1개 지구 1동 352호가 유일함
- 와우아파트 붕괴참사로 상징되듯이 대다수의 시민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시공된 경우가 많아 일찌감치 철거된 것에 비해,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와우아파트 붕괴참사 이후에 시공되어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장림중, 박진희 2009)
- 그러나 준공(1970년)된 지 40 여년이 넘어가고 실시한 안전정밀진단에서 재난안전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이 나와 보수나 철거 등 당장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부딪침

○ 2020년까지 예술가들의 거주·작업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성급하게 발표되어 갈등이 빚어짐

- 2016년 9월, 서울시는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인을 위한 집이자 작업실로 장기 임대한다는 계획을 발표¹⁶⁾하였으나, 회현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상의 없이 리모델링을 결정했고,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보상책도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에 빠진 상황¹⁷⁾
- 면접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관계자는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성급하게 발표되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것으로 의견

15)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권』, 한울, 305쪽

16) 2016.09.22. “남산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가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경제

17) 2016.11.21. “‘1.5억 vs 6억’ 보상금 갈등…회현시민아파트 협의보상 난항”, 뉴스1

을 밝힘

발표가 너무 일찍 나버렸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매입하고 이주보상협의를 했던 곳인데, 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사업 발표가 나버리면, 앞으로의 협의도 문제고 과거에 보상협의를 하고 나간 분들게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성급하게 발표하면 안 될 문제인데...

- 서울시 관계자

- 현재(2016년 12월) 퇴거를 위한 보상협의를 이뤄지고 있고, 신규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청년주거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민·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림 3. 남산에서 본 회현제2시민아파트

자료 : 김주성, 2014.07.31. “‘재난위험시설’ 회현 시민 아파트… 철거냐 보존이냐”, 한국일보



그림 4. 'ㄷ' 형태인 시민아파트의 안쪽 모습

자료 : 김주성, 2014.07.31. “‘재난위험시설’ 회현 시민 아파트… 철거냐 보존이냐”, 한국일보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시민아파트 현황(없음)

- 시민아파트 철거 이후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됨
 - 다른 1세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철거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가 철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을 것
 - 또한 시민아파트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었고, 부지가 대부분 산 중턱에 위치했다는 점 탓에 철거 후에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지역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시설인 공원, 주민복지시설,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이 많다는 것이 특징
 - 일부 단지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었는데, 토지의 분양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

표 2. 시민아파트 현황(조사대상 없음)

구 별	지 구	동수 / 세대수	건립년도	소재지	현황(2016.12)
종 로	청 운	11 / 577	1969	청운동 6-5	공원 조성
	동 송	31 / 1,266		동송동 50-118	공원 조성
	삼 일	12 / 583		창신동 400-4	재건축
	낙 산	28 / 1,350		창신동 23-363	공원 조성
	현 저	5 / 229		무악동 46	공원 조성
중 구	회현제1	1 / 124	1970	회현동1가 147-23	주민복지센터
	회현제2	1 / 352	1970	회현동1가	미정(보상협의 중)
	삼 일	12 / 660	1969	흥인동 162-2	재개발
용 산	산 천	10 / 443		산천동 106	주민복지시설
	서부이촌	13 / 652	1970	이촌동 203-73	재건축
	청 파	2 / 108	1969	청파3가 118-56	공원 조성
성 동	응 봉	13 / 608	1970	응봉동 산 8	공원 조성
	행 응	11 / 489	1969	응봉동 산 26	공원 조성
동대문	전 농	5 / 180		전농3동 7-146	재개발
	월 곡	6 / 280		청량2동 207-23	주거환경개선
성 북	정 릉	9 / 454		정릉동 산 87	재건축
	월 곡	7 / 362	1970	하월곡2동 산 5	주거환경개선
도 봉	도 봉	5 / 180		도봉동 79	공원 조성
은 평	녹 번	7 / 405	1969	녹번동 63-5	재건축
	응 암	5 / 150	1970	응암동 산 7	재개발

구 별	지 구	동수 / 세대수	건립년도	소재지	현황(2016.12)
서대문	금 화	131 / 3,563	1969	옥천동 127-444	주거환경개선 및 공원조성
	북아현	20 / 905		북아현동 210-1	재건축
	연 회 A	17 / 712		연희동 196-8	공원 조성
	연 회 B	12 / 533		연희동 6-46	재건축
	홍 제	6 / 180	1970	홍제동 322-14	공원 조성
	창 천	7 / 336	1969	창천동 4	공원 조성
마 포	서 강	19 / 786		창천동 6	마포구민회관
	노고산	4 / 80		노고산동 6	공원 조성
양 천	김 포	2 / 40		목2동 525	재건축
강 서	김 포	3 / 64		등촌3동 531-5	주차장
영등포	영 흥	2 / 24	1970	당산동 121-136	재건축
동 작	본 동	14 / 637	1969	본동 292-404	공원 조성
관 악	남 현	3 / 90		남현동 166-1	재건축
합계		434 / 17,402			

자료 : 서울시 공동주택과, 2013. 재구성

2) 시범아파트(1970-1971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서울시 재정난 타개와 신뢰회복을 위해 추진된 시범아파트

- 서울시의 재정난 타개와 와우아파트 붕괴참사로 인한 신뢰회복을 위해 추진된 시범아파트
 - 재임 동안의 엄청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참사를 직접적인 계기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는데, 김 시장의 재임 기간(1966년 4월 - 1970년 4월) 동안 서울시가 꾸준히 겪고 있었던 심각한 재정난이 당시 현안으로 떠오름
 -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김 시장의 부임 직후부터 벌여놓은 건설공사 때문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내에 철근·시멘트 등의 품귀현상, 이른바 자재파동이 일어났을 정도
 - 후임으로 부임한 양택식 시장은 여의도 일각에 고급아파트를 건립하고 일반에게 매각하여 와우아파트 붕괴참사로 땅에 떨어진 서울시 건축기술 수준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허허벌판인 여의도에 주민을 정착케 함으로써 여의도 발전의 교두보로 한다는 것을 목표로 여의도에 맨션아파트 건립을 추진(1970년 7월)
 - 맨션아파트니 고급아파트니 하는 표현은 얼마 안 가서 ‘시범아파트’로 정해졌는데, 앞으로 서울에 세워질 아파트와 아파트단지의 시범이 되겠다는 뜻(손정목 2003¹⁸⁾)

18)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권』, 한울, 59-63쪽

□ 중산층을 대상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대표적

○ 중앙난방, 도시가스, 고속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로 주목받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대표적

- 실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만 3,619평의 널찍한 단지의 배치로 중앙공급식 난방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고, 도시가스는 동부이촌동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공동구도 국내 최초, 엘리베이터가 달린 고층아파트도 국내최초
- 또한 아파트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 유치원 · 탁아소 · 초등학교 · 녹지대 · 소운동장까지 갖춘 최초의 아파트단지(손정목 2003)

시범아파트는 중산층 아파트예요. 시에서 공급하긴 했지만, 시민아파트랑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해요.

- 서울시 관계자

- 다음 그림은 당시(1970년 8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 모집광고인데, ‘갖는 자랑’, ‘사는 즐거움’, ‘꿈이 있는 「마이홈」’, ‘건강을 얻는곳’, ‘시간을 얻는곳’, ‘부귀를 얻는곳’ 등의 미사여구로 꾸며져 있어 서울특별시공고라는 성격과 묘한 괴리감을 보임



그림 5. 1970.08.20.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광고)”, 매일경제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 준공 당시의 사진, 영상자료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1971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당시 세련되게 지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림 6. 1971. 11.06. “기술교육으로 산업발전을..” 화면갈무리, 대한뉴스 제852호

자료 :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http://www.ehistory.go.kr/>)



그림 7.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자료 : 이승재, 2016.12.05.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탄력…서울 대단지 첫 ‘신탁 방식’”, 한경BUSINESS

□ 서울 시내에 고층아파트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

-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초기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
 - 입주자 모집 초기(1970년 9월)에는 입주 희망자가 없었는데, 와우아파트 붕괴참사가 일어난 지 4-5개월밖에 되지 않아,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청 간부들이 먼저 입주를 진행했고, 본격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더니 1971년 연말에는 40평형(분양가 571만 2천 원)이 1천만 원을 가법

게 넘어섰고 그 가격은 매일이다시피 뛰어오름(손정목 2003)

-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에 고층아파트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됨
 - 시범아파트가 성공하자 민간업자들은 시범아파트 바로 남쪽에 1974년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어서 1975년에는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범아파트가 여의도에 대규모 아파트 군이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손정목 2003)
 - 여의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형성된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공급 모델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음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시범아파트 현황(4개 단지, 2,198세대)

-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용산 지역의 시범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음
 - 대규모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1,584세대)가 전체 시범아파트(3,249가구)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시범아파트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울시의 자료(2013)에 따르면 현재 용산 지역에도 3개 지구, 19동 614세대의 시범아파트가 존재
 -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대지가 대부분 사유지인데 반해, 용산 지역 시범아파트의 대지는 사유지·국유지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용산 지역의 시범아파트는 시민아파트의 연장선에서 지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시범아파트도 건립된 지 45년 이상 지났고 시민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평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용산 지역의 시범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서울시, 정부로 되어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¹⁹⁾

표 3. 시범아파트 현황(4개 단지, 2,198세대 존재)

구 별	지 구	동수 / 세대수	건립년도	소재지	현황(2016)
종 로	옥 인	9 / 295	1971	옥인동 181-1	도시계획사업
용 산	중 산	6 / 266	1970	이촌동	*사유지
	이 촌	9 / 228	1970	이촌동	*사유지
	한 남	4 / 120	1970	한남동	*국유지
서대문	연 희	10 / 328	미상	연희1동 188	도시계획사업
	금 화	2 / 68	1971	냉천동 74-99	재정비
마 포	서 강	4 / 120	1971	창전동 42-7	리모델링
	용 강	7 / 240	1971	용강동 496-7	도시계획사업
영등포	여의도	24 / 1,584	1970	여의도동	*대부분 사유지
합계		75 / 3,249			

자료 : 서울시 공동주택과, 2013, 재구성

19) 2015.12.22, "'시민-시범-시영아파트'..."무슨 차이인가요", 머니투데이

3) 맨션아파트(1965-1976년 건립)의 유래와 현황

□ 민간에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한 고급아파트

- 주로 한강 이북에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건립한 다품종 소량생산 고급아파트
 - 맨션아파트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강 이북에서 중상계급을 겨냥하여 공급된 고밀도 주택, 아파트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음
 - 맨션아파트는 시민, 시범아파트와는 다르게 민간인에 의해서 건립되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비교적 고급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1980년 편찬된 건축용어대사전²⁰⁾은 맨션을 “부동산업자들이 각종 설비가 갖춰진 대량의 고급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주의적 선전의 동기에서 붙인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음(최윤영, 심우갑 2005)
 - 서울시 관계자도 맨션아파트의 명칭은 광고를 위한 붙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맨션아파트는 아파트 유형이라기보다 광고하려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봐야 해요. 부지도 건설도 민간에서 담당하다보니 서울시 입장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 서울시 관계자

- 맨션아파트의 개념은 일본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일본 주거학의 선구자인 니시야마 우조²¹⁾는 맨션을 “대체로 대도시권의 중심부에 가까운 편리한 곳 혹은 고급주택지 등 환경이 좋은 곳에 편리함 혹은 고급주택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세워진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라고 정의함(최윤영, 심우갑 2005)
- 아파트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1973년) 전 건립된 맨션아파트는 대지가 좁고, 부정형인 경우가 많음
 - 1973년 주택축진특별법(현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아파트에 대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건립된 맨션아파트의 경우 대지가 좁고, 부정형인 경우가 많아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한편 좁고 부정형인 대지는 맨션아파트가 필지 단위로 미리 계획된 대지가 아니라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공지 또는 기존의 주거를 헐어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다양한 대지의 모양, 건축물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미적, 건축학적 가치가 높음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맨션아파트 현황(32개 단지, 3,412세대)

- 조사대상의 2/3가 용산구에, 그 중 대부분이 이촌동에 소재(1,738세대)

20) 김평, 1980, 『건축용어대사전』, 지문당, 232쪽 재인용

21) 니시야마 우조(西山卯三, 1911.3.1.~ 1994.4.2.) : 일본의 건축학자이자 건축가, 도시계획가.

- 전체(3,412세대)중 2/3에 가까운 숫자가 용산구(2,166세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 대부분(1,738세대)이 이촌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촌동의 맨션아파트가 현존하는 맨션아파트의 절반 정도를 차지
- 이촌동 부지는 1956년 5월 정·부통령 선거 때 30만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었을 정도로 거대한 동부이촌동 백사장이었으나 1967년 11월 건설부 산하 국영기업체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동부이촌동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된 이후 맨션아파트의 부지로 활용됨, 이는 부지 판매대금을 당시 추진하고 있었던 소양강댐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함이었음(손정목 2003)²²⁾
-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고, 현재까지 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중요한 조사대상
 - 용산구 이촌동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 산재해있고,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어 외관이 독특하며 현재까지 주거지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중요한 조사대상
- 1973년의 주택축진특별법 제정과 1975년의 서울시 외래어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한 변화가 인상적
 - 앞서 언급한 1973년의 주택건축축진법과 시행령의 제정 이후로 맨션아파트의 건립속도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법의 제정과 시행은 아파트 공급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민간, 중·소규모 중심에서 공공, 대규모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점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한편 1975-1976년 당시는 식품, 약품 등의 상표를 비롯하여 생활 전반과 관련한 국어 순화운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기인데, 서울시는 당시 외래어 사용 금지 조치²³⁾를 내렸고 이 영향으로 인해 1975년을 기점으로 맨션아파트의 외래어명칭이 사라진 것이 흥미로움

22)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권』, 한울, 328-330쪽

23) 2016.07.21, "[살기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담았다" 아파트 브랜드의 힘", 매일경제



그림 8. 'ㄷ'자 모양의 배치가 인상적인 성북구 안암아파트(2016년 10월 촬영)

高級 아파트 竣工讓

一、位置交通環境
 新設洞로타리에서 高大方向 徒歩五分・大光中高校東北万一五〇米、
 徒歩一・二分이면 東西南北各方面으로의 叫入大路가 있음、高級住
 宅村에 있어 環境眺望至極良好

二、構造、施設
 鐵筋콘크리트煉瓦造六層建物、世帯當 建坪一六・一〇坪、溫突二・三
 個、應接室、炊事場、장독대、浴室、便所、各一個、建物全體暖房、ハ
 溫水常時使用、電話線 各世帯配線

三、分讓價格
 1、建坪當十一萬圓内外、各層別に依해 正 東西南北の 向別に依해
 差異 있음
 2、一世帯當七〇萬圓正 銀行融資上 拂入 있으므로 總代金中 에서
 右七〇萬圓正 控除하고 入住後 銀行에 十五年間償還

四、契約締結
 契約金 二十萬圓程度로 契約締結(先着順)

五、入 住 日
 即時可能 但、契約金 및 中途金支拂を要함

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四街二三

安岩아파트

管理事務所

電話 二九六〇 一九七〇

그림 9. 1969.09.03. “고급아파트 준공분양”(안암아파트 관리사무소, 광고), 동아일보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그림 10. 정말로 마포구 대로변에 우뚝솟은 혜성맨손아파트(2016년 12월 촬영)

**중심가에 우뚝솟은
혜성과같이 나타난 초현대식**



입주예정일 1972년 3월 31일경

위 치 도
(아현동)



입주금의 40%용자, 5년간 분할 상환

혜성맨손아파트 분양

특징

- ▲욕실, 욕조, 샤워, 양변기 및 세면기설치
- ▲냉온수 상수 공급
- ▲난방시설 (방마타라이프시스템)
- ▲알루미늄창 설치
- ▲부엌, 그릴스텐레스 조리대설치
- ▲T V선 수신 및 주차장시설
- ▲중앙급식시스템배설 (매대당)
- ▲세대당, 전화선 배선 (교환대설치)
- ▲소화전 및 자동화재경보기 시설
- ▲고급도배 및 유출장판
- ▲에어컨 2대 설치

대금납입방법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차 (15%) 계약일로부터 30일

2차 (15%) 1차중도금불입일로부터 30일

3차 (10%) 2차

잔금 (10%) 3차

용자금 40% 5년간 상환

분양가격표

전	행	자기분담	용자금	합계
34	평	3,410,000	2,200,000	5,610,000
29.5	평	2,867,000	2,000,000	4,867,000
28.8	평	2,574,000	1,900,000	4,474,000
22.8	평	2,202,000	1,800,000	3,702,000
29.6	평	2,884,000	2,000,000	4,884,000

※분양대금은 3층~6층의 가격이며 층별도약잔금상환

문의처:
한국신탁은행 부동산부
현장사무실

8721-8
8931-9
990239

한국신탁은행 부동산부

그림 11. 1970.11.11. “혜성맨손 아파트분양”(광고), 경향신문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표 4. 맨션아파트 현황(32개 단지, 3,412세대 존재)

구 별	지 구	세대수	건립년도	소재지	현황(2016. 09)
종 로	가든타워	67	1969	종로구 윤니동 98-78	업무용시설
	피어선	64	1970	종로구 신문로2가	존재
	파크맨션	18	1973	종로구 필운동	존재
중 구	하니맨션	19	1972	중구 필동1가	존재
	필동미주	31	1975	중구 필동3가	존재
	중앙맨션	60	1975	중구 중림동 1153	재건축
용 산	남산맨션	122	1965	용산구 한남동	존재
	효창맨션	61	1968	용산구 효창동	존재
	힐탑	120	1968	용산구 한남동 1-44	리모델링
	힐사이드	49	1968	용산구 한남동 726-111	리모델링
	탑라인	32	1970	용산구 이태원동	존재
	선라이즈	30	1970	용산구 한남2동	재건축
	강변맨션	146	1970	용산구 이촌동	존재
	한강맨션	660	1970	용산구 이촌동	존재
	성아맨션	94	1970	용산구 한남동	존재
	풍전맨션	138	1971	용산구 원효로4가	존재
	사직맨션	13	1971	용산구 원효로4가	존재
	리버뷰맨션	56	1971	용산구 이촌동	존재
	노들맨션	18	1971	용산구 이촌동	존재
	골든맨션	48	1971	용산구 이촌동	존재
	정우맨션	24	1971	용산구 이촌동	존재
	로얄맨션	72	1972	용산구 이촌동 301-10	리모델링
	타워맨션	60	1973	용산구 이촌동	존재
	점보맨션	144	1974	용산구 이촌동	존재
	빌라맨션	70	1974	용산구 이촌동	존재
	렉스맨션	240	1974	용산구 이촌동 300-3	재건축
	왕궁맨션	250	1975	용산구 이촌동	존재
	용산미주	70	1975	용산구 이촌동	존재
	반도맨션	192	1976	용산구 이촌동	존재
	수정맨션	84	1976	용산구 이촌동 301-155	리모델링
성 북	안암맨션	76	1969	성북구 안암동4가	존재
	스카이맨션	126	1969	성북구 정릉동 894-22	철거예정
	대광맨션	357	1971	성북구 안암동3가	존재
	삼익맨션	125	1971	성북구 동소문동2가 13	철거
은 평	역촌맨션	84	1973	은평구 갈현동	존재
서대문	홍제맨션	41	1965	서대문구 홍제동	존재
	서강맨션	40	1972	서대문구 홍제동 92-1	철거
	안산맨션	44	1974	서대문구 홍제동	존재
	인왕궁맨션	113	1974	서대문구 홍제동	존재
	광산맨션	58	1974	서대문구 홍제동	존재
	북아현맨션	79	1975	서대문구 북아현동	존재
	고은맨션	136	1975	서대문구 홍제동	존재
마 포	연세맨션	216	1970	마포구 연남동 372-4	재건축
	서교아파트	136	1973	마포구 서교동 344-1	재건축
	혜성맨션	94	1973	마포구 아현동	존재
합 계		4,777			

자료 : 최윤영, 심우갑, 2005, 재구성

4) 상가아파트(1967-1979년 건립) 유래와 현황

□ 저층부에는 상가가, 상층부에는 아파트형의 주거가 결합된 아파트

- 도심 내 상업지역,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는 상가가, 상층부에는 아파트형의 주거가 결합된 아파트 유형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67년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도심부에 다수 건설되었던 상가아파트는 여타 1세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복합주거유형
 - 도심 내 상업지역,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저층부에는 상가가, 상층부에는 아파트형의 주거가 결합된 유형
 - 상가아파트는 ‘상가주택(商街住宅)’의 ‘상가’에 ‘아파트’ 개념이 덧붙여 만들어진 파생어로, 아파트에 대한 개념의 정착과 세운상가 건설 시기를 거치면서 통용되기 시작(강승현, 심우갑 2009)

□ 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상가아파트, 세운상가

- ‘불도저 시장’ 김현옥 시장이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는 뜻으로 세운상가라 명명
 -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개공지, 판자촌, 사창가 등이 위치했던 ‘종묘 앞 - 퇴계로 간’ 소개도로는 김현옥 시장의 취임 이후 재개발에 착수(1966년 6월)되고 세운상가로 개발됨
 - 본래 지주조합은 ‘아세아상가변영회’를 설립하고 기공식을 거행했지만, 이 기공식에 참석한 김현옥 시장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흰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하여 큰 글씨로 ‘세운상가’라는 휘호를 쓰며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는 뜻으로 명명함(손정목 2003)
- 준공 직후에는 상류층이 거주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하향여과 발생
 - 5~13층에 위치한 상가아파트는 당시로서는 최고급아파트로 18.3평에서 25.5평 규모였는데, 당시에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투어 입주
 - 당시 지하철도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도 거의 없어, 도심인 종로·중구 내의 직장에 걸어다닐 수 있는 세운상가아파트는 대단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었고 상류층이 아니면 거주할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다고 함
 - 1970년대 들어 한강변에 현대·한양·삼익 등에 의해 대형 고급아파트가 건립되자 세운상가아파트의 거주층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여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하향여과 현상 발생



그림 12. 전자산업의 메카 세운전자상가(2016년 10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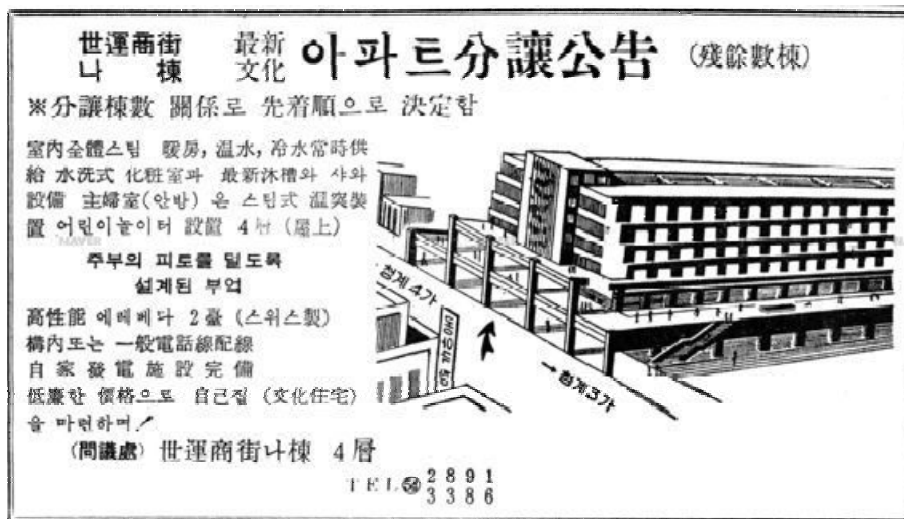


그림 13. 1968.10.14. “세운상가 나동 최신편화 아파트 분양공고”(공고, 동아일보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상가아파트 현황(16개 단지, 2,006세대)

○ 종로구(1,252세대)에 전체(2,006세대)의 절반 이상이 밀집

- 시범아파트가 용산구, 영등포구(여의도) 등 한강 주변에 밀집해있고 맨션아파트가 용산구 이촌동에 밀집한 것과 달리, 상가아파트는 서울의 구도심인 종로구에 절반 이상이 밀집해있음
- 이는 상가아파트가 1960년대, 1970년대 초 서울의 중심 상업지역이었던 곳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인데, 다른 1세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용산구에 숫자가 적다는 것으

- 로 봤을 때 당시 용산구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전통시장이 발달한 지역과 상가아파트의 분포가 비교적 일치
 -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세운, 낙원상가를 제외한다면 많은 상가아파트는 서울 도심 내 전통시장의 입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 동대문시장(동대문, 동문), 동묘 구제시장(동일, 송인), 중림시장(성요셉), 청량리시장(대왕), 인왕시장(원일, 유진) 등 전통시장 주변에 위치한 상가아파트가 대표적



그림 14. 안에 들어가서 찍으려다 경비아저씨께 혼난 낙원악기상가(2016년 09월 촬영)



그림 15. 1968.04.27. “약진하는 대서울 낙원 슈퍼마켓”(광고, 동아일보)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표 5. 상가아파트 현황(16개 단지, 2,006세대 존재)

구 별	지 구	세대수	건립년도	소재지	현황(2016. 09)
중 로	세 운	4 / 721	1967	장사동 116-4	존재 *관립
	낙 원	1 / 149	1968	낙원동 288	존재 *관립
	동대문	4 / 162	1968	창신동 436-79	존재
	동 문	1 / 52	1969	창신동 436-41	존재
	신 영	1 / 116	1971	신영동 119-1	철거
	동 일	1 / 66	1970	송인동 233-6	존재
	송 인	1 / 102	1979	송인동 204-11	존재
중 구	성요셉	1 / 68	1971	중림동 149	존재
	보 양	1 / 33	1972	인현동2가 190-1	존재
용 산	원 효	1 / 65	1972	원효로 166	존재
동대문	대 왕	1 / 21	1969	전농동 620-69	청량리 롯데플라자
성 북	삼 선	3 / 38	1969	동소문동2가 18	존재
	성북(OB)	4 / 78	1970	동소문동3가 11	철거
서대문	서소문	1 / 126	1970	미근동 215	존재
	원 일	1 / 40	1970	홍제동 294-36	존재
	유 진	1 / 185	1972	홍제동 298	철거 예정
	무궁화	1 / 10	1974	대현동 54-1	존재
마 포	남아현	1 / 70	1970	아현동 371-1	리모델링
영등포	영진(B)	2 / 40	1970	신길동 2363	재건축
	대 신	1 / 79	1970	신길동 116-15	존재
동 작	강남(1)	1 / 244	1970	상도동 488	존재
	명수대	1 / 51	1976	흑석동 97-2	존재
합계		34 / 2,516			

자료 : 강승현, 심우갑, 2009, 재구성

3. 1세대 아파트의 유형별 비교

□ 1세대 아파트의 공급주체별, 공급대상별 비교

- 서울시에서 공급(시민, 시범, 초기 상가)한 경우 단시간에 대규모로 공급되고, 민간(맨션, 상가)에서 공급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중·소규모로 공급
 - 서울시에서 공급한 시민, 시범아파트의 경우 각각 불과 2년이라는 단시간에 공급되었다는 점이 특징인데, 규모 역시 각각 단지 당 544세대, 361세대씩 공급되어 민간에서 공급한 맨션아파트의 단지 당 106세대에 비해 3~5배 규모
 - 서울시에서 공급한 초기 상가아파트, 세운상가(721세대)와 낙원상가(149세대)의 경우도

- 비슷한데 여타 상가아파트(평균 82.3세대)와 비교했을 때 대규모로 공급됨
- 이는 서울시에서 1세대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에서 공급할 때는 도시발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공지나 부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시민아파트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공급된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 1세대 아파트 중에 유일하게 시민아파트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숫자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입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공급단가를 낮췄고, 이에 따른 부실공사로 인해 45년 이상이 지난 현재 대부분 철거된 상황
 -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의 경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높아 비교적 튼튼하게 건립되었고, 현재도 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 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의 주된 논의대상

표 6. 1세대 아파트 유형별 비교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	맨션아파트	상가아파트
공급주체	서울시		민간, 개인	초기 서울시 / 이후 민간, 개인
시기	1969-1970	1970-1971	1965-1976 (대부분 1974 내)	1967-1979 (대부분 1976 내)
입지	주로 한강이북 산 중턱	한강 주변	도심 혹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	도심 내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대상	저소득층	중산층	중산층 이상	중산층, 상인
목적	판자촌 정리, 저소득층 주거지 제공	서울시 신뢰 회복, 재정난 타개	상업적 동기(이윤추구)	
공급규모	32단지 17,402세대 (단지 당 544세대)	9단지 3,249세대 (단지 당 361세대)	45단지, 4,777세대 (단지 당 106세대)	22단지, 2,516세대 (단지 당 114세대)
현존 (2016.09)	1단지 352세대 (조사대상 없음)	4단지 2,198세대	32단지, 3,412세대	16단지, 2,006세대
특이사항	국공유지에서 건물만 분양 / 현재 기준(2016) 대부분 철거됨	여의도(1970)는 토지까지 분양했으나, 나머지 단지는 국공유지에서 건물만 분양	-	세운(1967), 낙원(1968)은 서울시에서 추진, 나머지는 민간에서 추진

Ⅲ.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 청년들의 주거소요 특성

1. 대상자 선발 기준과 면접조사 방법

□ 대학생, 사회초년생(청년 직장인), 세어하우스 경험자를 각 2명씩 집단면접

- 1세대 아파트 공급 대상자로서 청년층을 가정하고, 이들의 주거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 집단 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
 - ‘표적 집단 면접’은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직장이 있는 청년층), 세어하우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층 그룹에 대해 각각 2인씩 집단 면접을 진행
 - 각 그룹은 생활 주기와 활동 반경, 주거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계층의 특성을 바탕으로 1세대 아파트의 핵심 수요계층과 적절한 공급 형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질문 문항을 현재의 주거지 선택기준과 1세대 아파트에 관한 문항으로 구분
 - 현재의 주거지 선택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면적, 프라이버시, 입지, 직주접근성(통학, 통근시간), 통풍 및 채광, 인테리어, 보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1세대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 현재(2016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기준이 1세대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
 - 면접조사 및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근거로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를 선별하는 기준을 확정지을 것
 - 면접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성별, 나이 등에서 청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표 7. 청년 면접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A	B	C	D	E	F
분류	대학생		사회초년생		셰어하우스 경험자 (직장인)	
성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나이	22세	25세	25세	29세	29세	30세
출신 지역	경북	강원	부산	경기	경남	경북
직업	대학생		영업관리직	연구원	연구원	공무원
서울 거주 기간	3년	6년	6년	7년	1년	2년
소득	-		260만 원	267만 원	120만원	250만원~ 300만원
주거비 (보증금/월세)	1,000 / 37.5	1,000 / 60	1,000 / 46	300 / 30	86 / 39	82.5 / 33
주거비 부담주체	주로 부모님		주로 본인			
현재 거주 형태	오피스텔 (2인 거주)	원룸	원룸	반지하 투룸 (1인 거주)	영리법인 셰어하우스	협동조합 셰어하우스

2. 면접대상 청년들의 현재 주거지 선택기준

1) 가격

□ 원룸²⁴⁾의 경우 월 50만원 이하, 셰어의 경우 월 30만원 중후반대 이하

- 원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할 때 월 50만원까지 지불용의가 있었으며, 대학생보다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회초년생(청년 직장인)이 그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
 - 사회초년생 C(25세 여성)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6만원을 부담하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도 생각하지만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은 50만원 이하로 줄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힘

보증금은 많으면 5,000(만원), 월세도 많으면 30(만원)... 월세를 줄이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제는 월급을 받아서 사니까 (...) 30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 (저도) 집에 들어가는 돈이 50만원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해서 50만원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 사회초년생 C(25세 여성)

24) 원룸은 법적용어가 아니며, 그 정의도 모호하지만 일상적으로는 1인 가구가 단독으로 방, 화장실, 부엌 등을 사용하는 주거형태를 이르는 때문에 일상용어를 주로 활용한 면접조사에서는 원룸이라고 표현

- 사회초년생 D(29세 남성)의 경우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부담하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었으며,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용이 50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가격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서대문구를 벗어난 데부터 찾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렴하다고 들은 게 은평구 쪽이었고. (...) 직장 들어오고 나서는 가격에 대한 여유는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아주 단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해도 30만 원도 월세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불만이 덜하니까. 가격은 좀 올리더라도 나은 집에 사는 게 좋지. (...) 보증금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출해서 다 맞춘다고 했을 때 이자비용이랑 월세랑 합쳐가지고 50(만원)이하. 50만원 내외 정도까지는 감당이 되겠는데 대출해서 보증금 채우면 그것도 이자비용을 똑같이 나가는데. 그것까지 했을 때 50만원까지 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사회초년생 D(29세 남성)

- 대학생 B(25세 남성)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부담하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주거지를 선택했으며 과거 4년간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선택지는 배제함

저는 무조건 넓은 집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넓은 집을 선택했어요. 포기한 건 당연히 가격이었죠. 다른 건 딱히 포기 안 한 것 같은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조금 멀어요. (대학교) 서문 쪽에 살면 학교까지 5분이면 가는데 지금은 길 건너야 해서 10분 정도 걸리죠. (...) 저도 잘 때 좀 예민한 편이라서. 예전에 4년 동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 수면 시간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가 완전 올빼미여가지고 저랑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잠을 잘 못잔 게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

- 대학생 B(25세 남성)

○ (하우스, 룸²⁵)세어의 경우 월 30만원 중후반대 이하로 지불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학생 A(22세 여성)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교의 인근 원룸의 가격대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60만원은 지불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함께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7.5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저는 가격이랑 집 넓이가 가장 큰 고려 대상이었어요. (...) 그래서 두 번째 집을 구할 때는 집 안에서 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구하자, 라는 게 목표였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1000에 60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사람을 같이 구해야겠다. 둘이 살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룸메이트를

25) 각자의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경우를 하우스세어, 방까지 공유하는 경우를 룸세어라고 표현함. 우리말로 집공유, 방공유라는 표현보다 청년층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굳이 외국어로 표기

구한 거였어요. 같이 살 사람을 먼저 정하고 집을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 가격이 해결되고 나면, 혼자 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 대학생 A(22세 여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는 현재 보증금 86만원, 월세 39만원을 부담하면서 세어하우스 2인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위치와 금전적인 부담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

위치랑 전체적으로 돈이 절약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했어요. 그 위치에 있는 세어하우스를 쭉 봤을 때, 홍대나 마포 근처에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는 현재 보증금 82.5만원, 월세 33만원을 부담하면서 세어하우스 1인실(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F가 거주하는 세어하우스의 경우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가격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음

M사 세어하우스에서는 포기한 게 개인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허비하는 시간을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 혼자서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일도 좀 많은 편이지만, 요새. 집에 왔을 때도 사람들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거나 논의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다른 시간을 확보하려면 되게 큰 마음을 먹어야 해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

□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세어하우스의 경우 월 38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

- 면접조사 결과와 주 40시간 노동 최저임금생활자의 소득 30%인 월 38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
 - 1세대 아파트의 경우 원룸보다는 방이 2개이거나 3개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어하우스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
 -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세어하우스의 경우 월 38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세어형 주거방식에 대한 지불용의 수준과 주 40시간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한 결과
 - 2016년 기준(시간급 6,030원)으로 주 40시간 노동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1,260,270원 수준이고, 이 수치의 30%는 378,081원임

2) 면적, 프라이버시

□ 셰어하우스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청년들에게 부적절한 거주형식

○ 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음

- 대학생 B(25세 남성)는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혼자서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

(분리된 방은) 조금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은 그냥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누군가 있다는 건 자체가 스트레스고, 자꾸 의견을 조절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의사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싫어서.

- 대학생 B(25세 남성)

- 직장인 C(25세 여성)는 현재 사는 원룸에 5년 전 상경할 때부터 거주했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은 없고 앞으로도 계획에 없음, 오히려 C는 현재의 집이 시설이 낡고, 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이 안정되는 대로 보다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길 원하고 있음

저는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보증금을 좀 더 주고 월세는 낮지만 좀 더 크고, 투룸 같은 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좁고. (왜 좁다고 느끼나요?) 짐이 많아져서요. 옷 같은 거랑 이불 등 이런 게 많아졌어요. 더럽고, 책 같은 거 버리고 버려도 계속 쌓여요.

- 직장인 C(25세 여성)

- 직장인 D(29세 남성)는 과거 유흥가 바로 옆에 위치한 고시원에 거주하며 소음에 시달린 경험을 이유로 조용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주거지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용한 거라서.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조용하게 혼자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학생 때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유흥가 바로 옆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학생 때도 좀 그런 걸 원했는데 직장 들어가서 더 심해졌죠.

- 직장인 D(29세 남성)

□ 셰어하우스는 경제적 유인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함

○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하고, 하우스메이트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대학생 A(22세 여성)은 현재 복층 구조인 오피스텔에서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공간이 보장된다면 같이 생활하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을 냄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개인적 생활.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불편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다만 개인적인 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층에 사는 거거든요. 원룸에 사는 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투룸이 되거나, 복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는 곳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누워있거나 밖에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 대학생 A(22세 여성)

- 셰어하우스 2인실에 거주하고 있는 E(29세 여성)는 과거에 원룸에서 혼자 거주한 적이 있는데, 당시 혼자 살면서 불규칙한 생활에 빠진 경험과 여성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현재의 셰어하우스에 만족하고 있음

제가 자취를 해봤는데 혼자 사니까 스스로가 좀 관리가 안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혼자 잠깐 살았거든요. 약 3개월? 그런데 너무 하루 종일 피자로 연명하고 청소도 너무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살면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여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 셰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

- 셰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는 타인과 함께 살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어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함

(타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우려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어요. 처음 셰어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굉장히 어설퍼던 것 같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 원래 성격이 같이 살고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혼자 살았는데 주거비 문제도 있고 사람들하고 뭔가 같이 살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그 전에 짧게 고시원에 살았을 때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셰어하우스)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나, 이런 게 궁금했죠.

- 셰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

□ 주거기본법에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1인당 방 1개, 14㎡ 이상 확보

- 면접조사 결과와 주거기본법에 따라 1인당 방 1개, 14㎡의 면적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
 -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셰어하우스 경험자 E를 제외하면 개인적인 공간(복층 중 한 층, 자신의 방)이 보

장되고 있음

- 또한 성인으로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거기본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1인당 방 1개, 14㎡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
- 다만, 이 때의 최저주거기준은 세어하우스형 주거공간이 아니라 원룸을 가정하고 선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세어하우스형 주거공간에서는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는 없음

3) 입지, 교통

□ 대학생은 대학가라는 전제가 존재, 직장인은 통근시간 편도 30분 이내

○ 대학생의 경우 대학가에 입지해야 한다는 큰 전제가 존재

- 대학생 A(22세 여성)는 대학가라는 큰 전제 하에서 집을 구했는데, 일반적인 대학가 하숙이나 원룸의 경우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걱정되어 대로변에 위치한 현재의 집을 구했다고 함

하숙이나 몰려있는 방이 되면 옆집 사람이라 엄청 거리가 가까운데 보통 남성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저는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집에서조차 안심을 못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생각했어요. 오피스텔을 구한 것도 너무 딱딱딱 붙어 있지 않은 집을 구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서문이나 남문, 그리고 신촌 지역에는 골목이 많은데, 저는 그것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대로변에 집을 구했구요

- 대학생 A(22세 여성)

- 대학생 B(25세 남성)도 A와 마찬가지로 대학가라는 큰 전제가 중요하지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힘, 그러나 A와 B가 재학중인 대학의 경우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일단은 보일러가 잘 나와야 되고요, 온수도 포함이에요. (처음 살던 집에서) 계속 보일러가 고장 나서 한겨울에 찬 물로 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능 좋고 잘 돌아가는 보일러가 있으면 좋겠고, 2순위가 학교와의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역이라 교통은 크게 상관없고. 다른 거는 그냥 지하가 아닌 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 대학생 B(25세 남성)

○ 직장인의 경우 통근시간으로 편도 30분 이내를 선호

- 직장인 C(25세 여성)는 현재 살고 있는 신촌의 중심지역(통근시간 편도 20분)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다음에 집을 고를 때는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조

용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

(앞으로 집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거는 방 크기랑 위치.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에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은 신촌의 아예 핵심 지역에 사니까 다 편한데, 이제는 조금 주거 지역 같은 데 살면서 신촌이나 이런 데도 거리도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요). 지금 신촌은 너무 좁고 다 밀집 되어 있고 여유가 없어요.

- 직장인 C(25세 여성)

- 직장인 D(29세 남성)는 상대적으로 교통편리성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하면서도, 지하철 기준으로 3~40분 이내에 통근할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다고 함,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조용한 주거지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냄

지하철 기준으로 환승을 한 번 하면 30분 정도였으면 좋겠고 환승을 안 해도 되는 곳이면 좀 더 걸려도 한 40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은 엄청 외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놀러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고 그런 거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러가는 거는 많아봐야 일 주일에 주말 두 번인데 출퇴근 하는 거는 일주일에 다섯 번씩 꼬박꼬박 왕복을 해야 하니까.

- 직장인 D(29세 남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는 현재 집(통근시간 편도 30분)을 선택할 때 거주 비용과 직장 및 편의 시설과의 거리, 교통 등의 사항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함

위치랑 전체적으로 돈이 절약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했어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도 현재 집(통근시간 편도 30분)을 선택할 때 공급 주체가 추구하는 가치만큼 집의 위치가 중요한 기준이었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공급 주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위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

□ 입지와 교통과 관련된 특별한 기준은 두지 않음

- 대학생은 대학가를 직장인은 상업업무지구 인접지역을 선호할 것이나, 대학과 상업업무지구는 서울 전역에 분포

- 서울은 전국에서 대학과 상업업무지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면접대상 청년 개개인에게는 선호하는 지역이 존재할 것이나 지역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해당 지역의 대학 생과 해당 지역으로 통근하는 청년들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가 대개 1960-1970년대 당시 도심, 상업지역에 건립되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지와 교통과 관련된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아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4) 시설, 관리

□ 단독사용의 경우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교적 소소한 이슈가 존재

○ 단독사용의 경우 보일러 수리, 세면대 부품 등 비교적 소소한 수선·유지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

- 대학생 B(25세 남성)는 처음으로 독립했던 집의 집주인이 보일러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고생한 경험이 있어,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해주는 집을 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냄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집주인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집주인도 좀 보고 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고장 났어도 잘 안 고쳐주고 그냥 쓰라고 하고 처음 집이 (그랬어요). (처음 집에서) 집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보일러가 1~2주에 한 번씩 고장났었는데 손으로 푹푹딱딱 하더니 이제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식이셔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집을 거의 새집으로 간 거거든요. 이것저것 멀쩡한 데로. 지금 사는 곳은 지은 지는 좀 됐는데 집주인이 뭐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세요. 그게 좀 좋아가지고, 다음엔 집주인이 좀 좋은 곳으로 구할 것 같아요.

- 대학생 B(25세 남성)

- 직장인 C(25세 여성)도 B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면대 부품을 제대로 교체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자신은 곧 이사갈 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음

세면대 그 펌핑하는 그 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뜯어서 버려 버렸거든요. 주인한테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다음에 한 번 해주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도 귀찮아서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주인도 까먹어가지고.

- 직장인 C(25세 여성)

- 직장인 D(29세 남성)는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거지만 갖춰진다면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제 생활 양식을 생각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가구가 거의 없었어요. 이불은 이미 쓰던 게 있었고, 전에 원룸 살 때도 침대를 쓰다가 너무 낡아가지고 매트리스 버려버리고 그냥 바닥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불은 있고, 옷은 별로 안 많으니까 행거 쓰던 거 가져가서 행거로 쓰고. 냉장고랑 세탁기만 샀어요. 재활용센터 가서.

- 직장인 D(29세 남성)

□ 세어형의 경우 시설 수선·유지는 물론 입주자 간 관계에 대한 이슈도 존재

○ (하우스, 룸)세어의 경우 시설의 수선·유지만 아니라 입주자 간 관계에 대한 측면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 대학생 A(22세 여성)는 물리적인 시설, 관리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강조했는데, 하우스메이트를 통해서 치안에 대한 안정감과 배달음식을 나누어먹을 수 있는 등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

근데 저는 둘이 살면서 생각을 했던 건, 불안한 건 되게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 때는 좋기는 한데, ‘만약에 누가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혼잔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단 집에 둘이 있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혼자 자취를 하면 되게 밥 챙겨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1인분 배달하는 건 안 쉽고, 요리하는 건 더 어렵고, 요리를 해도 1인분 요리를 똑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사먹기에는 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 둘이 사는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 대학생 A(22세 여성)

- 협동조합 세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F(30세 남성)는 입주 조합원으로서 주택관리와 관련된 이슈를 입주 조합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로 인해 관리비를 줄이는 차원도 있음을 밝힘

협동조합에서 공급을 했다 보니까 조합의 가치에 위배가 된다거나 혹은 논의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항일 때는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아요). 같이 논의를 하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방식이죠, 입주 조합원들이. 청소는 직접 사는 사람들이 하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없는 거고. 관리를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함으로써 관리비를 없앤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

- 영리법인 세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E(29세 여성)는 시설 수선·유지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제공되기로 한 휴지, 시리얼 등에 관련된 이슈도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이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낡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면 교체를 해주세요. 그래서 경수기랑 세탁기도 바꿨고, 화장실도 틈새에 낡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단체채팅방이 있어서 사장님에게 바로 바로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고쳐주세요). 저희는 물품은 다 사장님이 제공해주셔야 해서 세제가 떨어졌다 (말하면) 사주시고, 휴지가 떨어졌어요 (말하면) 사주시고, 시리얼도 무한 제공해준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시리얼도 떨어지면 사다주시고. 사장님이 되게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집사 같은 분이신 거

쥔. 저희는 돈을 내고 있으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서 제각제각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셰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

□ 셰어하우스 임대수입의 20%가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고 가정

- 일반적인 주택임대관리업계의 수수료율은 5%²⁶⁾로 알려져 있으나, 셰어하우스의 경우 입주자 간 관계가 중요한 이슈이기 있기 때문에 20%로 책정
 - 주택임대관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로 업무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주택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수료율은 5%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5%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을 1동 단위로 임대관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셰어하우스는 그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규모의 경제에서 불리하고 입주자 간 관계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되어야 함
 - 셰어하우스 모 업체의 경우 임대수입의 20%를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활용

3. 면접대상 청년들의 1세대 아파트와 셰어하우스 관련 의견

1) 1세대 아파트의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1세대 아파트에도 적용

- 1세대 아파트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라는 점을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물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면접대상 청년들은 1세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직접 실물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보안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응답하는 데 애로사항이 존재
 - 그러나 비록 오래되었지만 아파트라는 점, 지상이라는 점은 기존의 원룸이나 반지하에 거주했던 응답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며, 1세대 아파트의 불리한 조건 자체에 흥미를 갖는 응답자도 있었음
 - 대학생 A(22세 여성)는 아파트는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측면이 넓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표시

26) 2015.07.08. “[채테크의 여왕]성공적인 주택임대관리업 팁은…원룸 관리 노하우”, 이데일리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파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호라 함은, 물리적인 것도 있고 뭔가, 지식은 없지만 뭔가 법적으로도 보호 받는 느낌?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는 그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재단이나 뭐 그런 몸집이 큰 주체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관리실도 있고, 경비실과 이런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 대학생 A(22세 여성)

- 직장인 C(25세 여성)는 독립하기 전의 경험에서 유래한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방역, 난방 차원에서 일반 주택보다 장점이 있다는 실리적인 이유를 들며 같은 조건이라면 일반적인 세어하우스보다는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세어하우스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같은 가격의 같은 조건이라면 저는 일반 세어하우스보다 1세대 아파트에 살지 않을까. 왜냐면, 아파트가 좀 편하고. 원래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도 있고. 주택은 한 번 살아보니까 벌레도 많고. 원룸 이런 일반 주택가에는 벌레, 모기, 바퀴벌레 (...) (그리고 일반 주택은) 좀 좁고. 아무래도 주택은 좀 좁더라고요. 외풍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아파트는 훨씬 그게 낫죠. 안정적이고 보안도 잘 되어있고.

- 직장인 C(25세 여성)

- 직장인 D(29세 남성)는 룸메이트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세어하우스에서 다인실에 거주할 용의까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층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근데 그래도 방을 같이 쓰게 될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방을 공유하더라도 (괜찮아요). 지상이잖아요.

- 직장인 D(29세 남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는 낡은 집을 바뀔나가는 과정 자체에 흥미가 있다며 1세대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불리한 조건에 대해 오히려 흥미롭다는 반응

오래된 집이다보니 단열이나 습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낡은 집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케어할지 (...)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차라리 난방 텐트 같은 걸 기본으로 한단다가, 발상을 재밌게 해서 그런 곳이다, 약간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

2) 1세대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 측면에 대한 의견

□ 마을,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1세대 아파트에 대한 기대

- 평균 40년 이상된 1세대 아파트가 마을,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됨
 - 대학생 A(22세 여성)는 1세대 아파트에서 마을과 지역사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이미지로는 정겨움이나 친근한 분위기를 떠올리고 있었음

아파트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 분위기가 난다거나, 주민들의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지역사회를 만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 시장 있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겨울 것 같고, 친근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건, 아파트가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역사도 긴 거니까. 저는 마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마을들에 청년들이 녹아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 대학생 A(22세 여성)

- 직장인 C(25세 여성)도 A와 마찬가지로 1세대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정겨운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살았던 곳에서 경험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응답

저는 약간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거가 좋고, 원래 어릴 때 빌라에서 살았을 때 모든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거를 그리워하는 편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랜드마크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 직장인 C(25세 여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는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1세대 아파트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신규 유입되는 청년들과 원주민들 간의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역사성이나, 그리고 일단 자기가 동네랑 어떻게 닿아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주민들 중에서도 그 집과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70년대부터 있었으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래된 집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한단데, 궁금하다 이러면, 가끔 이벤트 같이 방을 공개해서 초대할 수도 있는 그런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세어하우스 경험자 F(30세 남성)

□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주거를 매개로 한 공동체 자체에 대해 피로감을 표시

- 힘든 서울살이 속에서 집은 일종의 피난처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집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피로감을 표시
 - 대학생 B(25세 남성)는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를 공동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집이란 공간도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고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에게 있어 공동체와 관련된 욕구는 학교에서 충족

저는 사실 서울 사는 게 나의 고장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기대는 안 들어요). 2년 살다가 옮길 때도 집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공동체가 형성된 적도 없었고 집주인이랑 얼굴 몇 번 본 정도. 옆집 사람이라는 거의 인사 안 해봤던 것 같고, 거의... 그런 건 전혀. 그냥 조건만 맞다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사실 학교에서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 대학생 B(25세 남성)

- 직장인 D(29세 남성)는 큰 틀에서 B와 비슷한 응답을 했는데, 서울살이의 현실에서 문화적인 측면은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반응이었고 만약 자신이 1세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배타적인 문화만 없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쓰는 쪽은 아니예요. 항상 현실에 쏠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 배타적이지만 않으면 별로 문제될 건 없지 않나.

- 직장인 D(29세 남성)

- 세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에게 있어 집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피로감이 느껴진다고 응답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하고, 집을 관리하는 부분은 최소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온전히 나만 신경쓰면 되는데, 어쨌든 평생 그렇게 살 순 없으니까 그런 걸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서 해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 세어하우스 경험자 E(29세 여성)

4.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

□ 면접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소요 특성을 정리,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 도출

-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각 항목별로 근거를 찾아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을 도출

표 8.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 청년들의 주거소요와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

구분	항목	면접조사 결과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	근거
일반 청년주거지	가격	단독사용은 월 50만원 이하, (하우스, 룸)세어형은 월 30만원 중후반대 이하	월 38만원 이하	주 40시간 최저임금생활자의 소득 30% 이하
	면적,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경우 세어형은 부적절한 주거유형, 세어형은 경제적 유인동기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함	1인당 방 1개, 14㎡ 이상 확보	주거기본법에 고시된 최저주거기준
	입지, 교통	대학생은 대학가라는 전제가 존재, 직장인은 통근시간 편도 30분 이내	특별한 기준은 두지 않음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의 경우 입지와 교통을 충족
	시설, 관리	단독사용의 경우 수선·유지와 관련된 소소한 이슈가 존재, 세어형의 경우 시설 수선·유지는 물론 입주자 간 관계에 대한 이슈도 존재	임대료의 20%가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사용	모 업체의 경우 임대료의 20%를 사용한 사례
1세대 아파트	노후 시설	일반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1세대 아파트에도 적용	-	-
	공동체 문화	공동체문화에 대한 기대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주거공동체 자체에 대해 피로감이 공존	-	-

- 가격은 1인당 월 38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1인당 방 1개와 14㎡ 이상의 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20%가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1세대 아파트를 청년주거지 대상으로 선별해야 함
- 면접조사 대상 청년들의 경우 1세대 아파트의 노후 시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으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공간까지 공동체 문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있음을 확인했기에 사전에 공동체 문화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확인

IV. 청년주거지로서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탐색

1.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1세대 아파트

□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주거소요 특성에 적합한 1세대 아파트 선별

○ 1세대 아파트 선별을 위한 작업과정과 그 전제조건

- 앞서 선정한 1세대 아파트 선별 기준(인당 월 38만원 이하 부담, 방 1개 14m² 이상, 임대료의 20%는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사용)을 충족하는 곳을 선별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시범아파트, 맨션아파트, 상가아파트)의 시세를 전수조사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리
- 시세자료는 네이버 부동산 시세정보²⁷⁾와 부동산 114 시세정보²⁸⁾를 활용하였으며, 실거래가격 정보가 올라오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²⁹⁾의 전월세가격정보도 참고. 2016년 자료가 없는 곳은 공란처리
- 동일한 1세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면적과 구조가 다양하고, 시세정보도 매매부터 전세, 월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시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함
- 면적이 넓고 방이 많은 곳을 우선하였고, 월세 계약보다는 전세 계약을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세어하우스의 경우 방이 많을수록, 저금리기조 탓에 전세 계약을 할수록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염두해 둔 원칙으로 최대한 많고 다양한 유형의 1세대 아파트를 검토하기 위함
- 수집한 시세자료는 2016년 3/4분기 각 지역구별 전월세전환율³⁰⁾을 적용하여 가공³¹⁾하였으며, 여기에 임대료의 20%를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합산하여 방의 크기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평균적인 인당 면적 자료와 인당 임대료 자료를 산출함

27) 네이버 부동산, <http://land.naver.com/>

28) 부동산 114, <http://www.r114.com/>

29)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30)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31)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 월세} / 방 개수 = 인당 조달가격

표 9.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 시세자료와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단위: m², 만원)

유형	구 별	지 구	세대수	건립년 도	소재지	면적 (전용)	방 개수	보증금	월 세	전월세 전환율	인당 면적	인당 조각면적	인당 임대료	비고
시범 아파트	웅 신	중 산	266	1970	이촌동	39	2	9,000	-	6.00%	19.5	22.5	28.13	*시유지
		이 촌	228	1970	이촌동	69	3	15,000	-	6.00%	23.0	25.0	31.25	*시유지
		한 남	120	1970	한남동	69	3	20,000	-	6.00%	23.0	33.3	41.63	*국유지
	영등포	여의도	1,584	1970	여의도동	157	4	55,000	-	5.50%	39.3	63.0	78.75	
맨션 아파트	중 로	피어선	64	1970	신문로2가					-				
		파크맨션	18	1973	필운동					-				
	중 구	하니맨션	19	1972	필동1가					-				
		필동미주	31	1975	필동3가					-				
	웅 신	남신맨션	122	1965	한남동	178	4	80,000	-	6.00%	44.5	100.0	125.00	
		효창맨션	61	1968	효창동	59	2	18,000	-	6.00%	29.5	45.0	56.25	
		탐라인	32	1970	이태원동					-				
		강변맨션	146	1970	이촌동	61	3	16,000	-	6.00%	20.3	26.7	33.38	
		한강맨션	660	1970	이촌동	121	4	55,000	-	6.00%	30.3	68.8	86.00	
		성아맨션	94	1970	한남동	102	3	22,000	-	6.00%	34.0	36.7	45.88	
		풍전맨션	138	1971	원효로4가	83	3	21,000	-	6.00%	27.7	35.0	43.75	
		사직맨션	13	1971	원효로4가					-				
		리버뷰맨션	56	1971	이촌동					-				
		노들맨션	18	1971	이촌동	179	4	5,000	250	6.00%	44.8	68.8	86.00	
		골든맨션	48	1971	이촌동					-				
		정우맨션	24	1971	이촌동	317	6	10,000	450	6.00%	52.8	83.3	104.13	
		타워맨션	60	1973	이촌동	202	4	43,000	-	6.00%	50.5	53.8	67.25	
		점보맨션	144	1974	이촌동	217	5	10,000	250	6.00%	43.4	60.0	75.00	
		빌라맨션	70	1974	이촌동	229	6	80,000	-	6.00%	38.2	66.7	83.38	
		왕궁맨션	250	1975	이촌동	102	4	43,000	-	6.00%	25.5	53.8	67.25	
		웅산미주	70	1975	이촌동	149	5	75,000	-	6.00%	29.8	75.0	93.75	
		반도맨션	192	1976	이촌동	168	6	10,000	350	6.00%	28.0	66.7	83.38	

상	성	인암맨션	76	1969	인암동4가	64	3	14,000	-	5.50%	21.3	21.4	5.35	26.75
		대광맨션	357	1971	인암동3가	47	2	1,000	50	5.50%	23.5	27.3	6.83	34.13
평	인	역촌맨션	84	1973	갈현동	66	3	2,000	50	5.70%	22.0	19.8	4.95	24.75
		홍제맨션	41	1965	홍제동	84	3	5,000	50	5.40%	28.0	24.2	6.05	30.25
서대문		인산맨션	44	1974	홍제동	53	2	13,000	-	5.40%	26.5	29.3	7.33	36.63
		인왕궁맨션	113	1974	홍제동	71	3	18,000	-	5.40%	23.7	27.0	6.75	33.75
		광산맨션	58	1974	홍제동	54	2	6,000	-	5.40%	27.0	13.5	3.38	16.88
		고은맨션	136	1975	홍제동	62	2	15,000	-	5.40%	31.0	33.8	8.45	42.25
		북아현맨션	79	1975	북아현동				-					
마	포	해성맨션	94	1973	아현동	90	3	30,000	-	5.80%	30.0	48.3	12.08	60.38
		세운	721	1967	장사동116-4	72	2	22,000	-	5.60%	36.0	51.3	12.83	64.13
종	로	낙원	149	1968	낙원동288	72	2	5,000	100	5.60%	36.0	61.7	15.43	77.13
		동대문	162	1968	창신동436-79	48	2	10,000	-	5.60%	24.0	23.3	5.83	29.13
		동문	52	1969	창신동436-41	42	2	8,500	-	5.60%	21.0	19.8	4.95	24.75
		동일	66	1970	송인동233-6	43	2	4,000	-	5.60%	21.5	9.3	2.33	11.63
		송인	102	1979	송인동204-11	94	3	25,000	-	5.60%	31.3	38.9	9.73	48.63
종	구	성요셉	68	1971	중림동149	47	2	1,000	50	5.20%	23.5	27.2	6.80	34.00
		보양	33	1972	인현동2가190-1				-					
상가	아파트	원효	65	1972	원효로166	55	2	11,000	-	6.00%	27.5	27.5	6.88	34.38
		삼신	38	1969	동소문동2가18				-					
서대문		서소문	126	1970	미근동215	49	2	7,500	-	5.40%	24.5	16.9	4.23	21.13
		원일	40	1970	홍제동294-36	69	3	3,000	30	5.40%	23.0	14.5	3.63	18.13
영등포		무궁화	10	1974	대현동54-1				-					
		대신	79	1970	신길동116-15	74	2	12,000	-	5.50%	37.0	27.5	6.88	34.38
동작		강남(1)	244	1970	상도동488	52	3	4,000	60	5.30%	17.3	25.9	6.48	32.38
		명수대	51	1976	흑석동97-2	88	3	27,000	-	5.30%	29.3	39.8	9.95	49.75

자료 :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114,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재구성

□ 대지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나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시범아파트

- 시범아파트는 국·공유지 위에 건립된 단지와 사유지 위에 건립된 단지가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시범아파트 중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두 단지(중산, 이촌)의 경우 인근의 맨션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입지에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인당 임대료의 계산 결과는 월 38만원 이하가 도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이유는 두 단지의 경우 대지가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가격 자체가 건물분에 한정되어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임대가격도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
 - 반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원체 입지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대지가 대부분 사유지라는 점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가격이 임대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공유지 시범아파트인 중산, 이촌, 한남의 2배인 월 78.75만원을 기록



그림 16. 정재호작, 2005. “중산시범아파트”

자료 : 나르돌돌 블로그, <http://nardoldol.egloos.com/m/1913669>

□ 용산구와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된 맨션아파트

- 맨션아파트는 크게 용산지역과 성북, 은평, 서대문구 지역으로 구분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시범아파트와는 다르게 중·소규모의 단지가 많은 맨션아파트의 경우 7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에서 2016년 시세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부득이 공란처리한 경우가 있음
 - 조사대상 맨션아파트 숫자의 1/2에 해당되는 용산구 이촌동의 경우 강변맨션(월 33.38만원)만이 조건을 충족시켰고, 시세를 파악한 나머지 전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하고 있어 청년주거지로서 부적절함
 - 이촌동 지역의 맨션아파트는 건립단계부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삼아 대형평수의 고급아파트로 지어져 임대료가 높았고, 현재도 재건축, 재개발 이슈를 갖고 있어 여의도

- 시범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토지가격까지 임대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강변맨션을 제외한다면 이촌동 맨션아파트의 인당 임대료는 월 67.25 ~ 104.13만원에 분포하는데,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인당 78.75만원을 기록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
- 반면에 성북, 은평, 서대문구에 소재한 맨션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상대적으로 중·소형 평수로 지어졌고 여의도나 용산구 이촌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다는 점이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상대적인 입지가 좋지 않을 뿐이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지가 나쁘다고 할 수 없음

□ 공급주체(공공 혹은 민간)에 따라 구분된 상가아파트

- 상가아파트는 서울시가 공급한 세운, 낙원상가와 민간에서 공급한 일반 상가아파트로 구분되어 다른 결과를 보임
- 상가아파트는 서울시가 공급한 세운, 낙원상가가 다른 민간에서 공급한 상가아파트보다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청년주거지로서 주거비가 비싸다는 결론을 내림
- 세운, 낙원상가는 그 자체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 주변과 독립되어 있고 비교적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비해 일반 상가아파트는 기존 전통시장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상을 주어 임대료가 낮게 형성되었다고 추측
- 송인(월 48.63만원, 1979년 건립) 명수대(월 49.75만원, 1976년 건립)의 경우 다른 상가아파트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건립되었다는 점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7. 동문상가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동대문상가아파트
인근지역(2016년 10월 촬영)

2. 정량적 평가에 따른 1세대 아파트의 가능성 평가

1) 서울(강북) 아파트 전세, 수도권 대학생 원룸 가격과 비교

□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비교

○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40% 수준

- 앞서 청년 주거소요 기준에 따라 선별된 1세대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매월 국민은행³²⁾에서 발표되는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비교한 결과 중형과 중소형 아파트 둘 다 40% 수준의 가격인 것으로 결과 도출
- 이는 평균적인 서울의 아파트를 활용하는 모델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를 지불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평균 가격의 40% 수준 이하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현재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활용한 셰어하우스 절대 대수가 방 1개를 2인 이상이 셰어하고 있는 룸셰어 형태라는 것도 이 점을 반영하고 있음

32) KB부동산, <http://nland.kbstar.com/>

표 10. 선별된 1세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비교

구분(전용, ㎡)	대형 (1360이상)	중대형 (1360미만~96.9)	중형 (96.9미만~62.8)	중소형 (62.8미만~40)	소형 (40 미만)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평균(2016.09)	66,947	46,794	35,248	25,173	13,628
선별된 1세대 아파트 평균(201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3,901	10,730	9,000 (표본 1개)
비율	-	-	39.4%	42.6%	66.0%

자료 : KB부동산, <http://nland.kbstar.com/>

- 앞서 청년 주거소요 기준에 따라 선별되지 않은 1세대 아파트까지 전체를 포괄하여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은데, 용산구 이촌동의 맨션아파트가 주로 해당되는 대형과 중대형의 경우에는 서울 강북 평균 가격의 85.5~104.2%에 이를 정도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었고, 중형과 중소형의 경우에 46.2~54.5%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비교

구분(전용, ㎡)	대형 (1360이상)	중대형 (1360미만~96.9)	중형 (96.9미만~62.8)	중소형 (62.8미만~40)	소형 (40 미만)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평균(2016.09)	66,947	46,794	35,248	25,173	13,628
조사대상 1세대 아파트 평균(2016)	69,778	40,000	19,195	11,618	9,000 (표본 1개)
비율	104.2%	85.5%	54.5%	46.2%	66.0%

자료 : KB부동산, <http://nland.kbstar.com/>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수도권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2014)와 비교

○ 수도권 대학생 원룸 평균 전세가격의 50% 수준

- 원룸의 정의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관련된 통계 중에 신뢰성 있는 수치를 구하기 어려움. 그나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³³⁾(2014)가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활용
-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의 평균 월세보증금은 평균 1,418만원으로, 한 달 평균 월세로는 42만 원을 지출

33)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5.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전월세전환율로 6%를 가정한다면 이는 1인당 전세 9,818만원³⁴⁾에 해당하는 금액
- 앞서 선별한 1세대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방 3개인 중형아파트가 전세 13,901만원, 방 2개인 중소형아파트가 전세 10,73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 아파트의 방 1개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생 원룸 가격의 45.8~54.6% 수준

표 12. 선별된 1세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수도권 대학생 원룸 전세가격 비교

구분(전용, m ²)	대형 (136이상)	중대형 (136미만~96.9)	중형 (96.9미만~62.8)	중소형 (62.8미만~40)	소형 (40 미만)
수도권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2014)	-	-	-	-	9,818 (방 1)
선별대상 1세대 아파트 평균(201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3,901 (방 3)	10,730 (방 2)	9,000 (방 2)
비율	-	-	47.2%	54.6%	45.8%

자료 : KB부동산, <http://nland.kbstar.com/>

□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음

-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 접근할 경우 기존 아파트, 원룸보다 경쟁력 있다고 판단
 -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나,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입지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음
 -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1세대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40%, 수도권 대학생 원룸의 50%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 셰어하우스의 순현재가치(NPV) 계산

□ 순현재가치(NPV)와 계산을 위한 전제

- 전세금은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으로 조달(전세금 70%, 연 2%)
 -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는 어떤 사업에서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모두 할인하여 합산하는 계산 방식으로, 현금흐름에 화폐의 시간가치(할인율)를 반영하여 사업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 일반적으로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
 - 먼저 전세금은 70%는 대출, 30%는 자부담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서울시 사회

34) 1,418만원 + (42만원 / 6% * 12개월) = 9,818만원

- 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용자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최대 70%를 연 2%로 조달(최대 5년)할 수 있어 이를 기준³⁵⁾으로 적용, 단 사회적경제 주체나 서울시가 사업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전제가 존재
- 전세금은 앞서 조사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최초 2년 계약 이후에는 10% 인상하는 조건으로 1회 재계약(총 4년 계약). 청년 입주자의 보증금과 월세도 2년 후에 동일한 비율(10%)로 인상
 - 청년 입주자에게 받는 보증금은 월세의 2달치이고 월세는 앞서 계산한 인당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00% 전월세전환을 한다고 가정
 - 대출부대비용은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수수료, 전세권등기 등의 비용이며 대출금액의 1%로 계산
 - 인테리어비용은 인당 200만원씩,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고 임대관리비용은 임대료의 20%, 공실률은 10%로 가정
 - 할인율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회적 실질 할인율로 활용하고 있는 5.5%³⁶⁾를 적용

□ 국공유지 시범아파트의 순현재가치(NPV) - 이촌 시범아파트

- 3인 평균 월세(31.25만원), 운영주체 기초투자(5,062만원), NPV(485만원)
 - 앞서 선별한 1세대 아파트를 크게 세 부류(국·공유지 시범아파트, 성북·은평·서대문 맨션아파트, 민간 상가아파트)로 구분하였을 때, 국·공유지 시범아파트로서 이촌 시범아파트를 대상으로 NPV 분석을 실시
 - 방 3개인 이촌 시범아파트의 경우 평균 월세는 앞서 31.25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위에서 논의한 전제에 따라 계산할 경우 기초투자는 5,062만원이 필요했고 NPV는 485만원을 기록
 - NPV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기초투자금액이 5,062만원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음

35)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2016.04.01.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공고(수정)”, 공고문

3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08.27. “2013년 하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5쪽

표 13. 이촌 시범아파트 4년 전세계약 NPV 계산(단위 : 만원)

구 분		기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합계
현금유입	대출	10,500	-	1,050	-	-	11,550
	보증금	188	-	19	-	16,500	16,707
	월세	-	1,125	1,125	1,238	1,238	4,726
유입합계		10,688	1,125	2,194	1,238	17,738	32,983
현금지출	보증금	15,000	-	1,500	-	206	16,706
	대출이자	-	210	210	231	231	882
	대출부대비용	150	-	15	-	-	165
	대출상환	-	-	-	-	11,550	11,550
	인테리어	600	-	-	-	-	600
	임대관리비	-	225	225	248	248	946
	공실률	-	113	113	124	124	474
지출합계		15,750	548	2,063	603	12,359	31,323
현금유입 - 현금지출		-5,062	577	131	635	5,379	1,660
할인율		-	1,055	1,113	1,174	1,239	-
순현재가치		-5,062	547	118	541	4,341	485

□ 성북·은평·서대문구 맨션아파트의 순현재가치(NPV) - 인왕궁맨션

- 3인 평균 월세(33.75만원), 운영주체 기초투자(5,978만원), NPV(351만원)
 - 성북·은평·서대문구 맨션아파트의 사례로 인왕궁맨션을 대상으로 NPV 분석을 실시
 - 앞서 이촌 시범아파트와 비슷한 결과를 낳았지만 운영주체의 기초투자는 더 필요하고, NPV는 더 낮았음
 - 일반적으로 용산구 이촌동(이촌 시범아파트)이 서대문구 홍제동(인왕궁맨션)보다 입지가 양호하고 시세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촌 시범아파트가 시유지 위에 건설되어 시세가 저렴하다는 점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표 14. 인왕궁맨션 4년 전세계약 NPV 계산(단위 : 만원)

구 분		기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합계
현금유입	대출	12,600	-	1,260	-	-	13,860
	보증금	203	-	20	-	19,800	20,023
	월세	-	1,215	1,215	1,337	1,337	5,103
유입합계		12,803	1,215	2,495	1,337	21,137	38,986
현금지출	보증금	18,000	-	1,800	-	223	20,023
	대출이자	-	252	252	277	277	1,058
	대출부대비용	180	-	18	-	-	198
	대출상환	-	-	-	-	13,860	13,860
	인테리어	600	-	-	-	-	600
	임대관리비	-	243	243	267	267	1,021
	공실률	-	122	122	134	134	510
지출합계		18,780	617	2,435	678	14,761	37,270
현금유입 - 현금지출		-5,978	599	61	658	6,376	1,716
할인율		-	1,055	1,113	1,174	1,239	-
순현재가치		-5,978	567	55	561	5,146	351

□ 민간공급 상가아파트의 순현재가치(NPV) - 원효상가아파트

- 2인 평균 월세(34.38만원), 운영주체 기초투자(3,672만원), NPV(396만원)
 - 청년 주거소요 기준에 따라 선별된 상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방이 2개인 곳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현장조사 시에 대부분의 상가아파트가 전통시장 내부에 위치한 입지 탓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
 - NPV 분석 결과로는 운영주체 기초투자에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NPV를 기록하고 있음

표 15. 원효상가아파트 4년 전세계약 NPV 계산(단위 : 만원)

구 분		기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합계
현금유입	대출	7,700	-	770	-	-	8,470
	보증금	138	-	14	-	12,100	12,251
	월세	-	825	825	908	908	3,466
유입합계		7,838	825	1,609	908	13,008	24,187
현금지출	보증금	11,000	-	1,100	-	151	12,251
	대출이자	-	154	154	169	169	647
	대출부대비용	110	-	11	-	-	121
	대출상환	-	-	-	-	8,470	8,470
	인테리어	400	-	-	-	-	400
	임대관리비	-	165	165	182	182	693
	공실률	-	83	83	91	91	347
지출합계		11,510	402	1,513	442	9,063	22,929
현금유입 - 현금지출		-3,672	424	96	466	3,945	1,258
할인율		-	1,055	1,113	1,174	1,239	-
순현재가치		-3,672	402	87	397	3,184	396



그림 18. 중림시장과 붙어있고, 선형의 외관이 독특한 성요셉아파트(2016년 10월 촬영)

3.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한 1세대 아파트의 정성적 평가

□ 꾸준한 물건 발굴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조건

- 세대별로 산재되어 있는 모델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성형할 수 있어야 하는데, 1세대 아파트의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임대료의 20%가 주택임대관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수치의 근거가 되는 모 업체에서는 보통 8명 전후의 인원이 한 세대에서 거주
- 1세대 아파트의 경우 2~3명이 한 세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주택임대관리비용 20%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렇다면 한 단지 내에 여러 세대를 묶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
-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주택을 꾸준히 연구해 온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하 새사연)의 진남영 원장은 1세대 아파트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1세대씩 세어하우스로 접근하는 방식은 주택관리 부분에서 리스크에 취약할뿐더러 지속가능하게 물건을 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평가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관리에 대한 리스크에 너무 취약해요.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1~2세대 해보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그 이상에는 의심이 들어요. 지속가능하게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씩 세어하우스로 접근하는 것은 확정성에서 고민이 됩니다.

- 진남영(새사연 원장)

- 서울에서 적정수준으로 활용가능한 노후주택을 찾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음
-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주)오늘공작소(이하 오늘공작소)의 신지예 대표는 마포구 망원동의 부흥주택³⁷⁾ 3세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주거지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망원동 부흥주택에서 재건축이 추진되자 퇴거를 요구받은 상황
- 또한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이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주거지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활용가능한 물건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1세대 아파트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저희는 1세대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중지된 지역 성북이나 혜화, 아현 비어있는 곳이나 망원동 쪽에 부흥주택 비슷한 지역을 알아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세가 비싸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집세가 낮으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였어요. 부흥주택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호의적인 집주인조차도 나가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4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관리하는 경험이나 문화 자체가 많지 않아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

37)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대한주택영단(LH공사의 전신), 상업은행 및 서울시 등이 산업은행국채발행기금 또는 귀속재산처리적립금 중 주택자금용자를 통하여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정아선, 최장순, 최찬환, 2004 참고)

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서울시 관계자는 배관을 예로 들며, 40년 이상 주택의 경우 대부분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고 현재의 전대(전세 후 임차)모델의 경우 건물주, 운영주체, 청년입주자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배관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집 안에서 봤을 때는 도배하고 장판하면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40년 넘어가고 그런 아파트면 배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래층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입주자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전대하는 방식이면 이걸 누가 책임질거냐는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해져요.

- 서울시 관계자

- 새사연의 진남영 원장은 기존에 빈집(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없었던 주택)이나 장기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기업 등이 리모델링·인테리어하여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모델도 예상치 못한 관리비용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40년이 넘는 1세대 아파트의 경우는 더 심할 수 있다고 경고함

A사와 B사에서도 인건비 문제나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한 계산, 책정이 안되고 있고, 공실, 모집에 대한 계산 비용, 공실이 얼마나 날지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고 그런거죠. 수선에 대한 하자 부분도 걱정이야, 경험해봐야 하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요.

- 진남영(새사연 원장)

- 청년 입주자 스스로가 시설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세스 구축도 가능한 대안

- 오늘공작소의 신지예 대표는 망원동 부흥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스스로 시설을 수선·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만들었고 그로 인해 특별히 시설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며 가능한 대안을 소개

부흥주택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입주자들이 스스로 고치고 살아가면서 그런 방식이라서 그래서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 경제적 장점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노후주택을 활용하는 주거모델의 경우, 경제적 장점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거 방식으로 거주하는 경우, 특히 1세대 아파트처럼 2~3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입주자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어야 주거

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입주자들 간의 커뮤니티나 연결고리가 마련되어야 함

- 입주자 커뮤니티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장점보다는 지역이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새사연의 진남영 원장은 수요자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상해야 새로운 주거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

그래서 수요자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충분히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한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비영리단체와 결합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협동조합 조합원을 조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 진남영(새사연 원장)

- 오늘공작소의 신지예 대표도 서울의 A단체를 예시로 들며 지역차원에서 주거모델을 고민하는 경우에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생긴다고 언급함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주거지를 발굴하는) A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도 대학교 두 군데랑 같이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자기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기도 해서 관계가 일정정도 있어서 연대하는 사업이지, 대학이 만약에 그 정도의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V. 결론

□ 1세대 아파트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1세대 아파트는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나 수도권 원룸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있음
 - 조사 결과 청년주거 소요 특성에 따라 선별한 1세대 아파트는 기존 서울 강북 아파트의 40%가격, 수도권 대학생 원룸의 50%가격대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경제적 관점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1세대 아파트를 바라보는 것이 1세대 아파트를 청년주거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 1세대 아파트와 관련된 문헌조사나 현장조사, 면접조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1세대 아

파트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 건립된 지 40여년이 넘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유지·보수관련 리스크가 존재하고 세대 당 2~3인의 주거공동체로서 관리주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한다면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1세대 아파트를 청년주거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청년들의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다인 1실 세어하우스의 함정

- 최근 청년주거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세어하우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 1개를 2인 이상에서 공유하는 다인 1실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사업성을 좋게 만들고 있음
- 이는 다인 1실의 운영방식이 아니라면 현재의 세어하우스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힘든 현실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인권의 차원에서 1인 1실을 기준으로 1세대 아파트가 청년주거지로서 타당한 지 검토

○ 다인 1실 세어하우스와 공공임대주택, 1세대 아파트의 공통점

-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공공의 자원(재정, 기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처럼 지불가능한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1세대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건립된 지 40여 년이 넘어 시세가 일반 아파트나 대학생 원룸보다 저렴하며, 특히 앞서 살펴본 국·공유지 시범아파트의 경우 대지가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렴했고, 성북·은평·서대문의 맨션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다는 점, 민간공급 상가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세가 저렴함
- 이처럼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인 1실 세어하우스처럼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거나,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1세대 아파트와 같이 각종 이유로 시세가 저렴한 등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야 함

□ 지불가능한 수준의 청년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청년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근본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

- 본 연구는 1세대 아파트를 활용하여 청년주거지로 공급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결론
-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1세대 아파트를 청년주거지로 활용하기 방안은 정량적인

- 평가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전문가들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많아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
- 또한 전세금을 공공자금인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가정이 있어, 넓게 본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1세대 아파트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불가능한 임대료가 도출될 수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인 성공가능성
 - 1세대 아파트는 특수한 사례에 가까우며, 지불가능한 수준의 청년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밑바탕에 있어야 함
 - 본 연구는 1세대 아파트에 한정되어서 청년주거지 개발을 검토하였고, 이는 매우 한정적이고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주거비가 저렴해진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년주거지 개발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

〈단행본〉

김평, 1980, 『건축용어대사전』, 지문당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5권』, 한울

장림중, 박진희, 2009,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연구논문〉

강승현, 심우갑, 2009, 「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

김수현, 1996,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수현, 2015, 「도시화와 주택문제」,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1』, 에딧더월드

정아선, 최장순, 최찬환, 2004, 「청량리 부흥주택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제20권 제1호

최윤영, 심우갑, 2005, 「1960-1970년대 “맨션아파트”의 인식과 건축형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2014, 「시민복지기준백서」, 서울특별시

최은영, 2014a,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최은영, 2014b,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08.27, “2013년 하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5,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공동주택과, 2013, ‘시민아파트 정리현황’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2016.04.01,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공고(수정)”

〈언론자료〉

1968.04.27, “약진하는 대서울 낙원 슈퍼마켓”(광고), 동아일보

1968.10.14, “세운상가 나동 최신문화 아파트 분양공고”(공고), 동아일보

1969.09.03, “고급아파트 준공분양”(안암아파트 관리사무소, 광고), 동아일보

1970.04.08,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참사”, 경향신문

1970.08.20.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광고)”, 매일경제
 1970.11.11. “해성맨손 아파트분양”(광고), 경향신문
 1971.11.06. “기술교육으로 산업발전을..” 화면갈무리, 대한뉴스 제852호
 2014.07.31. “‘재난위험시설’ 회현 시민 아파트… 철거냐 보존이냐”, 한국일보
 2015.07.08. “성공적인 주택임대관리업 팀은…원룸 관리 노하우”, 이데일리
 2015.12.22. ““시민-시범-시영아파트’…"무슨 차이인가요"”, 머니투데이
 2016.07.21. ““주거문화를 담았다” 아파트 브랜드의 힘”, 매일경제
 2016.09.22. “남산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가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경제
 2016.11.21. “‘1.5억 vs 6억’ 보상금 갈등…회현시민아파트 협의보상 난항”, 뉴스1
 2016.12.05.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탄력…서울 대단지 첫 ‘신탁 방식’”, 한경BUSINESS

〈인터넷 자료〉

KB부동산, <http://nland.kbstar.com/>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나르돌돌 블로그, <http://nardoldol.egloos.com/m/1913669>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네이버 부동산, <http://land.naver.com/>
 부동산 114, <http://www.r114.com/>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go.kr/>

2016년

남성중심적 대학문화와

변주하는 여성성

: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정서인 류희정 이영해 장수지 조훈제

2016년 남성중심적 대학문화와 변주하는 여성성 :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정서인, 류희정, 이영해, 장수지, 조훈제

목 차

- I. '비체', 말하다
- II. 연구방법과 연구 정보 제공자
- III. 남녀공학대학교 집단문화의 변화
 - 1. 복학생의 지위 변화
 - 2.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학 공동체 해체 심화
 - 3. 군 복무 경험의 변화
 - 4. 넷 페미니즘의 영향
- IV. 대학 집단문화의 남성중심성
 - 1.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놀이문화
 - 2. 남성 선후배와 남성 간 유대
 - 3. 집단적인 남성성의 수행 1: 위계와 폭력성
 - 4. 집단적인 남성성의 수행 2: 성애화되는 어린 여성
 - 5. 남성중심적인 집단 속 여남의 적응 양상
- V. 호모소셜리티와 '여성성'의 체현
 - 1. '여성성' 체현이 시작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
 - 2. '여성성'의 체현 1: 일상적인 외모발언/성적대상화
 - 3. '여성성'의 체현 2: 이성애 중심주의와 연애
 - 4. 성적대상화와 성희롱/성폭력
- VI. 여성리더의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변주
 - 1.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용되는 '남성성'
 - 2. 대학 내 여성들의 적응방식: 남성성 수행, 외모 자본의 체현, 모성 수행
 - 3. 여성 리더들의 양상
 - 4. 여성리더의 롤모델화를 통해 보는 젠더경계 해체와 가능성 모색
- VII. 대안집단문화
 - 1.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여성'연대
 - 2. 대안적 놀이문화에 대한 고민
 - 3. 반성폭력 프로그램 개발, 성인지 교육의 재건

I. ‘비체’, 말하다

2016년을 관통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여성혐오’였다.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여성 및 여타 소수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함께 목소리내기 시작했다. 메갈리아와 강남역 살인사건, 넥슨 사태, 여러 대학의 남학생 단체카톡방 성희롱에 대한 공론화 등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지형을 가시화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생겨났다. 나를 억압해온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일은 분명 행복한 일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혼란스러웠다. 내가 느꼈던 알 수 없던 불편함이 ‘언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한편으론 마음 아픈 일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나 자신이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실감하게 됐다. 분노와 억울함, 희망과 우울함이 교차하는 와중에 내가 속해있는 대학사회를 한결 자세히 들여다볼 힘이 생겨났다. 나의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참 고생스러웠다는 생각이 든다. 낯선 대학 사회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부장적 남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나의 위치를 찾아나가려고 고군분투했다. 사라져가는 선배 여성들을 보며 나만은 이 자리를 꿰차고 버텨내서 후배 여성들과 교류하겠다는 커다란 꿈을 안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다. 마치 내가 여성들의 대표가 된 마냥, 이중 삼중 노동을 견디며 도태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지쳐 나가떨어졌다. 나도 선배 여성들과 별다를 게 없었다는 실망감과 후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도망치듯 대학사회를 떠났다.

조급해하며 도망쳤던 과거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다. 그 꿈이 너만의 꿈이 아니듯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여성이 너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듯이, 네가 못 여성들을 대표해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 너는 최선을 다했고, 네가 선배 여성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있듯이 네 후배 여성들은 너보다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네 삶 역시 더 나아질 거다. 네가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라고, 언제까지나 숨가쁘게 달려야만 한다고 네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지금의 자리에서 잠깐 숨을 돌릴 때, 네 곁의 여성/타자들은 네 대신 변화를 노래할 것이니 너는 그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혼란스러운 한해를 겪으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 덕분에 여성/타자의 역사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하고 충만했다.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엔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존재가 좀 더 가시화되고 우리가 좀 더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린 덜 지치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상상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사회의 변화하는 주체들을 ‘비체’ 개념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한다. 대학 학부생인 본 연구자들이 관찰하던 2016년을 살아가는 여대생들은 더 이상 단순히 남성에게 의해 대상화되고 타자화되는 ‘착한 타자’ 역을 맡지 않는다. 요컨대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스럽지 않다’ 규정하며 넷 페미니즘 혁명 이후 소위 말하는 ‘미러링’을 체현하며 자신을 향한 혐오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성취논리 하에서 새로이 등장한 여성리더들은 여성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전유하여 후배 여성들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기존 공고화된 주체로서의 남성을 당황시키는 이들은 누구인가? 새로운 주체인가? 혹은 여전히 가부장제적 질서 하의 타자인가? 섣뚱 ‘무엇이다’라고 말 할 수 없는, 오히려 경계의 열림에 위치하는 이들은 바로 ‘비체(object)’이다.

비체란 ‘어떤 규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존재를 특정하게 규정하지 않고,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앞서 말했듯, 동질성과 일관된 체계성을 교란시키는, 규범적인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는 비체 여성은 주체인 남성에게 알 수 없는—당황스러운—존재 더 나아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비체는 지배적인 젠더 체제 내부에서 혐오되기 위해 만들어진 구성적 외부를 뜻한다. 비체는 젠더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혐오 대상으로 소비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젠더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스스로 ‘여성스럽다’고 규정하지 않는 여성, 남성성을 패러디하는 여성,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재전유하는 여성의 등장은 대학 내 남성중심적 문화의 균열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본 연구자들은 비체 개념을 사용하여 대학 내 남성중심문화와 그 속에서 변이하고 서로 다른 행위자성을 수행하는 비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미 관찰되고 있는 균열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언어화하고 공론화할 수 있을지, 대학 내 공고한 젠더 체제에 어떻게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누군가 ‘여성이라서’ 혹은 ‘여성적이라서’ 배제되는 사회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성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남성성’을 체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각자가 ‘나답게’ 살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물론 개인이 자신 또한 연루된 폭력의 지점을 마주하며 직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가부장적 배당금을 포기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비체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구조를 들여다보며 서로의 변주를 응원한다면 구조적 차원에서의 다채로운 개입과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페미니즘적 언어를 통해 구조에 대해 함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의 주체가 공동체 전체가 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공동체성을 회복한 사회가 안겨주는 ‘행복’, 이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Ⅱ. 연구방법과 연구 정보 제공자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뷰를 사용했다. 연구 정보 제공자 열두 명은 모두 서울 소재 남녀공학대

학교인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이다. 연구 정보 제공자 선정은 연구자들이 속한 또래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여학생의 경우 ‘남녀공학대학교 집단의 남성중심성과 이로 인한 배제의 경험’을 키워드로,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 경험과 남녀공학대학교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키워드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자와 연구 정보 제공자 모두 유사한 또래 집단 내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용이했으며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연구 정보 제공자 열두 명 중 일곱 명은 여학생 나머지 다섯 명은 남학생이다. 남학생 다섯 명 중 네 명(가, 나, 다, 라)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다. 인터뷰는 주로 입학 이후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 생활 전반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묻되,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주로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한 집단 놀이문화로부터의 배제, 선후배 간 위계 관계, 연애 경험과 집단 리더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남학생 연구 참여자 중 복학생의 경우 군대 내에서의 폭력양상과 부조리 경험, 휴가 중 활동 내용, 복학 후 적응 상의 적응 상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대부분 세 시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열두 명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례	성별	학년	현재 또는 과거 활동 집단
A	여	3학년	학회, (공연)동아리
B	여	3학년	학회, 학생회, (공연)동아리
C	여	3학년	학회, 학생회
D	여	3학년	학회
E	여	4학년	학회, 동아리
F	여	3학년	학회, (공연)동아리
G	여	4학년	학생회, (공연)동아리
가	남	2학년	학회
나	남	3학년	학회, 학생회
다	남	2학년	동아리
라	남	2학년	동아리
마	남	1학년	학회, 학생회

Ⅲ. 남녀공학대학교 집단문화의 변화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적인 집단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복학생과 복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주의에 집중되어왔다. 군 복무 과정에서 남성들은 군사주의를 내면화한다. 권오분

(2000), 권인숙(2000, 2005a)은 군사주의를 ‘위계성, 폭력성, 공격성,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아우르는 성별성 혹은 성차별성의 내면화와 일상화’라고 정의한다. 군에서 막 제대한 남성들은 내면화한 군사주의에 대해 성찰할 시간이나 기회 없이 복학한다. 나운경(2005b)은 복학생과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사주의가 재현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를 분석한다. 군에서 갓 제대한 남성들은 재학생들과 위계적이고 폭력적이며 성차별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는 ‘위계적 선후배 관계’와 ‘후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범주화된다. 이렇게 남녀공학대학교 집단이 ‘군사주의가 재현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여학생들은 주변화된다. 김은진(2002)은 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대학교로 전환한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학생회 조직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복학한 남학생들에 비해 연령이 적고 군대에서 리더십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은 리더 자리에서 밀려난다. 나운경(2005a)은 여학생들이 학과, 동아리, 학생회 등의 공간에서 일상적인 배제를 겪는다고 지적한다. 일상적인 여성 배제에 여학생들은 ‘침묵’하고 결국 남녀공학대학교는 남성중심적인 문화생산지가 되고 만다. 이처럼 복학생은 남녀공학대학교와 군대문화를 매개하며 군사화된 남녀공학대학교 공간 속에서 여학생은 배제되고 집단은 자연스레 남성화된다.

그러나 현재 남녀공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학생과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2016년 현재 남성중심적인 대학문화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녀공학대학교의 군사주의성은 지난 수년간 약화되었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집단 내 복학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복학생’은 이전과 같이 쉽게 ‘리더’나 ‘시민’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사회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가 심화되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의 대학집단 진입 자체를 제한한다. 셋째, 복학생의 군 복무 경험에 실제적인 변화가 생겼다. 2014년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 이후 군내문화는 일련의 변화를 겪었다. 넷째, ‘메갈리아’를 위시한 넷 페미니즘의 출현은 대학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1. 복학생의 지위 변화

김은진(2002), 나운경(2005b), 권인숙 외(2010)의 연구에서 복학생들은 동아리나 학생회 등의 집단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군필자’라는 정체성은 이들에게 학내 집단 자원 배분 체계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복학생은 대학집단 내 군사주의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의 경험 속에서 복학생의 위상은 이전과 같지 않다. 남녀공학대학교 내에서 ‘복학생’이나 ‘군필자’는 예전만큼 ‘리더’나 ‘시민’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학집단 내 군사주의성 또한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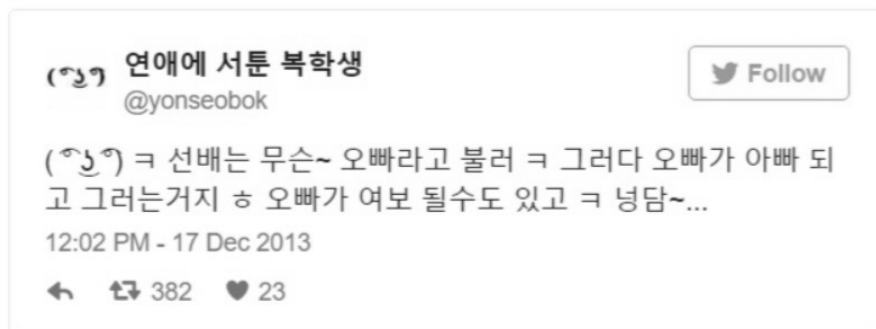
노해림 외(2015)는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복학생들은 복학 후 초기 대인관계 장면에서 적응 상 문제를 겪는데, 이들은 ‘군대에서의 계급 사회 경험으로 복학 후에도 후배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졌으며, 의사소통방식이 거칠어졌다고 보고’하며, ‘입대 전 친밀했던 관계를 복학 후에도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어디에도 소속감

을 느끼지 못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보고한다. 복학생이 겪는 학내 적응 상의 어려움은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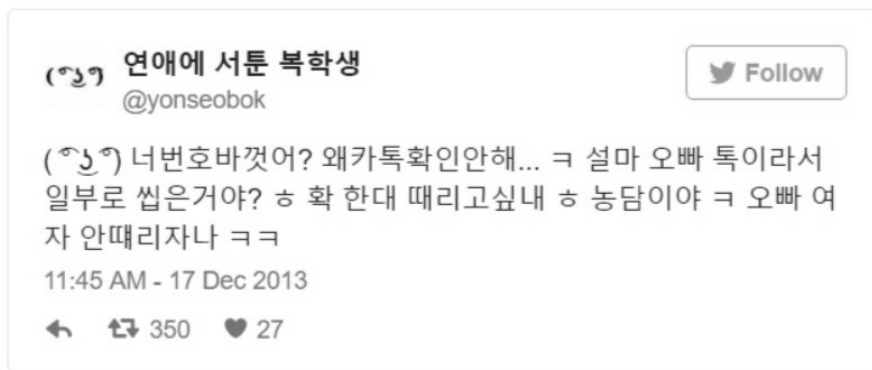
지금 전 학교에서 완전히 아싸인데... 근데, 그게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제가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는 애초에 과 중심의 활동이랄 게 없어요. 서로 아무도 모르고 다 같이 학원 수업 듣듯이 그냥 와서, 수업 듣고 수업도 거의 다 대형 강의고, 팀플도 없고, 과제도 거의 없으니깐. 학생들 간의 교류가 거의 없으니깐 다 같이 아싸¹⁾고 (...) 저는 밥도 다 혼자 먹고... 수업은 두 개는 어, 아는 사람이랑 같이 들어요(사례 가).

(동아리에서 후배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아... 이거 조금 아재 같지 않나, 좀 약간 꼰대 같지 않나. 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 이렇게 했을 때 재네가 '아, 좀 꼰대데, 왜 저러지'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화가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억압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던 거 같아요(사례 라).

〈사례 가〉는 군 복무 후 복학을 하였으나 소속된 집단이 없어 본인을 완전한 '아싸'라고 지칭한다. 그는 대학교 내에서 입대 전 친밀했던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거의 혼자 수업을 듣거나 밥을 먹는다. 〈사례 가〉가 소속된 경제학과는 전역한 복학생들이 손쉽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이 부재한다. 〈사례 라〉는 〈사례 가〉와 달리 복학 후 소속된 동아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꼰대'는 나이 많은 사람을 속되게 지칭하는 은어인데, 대학교에서 나이나 선배라는 지위를 앞세워 위계와 서열을 강요하는 복학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들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소외되거나 적응 상의 장애를 겪는다.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부유하거나 혹여나 '꼰대'라는 이름으로 집단으로부터 배척받지 않을까 스스로를 검열한다. 복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 희화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대학 내에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포레 집단과 어울리지 않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반대말로는 '인사이더'의 줄임말인 '인싸'가 있다.



‘연애에 서툰 복학생’은 여자 후배에게 집적대는 복학생을 희화화한 트위터 계정이다. 지상과 예능 프로그램이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등장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인터넷 상에서 ‘연애에 서툰 복학생’의 줄임말인 ‘연서복’은 나이 많고 눈치 없는 복학생을 우스꽝스럽게 지칭할 때 쓰이는 일반명사가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 서브컬처계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나무위키’는 복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복학생이라고 하면 짧은 머리, 촌스러운 옷차림, 덩수룩한 수염과 혼자 먹는 끼니, 심심하면 꺼내 입는 후줄근한 군대 깔깔이로 상징된다.

군대 마인드가 심한 자들이 모여 힘을 가지게 될 시 학과에서 후배들 똥군기 잡는다고 군대놀이를 시전하기도 한다. 당하는 입장에선 죽을 맛. 군대에서 배워 온 가혹행위를 실행해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화된 적이 많다. ~~고만해~~ 마친놈들아

인터넷에서 복학생이나 복학생을 중심으로 한 군사문화는 풍자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제시된 사례들은 학내 복학생의 바뀐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군사문화를 내면화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복학생은 더 이상 ‘시민’이나 ‘리더’의 자질에 획일적으로 동일시되지 않는다.

2.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학 공동체 해체 심화

권인숙(2005a)은 『대한민국은 군대다』에서 80년대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문화가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군대 문화와 닮아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80년대 대학 문화는 사회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군사주의 위계 문화를 내면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운동’이라는 요소는 더 이상 대학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게 된다. 이에 학생 자치 사회는 잃어버린 동력을 대체할만한 대안적인 공동체 형태를 모색하지만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은 개인화, 파편화된 소비문화에 흡수되었다. 이를 홍명교(2011)는 이제 대학사회에서 공동체는 사

라지고 개인적으로 휴식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이 남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가시화된 취업난은 대학생들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내몰았다.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 활동 등은 ‘스펙’으로 치환되고 선후배 관계나 친구 관계마저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맥 쌓기’로 여겨지게 되었다.

나운경, 권인숙(2010)은 사회가 개인화, 파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학은 여전히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분석한다. 선후배 관계가 ‘관리’되어야 할 ‘인맥’으로 치환되면서 학생들이 군사주의적인 위계질서에 침묵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운경, 권인숙(2010)의 지적대로 ‘스펙 쌓기’에 대한 욕망이 대학 내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데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심화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경기 침체 속에서 선후배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대학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집단 활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력서에 기재할만한 개인적인 경력을 쌓기 위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다. 이 때문에 대학 집단 내 잔류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저학년으로 채워진다. 이 같은 현실은 복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군 복무 후 학교에 돌아온 복학생들이 소속될 수 있는 대학집단은 제한적이다. 많은 공동체들이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해체되었거나 해체의 위기에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 가>와 같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복학생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다른 인터뷰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복학 후 학과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선후배 교류가 없거든요. (···) 거의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새내기랑, 군대 안 간 한 학번 위 남자애들이나 한 학번 위 여자애들? 이 정도만 교류하고 그 이상 선배들은 뭐 가끔 학회 전체 술자리? 이럴 때 모이면 한두 번 보고 그런 느낌이라. 큰 교류는 없고(사례 다)

고학번 선배들은 (학과 행사에)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항상 15학번이나 16학번... 14학번은 ○○누나 이런 사람들. 13... 13위에까지는 잘 안 왔어요. (···) 15학번이나 16학번이... 15가 오고, 16이 제일 많이 오고, 14는 그 다음 거의 소수... 엄청 소수. 13은 안 오고. 14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두세 명 정도인 것 같아요. ○○형, ○○누나랑, ○○누나랑 이렇게 세 명(사례 마)

복학생인 <사례 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 후배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 새내기인 <사례 마>에게서도 나타난다. <사례 마>에 따르면 학과 행사에서 바로 위 학번인 15학번을 제외한 14학번 이상의 ‘고학번’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후배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대학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학과 활동,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대학교 내 집단 활동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와 비교적 무관한 저학년 시기에만 향유할 수 있는 ‘노는 시기’ 정도로만 여겨진다. 학내 공동체의 해체와 파편화라는 변화된 대

학 집단 문화 속에서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들은 반 강제적으로 집단 활동 대신 개인적인 ‘스펙 쌓기’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처럼 군대에서 갓 전역한 남학생들의 남녀공학 대학교 내 공동체 유입이 차단되면서 복학생과 복학생을 중심으로 한 군사주의적인 위계 권력은 약화된다.

3. 군 복무 경험의 변화

남녀공학 대학교 내 폭력적인 군사주의 위계 문화가 약화된 데에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달라진 군 복무 경험도 일조하고 있다. 2014년 4월과 6월 연달아 일어난 ‘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기점으로 병영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군은 병사 간 서열을 최소화하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관 동기제’, ‘계급별 동기제’, ‘1년 동기제’, ‘계급 일원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내 가혹행위 적발 및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전 같은 병사 간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위계 구조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입대한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난다. 아래 <사례 다>는 2014년 4월에 육군에 입대했는데 그가 복무한 부대에서는 ‘계급별 동기제’를 시행하였다. 그는 스스로 군 생활의 대부분을 ‘계급별 동기제’ 아래에서 보냈으며 이에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한다.

저희 부대가 ‘계급별 동기제’라는 제도를 했었거든요. 일병이면 다 동기고 상병이면 다 동기고 병장이면 다 동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7개월 동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이 동기를 하다가 전 일병인데 앤 상병으로 넘어가면 반말하다가 존댓말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반말하게 되고 상병 된 애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뭐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위 아래로 6개월을 동기로 묶는 거예요. 저는 약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위에 6개월까지는, 6개월까지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병 중반 때부터는 거의 선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 저는 그런 수혜를 많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사례 다)

아래 <사례 가>는 2014년 8월에 공군에 입대했다. <사례 가>는 2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변화하는 군대문화를 잘 드러낸다.

제가 74X기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720대 기수 엄청 다르고, 730대 엄청 다르고, 740대 엄청 다르다. 720대 기수 면은 저랑 딱 2년 정도 차이나는 데, 여기 때는 뭐라 말해야 되지, 때리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막내일 때는 맞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때리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뭐 욕도 많이 하고, 완전히 지 마음대로라 해야 되나, 생활 자체가? 후임들이 시다발이 다 하고, 시중 들고 황제처럼, 짬 차면 아무것도 안하고, 이불도 안개고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떤 거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아마 뭐 임병장 윤 일병 사건이겠죠(사례 가).

제가 병장이 되고 선임이 될 때는, 조금 놀라웠는데 적어도 ○○비행단 전체 정도는, 굉장히 어떤 느낌이나면... 회사인데, 병장은 부장이라면 이등병은 신입 사원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인턴인거예요. 다 같이 인턴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2년 계약직 끝나면 나갈 거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는 거죠. (...) 저보다 딱 한 4년 전만해도 2010년 이때쯤만 해도 엄청 심했대요. 악폐습이 많았는데... 제가 떠날 때쯤, 2016년에는 아주... 놀라운 분위기였죠(사례 가).

〈사례 가〉가 군 생활을 하는 2년 동안 그가 소속된 부대 분위기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2014년 입대 초의 분위기는 욕설과 가혹행위가 어느 정도 용인되던 분위기였으나 그가 전역할 때쯤에는 ‘회사’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병사 간의 엄격한 서열 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것이다. 이 같이 부대 내 병사 간 위계 관계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병영 부조리에 대한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희는 밑에 애들이 주임 원사님한테 어려운 점을 잘 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임 원사님이 좀 적극적이어서. 가혹 행위 욕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말을 하다보면 (...) 짜증나니깐 나중에는 좀 빈정대는 거죠. 비아냥... “이런 거 여러 번 말했으면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러 번 들으면 당연히 피해 병사도 나름 굉장히 스트레스죠. 못 하고 싶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깐. 그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이거를 주임원사님한테 말하면 주임원사님이 해결을 해줘요. 좀 부서를 바꾸든가...(사례 가)

저희는 굉장히 잘 됐던 게 일단 부서, 대대 내에서는 주임 원사님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 또 감찰 안전실이라고 감찰부서가 있으니깐, 여기에다가 익명으로 뭐 신고해라고 있는데 잘 안 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여기는 원하면 약간... 마음먹으면 항상 할 수 있는거예요. 그냥 마음먹으면 그 다음 날 바로 간부가, 감찰 간부가 와서... 바로 그냥 이거는...(사례 가)

이처럼 2014년 이후 입대한 복학생들의 복무 경험은 이전의 폭력적이고 엄격한 위계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군대 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병영 문화를 개선하려는 군 당국의 몇 가지 정책만으로 군 내 뿌리 깊은 병영 부조리와 군사주의 위계문화 전체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학생들이 군사주의의 위계성과 폭력성을 의미화하는 방식이 다소 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남녀공학 대학교에서 복학생이 내면화된 군사주의를 실천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분명 변화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4. 넷 페미니즘의 영향

2016년을 살아가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메갈리아나 워마드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여성혐오 담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성혐오’라는 키워드가 현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메갈리아를 위시한 넷 페미니즘은 여성주의 담론의 수용

과 확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그것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사법 권력에 맞서 20, 30대 여성들은 인터넷에서 한 목소리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혐오범죄를 비판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공론화되는 데 있어서 SNS는 핵심적인 창구로 기능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며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여겨졌던 불편함과 공포감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여성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간 사소하게 치부되어 온 자신의 경험, 관심, 감정, 욕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넷 페미니즘이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만큼 대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래 인터뷰 사례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넷 페미니즘이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관해 진술한다.

(페미니즘을 언제 처음 접했냐는 질문에) 트위터를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해 좀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올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 그 후로 되게 많이 접한 것 같아요. (...) 여자가 연애를 안 하고 남친(남자친구)이 없으면 하자가 있는 것 같고 남들이 욕할 것 같고 그렇게 저한테 이미 내재된... 것들이 바로 남녀차별, 불평등이라는 걸. 거기서(트위터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가 내게 주입시켜 둔 성차별이었구나... 되게 좀 생각을 전환한 것 같아요 (사례 G).

대학 입학할 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왜 그렇게 차별하나, 그래 이씨 나도 노력해서 예뻐지고, 너희를 깔볼거다.’ 그땐 그랬는데... 예뻐지는 욕망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도 챙기는. 내 자기만족을 위해 예뻐지는 욕망이라면 충분히 관찮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되게 ‘남자 잘 만나야지 여자가 뭘 해’ 그런 건 좀...(사례 G)

술을 마시러 가도 메갈리아가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하니깐 그냥 내 모든 일상에서 그게 엄청 핫한 이슈로 떠올랐구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지. 나한테 공감하거나 지지를 표하거나, 아니면 내 페이스북 글을 읽고 되게 많이 공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날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난 점? 뭔가 나의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이토록 지지받는 정체성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즐거웠죠(사례 A)

(넷 페미니즘의 부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인터넷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겨울, 1월쯤에. 그때 처음 배틀을 떠났잖아, 기사든 어디든 어그로 끌리면 난리 났었어요. 그땐 별로 호응도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남자애들 맨날 ‘니 얼굴 못생겼다’ 이런 얘기나 하고. 너무 짜증이 나 안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랬는데... 점점 (...) 살로 와 닿는 게 강남역 이후 ○○이는 그 얘기하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 여

성주의적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 엄청 많고. 그런 게 많이 바뀌었던 거 같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500개 받고(웃음). (...) 훨씬 우호적으로 된 거 같아요(사례 B).

〈사례 G〉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을 접했다. 이후 〈사례 G〉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일상적인 성차별을 지각하게 되었으며 ‘페미니즘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례 A〉와 〈사례 B〉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넷 페미니즘 열풍 이후 SNS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뒤바뀌었다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넷 페미니즘은 개별 여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고 여성 간 연대와 지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학생 개인의 삶이나 온라인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학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2년 전 수업에서는 제가 맨날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 때 그 수업에서 유명했어요. 말 잘하고 똑똑한 애로. 근데 그 때 분위기는 약간 절 무서운 사람으로 보는? 같이 말하는 여자도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주제 자체가 페미니즘이기도 했고... 거기도 초반엔, 완전 여초 수업인데도 남자들밖에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페미니즘 수업에 남자들이 빵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이런 거 저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그 때부터 뒤에서 술렁술렁... 여자애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던 걸 느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등 쳐주고 가고,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번호를 교환했나? 번호 교환하면서 너무 멋있다고...(사례 E)

강남역 이전에 수업시간에 페미니즘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차별에 반발한 친구들이 늘었다고 느끼거든요. ○○수업에서 어떤 오빠가 여자의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냐는 남자의 대안에 대해서, ○○오빠가 끝나고 나서 과방에서 말하더라고요. 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자체가 여자를 육아에 묶어 놓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사례 G)

〈사례 E〉의 경험에서 강의실 내에서 남성중심적인 견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남녀공학대학교 구성원들의 태도변화가 드러난다. 나윤경(2005a)은 남녀공학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대학 내 남성중심성에 의해 일상적이며 다양한 층위의 배제를 경험하지만 거기에 대해 침묵한다고 지적한다. 남성중심적이며 군사주의적인 가치 위계가 지배적인 집단문화 속에서 여학생들은 침묵했고 침묵해야만 했다. 군사주의적인 집단문화 속에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낸 〈사례 E〉는 ‘무서운 사람’이었으며 주변 여학생들로부터도 공개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여학생들의 이러한 침묵은 대학집단의 군사주의성과 남성중심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례 E〉는 ‘올해는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라며 강의실 내에서 페미니즘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침묵이 아닌 공개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례 G〉에서 넷 페미니즘이 야기한 변화가 여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남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난다. 〈사례 G〉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부터 ‘성차별에 반발한 친구들이

늘었다'라며 동료 남학생과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남성중심적인 발언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넷 페미니즘의 출현 이후 일부 남학생들의 변화된 태도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 인터뷰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메갈리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남성중심적인 사회를 깨는 거잖아요. 그런 집단들, 메갈리아나 이런 집단들 때문에 한 번 더, 대학에 와서 논쟁을 할 수 있고 (...) 메갈리아나, 페미니즘이나 대두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걸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자체가 좀, 이 사회에 논쟁거리를 던졌다는 거...(사례 마)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언제 생겼냐는 질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군대에서, 한 상병 때부터 사지방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맨날 보는 게 페이스북밖에 없던 말이에요. 메갈리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사례 나)

저도 가끔 그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룹에 켜서 술을 먹는데 그 그룹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매우 좀 불쾌해 해요. 저랑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싸울 거예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하나하나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그 그룹이랑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그룹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해요(사례 나).

〈사례 마〉는 메갈리아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일상적인 성차별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말한다. 〈사례 나〉는 ‘메갈리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오가는 남성중심적인 발언들에 불편함을 느끼며 동성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와 페미니즘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처럼 넷 페미니즘은 남녀공학대학교 구성원의 삶에 여러 흔적을 남겼다. 여학생들은 더 이상 학내 성차별과 남성중심적인 발언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며 연대한다. 남학생들 또한 일상적인 여성 배제를 지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거나 갈등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의 침묵과 암묵적인 동의 위에서 유지되어 온 남녀공학대학교의 군사주의적인 집단문화는 넷 페미니즘의 출현으로 인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2010년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적인 집단문화는 복학생과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었으나 2016년 변화된 현실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학내 복학생과 군사주의에 대한 변화된 인식, 1990년대 후반 본격화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학생 공동체의 해체, 과도한 ‘스펙 경쟁’과 소비 자본주의에 내몰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대학생 문화, 2014년 ‘윤 일병’, ‘임 병장’ 사건을 계기로 달라진 군 복무 경

협,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된 넷 페미니즘은 대학 문화에 작지만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 남녀공학대학교 집단문화의 군사주의성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과연 대학 집단문화의 군사주의성이 열어졌다고 해서 남녀공학대학교가 더 이상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자들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Ⅳ. 대학 집단문화의 남성중심성

대학 집단의 일반적인 모습을 떠올려보자. 강의, 학식, 잔디밭 등 캠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려지겠지만, 그중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것은 단연 대학생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술자리의 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과 술자리-음주는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어려운 요소인데, 대학생과 술자리에 대한 연결고리는 이미지를 넘어서 실제 대학 캠퍼스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집단들이 술자리를 매개로 구성원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나간다. 물론 집단별로 그 특색에 따라 서로 다른 활동 방식을 갖고 있겠으나, 집단 내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주된 장(場)이 술자리임은 자명하다. 많은 대학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이나 새내기 배움터에서 꼭 가르쳐야 할 콘텐츠 중 하나가 ‘술게임’이 될 정도니 말이다.

혹자는 이 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밤새 술 마시며 놀기를 즐기는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술자리가 어렵고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생, 대학집단이 향유하는 다른 문화는 없는가? 왜 우리 사회의 대학문화는 음주문화라는 단일한 이미지로만 대표되는가? 음주문화가 아닌 다른 놀이방식은 소수의 대학생만이 향유하는 비주류문화로만 남아 있거나 아예 부재한다. 아래 <사례 E>에서 이 같은 현실을 엿볼 수 있다.

1학기 땀 소풍가자 그래서 소풍 가고 애들이랑 뭐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애들이랑 맨날 학회 방에서 노가리 까고 그랬거든요. 보드게임 카페 가고. 그런 식으로 결집을 했었는데 그걸 주도하던 조용한? 오빠들이 군대로 갔어요. 그리고 다른 학회랑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때 다른 학회 술 문화를 접하고 학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분명 전에 우리 학회는 옹기종기 모여서 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이 많은 형이 딱 앉고 그 주위에 술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쭉쭉 모이고 그 재미를 처음 배운 거죠 같이 한 행사에서. 2학기 때는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진짜 한 순간에 완전 반대 분위기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안 나오는 애들 생기고. 그런데 남자애들은 다 나왔어요. 개네는 진짜 발 빠르게 적응했죠(사례 E).

<사례 E>는 소풍가기, 보드게임하기, 수다떨기 등 다양한 방식의 놀이문화를 향유하던 기존 집단문화에 음주문화가 유입되면서 놀이문화가 획일화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단 하나의 사례만

으로 모든 대학집단의 놀이문화 양상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기존의 의문들을 발전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왜 대학에는 단일한 놀이문화로서 음주문화만이 남았나. 다른 문화는 없었을까? 있었다면 왜 음주문화만이 남게 되었을까. 단일한 문화 속에서 배제되는 구성원들은 없었을까. 있었다면 어떻게 배제되었으며 그들은 대학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본 연구자들은 앞서 제기한 대학집단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음주문화만이 남은 대학’에 관한 많은 의문들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놀이문화

남녀공학대학교의 대학생 집단은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술자리 ‘공간’과 음주 ‘놀이’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집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임윤경(2006)은 『여성과 남녀공학대학교의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에서 음주문화를 비롯한 대학의 놀이문화는 남성중심적이라고 지적한다. 술자리 그 자체가 남성 권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술자리는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다. 음주문화를 매개로 일상적인 성차별과 젠더 권력은 확대 재생산된다.

학과 행사나 뒤풀이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적인 술 강권이나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일부 해소되었다. 하지만 대학 내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가해자 개인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음주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음주문화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배적인 대학 놀이문화로 자리 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놀이문화를 이어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처음 접하는 행사인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이다. 새내기들은 이곳에서 선배들로부터 음주문화를 비롯한 대학의 남성중심적인 놀이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대물림한다.

새터요? 술 마시고 방돌이(방을 돌면서 집단적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 대표적인 새터 문화 중 하나) 한 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 술 먹고 뛰어다니고 FM 하고, 소리 지르고(사례 A).

새터에서 대학문화를 학습한 새내기들은 새터의 문화를 보편적인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 결과 새터 이후의 대학 집단에서도 놀이문화는 큰 문제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대개는 술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의 엘시²⁾와 같이 친목 목적 이외에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 모인 집단이나, 대학 신자유주의화 이후 콘텐츠를 상실한 공간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강화된다.

저는 밴드 동아리를 했는데 만나면 그냥 다 술이었어요. 다 술을 동반한 무언가. 술을 마시는데 어디 가서 술을 마신다. 악기 치다가 술 마시기. 횃집 가서 술 마시기. 신촌에서 술 마시기. 홍대

2) LC(Learning Community), 성균관대학교 계열제 1학년 학생을 위한 새내기 커뮤니티로 임의로 짜여진다.

에서 술 마시기(사례 A).

이러한 양상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행위, 혹은 술자리에 참석하는 행위를 통해 집단 진입을 시도한다. 특히 음주문화는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새내기들이 대학에서 처음 배우는 일종의 새로운 문화로, 대학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구성원들은 음주문화에 적응하고 싶어 한다. 더불어 새로 집단에 진입한 새내기들의 경우 이미 집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위치의 구성원들을 선망한다. 따라서 음주문화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집단에 적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사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술 마실 일이 생기면 새벽까지 남아있었어요. 새벽까지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했죠. 사회성 좋고 그런 애들 약간 선망해서, 그런 애들 되고 싶어서. (사례 A).

아 저게 어른이구나, 저게 대학생이구나, 선망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되게 다 열심히 했던 거 했던 거 같아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아니었나? 나름 열심히 했어요. 술은 안 좋아 하지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런 게 대학생의 놀이구나(사례 F).

선배들은 되게 친해보여서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부럽다, 근데 우린 별로 안 친하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되고 싶다, 저기 끼고 싶다, 약간 이랬던 거 같아요. 술게임 하다보면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친하다고 착각했던 거 같아요 (사례 F).

친밀함, 관계 맺기의 도구로써, 혹은 사회성 좋고 적극적인 대학생에 대한 선망을 갖고 그러한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위의 사례들은 음주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이는 선택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관계맺음과 놀이 문화로 배운 것이 음주라는 단일한 방식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대학 집단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음주문화에 잘 적응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대학 집단 적응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대학 집단 안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집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큰 재미를 느끼기 어려우며, 이는 부적응과 집단이탈로 이어진다.

처음에 새터 갔을 때 죽어라 마시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코 잡고 마셨어요. 근데 또 파도타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안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새터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사례 B).

술을 잘 못 먹는 애들은 나가거나, 나중에는 적응하거나 했죠. 나중에 적응한 애들은 그래프로 그리자면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술자리를) 빼고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 지나니까 개네도 동기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좀 더 술자리 참석도 많이 하고(사례 G).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의 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부적응과 집단 이탈을 구조적인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적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결핍된 문제적 존재로 인식한다. 특히 <사례 B>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자신을 ‘쓸모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새터를 가도 나는 술을 못 마시고 내가 전력이 안 될 거다, 쓸모가 없을 거다 생각해서 안가면 안 되겠냐고 했었어요(사례 B).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느 집단에 가도 되게 주목 받는 성격이었는데 대학 와서 생각한 게, ‘나랑 안 맞나보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니까 (사례 E).

<사례 B>와 <사례 E> 모두 음주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스스로의 문제로 의미화한다. 한편 대학집단의 놀이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남학생들은 음주문화와 음주문화에 대한 부적응 및 집단이탈에 대해 사뭇 다른 시각을 보인다.

뒤풀이가 없으면 약간... 점점 안 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감 형성에 확실히 항상 술자리나 다 같이 뭔가 술을 먹거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좀 더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렇지, 뭐... 네 뭐 어떤 단 순히 일만해서, 그리고 총회만 해서는 절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사례 마).

어. 우린 되게 친해요. 그렇게 살아남은 친구들이, 일단 남자애들이 다 친해요. 한 명 빼고. 어. 개를 뭐 왕따 시켰다는 게 아니라, 개는 좀 술도 잘 못 먹고. (...) 그 좀 도태된 친구랑...(사례 라)

<사례 마>는 대학 집단 내에서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에 음주를 핵심적인 것으로 꼽는다.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는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는 구성원들의 적응을 좌우한다. <사례 라>는 음주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남학생을 ‘도태’되었다고 표현했다. 서로가 싫거나 한 쪽이 일방적으로 따돌린 것이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게 된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 대학 집단의 놀이 문화 속에서 적지 않은 구성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국에는 이로 인해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집단 내 부적응과 이탈의 문제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능력-음주 능력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음주 문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놀이문화 전반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들은 음주 문화와 관련한 FM, 방게임 등 다른 놀이문화에서도 이러한 남성중심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저는 새터 애프터 시키는 시간에 너무 서러웠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선배들이 절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방에 들어가도 주목 받는 애만 FM을 시켰어요. 잘생긴 애나 예쁜 애, 아니면 웃긴 애. 특히 새터에서 FM 때 주목받는 애는 우스꽝스러운 걸 할 수 있을 거 같은 애잖아요. 웃긴 수식어

를 할 수 있거나 웃긴 표정이나 성대모사, 이상한 춤을 출 수 있는 애들. 보통 다 남자죠. 여자애들이 보통 망가지진 않으니깐요. 제가 겔보기에 그리 튀는 애도 아니니까 저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제가 에프엠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서야 저 에프엠 시켜줬었어요...(사례 A).

딱 그 방에 쳐들어가면 한 조마다 내세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내세우는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한 명씩 나와서 쇼 퍼포먼스 하고, 막 엄청 마시고. 그런 거? 그냥 대부분 다들 선배들이 거의 다 마시고 또 잘 마시는 남자애들한테 앞세워서 마시고(사례 D).

한편 제시한 사례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대학집단 내 주류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을 범주화하면 아래와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잘 마시는 애’로 대표되는 음주문화에 적응한 구성원, (2) ‘잘생긴 애나 예쁜 애’로 꼽히는 외모 자본을 가진 구성원, (3) ‘쇼 퍼포먼스 하고’, ‘웃긴 애’로 표현되는 재미 자본을 가진 구성원으로 구분되며 이는 곧 음주 능력만큼이나 재미와 외모 자본을 통해서 대학 문화에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에서 탁월한 음주 능력이나 음주문화에의 적응력을 가진 사람은 남성으로 표상되며, 이는 재미 자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윤보라 등(2015)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재미 자본인 유머와 ‘드립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는 통상적으로 남성이다. 이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미 자본의 분배는 젠더화되어있다. 요컨대 대학 사회 내 ‘재미있음’의 표상은 일종의 남성적 특성으로 치환되는 셈이다. 시끌벅적함, 활력, 정력, 술자리를 이끌어가는 능력 등이 그 예시이며, 집단 내 재미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구성원들은 쉽게 남성을 떠올린다.

이때 외모 자본을 통해 집단에서 주목받는 여성 구성원들을 떠올릴 수도 있으나, 이들이 집단 내 핵심적인 역할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자본인 재미 자본이나 음주 능력을 부가적으로 성취하여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외모 자본을 가진 여성은 집단 내 주체가 아닌 남성 구성원의 ‘대상’으로서 주목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남성중심적 놀이문화에서 적응할 수 있는 혹은 적응하기를 기대 받는 구성원의 상(像)은 남성으로 젠더화되어 있는 셈이다.

2. 남성 선후배와 남성 간 유대

이처럼 구성원의 기본형이 ‘남성’인 상황에서 집단은 남성 선배를 위주로 결집된다. 특히 이는 나이권력과 젠더권력 모두를 가진 복학생/고학번 남자 선배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김은진(2002), 나윤경(2005b), 권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복학생 남자 선배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집단의 활동은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개강파티 가면 처음에 애들 다 같이 있다가도 후반에는 복학생 오빠들 테이블만 남는 거나 회장 오빠마저 복학생 테이블에 있어서 다른 애들 신경 안 쓰는 것들이 너무 빠져서 과 생활 너무 싫어 지고(사례 A).

○○오빠랑 친한 애들이 다른 동기들을 혼내는 식으로 애길 많이 했어요. ○○오빠랑 친하면 권력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느낌이죠(사례 B).

남자 선배들이 있는 테이블이 메인이었어요. 테이블이 세 개 정도 있으면 메인테이블이 있고, 중간정도가 있고. 아예 되게 소심한 애들 모여 있는 게 끝에 있고(사례 G).

사례들은 복학생 남성 선배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학 집단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 복학생이 가지는 권위와 권력은 실제 집단에 대한 기여도나 역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성중심적인 집단문화라는 보다 유리한 조건 속에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역할을 맡을 수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맡은 책임이나 역할뿐만 아니라 ‘오빠’ 표상을 체현하는 데서 발생하는 권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학생 남성은 계속해서 ‘오빠’ 표상을 과시함으로써, 실제로 그만큼의 능력과 책임을 가진 양 행동한다.

과 복학생 오빠들 2명이 저한테 팀플³⁾을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도 다 내고, 주제도 정하고, 자료 조사도 거의 다 하고 발표 구성 자체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오빠들이 밥 사주면서 저한테 고생했다고... 그걸 느꼈어요, 아 진짜 다시 ‘오빠’로 서는 순간이구나. 그래야지 자기 면이 서니까(사례 F).

‘오빠’라는 표상은 남성 복학생들이 어린-여성 구성원들을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자신에게 종속시키거나, 그들의 역할 등을 내려다보고 평가하는 상급자로서 집단 내 자신의 위치를 규정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처럼 복학생 남성이 중심이 되는 대학 집단에서 구성원들은 복학생 남성을 통해, 혹은 그가 속한 집단에 기여하거나 종속됨으로써 자원을 획득한다. 이는 동시에 해당 집단에서 남성 선배와 갈등을 빚게 되면 구성원의 권력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사례 B>의 경우 대학에서 남성 선배와의 갈등 이후, 해당 집단을 이탈하였다. <사례 B>는 남성 선배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데도 침묵하는 주변인들을 보며 느꼈던 소외감이 이후 대학집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가장 배신감을 느낀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던 남자 선배랑 저랑 싸우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데 애네는 그냥 싸움을 마무리 지으려고만 하지? 지금 내가 예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 애들이 이상하다는

3) team play. 대학 조별 과제의 준말.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제 의견이나 입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냥 재네는 ○○○(남자 선배)가 좋으니까 계속 이 동아리를 하는 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나라면 나갔겠다. 왜 거기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말린 사람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모두한테 배제당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솔직히 끔찍했어요(사례 B).

〈사례 B〉는 남성 선배와 갈등할 당시 대부분의 집단 구성원이 남성 선배의 편을 들거나, 사례 당사자의 말을 단순히 예민한 것으로 치부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단 내 남성 선배와 여성 후배 간 갈등 상황에서 남성 복학생을 중심으로 한 성별 위계는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남성 선배와 여성 구성원의 권력차이가 드러나는 가운데, 집단의 남성중심성은 선배 남성-후배 남성으로 이어지는 남성 유대를 통해 세대를 넘나들며 강화된다. 이렇게 대학의 음주문화를 비롯한 남성중심적인 놀이문화는 계속해서 남성 구성원을 중심부에 남기고, 유인함으로써 집단을 남성화시킨다.

남자동기들 노는 게 딱 그래요. 워~ 형님.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밤에 드글드글하게 모여서 술 마시고, 시끄럽게 막! 술 마시고 자기 친한 남자애들 엄청 불러서 큰 술자리 하고 다 같이 한집에 자러가고 하는 거죠. 제 다음 학년도 그렇게 놀았고. 남자 애들끼리만 그렇게 노니까, 솔직히 다 찢어버리고 싶었죠(사례 A).

남자애들이 왜 술자리를 하면서 막 ‘형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남자 동기들이 선배들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사례 C).

남자애들이 아무래도 군대식처럼 ‘예, 형님’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식이든 뭐든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친해지고 챙겨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남자애들한테 연락 자주 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자주 연락해서 술 먹자 그런 것도 있고(사례 G).

너무 남자애들끼리 노니까 저희 동기 중에서 여자애들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제가 그때 문제의식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여자 새내기들 받으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 동기들이 온통 남자 후배들을 데려온 거예요. 왜냐면 그 애들이 후배들을 꼬시는 방식이 엄청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꼬시니까. ‘당구 치러 가자’, ‘형이랑 담배 피러 가자’, 이러니까 당연히 여자애들 말고 남자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남자애들끼리 노는 게 더 심해진 거예요, 다음 해가 됐을 때(사례 A).

이는 졸업 이후의 선배들이 후배들과 만나는 선-후배 만남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OPYP(Old People and Young People: 동아리의 선후배 만남 행사, 총회)에서 후배들이 만나는 선배는 대개 남성이다. 〈사례 A〉와 같이 분명 1,2학년 활동 기수에는 성비가 비슷함에도 불

구하고, 선배 기수부터 남성이 절대 다수로 남는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여성 구성원들은 묘한 괴리감을 느낀다.

사실 바로 윗학년 선배들까지는 성비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OPYP 같이 졸업한 선배들이 다 모이는 자리는 그냥 거의 다 남자였어요. 여자 선배가 오면, 여자 선배가 왔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자선배들이 거의 안 왔어요(사례 A).

남성들이 주도적인 집단에서 여성 선배는 부재하고, 이는 여성 후배들이 따를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이어진다. 남성 선배들이 남성 후배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성 후배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게 된다.

특히 막 선배들이랑 술 마시면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했죠. 전 듣고 박수치고 웃고 그런 역할. 약간 남자 선배들이 저를 예뻐했어요. 절 예뻐했던 이유가 여자애치곤 술을 많이 마시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부르면 나오고, 게다가 그냥 고분고분하고?(사례 A)

남자동기들도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거든요 분명히. 선배들 좀 그렇다 선배들 좀 너무 허세부리고 우리는 저런 선배 되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애들도 술술 선배들한테 배워가는 거예요. 선배들 옆에서 허세 부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걸 배워가니까 여자애들도 동기애들이 변해가는 거 보면서 더 극혐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네는 또 왜이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사례 A).

같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여성 후배는 같이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듣는 수동적인 역할인 것과는 달리 남자 후배들은 남자 선배와의 동일시를 통해 해당 집단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나가기 시작한다. 남자 후배가 남자 선배를 닮아감으로써, 그들이 또 새로이 해당 집단의 정점에 오르는 방식인 셈이다. 이처럼 남성에게 권력이 대물림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 구성원들은 괴리감을 느끼면서 집단의 주변부로 이동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여성 구성원이 배제된 집단 속에서 남학생들의 유대 관계는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기존의 남성중심적 집단문화는 강화된다.

그 남자 선배들이 그 약간 그 팸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동아리)도 같이 하고, 그 ○○학회 하는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단체로 한 번 와주니까, 뭐 일일호프 하는 데도 와주고, (...) 그 형들이 단체로 이렇게 와주는? (...) (반면 여자 선배들은) 그렇게 자주 와주... 자주 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 선배들, 남자들에 비해서(사례 마).

그 (동아리) 회장 형이 복학을 했을 때, 저는 그 형들끼리 되게 친한 줄 알았거든요. (...) 막 자기

4) ‘극도로 혐오하다’의 줄임말.

들끼리 군대 얘기하고 되게 막 친해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아, 원래 친한 형들이구나, 원래 알고 있었던 형들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 군대 시기랑 맞물려서 서로 못 봤다가 그 해에 그때부터 13년도에 딱 처음 본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서로 막 군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친하다 싶었죠(사례 라).

〈사례 마〉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대학 집단에 남거나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선배들은 대개 남성들이다. 한편 이 남성 선배들과 남성 후배들의 결합은 〈사례 라〉가 말하듯 놀라울 만큼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

만나면 이제 드라이브 하고. 술도 가끔씩 먹고. ○○형이랑 친하니까 이제 이 형이 또 친한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04학번이랑도 친하다고 했지만 내가 친한 거보다 이 형이 04학번이랑 더 친밀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매개로 해서 친해지고, 자주 보고. (···) (형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죠. (···) (형들을 만나는 이유는) 전 이 형들 상당히 유쾌하고. 일단 그 형들이 술을 사주니까. (···) 다 이제 직장인이고 하니까. 그러고 또 배울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취직을 한 사람들이니까, 다양한 직군에. (···)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어떤 거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고 그런 거를 요새는 많이 물어봐요. (···)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중국 유학도 관심 있고 해서, 여기 40명 중에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두 명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밥 약속도 내가 새내기처럼 밥 약속 잡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죠. 저는 이제 그 형들을 통해서 (···)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어요(사례 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나갔어요. 미팅만 나간 게 아니고 아는 형이 소개시켜준 친구들, 여자애들, 저한테는 세 살 네 살 누나들이에요, 그런 누나들이랑 같이 막 놀러가고 술 마시고 강남 같은데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밤늦게까지 놀고, 주로 여자애들 만나러 가는 자리를 그 형이 저를 데리고 다녔고, (···) 저도 약간 형한테 고마워하면서 그 형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형도 저를 엄청 편하게 여기게 되었고(사례 나)

남성 선배와 후배의 결합은 그 안에서 공유되는 자원을 통해 공고해진다. 〈사례 라〉는 쉽게 만나기 힘든 나이 많은 선배들이라는 인적 자본을 획득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나〉는 연장자 남성을 통해 유흥 문화를 접하고 학습했다.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성 간 유대 관계 속에서 선배 남성과 후배 남성은 ‘인맥’과 ‘정보’를 독점하고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교환하며 결속을 공고히 한다.

3. 집단적인 남성성의 수행 1: 위계와 폭력성

그러나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남성 간의 유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코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남성성으로 표상되는 폭력성과 위계성을 체현하는 남성적 악습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흔히 군기 잡기로 대표되는 폭력적인 문화는 대학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는 특히 공연 동아리

등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집단에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생회나 공연 동아리 등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른바 군대식의 정당화를 통해 이들 집단의 폭력성은 여타 대학 집단보다 강경하게 유지된다.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한 남선배가 굉장히 무게를 잡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군기를 잡겠다고 소리를 बारबार 지르고 ‘너네 지금 뭐하는거야!’ 너네 기강이 떨어졌단 식으로 강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하다가 결국 나갔어요(사례 B).

학생회할 때, 그러니까 과 학생회장이 은어적으로 표현해서 약간 병장병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과 회장이 되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멋진 형이야’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되게 리더십 있고 그런데, 뭔가 자기 일들이 마음대로 안 풀리면 그거를 약간 군대식으로 해결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병장이, 회장이 과의 구성원한테 부탁이나 해보자고 조언을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병장이 일병한테 ‘너 짬 좀 먹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군대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군대 문화를 옮겨 온 거죠. (...) 폭력은 안 하는데 (...) 어 저는 불려간 적은 없었는데, 따로 막 군대에서 (불려내서) 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둘이 얘기하고 이런 거는 있었던 거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애는 불려가지고(사례 다)

남성문화는 음주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남성적’ 문화와 결합하며 그 폭력성이 더 강하게 표출된다. 대학문화의 위계와 폭력성은 아래 사례들 속에서 어린 구성원들에게 술을 ‘토할 때까지’ 먹이는 것, 담배 연기를 여성 구성원에게 ‘뿜는 것’ 등으로 표현되었다. 담배는 남성성 체현의 효과적인 매개체인데, 담배피기 문화 역시 남성선배로부터 남성후배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들은 함께 담배를 피면서 유대를 강화한다.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담배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 유대에서 배제되는 기분이 들거나 위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첫날이 가장 폭력적인데 그때 무조건 토할 때까지 맥이거든요, 1학년만? 선배들은 안마시고. 무조건 오바이트를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게 그 방송국 문환데 그러는 이유가 뭘 학반한테 술부심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래요. 그리고 나선 2주 동안 수습 기간을 해요. 강연 같은 게 끝나면 술집가서 술 맥이고 진짜 딱 막차 전에 보내줘요. 그리고 다음 날 8시까지 학교에 와야 돼요. 그럼 제가 잠을 네다섯 시간도 못자고 또 술이 만취인 상태로 학교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 그러다가 아침에 지하철에 끼여서 시민들이 구출? 해준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위험한 건데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그때 이상한지도 몰랐죠(사례 E).

남자 애들이 진짜 담배를 많이 폈어요. 거의 다 피거나, 안 피는 애가 있어도 필 때 다 같이 나가거나. 그날도 개네가 담배를 피러 다 나간 거예요. 후배들만 남기고. 그럼 남아있는 선배가 저밖에 없잖아요. 분위기 다운되는 건 또 싫으니까, 저는 후배들 앞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그날 제가 너무 취해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엄청 울면서 “너네 담배 피러나갈 때 나한테 책임감이 다 물리는 건데 난 어떡하면 좋냐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회장할 때 담배는

저한테 엄청 힘든 거였어요. 다 담배 피니까 남자애들끼리 담배 토크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담배를 피야하나 고민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냥 자기들만의(남자애들만의) 영역이 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사례 A).

옥상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개가 담배를 뽕뽕 피는 거예요,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후~부는 건 아닌데 약간 비껴가듯이 얼굴에 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되게 낯선 상황이었잖아요, 담배라는 게. 저는 그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가 가장 남성성을 잘 체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개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행동하는 거죠(사례 E).

토할 때까지 마시거나, 토하고 또 마시기를 반복하는 음주 문화는 매우 폭력적이다. 설령 아래의 〈사례 나〉와 같이 자발적으로 폭음문화를 수용하고 만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체에 대해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사례 나〉가 드러내듯이 집단 문화가 이처럼 폭력적으로 형성되고 나면 집단은 이 위계성과 폭력성을 견딜 수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개 남성들이다.

엠티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술 마셨어요. (...) 제가 학회 엠티를 가면, 학회장이었어서 아는데, 학회 엠티를 가면 10명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소주를 한 께짝이 몇 병이지, 20병이잖아요. 한 께짝에 20병인데 소주 40병 (마셨어요). 저는 이제 가면 4병 5병 마셨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했죠. (...) 아 학회장 됐다하면 이제 전대 학회장이랑 새로 된 학회장 한 병씩 병샷을 시켜요. (...) (왜 그렇게 폭음을 하나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학회는,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엔 좀 더 남초 거든요. (...) 문화 자체가 그렇다고 해야 하나. (...) 그래서 병샷을, 엠티가면 이제 나랑 부학회장이랑 병샷하고 시작하는 거죠. (...) 술을 안 좋아했던 애는 잘 기억이 안나요. 왜냐하면 같이 잘 안 왔으니까. (...) 모집할 때부터 우리 술 많이 마신다, 술 많이 마시는 애들 들어와라, 술 많이 마시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 찍어요. 찍어서 밥 많이 사주고 학회에 집어넣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나만큼은 아닌데 엄청 많이 마셨어요(사례 나).

4. 집단적인 남성성의 수행 2: 성애화되는 어린 여성

남성중심적 대학집단 내에서 여성들은 성애화된다. 특히 나이권력과 결합한 비대칭적 젠더권력 아래에서 선배남성은 평가하고, 후배여성은 평가 당한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와 몸이 남성의 시각에서 대상화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내 자원을 많이 가진 남성선배의 일방적인 평가와 호감 표현에 불편함을 느껴 해당 집단에 진입하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새터조 선배가 저랑 밥 약속을 잡고선 아프다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애랑 밥을 먹은 거예요. 그 여자 후배가 예쁘다고 소문난 애였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새내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개가 저한테 ‘그 오빠 예쁜 여자 새내기랑만 밥 먹는데’ 하

더라고요(사례 A).

FG⁵⁾가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저희 열시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를 특히 챙기더라고요(사례 E).

개강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새터조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집적됐어요.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저녁 먹자고 그러더니 카카오톡으로 고백하고. 그거 때문에 새터조에 정 떨어진 것도 커요. 로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망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싫었어요. 진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 선배 학회에 관심이 있었는데, 불편해서 그 학회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애들도 몇 명이 저를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이성적으로 봤던 거 같아요. 계속 연락오고 밥 먹자고 하고 그게 진짜 짜증이 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아 남자들이 나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친구 사귀기도 너무 어렵고, 학회에 남아 있기도 싫었어요. 자꾸 남자들이 저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빨리 누가 있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 연애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생각도 컸어요(사례 F)

더불어 이 과정에서 남성 선배-여성 후배의 연애는 대학 내에서 일반적인 양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나이권력과 결합한 젠더권력의 비대칭성이 낳은 산물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도 남성 선배-여성 후배 구도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배랑 사귀는 애들은 두셋? 둘 정도였어요. 다 여자랑 남자 선배(사례 G).

엄청 예쁜 여자애들은 들어올 때부터 관심 집중이에요. 저희 밴드여서 들어올 때 세션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예쁜 새내기가 드럼을 선택하면 드럼 선배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드럼 새내기 봐라!’ 이렇게요. 근데 그게 점점 막 도가 지나치는 거죠. 거기가 선배들이 남자만 남으니까 자꾸 새내기랑 나이든 선배를 열고, 학번도 막 대여섯 번씩 차이나는 선배들이 새내기랑 사귀고 깨지고 사귀고 깨지고...(사례 A)

남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집단에서 여성들은 집단 내에서 관계자본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린 여성은 남성 파트너와의 연애를 통해 해당 집단에서 안정된 관계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한 여학생들의 고민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연애를 매력적인 선택으로 고려하였던 〈사례 E〉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선배들이 빠지고 나서도 계속 학회를 할 수 있었던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개(동기)랑 연애를 했던 거였던 거 같아요(사례 D).

저는 회장할 때 전에 회장했던 오빠가 절 되게 잘 챙겨줬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좋아한다고 얘기

5) Freshman Guide, 성균관대 계열제 1학년 LC를 관리하는 책임 선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 때문에 존경하는 것 빼고는 진짜 제 스타일도 아니고 아무 호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 때 되게 흔들렸어요. 그냥 전 회장하면서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했고 그 사람은 선배 집단 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했다는 게 순간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사례 E).

5. 남성중심적인 집단 속 여남의 적응 양상

지금까지 대학집단이 가지는 남성중심성과 이를 구성하는 남성성 수행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대학의 놀이 문화가 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 지형 안에서 여성들은 진입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례 D〉가 ‘감성이 맞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여성들은 대학 문화에서 묘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처음에는 ‘시키는 걸 다 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도, 결국 소외와 배제의 경험이 중첩됨에 따라 집단을 떠나거나 주변부에 머무르게 된다.

전 술 게임을 잘하고 술도 잘 마셔서 새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완벽하게 적응한 줄 알았는데 잘하는 거랑 거기 잘 어울리는 거랑 달랐어요. 친해진 애들도 없고 그렇게 술 마시고 떠들고 나면 그땐 재밌었는데, 다음날이 되면 허탈한 느낌이 있었어요(사례 A).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분위기에 젖어들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남자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고. 안 친한데 막 야 술 마셔 야야야~ 이런 건 좀 어색하게 느껴지니까(사례 D).

새터는 저랑 감성이 안 맞았어요. 딱히 못 지낸 건 아니지만 그냥 재미도 없고! 다들 되게 소극적일 때잖아요. 저도 그 중 하나여서. 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고. 그냥 그럴 때여서 제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재밌을 수가 없죠. 새터 끝나고도 새터조 술자리 같은 덴 열심히 갔죠. 근데 별로 마음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애정이 안 갔던 거 같아요. 새터 때도 그냥 무식하게 마시고 갑자기 모르는 방에 쳐들어가서.. 그게 뭐하는 건지.. (사례 D).

학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분위기가 좋아서 더 의욕이 넘쳤어요. 저 선거에 나가서 대표도 했고 모든 게 되게 잘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학회는 갈수록 힘든 공간이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놀던 분위기랑 다르게 갈수록 술만 먹으니까. 술을 안 먹는 애들은 안 오기 시작하고, 애들이랑 친해지기도 어려웠어요. 1학기를 보내고 여름이 됐을 때 애네랑 친해지려고 열심히 술자리도 하고 밥도 먹고 단체 카톡방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뭘 하고 싶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고(사례 A).

더불어 이러한 여학생의 이탈 문제는 여학생 당사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 내 남학생들의 인식 속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여자애들도 (엘씨 구성원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초반에는 가끔 나오다가, 여자애들도 초반에는 적

극적으로 했죠. (...) 점점 이제, 여자애들이, 여자애들 특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 물론 이제 남자들도 그렇지만... (웃음)(사례 라)

동아리 뒤풀이는 더 심했던 게, 여자애들이 세 명밖에 없어요. (...) 아까 (술자리에 참여할 때 여학생들은 혼자 오기를 꺼리고) 무리 짓는 습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웃음) 그러고 남자가 일단 시꺼매. 시꺼매고 많잖아. 그러니까 술자리에 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 ‘야, 뒤풀이 가자’ 하면은 ‘아, 예, 형. 가야죠.’ 얘기하는데, 여자애들은 막막 주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사례 라).

〈사례 라〉는 엘씨에서도 동아리에서도 여학생들이 술자리에 잘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음주문화에 대한 부적응이 집단에서의 이탈로 이어진 것이다. 대학 집단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남학생인 〈사례 라〉가 바라보는 여학생들은 집단에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다.

저는 뭐 공강 시간에 동방 쓰고, 선배들 아는 게 좋고, 형들 아는 게 좋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뭐 여자애들은 그렇다고 세미나를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참여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얘기도 많이 안 하고, 그렇다고 술자리도 안 가고. 동방을 많이 이용했나? 근데 그렇다고 1학년 때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동아리 사람 중에 누구를 좋아했다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여학생들이 동아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왜 그랬지?(사례 라)

〈사례 라〉의 동아리 여학생들은 동아리라는 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공간(동아리방), 활동(세미나), 친교(술자리), 인간관계(선/후배와의 교류)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남학생들의 눈에는 남성중심적인 집단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 혹은 배제된 학생들은 마치 도태된 듯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음주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남성성을 수행할 수 없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이탈과 배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아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은 대학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후에도 결국에는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등 불공평한 결과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사례 D〉처럼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맺음이 실패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이 있다. 대학 문화의 남성중심성은 비가시화 돼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과 소외감을 언어화하지 못한다. 결국 집단 내에서 적응하지 못한 여성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부적응의 원인을 스스로에게로 돌리며 대학 내 집단에서 활동하는 걸 포기한다. 실제로 다양한 집단을 경험하고, 활발히 활동했던 여성 연구 참여자들 중 반 이상은 현재는 대학 집단에서의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제 관계맺음은 실패했어요. 하하. 대학가서 친구 어떻게 사귀는지 이런 고민 때문에 행사에 거의 다 참여했어요. 정시오티, 수시오티, 수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도 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굳이 가서 애매한 관계만 많이 만들어 놔단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필요 없는데. 그냥 좀 그래요(사례

D).

저는 정말 별 역할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동아리 성격이랑 제 성격이랑 맞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사례 D).

전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데, 대학에선 술 마시고 술 게임 하면서 다 같이 만나서 노는 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바로 쉽게 친해지고 여러 명이랑 대화해야 되고. 전 그게 별로 좋지 않은데 좋아 하는 척? 그땐 뭔가 그래야 친해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죠. 또 막상 가면 재밌기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안 좋아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엔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죠. 약간. 노동하듯이 갈 수는 있지만. 대학 문화랑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요(사례 F).

다 중간이었어요. 그냥 학회원. 머릿수 채워주는? 뭘 엄청 잘 한 것도 없었던 거 같고. 그렇다고 뭘 못한 것도 없었던 거 같고. 그냥 뭐 세미나 아니면 뒤풀이 참여, 친목 다 합쳐서 중간이었던 거 같아요. 잘 하고 싶긴 하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에서는 좀 친해졌던 거 같은데. 그 분위기 자체는 별로, 못 어울렸던 거 같아요(사례 F).

향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거 같아서. 그래서 좀, 열심히 안 할 거면 차라리 아예 하지를 말걸. 제대로 하거나. 그런 후회는 좀 있어요(사례 F)

아래 <사례 F>와 같이 대학 문화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자신의 성격이 내향적으로 변한 것 같다는 응답을 찾아볼 수 있기도 했다. 쌓이는 배제와 소외의 경험 속에서 여성들은 이후 집단 활동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수동적/소극적으로 규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대학 집단은 남성의 공간으로 유지되고, 이어진다.

옛날에는 제가 외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오면서 성격도 바뀌고 좀. 지금은 정말 내향적인 거 같아요(사례 F).

이처럼 대학의 놀이문화로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음주문화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남성중심적인 술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대학의 놀이 문화는 집단적인 남성성의 수행을 통해서 유지되고 강화된다. 이 안에서 인정받는 구성원들은 대개 이에 적합한 남성 구성원들이다. 이 가운데서 대학 집단들은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을 보다 쉽게 모으고, 집단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음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집단의 놀이 문화가 갖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욱 거대한 셈이다.

이는 처음 보는 구성원들과도 집단 활동을 가능케 할 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쉽게 사람을 모으는 만큼이나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쉽게 소외시키며, 진입 가능한 구성원의 상은 남성으로 고정되어 있다. 타자인 여성과 주체의 위치를 위협하는

호모섹슈얼한 남성은 철저히 배제된다.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은 대학에는 왜 음주문화만이 남아있는지, 그 안에서 배제되는 구성원들은 없는지,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졌다. 대학 집단 문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 E〉는 ‘음주 문화가 유입되면서 소풍, 보드게임 카페, 수다 등의 놀이 방식을 향유했던 기존 집단의 문화가 사라’졌던 한 경험을 보여줬다. 이 사례는 우리는 남성중심적 문화가 가진 남성성의 수행 과정 속에서 남성 주체들을 결집시킴으로써 가지는 파괴적인 힘과 집단성을 만들기에 용이한 특성 등에 의해 다른 문화들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왔으며, 그를 통해 현재 대학의 놀이 문화가 유지되어 왔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학 안에는 남성중심적 놀이 문화가 담보하는 폭력성과 위계성, 타자에 대한 배제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다.

남자애들은 뭔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남자애들은 약간 어영부영해도 됐던 거 같아요. 남자애들은 왜 다 남아있을까? 전 진짜 궁금했어요. ○○○(남자 동기)가 나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왜 다 나갔을까. 근데 원래 윗학번에서도 여자애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학회는 엄청 많이 들어왔다가, 엄청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지(사례 F).

〈사례 F〉는 ‘여자애들은 왜 다 나갔을까’ 의문을 가지면서도, 결국 그 원인을 학회에서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성차별적 구조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과정에 우연히 여학생들도 많이 나갔다는 식으로 현상의 성차별성을 무마시킨다. 그러나 분명 단순히 우연으로 치환될 수 없는 집단의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학생들은 캠퍼스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도 떠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같이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과 남학생들 중 왜 여학생들은 집단을 떠나갔을까,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대학 집단과 그 안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의문이 지금의 대학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인 문화를 상상하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V. 호모소셜리티와 ‘여성성’의 체현

대학의 남성중심성은 남성 간 유대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남성 구성원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통해 집단 유대를 강화한다. 대상화된 여성은 의견이나 감정을 지닌 인격적 주체가 아닌 남성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육체화’된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브 세지윅

(Sedgwick, 1985)은 남성 간 유대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호모소셜리티’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호모소셜리티’는 남성 간의 성애를 의미하는 호모섹슈얼과 구분되는 의미로 성적인 것을 억압한 남성 간 유대 즉, 서로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성적 ‘주체’간의 연대를 의미한다. 욕망은 크게 ‘되고 싶은 욕망’과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성적주체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통해 성적객체화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모소셜 속 남성은 동료 남성과의 동일시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객체화를 통해 스스로의 주체성을 재확인한다. 우에노 치즈코(千鶴子, 2012)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서 ‘음담패설’을 호모소셜리티의 단적인 예로 제시한다. 음담패설이란 대상화된 여성을 언어적으로 폄하, 능욕하여 이를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의례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음담패설을 통해 남성은 성적 ‘주체’로서의 상호 승인과 연대를 구성한다. 또한 치즈코는 여성혐오적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혐오를 ‘자기혐오’로 내면화한다고 지적했다. 자기혐오란, 여성이 스스로를 신체적 특징으로 정의하거나 외형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공적영역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젠더지형도 다소 변화했다. 성취에 적합한 적극성과 능동성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요구되며 여성들도 ‘좋은 대학’을 욕망하도록 길러진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공부만 하는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여학생들은 ‘여성’보단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사회화된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대학입학 이후 급격하게 ‘여성’으로 호명되며 ‘성인 여성’의 자질을 요구받기 시작한다. 외적으로는 엄격한 외모관리, 내적으로는 수동적-순종적인 성격 등의 ‘여성성’을 체현하도록 기대 받는 것이다. 여대생들은 성별 이데올로기의 부당함에 대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혹독한 과정에 종속된다. 여성들이 선망하는 사회적 기준이란 미디어를 통해 선전되는 ‘지나치게 적은 체중’, ‘개미허리와 가는 발목’,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정갈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 등으로 철저히 분절된 ‘허구적인 몸’이다. 비현실적인 여성상이 기준인 이상,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결핍을 꾸준히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끝없는 ‘자기혐오’의 굴레에 빠져들게 된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성적대상화와 그에 따른 여학생들의 ‘여성성’ 체현을 네 갈래로 살필 것이다. 첫째, 여성들은 대학 입학 직전부터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형성-강요되는 ‘여성성’을 체현하기 시작한다. 둘째, 이는 대학 사회 내 일상적인 외모발언과 성적대상화를 통해 강화된다. 셋째, 젠더권력-나이권력과 결부되어 작동하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연애예찬적인 분위기가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성적대상화를 은폐한다. 넷째, 여전히 대학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문제 해결 노력의 부재는 여성의 집단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1. ‘여성성’ 체현이 시작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

대학 입학 직전, 여성들은 대상화되는 ‘성인 여성’의 범주에 급격히 포섭되며 몸/외모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다.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여성들은 모두 ‘외모관리’라고 답했다. 이는 외적으로 별다르게 준비한 게 없다는 대부분의 남성들의 대답과 대조된다. 여성들은 몸 자본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와 식이조절, 피부관리 등을 했고, ‘여성스러운’ 옷과 가방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답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외모관리는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엄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까운 관계(가족, 친구)에 의해 적극 권장된다. 성인 여성(및 일부 남성)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금전적, 심리적 지지를 넘어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연애에서 도태될 것이다’ 등의 발화를 통해 외모관리에 대한 공포감마저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적 기준에 걸맞지 않은 몸을 가진 여성들이 대학 및 사회에서 어떤 ‘취급(혐오)’을 받는지 아는 성인 여성들 자신의 공포감이 투사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이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여대생들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또래 여성들의 모습에 낯설음을 느끼면서도 이 과정에 동참한다.

저는 헬스장 피티(퍼스널 트레이닝) 받았어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막 그랬죠. 저희 엄마가 그때 저한테 돈 진짜 많이 썼어요. 가방도 비싼 거 많이 사주고. 피부 관리도 끊어주고, 피티도 끊어주고 하면서. 엄마가 대학 가면 예뻐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사례 E)

화장품이요.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 입학하자마자 언니가 절 데리고 에뛰드하우스에 들어가서 (웃음) 딸기 슈 틴트랑 말도 안 되는 팩트를 사주고. 옷도 좀 샀던 거 같고. 그냥 뭔가 대학생 준비? 코트 샀어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사례 F).

다이어트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친구들도 살 빼면 예뻐 거 같다고 말했고, 엄마가 맨날 ‘너는 연애 못할 거라고, 살 좀 빼라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화내고 나선, 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전화하면 살 빼란 말 밖에 안 해요. 너무 듣기 싫어요(사례 B).

한국 여학생이라면 가지고 있는, 대학 가면 다 환골탈태 한다니 그런 거 있잖아요. 웃긴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오면 ‘저 선배는 대학 갔는데도 안 예뻐졌냐.’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아니까, 제가 외모가 준비되기 전까지 모교를 방문하지도 못 하겠더라고요(사례 C)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새내기배움터 때 원 털 달린 무스탕만 입고 다녔어요. 혼자 흐뭇해가지고 (웃음) 지금은 잘 입지도 않아요(사례 A)

오리엔테이션 때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라길래, 편하게 입고 갔는데 여자애들이 다 털 달린?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왔어요.(웃음) 화장 엄청 뽀세게 하고. 뭔가 너무 똥 세상 사람들 같은 거예요. 낯설고 뭔가 무섭고. 그래서 웬지 개네랑 안 맞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사례 B).

우리 사회에서 여성-대학생의 ‘이미지’는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는 여성, ‘대상’(object)이 아닌 여성들은 혐오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목소리내본 경험이 드문 이전 세대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여대생들에게 ‘외모관리’를 적극 권장한다. 많은 인터뷰이들은 이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일상적인 성적대상화가 사실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읽어낼 수 있었다.

옷 취향 같은 건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요즘은 좀 중성적인 옷들이 끌리는 거 같고.. 그런데도 제가 탈피하지 못하는 건 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게 진짜 머리에 딱 박혀있는 거 같아요. 많이 먹으면 죄책감 느끼고, 기름진 거 먹으면 죄책감 느끼고. 밥 먹을 때도 죄책감이 들어요(사례 F).

저 너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요.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냥 피티 받으면서 한두 번 재다가 엄마가 제 방에다가 체중계를 갖다 놓은 이후로 맨날 아침마다 샤워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아파서 살이 빠졌는데,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면 살 빠졌다는 얘거나 예뻐졌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칭찬이 하나도 안 기쁘고 오히려 내 몸이 정말로 평가받는 대상이라는 걸 더 뼈저리게 느낀 거 같아요. 다시 살찌는 거에 대한 공포만 심해졌어요...(사례 E)

(다이어트를)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죽고 싶었거든요(사례 B).

2. ‘여성성’의 체현 1: 일상적인 외모발언/성적대상화

여성 인터뷰이들은 대학에서 접하는 외모발언/성적대상화를 통해 외모관리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고 답했다. 몇몇 인터뷰이는 직접적인 외모 발언을 듣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외모 발언/평가는 일상적인 일이다. 사례들을 분석해본 결과 대학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성적대상화는 ‘칭찬’의 형식을 띄는 외모발언이었다. 남학생들은 대학 공간에서 마주치는 여학생에 대한 평가(예쁘다, 최고다)를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권력의 비대칭성이 평가의 주체를 ‘남성’으로,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 지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성을 동등한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는 ‘여성혐오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성에 의한 일방적 평가가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집단 내에서 가지는 권력이 적은 현실과도 상응한다. 성적 대상화는 성희롱과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자가-그렇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모발언/성적대상화를 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남성 선배’이다. 이는 나이권력과 결합한 젠더권력의 비대칭성이 낳은 산물이다. 대학 집단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남성들은 쉽게 여성을 평가하는 위치에 서며, 여성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들은 성적대상화가 연애대상을 물색하는 ‘이성에 중심주의’와 합쳐지며 낭만화 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평가’는 예쁘다는 ‘칭찬’과, 살을 빼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으로 미화된다. 여성 인터뷰이들은 외모발언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자신도 ‘평가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남성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결핍을 찾아내며 위축됐던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성적대상화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많은 여성들은 이에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자기혐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모발언은 연쇄적인 대상화와 여성(자기)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적이며 또한 미의 기준을 획일화시키고 루키즘을 확산한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 실은 소외와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외모발언을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했겠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와서는 좀 더 교묘하게 듣는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쁜 여자 칭찬을 너무 듣기 싫게 하고. 대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이 “뭐 어디에 누구 예쁘다, 개가 최고다.” 그냥 과방에서 되게 일상적이에요 그런 말이(사례 B)

제가 동아리 대표할 때 후배들 중에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동기 남자애들이 자꾸 ‘누구누구 예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연애대상?을 물색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후배들이 혹시나 들을까봐 조마조마하고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뭔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같고.. 몇몇 남자애들이랑 실제로 걸끄러워지고(사례 E)

대학 생활에서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서 외모에 관한 지적을 되게 안 들었던 편이라고 생각해요. 전 조직에서 제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았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근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분명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듣는 걸 봤으니까요(사례 C)

사실 저는 사람을 볼 때 예쁘다/안 예쁘다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인상이 무섭다/상냥하다, 그런 걸 인지했지? 근데 제가 동아리에서 같이 다니는 여자애들이 둘 있었는데 사람들이 개네한테 예쁘다는 말을 진짜 자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 기준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배웠던 거 같아요. 근데 예쁜 애들 둘 사이에 끼여 있으니까 뭔가 자꾸 제가 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매력이 없나? 내가 뭔가 재미가 없나?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변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나는 저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내 외모를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 때 알았어요. 예쁘다는 칭찬이 누군가한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체득했던 거 같아요. 약간 소외감도 들고...(사례 A)

‘페이스북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같은 익명게시판에 ‘중앙도서관 어디 앉았던 누구누구 여자분 되게 예뻐요.’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정말 어딜 가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섬뜩해요. 내가 대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E).

얼굴에 여드름 나면 남자애들이 꼭 얼굴에 난 거 뭐냐고 지적 하고, 살쪘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해요. 저번엔 어떤 남자애가 “너 셀룰라이트 있더라? 운동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 다리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선배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개네는 늘 그렇게 전혀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거죠. 남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무례하다는 걸 아예 모르는 거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덮어요. 진짜 많이 지적받은 거 같았어요. 짜증날 정도로(사례 F)

남자 선배들이 예쁜 후배랑 밥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들었어요. 선배들끼리 농담 주고받을 때, 어떤 선배가 ‘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너 예쁜 새내기 꼬시려고 그러지’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서 ‘아 예쁜 여자애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A)

저희 LC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외모 순위를 매겼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짜증났어요. 그걸 마치 칭찬이라는 식으로 전해주는데 정말 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더 멀어진 것도 있었죠(사례 F)

화장! 전공캠프 때 화장 엄청 열심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 어떤 선배가 막 “야 너 화장 지우니까 못 알아볼 뻔 했다. 화장 좀 하고 다녀라!”하는 거예요. 그냥 막 조용히 하라고 웃으면서 넘어갔죠(사례 A).

타자화된 대상(object)이 된다는 건 자신의 몸에 대한 혐오를 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성과 소극성을 체득하는 걸 의미한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이 아닌 여성성이 주목받는다라는 걸 인지하며 일반 여성-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을 배워나간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이미지는 주로 ‘외모-능력’, ‘수동-능동’의 구도로 나타난다. 여성에게 ‘여성스러운’ 옷차림과 화장과 더불어, 수줍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요구된다. 여성들은 대학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조신함, 얌전함, 수줍음 등으로 표상되는 ‘여성성’을 어색하게 체현한다.

상냥해야 할 거 같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너는 착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게 결국 남 말을 잘 들어주고 고분고분 따라준다는 말의 동의어이잖아요. 사람이 화도 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저는 해야 할 말을 할 때조차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래야 할 거 같고...(사례 A)

새터 조에서 싫어하는 선배가 생겼어요. 저랑 밥 약속을 잡고 나서 자기 아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애랑 밥을 먹은 거예요. 그 여자후배가 예쁘다고 소문난 애였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 새내기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개가 ‘그 오빠 예쁜 여자 애랑만 밥을 먹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알게 되고 화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뭔가 신경 쓰였어요. 예쁜 애들한테만 밥 사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예쁘지 않은 여자애라서 밥 약속도 까이고 그런 건가? 이후에 그 선배랑 같이 있는 술자리에선 예뻐 보여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자리에서도 망가지지 않

아야 할 거 같고. 화장도 잘해야 될 거 같고. 너무 요란법석하지 않아야 될 거 같고. 표정도 신경 써야 할 거 같고...(사례 A)

저,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새내기배움터에 갔을 때 수줍은 척하면서 있었어요. 약간 그래야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FM 수식어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왠지 수줍은 여자애여야 할 거 같았어요. 심지어 1학년 땐 팀플 때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왜 그랬지? 제가 제 장점을 모르니까, 사회적 기준들을 무조건 따랐던 거 같아요. 이후에 제 장점이 뚝뚝함이란 걸 인식한 이후에는 절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졌죠. 그러기까지 무한한 실패가 있었 다.. 그 정도?(사례 E)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강박과 자기혐오를 안고 살아간다. 동시에 ‘여성성’의 틀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흥미로운 건 몇몇 인터뷰이들이 여성혐오적 구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입학과 함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자기혐오를 탈피하게 된 배경에는 좋은 여성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 비체(object)들은 친구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 속에서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규정된 여성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혹자는 가부장제가 ‘공기’와도 같기 때문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래 여성비체들의 경계 넘기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경계 밖으로 향한 여성 비체들은 ‘가부장제’라는 텅텅한 공기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녀들을 구속하던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여성 비체들의 경험이 좀 더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했다. 여성 비체들의 변주를 목격하는 다른 이들도 그에 용기를 얻어 경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남성중심적인 대학 사회를 재구성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처음에는 마치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나를 도망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침에는 무조건 BB크림은 꼭 발라야 했던 1학년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번호 많이 따이고 이랬던 시절에는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녔죠. 특히 뭐 어떤 행사, 축제 이런 거 하는 날에는. 근데 그냥 내가 굳이 화장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가 저보고 ‘야 화장 안한다고 해서 누가 너랑 갑자기 친구 안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여자 친구들 만날 때 개가 화장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가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화장 안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냥 ○○나.. ○○이나. 그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 걸 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화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사례 A).

저는 진짜 살에 대한 강박? 자기혐오가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몸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웃음) 그렇게 되는데 있어서, 친구들의 표현 같은 게 정말 많이 와 닿았죠. 제가 쌤얼⁶⁾에 안경을 쓰든 뭘 하든 꾸준히 ‘너무 귀엽다, 사랑한다’ 그런 애길 꾸준히 해

주기도 했고, 제 능력이나 제가 가진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친구는 얼굴에 숯검댕이가 묻어있어도 귀엽더라고요. 그 사람의 색채는 화장 같은 걸로 가려지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생각?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외모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벗어났다곤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는 걸 믿어요. (웃음)(사례 E)

3. ‘여성성’의 체현 2: 이성애 중심주의와 연애

‘입학 전에 어떤 것들을 기대했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애를 꼽았다. 여남을 불문하고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들 중 하나가 ‘연애’이다. 개개인의 연애에 대한 환상과 욕망은 ‘젊은 20대 남녀라면 연애를 해야 한다’는 연애예찬적인 사회적 통념에 기반을 둔다. 아래 사례와 같이 대학생에게 비(非)연애 혹은 연애를 욕망하지 않는 상태는 ‘특이한’ 경우이거나 무언가 결핍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냥 무조건 연애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도록 안 생긴 거예요. 로망도 있고 대학 오면 다 애들 생긴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거지 조금해졌어요. ‘아 진짜 이러다가 나 완전 평생 솔로로 사는 거 아니냐.’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약간 허겁지겁 공작지를 제가 스스로 눈에 끼웠어요. 얼떨결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랑 썸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빨리 사귀었어요. 마음이 식더라고요. (...) 왜 헤어지는 걸 미뤘냐면, 여자가 애인이 있으면 그래도 뭐 하나는 잘났으니 애인 있겠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애인 없으면 모자란 애처럼 무시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안 그렇더라도 전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사례 G).

그러나 이 통념은 이성애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배타적이며, 대부분의 이성을 ‘잠정적 연애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남 간의 친밀함은 소위 ‘썸’이라는 연애 단계의 일부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연애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연애 대상에 대한 상시적인 물색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이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서로를 ‘남성성’과 ‘여성성’의 틀에 끼워 맞춰서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그 틀 안에 우겨넣으려는 불편한 노력을 하게 된다. 성애적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부재한 토양에서 여남의 건강한 관계맺음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편 호감의 표현, 연애대상의 물색 역시 젠더권력-나이권력과 결합해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 내에서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남성선배들에 의해서 나이 어린 여성들은 상시적으로 성애화되며, 남성 간 호모소셜리티는 소위 ‘몰아가기’라 불리는 연애를 권장하는 놀이문화를 향유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낭만화된 놀이문화는 성희롱/성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6) 화장하지 않은 얼굴, 맨 얼굴을 일컫는 말

또한 남성중심적 대학 사회에서 인적 자본을 획득할 기회가 제한적인 여성에게 ‘남성과의 연애’는 자본에 가까워지는 ‘통로’이다. 이는 동시에 집단의 남성과 연애할 수 없다면/거부한다면 집단 내 자본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인터뷰이들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쉽게 ‘과잉 성애화’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실제로 이를 계기로 집단을 이탈했던 경험에 대해 토로했다. 이는 남성 간 유대의 핵심 작동기제인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여성의 인적자본 형성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동아리에서 적응하려면 오빠들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딜 가든 선배들은 다 남사고... 저도 동아리 안에서 오빠들이랑 친했는데, 그 중에 잘 챙겨주던 오빠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 근데 제 스타일도 아니고 웬지 무섭기도 해서 고백을 거절했거든요. 저는 그 날 이후로 그 오빠가 있는 술자리에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OPYP 같은 데 가면 그 오빠를 피해서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가끔 날 자기 테이블로 불러. 그럼 난 어색하게 피하고, 되게 불편했어요. 오빠들끼리 그걸 공유할까 봐도 무서웠고(사례 E)

개강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새터 조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집적됐어요.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저녁 먹자고 그러더니 카카오톡으로 고백하고. 그거 때문에 새터 조에 정 떨어진 것도 커요. 로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망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싫었어요. 진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 선배 학회에 관심이 있었는데, 불편해서 그 학회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다른 학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애들도 몇 명이 저를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이성적으로 봤던 거 같아요. 계속 연락오고 밥 먹자고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게 진짜 짜증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아 남자들이 나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친구 사귀기도 너무 어렵고, 학회에 남아 있기도 싫었어요(사례 F).

한편 몇몇 인터뷰이들은 집단 내에서 연애를 했을 때 도리어 다른 관계맺음이 편해지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연애 각본에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른 남성의 소유물인 여성에 대한 성적 관심이나 어필은 호모소셜의 동료이기도 한 파트너 남성에게 대한 권리 침해이자 도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맥락에서 남성들은 파트너 여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편한 시선’을 거두게 된다.

자꾸 남자들이 저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빨리 누가 있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 연애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생각도 컸어요(사례 F).

나중에 동아리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겼는데 이전 제가 남자 친구가 있단 걸 다 아니까 저를 이성으로 보진 않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사례 E).

오늘날 대부분의 연애관계는 정형화된 연애각본을 따르게 된다. 연애각본 속 여성의 불행은

보호하는 남성-보호받는 여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성성'을 권장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 계속해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고 장려 받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에게는 순종적인 '여성'이 되길 장려 받는다. 많은 여성 인터뷰이들은 연애를 시작한 후에 화장하는 빈도가 높아지거나 치마를 입는 횟수가 늘었다고 고백한다. 이는 여성들이 연애각본 내에서 남성들이 욕망하는 '여성성'의 결을 상세히 읽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에게 요구되는 '애교'는 수동적인 여성상이 확장되어 유아화된 모습으로까지 전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애할 때) 저는 구두를 신고, 치마나 원피스 입고. 머리 기르고. 제 수준에서 꾸밀 수 있는 건 다했어요. 그 코딱지만한 가방 싫어하는데, 예쁘고 작은 가방 메고. 샌들도 무슨 굽 이만한 거... (사례 A)

남자친구가 원피스 같은 걸 좋아해서 그걸 입으려고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장은 다 하고 갔죠(사례 F).

여행을 가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원래 좀 털털하고 낯가림 없는 성격이어서 친구들이랑 있으면 제가 거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개가 택시 아저씨랑 얘기하고, 길을 묻고, 주문하고, 숙소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전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면 정말 자연스럽게 약간 수동적으로 되는 게 있었어요... 뭔가 공식적인? 대화를 남성들이 하는 게 보편적이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우리가 그 역할 모델을 체득한 게 아닐까 싶어서 난 그게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남자친구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의 차이가 생길 때 제 마음이 하나 둘 식었던 거 같아요(사례 E).

제가 체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애길 했더니 개가 제 배를 만지면서, '어 진짜 배가 훌쩍해졌네. 두 번 더 토하면 실현되겠네.'라고 말한 거예요. 그날 대판 싸웠어요. 내가 그 확실적인 기준 탈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네가 알거나 하냐고. 개가 그런 의미 아니었다고 사과도 하고 정말 칭찬일 줄 알고 말했겠지만, 진짜 너무 서럽고.. 개랑 사귀는 내내 '내 외모가 뭔가 부족한데 내 성격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까 괴롭고.. 결국 헤어졌죠. 근데 진짜 그 일이 뭔가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에 제가 상처받는 걸 아니까, 내가 그동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해왔는데!! 억울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 없는 새끼는...(사례 E)

대중적인 '연애각본'에서 여성은 연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대학 내 호모소셜리티에 진입하기 힘든 여학생들은 관계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이를 연애 관계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연애관계에 매몰되기 쉽다. 남학생들이 연애와 사회적 관계-생활을 병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여성에게 돌봄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젠더화된 연애각본은 이러한 불평등한 지형을 은폐-낭만화한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같은 집단 내에서 연애를 시작하는 남성선배-여성후배의 구도에서 두드러진다. 실제로 많은 캠퍼스 커플들은 같은 집단 내에서

만난 남성선배-여성후배 간의 관계이다. 인적자본이 채 형성되지 않은 여성후배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매몰되거나 남자친구를 매개로 하는 호모소셜리티에 포섭되는 경향을 보인다.

(웃음) 동아리 내에서 연애했던 거 너무 후회합니다. 수치 수치 수치.. 사람들이 왜 안 말렸을까 뽀 때리고 말렸어야지.. 아니, 일단 선배가 멋있어 보였던 게 컸던 거 같아요. 저 말고도 남자 선배랑 사귀는 애들이 좀 더 있었는데 개네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남자친구랑 깨지고 나서 보니까 다 개랑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나름 그 사람들이랑 친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개랑 더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고 특히 남자애들은 더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게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되게 그걸 느꼈어요. 뭔가 남자애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사례 F)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7일을 남자친구랑 붙어 있었으니 외롭다거나, 시간적인 틈이 생긴 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가 하나 없으면 완전 텅 비어버리는 거 같아요. 적당히 좀 만나고 제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른 집단에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텐데, 너무 올인을 했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사례 G)

진짜 귀찮았는데, CC니까 거의 맨날 봤던 거 같아요. 전 그게 너무 싫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 봤는데 애들이 약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상인가보다, 하고 맨날 만났죠. 제가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 50은 썼던 거 같아요. 개랑 만나야 되니까 활동하던 동아리 뒤풀이를 거의 못 갔어요. 행사 같은데도 잘 못 가고. 새로 관계는 못 만들었죠. 심지어 축제 때 아니 제가 밤 샌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개 친구들도 옆에 있었는데 막 다 절레절레 하면서.. 그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승질내면서 개박치게. 다 개 편이잖아요.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도 전남자친구랑 친한 애들이랑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저도 친한 애들이 있었는데 전남자친구는 제 친구들이랑 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사례 F)

저랑 친했던 여자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다 절 내팽겨 치고 떠났어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력해서 좀 슬펐어요. 분명 나랑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의 감정의 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애인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조건에 처하고. 기존의 관계와 상관없이(사례 E)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성은 연애 시작 후, 자체적으로 형성했던 관계들에서 멀어지고 이를 자연스럽게 여긴다. 〈사례 G〉의 경우 연애를 할 때 만났던 여자 동기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연애 과정 속에서 친구와 멀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지 ‘그럴만한 친구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모순되게 응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린 연애만이 ‘아주 특별한 관계’로 인식되는, 관계에 대한 상상력이 결핍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모순적이

제도 여성들은 연애 관계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결핍을 ‘특별한’ 연애 관계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악순환에 들어서기 쉽다.

이 때 페미니즘의 언어는 왜 여성들이 연애관계에 ‘목을 매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주며,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연애각본에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단일한 연애각본에 대해 질문하고, 그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의식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여성 비체들의 경험을 찾고, 이를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적대상화와 성희롱/성폭력⁷⁾의 경계

대학 내 일상적인 성적대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환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쉽게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6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남성대학생들의 단체카톡방 성희롱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학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은 일상적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남성들의 입장이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남성들은 왜 ‘사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많은 남성들은 젠더‘권력’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협소하다. 이는 현 대학의 성평등 정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것(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과 성희롱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적이지 않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언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자 후배는 자신이 대상화되는 것에 묘한 이질감과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이에 동참한다.

여성 대 남성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임하는 대학교 조별과제에서조차 여성은 동등한 주체가 아닌 평가대상으로 여겨진다. <사례 B>는 조별과제를 함께하는 남성 조원에게서 ‘똥녀’라는 발언을 듣는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당사자인 여성은 이에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제기가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있다. 대학 내 성차별적 지형이 비가시화된 상황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 함께 문제의식을 갖거나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성폭력내규’를 비롯한 여성 운동은 이름만 남거나 희화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집단 내 여성들의 이탈로 이어진다.

술자리 가면 남자 선배들이 자기 테이블로 여자애들 한명씩 불러서 이상형 월드컵을 해요. ‘이 사람들 중에 한명을 골라야 하면 누구랑 결혼할 거냐.’ ‘네가 본 야동에 한명이 나온다면 가장 흥분될 것 같은 사람?’ 새내기 때 진짜 충격 받아서 멘데 떨어져 있었어요. 제일 심했던 말은 ‘네가 여기 중에 한명이랑 무인도에 갔는데 번식을 해야 해. 그럼 누구랑 할래?’ 그냥 무조건 골라야 하는

7)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폭행 모두를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대학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성희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희롱/성폭력이라고 표기했다.

줄 알고 “아 그래도 누구 선배가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사례 A).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학회 오빠가 ‘귀엽네’ 하면서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기분이 진짜 좇같았어요. 왜 만지냐고, 짜증난다고 말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너무 싫다, 슬프다(사례 B).

올해는 새내기들이 과방을 더 안 왔어요. 과에 너무 더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복학생 남자애가 15학번 애들 찔러보고 성희롱하고.. 그거 때문에 15학번 여자애들 과방 안 오고. 안 그래도 14 여자애들부터 과방을 많이 안 왔는데. 근데 저처럼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저 사람이 성희롱 했대 가까이 가지마 정도? 공론화는 못했어요. 그냥 쉬쉬하면서 피하고(사례 G)

같이 조별 과제하는 애가 단체 카톡방에 ‘똥녀가 ppt말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ppt말고 다른 걸 해달라고 한 직후에. 그걸 보고 제가 화를 내니까, 자기 누나를 지칭한 말이니, 어쩔니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개가 너무 뻔뻔스럽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실명공개해서 글을 썼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좋아요 눌러서, 좋아요도 500개 넘고.. 근데 그 글이 논란?이 되는 걸 보고서야 개가 찢찢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왜 여성혐오냐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교수님도 처음엔 애매하게 반응하고. 저는 그 과제만으로도 너무 정신없고 바쁘니까 뭘 어떡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친한 언니가 문과대 여학생위원회랑 양성평등센터에 가자고 해서 같이 신고하고 나서야 교수님이 분리조치 취해주시고 사과문 받아내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밤에 문득문득 생각나요.. 너무 화나고...(사례 B)

전 새내기 배움터를 다른 단과대 소속으로 갔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반성폭력 내규를 그냥 성폭력 하지말자! 반~성~폭~력~ 이런 거 몇 번 따라하고 끝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만지지 맙시다, 반~성~폭~력~. 막 섹시 댄스 추다가도 과해지면 반성폭력~ 이러면서 막, 와~ 이러면서 놀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충격적이었죠(사례 E).

Ⅵ. 여성리더의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변주

김은진(2002)은 사회생활의 전단계인 대학 내에서의 리더 경험이 사회에서의 리더를 육성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개인적, 사회적 자본이 되지만 남녀공학대학교 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리더 경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은진(2002)에 따르면 여성들은 선배나 교수와의 관계에서 소외됨에 따라 리더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또한 여

성 리더들이 예비역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점이 리더로서의 ‘능력 없음’으로 부각된다. 일부 여성 리더들은 남성성 수용 전략을 통해 ‘예외여성 되기’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부차적인 위치에 머무른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여성연대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대학 사회에는 훨씬 많은 ‘여성리더’들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성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사회화된다. 이에 따라 대학사회 내 여성들의 리더 자리에 대한 접근성은 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리더는 ‘남성’이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이 중 리더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은 남성성과 모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 남성중심적 집단 문 속에서 유지되는 공고한 남성 간 유대에 진입할 수 없었던 데서 오는 박탈감에 대해 말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들이 단지 피로감과 박탈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 리더들은 남성중심적 대학문화에서 소외된 이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놀이문화와 관계 맺음 방식을 고민한다. 이들은 대안적인 집단문화를 선후배 여성들과 공유하고 실천한다. 또한 여성 후배들은 틀에 박힌 ‘여성성’을 체현하는 대신 이들 여성 리더에 동일시하고 새로운 ‘여성성’을 체득한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집단 내 리더에게 요구되는 획일적인 남성성과 여성 리더들의 이중노동을 가시화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녀공학대학교의 여성 리더들이 대학 집단문화의 남성중심성을 공론화하고 더 나은 집단문화와 새로운 ‘리더’를 상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용되는 ‘남성성’

남성중심적인 대학 문화에서 리더는 집단별로 요구되는 능력(학회-학술적 능력, 학생회-인적자본의 결집력, 공연동아리-퍼포먼스 능력)에 더해, 위계 문화와 음주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남녀공학대학교 내 여전히 남아있는 군사주의적 위계질서에 대한 적응력이 리더의 핵심 자질 중 하나가 된다. 군대를 전역한 복학생이 가진 ‘깍뚝함’은 ‘어른스러움’으로 인식되며 집단 내 핵심적인 역할을 배분받는데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복학생 남성은 주변 (남성)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서 리더 자리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반면, 여성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함으로써 그 기회를 ‘획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비가시화된 대학집단 내 성별 위계 속에서 집단 구성원들은 이를 (1)원래 리더 자질이 있었던 남성에게 그동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2)여성 개인의 자질이 부족했던 것(사례G), (2)어려서 그런 것(연령주의)이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총학생회는 요직에 확실히 남자애들이 많아요. 국장급엔 저 빼고 다 복학생 남자였어요. 근데 그만큼 남자애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남자애들이 막 희생을 잘해서가 아니라, 개네한테 ‘아 내가 이것만 하면 이 자리 먹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 열심히 할 유인이 확실한 거죠(사례 C).

아마 국장일을 계속 했어도 총학생회장은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총학생회장은 남자 복학생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해요. 중운들-단과대 회장들 중에서 나이가 좀 찬 남자가 항상 후보 목록 1번이거든요. 남자이고 복학생이어야 하고(사례 C)

15년도엔 ○○(여자회장)이가 하고 싶다고 이미 말했고, △△오빠(남자회장) 선배들이 차기 회장감이라고 확실하게 밀어줬어요. 일단 군대 다녀왔으니 교수님 대할 때도 깍듯하게 대하는 게 있었고. 일을 맡기면 되게 잘 할 거 같고, 성격도 싹싹하고, 선배들이랑 연락도 많이 했고.. 그 오빠도 뭐 학을 떼면서 ‘저는 회장 절대 안 해요.’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본인도 과에 잘 적응했는데 회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나요?) 만약에 △△오빠(남자회장)가 러닝메이트가 없었으면 저한테 해보겠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저 스스로도 제가 회장감은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랑 재밌게 노는 걸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제가 △△오빠처럼 무게 있어 보이는 편도 아니고(사례 G).

확실히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려는 애들 중에선 그 오빠랑 친한 애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사례 A).

(올해 과 회장이 된 남자 동기) ○○이가 복학하고 나서 선배들이 많이 추천했고, 여자 러닝메이트도 개한테 같이 하자고 했고, 근데 개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대요. (평소에 회장감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뇨.. 1학년 때 같은 엘씨였는데 엘씨 애들이 개가 이번에 과회장 후보라는 거 듣고 다 놀랐거든요? 좀 조용한 애였어요. 근데 그냥 저희가 착각을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조용하게 있던 거였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조용한 애는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해요. 해야 할 땐 잘 했던 거 같기도...(사례 G)

2. 대학 내 여성들의 적응방식: 남성성 수행, 외모 자본의 체현, 모성 수행

오늘날의 대학사회에선, 여성도 (1) 남성성 수행(능력 발휘나 재미 자본의 수행)을 통해 집단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함께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능력 자본과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도록 길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남의 남성성 수행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다. 집단 내 여성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름다움을 체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2) 외모자본을 통해 주목받거나 (3) 모성을 수행하며 남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 집단에서 살아남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혐오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돌려 말하면 ‘아름답지 않으면 여성이 아니다’는 앞서 언급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의 맥락이다. 여성을 능력이나 인격이 아닌 ‘육체’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몸 자본 관리에 대한 압박(자기혐오)을 느낀다. 여성리더를 포함한 모든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성적대상화에 의한 자기혐오를 고백했다. 하지만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맥락은 지워지고 그 자리는 ‘개인의 성향 차이’, ‘사람들의 선호’ 등의 개별적 요인들이 대체한다. 이는 대학 내 남성중심성에 문

제의식을 갖고 공론화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여성들의 일상, 삶, 역사가 가시화돼야 할 이유이다.

일단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할 때도 과장이 있든 요즘 유행하는 드립을 잘 알든, 전 말하는 거에서 재미를 끌어오는 방법을 써요. 아니면 외모가 엄청 눈에 띄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둘러보는 스타일이거나. 전 그게 아니니까 재미를 주면서 집단 안에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어요(사례 C).

수줍은 캐릭터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예쁜 사람들이나 하는 거란 걸 깨닫고 개그캐릭터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뭐 이전처럼 되게 사랑받았었어요. 살아남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요(사례 E).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일 거 같아요. 엄청 예쁜 여자애들이야 당연히 좋아하고, 사람들을 두루 챙겨주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할 거고. 기세고 재밌으면 어딜 가도 잘 사니까.. 그들이 잘 나가고 그런 건 당연한 거 같아요(사례 G).

저는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았던 건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명예남성’이었거든요. 처음엔 남자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일을 더 많이 했긴 한데, 인정받은 후엔 편했어요. 제 능력이 인정받고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학생회 인선도 맡겼거든요. 아 근데 그게 사실 사무국장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하겠다니까 그건 안 된대요. 총학생회장이 “네가 여자고, 너무 어리고, 그리고 너 째미 안 찼잖아 새끼야. 09학번, 12학번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다른 오빠들을 다 제쳐두고 사무국장을 하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나이 때문에 영향 받은 게 더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막내였고 오빠들이고 하니까, 뒤로 글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말하세요’하고. 일은 제가 사무국장처럼 다 해도 항상 다른 오빠들 앞에서 사무국장 오빠 면 세워줬거든요(사례 C).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정성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루 날 잡아서 연락하고 몇 시간동안 연락하고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거 담아서 새해 인사 진짜 이따 만하게 개네 특징 다 넣어서, 명절 때도 연락하고요. 애들 문제 일으키면 개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해주려고 계속 만나고요. 개를 몇 주 동안 만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엄마 같지 않았을까요?(사례 A)

3. 여성 리더들의 양상

대학사회에 등장한 여성 리더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띤다. 첫째는 여남이 공동으로 리더를 맡는 경우이다. 여남 공동 리더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 여성의 경우, 남성 리더를 보조하는 역할이 주어지며 이를 잘 수행할 때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회장인 상황에서) ○○오빠(남학생회장)가 좀 더 선배들이랑 교수님한테 연락하는 역할이었던 거 같아요. △△(여학생회장)이는 동기랑 후배들 챙기고요. ○○오빠가 좀 더 활동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14년에도 비슷했어요. □□언니(여학생회장)는 일을 마냥 잘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남학생회장) 서포터도 잘 하는 것 같았고, 준비나 정리도 잘 하고? (사례 G)

저희 과는 무조건 회장후보는 복학생 남자들이 하고 부학생회장 후보는 2학년 여자애를 세웁요. 그냥 뭐 A가 복학하면 선배들이 ‘아 그럼 너 이제 회장 해야지’ 이렇게 해요. 남자 학생회장은 선배나 교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고, 여자 부학생회장은 새내기들 돌보기, 모임 만들어주고 잘 지내는지 챙기는 걸로 딱 역할이 나뉘어있어요. 이번에 부회장 후보가 안 나왔는데 그럼 좀 더 나이 많은 여성을 찾거나 아니면 남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네들은 남자 복학생 회장이랑 어린 여자 부회장의 구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나봐요. 무조건 1학년 2학년 여자애들 꼬시러 다니는 거 보면서 진짜 머거리 텅텅 비었다 (웃음) 그렇게까지 상상이 안 되는 게 뭔가 신기할 정도예요(사례 A).

두 번째 양상은 남성성을 수행하는 여성 리더이다. 여성 리더는 술을 열심히 마시고 재미자본을 과시하거나 일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남성성을 수행하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리더의 기본 값이 ‘남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기 위해선 남성 구성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C>는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마초처럼’ 굴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남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자원이자 장점이 되는 남성중심적 집단문화 속에서 여성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거듭해야만 한다. 이러한 남성성을 체현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은 <사례 E>에서 나타나듯 ‘무거운 창과 방패’로서 버거운 짐이다. 여성 리더에게 남성성은 포기하고 싶은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자질이다.

하지만 아무리 남성성을 잘 수행하는 여성 리더라고 해도 호모소셜리티에 완전히 녹아들 수는 없다. 이는 여성 리더를 지치게 한다. 으레 리더란 집단에서 가장 적응을 잘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례 A>는 집단에서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다. 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남들이라면 (내가) 10점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행복점수는 4점이었다고 말한다. 이중, 삼중 노동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묘한 괴리감은 여성인 자신의 정체성을 혐오하게 만들기도 한다.

제가 선본에서 제일 막내였고 거의 유일한 여자였어요. 다 12학년 이상 남자였어요. 그런 집단에서 제가 나름의 고유한 포지션을 인정받았던 것은 그만큼 제가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많이 썼고, 일을 해야 하면 새벽 3시든 6시든 나오려면 나왔어요. 그리고 일에서는 마초처럼 굴었어요. 예를 들면 밑에 후배, 차장 애가 통금시간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면 ‘야 여자라서 못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했죠(사례 C).

제가 남자 후배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만약에 내가 남자 선배였으면 그

14 남자애들이 날 더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제가 여자니까 여자애들이 편한 것처럼, 남자애들은 남자 선배가 편할 거잖아요. 근데 대학 내 집단들은 어딜 가도 남자가 많고. 대학 집단에 여자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 순간마다 ‘내가 남자였으면’ 이랬던 거 같아요. 항상 남성성이 가장 좋은 공격 수단이자 방어 수단이었으니까, 그게 저한테 창과 방패였던 거죠. 그런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게.. 아직도 그 때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저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걸 들고 있지 않으면 무장 해제된 기분이 드니까 내려놓지도 못하겠고...(사례 E)

회장할 때 저한테 담배도 엄청 힘든 거였어요. 남자애들 다 담배 피니까 담배토크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담배를 피야하나 고민도 엄청 많이 했어요.(중략) (동아리에 대한 적응도는 몇 점인가요?) 전 모든 활동에 참여했고 모든 애들이 절 호의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남들이 생각하면 10점이라고 생각하겠는데 ‘너 그럼 동아리 애들이랑 친해? 그 때 기억이 제일 행복해?’ 이러면 답을 못하겠어요. 행복을 기준으로 하면 4점?(사례A)

그냥 외로움이 가장 컸어요. 뭐라 해야 하지?.. 그냥 개네의 얘기를 듣고 싶었으니까..? 다가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애네끼리 친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약간 거기에 억지로 끼이는 기분? 이방인 같은 느낌? 그게 싫은 거죠. 애네랑 아무리 많은 술자리를 가져도 도저히 다가가지는 느낌이 안 드니까.. 제가 뭐하고 있나 그런 기분이 들고. 나중엔 짜증 나고. 뭔가 그 꺾 수 없는 벽을 느꼈을 때 너무 외로웠지만 나중엔 화도 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사례A)

집단의 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후배들의 적응을 걱정하는 건 모든 리더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런데 <사례 A>와 <사례 E>에서 드러나듯 여성 리더들은 자신이 대학집단에서 느꼈던 소외감이나 배제 당했던 기억을 기반으로 여성(및 남성) 후배들이 집단 내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야 한다는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하지만 대학집단 문화 자체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여성리더 개인의 역량으로 모든 집단 구성원들의 적응을 담보할 순 없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리더가 여성일 땐 ‘모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며 더 나은 방식의 돌봄 노동을 수행도록 요구받는다. <사례 E>는 돌봄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크게 느꼈다고 고백한다. 집단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남성중심적 문화가 낳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오히려 여성 리더에게 쏠리는 건 아닌지 다시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새내기들 대학교 1학년 때의 엄마 같은 마음? 저는 그냥 개네가 곁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1학년 때 곁돌아서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술자리도 매번 끝까지 남아있었고. 특히 여자애들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끝까지 남았고 여자애들 없어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끝까지 남아있었어요(사례 A).

저는 OPYP 가는 게 진짜 싫거든요. 가면 또 남자 선배들한테만 둘러싸여서 감정노동해야 하고,

술도 이젠 진짜 싫고. 근데 저까지 안 가면 진짜 남자 선배밖에 안 오는 거니까.. 그럼 여자후배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지고. 전 제가 회장할 때 여자애들을 동아리에 제대로 남기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자니까 남자 회장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집단 문화를 바꾸거나 여자애들 적응에 도움이 되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남은 책임감 때문에 OPYP 날이면 도살장 끌려가는 소 마냥 가요 (웃음). 아 근데 신기한 게 제 윗 학번 여자 회장 선배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젠 이해되죠(사례 E).

저는 회장이 되게 이중적인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구호도 제가 외치고 동아리에서 발언권도 제가 제일 세요. 근데 애들 챙기는 허드렛일 같은 것도 자 제 몫이었어요. 저는 모든 뒤풀이 때 애들 거의 다 데려다줬어요. 근데 딱히 행복하지도 않고 회장이 됐다고(사례 A).

또한 여성 리더에게 작동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집단 내 갈등을 좀 더 ‘원활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집단의 리더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위치이다. 요컨대 리더는 대립하는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하거나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리더란 하나의 큰 목소리로 갈등을 관리하는 남성 리더이며 그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여성이 타인(특히 남성)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편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 리더들은 <사례 E>처럼 ‘남성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택하며 ‘사나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감수하거나, <사례 A>처럼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감정노동을 하며 누군가를 설득하게 된다.

저는 그냥 싸우는 게 무서웠어. 그냥 제 기질인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랑 싸우는 게 무서우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가장 타당한 위치에 놓이게 하려고 하나하나 다 만나서 다 설득하고. 그냥.. 종종 저희 안의 원가.. 고민들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 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엄청난 수고로움을 동반했죠(사례 A).

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12학번 선배 중에 한명이 저한테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회장 중에 네가 제일 무섭다? 싸가지가 없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개는 뭐 나름 긍정적인 의미에서 쓴 거예요. 개가 평소에 자기를 싸가지 없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개는 술도 진짜 잘 마시고 소위 말하는 형문화의 중심에 서있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그게 개의 남성성 수행이나 리더십에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갈등상황마다 싸가지 없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내 낯선 모습을 숨기려고 끊임없이 감정노동해야 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동기들이 거의 다 남자였는데 개네 체면?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진짜 애쓰고. 전 분명 개랑 다른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냥 다른 여자들보단 할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개랑 저랑 동급?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실제로 남자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절 무섭게? 생각하기도 했고. 전 그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불쾌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불편했어요(사례 E).

4. 여성리더의 롤모델화를 통해 보는 젠더경계 해체와 가능성 모색

여성리더의 피로감과 감정노동이 문제적이다 하더라도 여성리더의 존재는 여성 후배 집단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간 여성 선배들의 집단 이탈이 줄곧 여성 후배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대학집단에서 여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자/혹은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은 대개 여성 리더를 포함한 여성 동기나 선배들이다. 동성의 선배가 남지 않는 공간에서 여학생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을 찾기 어려워하고 때문에 해당 집단에 애착을 느끼기 힘들다. 여성 리더이자 집단 내 여성 구성원이었던 <사례 A>새내기 시절 집단 내에 ‘그냥 여자 선배가 없기도 했고’라고 언급하며 여성 선배의 부재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존재했던 여성 리더를 통해 집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사례 E>에서도 드러난다.

애초에 여자 선배가 5명밖에 없기도 했고, 다른 여자선배들이랑은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언니랑 △△언니랑도 좀 친해지려고 깔짝깔짝 됐는데 잘 안돼서 나랑 안 맞는 타입인가 해서 포기하고 □□은 어느 날 사라졌어요(웃음) 사실 남은 여자 선배가 ◇◇언니(회장) 밖에 없기도. (목소리가 작아짐..) 저 회장 거의 되어갈 때 한 여름? 그때부터 ◇◇언니가 절 돌봐주기도 했으니까(사례 A)

제가 처음부터 학회에 적응을 잘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그러니까 잘 안 나갔었는데 12학번 학회장 언니가 절 되게 예뻐해줬어요. 나중에 그 언니가 학회장 임기 끝나고 학회에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을 땐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언니가 절 여기에 알박기?하듯이 꽃아줬으니까.. 근데 제가 학회장되고 나선 10 학술국장 언니도 종종 챙겨주시고 09학번 언니들이나 11학번에 ○○언니도 계속 신경써주고.. 그 관계가 계속되니까 저도 OPYP 같은 거 할 때 언니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연락할 수 있고.. 학회에 워낙 여자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저한테 남아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 사랑이. 그리고 제 다음 학회장도 여자였는데 개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여자애들이랑 관계맺음하려고 노력했고.. 비록 우리 둘 다 실패했지만 (웃음). 그래도 개가 새로 ○○(이후 14 학회장이 들어간 대학 집단)에 들어가서 여성연대?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도 봤고. 또 개랑 제가 있으니까 15 남자 학회장도 계속해서 학회 내 여자애들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게 진짜 뿌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 뿌리를 학회에서 정말 느꼈어요. 여성에게 역사가 있다는 걸(사례 E)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동력이 여성 선배들이었냐는 질문에) 그것도 그렇고, 저는 동기들과 정말 친하거든요. 물론 모든 동기는 아니지만(웃음).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을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었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그런가,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개네가 절 정말 사랑해줬고 저도 개네를 정말 사랑했고. 사랑을 느꼈던 공간이 대학 집단이었거든요(사례 E).

유사하게, 전통적 여성성을 탈피한 여성 리더들의 존재는 여성 동기 및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된다. 이는 여학생들이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의 틀에 묶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본인이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사례 A>에서 드러나듯 적극적이고 재미있고 똑똑한 여성, 사회적으로 ‘남성성’으로 여겨지는 자질들을 체현한 여성이 ‘멋지다’라고 일컬어진다. 규정된 여성성을 이탈하는 ‘비체’에 대한 동일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가부장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여성스럽진 않죠. 여성스럽다는 게 조신하고 막 꼼꼼하고 이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 같은 느낌? 근데 다들 저보고 아저씨 같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땐 기분이 어때요?)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그냥 그런 가 보다 싫어요(사례 F).

제가 경험했던 공청회들에서는 항상 여자 리더들이 뭔가 걸크러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게 도드라졌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강단에 서서 말 하는 여자 자체가 낯선데 심지어 잘해.. 그 낯설음이 약간 충격이지 않나 싫어요.. 그냥 똑똑한 여자에 대한 충격도 있었던 거 같아요..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있네? 저렇게 대단한 여자가 있네?(사례 A)

제가 그렇게 여자애들을 생각해주면(신경써주면) 개네도 그걸 알거든요. 제가 여성들 간의 집단성?을 만들진 못했어도 1:1 관계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고, 저 때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었어도 16년도엔 실제로 학회에 여자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회 분위기가 바뀌었고, 밑에 학회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이 전달됐고... 앞으로 16애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거고. 학회장을 할 땐 제가 뭔가 여자를 대표하는 거 같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젠 알아요. 제가 여성의 일부라는 거? 수많은 여성이 균열하고 변화하는 모습, 적응해가는 모습을 유기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전(사례 E).

정리하자면 여성 리더들은 남성 중심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남성성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성’ 리더로서 엄마같이 구성원들을 챙기는 여성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충에 처하며 각종 부담감을 짊어지고 생활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존재는 여성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집단에 존속할 유효한 동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여성들은 가부장적 여성성의 틀에 갇혀있지 않는다. 비체로서의 여성리더의 경험과 이를 롤모델화하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여성성의 변주’를 읽어낼 수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 리더들의 수행과 존재 방식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변주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혼란과 이중노동의 어려움이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여성리더는 자신이 느꼈던 소외감을 기반으로 남성중심적인 대학문화가 야기하는 배제를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이들은 대안적인 놀이문화와 ‘여성적’ 관계맺음에 대해 고민한다. 위 사례들을 통해 여성리더의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면서 공동체 차원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 리더들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이들 여성 리더들의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수 있다면 대학 내 집단 문화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VII. 대안집단문화

여성리더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행위성을 보이며 이를 롤모델화하는 여성 비체들은 그 변주에 동참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변주가 남성중심적인 대학 내에서 어떠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균열의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즉 비체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1. 관계성에 대한 고민으로: '여성'연대

대학집단문화는 젠더화 되어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남성중심적인 대학문화에 남성은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 남게 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높다. 집단 내에선 많은 권력과 인적자본을 점유하고 있는 남성선배를 중심으로 관계맺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남성후배들은 이에 포섭되는 형식으로 집단에 원활히 적응한다. 또한 술집, 피씨방, 당구장, 자취방 등 남성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많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우정'마저 젠더화 됐다. '의리'로 표상되는 굳건한 관계맺음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반해 공공연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다) 프레임'이 상징하듯 사회적으로 여성들 간의 관계는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대학은 여성들이 건강한 관계맺음을 맺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남성중심적인 집단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집단을 이탈해왔고, 반복적으로 여성 선후배 동기들의 이탈을 경험하는 여성은 '남성 유대'의 공고함을 선망하며 이에 유입되길 기대하기 마련이다. 대학집단에 남아있는 여성의 수 자체가 적은 현실적 조건과 여성의 관계맺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속에서 여성 및 소수자는 자신들만의 온전한 테두리를 만들지 못한 채 남성 유대 문화로부터 배제돼왔다.

그러나 여성 리더경험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여성리더 및 여성 선배들과의 교류는 여성 후배들의 집단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여성 비체들은 여성 유대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지적 관계를 형성해왔다. 여성연대의 새로운 관계성은 기존의 문화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대학 내 남성중심문화에서 살아남은 여성선배가 여성후배를 돌보게 될 경우,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동료 여학생들의 배제와 이탈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외로움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 공통적인 배제의 경험이 비체들 간의 연대를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여성' 연대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 때의 '여성' 연대란 호모소셜리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비롯하여 남성중심적인 대학 집단에서 요구하는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했던 남성까지 포괄하는 비체 모두를 호명하는, 비체들 간의 연대를 일컫고자 했다.

이렇게 척박한 토양에서 씨앗을 내리기 시작한 '여성' 연대가 더 많은 여성 후배들 및 소수자 비체들과 함께하고 공통의 '언어'를 형성하게 된다면 어떠할까? 여성 및 소수자의 집단 내 존속

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단에서 배제되기 쉬웠던 후배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다른 방식의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의 유대는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집단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대물림, 여성 및 소수자 간의 연대는 점진적으로 집단에서 페미니즘적 감수성을 기르고 더 많은 구성원을 위한 집단의 조건이 형성되는 새로운 토대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지금의 대학 공간에서 여성들의 공간을 상상하는 것은 막막하지만 중요하다. 여성 및 소수자의 시각에서 대학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은 한명, 한명의 여성들이 다음 세대 여성들이 집단에 진입할 때에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변화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여러 곳곳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사례 C가 경험했던 모 대학의 공연 동아리 사례를 보자.

고민을 하게된 거지 밑으로(아랫 기수로) 갈수록. 예전에는 선배가 하라니까 그냥 했는데. (...) 그 사람이 그 집단 문화에 잘 녹아들면 연주에 대한 애착도 점점 커지고 그런 게 영향을 상호적으로 미치는 거 아닌가? 그건 제가 선배들에게 주장한 거죠. 제가 그렇지 않아요? 하니까 선배들이 아니래. 처음에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했죠. 그게 생각의 차이였고... 제가 그 회장이었거든요. 애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 선배들 말에 맞서기도 했고 15학번 애들도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와서 밴드를 차렸어요. 이 동아리가 해체되기까지 내가 시발점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15학번들이 얘기했어요. 언니가 안 나갔더라면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선배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생각이 옳든 그르든 네가 그렇게 한 건 선동이다. 이 동아리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사례 C).

전형적인 호모소셜 문화를 향유하여 고학번 남성 선배를 중심으로 발언권이 주어졌으며, 폭력적인 음주 문화가 지배적인, 남성중심적인 기존 대학 문화의 특성을 가졌던 이 동아리는 2015년 회장이었던 여성 인터뷰이 C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2016년에 이르러 후배들에 의해 해체되어 새롭게 결성된다. 기수 전체의 집단적 합의와 행동에 기반한 액션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목할 지점은 인터뷰이가 ‘밑으로(아랫 기수로) 갈수록 유해진다.’라고 표현한 지점이다. 위계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의 강제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약화되어왔다는 것으로, 이는 2015년에 일어난 변화가 일시적인/특이한 현상 혹은 인터뷰이 C의 특이한 반발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는 군사주의의 약화, 신자유주의의 확산, 페미니즘의 등장과 같이 최근의 변화들과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동아리의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다른 지점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던 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때 여자애들이 한 번에 다 나왔어. 회장 애 집이 컸는데 개가 맨날 집에 여자애들 많이 모아서

같이 놀았어. 개가 불러서 모임을 만드니까 막 별 얘기가 다 나오지. 훨씬 학번 높은 남자 선배들이 집적됐던 거, 내 동기한테. 그런 얘기라든지. 여자애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선배들이 여러모로 불편하게 했던 거랑 그 위계적으로 간섭한 거랑 둘 다, 같이 말하기 시작한 거지(사례 A).

이 동아리에서 여성 리더의 집이라는 공간을 거점으로 여성들 간의 연대가 형성된 것, 이를 통해 서로가 집단 내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었다.

해당 동아리는 2015년도에 완전히 해체됐다. 복학생 주도의 집단문화에서 불편함을 느낀 15학번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어, 결국 함께 집단을 나갔고 새로운 동아리를 세웠다. 이를 주도한 15학번 리더도 여성이었으며 그와 14학번 여성리더는 그 과정에서 많은 소통을 했다. 이처럼 여성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공통된 ‘언어’로서 소통할 때, 함께 발화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위 내 남성중심적 문화에 저항하며, 후배 여성들을 돌보고, 돌봄이라는 여성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전유하는 이들은 바로 비체이다. 이러한 비체들이야말로 페미니즘의 언어를 획득하기 시작한 지금 그들이 대학 내 ‘다른’ 집단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연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비체들의 연대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다. 파괴적인 남성중심적인 기존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가 자생하기에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는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상상조차 어렵다. 본 연구자들은 다른 문화, 비체들이 만들어나갈 수 있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힌트를 사례 E가 속한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의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거기가 진짜 대화만으로 유대감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저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할 때마다 ‘지난주에 뭐했니?’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에 팀플을 했는데 여성혐오적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원래는 회의 전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길어져서 열 명이 넘게 앉아서 한 시간 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한 번도 하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걸 집단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여기가. 지난 주에 뭐했나하는 근황 토크를 한 시간 정도 하는데. 그걸로 말을 트기 시작한 애들은 여기를 안 나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여성혐오 관련 되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일주일마다 쌓여서. 그리고 같이 고민했던 걸 나누고, 가벼운 고민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잖아요. 공감 능력의 수준이 달라요. 이런 얘기는 진짜 아무데서도 못하잖아요. 성적인 얘기는 특히 아무데서도 못하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상 속의 차별이니까 내 일상을 고스란히 얘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재생산 노동하는 게 익숙하고 감정 노동하는 게 진짜 익숙하니까, 서로한테 되게 주고받는 느낌이 들었던 거 같아요. 진짜 다른 동아리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편안했던 거 같아요(사례 E),

〈사례 E〉에서 인터뷰이가 경험했던 유대의 주요 키워드는 ‘대화’, ‘관계’, ‘공감’, ‘감정’, ‘차별과 배제의 경험’으로, 기존의 남성 유대와는 상이한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실 이러한 키워드는 그간 이른바 ‘여성적 가치’로 꼽히며 사회적으로 폄하되어왔던 가치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여성적 가치’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공감과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의 차별/배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 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위의 사례는 이처럼 서로를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방식의 관계 맺음과 문화 또한 가능함을 알려준다.

〈사례 E〉에서 인터뷰이는 위 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적 대화의 형태에 대해, ‘비체가 됨으로써’ 느끼는 엄청난 만족감에 대해 말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감을 기본 정서로 한 대화, 이로 인한 편안함이라는 정서가 대학 내에서 마주하기 힘든 경험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화와 공감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학의 집단 문화에서 이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개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맺음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가까이 알아감으로써 가능해진다. 대화를 하다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게 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여자애들이랑 술은 안 마셔 거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일상에서 말을 해요 그냥. 대화예요 그냥. 모든 그게. 술이나 이런 걸 통한 건 아니예요. 여자애들을 그렇게 안 거 같아요(사례 C).

위의 사례와 같이 대화를 통해 타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양상은 많은 여성 인터뷰이들의 사례에서 찾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른바 ‘여학생 문화’로 축약할 수 있는 여성들의 대화 지향적인 문화는 소규모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주된 문화로 자리잡기 어려웠던 이유는 대화를 통한 관계맺음이 집단성을 이루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사례 E〉가 집단적으로 대화 중심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간 독특한 사례로 꼽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아래 사례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가 맺는 집단은 좀 특수하거든요? 저를 좋아해서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개네키리 친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새내기 여자애들을 결집시키려고 싸가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것도 내가 아까 말했던 이것처럼 다들 날 좋아해. 근데 서로 친해지지 않아. 다같이 만나면(사례 E)

남자애들은 당구 이런 거 치러갈 때도 애 친구 A랑 친구의 친구 B가 만나서 당구도 치고 술도 먹고 축구도 하고 피시방도 가고 이런 집단 식으로 개네는 엄청 많이 이렇게 되잖아. 이것처럼 남자애들끼리 같이 노는 문화가 보통 생각해보면 당구 같이 치거나 축구 같이 하거나 게임 같이 하거

나 그래서 집단화가 쉬운 걸까?(사례 A)

한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일대일 관계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사례D>의 경우와 같이 대학생 생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다. 그 근거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들었다. 여타 여성 인터뷰이 역시 비슷한 이유를 들어 대학 생활 적응 점수를 낮게 측정하였다. 이는 남성중심적인 대학 집단에서 요구하는 관계 맺음 양상과 그들이 추구하는, 혹은 매력적으로 느끼는 관계 맺음의 양상이 상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제일 행복하죠. (...)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애들끼리는 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네끼리 밥 먹고.. 개넌 이미 뭘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셈이죠. (...) 만약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단톡방이나 술자리만 열심히 나가지 말고,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개한테 연락 꾸준히 해서 개와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사례 A).

저도 대학에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말을 했을 때 통하는 느낌이 들고, 서로에게 기본적인 호감이 있고 그런 것들? 나아가고 싶은 거나 관심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친구들 만났을 때 서로 고민 얘기했을 때 비슷한 생각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것들?(사례 D)

한편 ‘대화’와 ‘관계맺음’에 중점을 두는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확장으로서 연대는 여성 및 소수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기혐오가 아닌 자기존중의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적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외에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타인에게 수용되는 경험/받아들여지는 경험은 개인에게 유의미하게 작동한다.

그런 것도 진짜 컸어요. 저는 지금의 제 몸이 예전보다 많이 좋거든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웃음) 그러는 데에 있어서, 친구들의 표현같은 게 많이 와닿았죠.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내가 생얼이든 무엇이든 그런 애길 자주 해주고,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외모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애들은 진짜 마음이 편한 게 느껴져(사례 E)

<사례 E>는 여성 친구들과의 유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기검열과 대상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자신을 대상화하던 남성 주체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 연대는 여성의 ‘비체되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러한 여성 연대는 여성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에서의 배제를 언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점에서 중요하다. 공동체의 언어가 없을 때 개인은 문제를 단

순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하여 논의하곤 한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언어를 갖고 여성들이 대화하게 될 때 개인의 고민은 공동체 차원의 고민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관계’ 그 자체이자 그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과 나누는 ‘대화’이다. 그를 통해 자신을 이해받고 서로를 공감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배제와 외로움이 아닌 행복감을 주고 존중받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들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여성’ 연대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집단 내에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를 고심하고 이야기하는 것, 기존 남성중심적문화 하의 음주문화로 위시되는 획일적인 관계맺음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음 방식을 만드는 것의 시작이 될 것이다.

대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집단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대안적인 공동체는 대학 내 비체들이 상상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상상 중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밀한 대화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집단들의 긍정적인 단면들을 가시화하여 보다 더 많은 여성 연대를 만들어낼 논의의 장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2. 대안적 놀이문화에 대한 고민

이제까지 여성연대의 시발점으로서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여성 연대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대안적인 놀이문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친밀한’ 대화가 새로운 관계맺음의 핵심이라면 놀이문화는 그 관계맺음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술 중심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술 중심의 문화가 있다, 아니면 그 집단에는 문화가 부재한다, 구심점이 부재한다 이렇게 되버리니깐.. 그게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사례 A).

그러나 모두가 인지하듯 그간 관계맺음 방식으로서 대학의 놀이문화는 ‘음주문화’로 동치될 만큼 획일적이며 이러한 놀이문화는 대학집단문화 유지의 주요 제반조건이었다. 음주문화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이들은 단연 집단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앞선 논의에서 충분히 논증된 사실이다.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리 능동적으로 관계맺음을 배우도록 특화된 공간이자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공연과 세미나 등 공통의 목적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관계를 맺어나가는 장소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대학 놀이 문화를 타자를 소외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놀이 문화를 다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했다.

○○(학회)에서도 주된 놀이문화는 술자리예요. 그래도 피씨방, 밥먹는 모임,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임 등등 다른 문화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탈피하지 못했어요(사례 A).

최근 대학 내 여성들은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음주문화의 불편함과 폭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위 사례의 경우 대학 문화에 대해 예민하게 느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생각을 이어나간다. 남성중심문화에 잘 적응하는 동안 느꼈던 묘한 괴리감에 주목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례A>에서 인터뷰이는 ‘(술자리는)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고민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터뷰이는 첫 번째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씨방, 밥 먹는 모임,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임’ 등을 언급하며 관계맺음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여전히 음주문화를 중심으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한계적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위 노력 자체가 집단 내 공론화의 결과이기도 하다—이러한 움직임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술자리를 중심으로 하면 점점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했어요. 술 마시자고 ‘야 우리 술 마시자’, 해서 모이면 맨날 똑같은 애들만 오니까. 남자 애들 입장에서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을 거고. 근데 이미 마음 떠난 애들은 뒷풀이를 안 오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놀이동산을 가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개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다른 애들은 ‘롯데월드를 가봤자 애네끼리 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개네는 개네 나름대로 지치는 거죠. ‘기껏 딴 거 해보자고 했는데 지들이 투표도 안 하는데 어쨌라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그랬죠(사례 A).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탈한 후에야 획일적인 놀이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기 쉬우며, 공론화가 자체가 공동체 차원에서 변화를 보증하진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례A>에서 인터뷰이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보려는 소수 ‘남자애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하며 이는 이미 배제된 이들이 새로운 놀이문화 하에서도 역시나 배제될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대학집단문화가 폭력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풍도 갔던 거 같고요. 보드게임? 한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보드게임 생각나는 건 너무 강렬했.. 신선한 충격이었죠. 제가 보드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 2학년 때는 그래도 회의 하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많이 만났어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친해졌던 거 같아요. 딱히 뭘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니까?(사례 D)

대학 구성원들은 음주 의외에도 다양한 놀이문화에 대한 욕망 또한 가지고 있다. <사례 D>의 경우 인터뷰이는 음주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놀이문화를 시도해 본 집단에 속해있다. 그가 보드게임을 해본 경험을 ‘신선한 충격’이라 표현한 것은 기존의 대학 문화에서는 음주 문화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다른 놀이문화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

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다른 시도가 기존 남성중심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혹은 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떠났던 비체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문화를 대체할 다른 다양한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구체적인 활동태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음주 이외의 활동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쉬운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다른 놀이 문화에 대한 고민을 일찍이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의 놀이문화 콘텐츠를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반과 상상력이 필요시 되는데, 이는 아예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고, 동시에 기존의 남성 전유물이었던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기존의 남성 결집의 주된 매체였던 스포츠를 떠올려보자.

동아리에 재외국민 애들이 많아요. 외국 애들도 많고 재외 국민 애들도 많아요. 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오니까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외국에서 발리볼 하던 여자애가 자기 발리볼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여자 운동 동아리가 이 동아리밖에 없어서 우리 동아리 들어왔다고 슬퍼하던 기억이 나요(사례 E).

한국의 대학에서 스포츠는 남성 호모소셜의 구심점이 되지만, 동시에 위의 사례는 스포츠를 통해서 여성들 또한 결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집단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여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을 때 스포츠는 여성 집단을 만드는 새로운 구심점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앞서 새로운 놀이 문화에 대한 상상력은 아주 가까운 곳, 남성 전유의 구심점을 재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아예 새로운 놀이 방식까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은 이를 시도하는 주체가 될 용기 있는 비체들과 그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상상력일 것이다. 이러한 비체들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쌓여나갈 때 지금의 남성중심적인 대학 집단의 문화가 바뀌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3. 반성폭력 프로그램 개발, 성인지 교육의 재건

‘여성’ 연대, 그리고 새로운 놀이 방식의 시도를 통해 기존의 남성중심적 구심점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시도만큼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 폭력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지금의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 반성폭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인지 교육을 재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함께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획일적인 음주문화의 폭력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소 음주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혹은 이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경험하는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있었던 동아리는 ○○학회처럼 반성폭력내규(반내규)를 쓴다던가, 물을 정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 남자 여자 방 나누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에서 반내규 쓰고 그랬던 거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처음에 했던 활동이 ○○이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건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동아리 가고 그러니까, 개네가 유별난 거였구나 알게 되는거죠.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했었죠. 근데 저는 (반내규를)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런 거는 입 밖으로 아니면, 글로 딱 이렇게 시각화 하지 않으면 의식을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사례 F).

〈사례 F〉는 앞선 사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반성폭력 내규 및 공동체 윤리를 통해 ‘강권은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남았음을 말한다. 학생 차원의 반성폭력 내규는 그 비전문성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반성폭력 내규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의 음주문화의 폭력성은 분명 달리 드러난다. 〈사례 F〉는 반성폭력 내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그 활동이 대학 문화의 시각화 및 의식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한다. ○○학회에서 진행한 공동체윤리와 여남 공간 분리 등의 실천이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성폭력 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는 적지 않다. 그러나 반성폭력 프로그램이 이름만 남거나, 실제 내용이 현재의 사회적 조건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한다. 실제로 대학 내 여성운동이 쇠퇴하면서 반성폭력 운동을 비롯한 반성폭력 프로그램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몇몇 사례 속에서 드러났다. 〈사례 E〉는 새터에서 처음 경험했던 반성폭력 프로그램이 다함께 ‘반성폭력’ 네 글자를 외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사례 A〉는 반성폭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무슨 맥락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반성폭력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대학 캠퍼스가 가지는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고, 지금의 조건들을 고려한 콘텐츠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동체 차원의 자발적인 반성폭력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생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개발되는 성인지 프로그램과 그를 위한 프로그램 지침서가 개발된다면, 보다 넓은 차원으로 폭력적인 대학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권오분(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인숙(2000).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창간호. 여성과 평화. 133-161
- 권인숙(2005a).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나윤경(2005b). 군사주의가 재현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 - 평생교육학적 개입 장(場). 평생교육학연구 11(4). 한국평생교육학회. 27-56
- 김은진(2002).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대학의 '여성리더'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나윤경(2005a).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성: 여자대학교와 남녀공학대학교를 경험한 여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한국여성학회. 181-221
- 권인숙 외(2010). 한국과 대만의 대학문화 비교. 여성학논집 27. 145-183
- 노해림 외(2015).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621-642
- 홍명교(2011).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학생운동의 전망. 문화과학. 111-127
- 나윤경, 권인숙(2010). 신자유주의적 주체, 한국 대학생들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평생교육학연구 16. 한국평생교육학회. 117-144
- 나임윤경(2006). 여성과 남녀공학대학교의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서울: 학영사.
- 윤보라 등(2015).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서울: 현실문화연구.
- Eve K. Sedgwick(198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 우에노 치즈코(2012).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나는 여성인가, 장애인인가, 청년인가

: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서운 문영민

●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를 통해 성인 진입기의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 경험에 관한 질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자료 분석은 사례 내 비교와 사례 간 비교

를 토대로 주제를 추출하고 분류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로는 성인 진입기 독립, 직업, 사랑,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여성장애인으로서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장애정체성 및 여성성 논의가 주요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방

안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의 연구에서 탐색되지 않았던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에 대해 관찰함으로써 이후 관련 연구 및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나는 여성인가, 장애인인가, 청년인가: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서윤, 문영민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청년기 발달과업과 정체성
 - 2. 장애 정체성
 - 3. 여성 장애인의 정체성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접근
 - 1) 질적 연구 방법론
 - 2) 질적 사례 연구
 - 3) 연구자의 자세
 - 2. 연구참여자 선정
 - 1) 연구참여자의 선정
 - 2) 연구 참여자
 - 3) 자료 수집 방법
- IV. 연구 결과
 - 1. 사례 소개
 - 1) 연구참여자 A
 - 2) 연구참여자 B
 - 3) 연구참여자 C
 - 4) 연구참여자 D
 - 5) 연구참여자 E
 - 2. 사례 간 분석
 - 1) 청년기 과업 요소
 - 2) 장애 여성 정체성 관련 요소
- V. 결 론

I. 서론

후기산업사회에 도래한 대한민국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청년’이다. 한 차례의 경제위기와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붕괴, 지식산업의 발달과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 통계청이 15-29세 사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47.3%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2.7%라고 보고했다(통계청, 2016). 소위 괜찮은 일자리라 불리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유연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스펙쌓기·공시열풍·알바족·혼밥족·건어물남·은둔형외톨이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조어들이 현대 청년들의 생활 극단을 대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청년의 삶은 그동안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청년기가 되면 정치·사회·문화적 주류로서 인정받으며 ‘성인’ 대접을 받아왔지만, 과거와 달리 학업과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삶과 역할, 자아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도 길어지게 되었다(김은정, 2014). 취업과 경제적 안정의 어려움은 성인기 발달 과업인 결혼, 출산, 양육 등 사회적 관계 수행 역시 미루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는데,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오랜 시간 삶을 탐색하고 과업을 모색하게 되었지만 이런 행위를 기성세대에게 이해받지 못하면서 세대 간 갈등구조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생활 방식은 청년세대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 동안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는 청년기 과업 수행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Arnett, 2004).

그러나 재조명되는 청년 담론 속에서도 여전히 소외되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바로 ‘장애청년’이다. 장애인의 취업률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청년 세대 내에서도 장애 청년의 취업이 더욱 열악함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 약 85만 명 중에서 청년층 취업률은 전체의 3.9%로, 장애 연령대별 취업률 중에서도 가장 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공단, 2015). 장애인의 취업이 비장애인보다 열악한 것처럼, 장애 청년의 취업은 비장애인 청년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 청년 집단 내에서도 ‘여성’으로 구분되는 소수 집단의 장벽과 어려움은 비장애청년 및 남성장애청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들은 ‘여성’이란 또 하나의 소수집단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직무관련 여성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겪는 차별이 혼재됨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이자 장애인, 청년인 집단 즉 여성장애청년은 세 개의 소수집단 특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에서 삼중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 있는 여성장애청년은 청년 세대 주류담론에서 언급되는 청년 이슈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장애인 집단의 주류 담

론 속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 청년이라는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과 발달과업을 살펴보자 한다. 본 연구는 소수자 특성을 반영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여성장애청년의 정책 발전에 주요한 근거로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년기 발달과업과 정체성

우리나라는 크게 ‘19세에서 29세’ 또는 ‘15세에서 34세’ 등 법적 연령을 토대로 청년기를 구분하고 있다.¹⁾ 이 연령은 인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 생물학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기대에 맞물린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한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psychosocial developmental stages)의 초기 성인기²⁾에 해당한다. Erikson은 초기 성인기 이전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체감과 역할 혼미(identity vs. role confusion)’가 발달 과정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개인의 내적 갈등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통합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정치적 신념, 가치관, 인생 목표를 형성해 나가는 자아정체성(ego-identity) 확립으로 이어져 개인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 확립된 자아 정체성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정체성을 융합하여 친밀감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서유진, 2006). 이 시기는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인생의 동반자나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형성하고, 직업을 선택하여 완숙한 성인기 삶의 구조를 수립해가는 전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친구나 이성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정, 사랑, 성적 친밀감을 만들어가지만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은 고립되거나 사회적 공허감, 소외감, 강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Montgomery, 2005). Erikson이 주장했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초기 성인기 발달 과업은 산업화 사회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특성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후기산업사회 국가에서는 Erikson이 주장했던 초기 성인기 발달 과업 성취가 점차 어려워졌다. 초기 성인기의 청년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되는 구직상황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

1) 현재 대한민국 법적으로 청년을 정의하는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의 경우 15세에서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간주한다(법제처)

2) 에릭 에릭슨은 초기 성인기를 20세에서 40세로 규정했다.

고, 이어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 즉 Erikson이 주장했던 ‘친밀’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큰 장벽을 마주하게 했다. 이로 인해 청년의 삶이 점점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성인기의 발달 과업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Levinson(1978)은 인터뷰를 통한 보고서에서 17세에서 33세를 성인기 진입 시기로 보고, 이 시기 안정적인 인생경로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발달 과정이라 주장했다. Erikson 또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며, 산업화 사회에서는 청소년기가 연장되며 초기 성인기의 삶은 다양한 가능성과 스스로의 역할, 정체성을 탐색하는 연장된 청소년기(prolonged adolescence)라고 했다(Erikson, 1980; 주경필, 2015 재인용). 한편 심리학자 제프리 아넷(Jeffrey Arnett)은 초기 성인기 연령 범주 중 18세에서 25세의 성인을 Emerging Adulthood로 새로이 정의했다. Emerging Adulthood는 과도기적 성인기, 성인 발현기, 성인 도래기, 성인 모색기, 성인 진입기 등으로 국내 연구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기존의 다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라 명명한다.

Arnett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를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말하는 성인기로서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적응 과정이라 주장했다(Arnett, 2004). 그는 시대적·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간 발달에 다양한 차이를 나타나므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청소년기 특성이 드러나는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취업, 출산, 결혼 등 성인기 과업 성취는 그 연령대가 점차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Arnett, 2000). 이런 현상은 초기 성인기에 진입하더라도 교육 기간이 연장되어 취업과 경제적 자립, 결혼, 출산을 유예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시대적·사회문화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과거와 달리 성인기 요구되는 과업 성취나 전환을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늦춰지게 만들었고 청소년기에 이어 정체성과 인생 방향 탐색 시간이 연장되어 이 시기, 즉 청년기라 불리는 시기에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Arnett은 완숙한 성인기 이전에 성인 진입기의 발현 원인은 산업사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사회 때문에 고등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기간의 연장이 그 배경이라 주장했다(Arnett, 2004), 실제로 성인 진입기 현상을 되짚어보면 지식정보산업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의 청년세대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산업화가 더딘 개발도상국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고전적 형태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Arnett, 2015).

Arnett이 말하는 성인 진입기의 고유한 특성은 기존의 성인 발달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 사랑, 세계관 등 성인기 주요한 발달 과업이 대표적인 속성이기는 하지만 과업 수행 과정이 반드시 성취되거나 긍정적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Arnett, 2015). 성인 진입기 특성은 성격 구성과 인지적·신경과학적 발달, 정신병리학적 위험 상승, 신체 질병의 잠재 등 여러 심리적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연애, 가족관계, 교육, 경력, 경제적 독립 같은 사회적 요인의 동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발현되는 특성이 분절적이지 않고 하나의 인생 단계로서 성인 진입기 특성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Tanner & Arnett, 2011). 즉 고전적 발달단계의 ‘친밀 대 고립’ 같은 이분법적 특성이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싼 내적·외적 요인들의 격동의 결과로서 어

떠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 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탐색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청소년기와 달리 부모와 주위의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인데, 이 시기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의 귀결은 한 사회의 문화적·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Arnett, 2000). 예컨대, 성인 진입기의 자극적 경험은 결혼, 출산, 육아 등 새로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행력을 약화시키거나 회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발달 과업의 미성취나 고립이 아닌 성인 진입기 또 다른 일반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Bachman, Johnston, O'Malley, & Schulenberg, 1996). 한국 사회에서도 성인기 과업 수행이 유예되는 현상은 예외적이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 진학 욕구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년 세대 사이의 성인 진입기 특성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고학력화와 취업난의 가중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졸업시기를 유예하며 어학연수, 인턴, 자격증 취득 등 소위 ‘스펙 쌓기’에 몰두하여 성인기 진입을 늦추는 것이 과업수행을 유예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손보영, 2015). 안선영 외(2011)는 대학재학기간 연장과 노동 시장 진입이 늦춰짐에 따라 초혼 연령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며 일부는 결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도 Arnett이 말하는 성인진입기의 시기가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Arnett은 성인 진입기의 정체성 탐색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경험’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Arnett, 2015). 서구사회에서는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은 가족과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직업을 얻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실질적 독립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결정권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Arnett, 2015).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숙한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서구사회의 시각은 독립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을 두고 ‘마마결’, ‘마마보이’등 성인 진입기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구문화와 달리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아시아 국가나 문화권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하고 있다. 안선영 외(2011)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가족형성, 가족부양, 자녀양육은 매우 중요한 성인기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고, 개인의 행동(과음이나 피임 등)과 정서(감정 조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물리적 독립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했다. 즉, 공동체주의와 가족주의적 문화가 강한 나라나 민족에서는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독립’의 개념이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실제 아시아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독립이 소속되었던 가족 및 집단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라고 전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진입기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더라도 가족이나 부모와 논의하는 것이 고유한 문화적 정서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서구와 동일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Arnett 역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반드시 환경적·문화적 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Arnett, 2015).

사회가 기존의 방식으로 청년 세대를 묘사하고 재단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기존의 초기 성인기 핵심 특성에서 온전히 벗어나있다. 물론 지금은 청

년 세대 역시 직업, 사랑, 세계관 등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설령 전통적인 형태의 과업 성취가 아니더라도 고립되거나 제대로 된 성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rnett의 주장을 바탕으로 성인 진입기 속성을 청년기 정체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 정체성

청년 세대의 주류 담론은 이제 소수 집단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내에서도 소수자 특성이 뚜렷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청년, 한마디로 장애청년에 대한 이해는 청년의 특성과 장애로 비롯된 집단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정체성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비장애인의 정체성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장애라는 특성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아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체성(disability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Darling(2013)은 “개인에게 존재하는 장애와 관련된 자기 정의에서 구성된 자기 개념의 일부”를 장애 정체성이라 정의하고, 이익섭과 신은경(2005)은 귀납적 도출을 통해 “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장애 정체성이라 했다.

장애 정체성의 요소는 흔히 개인적 측면의 ‘장애 수용’과 사회적 측면의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형성된다. 개인적 차원의 장애 정체성은 주로 ‘장애 수용’ 측면을 말하는데, Belgrave(1991)은 장애 수용이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제한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정도라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손상 혹은 장애 정도를 받아들이는 내적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전지혜, 2011), 신체적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 수용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간주하기도 한다(양현주, 1991). 사회적 차원의 장애 정체성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토대로 장애가 개인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문영민, 2017; in press). Shur(1998)는 척수손상 장애인의 정치 참여 과정 심리 연구에서 장애 정체성의 속성을 끌어냈는데, 그는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사회정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장애의 문제를 다른 장애인과 공유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장애정체성의 집단적 속성을 강조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타 장애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합적 장애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문영민, 2017; in press). 그러나 개인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에서 비롯된 장애 정체감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장애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수치심을 갖는 것은 낮은 수준의 장애 정체성으로 간주되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내 정체성과 상이할 경우 억압이나 배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적인 장애 정

체감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Darling(2013)은 장애 정체성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요소로 장애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보고 새로운 장애 정체성 유형론을 주장했다. Darling이 주장한 첫 번째 요소는 장애인이 장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지, 수치심 혹은 스티그마 등을 느끼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요소는 ‘접근성’이다. 이는 주류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배제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세 번째 요소는 ‘모델’로 장애 패러다임의 주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의료적 모델 혹은 사회적 모델로 정의하는지를 바탕으로 하고, 모델은 두 번째 요소인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Darling은 장애 정체성 요소의 조합은 서로 다른 장애 정체성의 유형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장애 정체성의 유형을 구성해 나간다고 설명했다(Darling, 2013). 특히 각 요소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개인의 시간적 차이가 장애 정체성의 서로 다른 양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각각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장애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장애 정체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문영민, 2017; in press). Darling(2013)은 장애 정체성 요소에 따른 장애 정체성을 유형화 하였는데, 먼저 ‘정상화적 전형성(normative typicality)’ 유형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스티그마가 내재화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신의 정상성을 강조하며 다른 장애인과의 교류를 꺼려한다. 이어 ‘주창자적 정체성’ 유형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정의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창자적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중에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공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창자적 전형성 유형(affirmative typicality)’으로 분류하고,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사람을 ‘주창자적 활동가 유형(affirmative activism)’이라 분류했다. ‘개인활동가 유형(personal activism)’은 장애인의 활동이 대개 주류 사회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에게 ‘활동’은 주류 사회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체념 유형(resignation)’은 주류 사회에 포섭되기를 포기한 유형으로 장애인 집단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이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들을 심적으로 내재화 하며, 장애인 집단에 자신을 귀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Darling의 이러한 주장은 각 유형에서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의 만남이나 전환점(turning point)의 경험을 계기로 변화 가능한 것이며 장애 정체성의 양상은 장애 정체성의 변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문영민, 2017; in press).

개인의 내재적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 정체성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몸’에서 출발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체성 논의를 다룬 연구에서는 손상된 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다. 장애인이 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이들의 몸과 정체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Goffman(2009)은 장애인이 신체적 혐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타자와 마주함에 따라 자아 개념이 침식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자아 인식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Goffman은 몸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설명하며(Shilling, 2011), 개인의 특정한 신체 형태와 이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가 내면화 될 때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Thomson 외(2001)의 연구에서는, 신체 장애인은 낮은 자아 개념을 내면화하여 사회적 만남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 낙인을 내면화 하게 되며, 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자신이 인식하는 자아와 타인이 인식하는 자아로 두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이 당혹감을 느끼게 되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쉽고, 또 다른 혼란은 손상된 몸과 실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면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지는 않고 비장애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손상으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반면 Frank는 개인의 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 다음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문영민, 2017; in press). Frank가 다룬 행위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행동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와 둘째는 자신의 몸을 편하게 느끼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Frank는 개인이 스스로 몸을 통제할 수 없고 몸을 편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 이러한 몸을 ‘훈육된 몸’이라고 하며, 몸을 통제할 수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몸을 ‘의사소통적 몸’이라고 했다. Frank가 장애인의 몸을 직접 언급하여 적용한 바는 없지만, 그가 주장한 두 가지 형태의 몸을 토대로 장애인의 몸이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소개되기 이전까지 장애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의사나 재활 전문가에게 몸을 ‘통제’ 당해 왔으며, 손상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야만 했다(문영민, 2017; in press). 이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몸을 결코 편안하게 느낄 수 없는 ‘훈육된 몸’이라 할 수 있다. 훈육된 몸과 반대로 ‘의사소통적 몸’은 미학적 실천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Frank는 설명했다(Frank, 1991). 이 과정에서 개인은 표현을 통해 자신을 자각할 수 있고 타인과의 창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몸의 사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미정과 김동규(2016)은 노인의 ‘몸 프로젝트’ 연구에서 노화에 따라 신체가 쇠약해지고 보호 대상으로서의 인식과 사회적 역할 중심에서 벗어난 노인의 정체성 위기를, 운동 및 신체적 건강 증진을 통해 ‘노쇠한 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고 몸에 대한 자유와 주체성을 얻는다고 했다. 즉, 장애인의 손상은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통제되고, 변화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 스스로 몸에 대한 통제와 편안함 인식 정도가 장애 정체성으로 결부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나타낸다.

3. 여성 장애인의 정체성

청년 담론 내 장애청년 담론은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요하다. 반면 ‘여성장애청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세분화되지 못하고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이들은 여성이자 장애인, 청년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삼중차별(triple handicap)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여성 장애인 관련 연구는 대개 보건이나 의료, 경제활동·사회활동, 결혼

과 양육, 문화·여가활동 중심으로 다뤄졌으며 ‘청년’이라는 특정 시기의 여성 장애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인 초기로 진입하는 단계 여성장애청년에게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박영숙, 송사리, 2005). Arnett의 성인 진입기라 할 수 있는 청년기 여성은, 성 정체감을 형성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쳐 성 차이에 대한 내재화 및 성 동일시 등을 인식하며 내면적 분리와 개별화 과정을 이루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여성 청년에게 이 시기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장애 여성 청년의 경우 어려부터 생물학적(sex)과 사회적 성(gender)에서 거부되었던 경험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 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한다(박영숙, 송사리, 2005). 특히 장애 여성이 경험하는 ‘여성성’의 거부와 이러한 현상의 지속 반복은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며,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loyd(1992)는 여성장애인에게 장애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경화(1999)는 동일한 육체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남성은 기능적 장애로 받아들여져 남성성 상실을 크게 의미하지 않는 반면 여성은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여성성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 했다.

장애 여성의 ‘성 정체성(성적 자존감, 성적 몰두와 성적 만족도)’에 있어 몸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oin, Duvdevany, Mazor, 2009). 특히 미(美)를 추구하는 몸의 이미지는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여성에게 아름다운 신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힘과 지위, 이에 따른 부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가 있다(심지현, 2012). 그러나 장애 여성의 신체는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상적인 몸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오늘날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소비문화, 의료기술의 발달이 부추기는 획일적인 몸, 그리고 ‘정상’이라는 몸의 기준은 장애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가 ‘거부당한 몸’으로 인식되게 한다(김명숙, 송사리, 2005). 몸에 대한 시대적·문화적 인식은 장애 여성들이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는 장애 여성의 내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 패턴에도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Wiederman & Hurst, 1997).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 성적 파트너로서의 자각이나 성적 매력에 손상을 입고, 파트너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데(Moin, Duvdevany, Mazor, 2009), 이에 대해 공미혜(2005)는 일반적으로 장애 여성을 ‘무성적 존재’ 혹은 ‘손상된 상품’로 여기며 성행위나 이성 관계, 데이트, 결혼에 적합한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몸의 이미지가 여성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은미(2005)는 장애 여성에게 몸은 물리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거나 매우 어려운 대상인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되거나 나름의 승화 작업을 거친 후 장애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차원에서 모두 거부됨을 깨닫는다고 했다. 장애 여성 역시 비장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 욕구 및 성 행동의 기회 선택이 필요로 하지만,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사회와 비장애인 집단으로부터의 무성적(asexual) 판단은 때로 장애 여성에게 있어 가장 깊은 억압 또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Finger, 1992). 박김영희(2007)는 성별에 이어 장애인은 성(sex) 구분이 없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장애 여성의 삶과 욕구에 여성성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고, Fine 외(1989)는 장애 여성들이 배제 되는 이유는 사회의 정상성 이데올로기 내에서 이들을 어린이와 같음, 무기력함, 희생자라고 보는 관점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편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사회가 요구하는 성(gender)도 억압적인데, 장애 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인 결혼, 사회적 재생산 같은 발달 과업에서도 소외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성 역할의 박탈감과 좌절감,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된다(황지성, 2011).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능력을 남편의 내조나 자식 양육 여부로 판단 기준 삼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들에게 비장애 여성들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며(임지선, 2008), 이러한 전통적 인식은 장애 여성의 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몸의 이미지를 토대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움이나 섹시함, 그리고 가사 능력, 재생산 능력, 양육 등의 획일적 틀은 성인 진입기 여성장애청년이 가진 여성성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성 정체성 확립에 주어지는 욕구나 과업 성취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점차 거리를 두거나 포기하게 한다(박명숙, 송사리, 2005).

한편 행동주의적 페미니즘(Activist Feminism)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논쟁적인 행동의 방식으로 표출하여 사회적 풍경을 변화시키고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Thomson, 2002). 장애 여성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패션모델’의 출현이 이를 뒷받침 한다. 패션모델 Aime Mullins는 두 다리가 절단된 이후 자신의 장애를 정상화하거나 가리기를 거부하면서 의족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고, 그녀의 몸이 패션 모델의 규범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션 모델이 주는 몸의 이미지나 환상을 패러디하고 조롱한다(Thomson, 2002). 이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포르노 배우의 등장 역시 여성 장애인의 여성성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양측 하지 마비를 가진 배우 Ellen Stohl의 포르노 잡지 출현에 있어 그녀의 장애 표식(휠체어)을 제거하면서 여성성을 부각시켰지만, 그녀의 장애 극복을 조명할 때는 여성성이 배제된 무성적(asexual)존재로서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 Stohl는 장애를 가지게 된 이후 “섹슈얼리티는 장애인들이 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드 사진을 찍고 싶었다고 하며, 장애가 여성성을 상쇄한다는 사회적 해석에 맞서기 위해 과장된 여성성 표현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강한 여성성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장애 여성에 관한 대중적 인식에 대항하여 새로운 이미지(counter-image)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상업적으로 장애인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며 이들의 이미지를 일상화하게 되고, 노출된 이미지가 현실적이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지속된 노출을 토대로 일상적이고 공적인 세계의 일부로서 장애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Thomson, 2002).

결국 여성장애청년의 성 정체성은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렸다. 사회의 정상성 이데올로기 내에서 장애 여성의 여성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의해 무성적 존재로 억압되거나 통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은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박탈감, 좌절감,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탐색과 욕구에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페미니즘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논하는 것이 낯설지 않아졌고 생물학적 특성을 이유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과노출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산출하는 방법도 채택하곤 한다. 여성장애청년의 성 정체성 관련하여 전통적 인식과 새로운 인식이 충돌하며, 그 역동성을 토대로 여성장애청년의 성 정체성 확립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질적연구 방법론 중 사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선정,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연구 접근

1) 질적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청년의 세 가지 교차된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의 문제를 양적 연구를 통한 변수의 측정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청년 각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여성장애청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여성장애청년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외의 연구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교차된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그 ‘이မ်’으로 들어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적 자료 분석할 때 자료를 해체하고,

추상화하고, 개념화하고, 연관 짓고, 해석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연구참여자의 ‘이면’으로 들어가고 중국에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김인숙, 2015: 47-48).

셋째, 정체성의 변화 과정은 한 개인이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여러 맥락과 매커니즘이 고려될 때에 하나의 현상으로서 정체성이 분석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Danermark and Gellerstedt, 2004; Shakespeare, 2013: 148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 방법론은 맥락에 의존하여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양적 연구에서 맥락을 변수화하고 조작화하여 설명한다면, 질적 연구는 “맥락의 복잡성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포착”한다(김인숙, 2015: 51). 따라서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조건하에서 ‘맥락’을 고려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질적 사례 연구

사례연구 방법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해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이론의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이나 개인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등과는 달리 단일한 혹은 복합적인 특정 사례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할 때(조흥식 외, 2005) 유용하다.

질적 사례연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상황 맥락적이므로 사례의 이해 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Stake, 1981). 따라서 ‘여성장애청년’의 세 가지 교차된 정체성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과 직장, 대인관계 등의 맥락도 정체성의 변화 과정과 상호작용할 것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각각 처해있는 상황에 따른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은 크게 단일 사례 연구(single-case)와 다중 사례 연구(multiple-case)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다중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연구 내에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는 것을 사례 다중 사례 연구라 하는데, 다중 사례 연구는 반복연구(replication)의 논리를 이용한다(Yin, 2013).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사례에 대하여 반복연구의 논리를 따르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에서는 분석 단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분석 단위는 개인이나 조직, 학교, 공동체, 관계 등이 될 수 있다(Yin, 2013).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연구참여자 ‘개인’이다.

3) 연구자의 자세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역동이 중요하며, 연구자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행위, 상황,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도구가 된다(Maxwell, 2004).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어떠한 경험과 열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였는지 등 연구자의 준비 정도가 중요하다(홍현미라 외, 2008).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여성장애청년 당사자이며, 장애인 복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책임연구자는 “지체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 공동연구자는 대학원 교과과목인 질적연구방법론(사회복지실천분석론)을 수강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의 질적 연구방법 워크숍에 참여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장애 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의 자기반영성과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수행하여 질적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가 될 준비를 하였다.

최근 장애인 연구가 장애인에 대한 연구이지만 연구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해방적 접근법이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진우, 2008).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모두 여성장애청년이며, 청년이자 장애인이자 여성으로 세 가지 정체성 사이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므로 연구참여자들과 경험을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도구’로 해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자의 경험이나 관점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연구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참여자를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의도적 표집 방법은 편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편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편의 표본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면 유용한 잠정적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 질적 연구 방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집방법이다(Montette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장애인 등록법상의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포함한 신체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중 사례연구의 반복연구 논리에 적용하여 공통된 정체성의 요소를 도출할 경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과 직업 등을 안배하여 다음과 같이 총 5인의 신체 장애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나이	장애유형 및 특징	직업	독립 유무	결혼 /연애 상태
연구참여자 A	32세	지체장애/ 수동휠체어 사용	대학원생	독립 후 현재 가족과 거주	비혼/연애
연구참여자 B	31세	지체장애/ 전동휠체어 사용	프리랜서	독립	비혼/비연애
연구참여자 C	29세	지체장애/ 전동휠체어 사용	공무원	가족과 거주	비혼/비연애
연구참여자 D	28세	근육병/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단체 근무	가족과 거주	비혼/연애
연구참여자 E	27세	지체장애(뇌병변)/ 보행가능	대학원생	가족과 거주	비혼/비연애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27세에서 32세로 다양하였다.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가 3명,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장애인등록법상 지체장애인)가 1명, 근육병 장애인이 1명이었다. 3명은 전동휠체어를, 1명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였으며, 1명은 보행 가능하였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원생이 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일반 회사에 근무하거나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비혼 상태였으며, 연애 중인 연구참여자는 2명, 비연애 상태인 연구참여자는 3명이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주 자료원으로 활용한 것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이다. 질적 연구 면담 과정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청년의 연애, 취업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므로 자료 수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선발한 연구참여자 이외에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면담 전 연구참여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회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SNS나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라포가 형성된 후 윤리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장애 정체

성의 요소를 포함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랑> 삶 전체에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가?

- 1-1. 연애편계 중 주변 반응은? (지인, 가족 등). 없다면, 연애에 대한 논의 시 주변 반응은?
- 1-2. 파트너와의 관계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고민되는 지점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없다면,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고민 되는가?
- 1-3. 파트너와 관계에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본 적 있는가? 없다면, 파트너가 있다고 가정, 관계의 미래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 1-4. 내가 여성, 장애인이라서 연애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2. <직업> 나는 어떤 직업활동을 잘 할까? 나는 어떤 직업활동을 해야 오랫동안 만족할까? 내 적성에 가장 잘맞는 직업을 찾을 확률이 있는가?

- 2-1.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취업 준비 중인가?
- 2-2.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하는가?
- 2-2.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찾았는가? 아니면,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 2-3. 어떤 직업활동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가?
- 2-4. 직장이나 취업 커뮤니티에서 장애를 얼마나 드러내는지, 장애와 관련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직장 내에서 장애 or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3. <세계관> 나는 훗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 3-1. 훗날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러한 삶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3-2. 삶의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or 커뮤니티? 혹은 책? 이론?
- 3-3. 그러한 삶을 성취할 때, 현재 노력할 때 장애인 혹은 여성 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나? 있다면 어떨 때?

4. <인터랙션> 가족 및 커뮤니티

- 4-1. 현재 가족과 독립했는가? 독립했다면 그 후 삶의 변화, 독립하지 않았다면 방해 요소는?
- 4-2. 현재 속해 있는 커뮤니티? (장애 또는 여성, 청년 커뮤니티) 그 중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어떨 때 소속감을 느끼는가?
- 4-3. 소속감을 느끼는 커뮤니티에서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공유하는가? 그 공간에서 내가 장애인임을 혹은 여성임을 드러내는가? 장애로 인한 요구를 하는가?

5.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령 -직업 -가족구성원 수(몇째 자녀) -학력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발생경로 -신체상태(주관적 상태)

면담의 내용은 핸드폰 녹음 어플리케이션과 녹음기를 통하여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텍스트로 전환한 녹취록을 만들어 분석의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사례 소개

1)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척수장애로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32세의 지체 장애 여성이다. 이공계 전공을 한 후 일반 회사에서 2년 반 가량 일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대학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다. 2년 중 장녀이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오랜 시간 기숙사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대해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별다른 체력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장애 남성과 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

2)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척수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31세의 지체 장애 여성이다. 사회과학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강의를 나가거나, NGO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교 입학 후 10년 동안 기숙사 등에서 독립하여 살아왔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으로 대답하였다. 대학교에 다닐 때 연애 관계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비연애 상태이다.

3)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29세의 지체 장애 여성이다. 어린 시절 척수염으로 척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취업 후 3개월 가량 혼자 살았던 경험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6점 정도로 나타내었다. 직장 생활 이외에 많은 대외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소모임과 교회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비연애 상태이다.

4)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는 근육병 장애를 가져 전동휠체어를 타는 28세 장애 여성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1남1녀 중 장녀로 현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정도로 표현하였다.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장애와 관련되었거나 되지 않은 많은 대외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하였다.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

5)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E는 뇌병변 장애(장애인 등록증 상 지체장애)를 가진 27세 장애 여성이다.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1남2녀 중 장녀이고,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 본인의 독립 상태를 ‘완전 독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수영, 요가 등을 통해 재활 명목으로 운동을 수행하고 있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10점 만점에 8점 정도라고 표현하였다. 장애여성 모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하였고, 학부 재학 중에 인턴십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이성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비연애 상태이다.

2. 사례 간 분석

1) 청년기 과업 요소

Arnett(2015)은 성인 진입기에 사랑, 직업, 세계관 등의 주요한 발달 과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과업이거나 긍정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에게서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하며 청년이자 장애 여성으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며 연애를 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세계관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각 과업을 거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는 우선 ‘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 심리적) 독립’에서 시작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사랑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세계관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Arnett(2015)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경험이 성인 진입기 정체성 탐색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리적, 경제적 독립을 실질적 독립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논의와 다르게 Arnett은 거주지 독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아시아 국가의 경우 ‘독립’이라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안선영 외, 2011).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 현재 가족과 독립을 하고 있는 사람은 1명으로,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잠깐 물리적 독립을 하였다가, 다시 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도 물리적 독립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심리적 독립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독립을 통해 자유를 얻기도 하였지만, 물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며 다시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물리적, 심리적 측면의 독립은 연구참여자들의 가족 관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① 물리적 독립 경험으로부터 독립성과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혹은 현재 ‘물리적’인 독립을 경험하였는데, 이를 통해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어머니와 학교도 같이 통학도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뭐 거의 동생이나 부모님이 없이는 거의 뭐 외출 같은 것도 잘 많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의존적, 가족에게 굉장히 의존을 하고 살았고. 그래서 대학교에 오면서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좀 혼자 활동도 하게 되고, 혼자 훨씬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연구참여자 A, 2페이지)

일단 혼자서 살 때는 되게 자유롭죠.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 근데 가족이랑 같이 지내면 내가 몇 시에 출근하는 것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 무슨 일로 누구와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걸 다 보고를 해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C, 5페이지)

연구참여자 A는 대학 입학 후 6년 가량 기숙사에서 독립해 생활하다가 현재는 다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통학을 하여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물리적으로 독립을 한 후 심리적으로도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취업 후 3개월가량 물리적으로 독립을 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짧은 독립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가족과 다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성인기의 물리적 독립 경험은 스스로의 책임과 결정권의 증가를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는 Arnett이 언급한 ‘성숙한 성인이 되는 과정’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Arnett, 2015).

② 물리적, 경제적 장벽 때문에 비독립을 선택함

연구참여자들 중 현재 물리적 독립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 현재 물리적 독립 상태인 연구참여자 B의 경우에도 가족들과 살 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다고 언급하였다.

혼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적응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기숙사 있을 때는 학교에서 이제 그 뭐죠? 학생 지원 도우미? 이런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같이 기숙사 생활하던 학생이랑 이제 친해져서 많이 편하게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지금은 활동보조인을 활용을 해서 뭐 제가 할 수 없는 집안일들?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고 있어 되게 편하게 생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제가 다 관리를 해야 하다보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살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움. (연구참여자 B, 3페이지)

독립을 마음이 있어도 나갈 수는 있는데 엄마랑 외부에서 살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엄

마가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굳이 또 혼자 살면 돈 나가는 일도 또 엄청 많잖아요. 버는 돈에 비해서 조금 많이 딸리니까. (연구참여자 D, 28페이지)

연구참여자 D는 ‘마음이 있으면’ 독립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하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였다. 현재 1,2급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인 제도’³⁾가 시행되고 있어 중증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또한 장애인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장애 여성의 물리적인 독립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성인 진입기에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한 개인의 ‘독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안선영 외, 2011). 성인 진입기에 장애 여성의 독립은 개인에게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가져다주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리적인 독립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애 여성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물리적 독립과, 성인 진입기에 겪어온 다양한 경험들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족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어리고,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더 많이 얘기하고 엄마들. 이제 엄마보다는 친구들이랑 이제 더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친구들도 이제 취업하느라 바빠지고 나도 취업하고 내 삶에 더 직장으로 더 바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친한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는... 엄마랑 거의 더 친한 거 같아요. 엄마랑 친구같은 느낌? (연구참여자 D, 19페이지)

연구참여자 D는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대학교 시절을 보내며 친구들이 취업 등으로 바빠지자, 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내며 고민을 나누는 등 어머니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언급하였다.

엄마가 평생 내 곁에 있어줄 수는 없는 거구나.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정말 이게 딱 와닿은거는 그때(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1페이지)

3)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6, 2016년 12월 10일 접속)

연구참여자 C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아프셨던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부모님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였던 청소년기와 다르게, 성인 진입기에 들어선 청년들은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 사랑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혹은 현재 연애를 하였거나, 혹은 ‘썸’이라고 부르는 유사 연애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현재 연애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장애로 인한 내면의 방어 기제들로 인해,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본인의 가족의 우려와, 파트너의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출산과 육아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였고,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① 연애를 가로막는 내면의 방어기제들이 존재함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연애를 하기 위해 수많은 자신 내의 방어 기제들과 싸워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성인 진입기 시대에 여성성을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반복하여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새로운 방어기제들을 만들어낸다. 연구참여자들은 연애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존재’라고 간주되는 것, 그리고 ‘관계가 비대칭인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많은 이성(혹은 동성)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대칭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 느꼈던 건 남자애야 저를 막 좋아해주고 막 예쁘다고 해주고 그러겠죠? 연애하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시선이 있잖아요. 왜 재 장애인이라 다녀 라던가 재미있게 관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제가 경직을 하는데 그 순간에 되게 채치 있게 넘기는 애가 있고 저를 걱정하는 애가 있어요. 저를 걱정하면 제 열등감이 폭발하는 거 예요. 막 싸우죠. 열등감을 느낄 때. 안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거니까.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럴 때 제가 날카로워져 있는데 그걸 좀 잘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는 애가... (연구참여자 E, 21페이지)

정서적으로는 약간 제가 비장애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면 제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관계가 어. 되게 비대칭성. 비대칭적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랑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게 계속 서로 생기는 편이라서. 아무튼 제가 많이 의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되게 평탄한 관계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 19페이지)

연구참여자 F는 이성(혹은 동성)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열등감이

폭발'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남성과 연애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현재 장애 남성과 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 A는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를 '관계가 대칭적인 점'으로 언급하였다. 비장애인 남성과 연애를 할 때 '의존'하게 되거나, 관계가 '비대칭'인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장애여성에게 부과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인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상과 지속적으로 맞닥뜨리며 이러한 상을 거부하는 방어 기제를 내적으로 만들어내었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연애 상대가) 신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장애에도 힘이 든데 다른 사람의 장애까지 내가 받아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되게, 그만큼 마음이 넓지가 못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18페이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는 경험은 이외에도 다른 방어기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C는 현재 연애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연애 상대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자신의 장애만으로도 힘이 들기 때문에 연애 상대의 장애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A와 E의 서술처럼 사회적으로 부과된 장애여성에 대한 부정적 상이 방어기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며 겪었던 힘든 경험들이 본인은 장애가 있지만 '내 연애 상대는 장애가 없었으면'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② 장애 여성의 연애에 대한 가족의 반응 : 우려 혹은 지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딸의 연애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여러 형태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 말고 누가 온전하게 옆에 있어줄까. 아니 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반이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8페이지)

연구참여자 C의 부모님은 장애를 가진 딸인 C의 연애를 '나 말고 누가 온전하게 옆에 있어줄까' 우려하는 동시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애 여성의 연애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장애 여성이 연애를 선택할 때 방해요소가 되거나, 혹은 촉진요소가 될 수 있다.

엄마가 뭐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애를 못 기를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부분도 없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했으니까 이제 엄마도 살아보고 느끼는데 너의 삶을 살아라. 애 낳아서 인생 포기 필요 없다. 이게 더 강하세요. (연구참여자 E, 25페이지)

연구참여자 E의 부모님은 E가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등 ‘공부를 많이 했으니’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딸의 비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연애는 필요하나, 결혼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였는데, 부모님의 의견도 E가 비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③ 상대의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게 됨을 우려함

장애 여성이 연애나 결혼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의 우려도 하나의 요소가 되지만, 그보다는 상대의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게 됨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연애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상대의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연애를 하게 된다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서로 좋아서 사랑을 해서 만나는데,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거? 나의 선택 만으로 되는게 아니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 C, 15페이지)

사실 반대할게 되게 뻔할, 뻔하다고 해야 하나?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어쨌든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할게 뻔하고 또 반대를 하시면은 사실 우리가 만난 것보다 부모님들과 싸워야 되는 거에 더 좀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게 좀 많으니까 아직은 그냥 뭐 1년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부모님한테 말해야 되어가지고 그런 부모님과 싸우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일단 우리끼리 놀고 일단 더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됐죠. (연구참여자 D, 22-23페이지)

현재 비연애 상태인 연구참여자 C는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연애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현재 연애 관계를 1년간 지속해오고 있지만, 비장애인인 상대방의 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자신을 알릴 경우 ‘부모님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싸우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될 경우 연애 관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실제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부모님과 부딪힐까봐 부모님께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상대에 실망한 경우에 대응 방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친구분은 가족들에게 응답자님을 왜 아직도 알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되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는 걸 못 참는 성격이라서. 아마 저를 알리고 저와 교제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짐이 될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서운하긴 하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연구참여자 A, 21페이지)

(상대방의 가족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 어머니가 알고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굳이 저한테 안 할 말, 안 할 말을 해서 저도 같이 뒤집어엎었어요. 허허허허. 그래서 중간에서 이 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보다가 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 되게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왜 이런 수난과 수모를 이런 쓸 데 없는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막 부딪히면서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와 마음을 아파해야 할까? 그리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엄마 때문에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과연 그 관계에 대해서 지속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둘이서 했는데,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엄마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대요. 그 말 듣자마자 딱, 아 그러면 너와 나는 여기까지다. 엄마한테 가라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B, 20페이지)

연구참여자 A는 장애 남성과 오랜 시간 연애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부모님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서운’하게 느끼지만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과거 비장애 남성과의 연애 관계 중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님, 상대방과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연애 상대인 남성은 ‘엄마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B는 연애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연애 혹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방 부모님의 의견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방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과 함께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장애를 상대방에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 여성이나 장애 남성에 비해 연애 혹은 결혼을 선택할 때 더욱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 여성들이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게 된다.

④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고자 함

앞의 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자신 안의 방어 기제, 자신과 상대방의 부모의 지지와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애기를 낳는 분들도 뭐 애기한테 집안에 유전적으로 장애인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유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것 때문에 생겼고 잘못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남성이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내 애기를 길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애를 낳기 위해서 같은데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암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재산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같이 양육해야 되고 이러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누군가와 같이 살 생각은 있지만 결혼은 조

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23페이지)

결혼을 해보고는 싶...다는 생각이 있죠. 당연히 했는데 이제 장애가 일단, 그 근육병이 있으면은 아이를 낳는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낳을 수는 있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니까. 결혼.. 결혼을 하는데는 솔직히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하는데 그냥 사실 그냥 아이가 없다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로 지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D, 26페이지)

연구참여자 E와 D는 동거와 같은 대안적 형태로 연애 상대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앞의 절에서 서술한 문제 이외에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성’에 부과되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을 장애를 가지고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D는 근육병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통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여 출산의 부담이 없는 동거 등의 형태를 선택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육아의 부담을 결혼 상대자인 남성이 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보류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과 별개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은 지금 막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때 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사실 뭐 그 법적으로 뭔가 결혼 제도에 메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저는 동거만 해도 상관없고, 동거 안하고 그냥 뭐 룡디? 룡디는 좀 아닌 거 같고. 좀 아닌데 (웃으며)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뭐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관계도 괜찮을 거 같아요. 뭐 그러다가 파트너랑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사귀는 사람이란 뭐 결혼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 그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 거고, (연구참여자 B, 5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또 여성으로 제가 이제 30대니까 앞으로 여성으로 제약은 되겠지만 그게 결혼이나 이런 것과 걸리면서 더 큰 차별을 만들어 낼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30대 여성으로 뭔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차별은 좀 더 음.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연구참여자 A, 11페이지)

연구참여자 A와 B는 비혼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동거 등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A도 역시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며, 30대 이후 여성에게 부과되는 출산과 양육 등의 ‘여성성’과 관련된 과업들을 수행하지 않음을 통해 장애 여성에게 부과되는 더 큰 차별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3) 직업

직업이라는 역할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업 자체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직업을 갖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성을 쌓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성인 진입기인 20대 중반~30대 중반 시기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로 이는 대부분의 청년 과업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율은 39.6%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인 63.0%의 2/3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1-3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4.8%로 더욱 낮게 나타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직업(정규직, 인턴직)을 가졌다가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있었고,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그리고 현재 직업 활동을 통해 청년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장애인으로 여러 가지 장벽과 맞닥뜨리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① 물리적 장벽 때문에 근속에 대해 고민함

장애 때문에 받은 적, 업무적으로라기 보다는 저희가 시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행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도와주셔서 올라가고 내려 오곤 하지만 이제 그게 당연한 거다. 니가 거기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말해주긴 해주는데 솔직히 부담이 아예 안 되는거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인사이동을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부서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1층 위에 있는 다른 부서는 생각도 못하고, 그럼 다음 그런다는 거에는 조금 고민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C, 14페이지)

물리적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직업 활동을 하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직장의 물리적인 접근성이다.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직장에서의 경험은 근속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청년이자 장애인으로 업무에서 중요한 일을 배정받지 못함

직장에서 장애로 인한 물리적인 장벽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업무에서 중요한 일을 배정받지 못해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거나, 업무를 자기계발의 연장선이 아니라 ‘시간 낭비’라고 여기게 된다.

그 때(인턴을 할 때)는 되게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그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비장애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인턴을 딱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못 하고 되게 잡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턴이니까 인턴에게 맞는 일을 주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금 덜 쉰 게 있는데 그러고 원래 공기업 같은 데는 워낙 일이 없어요. 그런 게 약간 내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12페이지)

엄청 남초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제가 기술직군으로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원래 기술 직종으로 들어가면 첨에 발전소에서 일을 해야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어.. 첨에 회사에서 발전소 아닌 본사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일하려면 발전소에서 일했던 경험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게 없다 보니까 그.. 기술직군으로 입사를 했어도 허드렛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사무일. 사무일 같은거. 굉장히 자존감이 개인적으로 떨어졌던 기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너무 없었고. 사람들도 별로 일을 맡기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연구참여자 A, 12페이지)

연구참여자 E는 인턴으로 공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서술하며 ‘장애인’이자, ‘청년’ 인턴으로 일을 적게 배정받거나 잡일을 맡았다고 하였다. 인턴 활동은 졸업 후 사회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활동이나 인턴 경험을 통해 E가 느낀 것은 활동이 ‘시간 낭비’ 같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참여자 A도 역시 공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A는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후 이공계 기업에 입사하였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회사 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사무일을 주로 맡았다고 서술하였다. A는 이 회사에서 일했던 2년 가량의 시간을 ‘자존감이 개인적으로 가장 떨어졌던 기간’이라고 서술했다. 후술할 것과 같이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을 맡았던 경험은 이들이 회사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고자 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③ 장애 여성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인식 부족

연구참여자들이 회사 내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동료들의 인식 부족이다.

상사분들이 뭐 여자직원이 거의 없고 또 장애인직원은 처음이니까 뭐 아무튼 저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첫 회사니까 잘 모르고. 그 분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똑같이 남자직원이랑 있을 때 남자 직원이 실수를 하면 엄청 크게 혼내면서 제가 실수를 하면 아이 뭐 ** 씨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 줬던게 되게 많았던거 같아요. 그냥 혼내면 되는데. 엄청 다. 그게 더 자존심 상했죠. (연구참여자 A, 13-14페이지)

그런데 그런 상사의 모습 때문에 되게... 많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네 그랬고. 두 번째 일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장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는 기간동안 이제 위에 상사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어, 어떤 분은 이제 화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화합적인 요소를 중요시해서 모든 관계의 직원이 함께 하기를 기대 해서 이제 뭐 제가 있어도 이제 뭐 휠체어를 고려해서 뭐 회식장소 잡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간에 오셨던 분은 철.저.하.게(강조하며) 본인 위주의 삶이신거예요. 그니까 본인이 상사라는 어떤 권위적인 의식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먹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올 수 있으면 니 알아서 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었고, (연구참여자 B, 12페이지)

연구참여자 A와 B는 회사 내에서 동료들의 인식으로 서로 상반된 경험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동료들은 A의 장애를 지나치게 배려하여 A가 동등한 동료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B의 상사는 B의 장애를 배려하지 않고 회식 장소를 잡는 등이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A와 B의 경험은 서로 달랐지만, 장애를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동료 모두 연구참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장벽이 되었다.

활보가 있잖아요. 활보가 여자잖아요 내가 여자잖아요. 보통 활보를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쪽에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다 남자세요. 남자 그니까 이렇게 공용 사무실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는 친하니까 그 사무실을 같이 쉐어를 하는 거였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어른들이 계셨는데 어른들이... 어른들이 이제 막 커피 타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탈 수가 없으니깐 나는 탈지 말지 시키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내... 그거를 내.. 내 활보가 겪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야 뭐 그냥 상관없는데 여자 뭐 여자가 탄, 아니 막 여자가 탄 커피는 아니었고. 여자가 깎아 주는 과일이 더 맛있지 이런 말들 할 때. (연구참여자 D, 14페이지)

장애를 가진 연구참여자 본인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장애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D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활동보조인과 함께 일한다. 활동보조인은 D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직장의 동료들은 활동보조인에게 커피를 타거나 과일을 깎을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런 인식은 D가 ‘장애인’이자 ‘여성’으로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④ 대응 방식 : 장애 이외의 요소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함

직장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중, 삼중 차별을 겪는 장애여성은 이를 상쇄하기 위한 대응 방식을 활용한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학벌을 안 밝혔는데 이게 뭔가 되게 좀 못 배운 사람인 것 처럼 생각하고 되게 막 함부로 조금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떡하다가 학벌을 어떻게 밝히게 되었어요. 학생증인가 암튼 뭔가 냈는데 학교가 쓰여져 있고, 그랬었나? 그니까 제가 원래 그 직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제 담당자는 제가 어디를 다녔는지 알고 있었는데 직원 전체는 그렇지 않으니깐 몇몇은 되게 편견이 강했는데.. 어찌다가 제 학벌이 퍼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 좋은 학교 다녔었네' 이러면서 약간 장애인 쪽도 보지만 학벌도 보는? 그 전에는 장애인만 봤는데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E, 13페이지)

연구참여자 E는 처음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벌을 밝히고 나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처음에 E의 ‘장애’만을 보던 동료들은 E의 ‘학벌’까지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상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업무, 지금 업무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났두라는 거예요. 빵꾸 내고, 났두고, 그렇게 해야 옆에 사람이 하지 그러는데, 혹시나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그렇게 보이기가 싫으니까 그걸 못 놓겠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건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비장애인이 하면,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지만, 장애인인 제가 하면 어머 재 장애인이라서 그래. 좀 이런? 이럴까봐? (연구 참여자 C, 16페이지)

연구참여자 C는 업무에서 완벽을 기다는 것을 통해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상쇄시키고자 한다. 업무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장애인이라서 그래’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4) 세계관

청년기의 가장 큰 과업은 세계관의 토대를 닦는 일이다. 청소년기와 대학생살을 보내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연구참여자들도 세계관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장애 여성의 삶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각종 통계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순간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인터뷰 하시다보면 느낌이 오셨을 거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쾌락주의? 모르겠다. 암튼 약간 즐겁게 살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지만 그렇죠, 그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서! 즐겁지가 않은거예요. 그니까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면 너무 즐거운데 너무 짧고 약간 내가 별로 자기계발에 도움도 안 되고,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쓰는 게 내일 죽으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 가지고. (연구 참여자 E, 9페이지)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엄마랑 같이 밥 맛있는거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를 (뭔가 쏠리는 소리)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른 게 중요한 게 많구나.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11페이지)

꿈이 아닌 희망은, 그냥 좀 한가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행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냥 뭐 어떤 성취보다는 약간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A, 8페이지)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한다면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싶겠죠. 그런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뭐 한 마흔이 넘은 중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 받는 삶을 살

거야 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데요. 하하하하. 그런데 중요한건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무어나 하면은 그 마사지의 그 퀄리티도 내 금전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어떤 삶을 살면 일주일에 한번 마사지를 받아도 아주 싼 값에 그 발 마사지 밖에 받을 수 없고, 어떤 삶을 살게 되면은 그 호사스럽게 호텔에 가서 마사지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마사지에도 차이가 있겠구나. 빈부 격차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하. 그냥. 그런 꿈인거 같아요. 뭐. 왜냐면 어떤 삶을 살아도 크게 개의치는 않은데 다만 그 열심히 살면서 그 정도의 어떤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포인트 하나 정도는 갖게 되는 거 같아요. 그게 꿈이 돼 버린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B, 10-11페이지)

2) 장애 여성 정체성 관련 요소

Arnett(2015)은 성인 진입기의 청년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사랑과 직업의 경험을 하고,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Arnett(2015)의 분석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장애 여성 청년이 가지는 독특한 특색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지게 되는 특수한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수준, 여러 메커니즘과 맥락이 고려될 때 하나의 현상으로서 정체성이 분석적으로 다루질 수 있기” 때문이다(Danermark and Gellerstedt, 2004; Shakespeare, 2013:148에서 재인용).

(1) 몸과 정체성

장애 여성의 성 정체성 형성에 있어 몸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oin, Duvdevany, Mazor, 2009). 장애 여성의 신체는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상적인 몸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므로, 장애 여성은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하여 장애 남성이나 비장애 여성과는 다른 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연구참여자들이 몸을 인식하는 독특한 인식을 만들어낸다.

① 장애로 인한 몸 관리의 필요성

장애 여성들은 장애로 인한 다양한 2차 질환에 직면한다. 고혈압, 당뇨, 욕창 뿐 아니라 비만, 척추 측만과 같이 외관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들을 겪게 될 확률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Rimmer, 1999).

이제 살을 좀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살 빼면 다 미용적인 측면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당장 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혼자 살다 보니까 건강을 되게 잘 지켜야 되

잡아요. 그래도 또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중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할까도 고민이고 또 이제 점점 근육통 이게 많이 생기면서 이제 자세가 안 좋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법 그다음에 거북목 아니면 어깨가 라운드 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교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몇 개 운동법을 알게 돼서 집에서 짬나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B, 6-7페이지)

연구참여자 B는 체중 조절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체중 문제는 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혼자서 스트레칭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것만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운동을 재활 명목으로 운동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가지고 웬만한 여자애들보다 살짝 체형이 좋아요. (요즘도 계속 운동하세요?) 수영이나 뭐 요가 이런거 꾸준히는 아니지만 경직되니까. (체력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몸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체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좋아진거죠?) 좋은거죠.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연구참여자 E, 2페이지)

연구참여자 E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재활 명목으로 운동을 해왔다. 어릴 때부터 수영과 요가 같은 운동은 '재활'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체형이 좋아지거나 체력이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 현재 연구참여자 E는 더 나은 몸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체력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Frank(1999)가 언급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시작한 '몸 프로젝트'로서의 몸 관리는 개인이 몸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건강 관리는 뭐 특별히 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아뇨,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그런것도 불편하고. 다 때려치고 운동만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직장이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연구참여자 D, 13페이지)

그러나 모든 장애인들이 체력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 D는 물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체력 관리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영장, 헬스장 등에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 이용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체력 관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연구참여자 D는 '다 때려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싶은 정도'로 체력 관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체력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② 긍정적인 몸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들에게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몸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였다. 이는 장애여성이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기를 꺼린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박명숙, 송사리, 2005).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신체의 어떤 불편함이나 장애가 있어서 어떤 섹슈얼리한 스킨십을 할 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건 없어요. 왜냐면 몸매가 예쁘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친구들이 뭐 뭐가 크고, 다리가 길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연구참여자 E, 24페이지)

상술하였듯이 연구참여자 E는 자발적으로 체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몸매가 예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며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참여자의 인식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장애 여성의 대중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 E는 수영, 요가 뿐만 아니라 벨리 댄스등을 배우며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의 아름다움을 직접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두 다리가 절단된 이후 장애를 정상화하거나 가리기를 거부하며 의족을 드러낸 사진을 찍는 패션 모델, 장애인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기 위해 누드 사진을 찍은 모델처럼 장애 여성의 몸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에 맞서는 자발적인 시도들은, 장애 여성 개인의 몸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들로 바꿀 수 있다(Thomson, 2002).

③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정보를 얻을 창구의 부족

몸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여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보를 얻을 창구가 부족하다면 몸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미혼 장애여성으로서의 성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제가 여자로서 얼마나 그 기능이라 해야하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신 과정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죠. (연구참여자 C, 19페이지)

(연애를 하시니까, 남녀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 전혀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러 가지 제약은 있죠. 제약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오래 사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아서. (따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요즘에는 성교육을 많이 받는 추세니까. 뭐 그런 걸 받아본 경험은 없으시고?) 예를 들면. 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무슨 성 교육 같은 거는 근데 부부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가서 내가 많은 걸 얻기가 어려

운... (연구참여자 A, 19페이지)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연인과의 성적인 관계에 있어 도움을 받고 싶지만, 미혼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장애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출산과 양육 뿐 아니라 미혼 여성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Darling(2013)은 장애인의 정체성은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거나, 장애인 롤모델을 가지지 못하였다가 대학교에 와서 많은 장애인을 만나게 된다. 같은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들이 ‘장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전환점이 된다.

제가 낮을 되게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활동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다 열심히 다른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 그니까 학교 다닐때는 학교 다니고 친구들, 졸업해서는 취업하는 거,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생각도 잘 안하고 그냥 언젠가 취업이 돼서 안정적이면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만 되게 미뤄두고 있어서, 직장 잡고 취업하고 나서 집도, 되게 일, 집 되게 일만 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장애인 소모임)에 나오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C, 5페이지)

연구참여자 C는 ‘낮을 가리는’ 성격으로 여러 대외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야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언니랑 같이 스터디 하나 하고 있고요. (4학년 때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4학년 후에 이제 여성장애청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처음 모임은 약간 장애청년 반반이었다가 그 장애여성모임은 2016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서. (왜 여성장애청년에 관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정체성이니까요. 관심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몸을 타고난. (연구참여자 E, 6페이지)

연구참여자 E는 대학 졸업반 이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가,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장애여성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연

구참여자 E는 ‘정체성’은 ‘관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며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토대로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정체성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장애여성’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외부적 요인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장애인, 청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달리 사회 내에서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 장애, 청년 등 여러 행태로 억압과 삼중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여성성의 박탈과 무성적 존재로의 인식, 그리고 장애라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주류 청년 집단에서의 배제 역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제약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장애청년이 성인 진입기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확립된 여성장애청년의 독특한 정체성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 진입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청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핵심 요인인 ‘독립과 사랑, 직업, 세계관’이라는 성인 진입기 정체성 확립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장애 청년의 주거 독립은 심리적, 정서적과 관련이 있다. 독립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독립이라는 낯선 과정에서 물리적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정서적, 심리적 결정과 통제를 숙련하면서 성인으로서 자기결정권과 독립성을 확립했다. 청소년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다 주거 독립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족 내 역할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 청년이 독립 과정에서 마주하는 물리적 장벽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편의시설 부재에 따른 비독립 선언과 다른 하나는 가족주의 문화와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에 따른 비독립 선언이다. 전자는 편의시설의 여부가 가장 중요했다. 주거 비용의 문제보다 신체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나, 주거 공간 마련 및 장애로 인해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주거 공간 공급이 거의 없는 문제와, 주거 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로 추가 비용 발생이 물리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독립 경험을 한 경우 주거 독립이 개인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문화와 살인적인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험 후 비독립을 선언한 경우 주거 독립한 장애청년과 마찬가지로 책임과 결정권의 증가

및 가족 내 역할 재정립 등을 경험했다.

둘째, 여성장애청년은 표출되지 않은 여성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억압당하고 있었다.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주변의 여성성 검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상당한 억압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몸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무성적 존재,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연애 및 결혼 등 여성 과업에서 '장애'와 결부되는 지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연애 관계에서 본인의 여성성보다 장애가 더 부각되어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기를 거부하고, 대칭적이지 않는 비동등한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여성성을 존중하는 대칭적 관계를 중시했다.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남성 파트너의 주변인과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시각을 공통적으로 표현했다. 실제 여성장애청년은 상대방의 부모로의 반대로 인하여 관계를 종료한 경험이 있기도 하며, 일부는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연애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였다. 여성장애청년은 이들의 여성성에 대한 억압과 지탄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방어 기제를 사용되었고, 그 결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비혼 선택에 대한 의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일부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요구보다는 동거와 같은 대안적 형태의 가족 구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 보편적이지 않은 인식을 여성장애청년 사이에서 강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 되는 출산·양육과 '장애'라는 개인의 신체적 제약이 충돌하면서 이 과정에서 오는 부담감을 끌어놓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즉, 여성장애청년은 연애 관계에 있어 자신의 여성성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해줄 파트너를 기대한다.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연애 관계에 대한 시각은 다양했으나 결혼과 출산 등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를 거부했고 그 요인은 장애에서 비롯된 신체적 제약이 가장 주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여성장애청년은 취업 및 직무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으로서 차별을 모두 경험했다. 장애인이자 청년이라는 이중적 역할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개인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이나 단순 직무로 배정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기도 했다. 또한 실제 근무 공간에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인사의 차별, 직무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동등한 권리 요구를 할 수 없는 직장 내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직장 건물 내 엘리베이터 부재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승진이나 인사이동에서 배제되는데, 이에 대해 소수 직원을 위한 인프라 확보의 효율성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직장 내 분위기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는 책임자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개별 책임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집단 내 동등한 직무 교류 및 사내 공동체에 합류와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 해소는 개인이 가진 역량으로 상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장애에서 비롯된 열등한 이미지를 개인의 학력 노출을 통해 이미지 상쇄 효과로 해결하거나,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과 천장을 부수려는 개인적 노력을 선택하기도 한다. 즉, 여성장애청년이 경험하는 취업과 직업 관련 차별은 지금껏 개인적 수준에서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여성장애청년의 세계관은 이들의 삶 전체에서 비롯된다.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세계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편하게, 순간순간, 행복하게, 즐겁게라는 표현을 자주 했다. 이들은 사회 내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이라는 삼중차별 속에 살아가면서 시쳇말로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은 대개 비장애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왜 이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했는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여성장애청년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 역시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차별과 억압적 상황을 개인이 해결해나가면서 이후의 삶에 대해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한가하게 살고 싶다’는 식의 표현으로 대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여성장애청년은 크게 청년으로서 요구되는 성인 진입기의 발달 과업을 비장애인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장애라는 주요한 특성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들은 여성청년이자 여성장애인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 때문에 내적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역할이 분절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청년이라는 하나의 큰 집단 속에 여성장애인이라는 소수집단의 세부적 특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그 독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 발전 확대의 실질적 접근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 주거 정책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청년의 주거 독립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물리적 장벽이 주거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 신혼부부, 고령자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전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이나 고령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전형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을 계획하는 장애청년에게 연령, 부양가족, 거주기간 등의 가산점 부분에서 경쟁적 요건을 만들 수 없게 하여 독립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도 있다. 한편 대학생 및 청년 임대주택공급 요건의 경우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산점 혜택 여부가 존재하지만 실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아 애초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46.3%가 대학에 진학하고(특수교육통계, 2016), 이들이 거주지역 혹은 타지역의 대학생으로서 고등교육을 마친 후 취업과 미래를 위해 개인의 보금자리를 탐색해야 하지만 청년 주거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청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요건 내에서 등록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여부와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이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뒷받침 돼야 한다.

둘째, 장애 청년의 여성성 제고를 위한 장애여성의 청년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성을 인정받는 시기는 출산과 양육을 수행하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청년이 결혼과 출산에 도달하기 전, 연애 등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여성성을 둘러싼 갈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고스란히 감내해야한다. 생물학적 번식이 수단이자 결과로서 도출되는 순간 여성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며, 출산과 양육 중심의 여성장애인 정책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여성성 그 자체를 인정하기 보다는 모성만을 인정하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엄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여성(gender)도 여성(sex)이기 때문에 이들은 위한 인식개선이나 캠페인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목소리는 다소 과장적이더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이미지를 패션모델, 포르노 배우 등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행동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또한, 규격화된 몸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여성성의 억압은 실제 여성장애청년에게 필요한 여성 건강 문제와 성 문제 언급을 금기시켰다. 여성장애청년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성교육이나 건강인식프로그램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으며, 실제 청년기 미혼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적 접근 역시 열악한 실정이다.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장애 이해 정도가 가장 큰 선택 요인이지만(오화영, 2016),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루트를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청년이 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이들의 여성성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성교육과 건강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제도적으로 이들의 의료 진료 선택에서 소외를 방지하도록 여성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점 병원 확보 및 의료진 이해 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청년 고용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장애인 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그럴듯한 취업 전형과 달리 비정규, 단순근로, 인턴 등의 유연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여성, 청년 고용 정책 역시 유연 노동 증가하고 있어 여성장애청년은 더 열악한 위치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동등한 경쟁은 고사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낙하산 취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장애청년에게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지자체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뉴딜 일자리)에서 이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고용정책에도 충분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IT, 인쇄출판, 패션봉제, 네일아트, 시스템제어분야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는 경험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일자리 확대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장애인고용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장애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IT기술, 출판기술, 디자인 기술이 있는 장애청년을 마을신문 제작자 혹은 마을 미

디어 센터의 직군으로 배치하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가 유형과 대상으로 더 세밀하게 나뉘어 다양한 계층과 연계하도록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혹은 장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의 성격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의 문턱을 넘은 장애청년에게 직장 내 차별 관련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직장 내 물리적 차별 혹은 권위 있는 책임자의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억압과 차별이 직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장애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안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나 20대에 도달하면서 교육현장을 벗어난 이들이 마주한 사회의 안전망은 상당히 부실하다. 실제 청년정책의 경우에도 일자리, 주거, 빈곤, 여성, 문화, 예술, 복지 등 청년이라는 대상을 둘러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청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청년 정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프로그램이나 요건들을 추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더불어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정책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장애청년이 ‘청년’이라는 일정 시기에 마주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앞으로 중·장년기, 노년기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소외와 단절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청년의 정체성을 토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분절적으로 실행되기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거정책에서부터 일자리 정책, 여성성 관련 정책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총체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청년은 여성장애인으로서의 생애 과정 중 청년이라는 한 시기에 머물지만, 이 시기에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경험하게 하고 일깨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한 개인이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청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공미혜. (2005). “장애여성의 데이트 인식과 행동”. 가족과 문화, 17, 85-122.
- 김경화. (1999). “장애여성의 육체와 정체성의 형성. 한국여성학”, 15(2), 185-217.
- 김나영. (2009). “여성지체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진우. (2008). “장애연구에의 지적장애인의 참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0(3), 83-105.
- 김인숙. (2015).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론과 분석』. 서울: 집문당.
- 문영민. (2017).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 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In Press).
- 박김영희. (2007). “장애, 여성, 이분화 할 수 없는 그것에 포함되는 그 무엇들”. 문화과학, 49, 78-89.
- 박명숙, 송사리. (2005). “장애여대생이 경험한 성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장애 특성 뒤에 숨겨진 여성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9, 49-71
- 서유진. (2006). “성인초기 여성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사례연구: 자아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보영. (2015). “성인진입기 다중역할계획태도 중단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심지현. (2012). “여성, 장애 그리고 성담론 연구”. 장애의 재해석, 3, 191-237.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3-17.
- 양현주. (1991). “지체장애자의 사회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화영. (2016).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젠더와 문화”, 9(1), 131-160.
- 이미정, 김동규. (2016). “노인 몸의 편향적 지위와 몸 프로젝트 담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3), 17-34.
- 이은미. (2005).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아시아여성연구, 44(1), 97-130.
- 이익섭, 신은경. (2005). “장애 정체감 개념화 연구-포커스 그룹 면접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509-530.
- 임지선. (2008). “기대되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년도 춘계학술대회, 460-467.
- 전지혜(2011).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5(2), 57-76.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 공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 (Emerging Adulthood) 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小考)”.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부(2016), “특수교육통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통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황지성. (2011). “선택과권리를 넘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시론”. 장애의 재해석, 2, 149-21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80-496.
- _____.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Ed.). (2015). “Emerging adulthood: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elgrave, F. Z. (1991). “Psychosocial predictors of adjustment to disability in African American”. *Journal of Rehabilitation*, 57, 37-40.
- Bachman, J. G., Johnston, L. D., O'Malley, P., & Schulenberg, J. (1996). “Transitions in drug use during lat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 J. A. Graber, J. Brooks-Gunn, & A. C. Petersen (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national domains and context* (pp. 111-140). Mahwah, NJ: Erlbaum
- Darling, R. B. (2013). “Disability and identity: Negotiating self in a changing society”. Lynne Rienner Publishers.
- Fine, M. and A. Asch. (1989). “Women with disabilities: Essays in psychology, culture, and politic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Finger, A. (1992). “Forbidden fruit”. *New Internationalist*, 233(July), 8-10.
- Frank, A. W. (1991). “For a sociology of the body: an analytical review”.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36-102.
- Garland-Thomson, R. (2002).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NWSA journal*, 14(3), 1-32.
- Goffman, E. (1967). “스티그마 : 장애의 세계와 사회 적응”. 윤선길, 정기현 (공역). (2009).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NY: Ballantine.
- Lloyd, M. (1992). “Does she boil eggs? Towards a feminist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7(3), 207-221.
- Maxwell, J. A. (2004).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An interactive approach”. Sage.
- Moin, V., Duvdevany, I., & Mazor, D. (2009). “Sexual identity, body ima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with and without physical disability”. *Sexuality and Disability*, 27(2), 83-95.
- Montette, D. R., Sullivan, T. J., & DeJong, C.R.(2011). “Applied Social Research: A tool for the human services (8th ed.)”. Belmont, CA: Books/Cole.
- Montgomery, M. J. (2005). “Psychosocial intimacy and identity from early adolescence to

-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3), 346–374.
- Morris, J. (1991). “‘Us’ and ‘them’? Feminist research, community care and disability”. *Critical Social Policy*, 11(33), 22–39.
- Rimmer, J. H. (1999). “Health promo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merging paradigm shift from disability prevention to prevention of secondary conditions”. *Physical therapy*, 79(5), 495–502.
- Schulenberg, J., Wadsworth, K. N.,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1996). “Adolescent risk factors for binge drinking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variable—and pattern—centered approaches to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659.
- Shakespeare, T., Gillespie-Sells, K., & Davies, D. (1996). “장애학의 쟁점”. 이지수 역(2013). 서울: 학지사.
- Shakespeare, T. (2013).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evisited”. Routledge.
- Shilling, C.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2011). 서울: 나남.
- Stake, R. E. (1981). “Case study methodology: An epistemological advocacy”. “Case study methodology in educational evaluation”. Minneapolis: Minnesota Research and Evaluation Center, 272.
- Shur, L. (1998). “Disability and the psychology of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9(2), 3–31.
- Tanner, J. L., & Arnett, J. J. (2011). Presenting “emerging adulthood”: What makes it developmentally distinctive? In J. J. Arnett, M. Kloep, L. B. Hendry, & J. L. Tanner (Eds.), “Debating emerging adulthood: Stage or process” (pp. 13–30).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A., & Kent, G. (2001). “Adjusting to disfigurement: processes involved in dealing with being visibly differ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5), 663–682.
- Wiederman, M. W., & Hurst, S. R.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body image, and women’s sexual self-schema”.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4), 567–580.
-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결혼하지 않는 가족

2,30대 청년 비혼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기경서 윤유리 이예진 이준영 황윤지

결혼하지 않는 가족 - 2,30대 청년 비혼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기경서, 윤유리, 이예진, 이준영, 황윤지

목 차

1. 논의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연구 목적
 - 2) 연구 방법
 - 3) 심층인터뷰 대상자
3. 연구 내용
 - 1) 비혼 결정의 일반적 동기
 - 1-1) 책임감과 희생
 - 1-2) 경제적 부담 및 자녀 양육
 - 2) 비혼 결심 유지의 동인 (비혼 결심의 계기와 어떻게 다른가?를 중점으로)
 - 2-1) 지지그룹
 - 2-2) 성격적 요인
 - 2-3) 지역, 문화적 요인
 - 2-4) 가족의 압박 유무
 - 2-5) 경제적 요인
 - 3) 비혼가구에 대한 정책적 보완
4.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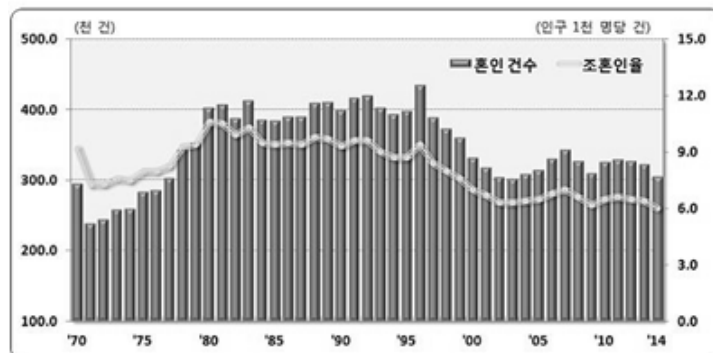
1. 논의 배경

예부터 ‘관혼상제’ 중 결혼은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관념은 최근 들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을 온전히 자신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지 13.5%에 불과했다. 비혼의 정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못한’ 상태로 규정하는 ‘미혼’이라는 단어 대신 쓰이는 ‘비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비혼은 소수만의 이색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제 주변에서 비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으며,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이들의 수도 점차 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1인가구는 총 511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40.8%가 미혼 가구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미혼 가구와 비혼 가구가 섞여 있을 것이며, 아직 비혼 가구에 대한 집계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혼인 건수(천 건)	308.6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증감(천 건)	6.1	5.7	16.3	12.9	-15.8	-18.0	16.3	3.0	-2.0	-4.3	-17.3
증감률(%)	2.0	1.8	5.2	3.9	-4.6	-5.5	5.3	0.9	-0.6	-1.3	-5.4
인구1천 명당 건수	6.4	6.5	6.8	7.0	6.6	6.2	6.5	6.6	6.5	6.4	6.0



[자료 1] 2014년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2015.04.23.)

매체에서도 비혼을 다루는 횟수가 근래 들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중에는 비혼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견을 거두어야 함을 밝히며,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등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이 많다.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것이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 '결혼하지 않을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가로막는 장벽', 앞서 나온 고용난이나 '워킹맘'에 대한 육아 지원책 미비 등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선택이 아닌 강요'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바뀌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 “입만 열면 기승전 ‘결혼’ 거절합니다”, 오마이뉴스, 2016.10.12.

비혼을 독신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혼은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혼을 택했다고 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애인과 동거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비혼 공동체를 꾸려 함께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비혼이라는 하나의 삶의 방식 안에는 여러 모습이 존재한다. 결혼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토록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너무 선부르지 않은가. (...) 그날 우리의 대화는 “나중에 늙어서 가족 없이 살다 죽으면 아무도 거둬주지 않을 테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자”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 끝났다. 비혼에 대해 신나게 떠들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 밖의 삶에 대한 불안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울타리를 뛰쳐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느슨한 안전망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리포트+] ‘독신’과도 다른 ‘비혼’... ‘비혼족’이 느는 이유 4가지”, SBS 뉴스, 2016.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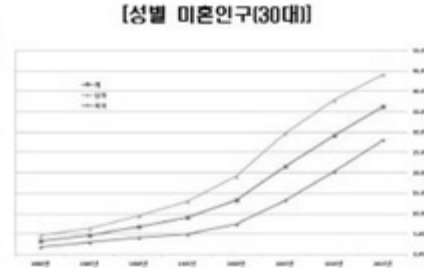
한편으로 이러한 기사들은 비혼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주로 부정적이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비혼자들은 기존의 통념상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꼽자면, 우선 비혼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다. 가령 ‘골드미스’ 등의 단어가 보여주듯 비혼자들은 자기 위주의 소비를 통해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되곤 한다. 이는 비혼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이나 육아 부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면이 부각된 결과이다.

그러나 비혼자들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이다. 부정적인 담론에는 비혼자들에 대한 편견과 비혼을 사회문제시하여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전력이 내포되어 있다. 비혼은 ‘예민함, 높은 자존심, 지나친 경쟁의식’ 등의 단어들과 연관되곤 하였으며, 이 또한 비혼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바깥으로부터의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비혼자를 자유로운 소비자로 보는 긍정적인 담론 또한 비혼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자기계발과 통제에 힘쓰게끔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연, 2015)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비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나 자기 관리 등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혼자들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생산가능 인구 유지라는 정부의 목적에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만큼,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혼자가 증가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점차 늘어가고 있는 비혼 인구를 감안할 때 결혼 여부,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비혼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모든 연령에서 미혼인구비율 증가, 특히 30대 증가율(7.1%p)이 가장 높음

- 미혼인구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 특히, 30대가 2010년 29.2%에서 2015년 36.3%로 7.1%p 증가로 가장 높음
 - 남자는 40대(7.3%p), 여자는 30대(7.7%p)가 가장 많이 증가
- 연도별 미혼인구비율(30대)
 - 13.4%(00)→21.6%(05)→29.2%(10)→36.3%(15)



[자료 2]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6.09.07.)

특히 결혼과 출산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혼은 주거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거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최근 들어 국내의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비혼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 주된 가구 유형은 1인가구임

-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2010년 2.68명보다 0.15명 감소
 - 읍·면·동별 평균 가구원수를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읍지역은 0.14명, 면지역은 0.13명, 동지역은 0.16명 감소

< 표 40 > 가구 수 및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1990~2015)

(단위 : 천 가구, 명)

구 분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0년 [※]	2015년 [※]
일반가구(A)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7,656	19,111
일반가구원(B)		42,783	44,028	44,712	45,737	46,651	47,372	48,340
평균 가구원 수	전 국 (B/A)	3.77	3.40	3.12	2.88	2.69	2.68	2.53
	읍 부	3.86	3.37	3.10	2.87	2.68	2.68	2.53
	면 부	3.74	3.12	2.79	2.50	2.33	2.37	2.24
	동 부	3.76	3.45	3.18	2.93	2.74	2.72	2.57

[자료 3]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6.09.07.)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족 구조가 붕괴되면서, 비혼자들은 1인 가구 뿐 아니라 원가족이나 친구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비혼자들은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셰어하우스처럼 다양한 방식의 거주와 가족 구성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청년 계층에 걸맞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실제로 선택하는 주거 형태 등의 분석을 통해 그 결과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비혼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는 주로 고학력 3, 40대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심정

미. "비혼여성에 관한 연구: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미선.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등) 이러한 연구에서 분석된 비혼 선택의 주 이유는 결혼 이후에 여성으로서 겪는 불평등한 상황들이었다. 즉 여성으로서 갖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중된 부담, 경력 단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이 그 당시 여성들로 하여금 비혼을 선택하게 한 이유로 꼽혀 왔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도 바뀌었지만, 비혼자들이 겪는 문제들은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비혼을 선택하게 하는 큰 이유이다. 바뀐 것이 있다면, 지금은 이전만큼 결혼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 있지 않고, 비혼을 선택하는 원인이 하나로 묶기 힘든 만큼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여성만이 아니라 2, 30대의 청년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경향성을 반영하여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으로 반드시 성별을 두지 않고 보다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연령대도 3, 40대가 아닌 2, 30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의 연구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당시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현상인 여성 비혼과 이에 따른 사회적 맥락을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최근의 연구들 역시 대부분 여성 비혼을 주제로 삼는 것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여성 비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남성 비혼자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는 남성이 훨씬 많아졌는데, 비록 이들이 여전히 비혼 여성에 비해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현상이 새로이 등장한 것인 만큼 그 추세를 주목하고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았다. 우선 첫번째로, 주로 3, 40대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중반에 이르는 시기를 결혼적령기로 상정하여 그 시기를 지난 이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비혼자가 자신의 비혼 결정을 보다 이른 시기인 20대에 내리고 이에 대한 인생 계획을 마련한 경우 그들의 비혼 선택 계기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사회초년생으로 많은 변동을 겪게 되는 20대에 비혼을 고려하거나 선택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계획, 직업, 주변인들과의 관계 또한 이에 맞춰 재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선택적 분석이 비혼자의 생애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해 보인다.

두번째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고학력이며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외 계층에 속하는 인구가 비혼을 선택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의 청년 비혼자들의 경우 학력이나 계층에 무관하게 전 소득 범위에 걸쳐 비혼자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한정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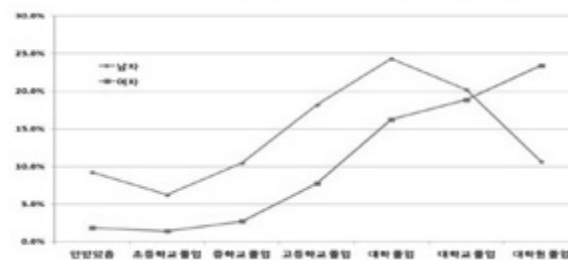
남자는 대학교(2~3년제)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24.3%)이 가장 높고, 여자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인구(23.4%)비율이 가장 높음

- 교육정도별 미혼인구비율은 보면, 남자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미혼인구 비율이 증가하다가, 대학교(2,3년제) 졸업을 정점(24.3%)으로 감소하고
- 여자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인구도 계속 증가하여 대학원 졸업 인구의 미혼인구비율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7 > 교육정도 및 성별 미혼인구(30세이상) (2010, 2015)

구분	2010년			2015년		
	계	남	여	계	남	여
미혼인구비율	10.5	14.3	7.0	13.2	17.1	9.4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2.8	8.2	1.4	3.2	9.3	1.8
초등학교 졸업	2.4	5.0	1.0	3.1	6.2	1.4
중학교 졸업	4.9	8.5	2.0	6.2	10.5	2.7
고등학교 졸업	10.8	15.4	6.4	13.0	18.2	7.7
대학교(2,3년제) 졸업	18.0	21.4	14.3	20.3	24.3	16.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16.7	17.4	15.6	19.7	20.2	18.9
대학원 졸업	13.5	9.6	21.7	15.4	10.6	23.4

< 그림 5 > 교육정도 및 성별 미혼인구(30세이상) (2015)



[자료 3]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6.09.07.)

세번째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급증하는 남성 비혼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화는 각 시대에 적절한 배경의 분석을 요구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70년대에 출생하여 9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현재의 청년층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발전 과정과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세대에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현 세대와 다른 세대경험을 해온 만큼 현재 청년 비혼 인구의 의미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어난 지금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조망하는 것이 동시대 청년의 비혼에 대해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른 나이에 비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인 비혼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 바탕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번 연구는 청년 연구자 본인들의 주변에서 쉽게 목격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간과되고 있었던 청년 비혼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인 도움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2,30대 청년 비혼자들의 비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비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비혼 결심을 유지하는 동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비혼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30대 후반 이상의 비혼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0대 및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비혼을 선택한 대상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둘째, 청년 비혼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언론들이 청년층의 비혼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청년들을 소위 삼포세대, 오폐세대, n포세대¹⁾ 라는 이름으로 범주화 하여 결혼하지 않는 현상의 배경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청년층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난 청년 비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비혼가구에 관련한 국내외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청년 비혼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첫번째 목표인 청년 비혼자들의 비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한 주요 분석 자료는 심층인터뷰의 내용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4명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인터뷰는 대략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범주화 하여 연구 결과로 제시했다. 또한 비혼가구의 실태와 비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언론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인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인 비혼가구를 위한 국내외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비혼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실

1) 미래가 불안정해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등 포기하는 것이 N개라는 뜻의 신조어.

[참고] “프리터족, 그리고 달관 세대와 N포세대”, 오마이뉴스, 2016.04.28

질적인 정책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최종적인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3) 심층인터뷰 대상자

가명(나이)	성별	현 거주지	직업
A(29세)	남자	서울	광고회사
B(31세)	남자	충남 당진	자동차회사
C(27세)	여자	서울/경기	IT계열회사
D(26세)	남자	서울	웹툰 작가

3. 연구 내용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비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비혼 결정 사유를 크게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또다시 5가지로 분류하였다. 자발적 비혼의 하위항목은 ‘결혼 생각 없음’과 ‘결혼 시기가 아님’으로, 비자발적 비혼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 ‘결혼이 주는 부담’,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기회 상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터뷰이들의 경우 위에 제시된 5가지 항목의 일반적인 이유들과 함께 스스로의 가치관 및 주변 환경의 상황이 비혼 선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비혼 결정의 동기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목해왔던 이유와 크게 다르진 않았으나, 인터뷰이들 모두 비혼자로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1) 비혼 결정의 일반적 동기

1-1) 책임감과 희생

인터뷰이들은 특정한 계기로 인해 비혼을 선택했다기보다 각자의 삶에서 누적된 경험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 고민을 한 결과로서 비혼 결정의 동기를 설명했다. 인터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본 결과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이들 모두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따라오는 책임감과 희생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은 희생”, “뭔지 모를 두려움”이라는 말을 통해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방식의 가족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여태까지는 결혼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욱 크다고 여겨져 왔다. 가족을 만들기 전까지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던 개인은 결혼이라는 통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숙된 어른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은 가족 간의 만남이기도 하다. 양가의 결합을 통해 가족의 규모가 두 배 확장됨으로써 개별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울타리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은 언제나 1차적인 안전망으로서 작동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체계를 대체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성장해왔고,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희생과 기회비용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안정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더 이상의 책임감은 가지고 싶지 않고.”라고 얘기한 A의 이야기, “제일 큰 이유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였어요. 결혼이란 게 가정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라고 대답한 D의 답변에서 가족을 만드는데 따르는 책임감과 희생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담감은 결혼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하기 싫은 일들’과 결부되어 결혼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B의 경우,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전에 축의금을 많이 뿌리는 관례들과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드는 많은 노력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 즉,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결혼이 매우 중요한 관례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현재의 청년들에게는 스스로를 사회적 관습에 맞추는 것보다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20대에 본인의 성정체성을 무성애자로 정의내릴 수 있었던 것이 비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D의 경우에도 “결혼에 대해서는 굳이... 저는 그냥 혼자가 좋아요. 누구와 같이 살면 좀 피곤하고,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요.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던가 하는 거창한 이유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라고 대답하며 무엇보다 개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비혼 결정의 기타 요인으로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들이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거주함으로써 결혼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음을 얘기하기도 했다. C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생활이 많이 침범 당하는 시골에 살았다면 비혼으로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본가가 부산이던 A의 경우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

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B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 소도시의 환경과 수도권 환경을 비교하면서,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게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태가 좋다고 했잖아요. 할 게 무궁무진하니까. 퇴근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니까.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엔 근방에 다 논, 밭이고 술집 조금 있고. 일단 퇴근하면 사람들이 다들 ‘뭐 할까’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윤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빨리 해서 애기 낳고, 가정 꾸려야 그게 낙이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1-2) 경제적 부담 및 자녀 양육

청년 구직난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층들이 비혼을 결정, 혹은 결혼을 포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생의 과업에서 결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비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A의 경우,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라. 요즘 안 그래도 취직 준비하는 생각하는 애들 여러 명인데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계속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경제적인 이유.” 라며, 특히 주변의 또래 남성들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경제적 빈곤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소로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경제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애기를 낳으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강아지 키우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드는데, 강아지랑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애기 키우면 뭐, 20년을... 또, 저희가 케어 해주는 만큼 자식이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를 보면 엄마한테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럴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애기 낳아보고 그때부터 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아는데. 그때 가면 또 몇 년이나 효도를 하겠어요?”라는 B의 얘기를 통해 자녀 양육의 부담은 돈과 시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뿐더러, 현실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B의 경우에는 혹시 본인이 미래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만큼은 절대 낳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육 부담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의 불균등한 양육 부담과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제약은, 비혼 여성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한 비혼 결정의 동기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며,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까 전에 얘기 했잖아요. 일단은 여자 입장에서는 막 꾸미고 싶고, 회사 가서 일하고 싶은 나이

에 집에서 애기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애기 보다 보면 모든 애정이 애기한테 가고. 남편은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했는데 그 사람한테 애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애기를 낳아서 생기게 되는 외로움? 또, 배우자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인터뷰이 B

2) 비혼 결심 유지의 동인 (비혼 결심의 계기와 어떻게 다른가?를 중점으로)

때로는 결심을 하는 것보다 결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일 때가 있다. 결심은 한 순간의 일이지만, 유지는 사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새로운 결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도전을 받게 만든다. 특정한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와 이를 유지하기로 하는 근거가 동일할 때에는 결심을 강화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유지하기로 하는 요인들이 충분치 않을 경우 그 결심은 약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혼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

2-1) 지지그룹

여기서 지지그룹이라 함은 비혼을 지지하는 친한 친구들, 혹은 같은 미래상을 공유하는 느슨한 연대의 커뮤니티 또한 포함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직장, 가족, 친구 등 여러가지 그룹으로 생활을 구성한다. 타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결혼을 중용하는 근거 중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미래의 삶을 상상했을 때 지지그룹과 함께 일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경우, 즉 지지그룹이 뚜렷한 경우 인터뷰이들은 비혼을 조금 더 진지한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좀 더 비혼결심이 확고한 인터뷰이 A(26)의 경우, “비혼이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지내서. 나는 그 친구들이랑 늙어서 계속 노는 게 생각이 나서”라고 발언하거나, “계속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 꼭 비혼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는 생각인 사람들이 있음”(인터뷰이 B) 이라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타인, 즉 성애적인 관계를 공유하는 파트너의 반응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애인이 비혼 결심을 이해하느냐? 에 대한 답변 여부가 인터뷰이의 결심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인터뷰이 A의 경우 파트너가 비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결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크게 대화로 발전된단다(그렇지 않다)”

인터뷰이가 특별히 성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파트너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관계에서 파트너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경우, 비혼 결심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파트너가 헤어짐까지 불사하는 경우는 비혼 결심과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B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현 여자친구)을 놓치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혼을 원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 안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관계가 유지된다면 결혼 안하고 싶죠.”. 이런 경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 특히 비혼을 결심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른 경우가 가장 많다. “저는 결혼을 안하는게 베스트인데. 저는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여자친구)의사도 좀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컨드는 결혼을 하되, 시댁, 친정하고 독립적이고. 애기는 안 낳는 걸로”

2-2) 성격적 요인

- 관습에 반응하는 태도

당연하게도 인터뷰이들은 모두 관습적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 혹은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태도를 먼저 취했다. 어떤 관습인지는 인터뷰이마다 달랐지만, 비혼에 대한 인터뷰이 만큼 가부장주의, 성애주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인터뷰이 A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싫었던 것이 현재의 비혼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하거나,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남녀 성역할에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관습적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가부장적 사회 그걸 그대로 좀 계속해서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싫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고. 개들은 거기서 딱히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

인터뷰이 C의 경우 한국사회의 연애지상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애지상주의든, 미디어나 어른에 의해서 연애지상주의가 자연스럽게 강요되었다.” 혹은 “(한국에서는) 이성애 중심주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발언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인터뷰이 중 가장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큰 B 또한 관습적으로 결혼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당연히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게.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D 또한 “관습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당연한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라는 발언을 통해 본인은 관습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쳤다.

- 책임감

책임감 또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 자체가 큰 부담감을 요구하는 행위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떤 것을 한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 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을 많이 보였다. A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 혹은 가정 내에서 본인이 분담해야 할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내가 그렇게 잘 책임감 있게 잘 키울 것 같은 생각도 안 들고” 혹은 “(결혼 한다면)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원하는 일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게 뭔가 포기를 해야 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거면 결국 이걸 못하게 될 것 같거든. 가족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와 같은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B 또한 이와 비슷했다. “앞으로 지금의 선택을 가지고 60년 가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는 본인이 자신의 성격을 판단하고 타인의 인생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충실하기가 힘들다. 누구랑 만나도 나는 그럴 것 같다.” “멀쩡한 사람 인생 망가뜨릴 이유는 없으니까.” 와 같은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뷰이들은 동일하게 “더 이상의 책임감은 가지고 싶지 않다(인터뷰이 A)”라는 태도를 취했다.

- 자기에

자기에 또한 변수로 작용한다. 혹은 이것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 비교해 설명하는 경우가 흥미로웠다. 인터뷰이들은 아이가 가정을 묶는 유대를 생성한다는 요소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희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한테 애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게 싫은거예요.”, “저는 애기를 가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애기를 싫어해요.”, “애기를 키우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인터뷰이 B) 혹은 A와 같이, “개한테 들 돈을 나한테 쓰면 어떨까”,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유전적으로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인터뷰이도 있었다. “저 같은 애가 한 명 더 나오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꼭 (유전자를) 남겨야 하나?” 라고 대답한 D의 경우이다.

2-3) 지역, 문화적 요인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는 말이 도시의 태동과 함께 나타난 것처럼, 도시는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무관심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이 무관심은 ‘한국의 관습’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인터뷰이가 확실히 서울 혹은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비혼 결심을 하거나 혹은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근래 큰 인기를 끌고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었던 드라마 <혼술남녀>의 인기는, 대도시에서

서 혼밥(혼자 밥 먹는 것) 하거나 혼술(혼자 술 마시는 것)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료 4] tvN의 드라마 '혼술남녀'

지방 출신의 인터뷰이의 경우, 고향에 계속 머물렀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이들은 아직도 가끔 고향을 방문하고, 친구나 혹은 지인의 소식을 간헐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A의 말처럼 서울은 뭔가 재미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도시로 묘사된다. “뭔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은데 재미있는 걸 할 때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서울에 와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적으로나 그런 거.”. 또 다른 농촌 도시가 고향인 인터뷰이 B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태가 좋다고 했잖아요. 할 게 무궁무진 하니까. 퇴근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니까.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엔 근방에 다 눈, 발이고 술집 조금 있고, 일단 퇴근하면 사람들이 다들 ‘뭐 할까’ ‘할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빨리 해서 애기 낳고, 가정 꾸려야 그게 낙이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출신인 인터뷰이 C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비슷했다. “서울이 아니었으면 비혼으로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4) 가족의 압박 유무

가족은 유교사회인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그룹이다. 특히 효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한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간의 결합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배우자를 선택 할 때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사회적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비혼 결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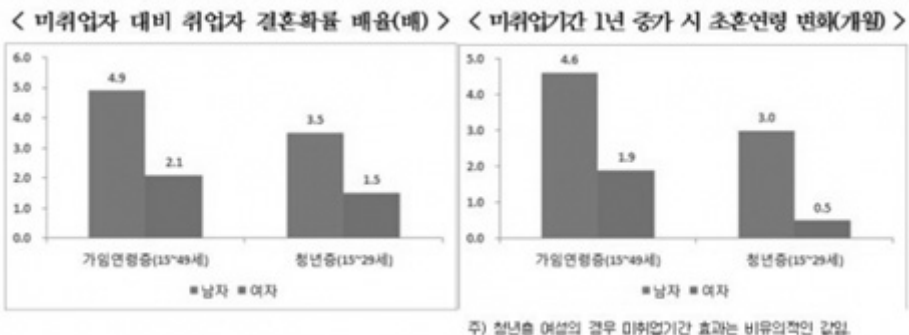
인터뷰이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태도를 취한다. “니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 “요즘 세상에 결혼 안해도 되지”라는 A의 발언이나, 어머니를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묘사한 C의 경우가 그렇고,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도 있었다. “가족은 저에게 그다지 신경을 안써요”라고 표현한 D의 경우가 그렇다. B의 부모님 또한 “그런 게 좋으면 알아서 해봐”라며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B 또한 어머니를 묘사할 때 “생각이 트이셔서”라는 말로 묘사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 압박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견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가정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A)”, “어머니가 애인이 없니 종종 물어본다(C)”.

2-5)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저축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는 태도를 취하며 따라서 소비습관 또한 그런 경우가 많았다. A의 경우 “난 그냥 월급 받으면 다 쓰는 스타일이야. 저축 안 하고. 그니까 뭔가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B의 경우도 비슷했다. “비혼인 장점이, 그런걸 생각 안해도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해도 되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남는거 저금하고 가져온 돈 쓰면 되는거고. 그런 계획(경제적인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이와 상반되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더욱 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C의 경우, “혼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여유와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인터뷰이들은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큰 돈이 들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결혼을 하기 힘이 든다는 점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청년 실업과 늦어지는 첫 취업이 비혼 유지의 요인으로 반강제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저도 월급이 되게 적은데 모을 돈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게 사실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한 돈을 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냥.”라고 응답한 A의 답변이 이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자료 5] 한국경제연구원, 〈미취업자 대비 취업자 결혼확률 배율 및 미취업기간 증가 시 초혼연령 변화〉

3) 비혼가구에 대한 정책적 보완

우리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의 인구조사통계에서 추산되는 1인가구의 수치로 비혼가구에 대한 입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비혼가구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다각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찾는 것이다. 비혼가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부재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비혼가구를 미혼가구로 같음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눈치 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비혼주의자들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왜 이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훨씬 편리한 일이기 때문일 것 같다.

결혼의 긍정적 기능을 생각해보자. 사랑, 꿈, 희망 등 개인적인 가치관은 별개로 한다면, 사회는 기혼자들로 구성되었을 때 더 안전하게 굴러간다. 우리 사회에서 기혼자들은 미혼자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부여받으며, 가장이라면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를 갖는다. 기혼자들이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부의 노력 없이도 어느 정도 별 탈 없이 운영될 수 있다. 부모가 노령화 되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경제활동을 시작한 자녀가 가장이 되어 가구를 운영하고 더불어 경제적 활동을 마친 부모까지 부양한다. 하지만 미혼자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중단했을 경우, 이들을 부양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몫이 된다. 책임질 식솔들이 없다보니 재산상속은 커녕 가진 돈도 죽기 전에 모두 써버리는 편이 나올 것이고, 장기적인 저축이나 투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느 편을 선호할까.

그래서 정부는 결혼을 장려한다. 가끔 지자체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미팅을 주최하는 일도 비슷한 이유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 결혼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결혼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비혼가구를 미혼가구로 같음하고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 비혼을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고 아무런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비혼자들이 ‘언젠가 기혼’으로 치환될 것이라 막연히 믿는 우리 사회의 안일한 태도 앞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는 전달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혼가구의 상황을 추측하기 위해, 통계청의 1인가구 조사에 의존해봐야 한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2%로 수치상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비혼가구는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혼이 여성의 적극적 사회 진출에 따른 일방적 결과라는 사회적 통념에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의 비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는 성별을 초월해 존재하며, 여기에 비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18.3%로 70대 이상 17.5%보다 높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오늘날 70대 이상의 1인가구는 반려자와의 사별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독거노인일 경우가 많고, 30대의 1인가구는 대부분 비혼가구와 미혼가구일 것으로 생각된다. 늦어진 결혼적령기와 경제적 독립시기를 고려한다 해도, 대부분의 기혼남녀가 30대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20대 1인가구(17%)보다 상승하는 30대 1인가구의 비율은 오늘날 미혼가구 만큼이나 비혼가

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일반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로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1인가구로 구성되었다. 지역의 특성 상 학생들과 사회초년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1인가구가 살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직장인의 위치와 상관없이 관악구를 찾는 1인가구들도 많다. 1인가구가 주거할 만 한 작은 평수의 공간들이 많으며, 서울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도 낮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도 낮기 때문에 강남권의 직장인들, 취업준비생,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수는 520만으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28%), 영국(28.5%)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일본(32.7%)과 노르웨이(37.9%)를 따라잡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비혼가구에 대한 다른 지역의 정책들을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인가구가 60%를 차지하는 스톡홀름에서는 페르드크네펜이라는 공동주거지역이 있다. 1989년에 조성된 페르드크네펜은 혼자 사는 삶을 택한 이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부엌, 화장실, 정원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갖는다. 40대 이상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보통의 실버타운과는 다른 자발적 1인가구 공동체의 특성을 지닌다.

미국에는 1987년 시작된 싱글 룸 거주(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이 있다. 노후한 호텔이나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10년 간 공공임대 해주는 1인가구 대상 주택지원정책으로, 거주자는 페르드크네펜에서처럼 소규모의 개별 공간에서 살면서 공유 공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집세를 일부 부담하고, 운영자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주거 형태이다.

국내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가구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주택분양을 받기 어렵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만 30세 미만 1인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갖고 있는 1인가구에게 주택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해주는 역모기지 제도 또한 만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혼가구가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공동체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아직은 그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비혼가구를 수용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세어형 기숙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는데, 낡은 고시원이나 여인숙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공공기숙사 형태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 7월 사이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모르겠으며, 그 규모도 70가구(2016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고시원의 구조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열악하며, 국내의 기숙사나 고시원은 워낙 한시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비혼가구의 정주공간으로서 세어형 기숙사는 적합해 보이지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물량(30% 이내)을 자치구 특성에 맞게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청년 비혼주의자들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는 이삼십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이 12.7%에 불과한 까닭에 애초에 일정 물량을 확보해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최근의 국정감사(10월)에 따르면 해당 계획(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의 집행률은 39%에 불과했고 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에서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청년정책들의 지원 범주에 비혼가구의 존재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과 계획, 사업의 대상은 대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2% 수준, 청년주거빈곤층 등이며, 청년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서울시의 청년 통장은 저축목적 자체를 결혼자금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청년비혼자가 대학생인 동시에 주거빈곤층이라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순 있겠지만, 비혼자로서는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휴학생, 취업준비생은 상대적으로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개념들이고, 따라서 해당 정책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계획될 것이다. 하지만 비혼은 인생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된 정책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비혼자의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혼가구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은 훗날 비혼가구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비혼의 삶을 꾸려 나가기 어렵게 된다면, 그 책임은 비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나눠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비혼주의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미리부터 도울 수 있다면, 각자의 안락한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비혼을 결심한 한 청년이 있다. 그는 혼자의 삶이 편했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며,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은 죽어라 월급을 모아 50세쯤 되어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텐데, 그냥 내 한 몸이나 챙기면서 즐겁게 살고 싶었다. 전세 자금이 없는 20대에 적은 월급의 반, 대략 100만원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 반은 생활비로 이것저것 쓰다 보니 그가 모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보면 청년은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덧 집도 가족도 없는 독거노인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청년은 거리의 노숙자가 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미리부터 이 청년을 도울 수 있다. 비혼주의자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이 있다면, 매달 100만원을 똑같이 내서 60년을 살 수 있다면, 매달 넣은 돈이 퇴직 후 적은 연금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집이 된다면 어떨까. 적어도 전자의 삶 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혼주의자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필요 없다. 죽고 나서의 내 집보다는 죽을 때까지 살 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가족이 없어도 비슷한 생각의 친구들이 주변에 평생 있어준다면 꽤

괜찮은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날의 비혼주의자 청년들이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을지, 혼자서 얼마나 행복하게, 혼자서 얼마나 우울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을 테고, 그 삶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때 그들은 철저히 각자의 노력만으로 행복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비혼은 미혼에 조금 더 주체적인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서 자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일부 고학력 여성 워커홀릭들의 기현상이나 결혼 실패자들의 자기변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삶을 함께 응원해야 한다.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형 공동주택이나 마을공동체 등이 비혼주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해봐야 하며, 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20대 청년 계층에서 ‘비혼’이라는 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있는 종류의 생활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의 비혼 선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비단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비혼자들은 모두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만으로 비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비혼을 결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었지만 은폐되어 왔던, 가부장제 중심의 가족체계가 갖는 문제점들로 인해 이들에게 자리잡은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고학력 3, 40대 여성에 국한되었던 비혼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드러났던 여성 불평등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들이 진단했던 해당 집단의 비혼 선택에 대한 주요 요인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가사노동에 대한 가정 부담과 같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족체계에서 여성에 지워지는 갖가지 의무들이었다면, 이러한 의무들에 대한 부담감은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층에도 일정 부분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 인터뷰이들도 대부분 가부장제적 가정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비혼 결정의

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추정에 신빙성을 부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인 남성 비혼자들의 등장은 추가적인 시사점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생계나 주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했으며, 이는 남성들에게 가정 내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가정 밖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감내와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풍조와 점차 불안정해지는 고용 안정성은 남성에게도 이런 인내가 무용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인식은 점차 남성들에게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가정 경제 내에서의 전적인 책임 부담을 의문시하게 만들고 있다. 20대 청년 비혼 남성 인구의 등장은 그러한 가부장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최근 들어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인해 가시화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황이라는 요인이 점차 20대 청년 남성 인구에게 기존의 가부장제가 요구해 왔던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면서도, 문화적 억압으로 인해 여전히 그러한 가부장제적 성역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대 청년 남성 인구의 비혼 선택은 이러한 사회 풍조에 대한 하나의 소극적 저항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의 가족 및 인구 정책이 단지 인구 절벽 문제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서 전통적 결혼 제도의 복원과 장려를 목적으로 할 것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장기간 은폐되어 왔던 가부장제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나, 여전히 여성에 편중되고 있는 육아 부담을 약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보육 시설 확충 등의 미봉책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가정(비혼 가정, 성소수자 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이 편안하게 유지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남성으로 하여금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나눠 질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사에 대한 책임은 보다 강조하는 평등한 가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보다 시급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작금의 사회 변화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보다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 마지연(2015),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의 사회적 담론 연구: 주요일간지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 2015
- 변미리(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미래연구센터
- 백미록(2015),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30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M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논문
- 서울특별시(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통계청(2016), 2015 전국인구주택총조사
- “입만 열면 기승전 ‘결혼’, 거절합니다”, 오마이뉴스, 2016.10.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0231, “[리포트+] '독신'과도 다른 '비혼'...'비혼족' 이 느는 이유 4가지”, SBS뉴스, 2016.12.0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1829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